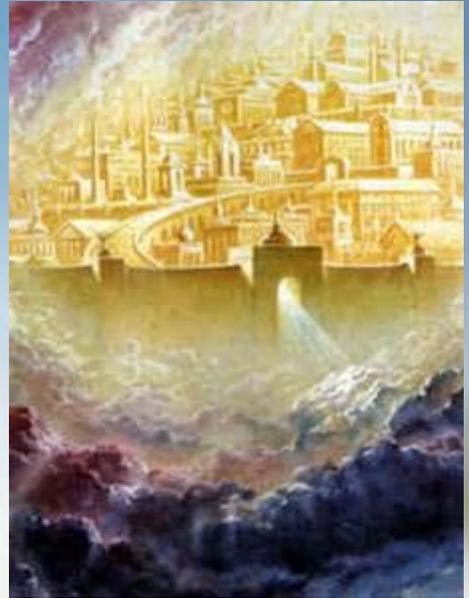


요한 계시록 해설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St. John
By The Rev. William Bruce

윌리엄 브루스 지음 / 배제형 옮김
도서 출판 벽옥

성경 해설

요한 계시록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St. John
By
The Rev. William Bruce

윌리엄 브루스 지음
배제형 옮김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ST. JOHN

BY THE
REV. WILLIAM BRUCE

JAMES SPEIRS
36 BLOOMSBURY STREET, LONDON
1877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

요한계시록 21: 5

차례

서문-----	11
제1장-----	13
제2장-----	52
제3장-----	88
제4장-----	123
제5장-----	137
제6장-----	149
제7장-----	163
제8장-----	178
제9장-----	190
제10장-----	203
제11장-----	210
제12장-----	237
제13장-----	258
제14장-----	272
제15장-----	283
제16장-----	289
제17장-----	297
제18장-----	315
제19장-----	331
제20장-----	353
제21장-----	363
제22장-----	421

서문 (Introduction)

거룩한 성경의 책들 중에서 계시의 이 책은 염려스러워 하면서 탐구할 수 밖에 없게 하는 깊은 주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의 해석을 세세하게 담은 저술도 흔치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연유는 이 책 자체의 속성 때문이다. 예언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이 책의 글들은 인간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시키고 재간을 잘 부리는 인간의 능력에 폭 넓은 기회(scope)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의 설명이 불확실한 채 다양해진 것은 한 가지 이런 원인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모세가 유대인에게 베일로 가린 예언자였듯 요한은 기독교인에게 그러했다. 고린도 후서 3장 13-15절을 읽어보자. “우리는 모세처럼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너울에 가리워져서 우둔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옛 계약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너울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로소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너울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볼 수 없으면서 폐지되고 만 것은 이스라엘 교회라는 하늘의 처방이었다.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볼 수 없으면서 폐지되는 것은 기독교회라는 하늘의 처방이다. 지금 말한 기독교 처방(Christian dispensation)은 기독교신앙(christianity)을 뜻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끝이 결코 없고 대대로 더욱 힘과 영예가 증가해 갈 것이다. 그러나 이 교회의 첫 처방은 사라지고 또 다르고 더 나은 처방을 수단으로 계승되어진다. 이스라엘 교회의 처방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으로 폐지되었듯이, 기독교 처방은 그분의 두 번째 오심으로 폐지되어 진다. 이 대목에 기독교인 내지 기독교 해설자의 큰 착오가 놓여 있다. 그들은 주님의 오심이 세상의 파멸에 대한 신호로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문의했고, 그분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상하도록 격려하신 시대의 끝(the end of the age, alwv)이라는 용어는 그들의 후계자들로 인해서 세상의 끝(the end of the world)으로 바뀌고 말았다. 참으로, 시대 또는 처방의 끝 그리고 그분의 두 번째 오심에 관한 주님의 서술은 글자대로에서 그분을 이해하려는

직역주의자들로 하여금 이런 물질계의 종말을 예견하도록 인도했는지 모른다. 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주지 않고 별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하늘과 땅 자체가 사라지는 종말이다. 그러나 성경의 비유적 언어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예견이 예비적으로 성취되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글자대로 이해했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어째서일까? 그들의 마음이 소경이었기 때문이다. 과연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신약성서를 읽는데 있어서 이 베일은 벗겨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그분의 두 번째 오심에서 벗겨졌다. 이 사건이 계시록의 해석을 주었다. 이런 사항이 은폐되어 있었던 것은 주님의 허용하심의 법칙 때문이었다. 어떤 예언도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이 성취되기 전 명백하게 이해될 수 없었다. 어떤 교회도 그 교회의 끝을 확고 부동하게 쳐다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이것이 질책의 원인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당연하리만큼 필수적 사항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에게만 알려진 방법으로 그분의 슬기와 복주시는 목적을 작업해내신다. 이 작업을 우리는 지식을 수단으로 꾀방하려 들 뿐이다. 이 책의 참된 해석이 지금 알려져 있다. 그 이유가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이 이미 거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오심이 예언을 설명했다. 그리하여 그 신비를 밝히 알렸다. 이 책의 설명에서 보여주겠지만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은 대기의 구름(the clouds of atmosphere)안에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오심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분 자신의 신성한 인성(His own Divine Humanity)의 큰 영광과 권능 안에서 인간의 마음에 그분 자신을 보일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사건, 즉 말씀의 영적 의미를 밝히 알게 함으로 결과된다. 그분은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새로이 건설하시러 오신다. 첫 기독교회라는 처방은 옥좌에 앉으신 그분의 얼굴로부터 사라져 버린 땅과 하늘로 의미되고, 두 번째 기독교회라는 처방은 그 뒤에 요한이 바라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의미되고 있다. 요한이 본 것, 즉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진리와 사랑의 처방같이 새 교회(the New Church)에 관한 특유한 성경적 상징이다.

주석자들은 예언을 이끌어 가는 사건에 관해 오류 속에 있어 왔다. 그들은 각 사건에 종속되는 세부사항들의 본성에 관해 실수할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 이유가 계시록은 책의 시작으로부터 교회의 연속적인 역사를 말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상상해왔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계시록은 끝 시대에 있는 교회의 상태를 기술하고 있다. 더구나 계시록은 자연계에서가 아닌 영계에서 나타났던 교회의 상태를 기술하고 있다. 교회 상태의 표현(manifestation)이 거행되었던 영적 세계는 중간 영역 또는 영들의 세계(world of spirits), 즉 모든 영혼(soul)들이 들어가는 세계, 조금 짧던, 조금 더 오래 끌던 영들이 천국 또는 지옥으로 건너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다.

거기서 모든 심판은 거행된다. 자연계에서가 아닌 거기에 크고 흰 옥좌가 놓여 있다. 거기에서 죽은 자들은 인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 옥좌 앞에 서 있고 자기들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참으로 일반적 심판은 각 처방에 그 종말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 처방이 폐지될 때 새 처방이 개시된다. 심판 이전에 관련되어지는 계시록의 모든 것은 심판을 위한 준비를 묘사하고 있다. 심판 이후에 관련된 모든 것은 이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계승되는 것들의 새 질서를 묘사하고 있다. 이렇진대, 사도 요한의 환상에 관한 설명은 계시록이 취급하는 신성하고 영적인 주제를 이해하도록 정신적으로 계발된 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삶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바라보도록 영적 시야가 열리워진 한 사람에게 의해 가능했다. 사도 요한의 환상이 포함하는 비밀을 밝히 알려도록 자격이 주어진 오직 한 사람만이 이 묵시록을 열리게 했다. 그 열림이 주의 종, 이매누엘 스웨덴보리의 저술 (the Writings of the Lord's servant, Emanuel Swedenborg) 안에 있다.

1

1.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라고 공표하고 있다. 번역된 계시(Revelation)라는 단어는 명사나 동사 형태로 신약 성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외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자. 즉 판단, 심판(revelation) (로마서2:5), 나타나심(appearing) (베드로전1:7), 나타나심(coming) (고린도전1:7), 밝힘(계발, enlightening) (누가2:32) 등등이다. 이 단어를 글자 대로 보면 감추어 놓은 것을 들추어냄(폭로함), 비밀인 것을 발견하는 것을 뜻한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누가12:2). 그러므로 이 단어는 마지막 날에 불법을 까 벌리는 것을 표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7,8절을 보면,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하느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며, 또 멸망할 운명을 지닌 악한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그러나 그 악한 자를 붙들고 있는 자가 없으면 그 때에는 그 악한 자가 완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1장 7,8절을 보면, “괴로움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당신의 능력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느님을 거부한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처벌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악한 자에게는 태워 없애버리는 불로 오시지만, 의로운 자에게는 세련되게 하는 불로서 오신다. 이렇게 말해지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총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베드로전1:7,13). 이 문단들은 말씀의 적용과 의미 둘 다를 보여주고 있다. 계시란 교회의 상태 또는 종교의 상태를 드러내거나(disclose) 밝히 알게 함(reveal)이다. 이는 교회가 잘못된 행위로 어두워지고 악에 의해 썩어지면서 주님의 오심으로 교회나 종교가 회복되는 때 즉 마지막 날들에서 있어진다. 요한계시록 역시 밝히 알게 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은 해석이 필요하다. 미래의 사건들은 하느님에게만 알려진 사항이다. 그분은 미래의 사건을 미리 말하시어 그분의 섭리에 의존하고 그분의 약속에 신실함을 생생하게 견지하도록 해주신다. 그분의 섭리가 성취되어야 그분의 예언들은 밝혀지게 된다. 계시자인 그분이 정녕 그 계시의 해석자이다. 주님은 그분의 계시들을 그분의 종들을 통해 주신다. 계시가 선택된 매개체를 통하여 오듯, 해석 역시 그러하다. “하느님 스스로 해석하신다.”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는 무엇보다 먼저 그분 자신을 밝히신다. “드러나게 만드는 것은 빛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명백하게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명백하게 한다. 이 책은 계시된 하느님의 말씀을 마무리지어 완성하고있는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지상의 교회에 대한 마지막 처방이요 가장 나은 처방인 열두 기초를 가진 성을 지으시는 분이요 만드시는 분, 인간의 구세주 하느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는 것은 두번 말할 여지도 없다. 복음서는 육(flesh)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측면에서의 주님, 그리고 그분의 첫 강림 속의 교회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해놓고 있다. 묵시록(Apocalypse)은 영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측면에서의 주님, 그분의 두 번째 강림 속의 교회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더욱이 이 책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책으로서 공표 되고 있다. 비록 이 책의 첫 절에서 특별하게 사용한 위의 표현은 비단 묵시록에서만 독특하게 있는 형태는 아니고 말씀(The Word)을 구성하는 모든 책들에 공통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말씀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모든 것은 하느님에 의해 그분에게 주어졌다. 이 표현에는 하느님과 예수가 두 인격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지는 않다. 모든 점에서 그분 자신과 동일한 또 다른 신성한 인격에 계시를

주고 있다는 식의 생각을 우리는 품어 볼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는 신위(Deity) 속의 각기 다른 두 가지 본질에 관한 이름들이다 라고 이해할 때, “하느님이 그에게 주신”이라는 서술은 아주 명확한 것을 주고, 그것이 표현하는 진리는 중요하면서도 아름다운 가르침이라고 보여지게 된다. 영원한 하나님 또는 신성한 지혜로서의 예수는 창조나 구속함에 존재하시는 분, 계시록의 직접적인 저자이시다. 그러나 신성한 지혜 외에도 신위 속에는 또 다른 본질이 있다. 그 본질 안에는 계시나 창조의 근원이 있다. 그 본질은 신성한 사랑이다. 전능한 힘으로 운행되는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사랑은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고 그분의 지혜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다. 만물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수단으로 만물은 존재한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 뿐이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한다” (고린도전8:6). “그분은 만물보다 앞서 존재하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한다” (골로사이1:17). 이와 같이 신성한 행동의 법칙에 대해 주님 스스로 요한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가르치신다. “나는 무슨 일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다...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시는 일이다” (5:30,14:10). 진실로 주님께서는 그분 속에 거하는 신성에 의거하시는 바, 그분의 인성에 관해 위와 같이 직접적인 언급을 해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항들이 실제의 차이점을 만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성은 “말씀이 육이 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육으로 드러내셨던지, 그렇지 않았던지 말씀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그 자체로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으나, 오로지 말씀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사랑이 지혜 안에 있으면서 지혜를 수단으로 사랑 자체가 밝혀지고 드러내 보여지듯,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안에서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분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계시록을 요한에게 주신다는 첫 절의 선편에는 가장 숭고하고 귀감 되는 진리가 표현되고 있는 바이다. 그 진리는 이러하다. 즉 주 예수께서 그분이 선택할 종에게 건네시려 하는 예언은 그분의 영원한 신성으로부터 그분의 신성한 인성을 통하여, 또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그분의 무한한 지혜를 통하여 와지는 예언, 그러므로 이 예언은 주님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사랑과 지혜를 그분의 교회에게, 그 교회를 통해 전 인류에게 그분을 밝히시는 예언인 것이다.

하느님이 예수에게 주신 계시는 “곧 일어날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는” 것이다. 이로부터

이 예언은 교회 속의 사람들, 오히려 교회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마음의 단순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견지해 갈 수 있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의도되어 있다는 것이다. 주님의 종이라는 용어를 영적으로 볼 때 이는 진실한 자 또는 믿음 속에서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사랑 없이 믿음은 존재 할 수 없고 일이 없는 믿음과 사랑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사랑에 의해 일하는 믿음이 인간으로 하여금 주님의 진실된 종들을 만드는 것이다. 이 종들을 향해 계시록은 직접 말하고 있다. 이들만이 이 책이 취급하는 주제에 흥미가 있고 그들의 마음만이 이 책을 이해하게 하는 빛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의 신실된 종들만이 이 계시록의 “곧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다. 계시된 “일들”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려 하는 이 책에 함유된 것들이다. 이 일들은 교회 또는 인류의 종교적 상태에 관련된 일들이라는 것, 주님은 이 일들을 미리 보셨다는 것, 그 보신 것을 이 책이 밝히고 있다. 묵시록이란 미래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표현하는 말이다. 종교의 하강과 교회의 끝장, 이로 인해 주님의 재림이 필요하게 되고 재림의 결과로 종교가 회복되며 새 교회가 건설되고.. 등등이 계시록의 일반 주제이다. 계시록은 첫 강림으로부터 두 번째 강림까지에 있어지는 교회의 지속적인 역사를 주고 있지는 않다. 계시가 처음 있게 된 주님의 종에게 표현된 환상은 그 중 조금만이 희미하게나마 그의 시야에 열리어졌었다. 전체적 측면에서 이 책은 교회의 상태를 기술하고 있다. 교회 처방의 마감이 주님이 오시기 전 즉각 이루어지고 죽어지고 말 교회를 이어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으로 교회의 상태를 기술한다. 묵시록은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자 주어졌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 예언이 곧 성취된다고 말해진 이후 20여 세기가 흐르고 있다. 많은 주석가들이 입을 모으는 것은 아마 어떤 것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예언의 어떤 부분이 성취되었다고 확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다시 강조하는바, “곧”이란 어떤 사건이 오게 되는 어떤 시간과 관련이 없다. 거룩한 예언에서의 시대나 기간, 때, 등등은 시간에 대한 측정치가 아니라 상태와 관련되는 말이다. 많은 성경연구가들이 성경의 어떤 예언을 시간적으로 어림잡아 역사 시대에 꿰어 맞추어 보려 노력했지만, 그 성과는 아주 미미했을 뿐이다. 그럴듯하게 일치하는 듯한 사항이 다니엘의 예언 중 하나에서 발견되는데 그것은 하루를 한 해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칙을 넓게 적용할 경우 일관된 해석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사건들은 시간 안에서 발생하지만 사건 자체는 상태들의 결과요, 그 결과로부터 사건은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은 상태를 상징하고 자연계에서의 인간 삶이라는 사건은 그의 영적 삶 속에 있는 어떤 시간을 상징한다. 교회 상태에 관한 역사는 그 교회와 공존한 이들의 종교적 상태에 관한 역사이다. 이와 같이 성경 예언에 있는 시간들은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예언의 숫자들은 시간의 측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태의 품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의 예언에서 일찍 성취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을 때, 그 약속은 시간과 아무 관련이 없다. 본문의 “곧(shortly)”이란 확실하게(certainly)를 뜻한다. 이 책 속에 서술된 상태들은 확실히 발생한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분이 그 일들이 도래한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이 책의 서두에서 “곧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 책의 끝에서 “내가 곧 가겠다” 라고 예고하고 있는바, 이는 교회가 그것의 순수함으로부터 멀어져가므로 그것을 부동적인 기반 위에 새로이 건설하기 위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책의 앞 뒤 모두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들은 다른 부분의 신약 성서에서도 예보되고 있다. 비록 이 예보들에 대해 이해가 분분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공통된 신조 중 하나임은 틀림없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가 순수함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 두 사항에 대한 각 교파의 차이는 그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는 것뿐이다.

이 책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당신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려주셨다.” 구약성서의 예언에 대한 천국의 특사는 여호와의 천사라 불렸다. 그러나 신약 성서의 예언에 대한 특사는 예수의 천사라 불리고 있다. 예수와 여호와는 똑같은 분이나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는 신성한 인간성에 있는 여호와인 것 뿐이다. 그래서 예수의 천사와 여호와의 천사는 똑같은 천사이나 다른 것은, 천국에 있는 유일한 교회(the Church in heaven being), 육을 입으신 이래 주님의 영화로우신 몸의 형상, 다시 말해 그분의 신성한 인간성은 주님이 육으로 드러내 보이시기 이전 보다 더 위대한 권능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에페소1:10). 요한에게 온 천사는 천국에 있는 교회를 표현하는 바 1절의 요한은 지상의 교회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신성한 메시지는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교회를 통해 지상의 교회에 오고 있다. 이를 근원적으로 종합해서 말해본다면, 메시지는 하강의 각 등차를 통하여, 즉 계시록은 하느님으로부터 예수에게, 예수로부터 천사에게, 천사로부터 요한에게, 요한으로부터 주님의 종들에게 내려 온 것이다. 주님의 측면에서 이를 다시 말해본다면, 계시록은 주님의 신성으로부터 그분의 인성을 통하여,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그분의 신성한 지혜를 통하여, 그로부터 천국과 교회를 통하여 내려왔다. 이렇게 해서 무한한 사랑의 무한한 지혜가 인간과 천사 양쪽에 납득되도록 내려오고 있다. 요한이 지상의 교회를 표현하는바, 이를 추상적 측면에서 보면 그는 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교회를 구성하는 원리는 세 가지가 있다. 즉 사랑, 믿음, 일이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웠던 세 제자, 다른 제자들과 달리 중요한 때, 즉 변모하심을

보여 준 세 제자로 표현되어져 있다. 세 사람 중 베드로는 믿음의 형태를, 야고보는 사랑을, 요한은 일에 관한 형태인바, 특히 요한이 표현한 선한 일은 행동하고 있는 사랑과 믿음이어서 세 가지 원리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사랑과 믿음이 생활 안에서 충만되고 완전을 이루어 존재하는 종교를 표현한다. 실제에 놓인 종교만이 살아 있는 종교이다. 사랑은 율법을 충만되게(완성)한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그 이유는 모든 진정한 사랑은 행동 안에서 종결되어 실제적인 사랑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을 그어 두셨던 것이다. 실제 속의 사랑은 인간을 만드신 분과 인간을 구원 가능하게 하는 고리 중의 마지막 고리에 해당된다.

2. 이 계시를 받고 있는 요한은 스스로,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 곧 내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 구절은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말한 것에서 더 잘 이해될는지 모른다. 첫 장에서 그는 말씀에 관해 증언하기를, 말씀은 한 처음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이셨으며 이 말씀이 육 안에서 드러나 보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영원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을 만드신 이 말씀을 창조와 구속에 관련시켜 보면 영원한 지혜 또는 신성한 진리이다. 요한은 사랑과 믿음의 내적 삶이 거룩함의 외적 삶에서 드러나게 된 모든 것을 표현하는 바, 그의 말들은 거룩한 삶을 증거로 해서 진리를 증언하는 이들로 이해되어진다. 스스로 증거하는 이들은 하느님은 진정 존재하신다는 것에 봉인을 찍게 되는 셈이다. 이런 사람들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도 가진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속의 진리를 인정하는 이들은 설사 그들이 계시의 전체이든, 부분적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기 때문이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요, 이 속에 사실상 모든 예언이 함유되었는바 진정한 교회가 가지는 증거는 예수만이 유일하게 살아 계신 참 하느님이시요, 그분만이 믿음과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라는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요한은 자기가 본 모든 것에 관한 기록도 증언하게 된다. 이 환상의 본성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살필 필요는 없으리라 본다. 그것들 모두는 상징적인 것으로 인간 마음의 상태와 교회의 상태를 묘사해놓고 있다. 이것을 요한은 보았다. 요한이 “보았다”는 말은 그것들을 “이해한다”는 말이다. 그 이유가 보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이해되도록 씌어졌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이, 모든 시대가 그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까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예언적 표시들 같이 계시록 역시 그 내용이 충만해지는 때까지, 상징적인 책 속의 사건들은 해석이라는 수단이 주어질 때까지 이해되어질 수는 없다. 요한이 나타낸 것들은 그가 환상 속에서 영적으로 보고 있는 것 또는

요한이 내향적으로 본 것은 그가 영계에서 바깥쪽으로 본 것들이다.

3. 계시를 받는 자로서의 자신을 말한 후 요한은 이 계시가 보내질 사람들, 이 계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 예언은 예언을 읽고 듣고 그것에 포함된 것을 행한 결과인 혜택(benefit)의 위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암시하고 있다. 행복함이란 영적인 행복, 천국적인 행복이다. 이는 영적 품위들(graces)로부터 결과되고 그 결과란 마음과 삶이 천국적인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읽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하나 더 있다. 영적으로 읽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적으로 읽고 듣는다는 것은 이해성과 의지 안으로 이 책의 진리를 받는 것이다. 우리는 눈을 통하여 읽어, 귀를 통하여 들어 받아들인다. 신체의 이 두 기관은 각기 섬기는 우리 영혼의 두 능력에 대한 상징물이다. 눈은 이해성을, 귀는 의지를 더 직접적으로 섬긴다. 읽는 것과 듣는 것은 들은 것과 읽은 것을 이해하고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에 쓰여진 것들을 실천함이 수반될 때 읽고 듣고 실천함이라는 세 가지 자연적 차원의 행위들은 이해하고 뜻하고 행동하는 세 가지 영적 차원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을 완성시켜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여 그로 영원히 복 있는 상태로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들어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아주 조금밖에 할 수 없는 바, 이런 우리에게 안전한 장치는 어디에 놓여 있을까?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이 포함되어 명백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주님에 관한 교리와 생활에 관한 교리이다. 이 두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성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절대적으로 실천해 가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책 안에는 수많은 진리가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들 모두는 영적으로 이해되도록 베일이 쳐져있어 영적 이해를 위한 언어나 형상에 의해서만 알게 되어 있다. 천국을 밝히 알게하는 예언에는 천국적인 교리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여타 모든 계시가 포함하듯 이 책의 교리도 진리와 선함에 관한 교리, 즉 마음의 향방을 가늠하게 하는 진리에 관한 교리와 삶을 안내하는 선함에 관한 교리를 포함하고 있다.

예언이 포함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성과 밝히 알아야 하는 이유란, “시각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시각(때)이란 상태를 의미하고 “곧”이란 확실함을 의미한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말한 바 있다. 전능하신 분의 하루는 수 천 년의 세월일 수도 있고, 수 천 년이 하루 밖에 안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가장 짧은 것과 가장 긴 것이 그분에게는 똑같은 것이다.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것, 그분에게 관련되는 모든 것은 등차 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천국과 교회는 상태의 변화를 겪어간다.

그래서 교회나 천국이 자연적 현상에 의해 표현될 때, 상태는 시간에 의해 표현되어진다. 그 이유는 자연계에서의 시간은 영계에서의 상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교회와 관련시켜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 이는 교회의 “상태가 위급함”을 뜻하게 된다. 이에 대해 더 이해해줄 것은, 묵시록에서 기술된 교회의 상태라 해도 그 상태는 이 예언이 씌어진 때에 있는 위함이 아니라 그 상태가 적용되는 때에 있는 위급함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관해 생각하기를 이 책의 예언은 교회의 시작 때부터 이어지는 교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고 입을 모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며, 오히려 이 책의 예언은 교회 끝에서 그 끝과 동시에 일어나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마치 이 책은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씌어진 듯 되어있다. 그 이유가 이 책의 저자인신 그분은 그분 앞에 모든 미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상을 본 요한은 그 환상이 시간적으로 볼 때 비록 먼 미래에 있을지언정 현재 있는 듯 사건을 목격하기 때문이다. 순수한 영적 의미에서 볼 때 가까움(near)은 내면(interior)을 뜻한다. 그 이유는 내면에 있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외면에 있는 것보다 신성한 존재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교회 속 내면의 상태가 이 예언 안에 공개되고 있다. 모든 교회는 제각기 가장 최고라고, 가장 순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이 보듯 보시지 않는다. 인간은 바깥쪽에 나타난 것만을 보고 가늠하지만, 하느님은 심정 속을 헤아리신다. 내면을 보시는 분, 교회의 본질되는 상태를 보시는 분만이 교회의 상태를 밝히실 수 있다.

4.5. 이 예언서의 원 저작자와 목적에 관한 서술이 위촉받은 요한에 의해 있는 후, 이 선견자는 자기가 가르쳐왔던 이들에게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요한을 메시지를 받는 자로, 교회를 표현하는 특사로서 이미 말했었다. 이제 그는 메시지의 전달자, 주님을 표현하는 특사 자격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금 그는 자기가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선교에 고용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여타 사도들처럼 요한도 표현적 특성에서 독특한 어떤 것을 가졌다. 그가 교회를 표현했듯 주님도 표현한다. 그러나 그가 선견자 또는 선생으로 우리 앞에 오게 될 때, 그는 목적이 선함인 사랑을 원리로 하는 진리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게 된다.

요한의 메시지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향하고 있다.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그룹만을 위해 이 예언이 의도되었다고 상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이의 경우 이 메시지는 일곱 그룹의 상태를 묘사했거나, 그들에 대한 권고, 약속 등에 관한 어떤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그룹들은 그 존재가 중단 되지 벌써 오래된다. 따라서 그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

성취된 것을 볼 수도 없는 예언의 많은 부분들이 그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의도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이 책의 여타 부분과 마찬가지로 일곱 교회 역시 상징적이다. 지상의 일곱 교회와 천국에 있는 일곱 영은 서로 대응된다. 일곱 교회는 지상의 교회 전체를, 옥좌 주위에 있는 일곱 영은 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채우고 유지되게 하시는 주님의 영을 표현한다.

일곱이란 숫자는 신비적인 거룩한 숫자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다. 이 숫자가 지닌 의미는 성경에서 맨 처음 언급되는 곳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창세기2:3). “옛세대안 힘써 일하고 이렛날은... 쉬어라” (출애굽기20:9-11). “하느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다” (히브리4:9). 창세기에 있는 창조의 사건은 순수한 비유이고, 유대교회에 있는 땀흘리는 육 일과 쉬의 제 칠 일은 표현적인 것이다. 위 둘 다 진정한 교회에서 있어지는 영적 노동의 계속되는 상태와 그 결과 오게되는 영적 쉬의 상태를 기술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재창조하는 상태를 성공적으로 통과해 가서 하느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새로이 형성될 때, 그는 거룩한 상태 라는 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는 주님의 안식도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의 일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어 정복해 가지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쉬를 즐기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쉬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숫자 일곱은 거룩함과 완성이라는 생각을 포함한다. 이 의미를 교회에 관련시켜 본다면, 교회의 제일 가는 특성은 거룩함이고 주님의 신비한 몸으로서 교회가 완성된다. 골로새서를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서 완전해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어떤 권세와 세력보다 더 높은 분이십니다” (2:10). 그러므로 일곱 교회란 신실한 자의 온 몸을 포함하는데, 즉 주님의 진정한 교회로 선별되게 하는 것인 사랑과 진리, 그리고 이것들의 하나됨을 어느 정도나마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일곱 교회는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 아시아는 지구의 한쪽 방위에 불과하다. 본문을 글자대로 이해하려들면 이 예언의 적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말 것이다. 사실 교회는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인들에게 널리 보급되었다. 따라서 아시아 라는 단어는 상징적 차원에서 소개되는 말이다. 아시아는 인류의 요람이요, 세상에 존재한 모든 교회의 흙에 해당된다. 기독교회 자체가 비록 그 아시아에서는 멸절되고 말았다해도 어찌됐든 그 곳이 출생지에 해당된다. 또한 아시아는 문명의 빛이 일어난 동양이고 그 지역으로부터 서구 세계는 과학의 일부나 종교의 시작을 얻어온 셈이다. 그러므로 아시아는 말씀으로부터 온 진리의 빛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해 볼 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인데, 그렇다고 지상의 어느 특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상태로 특징지워 주는 차원에서의 교회를 말한다. 교회라는 말은 종교를 구성하는 원리들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 뿐이다. 종교가 있는 곳에는 교회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교회가 바깥쪽 눈에 보일 수 있게 존재할지도 모르고, 아마 교회 속에 있어야 할 진정한 것, 생명있는 종교 원리가 이탈된 뒤라도 눈으로 볼 때 화려하고 권세 있게 나타나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생명있는 종교가 존재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아무리 장대한 형체나 이름이 아직 남아 있다 해도 그것은 생명있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일곱 교회는 결함과 잘못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일곱 교회 모두 제각기 자기들 속에 교회의 본질 중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회개로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대체로 이 교회들은 마지막 때에 있는 교회로 이해되고 있다. 교리 속의 잘못들, 삶 속의 악들로 넓고 깊게 얼룩져진 마지막 때의 교회 상태를 본문의 일곱 교회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더욱이 한 교회를 빼 놓고는 제각기 심각하고 어떤 것은 무시무시할 정도인데도 그들을 상대로 어떤 임무가 제기되고 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 교회는 신성한 보호와 염려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요한은 주님의 특사로서 천국의 말인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가 있으라” 고 말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하례(salutation, 인사), 두 가지가 하나를 이루는 이 인사는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분의 사랑, 은총과 평화를 주님의 교회가 받기를 바래서 애 청기시는 그분의 준비를 표현하고 있다. 이 두 단어는 기독교적 축복에 두드러지게 존재한다. 이에 대해 두 군데만 찾아 읽어보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주 예수의 은총으로 된다” (사도행전15:11).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14:27). 신성한 은총은 인간의 공적에 정반대 되고, 신성한 평화는 인간의 자만과는 정반대이다.

여느 다른 영적 축복과 마찬가지로 은총과 평화는 우리의 것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신다. 주님은 영원한 은총 자체시요, 평화의 왕이시다. 그분의 은총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받고, 그분의 평화를 우리는 사랑 속에서 받게 된다. 믿는다고 고백함 속에서, 또는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받는 게 아니라, 믿는 행동 가운데서, 사랑하는 행동 안에서 그분의 은총과 평화를 실지로 받는 것이다. 교회에 대한 은총과 평화는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옥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있다. 이 구절을 글자대로 보면 마치 영원한 분과 예수는 두 가지 다른 존재인 듯, 일곱 영은 영원한 분과 예수와 다른

어떤 사람들인 듯 보여질 것이다. 그러나 이 사항은 이 책 5장에서 어린 양이 옥좌 가운데 있다는 구절로부터 이해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는 표현적 외관일 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르게 나타남은 똑같은 진리가 각기 다른 국면에서 있게 될 때 보여지는 양상이다. 마치 천국과 지상의 교회가 제각기 다른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각기 다른 것 사이에는 관계성과 상응이 존재한다. 따라서 글자적 의미에서 분리된 상태(separation)로 보여지는 것은 영적 의미에서는 특성(distinction, 구별)있는 상태로 보여진다. 영원한 분과 예수, 하느님과 어린 양,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된 독립개체가 아니라 그 각각은 우리가 구별해 알 수 있게 한 그분의 특성이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인간이 영과 몸이라는 두 개체로 존재하지만 하나인 것과 같다. 영과 몸은 두개로 구분할 수 있는 본질(essentials)들이나 한 개의 인격(개인, person)이다. 따라서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란 주님의 특성 중 영원한 신성(eternal divinity)을, “예수 그리스도”란 주님의 특성 중 신성한 인간성(Divine Humanity)을, “일곱 영(신)”이란 주님의 특성 중 거룩한 영(Holy Spirit, 성령)인데 이 영이 일곱으로 표현된 것은 일곱 교회에 관련되어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총의 선물은 여러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영일 뿐이다”(고린도전12:4). 그런데 왜 은총과 평화는 영원한 분, 일곱 영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셋으로부터 오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은총과 평화는 하느님의 본성 전체, 즉 그분의 사랑, 지혜, 힘, 다시 말해서 그분의 신성, 인성, 거룩한 영(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 때문이다. 은총과 평화가 주님의 세 특성이 하나가 된 상태인 삼위일체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에 교회 속의 사람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의 인사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세 특성인 의지, 이해성, 삶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인간 의지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을 사랑함이고 이해성 안에 있는 하느님의 지혜가 하느님을 믿는 것이요 삶 속에 있는 하느님의 능력이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영원하신 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은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지혜의 구별, 본질적 신성과 신성한 인간성인 예수의 구별인데, 이것이 본문에서 “진실한 증인이시며,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며, 땅 위 모든 왕들의 지배자”로 불리고 있다. 예수는 지혜 또는 진리 자체로서 진실된 증인이시다. 그분은 사랑 또는 선함 자체로서 볼 때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교회를 통치하며 모든 진리의 권위자로서 볼 때 그분은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것이다. 위 주님의 세 특성들은 서로서로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주님께서 그분의 인간성을 신성한 진리로 만드셨을 때 그분은 진실한 증인이 되셨고, 그분의 인간성을 신성한 선으로 만드셨을 때 그분은 죽음에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인간성을 진리 자체와 선함 자체로 만드셨을 때 그분은 말씀 속의 진리로 통치하는 교회의 머리(지배자)가 되셨던 것이다.

5.6. 은총과 평화의 인사가 있는 후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여 교회를 축복하시는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또 당신의 하느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서 영광과 권세를 영원무궁토록 누리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속하는 근원이다 라는 진리는 참으로 위대하고 복된 진리로서 성경 전체를 망라하여 선포되는 진리중 하나이다.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라는 구절은 주님의 오심과 구속에 관한 정해져 있는 원인에 해당된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분은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 성경 몇 군데를 더 찾아 읽어보자.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 15:13).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5:8).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의 피에는 위대한 효험이 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된다 (에베소서 1:7),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로마서 5:9). 그분의 피를 통하여 정결해진다 (히브리서 9:13),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로부터 온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히브리서 9:14),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통해 화해와 평화를 가진다 (골로새서 1:20). 이상의 언어 속에 든 의미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셨다. “육적인 것(the flesh, 고기 덩어리)은 아무 쓸모 없지만 영적인 것(the spirit)은 생명을 준다.” 육적인 것에는 고깃덩어리도 있지만 피도 포함되어 있는바, 우리는 이렇게도 말해 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고기와 피는 아무 쓸모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최대한 단순하게 위의 구절을 수궁해본다면, 그분의 피는 십자가에서의 고난, 그분의 고통과 시험중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 이를 수단으로 그분이 어둠의 권세를 누르시고 그분의 인성을 신성으로 만드셨음을 뜻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그분의 피는 그분의 신성한 진리를 뜻한다. 왜냐하면 극복하게 한 힘이 신성한 진리였기 때문이고, 구원하는 효험이 주재하는 곳이 신성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능력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우리를 갱신시켜 의로워지도록 우리 속에서 반드시 작동되고 있어야만 한다. 죄는 신성한 은총이라는 행동을 수단으로 해서 오점이 없는 듯 되어지거나 마법을 걸듯하여 절멸되어질 수 없고 오로지 신성한 진리의 깨끗하게 하는 힘에 의해서만 씻어 낼 수 있다. 죄는 주님의 진리, 즉 그분의 신성한 인간성에 있는 진리 외에는

어느 것 가지고도 제거될 수 없다. 죄로부터 우리가 순수해지고 새로워져 의로워짐을 수단으로 해서 주님은 우리를 하느님과 그분의 아버지를 섬기는 왕(왕국)과 사제가 되게 하신다. 이런 역시 이론도 존재한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느님께서는 정의를 우리에게 귀속시켜(impute) 준다는 것이다. 정의가 귀속된다는 말은 신성한 말씀의 어느 곳에도 있지 않은 이론이다. 따라서 그 이론은 신성한 권위가 없다고 결말 지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신해서(vicarious) 있어진 것, 그분은 우리 죄에 대한 댓가 또는 별도로 고통받고 죽으셨다는 것, 우리는 그분이 고통받은 것 때문에 구원되고 있다는 것 등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만일 그분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죽어야 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주님의 죽음이 우리 대신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을는지 모른다. 따라서 그분이 인간 구속이라는 일을 성취하지 않았던들 어느 육체도 구원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속(redemption)은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자유를 구입하는데 있지 않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되게 하는데 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신성한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은 무한한 지혜를 통해 작동되는 무한한 사랑에 의해, 다시 말해 주님의 영원한 신성이 그분이 입으셨던 인간성을 통해 활동함으로 결과되어지고 있다.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그분이 행한 것이나 고통받으신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것이나 고통받으신 것을 수단으로 해서 있어진다. 그분은 고통 당하셨다. 그것은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가 건져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분이 행하신 것이나 고통받으셨던 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것과 대체(substitute)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형이 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시려는데 있었다. 우리 구원의 대장(captain)으로서 그분은 고통을 통해 완전해지셨다 (히브리서2:10).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정의의 삶을 사셨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어지도록 그분은 죽으셨고 우리가 죽음을 정복해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분은 다시 사셨다. 예수가 우리의 대체물이 되신 것이라는 잘못을 우리는 피해야하는 한편, 그분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셨을 뿐이라는 실수 역시 피해야 하는 조심스러움도 발휘해야 한다. 육을 가지시고 있어진 주님의 일들은 그분의 구원하시는 작업들의 참 기초가 되어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죽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사시고 죽으셨고, 우리가 어떻게 정의롭게 살아야 하며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지를 살아 보여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는데 필요한 힘과 자유를 공급해주시고 있다. 그분의 인간성 안에서 결과되었던 것들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결과되게 하시는 것들에 대한 모형이요 근원이기도 하다. 그분의 삶과 죽음의 모든 효력은 영화되신 그분의 인성 안에서 생명을 주는 영원한 힘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주님의

영화 하심은 인간 거듭남의 힘과 모형 양쪽에 해당된다. 영화되심으로 그분은 인간성을 신성한 진리와 선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사제가 되어 있으시다. 이제 우리를 그분의 형상이 되게 하심으로 하느님과 그분의 아버지에게 우리를 왕과 사제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되었다. 이 6절에서 많은 이들이 상상해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을 예수 외에 또 다른 분, 하느님과 아버지 또는 예수의 아버지나 하느님에게 왕과 사제가 되게 만드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주님의 신성에 관한 질문까지 진입하는 것은 아니다. 복음서에서 주님 자신에 의해 처음 고용되고, 계시록에서 요한에 의해 고용된 이 구절의 표현 형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과 아버지께 대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의심을 넘는 것이 그분의 영원성과 무한성에 관한 교리라고 받아들인다면 6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 해야 할까? 예수 자신은 하느님과 주님 양쪽에서, 또는 아버지와 아들 양쪽에서 계시왔고 계시고 있다. 이러한 성경의 언어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 하느님이라는 이름은 신성한 진리 또는 지혜에 관한 표현이고 아버지라는 이름은 신성한 사랑 또는 선에 관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요한이 “우리로 하여금 한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또 당신의 하느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서 영광과 권세를 영원무궁토록 누리십시오” 라고 말할 때 요한이 빌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진리와 사랑을 받는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는 표현인 것이다.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두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을 수단으로 우리 안에서 영적 생명의 두 본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두 본질을 우리의 내적 삶에 받아들여지게 해서 우리를 하느님과 아버지에게 왕과 사제가 되게 해주신다.

주님의 왕국은 두 겹으로 존재한다. 그분은 하늘에 왕국을 가지시고 있고 지상에도 왕국을 가지시고 있다. 또는 하늘에 교회를, 지상에 교회를 가지신다.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의 왕국 역시 두 겹으로 존재한다. 우리 심정에 그분의 제단을, 우리 이해성에 그분의 보좌를 가지고 있으신다. 심정 속에서 그분은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이해성 속에서 그분은 진리로 통치하신다. 이 통치는 하늘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천상천하의 모든 사람들 중 어떤 이는 사랑의 통치를 더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진리의 통치를 더 받기도 한다. 주님은 왕과 사제로서 거듭나는 마음에서, 교회에서, 천국에서 두개의 구별된 왕국으로 군림하신다. 그분의 사제적 측면이 사랑이 통치하는 정부형태이고, 그분의 왕권적인 측면은 진리로 통치되는 정부형태이다. 사랑으로 그분을 섬기는 이들은 그분의 사제적 왕국에 소속되고,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이들은 그분의 왕권적인 왕국에 소속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이는 자신을 통치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면서도 자신으로부터가

아닌 주님으로부터인 바, 주님은 왕이요 사제이시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심정을 통치할 수 있게, 그분의 진리로 이해성을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왕이나 사제로 만들어 주신다. 모든 통치자중 최고의 통치자라는 측면에서 그분은 사제 중의 사제인 대사제, 왕 중의 왕인 위대한 왕으로 불리시고 있다. “그분께서 영광과 권세를 영원무궁토록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가장 보편적인 외침은 천국에서 완전을 이룬 영들의 외침이지만 왕이나 사제로 만들어지는 신실한 이들 역시 그 외침에 동참할 수 있다. 주 예수에 대한 위의 송영에서 우리는 영화하심의 다른 부분들과 말씀 전체에 퍼져있는 두 겹의 성격을 보게 된다. 그 이유는 영광(glorification, 영화)은 주님의 지혜나 진리와 관계가 있고 권세(dominion, might)는 그분의 사랑과 선에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영광은 지위나 위대하다고 하는 행위를 추켜올린 위엄이고, 세상의 권세는 높은 지위에서 나오는 세력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진정한 영광과 권세의 본질을 찾고 있을 뿐이다. 어떤 위엄이나 행위도 진리와 정의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진실된 예증이 못된다. 어떤 권세나 권력도 그 힘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한다면 어떤 존경도 있을 수 없다. 주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 어떤 영광이나 권세를 가지시지 않는다.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예배나 찬양, 그들 위에 군림하시게 되는 모든 그분의 권세는 오로지 당사자들을 위해서 일뿐이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 삶에서 그분이 영광되시는 것, 그분의 선함이라는 정부형태에 우리가 기꺼이 복종하는 것, 그리하여 그분을 섬김과 그분의 권세가 우리 삶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상태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려는데 있다. 이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해야 마땅할 것이다. 아멘이란 단어는 진리를 뜻한다. 이 단어는 확증과 확언에 대한 표현 형체로서 말씀에서 널리 사용되는 말이다. 특별히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분이 진리 자체이시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복음서에 자주 언급된 단어 “참으로, verily” 역시 같은 의미인데 “진실로”라는 뜻이다. 이는 진리 자체를 수단으로 진리에 대한 신성한 확증이지만 이와 같은 사항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와 있는 것이다.

7. 영광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린 후 요한은 이렇게 말을 잇고 있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모든 민족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예언이 첫 장에서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한 한가지 장대한 주제, 주님의 재림이 발표되고 있다. 보라, 그분은 오신다! 이것이 계시록의 주된 취지이다. 그 외 다른 사건들은 재림에 앞서 있는 사건이거나 그 결과일 뿐이다. 주님의 오심은 타락됨(falling away)을 수단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회복됨

(restitution)이 뒤를 잇고 있다. 그분의 오심은 죄의 권세가 끝장을 보고 정의의 통치가 건설되는 것이다. 어떤 예언도 주님의 다시 오심이 주는 약속만큼 인류를 위한 충만된 희망은 없었을 것이다. 재림이라는 웅대한 주제에 눈을 뜨고 싶은 이들이라면, 그래서 글자에 온통 자신의 생각을 매달리게 하지 않을 작정이라면, 재림에 대한 올바른 납득과 이 예언의 사용은 그들을 더 위대해지게 해줄 것이다. 널리 세상에 퍼져 있는 재림에 대한 신조는 이렇다. 그분은 구름가운데서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 모든 이는 심판 받기 위해 그분 앞에 집합한다는 것, 심판 후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라는 등등이다. 위의 신조는 주님의 두 번째 강림에 대한 속성과 목적, 양 측면에서 완전히 빗나간 견해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견해에서 빠져나갈 수 없기도 하다. 그 이유는 어떤 예언이라 해도 그 예언이 현실에 나타날 때까지 명백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백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쪽으로 그 누군가들 때문에 쉽게 빠져들 수 있게 된다. 과거 역사 중 주님의 첫 강림에 대한 유대인의 태도는 이에 대한 확실한 샘플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 오심에 관한 주제에서 위의 유대인 같은 착오가 없도록 성경의 역사는 기독교인에게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강림과 그 주변의 여건은 순수하게 상징적 언어로 성경에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교회들은 이 언어를 글자 그대로 납득하여 왔다. 따라서 영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자연적인 줄거리들이 자연적 견해로 한정 지워지고 말았다. 말씀에 대한 영적 의미, 지금은 알려져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진정한 본성과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다. 주님은 우리 같은 물질적 사람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오신다. 그분의 오심은 세상의 종말과 더불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종말과 더불어 있게 된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베드로후3:13)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바, 새 교회는 타락되어 썩어진 것으로 입혀진 옛 교회를 계승하게 된다. 다시 말해 뉘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심이 그 오심의 목적이라는 말이다. 그분의 오심은 교회로 하여금 인간 거듭남과 구원이라는 위대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더 완전한 도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에 대한 견해는 이 예언서를 해석해감에 따라 더 풍부하게 예증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위에서 거론된 주제들은 이 책의 끝 부분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취급할 때 당연히 더 자세히 생각해 볼 기회가 있다. 이 구절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방법과 본성만에 국한시켜 생각해 볼 것이다.

많은 이들의 생각도 주님의 재림이 비인격적으로 있을 거라고 설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분의 첫 강림이 인격 차원에서였던 것은 필수적이었다. 하느님이 육을 입으시어 그분을 보여주시는 방법 외에 더 달리 세상을 구속하시는 역사는 결과되었을 리 만무하다. 주님은 인간 본성을 입으셔서

인간이 타락해버린 곳을 정복하신 결과, 달치려드는 시험에 방과제가 되셨다. 그분은 인간의 삶을 사시고 인간의 죽음을 통과하시어 그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죽음을 쾌거의 승리가 되게 하셨다. 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셨던 바, 이제 그분은 지상에 인격적인 나타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셨다. 육을 입으신 목적이 성취된 이상, 이제 그분은 영을 수단으로 말씀 안에서 함께 하신다. 영을 수단으로 말씀 안에서 그분은 자신을 더 명백하게 더 나타내 보이실 수 있다. 영을 수단으로 말씀 안에서 그분의 두 번째 강림은 결과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재림은 보여지되 육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된다.

우리가 공간과 장소를 중시하면 주님은 우리가 바깥쪽 감각들을 가지고 보고 들었던 만큼 함께 하시지만 우리에게 빛과 사랑, 기쁨과 평화를 주는 그분의 현존(presence)은 우리의 눈 앞이 아닌 심정과 지성에서의 현존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견하는 주님의 오심인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오는 것이다(not a coming to us, but coming into us). 다시 말해 그분의 진리가 내적 시야로 밝혀 알려지는 것(계시), 그분을 바깥쪽으로 관찰함이 아닌 안쪽 지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고 바리사이파인이 물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셨다.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누가17:20-21). 이 구절은 그분의 왕국에 관해 그 왕국의 왕이 말한 진실이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참으로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에 관해 많은 사항을 말해주셨다. 마지막 때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하셨다. “이것은 내가 미리 말해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나타났다' 해도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동쪽에서 번개가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마태24:26-27). 주님은 번개와도 같은 빠름과 힘으로 오신다. 이와 일치해서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으로부터 번개는 진행된다. 주님이 타고 오시는 구름은 바깥 세계의 구름이 아닌 안쪽 세계의 구름이다, 그분이 타고 오신다는 구름은 분명히 교회에 관련된 어떤 것을 상징해 놓은 말이다. 땅이 교회에 대한 모양새이듯, 열과 빛을 땅에 보내주는 태양은 정의의 태양으로서의 주님께 관한 모양새이다. 태양에 의해 땅에서 증발되어져 만들어진 구름, 그래서 대기 중에 떠 있는 구름, 열매있게 하고 새롭게 하는 소나기를 내려보내는 비를 간직한 구름, 번개와 천둥을 저장하고 있는 구름, 태양 광선을 부드럽게 해서 피부를 태우지 않으면서 따뜻하게 하는 구름, 우리 주위를 서늘해지게 해서 기운을 돋구어주는 구름이란 무엇일까? 우리와 신성 사이에 있는 것, 그 사이에서 수많은 복된 것을 품고 날라다 주는 것, 우리로 위로 받게 하고,

새롭게 해주며 정의 속에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있게 해주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 다른 게 있을 수 없다. 말씀의 글자적 의미가 구름으로 의미되고 있다. 그 이유는 성경의 글자, 자연적 의미는 영적 의미를 덮고 있으면서 영적 의미의 드높은 영광을 가리워 그늘지게 하여 우리에게 전달함으로 영적 의미의 강한 광선을 부드럽게 해서 인간의 상태나 능력 속에 안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분의 진리, 약속은 구름까지 도달하고 그분의 강하심도 구름 안에 존재한다. 그분은 구름으로 그분의 병거를 삼으시어 이로부터 정의의 비를 내리신다. 약속된 땅으로 이스라엘 후손을 인도하는 과정의 사막에서 배회하는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주셨다. 구름을 수단으로 이렇게도 상징화 되고 있다. 즉 주님께서 시나이산에 내려오시어 모세에게 말하실 때, 그분이 성막에 거하시면서 속죄관 위에서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바칠 때 사제들이 성소에 당도하자 구름은 성전을 가득 채워 구름 때문에 사제들이 집전할 수 없던 때 등등이다. 그 이유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을 채웠기 때문이다. 변모하신 산에서 제자들을 덮어썩운 빛나는 구름도 있다. 이 구름에서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로 오르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뵈을 때, 그들의 시야에서 구름 속으로 그분의 모습이 사라지자,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너희는 여기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1:11). 그분은 구름 안으로 사라지셨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분은 구름 안에서 나타나셨다. 위 구절이나, 또는 부활 후 제자들이 예수를 뵈은 것도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가 아닌 영의 눈으로 뵈은 것이다. 실로 이 모든 광경은 영적인 것이다. 이는 자연계에 소속된 사항이 아닌 영적 사항에 속한 사건들이다. 주님이 실지로 올라가신 장소는 자연계와 직접 연결되는 영적 세계의 어떤 부분이었다. 이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존재한다. 이곳은 영들의 세계(world of spirits)라 불린다. 그 곳은 모든 영적 현상이 진열되는 평면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감금된 상태로 있는 영들에게 설교하신 곳도 바로 그곳이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사십 일 동안 구속이라는 신성한 작업이 수행된 장소도 그곳이다. 주님이 승천하신 장소도 바로 그 곳이다. 대기에 떠 있는 영적 구름이 제자들의 시야로부터 그분을 받던 때 제자들의 영이 보고 있던 곳도 바로 그 곳이었다. 주님이 재림하시던 때 볼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내려오신 곳도 영계의 영역에서 였다. 구름 안으로 승천하셨을 때와 같이 내려오셔서 바로 그 곳에서 모든 눈, 그분을 찢었던 자들까지 그분을 뵈었다. 그 이유는 공간이 결과요 상태의 나타남인 영계에서의 모든 영혼은 그분이 스스로 나타나신다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오심이 거행될 때 영들의

세계 또는 중간 상태에 있는 무수한 군중에 심판이 수행되는데, 이 심판을 수단으로 하느님의 처방은 마무리를 짓고 새 처방이 건설된다. 이 심판은 앞으로 20장에서 우리가 살피게 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여기서의 경우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재림에서 주님이 모든 눈, 그분을 찢었던 자의 눈까지 포함해서 모든 눈에 가시적으로, 실지로 보게 되는가에 대해서이다. 그 이유가 사악한 자나 의로운 자 공히 거기서 그분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연계에서도 주님은 영들의 세계에서 만큼이나 진실로 그분의 재림을 이루신다. 그러나 여기서 그분은 바깥쪽으로 오시거나 인간 육체의 감각적인 눈에 보일 수 있게 오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자질들에 지각으로, 내향으로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은 오실까?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성경에서 진리로 그분 자신을 밝히 보여주심으로 그분은 오신다. 그러나 혹자는 이렇게 말할는지 모른다. “성경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그분은 어떤 새로운 오심을 만들 수 있던 말인가?”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만큼에서 주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성경에 의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일 교회가 성경의 진정한 이해를 잃고 있다면, 그 교회는 진정 구원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잃는다. 육으로 주님이 오실 때 유대교회가 위와 같았으므로 그 교회는 끝을 내어야 했고 그 교회대신 기독교회가 건설된 것이다. 영으로 주님의 오심이 불가피해졌을 때 기독교라는 첫 처방은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대신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과 모양새로 계시록에서 예언하는 둘째 처방이 건설되어 진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성경의 진정한 이해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유대교회에 알려졌던 성경의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까지 보여주셨다. 이와 같이 재림에서 주님은 예언자나 사도들이라는 원래 기초 위에, 또는 그들이 가르친 진리 위에 교회를 재건설하시되 사도들 시대 때에 밝히 알려지거나 이해되지 못했던 말씀 안에 감추어 놓인 영광을 진열해 주셨다. 새 예루살렘의 기초는 여러가지 보석으로, 그 벽은 벽옥으로, 그 문은 진주로, 그 거리는 금으로, 그리고 주님 스스로 성전과 빛이 되어 있으시다. 계시록 뒤 편에 있는 위의 구절을 살필 때 위의 사항들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상태임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상태는 성경을 새롭게 펼쳐 놓은 것을 함축하는 말임을 알게 된다. 그 이유는 어떤 교회도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그 교회가 알게 된 진리의 척도 이상을 결코 초월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은 교회가 가장 높게 도달할 수 있는 완전에 대한 근원적 표준이다. 교회는 그 교회에 처방된 상태를 들어올림으로 더 높은 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과학처럼 신학도 한계가 없기 때문인데, 하느님의 말씀은 그분의 역사하심과 같이 신성한 저자의 무한성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재림을 구성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더 큰

영광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구성하는데 이제 새로운 처방을 사용함으로 열려지게 된다.

예수를 찢은 이들이란 그분을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리게 한 이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해본다면 그분의 진리를 왜곡시킨 이들이다. 자연적 의미로만 생각한다면 주님을 찢은 자들은 구름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넓은 측면에서의 민족들을 망라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 아주 명백히 구별된다. 모든 눈이란 그분을 보고 인정하는 이들과 관계가 있다. 그분을 찢은 자들이란 그분을 보았으며 인정치 않는 이들이다. 찢은 자들이 지적으로 그분을 본다고 말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듯 여겨질지 모른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들도 예수를 본 이들 속에 끼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고는 그들이 그분을 찢을 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들, 아예 진리를 부정하는 이들까지 포함해서 그들 모두는 어떤 방식을 취했던 진리를 알고 있었어야만 할 것이다. 말씀을 어떻게 연구했는지, 어떤 측면에서 말씀에 관해 어떻게 총명했느냐를 주목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 중 일부는 말씀의 권위 믿을 파고 드느라 애를 쓴 자들도 있고, 말씀에는 어떤 신뢰도 줄만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자들도 있고,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권능을 박탈해 보기 위해 말씀을 설명한 자들도 있다. 파울어스(paulus)나 스트라우스(strauss)는 여타 저명한 정통해석가 보다 성경을 더 세밀하게 연구했다. 그럼에도 그들의 목적은 말씀이 인격이나 근원 측면에서 어떤 신성함도 요구해선 안된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다. 이들 그리고 그 외 지적 품질을 지녔다는 다른 이들 모두 예수를 보고 있으나 그분의 진정한 속성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그 속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들은 그분을 찢르고 있다. 그들이 공들여 만든 노력 모두는 진리의 파괴에 방향을 맞추고 단순하게 부정하지 않고 말씀의 진정한 의미나 가르침, 특히 예수와 관련된 사항들을 교묘하게 뒤집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들은 예수를 뻔히 쳐다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요 어떤 이해도 못하는 부류들이다.

위 두 가지 외에도 주님의 오심으로 영향을 받는 또 다른 계층이 있다. “땅 위에서는 모든 민족(지파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위 문단에서 말한 이들은 지적 측면에서 더 뾰족한 이들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 언급되는 이들은 주님을 도덕적 측면에서 더 간주하려는 이들이다. 이들은 자기들 앞에 지나간 사건들을 느끼기도 하고 보기도 했다는 이들이다. 이 부류에 포함된 모든 이들은 “땅 위에서”가 의미하는 교회의 자칭 멤버들로 이해될 수 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지파 별로 나뉘어 있었다. 이 지파 모두는 선으로부터 파생되는 진리에 거하는 모든 것, 또는 이타애로부터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열 두 지파가 의미하는 모든 자질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이 문단에서의 모든 민족(지파)이란 황폐해진 교회에 속한 지파들을 넓은 측면에서 말하고 있고, 특별하게 말하면 도덕적 황폐함에 있는 이들이기도 하다. 그런고로 그들은 그분 때문에 통곡한다. 사람의 아들이 출현함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탄식만을 더 채워주게 된다. 불성실한 자, 악한 자는 주님의 현존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것으로 말씀에서 자주 묘사되어지고 있다. 그들이 괴로워하고 통곡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니나, 그들과 주님 사이에 있어지는 불일치가 그들을 그렇게 되게 만든다. 그분의 순수하심과 빛과 사랑에 반대함이 번민을 느끼도록 그들 마음을 가져다 놓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다 더 내면으로 들어가 살펴보자. 추상적 측면에서 땅 위의 민족(지파)은 교회를 구성하는 원리 자체 즉 선함과 진리, 사랑과 믿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과 진리의 통곡함, 이는 마치 라헬이 자식 잃고 우는 모습 같다. 이 두 원리가 통곡하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거주할 장소가 없어 통곡하는 것, 교회에 사랑과 진리가 결여되었음에 통곡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상태가 교회의 마지막 상태인데 이를 신성한 진리가 주님이 오실 때 보았다는 말이다. 이 사항은 꼭 오고야마는 사건임을 이렇게 엄숙하게 서술하고 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확실함(certainty)을 표현한다. 이 일은 정녕 와져야만 한다. 전지전능의 확실성으로 진리는 위 사항을 선포하고 있다.

8. 교회의 마지막에 관한 묘사가 있는 뒤 새 시작에 대한 발표, 또는 그분 자신이 선택하고 참된 것들의 시작이요 끝이심을 발표하시고 있다.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분 자신이 공포하는 표현의 경우 앞 뒤 문단이나 그 절을 연관시켜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자체를 보다 더 세밀히 살펴보고 넘어감이 마땅하리라 본다. 이 구절도 주님 안에 신성이 있다고 하는 많은 구절중의 하나에 해당된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무한하신 분이심을, 전에도 그렇게 계시왔고 여타 모든 존재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분과 동등한 것은 어떤 것도 없다. 그분은 생명되시고 진정한 하느님이신 것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계실 수 없다. 8절 같은 주님의 선포는 위와 같이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예언의 직접적인 주제와 연결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취급된 주제는 교회의 마지막에 관한 것, 주님의 첫 강림의 때에 개시된 종교 처방의 마무리와 주님의 두 번째 강림으로 건설된 새 처방에 관한 것이다. 이 구절에서 주님이 자신에 관해 선포하신 것은 육을 입으셨던 때에 관해 동일한 요한이 복음서에서 외친 것과도 매우 유사하다. 그분은 자신이 우주의 창조자요 그 우주를 유지시켜주는 분이심을 선포하시고 있다. 그러나 이는 넓은 측면에서이고 세부 측면에서는 교회에 관한 것이다. 우주만물이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던가, 일시적인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잘 새겨보면, 주님이 세상에 대해 하시는 일과 주님이 교회에 대해 하시는 일은 같은 관계를 산출한다는 것, 단지 높고 낮은 수준만 다를 뿐임을 금방 알게된다. 인간의 영적 상태와 교회에 대해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은 영적 사랑의 모든 상태들에 들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통치하신다. 무한하고 영원한 지혜는 천사와 인간 안에서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철자들이다. 인간의 언어는 두개의 발생 요소로 구성되는데, 그 이유가 모든 언어는 두개의 정신적 요소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마음이 언어로 표현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애정과 생각이다. 애정은 모음을 수단으로 표현되고 생각은 자음을 수단으로 표현된다. 소리라는 언어는 보편적이고 본능적이어서 동물과 인간 양쪽에 공통되고 있는바, 자연적 애정들은 동물과 인간 모두 비슷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 존재는 동물이 가지지 않는 것, 즉 애정 뿐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글자라는 언어가 이를 표현해주는데 주로 자음을 수단으로 표현된다. 주님께서 자신을 일컬으시는데 사용된 두 철자는 모두 모음이다. 그러므로 두 철자는 애정을 표현한다, 그래서 무한하신 분 안에서 두 철자는 사랑을 표현하고, 이 사랑이 무한한 애정이다. 이 두 철자가 알파벳을 형성하는 전 항목의 처음과 마지막에 해당되는바, 주님은 모든 유일한 애정 또는 사랑의 저자라는 측면에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 다시 말해 심정 가장 깊은 속에서 처음 꿈틀되어 가장 바깥 삶의 행동 마지막까지 되신다는 말이다. 그리고 시작과 마지막이신 그분은 인간의 모든 생각의 처음과 마지막이시기도 하다. 모든 선한 애정과 모든 진정한 생각은 선 자체시오 진리 자체 또는 사랑 자체시오 지혜 자체이신 그분으로부터 존재를 갖는다.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시다는 측면이 표현하는 한 가지 것이 더 있다. 처음과 마지막 것들을 수단으로 주님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것들을 통치하시고 정돈 배열하신다. 주님이 사랑 자체 지혜 자체이시듯 그분은 생명 자체이시다. 그래서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오실 분”이시다. 그분이 생명 자체이시어 생명의 창조자이신 바, 우리가 존재라 부르는 것들, 모든 창조물에 공통된 것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에 특유한 것인 영적이고 영원한 것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주님이 생명 자체이시듯 그분은 권능 자체이신 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수단으로 우주가 관제되고 또한 천국과 교회가 유지되어간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고, 이 근원으로 해서 인간은 선하고 진정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여 행할 수 있다. 힘은 생명의 속성이라 단정할 수 있는바, 이 힘으로 우리는 사랑의 애정과 지혜의 생각을 마지막 결과에, 자기와 비슷한 창조물을 유익하게 해주는 대화나

행동으로 가져다 놓을 수 있다. 이리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자신에게 영원히 유익해질 것을 생산하게 된다. 이런 모든 것의 속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근원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것들 모두가 주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분에 의해 실시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기독교의 영광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인 바, 그 이유는 영화하신 예수의 인격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적으로 거하기 때문이다.

9. 이 예언자는 자신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환난을 같이 겪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같이 견디어 온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언한 탓으로 파트모스라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교회의 멤버들에게 말하고 있는 요한은 자신을 그들의 형제요 동반자라고 일컫고 있다. 종교적 측면에서 볼 때 형제란 사랑으로 하나된 사람들, 동반자란 믿음으로 연결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를 조금 바꾸어 말하면 형제는 선으로, 동반자는 진리로 하나된 상태와 같다. 더불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환난을 같이 겪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요한이 자신에 관해서 말하는 이 구절의 영적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역사적 환경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사랑 받은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탓으로 파트모스 섬에 유배되어졌다고 위 구절은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박해받고 고통당하는 교회의 멤버들에게 자기도 환난을 같이 겪는 동반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백성으로 그들의 형제로서 정감있게 호소하고 있다. 그는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헤어져 본의 아닌 휴식상태에 진입한 탓에 계시가 그에게 있어졌기도 하다. 아마 그의 마음은 대단히 엄숙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준비를 적절히 갖추고 있었으리라 상상된다. 그래서 먼 훗날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사랑이 차가워지는 때 정의와 진리의 상황에 대한 모형이 되어 주는데에 그의 마음 상태는 적합했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측면에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지만 예언적으로 지금 그는 사랑과 믿음의 하강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난에 관해, 그리고 악과 잘못에 반대되는 것들이 일어나 활동하는 것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비록 곤경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환난을 겪을지라도 그는 진리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서도 함께 한다. 그 이유는 주님의 왕국은 그분의 진리로 통치되는 사람들과 더불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의 재림에 관해 말하시면서 훈계하시는 구절,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으리라” (누가21:19)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끈기있게 기대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도 요한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오심을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분을 뵈게 되고 위로 받게 되리라.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8절은

기록되어 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서 요한은 예수를 증언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해서 파트모스 섬에 있게 되었다. 신성한 허용에 의해 요한은 에게해의 섬 중 하나에 보내졌다. 이 섬은 팔레스틴 근처인바 교회가 있었던 곳이고,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유럽은 이제 교회가 있게 될 곳인 바, 지상의 모든 세대와 국가가 하나로 되는 것을 성취시키는 예언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계시는 세상에 알려진 곳과는 떨어진 어느 지점에서 주어지고 있다. 즉 주님의 교회는 앞서 있었던 교회가 지닌 특출한 것과는 병합되고 있다 해도 직접적으로는 그 교회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는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되 이미 단장한 신부 같은 것, 그 남편은 신성한 인성안에 계신 주님이셨던 것과 같다. 성경에서 섬들은 교회나 신성한 인성과 멀리 떨어진 국가, 그럼에도 장차 교회가 있게 될 국가들을 의미한다. 4절을 살필 때 언급한바 있지만 아시아는 진리의 빛의 근원을 뜻하고, 이 아시아 쪽의 섬이란 마음이 영적으로 계발되어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파트모스 섬은 장차 오는 처방의 주체가 될 미래의 이방인 세계, 그들이 계발되어 즐기게 되는 상태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말씀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섬에 요한이 놓여진 것인데 이는 이미 2절에서 언급된바 있다. 하느님은 주님의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인성을 뜻한다. 이 두 의미는 서로 구분되는데, 마치 한 인간 안에 든 영혼과 육체가 구분되는 것과 같다. 이는 서로 구분되어 둘이면서도 하나를 이룬다. 주님의 인성 안에는 신성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인성이 영화되어 신성과 하나를 이루어 한 분 신성한 인격을 형성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인간성 속의 신성에 관한 위 교리, 영원으로부터 존재하시는 완전한 하나이심에 관한 교리는 타 교회의 교리와 구별되는 새 교회의 교리이다. 요한은 이 교리를 미리 말해주기 위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하도록 고용된 것이다. 인성 안의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교회에서 예배하는 유일한 대상이요 목적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중심되는 진리가 주님께 관한 교리요, 여타 모든 진리들은 중심되는 발광체에서 나오는 광선으로 하모니를 이룬다. 주님께 관한 말씀에는 두 가지 요점이 있다. 하나는 주님이 하느님이시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분의 인성은 신성이시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이라는 말로서 위 두 가지 요점이 기록되고 있다. 이 두 글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하나로 묶어 가르치고 있다.

10,11. 요한은 파트모스 섬에서 받은 예수에 대한 증언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관한 교리가 얼마나 명백하고도 완전하게 확증되는지 알게 된다. 이 서술이 전 성경에 걸쳐 있듯이 이 신비스런 책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올려오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네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환상을 볼 때 그가 처한 상태는 우리에게 큰 흥미를 가지게 한다. 특히 그 환상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알려져서 그 본성을 알게 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영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영적 눈으로 영적 대상을 보는 상태요, 이 상태는 천사나 영들이 보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요한과 고대 선견자들은 어떤 무아경에 빠져들게 되어서 마치 꿈속에서와 같이 어떤 이상적인 형태 하에 있으므로 해서 뭔가를 그려내었다. 선견자들의 진정한 생각이 무엇인지 실감해보려면 우리 역시 그런 상태여야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육체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영혼이 보는 상태를 생각해 보는 것 뿐이다. 영혼과 영계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라고 진정 인정한다면 위의 조건들을 우리도 품어 볼 수 있다. 참으로 영계는 자연계보다 더 실체적이고 더 진짜이다. 최고로 진짜이시요 완전한 존재이신 창조자에게 더욱 가까워지는 곳이 영계이기도 하다. 영계가 자연계보다 더 가깝다고 말한 이유는 영계가 자연계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마치 하느님이 자연계와 영계 양계에서 생명이시듯, 인간의 생명이 영혼을 통해 육체에 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요한에 의해 보여진 환상들은 실체이다. 그러나 그 환상들은 영계의 법칙에 따른 것이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대상물은 눈에 보일 수 없는 상태나 생각들의 형상이거나 밖으로 돌출된 형상들이요, 이 형상들은 상응의 법칙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 “환상은 계시 중 가장 깊은 차원이다. 이 차원이란 지각에 속한 차원을 말한다.” 이는 환상의 본성으로부터 내면이 닫혀져 있는 이들과 내면이 열린 상태의 사람들이 같은 환상을 접하게 될 경우 두 계층간의 차이는 아주 크다. 예를 들면 시나이산에서 전 회중에 나타난 환상과 아론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보여진 환상은 각기 다르다. 환상에도 몇 종류가 있다. 환상을 보는 자의 상태가 더 내면에 속할수록 더 완전한 환상을 보게 된다. 환상도 두개의 반대적인 환상이 있다. 그것은 신성한 것과 악마에 속한 것이다. 신성한 환상은 천국에 있는 표현물을 수단으로 있어지고 악마의 환상은 지옥에 있는 마술에 의해 결과된다. 신성한 환상들은 천국의 표현물로 되는바, 과거 예언자들이 환상을 볼 때 육체 안에서가 아닌 영 안에서 가졌던 것과 같다. 요한이 계시록에 기술한 사항들 모두 역시 그가 그것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준비된 마음의 거룩함과 주체의 신성함을 표현한다. 요한은 주님의 날에 영 가운데 있었다. 주님의 날이란 그분이 부활하신 날이었다. 이 날은 죽음과 무덤을 넘어서는 그분의 마지막 쫓겨의 날이다. 이 날은 구속의 역사,

시험이라는 땀흘림 뒤에 이어지는 쉼의 날이다. 이 날은 일곱 겹 어둠의 밤을 잇는 일곱 겹 빛의 날이다. 이 성스러운 날, 그분께서는 묵시록을 쓸 예언자에게 부활 영광의 찬란함 속에서 그분 자신을 밝히 알게 하신다. 이 거룩한 날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해두고, 더불어 마음이 계발된 상태,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환상을 이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다. 그 이유는 요한이 영 가운데서 보았던 것을 교회가 영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향의 빛과 지각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계시는 사도 요한에게 점진적으로 열려지고 있다. 먼저 그는 자기 뒤에서 울리는 나팔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다. 그는 영광가운데 계신 주님을 봄으로 단번에 얼떨떨해하지는 않았다. 그가 이렇게 위대한 장관을 보도록 잘 준비되었어도 주님의 모습에 그는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었다. 아마 준비조차 없었다 하면 그는 절멸되고 말았을는지 모른다. 그분께서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방법은 이 예언자에게만 특유했던 것은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만민에게 공통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여주는 방법의 본성이나 의미는 우리에게도 흥미 있을 것이라 본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는 통상 두 가지 양식이 있다. 그 사람을 보아서 아는 것과 들어서 아는 것이다. 주님 역시 이 두 양식을 통해 자신을 밝히신다. 듣는 것은 의지와 애정에 더 직접 통하는 감각이다. 완전하게 뭔가를 지각하려면 위 두 양식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지각하는 순서로 볼 때 듣는 것이 보는 것에 앞서 있게 된다. 따라서 마음의 첫 번째 선생은 귀이다. 막 태어나는 아기는 그가 봄으로 사물을 알아 차리기 전 소리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눈을 통하여 지식을 획득하기 전 귀를 통하여 배운다. 다시 태어나는 인간의 경우도 위와 같은 과정을 밟는다. 가장 이른 시기에 받은 종교적 영향들이 그의 심정을 만들고, 그 후 지성을 통해 오는 지각들이 그의 틀을 만들어 준다. 마음이 계발되기 전 영이 운행한다 (창세기1:2,3참조). 그럼에도 위 두개의 다른 지각의 원인 안에도 동일성이 있고 각 원인의 결과들도 하모니를 이룬다. 소리를 생산하는 운동이 빛도 생산한다고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어떤 힘이 증가 될 때 소리의 경우는 귀에, 열은 촉각에, 빛은 눈으로 각각 오겠지만 그 강도는 같은 것이다. 신성한 존재가 육체의 감각에 그분의 창조적 에너지를 발휘하시듯 정신적 자질에 영의 힘을 발휘하신다. 이 힘의 작용은 초기에는 부드럽게 시작되어 점차 강도가 세어져가면서 마음에 하느님의 영이 탄생될 수 있게 하신다. 맨 처음의 영향은 의지에 있는 애정을 움직이면서 두 번째 영향이 이해성에 있어서 생각을 계발시킨다. 그래서 요한은 먼저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 그분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 소리가 처음에 요한의 뒤쪽에서 있었다는 것은, 신성한 유입은 먼저 의지 안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말이다. 이 의지의 주거지는 뇌의 작은골인데

머리의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의지를 통해 이해성 안으로 들어간다. 머리의 앞과 뒤에 관한 위의 의미는 머리의 뒷부분인 작은골이 의지기관이고, 머리 앞 부분에 있는 큰골은 지성 기관이라는 사실로부터 파생되고 있다. 요한이 듣는 것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다. 큼(greatness)이라는 단어는 선함에 관련하여 어떤 것의 품질을 표현하는 말이다. 나팔 소리란 애정이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 이유가 관악기는 선에 대한 애정을, 현악기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요한의 뒤쪽에서 이어진 큰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네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 에페소, 스미르나, 베르가모, 티아디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어라.” 이 구절의 앞 부분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고 뒷부분은 후에 일곱 교회를 살필 때 더불어 취급하고자 한다. 이 말씀에 대한 일반적 의미는 쉽게 느껴지리라 본다. 천국과 교회에 속한 모든 것, 모든 상태에 대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 속에 든 교회의 상태에 관해 밝혀 주신 모든 것을 각자의 내적 삶이라는 책에 쓰도록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책은 넓은 측면인 세상과 교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 내에 있는 것에 대해 모든 이에게 계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뒤쪽에서 전달된 음성을 들으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나는 누가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았더니 황금등경이 일곱 개 있었고...” 요한은 자기가 들었던 것을 보기 위해 돌아서고 있다. 이미 살핀 바 있지만, 신성한 유입(Divine influx)은 애정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생각 안으로, 또는 의지 안으로, 그 다음 이해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의지 안에서 소리가 들리고, 이해성 안에서 소리는 보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귀로 들은 것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몸체를 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야만 한다는 말이다. 이를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돌아서게 해주신다. 그분의 소리를 뒤쪽에서 듣는 모든 이를 주님께서 그분께로 돌리신다. 다시 말해 그분의 신성한 영향을 의지와 애정안에 받아들인 사람은 그분을 볼 수 있게 방향을 틀게 해주신다. 보기 위해 방향을 트는 것은 주님에 대한 완전한 지각,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완전하게 지각하는데 필수사항이다. 의지 안에 이루어진 영향(감각)은 보편적 차원이고, 이해성에 이루어진 영향(감화)은 세부적(구체적) 차원에 해당된다. 옴은 신성한 존재를 지각함으로써 북받쳐 오르는 기쁨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당신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지만, 이제 저의 눈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욥기42:5). 요한이 돌아섰을 때 그는 일곱 황금등경(촛대)을 보았다. 이 일곱 촛대는 천국과 지상에 있는 교회를 표현한다.

일곱 촛대가 표현한 교회는 지상에 존재했던 것은 아니고 지상의 교회를 계승하게 될 교회이다. 존재해 왔고 진행되어 가는 교회가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로 표현되고 있다. 이 교회들은 장, 단점을 지닌 채 존재하는 교회들이다. 이 일곱 황금 촛대는 교회를 표현하되, 각 교회는 그 자체로부터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빛의 그릇이라는 차원에서의 교회일 따름이다. 주님만이 각 교회 속의 빛이시다. 이 촛대들은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금은 사랑 또는 선함의 상징물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선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이들만이 주님의 빛을 받아 다시 열과 빛을 발할 수 있다. 교회는 세상에서 빛이다. 그 이유가 교회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이 말씀의 근원인 주님으로부터 직접 진리의 빛을 받기 때문이다.

13. “그 일곱 등경 한가운데에 사람같이 생긴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이 예언자는 천국과 교회를 유지 존속 시켜주는 창조자로서의 주님에 관한 장대한 묘사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유한한 마음이 사람의 아들, 지상에서 슬픔의 사람이었으나 이제 그분의 머리에 그런 흔적이 없는 사람, 이제는 더 없이 높이 들려진 그분, 모든 이름 위에 씌어 있는 이름, 만민의 무릎이 그분 앞에 꾸부러져야만 하는 사람임을 우리로 수용하도록 요한은 묘사해놓고 있다. 예수께서는 발광체의 중심으로 등경 한가운데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로부터 교회는 빛과 생명과 영광을 가지게 된다. 요한이 본 그분은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분에게 나타난 영광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과거 자기가 늘 보아왔던 분이심을 알았다. 그분은 자기가 사랑했던 육을 입으셨던 주님, 그러나 유한한 영광 모두를 넘어 영화하신 주님이심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분은 사람의 아들 같았다. 예수는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와 같이 눈에 보일 수 있고 다가 갈 수 있는 존재이시다. 영화하셨지만 그래도 사람이시다. 영원한 하느님이시나 하느님-사람이신 분이시다. 그러나 주님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렇다고 또 하나의 다른 하느님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분은 말씀 또는 신성한 진리라는 측면에서의 사람의 아들이시다. 이런 측면 모두가 그분에게는 동일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말씀이 육이 되셨듯이, 육이 말씀이 되셨기 때문이고, 이제는 최말단 형체에서의 말씀도 되기 때문이다. 육을 수단으로 해서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이다. 영원한 말씀으로서 주님이 입으신 인간 본성이 신성이 되셨는바, 그 인간 본성은 이제는 영원한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다. 마치 육신이 영혼과 하나이듯 하다. 말씀으로서의 주님 자신에 관한 묘사는 씌어진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씌어진 말씀은 씌어진 영원한 말씀이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말씀은 인간의 본성 안에서 그 본체를 명백히 드러내신다. 주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말씀 전체를 충만되게

하셨다. 즉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말씀이 포함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심을 명백히 하시어 최말단에서의 말씀이 되셨다. 육을 입은 말씀과 씌어있는 말씀 사이의 연결, 오히려 두 말씀에 대한 정체를 알아 둘 필요가 꼭 있는데 그 이유는 본문에서 일곱 황금등경 한가운데에 서 계신 분,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주님 자신은 천국과 교회의 중심되는 생명이시요 빛의 근원이시다. 그럼에도 생명과 빛은 밝히 알려진(계시된) 말씀을 통해 온다. 이 말씀 한가운데에 주님이 계시고 이 말씀을 수단으로 그분께서는 모든 영적 축복들을 그분의 백성에게 전달하신다.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존재하고, 각 교회의 품질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고 그 교회의 생명 역시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의존된다.

사람의 아들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으셨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다. 그분이 육을 입으시기 전과 영화하신 후에 입고 계신 옷은 그분의 인격에 관련된 신성한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전달해 주시려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 이미 말한바 있지만 성도들의 옷은 그들의 정의이다. 진리를 실제에 가져다 놓을 경우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정의(righteousness)라는 말 밖에 없다. 우리가 말씀에서 밝히 알게 된 정의의 법칙에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성도들의 정의인 흰 모시옷을 입게 된다. 주님의 옷은 그분의 정의이시다. 만일 우리가 이를 씌어진 말씀, 밝히 알게 된 주님께 응용해 본다면, 옷이란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 이 의미는 그 속에 신성한 진리를 담은 그릇, 천사와 인간에게 나타날 때 신성한 진리가 전달되는 매개체를 말한다. 특히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는 정의의 법칙과 기독교인의 생활을 형성하는 도덕적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사람의 아들이 입고 계신 옷에 해당된다. 요한에게 주님을 보여주실 때도 그러했듯 말씀이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우리가 옷 입는 형태와 같이 옷이 덮은 부분과 덮지 않은 부분도 있다. 글자적(자연적) 의미의 말씀은 어느 부분의 경우 순수한 진리(genuine truths)로만, 어느 부분의 경우 가상적 진리들(apparent truths)로 존재한다. 순수한 진리들, 이는 존재하시는 하느님 그대로 인데, 옷이 덮이지 않은 부분, 즉 얼굴, 손, 발이 이에 해당된다. 가상적 진리들, 이는 연약하여 무리 무른 우리의 생각들이 하느님을 묘사할 경우의 진리들이고 본문에서 사람의 아들을 발끝까지 덮은 옷이다. 큰 사람(Grand Man)으로서의 신성한 인간으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는 위의 두 가지 이중적인 양상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가 신성한 진리로 된 세 천국 모두에서 그분은 부분적으로 옷입혀진 채로, 부분적으로 옷이 덮이지 않은 채 보여진다. 천적 천국에서는 얼굴과 머리로서, 영적 천국에서는 몸과 손으로, 영적 천국과 천적-자연적 천국에서는 다리와 발이 옷입고 있는 양상으로 보여진다.

긴 옷을 입고 계신 사람의 아들은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띠는 속옷을 덮는 겹옷을 꼭 매어 걸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고대 시대 때에 사용되었다. 사람의 아들이 겹옷을 입고 계셨을 때 그분 역시 그 옷에 부착된 띠를 매셨다. 말씀으로서의 주님에 관련하여 생각하면 띠(girdle)란 둘 사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나로 매여 있도록 하는 것, 즉 말씀 속의 영적 진리와 말씀 겉의 자연적 진리가 하나로 묶여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이 주제를 말씀 자체에 관련해서든지, 그 진리를 받는 그릇이라는 측면에서 교회에 관련해서 관조해보면, 주님께서 금띠를 가슴에 띠고 계셨다는 사항에 깊은 교훈이 있음을 알게된다. 금은 사랑과 선함에 대한 상징물이다. 주님의 측면에서 그분의 겹옷은 그분의 진리가 진행되는 영역이고, 금띠는 그분의 사랑이 진행되는 영역이다. 이 영역들의 작용은 다르면서도 서로 부합되고 있다. 진리는 구분지어주고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한다. 그러나 진리가 따로따로 구별함(distinction)은 합일(union)을 목적으로 해서 존재하는 작용이다. 진리는 우리로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서로 반대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서로 관련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즉 서로 일치 않는 사항을 구별해내고 서로 일치하는 사항의 관계까지 보도록 해준다. 사랑은 둘 사이를 하나로 되게 해주는데 사용된다. 말씀 속의 모든 진리는 서로 구별되면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 이 진리와 저 진리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명백하고 총명해진다. 더불어 구분된 두 진리가 사랑으로 하나를 이룰수록 우리의 상태는 더 완전해진다. 사랑 없는 진리는 하모니 즉 하나됨이 없는 다툼과 분리만을 있게 한다. 이는 무수히 많이 산재한 종파들에서 흔히 보여지는 양상들이다. 진리들은 서로를 구별해준다. 그 이유는 각각은 자기 나름 대로를 말해주는 교리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모든 이가 사랑에 의해, 특히 금띠라는 측면에서의 사랑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서로 다른 모든 이, 모든 종파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체중의 한 형상들이 되어 하나의 커다란 영광의 몸체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에 감화되지 않을 경우, 서로는 상대방을 이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결국 진리에 대해서까지 적개심을 품게 된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내세우는 것은 진리이고 타인의 것은 무조건 진리가 아닌 듯 자기들에게서 분리만 시키려 하는 행동들일 것이다. 따라서 하나로 집합된 교회를 형성하는 대신 서로 분리된 가지들로 존재하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묶어주는 띠 대신 찢진 틈”만을 보게 되는 수가 허다하다. 사실 교회 속의 개인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법이 존재할 뿐이다. 진리들은 그들을 구별하게 하고 사랑은 그들을 하나되게 한다. 고로 각 마음 안에서 진리들이 하모니를 이루어 사랑으로 하나되어야 할 것이다. 사랑은 각 교인들에게 한 가지 생명과 한가지 목적만을 주는바, 사랑 없는 그들에게는 하나로 됨도, 능력도 없다. 주님께서 금띠를 띠신 가슴(paps)의 의미도 금띠 자체의 의미와 거의

비슷하다. 가슴(breast)은 사랑을 상징하는데 특히 교인들에 의해 받아들인 이타애 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 그러나 가슴이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서 사용된 것은 특별한 용도가 있어서이다. 이를 이사야서의 구절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교회는 “제 왕들의 젖을 먹고 자라리라”라는 약속을 이사야는 전달하고 있다 (이사야60:16). 이 구절이 말하느바, 교회의 자양분의 근원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별로 당황해 할 해석은 아닐 것이다. 본 구절의 경우 다른 면모에서 주님의 사랑을 금떠로 상징해놓고 있다. 이를 수단으로 주님은 그분의 교회와 자신을 한데 묶으시고, 그분의 가슴으로부터 영적 생명의 양식을 그분의 교회에 공급하신다.

14,15. 사람의 아들에 관한 묘사에서 요한은 이렇게 더 진행하고 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또는 눈같이 희었으며 눈은 불꽃 같았고 발은 풀무불에 단 놋쇠 같았으며 음성은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종에게 나타나 보이신 장엄한 모습은 모두 상응적인 것인바, 그 모두는 각각 구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말씀처럼 그분과 모두 관계되는 사항들이며, 천국과 교회와도 관계되고 있다. 머리는 말씀 안에 있는 선함과 진리에 관한 원리들의 가장 높음 또는 가장 깊음이고, 발은 가장 낮음 또는 가장 바깥이다. 주님의 머리는 원리들 중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 즉 신성한 사랑과 지혜이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털은 최말단에 있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이다. 그분의 눈은 용의주도한 섭리 측면에서의 신성한 사랑과 지혜, 그분의 발은 자연적 수준에 있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이다. 그분의 머리는 신성한 천적 원리, 그분의 눈은 신성한 영적 원리, 그분의 발은 신성한 자연적 원리이다. 주님을 말씀으로 간주하여 보면, 세 천국의 천사들에게 숙박하고 있는 신성한 진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묘사되고도 있다. 가장 깊은 천국 즉 천적 천국은 그분의 머리로서, 중간 천국 즉 영적 천국은 눈으로서, 가장 낮은 천국 즉 가장 바깥 부분의 천국은 그분의 발과 같다. 이와 같이 지상의 교회도 존재한다. 그 이유는 땅은 주님의 발판이요, 천국은 그분의 옥좌 되기 때문이다 (마태5:34,35). 우리가 사람의 아들에 관한 본문의 묘사를 주님 자신에 관련시켜 보든, 그분의 왕국에 관련해 생각하든, 또는 그분의 말씀에 적용시켜 보든, 어느 관련사항에서도 공히 가르침을 받게되고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발견하게끔 되어있다. 주님은 말씀을 생산하신다. 말씀은 천국을 생산한다. 천국은 교회를 생산한다. 이를 보다 엄격히 말하면 주님은 말씀을 생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천국을, 천국을 통해 교회를 생산하신다. 그러므로 위 세 단계들에도 하모니와 상응이 있어 그 중 하나가 묘사한 것은 전부를 묘사하도록 되어있다. 사람의 아들에 관한 위의 묘사 외에도 우리가 더 주목해보아야 할 세부 사항들이 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모두 희다고 언급하고 있다. 순백(whiteness)은 깨끗함을 상징한다. 첫 원리와 최말단에서, 영적 의미와 글자적

의미에서 머리와 머리털이 말씀을 표현할 경우, 그것의 순백은 영적, 글자적 의미라는 양 측면에서 말씀은 순수한 진리이라는 것, 어떤 잘못이나 악이 없는 진리라는 것을 암시해준다. 더 명백히 가르쳐주는 것은 순백은 양털과 눈같이 희다고 언급하는 데에 있다. 글자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은 사랑과 지혜, 선함과 진리에 관한 교훈을 함유해서 마음을 이타애와 믿음으로 인도해 준다. 두 가지 중 첫 번째가 양털로 의미되고, 두 번째 사항은 눈으로 의미되고 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순수하다는 것이 희다는 말로 의미되고 있다. 그런데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에서 일 경우, 완전하게 순수한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된다고 여겨지는 것들, 읽는 사람의 마음을 오염시킨다고 까지 도덕주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도 다수 포함되어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항의하는 대목까지도 그 자체가 불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수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불순하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것 뿐이다. 사실 글자를 벗겨 놓게 되면 거기에는 불순한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완전한 순진함 안에 있다면 그런 대목에서 부끄러운 상태를 느낄리는 만무하다. 죄가 말씀의 글자를 부끄러운 것이 되게 했다. 말씀 자체가 불순하다든가, 불순을 만들어내는 대목은 신성한 말씀 안에는 한 군데도 없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의 글자는 그 글자가 씌어진 시대의 상태에 따라 말하고 표현했을 뿐이라는 것, 만일 우리가 계시의 실체와 용도를 찾는다면 도덕적으로 양털같이 희고, 지성적으로 눈같이 흰 말씀을 발견하고야 만다. 사람의 아들의 눈은 불꽃 같았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교훈, 즉 신성한 지혜는 신성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그 결과 섭리는 확실한 지혜로 지휘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칠줄 모르는 사랑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는지 모른다. 사랑의 지혜로서의 신성한 지혜가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고 표현되어져있다. 사람의 아들의 발은 풀무불에 단 놋쇠 같다고 말해지고 있다. 주님의 인성 속에 있는 신성한 자연적 원리, 또는 말씀 속에 있는 신성한 자연적 원리들이 놋쇠에 비교되고 있다. 그 이유가 놋쇠(brass)는 자연적 선함을 상징하는 금속이기 때문이다. 이 자연적 선함은 자연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선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신성한 선함을 말하고, 이 선함이 인간 생명의 가장 낮은 수준을 만들어 준다. 그분의 발은 놋쇠였을 뿐만 아니라 정제된 놋쇠(fine brass)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래서 주님의 인성이 고통과 시험이라는 용광로(풀무불)를 통하여 영화하시는 과정, 제련되시는 과정까지 우리로 알게 해준다. 그런데 순수해지게 하는 불이란 무엇일까? 이는 하느님의 분노라는 불도 아니요 지옥의 불도 아니다. 시험이 불순물을 분리시켜 가지고 가버린다. 모든 시험 너머에 존재하는 신성한 사랑은 시험을 허용하면서도 위압하는바, 결과되고 있는 모든 선의 근원이요, 성공의 보상자이기도 하다. 신성한 사랑은 생명의 선에 광채와 더불어 순수함을

준다. 이것이 풀무불에 정제된 낱씨이다. 사람의 아들의 음성은 큰 물소리(the sound of many waters)같았다. 물은 진리에 관한 상응물이다. 따라서 큰 물(많은 물)이란 풍부한 진리를 말한다.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인 신성한 계시(밝히 알게 해 주심)는 많은 물들이 돌진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 물들은 그분의 교회 멤버들 또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 새롭게 하여 원기를 회복시켜 주면서 동시에 깨끗하게 되도록 해준다. 이 구절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생각한다면 이 모습은 물 자체가 아닌 물들의 소리로 한정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유사한 내용들이 상응성을 지니듯이 물소리와 유사함 역시 그 소리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과 비슷하다. 우리가 아는바, 주님께서 물의 흐름처럼 그분의 영의 역사에 관해 이렇게 말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뱃속으로부터 생명수가 강물같이 흘러나오리라” (요한7:38).

16. 요한의 묘사는 사람의 아들의 영광과 위엄에 관해 이렇게 더 보여주고 있다. “오른손에는 일곱별을 쥐고 계셨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왔고 얼굴은 대낮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일곱 등경, 일곱 영, 일곱 별, 이 모든 것은 후에 설명되는데 아마 이 구절을 응용하는 때가 더 많게 될 것이라 본다. 그 이유는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설명들이 그 성경 글자에 대한 뜻에 해당되는바 각 부분의 설명과 공히 영적 의미를 함유하기 때문이다. 일곱 등경은 일곱 교회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을, 일곱 영은 어린 양의 일곱 눈이다. 이들은 각기 관계되는 다른 부분에서 살피게 될 것이다. 현 구절에서의 경우, 별들이 신성한 진리들을 의미한다는 것, 이 진리들은 주님으로부터 나와 교회로 진행한다는 것만을 말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일곱 별이란 교회가 가르침과 지시를 받기 위해 말씀 안에서 밝혀 알게 된(계시된) 거룩한 모든 진리들을 말한다. 이 별들은 사람의 아들의 오른손에 있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지는 이유는 교회에서 역사되는 신성한 권능은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있어지기 때문이다. 별로 의미된 진리란 지식 수준에서 교회에 있게된 진리들이다. 모든 지식들 중 가장 높은 진리는 주님의 인성 안에 계신 그분 자신에 관련된 진리이다. 이 지식이야말로 권능이 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구세주로서의 예수에 관한 지식은 믿는 자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구원이 있게 해주는 믿음도 어찌됐든 그 근원은 사랑에 있다. 마치 구원을 있게 해 주는 진리가 그 근원을 선함에 두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고로 별들은 사람의 아들의 오른손에 있었다. 말씀 안에는 해, 달, 별을 함께 언급하는 때가 가끔 있다. 세상 창조 때 그것의 창조도 있었고 마지막 때 그것의 소멸도 따로따로 서술되고 있다. 말씀이 교회의 시작과 끝을 세상의 창조와 파멸의 모습으로

다루고 있을때 천국의 발광체도 그와 상응되는 의미의 차이를 가지게 된다. 해,달,별은 사랑,믿음,지식의 상응물이다. 이것들은 교회의 발광체로 교회의 생명과 빛의 근원이 되도록 파견된 것들이다. 이것들이 불을 밝히는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자기들의 징조, 계절, 날들, 햇수들을 알고 있고, 그 교회에 있어지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의 오고 가는 것을 눈치채는바 이럴 경우 그 교회는 자기들에게 혜택을 주는 불변의 행동들로 되돌아가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리라. 그러나 실패할 때, 해가 어두워질 때이요, 달이 그 빛을 잃을 때요,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때인바, 끝이 온다. 이 구절의 경우 위와 같은 종말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힘을 가지게 되는 때를 취급한다. 이 때란 주님의 생명과 빛에 연결되어 보여져 인정하게 될 때이다. 그분의 권능에 대한 또 다른 상징물은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오는 모습이다. 이는 그분의 음성이 큰 물소리 같았다는 것과도 유사하다. 물처럼 칼(sword)도 진리에 대한 상징물이다. 바울은 하느님의 말씀을 영의 검으로서 말하고 있다 (에페소6:17).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 보다 더 날카롭습니다"(4:12). 진리는 몇 개의 다른 상징물로 표현되는데 그 이유는 몇 개의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는 빛같이 광채를 발하고, 진리는 물같이 깨끗하게 해주고 진리는 칼같이 냉정하게 자른다. 칼은 전쟁을 표시해주는 물건이기도하다. 그러나 주님의 전쟁은 육적인 차원이 아닌 영적 차원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사람들에게 관한 게 아니라 원리들에 관한 것이다. 주님의 진리에 속한 칼은 쌍날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가 이 칼은 잘못과 악 양쪽에 대항하여 싸우기 때문이다. 이 칼은 날카롭다. 그 이유가 칼은 영혼과 육체를 꿰뚫고, 두 동강이가 되게 하고 심정이 품은 의도와 생각을 판별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히브리4:12). 주님의 진리가 적들을 공격하는 한편, 그분의 백성에게는 확신을 주는데 줄곧 사랑으로 딱 차 있어 진행된다. 그분의 입에서 쌍날칼이 나오는 반면 그분의 얼굴은 대낮의 태양같이 빛났다. 이미 살핀 바대로 태양은 신성한 사랑의 상응물이다. 보다 자세히 말한다면 사랑과 지혜가 하나된 상태이다. 그 이유가 태양의 열은 사랑을, 빛은 지혜를 말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강도는 기술해 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무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힘있게 빛나는 태양이라고만 말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사람의 아들에 관한 모습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 있다. 그것은 성서 여러 군데에 묘사된 여호와의 나타남이다. 모세와 칠십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뵈었다. "그가 딛고 계시는 곳은 마치 사파이어를 깔아 놓은 것 같았는데 맑기가 하늘빛 같았다" (출애굽기 24:10). 이보다 더 세세한 모습이 예제키엘에게 보여지고 있다. "머리 위 덮개 위에는 청옥 같은

것으로 된 옥좌같이 보이는 것이 있었다. 높이 옥좌 같은 것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은 허리 위는 놋쇠 같아 안팎이 불처럼 환했고, 허리 아래는 사방으로 뻗는 불빛처럼 보였다. 사방으로 뻗는 그 불빛은 비오는 날 구름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마치 야훼의 영광처럼 보였다. 그것을 보고 땅에 엎드리자, 말소리가 들려왔다” (에제키엘1:26-28). 본문의 모습과 가장 유사하게 나타난 대목이 태고적부터 계신 분에 관한 다니엘서의 기록이다. “내가 바라보니 옥좌가 놓이고 태고적부터 계신 이가 그 위에 앉으셨는데,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양털같이 윤이 났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었고 그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다” (7:9). 나타나신 모습의 유사함은 여호와와 예수의 정체를 함축하는바, 그 탁월한 영광이 동등하도록 배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읽어가서는 안되리라.

17,18. 그러므로 에제키엘이 여호와와 환상을 보자 땅에 엎드렸고, 요한 역시 예수의 환상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당한 일이라 생각될 것이다. “나는 그분을 뵈자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위 두 예언자의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기독교회의 예언자가 느낀 창피함(humiliation)이 유대교회의 예언자의 것보다 더 심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 각자에게 보도록 특별히 배려된 대상의 내려 누름은 기독교 예언자에게 더 강했음을 암시해주기도 한다. 그는 이런 체험을 변모하신 산에서도 가졌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아들의 영화하심은 이제는 영원토록 완전하게 계시기 때문이다. 요한이 지상에서 오랫동안 보아왔던 그분의 겸허하심과 비교할 때 현재의 영광은 참으로 비교 불가능한 차이이다. 존경이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 구절을 읽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심을 인식하는데 실패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교리적인 추론을 떠나 이 거룩한 관계를 관조한다면 요한이 사람의 아들의 발 앞에 죽은 자같이 쓰러졌다는 대목은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게 된다.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가까이 현존함은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에게는 생명이 하나도 없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진정 우리의 생명은 하느님으로부터 존재하고 그분의 현존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 그런데 이 생명은 무한으로부터 유한에게로 건너오되 완충 역할을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마치 태양의 열과 빛이 그 강도를 조절해 주는 대기를 통과하는 것과도 같다. 강도가 조절이 안된 태양광선이 그 광선을 받아 활력을 얻는 대상물에 직접 비친다면 모든 대상물을 살라버리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정의의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도 강도가 조절 안된 상태라면 해가 힘있게 비치듯 나타나는 그분의 얼굴 가까이 접촉된다면 즉각 살라지고 만다. 그 이유는 주님이 참으로 영계의 태양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선함과 진리로 구성되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이

선함과 진리들은 셀 수 없는 어떤 매개체를 수단으로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각 인간의 자질들에 속박하게 된다. 가장 높은 천국과 주님 사이에서도 그분은 그 천국 훨씬 너머에 계시면서 영기(sphere)를 창조해두시고 이를 통하여 신성은 가장 높은 천사들에 의해 의식으로 알아채기 전 통과하여간다. 이런 매개체가 없다면 신성의 영향력은 그들을 살라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가장 높은 천국을 통해 가는 것 외에도 신성의 유입은 모든 천국을 통과하여 지상의 인간에게도 내려오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자기상태보다 더 높여져 주님의 현존에 더 가까이 들어가도록 허용되면 들어올려진 수준만큼 신성한 영광에 압도되는 것이다. 생명 자체이신 그분의 생명과 우리 것 사이에 비교되어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선함과 진리 자체이신 그분의 것과 우리의 선함과 진리를 비교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 한마디로 비교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가 자신의 영기 이상으로 들어 올려진다면 우리 역시 요한처럼 죽은 듯이 사람의 아들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비정상적이고 갑작스런 들뜸은 생명의 결핍이라는 느낌을 생산하는데 정상적이고 점진적인 들뜸의 경우에서도 또 다른 종류의 자기 희생이 생산되게 해준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각자의 사랑이다. 모든 이들은 자신과 세상을 당연하게 사랑하듯 모든 이의 생명은 본시 신성한 생명에 반대되어 있다. 신성한 생명은 최고로 순수한 사랑이요, 이 사랑의 본성은 타인을 사랑하고 그들과 결합하려는 바램, 그들이 영원히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거듭나는 삶의 진보에서 그 영혼이 신성한 사랑의 순수함을 느끼고 알게 되는 만큼 자연적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불순한지 느끼게 되어 그는 심오한 창피스러움에 처하게 된다. 물론 썩어진 이기심을 절대적으로 죽어지게까지 할 수는 없아해도 최소한 자신 고유의 것 모두는 주님의 것과 비교해 볼 때 죽어있는 것들임을 깊이 눈치채는 수준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모습을 잘 그려준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가 어떤 분, “몸은 감람석 같았고 얼굴은 번갯불처럼 빛났으며 눈은 등불 같았고 팔다리는 놋쇠처럼 윤이 났으며 음성은 못 사람이 아우성치는 것 같았던”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장엄한 모습을 보다가 사색이 되었다. 맥이 빠져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 (10:6,8).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모든 이에게 와졌으면 하고 바래시는 모습이요, 요한으로 표현된 모습 역시 모든 이들이 되어야 할 상태이다. 그 이유는 하느님을 사랑함은 자아 사랑이 자살을 시도해야만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죽어지고 마는 자들만이 살아 있을 수 있다. 오로지 사람의 아들의 발 앞에서 죽은 듯 쓰러진 이들에게 “그분은 오른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었지만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무궁토록 살 것이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내 손에 쥐고 있다.” 주님의 오른손이란 그분의 권능이다. 그분의 권능은 생명되는 사랑과 지혜의 전능하심이다. 손을 얹으심이란 권능이 오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생명, 미움뿐인 생명, 자아 사랑뿐인 인간의 생명을 내려놓은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랑인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impart)주시는 바, 이것이 옳드러지고만 사도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는 것으로 표현되어있다. 신성한 손을 얹으심에는 필시 위로해주는 권고의 말씀, “두려워 말아라”가 동반된다. 사실 죄악된 상태에 신성의 완전함이 밝혀질 경우 어느 누구라 해도 두려워 떠는 마음이 없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두려움(fear)에 관한 예를 성서 몇 군데에서 찾아보자. 거룩한 분의 환상 앞에서 덜덜 떠는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즈가리야가 요한이 탄생할 것임을 알리는 천사를 보게되어 근심에 싸여 있자 천사는 그에게 “두려워 말라” 라고 위로했다. 주의 천사가 베들레헴의 들판에 있는 목자에게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떨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었다. 고기가 기적적으로 많이 잡힌 것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을 것이다.” 주님이 변모하셨을 때 세 제자들은 매우 겁을 먹고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타이르셨다. 무덤에 있던 여인들이 천사에 의해, 그리고 기쁨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라고 이르셨다. 이상 언급한 두려움은 모든 권능을 진 어떤 사람에 대한 노예같은 두려움이 아니다. 이것은 최고로 완전하게 선하신 분을 사랑해서 나타나는 지극한 존경의 두려움, 경외함이다. 두려움은 사랑의 소리에 의해 가라 앉혀질 수 있는 두려움이요, 이 두려움만이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 이유는 이 소리가 생명이신 그분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이 두려움은 요한에게 주신 확증,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라는 확증을 갖게 하는 바탕이기도 하다. “처음과 마지막이다”란 예수께서 그분이 구세주이시라는 것, 즉 거듭나는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것, 우리 믿음의 권위자이시요 마무리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까지 포함되어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분은 살아 계신 분, 죽었지만 사시어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가 구원의 권위자 되신다는 말은 크나큰 진리이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해서 그분은 지옥을 정복하셨고 그분의 인성을 완전히 영화시키시어 우리의 구속자와 구세주가 되셨다. 그러나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교회에서 그분께서는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으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죽는 사건은 그분을 부정함으로 야기된다. 이런 부정이란 예수가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부정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실지로 부정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성이 신성하다는 것과 그분의 일은 참으로 신성하다는 것을 부정함으로 실질적으로 부정해버리는 것이다. 그분은 신성(Divinity)과 더불어 신성한 인물(Divine person)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분은 하느님-사람(God-Man)이 아닌 하느님과 사람(God and Man)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분이 인류를 구속하심은 하느님이 인간과 재회(reconcile)해서,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과 재회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주님께서 새로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전과 같이 새로이 일어나셨다. 따라서 보라, 그분은 영원히 살아 계신 존재이시다. 그분은 두 번째 강림을 만드셨다. 그분이 두 번째 강림한 교회는 그분의 진정한 품성, 즉 영화되신 인성 안에 계신 여호와(Jehovah in His glorified Humanity)로서 그분을 인정할 것이다.

이를 각 개인에게 응용해보자. 거듭남을 수행하는 모든 이들 속에서 주님은 살아 계시기 전 죽어 계신다. 모든 자연적 인간 안에서 진리들은 생명 없이 존재한다. 우리 영혼이 계속 신실하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진리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예수는 이들에게 “예, 아멘”으로 존재하신다. (영어성경참조) 사랑과 삶으로 확증 받는 사람은 그분의 아들이요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그의 상태가 고정될 때 그는 정죄됨에서 구해질 뿐 아니라 각종 시험으로부터서도 보존된다. 그 이유가 예수께서는 지옥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이다. 인간을 구속함이라는 크나큰 일을 수단으로 주님은 지옥과 영적 죽음 위에 군림하시는 권능을 획득하셨다. 그러나 이 권능은 그분이 구세주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효능이 있다. 그리고 구세주는 우리 밖에 존재하는 지옥의 문을 닫아 거셨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지옥문까지 닫아거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전환되지 않는 사람, 타락하는 사람 속의 자연적 마음은 아주 작은 지옥 또는 거대한 지옥의 조그만 형상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작은 지옥 위에 군림하시는 권능을 받지 않으셨다면 더 큰 지옥 위에 군림하시는 그분의 권능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지를 해주실 수도 없다. 죽어있고 지옥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전환 안된 죄인들도 가능성이라는 바탕은 가지고 있다. 만일 그가 전환되기를 바란다면 희망은 있는바, 그 이유는 그분께서 지옥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지옥적 조건과 당연히 죽어있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 낼 수 없다. 주님께서 그분 스스로 권능을 가지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그 권능은 사람으로서 가지시는 권능이신 것, 육을 입으심으로 이 권능을 획득하신 이유는 어느 인간도 자신을 스스로 해방할 능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여실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인간도 열린 것을 닫지 못한다. 그분이 닫으면 어느 인간도 열 수 없다. 죄가 닫아버린 마음의 문들을 그분은 잠귀지지 않게 해주실 수 있다. 그리하여 참회하고

싶은 바람이 간혀져 있지 않도록 허용해준다. 그 다음 그 문들이 닫혀있게 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죽음과 파멸에 다시 추락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이다. 타락하는 영혼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각 사람의 이주 초기 시절의 삶 때에 은밀하게 심으시고 아껴두신 선함과 진리(remains)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들어있다. 인간이 전환점을 맞지 않은 상태일 경우 이것(remains)들은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라는 악들에 의해 갇혀 있는바 덮힌 상태, 즉 숨겨진 상황 속에 있다. 주님을 신뢰하여 회개하는 때가 차서 그분께 얼굴을 돌릴 때 그분은 문들을 여시어 지금까지 속박되어 노예나 다름없이 짓눌려있던 선한 애정들과 생각들을 자유와 빛으로 가져다 놓으신다.

19. 사람의 아들의 장엄한 환상, 그분 주위의 대상물들을 본 요한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야. 내가 보는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황금등경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고 일곱 등경은 곧 일곱 교회이다.” 기록하라는 명령은 그 글자 자체 의미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시록 외에도 또 다른 책과 저술도 미래를 위해 보존되고 있다. 인간의 마음이 책이고 그의 삶은 필기자(scribe)이다. 이 책 안에는 그의 이해성이 인정해 온 선과 진리 또는 악과 거짓에 관한 원리들이 지워질 수 없는 품성들로 씌어져있고, 이것들로부터 형성된 상태들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제 요한이 본 것 중 두 가지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시작해보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다. 그리고 일곱 등경은 일곱 교회이다. 천사들은 일곱 교회를 섬기는 사람(성직자)을 의미할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이해 해본다면 일곱 교회, 그리고 어찌됐든 자기들도 일곱 교회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여타 다른 교회들의 성직자들도 넓은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의 아들의 손에 있는 별들과 같을지 모른다. 이들은 그분으로부터 빛과 능력을 받고 말씀으로부터 진리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교회와 교통을 할 것이다. 그들이 사랑의 진리를 가르치는 한 그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교회는 등경처럼 그 자체로는 빛이 없고 단지 등경가운데 계시는 분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는 그릇일 뿐이다. 좀더 높은 의미에서 별들은 천국에 있는 교회들이고 등경은 지상에 있는 교회이다. 일곱 별은 천사들의 천국 전체를 표현한다. 천국의 천사들은 교회의 천사들이다. 그 이유가 천국에 있는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와 연결되어 교통하기 때문이고 천사들은 그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영들이라고 말하게 되기 때문이다. 천국에 있는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에 빛을 주고 방향을 가르쳐준다. 마치 창공의 별들이 지상의 거주민에게 빛을 주고 방향을 알게 해 주는 것과 같다. 그 이유가 계시는 빛이 직,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 모든 나라들에 확산되기 때문이다. 위 사항을

개인 측면에서 응용해보자. 사람의 아들의 오른손에 있는 별들이란 영적인 마음 안에 있는 선함과 진리에 관한 원리나 지식들이다. 등경은 자연적 마음 안에 있는 선함과 진리들이다. 거듭나고 있는 기독교인은 하늘과 땅, 또는 가장 작은 형태로 천국에 있는 교회와 지상의 교회이다. 각 교인이 자기의 내적 인간 안에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을 경우 이것이 창공에 있는 별들이요, 삶으로 명백히 관명한 진리들은 등경에 있는 등불이고, 이 등불이야말로 마음의 집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비추어 계발시켜준다. 더불어 이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일 때, 즉 사람들이 그의 선한 행실을 보게 될 때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리라... (마태5:16)

2

본 장과 다음 장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해 각각 연설되고 있다. 심정을 아시는 그분에 의해 각 교회의 상태가 기술되면서 그들을 지휘하시고 있는 것이다. 결점이 드러나고 미덕이 인정되고 있다. 그들이 재입증을 받고 명령이 내려지는데 경고와 더불어 용기도 붙여넣어 주시고 있다. 죄 가운데 계속 있을 경우 처벌이 위협하고 올바른 쪽으로 돌아설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약속되고 있다. 이 교회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직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일곱 교회란 회개하여 그분의 새 교회의 진정하고 생명있는 멤버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말씀의 호소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생각과 느낌이 얼마라도 남아있는 기독교인, 성령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 모든 계층을 망라한다. 각 교회는 각각의 특수한 계층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몇 교회들의 상태를 기술하고 있는 거룩한 언어를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안에는 결코 잘못이 없는 지혜에 의해 초상화된 자신이 그중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발견하고자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영감 되어 있는 이 서술들은 마음과 삶에 관한 모든 영적 상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능력과 영광 안에 계신 주님의 재림을 수단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이 일곱 교회를 통해 더 확실하게 되리라.

1. “에페소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시고 일곱 황금등경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에페소 교회란 선함을 취득하려는 것보다 지식을 획득하는데 더 열심을 내는 부류를 묘사하고 있다. 에페소 교회가 표현한 이런 품성은 그들에게 발표된 언어들, 특히 주님 자신에 관한 언어들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에페소 교회에게 예수께서는 자신이 일곱 별을 오른손에 쥐시고 일곱 황금등경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그려놓고 있다. 이는 앞 장에서 요한에게 보였던 주님의 한 부분이다. 이미 살핀 바같이 별들은 신성과 천국적인 것에 관한 지식의 상징물로 성경에서 고용되고 있다. 황금등경도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들 사이는 구분되는 점이 있다. 일곱 별은 내적 인간에 있는 신성과 천국적인 것에 관한 지식, 일곱 등경은 외적 인간에 있는 신성과 천국적인 것에 관한 지식이다. 영적 지식을 위한 애정을 소유함으로써 특질이 구별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지식에 대해 유일한 권위자이심을 발표하신다. 그분은 오른손에 별들을 쥐고 계신다. 내적 인간 안에 있는 천국이나 천국 자체 안에 든 선함과 진리에 관한 지식은 그분으로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 지식을 소유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는 그분의 권능에 의해 떠받쳐진다. 그분은 일곱 황금등경 사이를 거니신다. 진리의 모든 빛, 교회나 외적 인간에 있는 이 빛은 그 빛의 근원을 그분께 둔다. 그분은 생명의 모든 법칙, 모든 교리의 중심이시다. 걷는다는 것은 산다는 것이다. 그분이 받쳐주고 유지 존속시켜 주시지 않으면 별들은 천국으로부터 떨어지고 빛은 소멸되고 만다.

2,3. 아래 두 절은 에페소 교회로 표현된 이들의 실제와 관련되는 세부사항을 열거해놓고 있다. 여기에는 허가를 암시하면서 언급되고 있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허위를 가려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어 냈으며 낙심하는 일이 없었다.” 언급되는 사항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사항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나는 네 일을 알고 있다.” 이는 교회 속의 각 사람에게 반복되는 주님의 선행조건이다. 각 사람에게 있게 되는 각기 다른 세부사항들의 차이는 주님만이 아신다. 이는 모든 것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뒤지는 엄한 경고는 각 개인의 마지막 목적지에까지 계속 이어지는바 말씀 속에서 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자기 행적대로 그것이 선택된 악하든 심판되어 진다는 것이다. 이 말씀이 과거 시나이산에서 있었던 천둥번개의 소리보다 자연적 차원에서 더 크게 울림 것은 아니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 천둥 같은 울림 속에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복음서 속에 있는 섭리(economy)나 교리가 언급되는

중요한 대목 모두에는 선한 일의 중요성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의 행위들 없이 믿음을 수단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바울은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복음서의 믿음이 배척하려는 사항은 십계명의 법이 아니라 성직수행(ordinance)에 관한 법이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지시키러 오신 게 아니라 그 법을 완성하시려고 오셨다. 더욱이 그분 혼자서만 그 법을 완성시키려는 게 아니라 인간 역시 그 법을 완성할 수 있게 가르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여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의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 보다 더 옹계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5:19,20). 이것이 율법의 신성한 권위요 이 법을 완성하는 것이 영원한 의무이다. 따라서 구세주 스스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후보자들의 영적 상태를 테스트하는데 이 구절이 응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히 놀랄 사항은 아니라 본다.

에페소 교회에 있어지는 특별한 사항들을 생각해보기에 앞서 스스로 문의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신성한 훈계가 발표되는데 있어 왜 에페소 교회가 일곱 교회중 첫 번째로 경칭해야 할 대상이 되었는가이다. 이 교회는 기독교의 삶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의 첫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진리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려 하는 사랑은 자연적 마음에만 있는 부착물(attachment)과 영적 마음의 것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고리에 해당된다. 이 사랑이 눈을 뜨지 않으면 자연적 수준에서 영적 수준으로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젊은 시절은 이 사랑이 발달하는 자연적 수준의 시기이다. 가장 희망적인 징조는 과학의 꽃들을 따 모으는 시기, 거룩한 말씀의 진정한 취지에 관한 지식, 교회 속에 있어야할 진정한 교리에 관한 지식, 이런 지식을 가장 올바른 지식으로 선택하여 좋아하는 시기 곧 성년초기에 있어진다. 어떤 것도 이런 추구를 실망시키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신성한 동의 즉 그분자신이 그 지식의 저자이시요 받침대이심을 가지고 위와 같이 추구하는 이들을 창조하시고 있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별을 쥐시고 등경 사이를 거니시기 때문이다. 본문에 열거된 이 상태 안에 있는 이들의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정죄하시는 사항은 하나도 없다. 그분의 언어는 격려하시는 쪽에 있다. 비록 그분께서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있지만 에페소 교인들이 그 부족함을 채울 경우 그분이 약속하시는 보상은 지식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를 통치하는 애정으로 삼은 이들을 격려하시는데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보증해주시는 것은 그들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다는 것, 즉 그들의 지식에 지혜를 더 해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단의 첫 상태와 결점을 보완했을 경우의 마지막 상태 사이에는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야 할 의무와 미덕들이 많이 놓여져있다.

에페소인들은 그들의 수고함과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칭찬 받고 있다. 수고함(labour)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지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이다. 첫째 것은 이 교회로 표현되는 이들로 하여금 타인과 구별되게 하는 것들이다. 지적인 노력과 인내가 있는 탐구는 종교의 발달에서 있어지는 마음의 첫 활동이다. 영적 삶의 단계 중 악한 것들 속에서 버터내는데 무력한 상태에서조차도 도덕적 품성 쪽보다는 지적 품성 쪽에 더 강한 애착심을 가지는 게 흔한 일이다. 타인들 안에 있는 흠을 재빨리 발견해서 견책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 속에 있는 흠을 재빨리 발견하여 질책하는 진지함과 그 정도가 언제나 같다고는 말할 수 없다. 본문을 내적 측면에서 살필 때 개인적 차원에서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덜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악한 이들을 추상적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악자체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과 같다. 성년 초기에 그들이 소유하는 진리에 관한 지식은 악을 알게 해주고 당사자로 하여금 그것을 정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그들이 악을 혐오하는 것은 삶 보다는 교리 쪽에 더 치중되어있다. 이 정도의 수준은 악이 선이라고 부른다거나 선이 악이라고 하는 악용에 버텨낼 수 없고 오로지 이 수준은 이런 악용을 인정하고 가르치는 모든 교리에 대항하려는 열정으로만 충만되어 있을 따름이다. 우리는 에페소인들의 품성 안에서 위의 모양새에 관한 대응물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사도라 자칭하는 이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사기쟁이임을 발견했다. 이 구절의 경우 성경을 글자대로 이해하려고 고집하기는 아주 힘든 대목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요한 자신을 제외하면 모든 사도들은 이 구절이 발표되기 오래전 하늘나라에서 쉬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라는 진짜 인물들이 모두 육신의 삶을 끝낸 이상 그에 대한 대응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으로 마음을 승강시켜 사도들 각자가 표현해준 진리를 보는 것만 남아있다. 그러므로 에페소인들이 사도라고 말한 자들을 점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려내었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이렇다. 진리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고 그것을 퍼트리는 데에서 오는 특별한 기쁨을 취하는 사람들은 신성한 권위나 사도적인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려드는 교리가 있을 경우 그것을 엄격하게 조사한다. 에페소인들이 사칭하는 자들을 발견했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다. 진리를 알므로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인 체하는 교리 속의 거짓된 것을 간파한다는 말이다. 더욱이 이들은 잘못된 것을 간파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에 저항하면서 진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가르치기 까지 한다. 그들은 잘 참고 견디어 냈다. 이 구절에서의 참는다는 말은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

태도를 두고 쓰인 말이다. 그리고 견디어냄이라는 말도 단순히 복종한다는 태도가 아닌 진리의 불변성과 진리를 보존하려는 노력에서 쓰인 말이다. 오류에 깃발을 치켜들고 대항하되 진리는 유지 존속시키려 하는 노력은 진리의 지식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들의 사랑을 실시함으로 해서 얻은 기쁨 속에 있는 미덕이다. 더욱이 이들은 더 다른 쪽으로도 발전하여 더 높은 우수함을 획득한다. 그 이유는 에페소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어냈고 낙심하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노력은 이미 앞 절에서 칭찬 받은바 있다. 이제 그들의 수고는 새로운 품성을 획득했다. 이전에 그들은 자신들로부터, 자신들을 위해 더 행동했었다. 지금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더 행동하고 있다. 신성한 언어에는 정밀한 의미로 충만되어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라는 용어는 신약성서의 다른 부분에서 찾을 수도 있으나 그 경우 주님 때문에, 또는 그분의 이름을 존경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주님의 이름이란 그분의 본성, 그분의 특성을 뜻한다. 제자들에게 대한 그분의 명령,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묻는 것 등등의 말에 많은 이들이 흔히 부착시키는 것, 즉 당신의 아들 때문에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라고 하느님께 간구한다는 식의 의미는 전혀 없다. 그분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의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진정한 기도는 예수의 영이 우리의 심정 안에서 말하시어 기도하는 진정한 목적과 목표를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에페소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수고했다는 말은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은 예수를 위해, 예수의 영 안에서 수고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들은 자기들 구세주의 큰 목적을 옹호하느라 무척 많은 노력을 쏟을 것이고 그 노력 과정은 그분의 속성과 품성 안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타락하는 세대 속에 있는 타락시키는 그릇된 생각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려 노력하리라.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발전한다. 그래서 그분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심을 배우게 되어 이타애 가운데서 진리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4.5. 위와 같은 에페소 교회에 칭찬의 발표가 더 있게 된다. 이제 그 교회는 재 보증과 경고의 말들을 듣는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한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the first love)을 버린 것이다.” 이 교회는 교회의 첫째가는 사랑(first love)을 버렸다는 것, 초기에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아주 구별되게 해주었던 것인 사리사욕 없이 열렬했던 이타애(charity)를 버렸다는 것, 초기 기독교인들을 경멸하고 불쌍히 여겼던 이교도들마저 그들을 칭찬하게끔 하고야 말았던 첫째가는 사랑을 잃었던 것이다. 어찌됐든 이 말들은 새 교회(the New church)로 들어오는 어떤 사람들을 두고 발표되고 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과거 높은 상태에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어찌됐든 이 말에는 더 내면에 속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틀림없다. 단어 “처음, 첫, 첫번째, first”란 등급 측면 또는 중요도에서 첫째에 있는 것을 언제나 뜻한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정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이는 모든 좋은 선물 중에서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정의가 첫째가고 가장 높은 것으로 여겨 추구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그 외의 것은 첫째가는 좋은 선물을 선두로 해서 뒤를 따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첫째가는 사랑(the first love)은 기독교의 품위중 첫 번째 서열을 차지하는 사랑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은 종교적 애정중 가장 높은 애정이다. 지식을 사랑함이 에페소 교회로 표현된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사랑이 되어있다. 그들은 아직 이 첫째가는 사랑에 도달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그것을 버렸다(방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이 그것을 버렸다는 말은 절대적 차원이 아닌 관계적 차원인바, 그들의 시야로부터 버려졌다는 말은 아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들은 사랑과 이타에는 믿음과 진실 앞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것을 존속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것을 실제에서 버렸다는 것, 즉 그것을 달성 못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이론적으로 첫째 순위였으나 실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다. 지식을 사랑함이 그들의 첫째가는 사랑이 되어왔고 선함을 사랑함은 두 번째로 부각되어 왔다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그 순위를 뒤바꾸는 것이 그들에게 부과되는 임무이다. 이 임무는 그들이 정정해야 할 결점, 보완하도록 부름받아지는 흠이기도 하다. 사랑이 최고요 이타에 없이는 여타 좋은 선물도 아무 가치가 없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 (고린도전서13장). 지식이나 수준 낮은 선물들은 이타에 앞선다. 그 이유가 이타에는 목적이요 그것들은 목적의 수단일 뿐이어서이다. 지식 자체가 우리에게 이를 말해준다. 그럼에도 우리가 에페소인의 상태에 있을 경우 그것을 망각하는 경우는 실지로 손쉽게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진리의 소리가 우리를 불러 “네가 어디에서 빛나갔는지를 생각(remember)하여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라고 타이른다. 영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의 행동이 아니라 심정의 행동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바, 기억의 자리는 심정 안에 있다고 말한다. 심판에서 하느님은 자비를 기억하신다. 신성한 진리의 훈계 아래에서라면 인간은 자기가 어디서 빛나갔는지를 기억한다. 타락한 존재로서의 자기 상태를 느낄 때 인간은 기억하는 것이다.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느낄 때 인간은 겸손해질 수 있다. 심정을 불결한 채 방치하는 지식, 생활이 거룩하지 않은데도 그것을 못본척하는 지식은 결국 범죄를 낳아야만 한다는 것, 만일 그가 명칭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항을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지식은 없는 게 더 낫다고 보고 느낀다. 이런 지식은 들어쓰지 않는 한 타락하고 만다. 정의롭지

않으면 정죄 되고 만다. 정녕 그렇다. 그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최소한 도덕적으로도 진보하지 않으면 뒤로 미끄러지는바 기껏 일으켜 세웠던 자신이 더 센 속도로 추락되고 만다. 이렇게 추락된 곳이 우리 고유의 첫째 사랑이 있는 곳이다. 첫째가는 사랑을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하는 것에 대해 심정을 불러 깨운다는 말이다. 이것이 생명있게 기억함이다. 이것이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있어왔던 가장 순수하고 가장 좋은 애정들을 새롭고 더 높은 삶의 차원으로 다시 불러 끌어올리는 것이요 이때야말로 최상의 순간을 맞보게 된다. 이것은 우리를 실지의 회개로 인도한다. 그 이유는 이것은 첫째가는 일을 하는 쪽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 첫째 일, 마치 첫째가는 사랑과 같이 모든 미덕 중에서 첫째에 해당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행해진 일들이 첫 번째 일들이다. 이 일은 사리사욕 없는 일, 심판, 선용에 이르는 여타 모든 것 앞에 존재하는 일이다. 이 일은 시간의 순서로 보아 마지막이지만 값어치의 순서로 보면 첫째에 해당된다. 사랑의 일들이 끝짜에 해당된다고 말해지지만 첫째가 된다. 지식이 첫째에 해당된다고 우기지만 끝짜가 되고 만다.

그 다음 신성한 사항에 관한 지식을 획득한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이 불려지는 단계 즉 어떤 단계로 발전하도록 초대되는 상태가 있다. 이 상태로 그들이 초대되는 이유는 그들이 지식의 획득을 성취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만일 이 상태로의 진전이 없을 경우 그들이 획득한 것마저 박탈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협하는 듯한 경고가 뒤따른다. “만일 그렇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등경을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함축성 있는 위협적인 말투는 이 대목을 위해 얼마나 적합하지 모른다. 이 발표를 받는 에페소인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쪽에는 열성을 냈으나 선함을 배양하는데에는 그와 동등한 열정을 갖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은전의 비유의 여인이 등불을 밝히지도 않은 채 집안을 쓸어내어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열심을 내겠다는 것과 같다. 이들은 지식을 사랑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는데 열정을 너무 많이 쏟은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들 심정 속에 있는 악을 발견하여 제거하는 일보다는 지식을 토론하거나 강연하는 쪽에, 대화를 통해 지식을 닦아 광을 내는데 너무 치중했다는 말이다. 진리의 본질 되는 용도를 게을리한 결과가 여기서 발표되고 있다. 응용되지 않은 지식은 거두어지게 되어있다. 주님께서 비고용된 진리를 마음에서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렇게 되는 듯 인간이 여기는 것이다. 사실인즉, 이 세상에서 진리가 제거했어야 할 악들이 남아있게 되면 저 세상에서 그 악들이 진리를 거두어 가는 것이다. 이것은 피할 도리가 없다. 이에 대한 확실한 언급은 무익한 종이 주님의 오심에서 그분을 맞이 하는 대목에 뚜렷하게 있다. 속히(quickly)라는 말은 확실하게(certainly)라는 뜻이다.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을 수단으로, 또 하나는 심판을 수단으로 오신다. 이 두 가지 모두 확실히 존재한다. 그 자리에서 등경이 치워지는 것이란 등경의 자리가 자연적인 것들이 거주하는 곳, 자연적 마음에 있었을 경우이다.

6. 또한나 에페소 교회가 표현해주는게 있다. 설사 그들이 위와 같이 선함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신성한 훈계가 회개하라고 요구되는 것을 받는 이들과까지 표현한다. 비록 이들이 자기 심정 속에서 잠복하고 있는 악을 수색해내고 자아 부정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실감못했다해도 최소한 그들은 악을 사랑함 속에는 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들은 악을 미워하는데 특히 악을 부추키고 옹호하려는 어떤 교리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네가 잘 하는 일이 한가지 있다. 너는 니콜라오파의 소행을 미워하고 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런 이교도에 관해 알려져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만일 이와 같은 종파가 실지로 존재했다면 그것에 관한 언급은 니콜라오파의 행동이 복음의 원리에 상반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영적 의미에서 이해해보면 니콜라오파 사람들이란 구원이라는 사업에서 선함을 진리로부터 분리하는 자들, 이타애를 믿음에서 분리시키는 자들을 말한다. 믿음만이 구원해주는 유일한 품위로 평가할 경우, 그들은 법을 규칙 정도의 수준으로, 영적 삶이 아닌 도덕적 삶의 차원에서 생각하게된다. 신성한 법이 이렇게 간주될 경우 그 법의 영성은 박탈되고 만다. 더 이상 양심 속에 법이 없고 단지 행동 쪽에만 존재한다. 신성한 명령으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라는 조건이 폐지된다고 할 경우,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행동규율만이 남아있다고 할 때 그들은 자아 사랑이나 자기 본위를 충족하는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조절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종교에 관한 진정한 지식을 가진 이들이라면 설사 그가 종교적 삶을 지극히 조금밖에 성취 못했다 해도 아직 신실해 있을 경우 그는 니콜라오파 사람의 선한 행위조차 까지도 싫어하고 더욱이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혐오할 것이다. 이런 혐오는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분의 진리는 위와 같은 행위들을 정죄한다. 그분의 사랑은 그같은 행위를 보면 구역질을 한다.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일에 거룩한 중요성을 품을 수밖에 없다.

7. 에페소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버티고 있는 악들과 위험들이 무엇인지 밝혀지고 타일러진 지금 그들은 그것들을 정복해서 그 노고의 대가를 획득하고 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나는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들을 귀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은 일곱 교회 모두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경청이 요구된다는 말이다. 주님께서 발언하시는 신성한 진리는 이해할 능력을

지닌 모든 이에게 호소되고 있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만민에게 전달되는 사항이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모든 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인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능력을 악과 잘못들을 고집스럽게 확증함으로써 스스로 파괴한 사람이다. 위의 말은 신성한 호소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신성한 진리에 관한 지식을 제아무리 많이 지녔다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확약하고 있다. 이는 영(the Spirit)께서 모든 교회에 말하시는 것이요 죄로 마비되지 않고 잘못들로 뒤집혀지지 않은 모든 양심 안에서 말하시는 대목이다. 영께서는 격려의 언어로 모든 이에게 말하시어 보상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있다. 보상의 종류는 각각에게 모두 다르지만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은 모든 이에게 공통되고 있다. 이 대가는 극복하는 사람에게 약속되고 있다. 기독교의 삶은 전투 속에 존재한다. 약속된 축복 역시 전투에 승리한데 따른 대가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노출되는 위험에 대한 언급 없이 그분의 말이 발표될 리 만무한 것이다. 각자 모두는 자칫하면 걸려들기 쉬운 함정을 알지도 못한 채 지니고 있고 각 사람 마다 특유의 성벽(bias)에 속하는 악을 지니고 있다. 각자에 속한 악과 잘못에 저항하고 그것의 공격을 분쇄하는 이들에게 각기 특별한 천국적인 영원한 축복이 보상으로 지급된다. 이 문단에서 우리가 노출되기 쉬운 위험의 종류는 지식을 자랑함이다. 지식을 떠벌리려 드는 것 때문에 시험되는 이유는 지식에 과도하게 의존하려 하면서 선함과 사랑을 소홀히 처리했기 때문이다. 자아사랑에 관련되는 것들을 극복하는 이들, 주님을 사랑함이라는 첫째가는 사랑을 획득하는 이들, 그리하여 첫째가는 일 즉 사랑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낙원이 회복되고 그 가운데 있는 생명의 나무는 그들의 기쁨이 되고 자양분을 공급해 줄 것이다. 모든 이들이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낙원과 생명의 나무는 천국의 복에 대한 형상으로 여기서 언급된다는 것, 여기서 단언하는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닌 복되고 승강된 마음의 어떤 상태임을 생각하도록 되어 있어 풍부한 외적 즐거움의 어떤 것도 이 축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낙원, 많은 이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그것은 가장 기쁜 동산이라는 뜻이다. 하느님의 말씀 또는 영적 비유로 된 언어에서 동산은 드높은 지혜가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 상태란 가장 중요한 진리, 구원해주는 진리로 심정에 찍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태의 소유자는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 그 진리를 기억해서 상기해내느라 수고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그것들을 보고있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때일지라도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거나 보지 못하는 일이 결코 있어지지 않는다. 그런고로 해서 낙원에 사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풍부하게 진정한 영적 생명을 받는다. 그들은 선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터만 존재함을 자신의 가장 깊은 심정으로부터 인정한다. 그 결과 그들은 그분과 가장 친밀하게 결합하는 상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순수한 지혜를 선물받고 더불어 진정한 천국 삶이 증여된 상태에서의 그들의 행복은 어떤 개념으로도 가늠할 수 없는 수준에서만 머무르고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사람의 절대적 지분이다. 그 이유는 행복과 지혜는 언제나 함께 다니기 때문이요 언제나 동일한 영원한 원천, 구세주, 복주시는 주님으로부터 흐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것이 승리하는 자에게 있어지는 보상이다. 이 사람은 자기 자아가 지닌 기쁨의 동산을 하느님의 낙원과, 그리고 지식의 나무를 생명의 나무와 바꾼다.

8.9. 이제 우리는 일곱 교회중 둘째 교회로 표현되는 영적 삶의 또다른 상태를 생각하게 된다. “또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죽었었지만 살아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겪은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하다. 네가 유대인으로 자칭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이다.” 에페소 교인은 지식을 열심히 추구했으나 선함을 소홀히 한 사람을 표현한다. 스미르나 교인은 선함을 열심히 추구했으나 지식의 추구가 부족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두 교회 모두 한쪽에 치중되어 불완전한 품성을 이루고 있다. 진정한 품성이 형성되려면 위 둘의 연합이 꼭 있어야 한다. 하나를 이룸이 더 완전하면 할수록 인격 역시 더 완전해진다. 진리와 선함은 어떤 인간의 경우에서도 완전하게 동등하거나 하나로 되는 일은 없다. 천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에게 허락된 유한하고 불완전한 본성 속에서도 자신에게 최대한 가능할 수 있는 둘의 결합을 쟁취해 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사항이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취급할 때 거기에 비난의 원인이 있게 된다. 이 비방이 스미르나 교회로 표현되는 사람들의 문에 도사려 있다. 그들은 심정 속에 선함이 배양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리 속의 진리에 대하여는 무관심해졌는바, 선이 종교의 첫째가는 필수요소가 된다고 하여 그 외의 것은 결여되도 괜찮은 듯 여기고 마는 허점을 노출시킨다. 선이 종교의 첫 필수요건임은 실로 진실된 말이다. 그런데도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선이 진리와 하나됨이 없을 경우 진정한 선함은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선행이라는 바깥쪽 행동들은 미덕이라는 동기로부터, 친절한 애정들은 심정에서 흠모되어 있어질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 애정이 빛의 안내를 받지 않는다면, 그 애정의 행동이 진리에 속하는 법칙에 의해 지휘 받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천국에서 인정될 수 있는 종류의 선함이 아니게 된다. “하느님께서 접합해 놓은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 안된다” (마태19:6)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질서의 영원한 법칙은 영적 의미로볼때 선함과 진리의

결혼에 관계되는 법칙인바, 그분께서는 믿음만의 교의를 건설한다거나 이타에만 주창하는 식으로 해서 어느 것 하나를 추켜세워 위 결혼의 법칙을 깨트리는 여하한 방법은 한번도 언급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어떤 걸치레로나 어떤 형태로나 위 결혼의 법칙을 침해하고 여기는 자들을 엄히 질책하셨다. 그 이유는 이타애가 없는 믿음은 자연적 수준의 지식일 뿐이고 믿음이 없는 이타애는 오로지 자연적 수준의 애정만 남게 되어 위 두 원리로부터의 행동들 모두는 한결같이 비영적이요 비천국적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두개의 세부적인 상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스미르나 교인의 경우 진정한 선함에 있기를 열심히 바래면서 신성한 진리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나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결과 한동안 진리 없이 있었던 사람들을 표현한다. 이런 원인으로부터 그들의 선함은 장차 순수해질런지는 몰라도 당장에는 순수하지 않은 상태이다.

스미르나 교인의 품성은 주님이 보내시는 말씀, 특히 그분의 모습에 대한 것과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그분 스스로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로된 신성한 존재 측면에서의 그분의 무한성과 영원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 문단, 그리고 다른 문단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느님, 천상천하의 오직 한 분이심을 얼마나 명백하게 나타내고 계신지 모른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용어는 만물의 근원이요 생명되시는 분, 신성한 본질 그 자체에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에 죽었었지만 살아 계신 분이라는 표현을 첨가하신 것은 역사적 측면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암시해주려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 측면에서 기독교회에서 최고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과 관계되고 그분의 새 교회 안에서 이를 인정하게 하시어 회복시키시는 것까지 암시하는 말이다. 그리하여 그분이 수여하는 영예를 지닌 그 교인들의 심정 안에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최고의 신성으로 군림하시게 된다. 이 문단에서 표현되는 중요한 진리가 아직 더 있다. 그것은 “너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월계관을 너에게 씌워 주겠다” 라고 이 교회를 타이르시는 것과 상응되는 대목에 있다. 이 구절은 뒷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스미르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서 풍기는 친절하심으로부터 볼 때 그들의 선함은 비영적(unspiritual)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위선적인 대목은 없는 것 같다. 비록 그들의 선함이 진지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미덕이 순수한 것도 아니다. 그런 결과 아직 그들은 순수한 진리에 그 선함의 바탕을 두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나는 네 일들을 잘 알고 있다” 라고 말하신 후 “네가 겪은 환난과 궁핍” 까지 더 첨가하시는 바, 이 단어는 그들의 선함이 순수하지 못함으로부터 오는 상태의 불완전함을 묘사하는 말이다.

그런 이유가 그 선함이 순수한 진리와 하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이 진리를 높이 평가할 때 진리는 선을 순수하게 만든다. 진리 없는 선은 마치 과부가 된 신세나 다름없고 과부 생활이라는 환난은 궁핍을 뺏속까지 스며들게 한다. 두 가지 단어, 환난과 궁핍은 사실 한가지 공통된 것을 말하므로 중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또 하나는 진리가 없는 결과로 선함의 상태가 불완전한 것을 표현해준다. 그런데 이 구절에 함께 있는 말은 “사실 너는 부요하다”이다. 가난과 부함이 동시에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소유함에서는 가난하고 사랑함에서는 부자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둘이 아닌 하나이어서 외롭다는 측면에서는 가난하고 부부생활에서 한쪽이 없는 관계로 더욱 영원한 하나됨을 열망하는 사랑 측면에서는 부자인 셈이라는 말이다. 심정 안에 신실한 사랑이 있을 때 진리를 영접하는 만남도 있게 된다. 열흘동안의 환난을 겪고 죽기까지 인내하면 그들이 진실로 바래고 사랑하려던 선과 하나가 되어 그들은 순수한 품질을 나누어 받게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그들 사이에서 노출되는 어떤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네가 유대인으로 자칭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이다.” 이는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허위를 가려낸” 에페소에 관해 말해진 사항과 형체 측면에서 거의 유사하고 의미 측면에서는 크게 대조되고 있다. 앞의 교회는 거짓 사도들로해서 핍을 당하는 위험에, 뒷 교회는 거짓 유대인에 의해 현혹 당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것들은 각기 다른 상태들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시련과 위험들이다. 복음서의 진리를 가르치도록 위촉된 선생 자격으로서의 사도들이란 복음 자체가 포함하는 진리들 자체를 뜻한다. 따라서 사도인 체하여 진짜인 듯 주장한다는 것은 반대 의미인 거짓 교리를 뜻한다. 유대 후손으로서의 유대인들은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는 이들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교리를 구성하는 가장 높고 가장 본질적인 원리 측면에서의 교회 자체를 표현한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사랑과 선함의 드높은 원리이기도 하다. 사도가 아닌 사도란 진짜라고 우겨대는 거짓 원리들,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이란 선이라고 우기는 말들이다. 종교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악도 감히 노골적으로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악이 스스로 선이라고 외칠 것이고 악 자체만을 성경은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악에 찬동할 수 없고 진리 자체에 반대되는 것이라 해도 저주 않는바, 진리가 진리 자체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듯 여겨지게 하려면 진리가 왜곡되거나 잘못 해석되는 방법이 필시 있게된다. 진리의 왜곡은 성경에서 모독(비방, blasphemy)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주님께서는 이에 관해 언급하신다. 그분은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무리인 그들의 비방에 관해 그분의 교인에게 경고를 주시고 있다. 사탄의 무리(집합소, synagogue)는 2절에 있는 사칭하는 무리들보다 거짓을 만들어내는 힘이 더 포악하고 더 흉칙하다. 회당(synagogue)은 종교의 가르침을 위해 유대인들이 집합하는 곳이다. 따라서 회당은 거기서 가르쳐진 교리를 명시한다. 그곳에 사탄의 무리가 있다는 것은 사탄의 영향을 받은 교리, 악한 욕망에 근원을 둔 거짓 신조 투성이를 암시하고 있다. 에페소 교회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얻는데 종교의 전부를 기대고 있었든 바 그들의 특유한 약점이 거짓 사도로 의미되는 거짓 교리에 있었듯이, 스미르나 교회의 경우는 종교의 모든 관심사가 선에 관련된 이들을 표현하므로 그들의 특유한 약점은 선의 탈을 뒤집어쓴 악에 공격당하고 현혹되는데 있게 된다. 선을 원리로 하되 진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들은 진리의 도움 없이도 선을 똑바로 견지할 수 있다고 하는 시험에 쉽게 말려들고 일단 말려들면 악이 선이라고 조금씩 조금씩 믿어가서 가공할만한 거짓 신조로 뒤집혀진 선을 확증하기에 이른다. 그 이유는 진리의 빛이 소멸되어감에 따라 점점 더 큰 어둠은 실지로 선 그 자체를 압도해버리기 때문이다. 말씀에서 얻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악에 승리하는데, 악에 대항하는데, 방어수단이 되는 진리의 중요성은 가장 빼어난 본보기와 가장 높은 지혜의 권위자의 지상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주님께서 악을 행하도록 악마에게 유혹당하셨을때, 그 외 모든 그분의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분께서는 신성한 진리의 능력으로 이 유혹자를 격퇴하셨다. 사탄 역시 진리가 악을 가르치게 왜곡시키려 할 때 그의 공격 무기로 성경을 사용했음을 우리는 상기해두어야 하리라.

10. 영화하시는 수단으로 주님께서 견디어 내신 시련과 시험 모두는 그분의 제자들이 거둬나는 수단으로 반드시 참아내야 하는 사항들에 관한 원형이다. 모든 사람은 공히 고된 체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모든 이가 공히 극복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오는 시험은 각 개인별로는 다른 모습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겪는 시련의 본성은 우리가 쉽게 채택하므로 해서 걸려드는 악이나 잘못된 품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이에게 시험이 온다. 스미르나 교회로 표현되는 사람들의 상태가 완전해지는데 요구되는 시험의 특별한 본성은 그들이 고통하는 시련의 본성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네가 장차 당할 고통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하여 너희중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하고 있다. 너희는 열흘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월계관을 너에게 씌워주겠다. 승리하는 자는 결코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선함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랑에 필적될만한 지각은 고사하고 지식조차 없는 사람, 그

결과 시험을 거치지 않은 선함, 훈련되지도 않은 선함까지 자기의 구원에 충당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아주 위험한 잘못에 빠져들고 마는 사람들이 어떤 거듭나는 과정을 통과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이 절에서 알게 된다. 구원이란 교회와 천국의 상관관계같이 선함과 진리의 하나됨 또는 이타애와 믿음의 하나됨이다. 선이 우리 마음 안에서 진리와 하나를 이룰 수 있기 전에 고통이라는 어떤 상태를 피할 수 없다. 더욱이 고통의 정도는 자신이 어떤 악이나 거짓 원리로 확증한 것과 비례한다. 우리가 선함을 내면에서 진실로 흠모하게 되면 여지껏 확증해왔던 거짓 추구가 제거되도록 요구된다. 더구나 사랑하여 실용화함으로 자기 본성의 한 부분이 이미 되어버린 어떤 악을 절멸시키는 것은 훨씬 더 강한 고통을 통과하도록 요구된다. 우리가 자칫 착각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어떤 영적 주제에 대해 우리가 환영했던 거짓 관념들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 관념에 반대되는 진리를 옳다고 인정하기만 해도 제거될 수 있다고 억측하는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쉽게 상상하려 드는 것은, 어떤 악이라도 행동에서 그만두게 되면 그 악은 우리 속에서도 끝장을 맺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거의 눈치 못채고 사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확증되는 모든 것은 그 안에서 적극적 형체를 갖는다는 것, 진리 측면일 경우 사랑에 관한 우리의 원리, 그것에 부합되는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형체 모두, 생각과 애정의 모든 부분이 의존하는 본성과 모양새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다. 따라서 우리는 애정과 생각들의 품성과, 마음 안에 심어지는 사랑과 믿음의 품성을 관찰함으로 우리가 고통하는 형체가 어떤 것인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마음에 소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에 걸맞는 형체를 갖도록 유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찌그러진 형체가 이미 형성되었을 경우 온전한 형체를 가지는데 고통함을 거치지 않고는 교정될 수 없다.

그러나 자기 속의 잘못되어 있는 상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고치려하는 과정에서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식이 되어 고통받고 체념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 진정으로 문제되는 것은 사실 고치려하는 자세가 얼마나 진지하느냐? 일 것이다. 우리가 진짜 선한 상태를 얼마나 열심히 바래느냐? 또는 자기의 깊은 속마음 안에 천국적 품위와 미덕을 갖고 싶어하는 애정이 얼마나 진지하느냐? 라는 물음에 대한 정답이 중요하다. 그 대답이 “예”라고 한다면 신성한 사랑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장차 당할 고통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바는 우리가 체험하게 될 어떤 결핍된 것도 그에 상당한 것으로 충분히 채워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분께 더 가까워질 목적으로 시험을 대적하겠다고 모험을 무릅쓰고 나서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용기를 나누어주신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는 시험받는 우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위로의 말을 써 놓으시고 계신다. 이 말씀과 비슷한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될 경우 그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반도록 의도되어 있다. 자신 속에 박힌 악과 거짓 원리들을 보게 된 사람들은 좌절할 것같은 느낌을 받게 되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장차 당할 고통을 조금도 두려워 말아라”고 말하신다.

신성한 훈계자는 이렇게 말을 잇고 계신다. “이제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하고 있다. 너희는 열흘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선의 원리에 내향적으로 있는 이들로부터 악이 제거되기 위해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시험의 상태를 명백하게 묘사하는 말이다. 이들이 선을 원리로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선들은 거짓 추구들과 연결되어 있어 순수하지 못하다. 그들이 감지하게 되는 매우 유독한 것이 대단치 않은 것이라고 여기게 하는 거짓 관념들과 그들은 아직 연결되어 있다. 감옥에 있다는 것은 마음이 비록 선을 사랑하고 있다 해도 그 선을 자유롭게 해주는 진리를 아직 소유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속박되어 있어도 자유를 원하지 않으면 거기에 시험이라는 상태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느낌과 바람이 일깨워질 때 시험의 상태도 있어진다. 마음이 치해진 상황에 흐뭇해한다면 거기에는 시련이라는 말이 해당될 리 없다. 그러므로 시련(trial)은 상태의 변화를 암시한다. 자기 만족은 자기 중요가 아니라면 자기 불신을 수단으로 성취되어왔다. 이런 상태에서 행동의 자유를 주게되는 진리를 너무 소홀히 한 채 있었던 내향의 선은 그 선 주위에 점차 모여든 잘못들이 포위하여 진을 치게 된 것을 늦게서야 발견한다. 마음은 선이라는 것을 행하는 자유 속에 있기를 바라고 그 선과 일치되는 참된 것을 생각하고 싶지만 그것을 지각할 수 없는 바 그 선에 반대되는 종류에 억지로 붙잡혀 있게 된다. 그래서 마치 악밖에는 남은 게 없는 듯 여겨지고 더 달리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듯 악한 생각으로 점령되어 있다. 이런 마음 속의 증상은 악령이 보내는 매개체로 해서 결과되는데 이 악령들은 시험의 상태 속에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다. 행함에서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면 시험자에 의해 주입된 것과 일치하는 악이나 거짓 원리들로 시험되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코 보지 않았었던 악성적인 것들이 자신에게 과대평가 되어 부각되는데 이것은 극도의 혐오감이 발생될 때까지 계속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속의 악의 제거라는 작업이 있게 된다. 환난은 열흘동안 계속된다고 말해지고 있다. 환난은 시간이라는 도구 또는 어떤 자연계의 기간 같은 것으로 측정될 수 없는 것이다. 시험의 기간 또는 정신적 체험의 여타 다른 조건들도 날(day)들로 측정되지 않고 오직 상태로만 가능한 바 상태가 날들을 수단으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숫자 열(ten)은 모든 것 또는 많은 것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데 본문의 경우 바래는 결과가 요구하는 만큼의 많은 것을 뜻한다. 본문이 바라는 결과란 진리가 더해져서 선과 하나되는 것이다. 따라서 열은 진리들, 특별히 열개의 말들(ten words)이라 불리는 것, 말씀 속의 모든 진리들의 요약인

것, 십계명 안에 포함된 것이 밝혀주는 진리들을 말한다 (출애굽기34:28참조). 시험받는 기간의 길고 짧음은 시험받게 한 악이나 거짓 원리와 갈라서려는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신속하게 행동하느냐에 의존된다. 그 이유는 우리 속의 악들은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버리려 할 때 주님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의지 발동을 하는 것도 한번의 시험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재난이 덮치고 있는 동안은 기꺼이 응낙하지만 그 재난이 지나고 나면 취소하고 마는 일이 흔하다. 파라오의 경우가 그러했지만 우리 역시 그런 자세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자아 의지가 신성한 명령에 굴복될 때까지 시험은 얼굴을 바꾸면서 계속 우리를 덮친다. 어찌됐든 그분의 능력을 믿어 신실하고 항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백성뿐이다. 그 이유는 그들만이 “죽기까지 충성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자적 의미로 볼 경우 이 구절은 영적 삶에 진입한 이들이 죽을 때까지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가르침에 고정되어 영원까지 가도록 하시려는 배려가 담겨있다. 죽기까지 충성함은 지상에 있는 우리 자신이 악에 승리하는 수단인바 악령이 들어오도록 문을 여는 시험의 모든 것이 죽어질 때까지 주님을 신뢰함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신실함을 앞세우고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 삶의 각오는 우리의 자연적 마음의 생명을 형성하는 각종 탐욕과 거짓들을 죽음이 거두어 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자신 속에 있는 “옛 사람”의 생명을 구성하는 끔찍한 탐욕들이 죽어지도록 선향 내놓고 진정한 사도되는 것들은 죽을 각오가 되도록 준비시켜야 할 것이다. 죽어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생명을 발견하는데 그 생명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내려놓음으로부터 오는 기쁨 역시 무한하다. 이와 연결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어 우리를 격려하신다. 나는 “죽었었지만 살아 계신 분”이다. 그 이유는 주님 스스로 그분의 어머니쪽 인성에 있는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쪽 인성은 드높이셨기 때문이다. 모든 측면에서 그분은 우리처럼 시험되셨다. 그분도 고통을 통해 완전해지셨다. 그분의 고통은 우리를 위해서 견디어 내신 것이다. “그분은 친히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으시다”(히브리2:18).

죽는 것을 감수하는 보상으로 주님께서 생명을 약속하시고 더불어 생명의 월계관을 씌워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다. 이 표현은 선 가운데 있기는 하나 그 선에 부응하는 진리가 없는 이들에 특별히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저 등급이 되게 하는 모든 것, 거짓 신조라는 껍질이 벗겨지도록 기꺼이 응할 때 진리는 우리의 선함과 하나가 되고,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요구되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보상의 내용이 함축하고 있다. 백성과

왕을 구별되게 하는 관은 지혜를 상징하는 표현물이다. 왕관에 박히는 각종 보석들은 지혜를 구성하게 되는 말씀 속의 각종 진리들에 대한 표현물이다. 그 보석들을 앗히고 있는 금은 진리가 바탕을 두어야 할 천적 사랑에 대한 표현물이다. 이 보석과 금이 없으면 진정한 지혜는 양립될 수 없다. 격려해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이렇게 끝맺으신다. “승리하는 자는 결코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자연적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사랑과 거짓 관념들에 저항해서 그것들이 장악하려드는 시험의 권세를 극복하는 사람은 그 권세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 질뿐 아니라 완전하게 제압한 상태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첫 번째 죽을 것 즉 이기심을 죽이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 즉 영혼이 죽는 것에서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열망하여 수고한데 대한 가장 가치있는 상이리라. 두 번째 죽음을 피하고 우리의 구세주로부터 직접 생명의 월계관을 받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려면 이 문단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교훈을 소중히 간직하는 끊임없는 정성이 있어야 하리라.

12. 베르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은 기독교 삶과 체험의 또 다른 국면에 우리의 관점이 열리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사항은 마지막에 이미 생각해 본 것과 친밀한 연결을 갖고 있다. “베르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날카로운 쌍날칼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베르가모 교회는 바깥쪽 실제인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순수한 진리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 때로 선한 일을 간절히 원하지 않을 때, 선한 일이 행해지면 어떤 동기에서 그 일을 했는지 애매모호해지고 만다. 베르가모 교회와 스미르나 교회 사이의 차이점은 이러하다. 스미르나는 선한 것을 사랑함에 더 기울고 있고, 베르가모는 선한 것을 실제에 놓는데 더 급급해 있다. 두 교회에 공통된 것은 진리에 관한 지식 그리고 이해라는 점에서 부족해 있는 것이다. 진리를 습득하려는 것, 진리의 중요도가 너무 약하다는 말이다. 이럴 경우 종교적인 진리는 믿어지기 위해 단순히 존재하는 교리적 주장(dogma)들, 또는 견해 수준의 문제로 지극히 통례적으로 간주하는바 결국 진리는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 또는 믿음을 저해하는 것 등으로 그 가치가 하락되어 한마디로 “골치 아픈 생각들”로 여기려는 경향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진리는 선함을 잘 인도해주는 “카운슬러”이다. 한마디로 진리는 마음의 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진리가 없는 마음씨 고운 상태는 소경한테 길을 안내하라는 것같이 진리가 없는 선한 행동은 소경을 전쟁터에 내보낸 후 승리를 기대하려드는 격이다. 따라서 내면으로나 외면에서나 외톨이가 된 선만으로는 그 선의 목적이나 대상을 잡는데 슬기롭지 못하다. 그런고로 언제나 불완전한바 그 행동결과가 오히려 해가 발생할 경우도 적지 않다. 종합적으로 말해보면 심정과

지성 속에 있는 자연적인 허약함에 의해 그 선들은 손상을 입게된다는 말이다. 선한 행동들, 그것이 글자 그대로가 되려면 순수해진 심정으로부터 그 행동이 있어야만 되고 계발된 지성의 안내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만일 심정이 순수해져있지 않다면, 선행이라는 바깥쪽 행위들은 자신을 과시해 보이는(ostentation) 것일 뿐, 그 선행의 가치는 더 없을 것이다. 선행이라는 우리 행위를 규율하도록 진리를 취하지 않는 경우나 선행이 겉으로 만 이루어지는 것 등등은 살살이 되지는 신성한 진리의 권능 앞에 감히 서 있지도 못한다. 이런 행위나 일들이 그 신성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면 그것들은 순식간에 흐트러져 사라지고 정죄를 받기 위해 알몸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은 상태를 두고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을 “날카로운 쌍날칼을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하시고 있다. 주님이 가지신 것은 “영의 검(the sword of Spirit) 즉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혼과 영(soul and spirit)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지성이 판별하는 것과 심정이 의도하는 바를 드러나게 한다” (히브리4:12). 이 구절은 신성한 진리를 마음이 받게 될 때 그 권능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놀라운 묘사이다. 한 마디로 시험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주님에 속한 것인지 자아에 속한 것인지를 구별되게 해주어 천국적 근원에 속하지 않은 것은 흠어 없어지게 된다. 왜 주님의 쌍날칼이 진리에는 관심이 적은 채 선한 일에 치중하는 이들과 관련되어 신성한 진리의 표현물로 등장하고 있을까? 신성한 진리를 표현하는 주님의 검(sword)은 선행만으로 구원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 선행이 순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와 동행해야 한다는 것, 순수해진 의지와 계발된 이해성으로부터 진행되지 않는 것은 정밀한 조사를 비켜갈 수 없고 꿰뚫는 검과 같이 신성한 진리가 그 선행 위에 실시되어 모두 흐트러지고 말아 위선적인 대우만을 받게 됨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주님의 진리에 저항한 결과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주님의 진리가 역사하시는 목적이 아니다. 주님의 진리라는 검은 우리를 방어해주고 구원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진리의 진정한 용도는 우리가 사탄과 하나되는 것, 죄악과 연합되는 것을 가르는 것, 우리 속의 선함과 진리를 우리 속에 있는 과오나 약점을 이용해서 죄가 되게 하려는 악이나 잘못들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있다. 이런 상태는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매우 강성했고 설사 시온에서 편하게 있는 모든 이들과도 언제나 존재한다. 흔히 우리의 마음은 거것에 속아 편안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왔다” 라고 선포해두셨다 (마태10:34). 이 구절에 이어지는 대목에서 인간의 영적인 집안 식구들은

서로서로 맞서 갈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싸움인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각 사람 속에서의 나뉘임이다. 검과 싸움에 대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도 있다. “비록 우리가 속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속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속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느님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찔러 버리고 하느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오만을 쳐부수며 어떠한 계략이든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고린도후10:3-5). 검은 진리의 표현물이다. 시험 속에서 이 검은 우리의 부패된 것 그것이 도덕적이든 지적 측면이든 모두 대적하고, 우리 속에 있는 선하고 천국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옹호하면서 여기에 붙으려하는 악과 거짓을 모두 분리시킨다. 이 검은 대해 한 수준 더 높은 진리의 필요함과 보증까지 결들이고 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이다. 싸움의 승리에 대한 보증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육적 전투에서 있었듯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바 우리 힘으로 자기 집안 속의 적들을 소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이 소탕해 주신다.

13. 이 교회에 보내는 첫 말씀도 다른 교회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의 상태들에 “나는 너의 일한 것을 잘 알고 있다” 라는 것이다. 베르가모 교회는 구원받는 필수사항을 일 자체에 두므로해서 그것만이 기독교 품성의 필수요소로 간주하는 사람을 표현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게 되면 이 구절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우리가 자칫 기울기 쉬운 쪽은 우리에게 나타난 그대로가 우리의 행동인 듯 여기는 것과 만일 사람들이 자기가 일한 결과대로 판결받는다면 보상 역시 똑같이 주어져야 할거라고 결말짓는 것이다. 이런 결말은 큰 실수이다. 우리가 타인의 일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오로지 바깥쪽 현상뿐이나 주님께서서는 심정을 헤아리신다. 그분께서는 심정 속의 아주 미묘한 행동, 게다가 생각 속의 매우 다양한 암시들, 한마디로 행동 이전에 놓여진 것들, 수행과정에 차츰 들어나지게 되는 것들을 미리 보시고 있다. 그분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되 심정으로부터만이 아니고 생각만으로부터도 아니며 또는 심정과 생각, 그 둘로부터서도 아니고 그의 일들로부터 라고 하시는 이유는 심정 속의 목적과 지성 속의 생각들은 그것들이 어떤 행동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행동은 행동을 생산함에 일치되는 모든 애정과 생각을 포함하고 있다. 전지전능하신 분의 눈은 전체로서의 것, 인간 마음 자체가 의식치 못하는 많은 것까지 모두 포함되는 전체를 알고 계신다. 이는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어떤 한 부분으로부터 창조자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게 아니라 존재라는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가 했던 일로 심판된다고 말해지는 성경 구절의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평가받게

되는 것 역시 하느님께 알려진 모든 것, 이는 행동 자체 안에 깊숙이 놓인 그 행동의 동기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으로부터이고, 각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 “나는 네 일을 알고 있다” 라고 하시는 모든 것으로부터이다. 이 문단에서의 훈계는 또 다른 것을 동반하고 있지만 경청할 마음에 비중 있는 반성을 일으키는데 있어서는 다른 훈계나 그 심도가 같다. 신성한 연설자는 이렇게 말을 잇고 계신다.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누구와 섞여 사는지, 어디에서 사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는 단지 외적 환경이 우리를 고통받게 하지 않는 이상 환경에 굴복하든지 극복하든지 어느쪽 조건이나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어찌됐든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서 거주하고 있을까?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주하는 곳, 자기 집이라고 발견되는 곳, 그곳은 자기를 통치하는 사랑(ruling love)이 있는 곳이다. 이 사랑은 영원히 있게 되는 우리의 거처를 결정지어 준다. 통치하는 애정이 선하면 천국에, 악한 애정이라면 지옥에 그 거처를 발견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조차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빛의 왕국에, 또 하나는 어둠의 왕국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신다.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의 말씀은 엄한 태도를 풍기는 말씀임에도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처리하는지 모른다. 여기서 사는 동안 삶의 바깥쪽에 해당되는 즐거움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을 위해서라면 변칙적인 것도 서슴없이 해내고 그에 대한 변명도 능청스럽게 늘어놓는데에는 매우 신속하다. 게다가 세상의 눈에서 자기의 자연적 바람을 감추는 것은 다반사로 되어있다. 이런 바람의 충족에 열을 올리는 동안 자신 속의 진짜 본성에 스스로 소경인체하고 그것이 특권인 듯 생각하는 것을 살짝이 허용한다. 게다가 바깥쪽 선행들이 비록 영혼의 구원을 보증 못해도 세상적인 명성을 유지해준다면 그것으로 서슴없이 때움질한다. 만일 이런 상태가 자기 모습이 될 경우 우리는 영적 어둠의 왕국 안에 내향적으로 체류하는 셈이 된다. 비록 자신이 영원한 결과, 최종 결과인 지옥행을 기꺼이 피하고 싶다해도 적절한 때에 회개가가 있기 전에는 불가피해진다. 우리가 거주하는 곳을 아시므로 재난을 당할 장소에서 우리를 기꺼이 구해주시고저 하시지만 변할 수 없는 신성한 질서에 의거 서술된 법칙에 부합되어야만 구원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악한 사랑의 후손 같은 것, 악이 행동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노력, 신성한 도움을 절대적으로 간구하는 겸허한 자세로 악 자체에 저항해보려는 노력이다. 우리의 가장 깊은 바람이 천국적인 것들로 차 있다면 우리 영의 거처는 천국에 있게 된다. 비록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 나라 사람이 될 품질을 갖추기에 앞서 외적 마음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다해도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천국이라는 것은 최소한 보증 받고 있을 것이다.

천국적인 것들로 바램이 차 있다해도 시험은 계속 오고 견뎌내야하며 각종 이상한 흥분들이 우리를 곤경에 몰아넣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고향은 천국에 있다. 우리 구원의 대장을 꾸준히 찾고 그분의 인도를 착실히 따라간다면 마지막 종점지는 천국임을 확실히 보장받으리라.

시험은 베르가모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잘못들로 해서 반드시 있어진다. 그러나 그것들은 시험을 수단으로 제거될 수 있다. 그들에 관해서 말해지는 바, 그들이 거하는 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 했다. 사탄은 적 또는 대항자(adversary)를 뜻하는 단어이다. 이 이름은 악령들에 적용되는 말인데 이 악령들을 집합적으로 일컬어 사탄 또는 악마라 하는데 사탄의 경우, 신성한 진리에 반대되는 것, 허위나 불신앙에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고 용어 악마(Devil)는 신성한 선함에 상반되는 악령, 모든 악과 유해한 것의 근원과 관련되어 사용된다. 성경에서 악마 또는 그것의 역사함이 언급되면 언제든지 그 주제는 악한 욕망을 취급하고 있고, 사탄이 언급될 경우는 언제든지 거짓 추구를 다루고 있다. 악한 욕망이든 거짓추구이든 모두 악령에 의해 흥분된다. 그러므로 사탄의 옥좌가 있다라고 언급된다는 것은 가장 파괴적인 본성인 거짓 신조가 판을 치는 곳이라는 뜻이 된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해 있는 것은 비록 베르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사탄의 옥좌가 있는 곳이라 말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 말 자체가 그들이 거짓 신조를 원리로 해서 행동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말 뒤에 뒤따라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건히 믿고 있다” 라고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들이 파괴적인 견해에 휘말릴 경우 반드시 기대야만 하는 행동강령이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이렇다. 교리 속의 진리 없이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천만한 오류를 지닌 사람들에게 포위당하기 쉽다는 것, 베르가모 교인의 상태는 진리에 아주 희미하다는 것, 따라서 심한 시련이나 시험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오류나 어둠에 휩싸여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구세주와 함께 하는 것을 굳게 붙들고 있어 그분께서 그들이 시험 속에서도 버텨내도록 하는 힘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너는 내 이름을 굳건히 믿고 있다.” 주님의 이름은 언제나 그분의 본성을 뜻하는 말이다. 그분의 본성은 신성한 사랑과 지혜 또는 신성한 선함과 진리이다. 가장 높은 의미에서 주님의 이름은 그분의 신성한 인성(Divine humanity)을 뜻한다. 그 이유는 그분의 인성 안에 신성한 본성이 거하시고,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느님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안에서 하느님은 사랑과 믿음의 목적이 되시고 더불어 예배의 대상이시다. 베르가모 교회로 표현되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굳건히 붙잡고 있다라고 말해질 때, 이는 선한 일들을 종교와 교리의 필수요소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주님에 관한 진리가 조금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성한 인성을 내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영기(sphere)속에 있다. 게다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더 첨가되고 있는데 이는 신성한 말씀에 대한 존경심, 모든 믿음의 근원이 신성한 말씀임을 알고 공부해보려는 이들, 그런 결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이들이기도 하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지키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데 더해서 첨가되는 말, “또 나의 진실한 증인 안디바스가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날에도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라고 기록되고 있다. 안디바스는 도미시안황제의 통치시대, 즉 초기 기독교 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한 분이시오 구원해주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증언한 탓에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그가 언급되는 것은 그의 순교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시 기억해보는 수준만이 아닌 주님의 인성 속에 내재하는 신성을 인정하는 믿음의 예정(Type)으로 등장하고 있다. 안디바스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 그분의 이름을 고수해온 이들이란 주님의 인성이 널리 부정되는 상황에서도 선한 일을 실제 원리로 하여 그분을 충실히 따르는 이들을 말한다. 주님의 인성 측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현재도 상황만 다를 뿐 여전하다. 그 이유는 주 예수는 아버지와 따로 구분된 신성한 분으로서 존재한다고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인간 본성은 유한한 존재, 여느 인간의 육체와 다를 바 없다고 상상하면서 그 육체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견해가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14.15. 위에서 우리가 풀어보려고 노력한 품성의 소유자들이 신성한 보호의 기운아래 보존되고 있음에도 선한 일 자체를 종교의 전부로 바라보는 이들이 쉽게 빠져드는 잘못들은 아직 공존하고 있다. 이것이 베르가모 교회에 주어지는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의미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중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죄짓게 하였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였으며 음란한 짓을 하게 하였던 자다.” 발람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민수기 22-24장에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마술사요 점쟁이인 그는 성경의 글자 대로만을 참조한다면 단지 초자연적인 과학을 공부했듯 나타난다. 그리고 자기를 채용한 사람의 뜻을 성사시켜보려고 실력을 발휘했듯 보인다. 민수기를 참조해보면 이렇하다. 그는 주문을 외워 이스라엘의 행군을 훼방놓도록 모압왕 발락의 초청을 받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적 같은 수단으로 발람의 의도적인 저주가 축복으로 뒤집어지게 하시고, 마치 발람 스스로 기꺼이 축복을 말한 듯 여겨지게 했다. 이런 신성한 영향력 밑에서 그의 행동이 끝났는데도 그는 이 신성한 행동을 헛되게 하려고 잔재주를 부렸다. 그래서 그는 교묘한 술책을 발락에게 귀뜸해주어 젊은 모압 여인들을 시켜 이스라엘 아들들을 우상에 절하는 쪽으로 피어내게 했다.

이 작전은 성공했다. 그 결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는 재앙이 초래되었다. 이 줄거리에 있는 이스라엘 후손으로 모형화된 교훈은 주님의 교회에 소속된 이들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교훈, 즉 주님의 교인은 영적인 적의 계략에 의해, 설사 어둠의 권세로부터도 다치지 않는다는 것, 오로지 상함을 입게 되는 길은 자신들 스스로 악의 권세에 동의할 경우 뿐이라는 것이다. 역사에 의거해보면 이스라엘은 모압족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불법으로 모압 여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줄거리들이 현재의 본문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을까? 기독교인들이 발람의 교리를 따르고 있다 라든가, 발람의 조언에 충동을 느끼고 있다 라고 말해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진리가 없는 채 선 가운데에만 있는 이들은 선함 없이 진리에만 있는 이들에게는 손쉽게 속아 넘어 간다. 무식한 순박함은 교묘한 사악함에는 상대가 안된다. 진리는 선함을 보호하는 필수조건이다. 비둘기의 순박함(simplicity)은 뱀의 지혜로 보충되어야만 온전하다. 지혜 없는 순박함이 쉽게 사기 당하는 이유는 계발 안된 선은 언제나 악으로 얼룩져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들은 모압 여인들의 핏에 쉽게 속아넘어 갔던 것이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바, 참 애정들은 자연적 선함과 연결되어 존재하는데 이 자연적 선함은 악이 청탁하는 것에 쉽게 유혹된다는 것이다. 모압족이란 출생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 즉 자연적인데에 근원을 두고 있는 선 또는 친절 같은 것을 흠모하는 상태를 표현한다. 이와 같은 선은 결코 진짜가 아니다. 그 이유가 이런 선은 영적인 항목(consideration)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선은 악과 혼합되는 방식을 통해 더럽혀진다. 이런 뒤섞임 작전에 성공한 악은 다시 알랑거리는데도, 너그러운 척 하는 태도, 넉넉시 빗대어 말하는 언어 등으로 악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가면을 쓴다. 모압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다는 것은 자연적 애정만으로 하느님을 예배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신성한 예배가 절대 아니다. 하느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최상의 선함을 숭배하는 것이고 각자의 심정 속에 있는 애정중 최고의 애정으로 최상의 선함을 드높이는 것이다. 이것만이 진정한 예배이다. 자연적 애정만으로 드리는 예배가 모압족의 예배이다. 자연적 애정만으로 하느님을 예배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는 악을 끊으려 하지 않으면서 선을 행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는 교리에 관한 어떤 관심의 표현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한 일을 하는 것 뿐이라고 상상하려드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사람은 자칫하면 타락하고 만다. 선한 일 자체로서는 일이라는 행동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진리의 빛을 얼마정도라도 받는 것, 즉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로되 무엇이 진정 선한 일인지, 어떤 방법이 과연 선한 일을 하는 목적에 이를 수 있는지 가리켜 주는 진리를 습득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 진리의 안내와 보호를 받으면 선한 일이 단지 자연적 처방으로 된 열매로 전락되게 하는 실수에 앞서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종교의 전부가 선한 일을 실제 행하는데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칫 속고마는 또 다른 흠(error)이 있다. 이들은 자기가 행하는 선함의 공적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니콜라오파의 가르침(doctrine)”이라는 이름으로 질책되는 베르가모인의 흠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신다. “또 너희 중에서도 니콜라오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 니콜라오파 사람이란 믿음과 이타애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이들, 인간에 의한 일들을 그 일을 행한 당사자의 공적으로 간주하는 이들을 뜻한다. 이것이야말로 믿음과 이타애를 완전히 분리해놓는 이들, 분리해서 믿음만을 주장하든지 또는 이타애만을 주장하든지 어느 한쪽만에 의해 구원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큰 실수로 허무한 착각이다. 믿음과 이타애 또는 진리와 선이 분리될 경우 두 쪽 중 어느 한 쪽도 주님으로부터가 아니다. 우리가 진리와 분리된 선에 관한 가르침을 붙들고 있든, 선으로부터 분리된 진리만을 주장하든 또는 믿음만에 의해 구원된다고 주장하든, 일만으로 구원된다고 하든 어떻게 하든 한 쪽뿐일 경우 우리는 자신이 해놓은 일을 두고 “공적이 있다고...”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했다...”라는 식으로 간주하고야 만다.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는 위 견해를 마음에 품고 있다. 그리고 똑같은 바탕 위에서 이 교회는 구원의 수단으로 일을 주장할 때 저 교회는 그것을 거절한다. 순수한 진리가 가르치는바 진실로 선택하고 참된 것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존재한다. 비록 진리가 악을 끊을 능력, 선을 스스로 행할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해도 그 진리가 다시 가르치는 것은 참된 능력은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 매순간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누어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면 공적(merit)은 어디에 있을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능력과 의지 모두를 주셨는데 공적을 주장하는 것은 주님의 소유인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16. 구원의 능력이 일에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두 개의 실수, 피하기 힘든 실수에 대해 주님께서 베르가모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신다. “그러므로 뉘우쳐라. 만일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목적에 관심을 두지 않는 선한 일이 구원의 문에 이르게 해준다고 하는 관념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쌍날칼인 신성한 진리가 자신 속의 악에 반대하고 자신의 잘못들을 고치기 위해 우리에게 의해 받아들여지고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우리에게 맞서게 된다는 것, 진리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엉뚱한 정의의 왕국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것이라고 통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구절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상념해야

할 것이 있다. 주님이 우리와 맞서 싸우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진리에 반대하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들에 맞서신다는 것이다. 결국 그분은 진정되고 영원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언제나 섭리하신다는 것이다. 이 개념이 우리 자신과 제휴되어 움직여질 때만이 우리는 그분의 진리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들 속에 박힌 썩은 것을 잘라내어 분리시키는 쟁탈갈, 유일하게 선하신 분, 유일하게 진리이신 분, 모든 악이나 거짓과 절대 혼합되지 않는 유일한 그분만이 우리 속의 지저분한 것들을 잘라 내 분리해 주실 수 있다.

17. 어찌됐든 우리가 신성한 훈계에 귀를 기울여 자신 속의 악과 잘못들을 척결해가고 우리 속의 선과 진리가 하나가 되게 하면서 이 하나됨에서 오는 계발과 거룩한 영향력을 힘입어 선한 일을 꾸준히 하나씩 해나간다고 가정한다면, 아주 드높은 천국의 영화로운 상태가 우리 앞에 실존할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있다.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또 흰 돌도 주겠다. 그 돌 위에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은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 구절이 가르치는바는 이리하다. 진리를 배우고 배운 진리를 삶에 응용하는 사람, 다시 말해 순수해진 심정과 계발된 이해성으로부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욕을 벗은 후 자신의 거주지가 가장 높은 천국에 있게 될 것임을 약속하시고 있다. 만나란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즉 지혜가 동반된 가장 순수한 사랑의 원리에 대한 상징물이다. 그 이유는 선한 일이 교리 속의 진리와 하나를 이루도록 살아온 이들은 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혜 안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지혜는 숨겨진(hidden) 지혜이다. 이런 지혜는 기억 속에도 없고 지성 속에도 없고 오로지 심정과 내면의 삶(inner life) 속에 존재한다. 이 지혜는 샘(well)에서 퍼 올리는 물이라는 지혜가 아니고 반석(fountain)에서 솟아오르는 물 같은 지혜이다. 그래서 이 지혜는 영원히 살아있는 물, 생명을 주는 물, 활동하게 하는 물이다. 숨겨진 만나 외에 흰 돌도 있다. 심정 안에 진짜 선함이 있는바 그 선함을 열심히 돌보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진리는 선함의 목적을 향상시키는데 채용되어진다. 따라서 모든 진리는 심정 속의 선함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조목조목 증거 해준다. 진리는 삶의 법칙이다. 완전한 인격은 법이 심정에 새겨질 때 형성된다. “그 날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맺은 계약이란 그들의 가슴에 새겨줄 내 법을 말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그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어,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31:33,34). 이는 그들 속의 품성에 관한 것, 즉 하느님의 법, 또는 거룩한 말씀 속의 진리는 기억 안에 쌓아두는게 아닌 심정 안에 써어져야 한다는 것, “그 돌 위에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은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구절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하나 여기에 있는 명백한 뜻은 인격의 새로움(newness)이다. 이 새로움은 선한 일을 실시하는 이들이 획득해야 하는 새로움이요, 이 새로움은 그들의 선이 진리와 하나되어 질 때 획득된다. 즉 그들의 일들이 육으로가 아닌 영으로부터, 말씀의 글자로부터가 아닌 말씀의 영으로부터 행해질 때 획득된다. 진리를 내향적으로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심정에 율법이 씌어지는 것이 새 언약이라 불리운다. 이는 율법이 새로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차지하고 있는 장소가 바뀐다는 차원에서의 새로움이다. 과거 기억 속에 씌어있던 율법, 이 심정에 새겨지면 새로운 이름, 새 인격을 가지게 된다. 의무라는 바깥쪽 행위로 부과되는 것은 더 이상 없고 오로지 마음이 기뻐한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서 보여지는 행위만 있게 된다. 그 이유는 진정한 모든 행복은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할 때 있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분과 일치하는 게 더 완전해지면 해질수록 더 완전한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행복은 진리의 순수한 법을 내향으로 받는 사람밖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행복이다.

18. 티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 이미 살펴왔던 교회와 종교적 품성이 매우 다른 면모에서 기술되고 있다. 에페소 교인은 교리를 크게 강조하나 사랑과 생활도 그에 비등해야 한다는 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스미르나 교인은 사랑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그 사랑이 나가야 할 방향체시를 해줄 진리의 획득에 관심을 덜 쏟는 이들도 있다. 베르가모 교회는 사랑과 진리 모두를 경시하면서 “사람의 행동이 올바르다면 그에게는 잘못된 게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위 세 교회의 품성을 더 간단히 말한다면 믿음만을, 이타애만을, 행동만을 고집 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티아디라 교인들은 위 세 가지가 하나로 되어있는 이들을 상징하고 있다. 직선적으로 말해서 이들은 이타애에 바탕을 둔 믿음 안에 거하는 이들도이다. 그 결과 내적 사람과 바깥쪽 사람, 즉 안과 밖이 결합된 상태에 있는 이들도이다. 이런 사람들조차도 노출되고마는 위험이 상존한다는것도 진실된 말이다. 그러나 이런 위험이 숨겨져 있는 잘못을 극복하는 이들은 우리 모두가 연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데 매우 타당한 품성이 된다.

예수께서 티아디라교회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신다. “불꽃같은 눈과 늦쇠 같은 발을 가지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주님은 그분을 서술했던 말씀에 의거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이 원리에서 그분은 교회에 다양하게 자신을 묘사하시고 있다. 티아디라 교회에게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써 소개하시고 있다. 그 이유는 이것이 그분의 신성한 인성에 관한 이름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이란 영원하신 독생자(an eternally begotten Son), 즉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a second of the Trinity)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인간 본성, 또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버지이셨기 때문이다. 그러도록 임신에서까지 조차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유일한 독생자이셨다. 그러나 영화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께만 속한 분,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셨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인성을 지닌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셔서 육을 입는 탄생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탄생한 자, 즉 다시 탄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보태는 이유는 인간이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듯 그분께서는 영화하셔서 다시 사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재탄생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다. 거듭남을 수단으로 우리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듯, 영화하심을 수단으로 예수께서는 어머니 쪽에서 온 약하다 약한 유한한 인성을 벗으시고 신성한 아버지로부터 온 완전하고 무한한 인성을 입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신성한 인성이시고 이 인성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 이 인성이 불꽃같은 눈과 놋쇠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의 눈은 무한한 지혜를, 그 발은 무한한 사랑이다. 그분의 눈은 불(fire)같다고 말해지지 않고 불꽃(a flame of fire)같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 이유가 그분의 지혜는 불꽃이 불로부터 일어나듯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진행되기 때문이다. “야훼의 눈은 천하를 살피신다” (즈카리아4:10). 그 이유는 그분의 지혜는 인류의 모든 상태를 보시고 설비해 주시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구절을 또하나 보자. “야훼께서는 당신 성전에서 하늘 높이 옥좌에 앉으시어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 (시편11:4). 그런 이유는 주님의 지혜는 악을 제거하실 뿐 아니라 선을 설비해 주시기 위해 두루 살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문은 주님의 눈 뿐 아니라 발까지 언급해놓고 있다. 주님의 눈은 그분의 지혜에 관한 상징이고 그분의 발은 그분의 권능에 관한 상징 또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 그분의 길(방법, way)에 관한 상징이다. “주님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폭풍 속에 있고 구름은 그분의 발의 티끌이다” (나훔1:3). 그리고 “주님의 방법은 어디서든 완전하다” (시편18:4). 그분의 발은 순수한 놋쇠(fine brass)같으시다. 순수한 선함(pure goodness)은 신성한 역사의 중요한 특성이다. 그러므로 불꽃 같은 눈과 순수한 놋쇠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질 때 그 의미는 이러하다. 주님의 지혜는 사랑의 전지하심(omniscience)과 그분의 권능은 순수한 선함의 전능하심(omnipotence)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시해야 할 점은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묘사하신 것은 그분이 발표하시는 교회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분 자신의 묘사가 지닌 의미를 수단으로 주님께서 티아디라 교회에 그분 자신을 묘사해놓고 있다는 말이다. 그분의 발표는 이 교회가 표현하는 각 개인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적용되는지 모른다. 이미 서술한바 같이 이는 내향적으로는 이타애에 근거한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서 외향적으로는 내향과 부합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법에 반대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기 법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의 마음과 그 마음을 표현하는 요소들(members) 사이에 하모니를 이루고 있어 마음이 명령하는 모든 것을 손과 발이 척척 처리하고 있다. 이런 특성을 지닌 사람에게 본문이 발표되고 있는바, 그들의 마음의 통치 원리인 사랑있는 지혜의 저자로서, 그들 삶의 실제인 섞임 없는 선함의 저자 되시는 분으로서 그들에게 주님 자신을 발표하시는 것은 얼마나 꼭 맞는지 모른다. 그 이유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있다라는 말은 상응으로 표현된 언어라는 점에서 이타애에서 오는 모든 믿음은 그분으로부터만 파생된다는 것을, 그분 안에서는 무한한 지혜가 무한한 사랑과 하나되어 있다는 것을 넘치지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분의 발이 순수한 뜻쇠 같다고 첨가 될 경우 선한 내향의 원리들과 일치된 선한 외향의 생활도 그분으로부터만 존재한다는 것까지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게 하는 눈이시오 견게해 주는 발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지혜로 슬기로워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정의를 수단으로 의로워진다. 믿음과 이타애가 마음 안에서 하나되고 하나된 믿음과 이타애의 일이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실시될 때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이 되어 있게 된다.

19. 이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에 있는 세부사항들은 이 교회의 품성에 대해 더 명백하게 우리로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리하여 그 품성들을 우리가 실감하겠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들을 잘 알고 있고 네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하고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이 구절은 너무 명백해서 설명이 별로 필요치 않을 듯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이 구절에도 자연적, 영적 사항이 들어있다. 다시 말해 자연적, 영적 의미가 들어있고 이를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다. 영적 인간이 영적 사상에 부착되어 있듯 자연적 인간은 자연적 사상에 붙어있다. 사랑(charity), 봉사, 믿음, 인내 그리고 일들에도 자연적 차원이 있는가 하면 영적 차원도 있다. 이 사항들이 신실한 자들의 마음 안에서 크든 작든 존재하는바 그들의 영적 품성을 여기서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런 측면에서 주시해보기로 하자. 이타애(charity)는 이웃을 사랑함이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이타애는 아니다. 이타애는 이해관계를 떠나 있는 사랑이다.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누가6:32). 그럼에도 이웃사랑다운 사랑(neighbourly love) 전부가 이타애인 측면도 있다. 순수하게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으로부터 온 선이 우리의 이웃이다.

따라서 선함 자체이신 주님은 가장 높은 의미에서 우리의 이웃(neighbour)이신 바, 최고도로 사랑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에는 실제적 형체를 더 가지고 있다. 이타애, 이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실시되는 사랑인바, 서로가 상대방에 있는 선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인바 이타애는 인간 안에 들어 있는 하느님을 사랑함이다. 이로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셨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25:40). 이것이 영적 이타애인바 상대방이 어느 교파이건 어느 종교이건, 사회지위가 어떠하든, 자신과의 관계가 멀다해도 관계없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에서 우리는 원수도 친구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적 안에 있는 선을 사랑할 수 있는 반면 우리의 친구 안에 든 악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이타애이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봉사(service) 도 아신다. 이 봉사란 섬김(ministry)을 뜻할 거라 생각된다. 섬기는 자(minister)와 종(servant)은 말씀에서 구별되고 있다. 섬기는 자들이란 선함을 행동하는 이들이고, 종이란 지시되어 내려 받은 진리로 행동하는 이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하신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great)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하고 으뜸(chief)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한다” (마태20:26). 이 구절에 있는 섬기는 자와 종이라는 단어도 역시 막연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의지 안에 있는 선을 원리로 주님을 섬기는 이들과 그리고 이해성에 있는 진리로 주님을 섬기는 이들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주님이 명령하신 이타애란 거듭나는 사람의 마음을 내면적으로 통치하는 선함을 영적으로 사랑함이다. 이와 연결해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섬김이란 사랑되어진 선을 실제에 놓는 것이다. 위와 똑같이 믿음과 인내에도 관계된다. 믿음(faith)은 계발된 지각(enlightened perception)을 언급하는데 이 지각이 이해성의 내면에서 빛을 밝힌다. 인내란 기독교인이 주님의 섭리가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놓되 눈앞에 닥친 사건에 대한 염려가 없이 바깥쪽으로 실시되어 체험되어진 확신을 다시 서명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일(work)이 두 번 언급되고 있다. 이 단어 역시 서로 구분되어 관찰된다. 일이란 언제나 바깥쪽 삶에 소속되거나 적극적 삶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말이다. 처음의 일이란 단순한 순종을 동기로 행해진 일 즉 거듭남이 시작될 때 이루어진 일들이고, 처음의 일보다 더 많다고 언급되는 나중의 일이란 마음이 내향적으로 열릴 때 수반되는 일들, 이 일들은 사랑과 이타애의 동기로부터 수행됨으로 천국적 원리들로 속이 차 있는 일들이다.

20. 다른 교회를 살필 때와도 같이 티아디라 교회에도 충고와 경고로 권면되고 있다.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 여자는 예언자로 자처하며 내

종들을 잘못 가르쳐서 미혹하게 했고 음란한 짓을 하게 했으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이러한 심각한 책망이 이 교회에 소속된 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있다는 것은 납득되기 힘들다. 집합체로 볼 때 그들은 자기들 사이에 사악한 짓을 퍼트리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들의 전염병 같은 영향에서 개혁을 하든지 그들과 분리하든지 요구되고 있다. 질책과 그에 따른 고발조치는 처음에 기술했던 선한 교인들을 향해 의도된 게 아니라는 것은 뒤 구절에서 알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티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여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사탄의 비밀을 배우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단히 간직하고 있어야.” 그러므로 이타애와 믿음, 그리고 선한 일 가운데 있는 이들은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꾀임에 청종하지 않았다. 게다가 자기들은 우수한 품성을 지녔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들이기도 하다. 글자적 의미는 여인 이세벨이라 말해지고 있으나 영적 의미에서는 어느 특정한 여인에 관련되지 않고 이 여인이 소유하고 있는 품성인 자연적인 악들을 의미하게 된다. 더욱이 이세벨이 이 예언서에서 소개되는 이상 어느 특정한 여인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이 여인은 인간 마음 안으로 침투하려드는 어떤 파괴적인 원리를 상징하고 있다. 인간 마음이 그 원리를 인정하게 되면 그 원리가 지닌 미혹하는 사상으로 인해 그 쪽으로 돌아서게 되어 주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를 외면하고야 만다. 이것이 예언자로 자처하는 이세벨에 의해 의미된다면 역사 속의 이세벨, 비록 그녀가 실존했던 인물이라 해도 그녀는 표현적 품성,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파괴적인 원리의 살아있는 모형임에 틀림없다. 이세벨로 된 모형 속의 원리는 진정한 티아디라 교인이 표현하는 원리와 정확한 대비를 이루게 된다. 그 이유는 모든 올바른 원리는 그 원리에 정확히 반대되는 원리에 의해 시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티아디라 교회는 이타애에 바탕을 둔 믿음에 거하는 이들을 표현하고 이세벨은 이타애에서 완전히 분리된 믿음을 표현한다. 이를 개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교리나 실제 모두에서 유신론자인데, 이들은 만일 믿음이 구원해준다면 악 때문에 정죄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견해를 고수하는 이들이다. 사실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아합의 아내로서의 이세벨은 아합을 부추겨 더욱 지독하게 악한 통치를 자행케 했는데, 그녀는 자연적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욕망을 더 뾰족히 표현한다. 이 욕망에서 오는 기쁨은 인간으로 죄악을 실지 저지르게 하고 어차피 모든 인간은 잘못투성이일진대 믿음만으로 구원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여 인간의 약점을 두둔함으로 인간으로 헛된 것을 선택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녀는 죽은 믿음, 썩어진 믿음으로 유도하는 원인이 되는 악의 기쁨을 표현한다. 이 사악한 여왕이 표현하는 원리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깡그리

파괴시키는데, 이 의미가 폭력과 사기로 나뭇의 포도원을 빼앗은 대목에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열왕기상21장). 그리고 말씀 속의 진리와 교리를 표현한 예언자를 그녀가 죽이는데서, 말씀 자체를 표현하는 엘리야까지 죽이려 발버둥치는 대목에서 더욱 위 의미는 부각되고 있다 (열왕기상19장). 그녀의 전 역사는 종교리는 그림자 밑에서 억제 불가능의 탐욕을 행함으로 탐욕의 모형이었고, 그 모형 속의 원리를 채택한 상태와 실제에 그 원리를 응용한 격렬한 결과가 그녀의 참혹한 죽음으로 표현되고 있다. 계시록에서의 이세벨은 열왕기서의 그녀와는 조금 다른 국면에서 부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세벨 즉 아합의 왕비가 스스로 여예언자라고 말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예언자란 말씀에서 온 진리에 관한 교리들을 표현한다. 더불어 그 교리를 가르치는 이들, 확대해서 말하면 그 교리를 원리로 삼는 이들을 표현한다. 그런데 자연적 사랑의 기쁨에 바탕을 둔 믿음에만 의지하는 이들의 모형으로서의 이세벨이 여예언자라 불리고 있는바 그 의미란, 위의 사항을 교회의 진짜 교리라고 확인해내는 이들을 뜻한다. 그녀가 주님의 종들을 가르쳐 미혹하다란 진리를 원리로 하는 이들에게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뜻한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거짓원리를 진리로 여기도록 은밀히 마음에 심고 악을 선으로 삼도록 악한 애정을 주입시켜 피어낸다. 추상적 측면에서 볼 때 말씀 자체의 진리를 뒤집는 것이다. 이런 꾀에 빠질 경우 이루어지는 결과는 무엇일까? 음란한 짓을 하는 것과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책망은 베르가모 교회와 공통되고 있다. 이 교회는 발람의 가르침에 의해 잘못 인도되었고, 티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되었다. 전자는 생각 측면에서, 후자는 열정 측면에서 공격 받았다. 전자는 먼저 우상으로 유도된 뒤 음란한 짓쪽으로, 후자는 음란한 짓쪽으로 먼저 유도된 뒤 우상 쪽으로 미혹 당하고 있다. 결과는 똑같은데, 그 이유는 전자는 거짓 선생들의 계층이 생각을 통해 열정을, 또 하나는 열정을 통해 생각을 썩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죄들에 관한 의미는 이미 상술했다. 이미 살핀 바대로 결혼은 선함과 진리의 합일(union)이다. 음란한 짓(간음, fornication)은 진리와 악의 결합(conjunction)이다.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진리가 정결하게 한 선이 심정(heart)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반면 우상(idol)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다면 거짓으로 모독된 선이 심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거룩한 것과 모독된 것의 더럽혀진 연결은 선한 것과 진정한 것이 그들의 진정한 질서가 뒤집힘으로 결과된다. 진리가 먼저 왜곡되지 않고서는 악과 하나될 수 없다. 이는 어떤 거짓된 해석이 그럴듯하게 놓여져 진리의 힘을 교묘히 비껴감으로써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더 생각해보자. 성경이 꾸준히 말하는 것은 계명을 수단으로 악을 금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다. 어떤 이는 이 사항이 하나의

진리(a truth)라는데 동의하면서도 죄가운데 살고 있다. 이럴 경우 그는 행동을 그렇게 함으로 진리를 단순하게 왜곡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런 주장, 즉 타락이후 어떤 인간도 신성한 법에 순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만을 할 수 밖에 없는 인간 대신 그 순종을 성취했다는 주장에 노출시켜보자. 그러면 그는 위 진리를 거짓말로 바꾼다. 만일 그가 도덕적인 법을 빼고 순전히 위의 교리 아래에서만 산다고 가정 해본다면 영적 이세벨은 그녀의 제자들을 부추기어 그로 범죄를 하게 하고야 만다. 영적인 간음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과 언제나 쌍으로 움직인다. 이러면 하나님의 숭배자인 대신 우리는 자아를 섬기는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대신 자신 속의 욕망에 제물을 바치는바, 오로지 탐욕에 게걸스러워지고 만다.

21.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을 매혹시키는 잘못들이나 영향력들에 맞서도록 해주기 위해서 꾸준히 행동하시고 가르치셨다. 본문의 사악한 여예언자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말하신다. “나는 그 여자에게 뉘우칠 시간을 주었지만 그 여자는 자기의 음행을 뉘우치려고 하지 않는다.” 두 가지 중대한 진리가 여기에 놓여져 있다. 주님께서서는 이세벨까지도 구원되기를 바라신다는 것, 즉 이 세계에서는 회개의 문이 결코 닫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악한 눈에 깊이 빠진 이들은 회개 않는 경우가 너무나 흔해있다. 진리를 한쪽으로 제껴놓고 죄에 공범자가 되는 이들의 상태보다 덜 회망적인 상태는 없다. 왜곡된 진리는 다시 완전하게 뒤집혀지기가 쉽지 않지만 떠들썩한 열정이 어느 정도 침전될 때 가느다란 소리가 들릴는지 모른다. 신성한 자비는 뒤집힌 진리로 사는 사람에게도 회개할 시간을 설비해놓고 있으신다. 더 나아가 시간이 상징하는 것인 회개하는 심정 상태를 설비해두시고 있다. 게다가 회개의 상태는 큰 규모의 회개인 참회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회개는 영원히 거두지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당사자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 이런 회개의 상태는 마음에 남아있는 순진의 상태들, 즉 어릴 적에 받은 감명어린 기억에 의해 도움 받아진다. 더불어 삶의 과정 동안 불멸의 영혼에 밀어닥치는 수천 번의 무게있는 생각들에 의해서도 도움을 받는다.

22,23. 무게 있는 생각들이 자기 영혼에 밀어닥쳐 오가고 있음에도 미래 삶의 실재, 장차 올 심판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해있지 않다면 이제 다음 절을 읽어보자. “이제 나는 그 여자를 고통의 침상에 던지겠다. 그리고 그 여자와 간음하는 자들도 뉘우치지 않고 그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버리겠다. 그리고 그 여자의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위 구절이 비록 이세벨 자신이 회개를 거절했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해도 그 여자로 인해 미혹됐던 이들은 죄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여자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 또는 그녀의 처벌은 침상에 던진다는 것인데 이를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무시무시함이 충분하고도 남는 처벌이다. 휴식(repose)을 취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침상이다. 마치 육체가 그 위에서 휴식하듯 인간의 내면적인 것은 자연적 마음에서 휴식하고 있다. 그래서 침상은 자연적 마음을 표현한다. 그리고 침상은 모든 이가 자신을 위해 말씀으로부터 형성하는 교리도 표현한다. 교리는 말씀 속의 진리인데, 진리가 자연적 마음에 의해 보여져 따를 수 있도록 소화되고 정렬될 때 교리가 형성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때가 있다. 그분께서 병자를 고쳐 주시고 그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라” 라고 말하셨다. 이는 주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자연적 인간과 그 속의 교리를 승강시키라는 것을 표현한 사건이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위 사건의 의미에 직접 반대되는 상태를 뜻해야 한다. 즉 정신적인 타락의 상태, 감각적인 욕망 안에 생각과 애정의 모든 것이 침몰되는 것, 자연적 인간이 그것만을 위해 골격을 짠 교리가 잘못된 관점투성이에서 버벅거리는데도 한 개의 의문도 없다는 식의 자세로 전락되는 상태이다. 이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이들이 던져진다는 말로 표현된 것인데 더 확실하게 말한다면 자기 스스로 감각적인 것, 거짓된 것이라는 침상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자기 침상을 지옥에 만들 때까지 이들은 더욱 더 깊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깊어진 거짓을 생활로 승인해버리는 이들은 큰 환난 속에 던져진다. 이 환난은 시험의 환난이 아니라 항존하는 잘못과 악의 습이 없는 것, 변민, 이것들이 회개 앓는 이들을 위협하여 있게되는 환난이다. 회개는 이 괴로운 상태에서 구해준다. 썩은 애정의 생산물인 잘못들에 있는 생명과 힘이 결핍되고야마는 결과가 이어지는데 이것이 이세벨의 자녀를 죽이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시편 기지는 말한다. “파괴자 바빌론아...네 어린 것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메어치는 사람에게 행운이 있을지라” (시편137:9). 악 속의 거짓이 선함에 바탕을 둔 진리로 검사 받도록 가져와질 때 그 결과는 확실하고 그 보상으로 행복이 놓여진다. 이세벨의 자녀를 죽임으로 모든 교회는 그분이 생각(reins)과 마음(heart)을 꿰뚫고 있으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께서 자신에 관해 발표하신 품성은 구약 성서에서 자주 언급된 여호와와 동일시되는 항목들인바 이분 외에 누가 심정(heart)을 뒤져볼 수 있을까? 이 품성에 관한 주제는 순수하게 영적이고 이는 기독교인의 삶의 시련과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암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살살이 뒤집, 이러한 시련의 본성은 무엇일까? 심정(heart)은 피의 원천지이고, 신장(reins)은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 육체의 이런 기관들은 마음의 의지와 지성에 상당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신장(reins)과 심장(heart)을 살살이 뒤진다고 말해질 경우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란 그분이 우리의 의지와 지성의 상태를 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상태를 보고 알도록 해주신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상태를 아시듯 결코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분이 그 상태를 완전하게 알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 관한 지식조차도 결코 가질 수 없다. 이는 모든 교회에 관련되는 진리이다. 신성한 감시관은 모든 이의 심장과 신장을 검사하신다. 즉 의지로 흠모되어지는 모든 바램, 이해성이 환대하는 모든 생각 속의 품성을 검사하신다. 어느 누구도 이 검사를 비껴갈 수 없고 어느 것도 면제될 수 없다. 모든 인간 마음은 주님께 대해서는 언제나 열린 상태이므로 자신 속에 낫선 것이 체류해 있지 않도록 하는 것, 자아검증을 철세없이 해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렇게 할 때만이 피어들어려는 거짓 연예인자의 유혹을 확고히 깨트려 해방된다. 그리고 모든 심정 안에서 서로 통하는 감정(chord)까지 발견한다. 그러므로 위 경고는 모든 교회에 해당되기도 한다.

24.25. 티아디라 교회가 자칫 속기 쉬운 유혹, 교회 안의 일부가 이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기술한 후 주님께서 유혹에 저항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티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여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비밀(the depths of satan)을 배우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으나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단히 간직하고 있어라.” 여기서 언급되는 교리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살필 때 이미 언급한바 있는데 여기서 첨가된 사탄의 구렁텅이(the depths of satan)란 자연적 마음으로부터 추론하여 말씀을 뒤집는 것을 말한다. 이를 수단으로 거짓 관념들이 참인 듯 나타나진다. 그리고 비록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설득은 구원이라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고도 감각적 바램들로 자유롭게 탐식할수 있는 쪽으로 은근히 유도해낸다. 이런 교리의 구렁텅이를 알지 못하는 자, 즉 이런 교리의 신비와 미묘함에 빠져들지 않은 자, 즉 진리의 길에서 이탈되어 오류 속으로 깊이 빠져들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하시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단히 간직하고 있어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언뜻 생각되는 것은 만일 이타에로부터의 믿음 안에 거하고 그에 부응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이세벨의 가르침으로 모형화된 허위에 넘어갈 위험이 전혀 없을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일게다. 그러나 우리가 다짐해둘 것은 삶속의 어떤 원리나 상태이든 거듭남이 완성될 때까지 절대적인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상에 있는 이상 어느 누구도 보장 안된다. 우리가 천국에 있는 집에 안전하게 거주할 때까지 사탄의 권세에

눌릴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물론 천국 쪽으로 향한 진보의 매단계마다에서 조금씩 악의 권세는 약화되기는 하겠지만 완전 정복이란 이론은 실제로 존재 않는다. 그러나 가진 것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라는 간곡한 충고는 믿음과 이타애라는 천국의 품위를 획득한 이들뿐만 아니라 그 품위가 정말로 훌륭하다는 것을 확신해서 그것을 자신도 획득하려고 애쓰는 이들에게도 해당되는 충고이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여예언자에 속한 쾌락은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질는지 모른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자기 속에 유혹하는 이세벨을 가지고 있는바 이런 간계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적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다. 더불어 교리만이 아닌 진리의 삶만이 우리의 안전장치(safeguard)이다. 감각적 쾌락, 이것도 자연적 인간의 수준에서가 아닌 영적 인간의 수준에서 즐겨질 경우 금지사항이 아니고 더 이상 범죄 쪽에 있지 않는다. 그런데 외관적인 순진한 것들이 영적 인간보다 더 높은 자리를 점령할 때, 그리하여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때 죄를 짓게 만든다. 우리의 관심은 진정한 부함을 구성하는 천국적 품위를 달성하는 것, 진정한 행복을 생산해주는 품위를 획득하는데 늘 기울고 있어야 한다. 이를 달성할 때만이 자연적 마음의 모든 유혹에서 자신을 단단히 견지하게 된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개개인에게 오시는 것,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부름에 기쁨으로 참석하고 응당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리라.

26-28. 좋은 품성을 단단히 붙잡은 데 대한 보상, 모든 시험에 저항한데 대한 보상이 이제 우리를 앞에 놓여있다. “승리하는 자, 곧 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자에게는,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로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셋별을 주겠다.” 극복한다는 것은 악에 저항함을,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간직했다는 것은 선 안에서 잘 버텼다는 것을 함축하는 말이다. 이 사람들에게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 승리하는 자, 꾸준히 일하는 자가 여러 민족들을 다스릴 권세를 받고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 권세는 글자대로 기독교인이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항목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약속은 글자대로 이해될 수 없게 되어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다스릴 권세란 타인 위에 군림하는 것, 지배욕을 암시하고, 쇠지팡이로 질그릇 부수듯 다스림은 잔인한 통치밖에 더 비치는 게 없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볼 때 정복한다(다스린다)는 말은 자아를 정복함(다스림)이고, 통치란 자아를 통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원리에 일치하여 이 약속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까지 알게 된다. 자주 지적해왔던 사항의 하나는 말씀의 순수한 영적 의미는 어떤 인물에 관련되고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원리에 전적으로 관계된다는 것이다. 승리하는 기독교인이 다스릴 민족들이란 자신의 심정 속에 있는 악들이다.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나라나 민족이란 선하고 참되든, 악하고 거짓되었든 어느 한쪽의 원리를 상징하는 단어이다. 본문에서도 민족(nations)들이란 악을 상징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신성한 권위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는다면 주님의 권능을 수단으로 우리 본성 속의 모든 악을 종속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외향의 악뿐만 아니라 내향의 악 즉 악한 행동이 펼쳐나오게 하는 의도 속의 악까지 포함해서 이르는 말이다. 이 악들을 좌지우지 할 수단 역시 나라 자체가 지닌 의미와 마찬가지로 무제가 있다. 지팡이(rod)는 권능을 상징하고 쇠(iron)는 자연적 진리를 상징하는데, 착각해서는 안될 것은 이 진리가 자연적이라 해서 우리가 자연계에 관련된 진리, 또는 자연계로부터 배운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는 밝히 알게 된 진리 즉 자연적 언어로 표현된 진리, 그래서 인간의 자연적 수준이 납득하는데 적합한 진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나라를 통치한다란 말씀의 글자적 의미로부터 끌어올린 진리의 힘으로 자연적 마음 속의 악들을 견책하고 통제하고 추방시킴을 뜻한다. 그래서 자연적 빛과 합리적인 빛 안에서 초차 명백하게 악을 보는 것이다. 우리의 악들이 계속 늘려진다면 정복이라는 결과는 꼭 있어지고야 말 것이다. 모든 악은 자연적 마음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악을 내리누르도록 신성한 진리를 자연적 마음에 가져다 놓지 않으면 그것들을 몰아낼 재간이 없다. 말씀의 자연적 진리는 악들이 거주하는 자연적 마음에 안성마춤이 되는 진리이다. 쇠지팡이로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은 궤변을 간파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실 궤변을 수단으로 자연적 인간은 자기가 즐기는 악들을 용케 숨기고 있다. 어찌됐든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오는 진리에 성실하다면, 설사 그 진리가 하급이고 매우 단순한 것 같이 여겨져도 그 진리에 충실하려 애쓴다면 그 진리는 우리 속의 악을 “용기그릇이 부서져 다시는 주워 맞추지 못하게 되듯”(예레미야 19:11) 산산이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된 권세를 신실한 사람에게 주시되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는 방법으로 주시겠다고 덧붙이시고 있다. 주님께서 적을 정복하시는 그분의 권능에 대한 것이 예언적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나에게 청하여라. 만방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땅끝에서 땅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저들을 질그릇 부수듯이 쇠지팡이로 짓부수어라”(시편2:8). 만방이란 지상의 나라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복하신 어머니 쪽에서 온 인간의 타락된 본성 속의 악들을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것과 주님의 것은 비슷해 있다. 그분이 영화하시듯 우리는 거듭 나아진다. 그분이 아버지 쪽에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악을 정복할 권세를 주님에게서 받을 수 있다. 이 진리는 하느님의 말씀이 함유하는 진리 중에서

우리를 위한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장엄한 진리라 말할 수 있다. 이 진리는 우리 믿음의 샘이요 우리 희망의 바탕이며 거듭나는 작업의 모든 모형이 된다. 주님이 발표하시는 마지막 축복은 그분께서 새벽(morning star)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별은 천국적인 진리에 관한 지식의 상징물이다. 이 지식으로 지혜는 일을 처리한다. 별 중에서도 새벽은 지혜가 획득한 것에 대한 상징물인데 그 이유는 낮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빛나는 별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아침은 동쪽처럼 사랑과 이타애의 상태를 뜻한다. 주님께서 자신을 일컬어 빛나는 새벽(the bright and morning star)이라 말하셨다(계시록22:16). 그분만이 지혜 자체이신바 교회와 인간에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이다. 그분은 드높은 데로부터 오는 여명(day spring)으로 우리를 방문하셔서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주시고 평화의 길로 가도록 우리의 발을 안내해주신다.

3

12. 지금까지 살핀 기독교인이라 교백하는 사람들과 매우 다른 계층이 사르디스 교회로 표현되고 있다.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하느님의 일곱 영신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네가 살아있다는 말이 있지만 실상 너는 죽었다.’” 이 교인들의 품성에 관한 위의 간단한 묘사만 가지고도 그들이 표현하는 종교적 상태가 무엇인지 크게 빛나가지 않는 착상을 가늠하게 한다. 이 교회에 표현하신 그분의 특성은 그들이 표현하는 품성과 관련이 있는바, 그분께서 고용하신 형상에 우선 시선을 집중시켜보자. 일곱 교회가 어떤 교파이건 기독교에 있는 각기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전체를 표현하듯, 하느님의 일곱 영도 각기 다른 종교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하느님,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적용된 하느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여서 우리가 일곱 영들이라 말하든, 거룩한 영(성령)이라고 말하든 그 의미는 완전히 같다. 이미 살핀바 같이 별은 하느님의 말씀에서 밝히 알게 된(계시된) 선함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다. 일곱 영과 일곱 별 사이의 다른 점은 이렇하다. 일곱 영은 내면의 길로 해서 거듭나는 사람의 마음 안에 주입된 신성한 진리의 생명이다. 일곱 별은 씌어진 말씀을 공부하는 외면의 방법으로 획득되는 지식들이다. 일곱 영과

일곱 별 사이의 관계와 매우 흡사한 것은 물과 영 사이의 관계이다. 이를 수단으로 인간은 다시 태어난다. 물은 거듭나는 사람이 가르침이나 공부에 의해 받는 진리를 상징하는데 이 진리는 바깥쪽 삶을 깨끗하게 하는데 고용된다. 영은 마음에서 종교의 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앞의 교회에 대한 것과 동일한 것,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점검하신 결과 살아있다는 이름(name)을 가지고 있다지만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있다. 본문을 전달받고 있는 이들은 종교의 외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소중히 간직은 하되 영적 생명의 어떤 원리에서 영향을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명백하다. 그들은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다. 그들은 “경건함의 형체는 가지고 있으나 그로부터 나오는 힘을 부인하는” 이들도 (디모데후3:5). 이런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은 전능한 눈 뿐이다. 우리는 인간을 바깥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 판단하지만 주님께서는 인간 안쪽, 즉 심정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형식적인 교인과 실질적인 교인 모두 종교 의무중 바깥쪽 부분을 소중히 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종교의 내향적 측면에서 전자는 죽어있고 후자는 살아있다. 이상의 모습이 사르디스 교회로 표현된 사람들의 품성인바, 품성을 향해 연설하시는 내용의 의미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가르쳐주는 지식, 생기를 주는 영, 두 가지 모두에 무관심한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등장하시는 것은 이들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소생되는가, 그것은 영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시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영과 진리의 근원되신 주님으로부터 그것들을 받아야만 한다. 그 이유는 비록 영들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오고, 말씀을 통해 진리의 지식을 간접적으로 획득한다 해도 위 두 사항 모두의 근원되시고 저자되신 분이 예수이시라는 것, 어느 누구도 위 두 가지가 그분으로부터임을 인정 않으면 올바르게 받게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태는 성경에서 자주 말해지는 상태이기도 하다. 시온에서 마음 폭 놓고 있는 이들을 향해 그분께서 이렇게 말하신다. “평화, 평화 그 때에 거기에 평화가 없다.” 그러므로 신성한 연설자가 이들에게 타이르시는 말, “그러므로 경계하라, be watchful”이다. “경계하라”는 말은 꾸준히 잘 관찰하라(observe)는 뜻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잠을 자지 말라고 타이르려 할 경우 우리는 그 사람에게 경계하라는 말을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계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언제나 위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경계(watching)라는 단어는 방심과 대비되는 주의함이라기보다는 잠이 든 것과 대조를 이루는 깨어있음(waking)을 말한다. 계세마니 동산에서 시험가운데 있으신 주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나?” 라고 말하였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라는 말이다. 자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것, 즉 자연적일뿐인 상태와 잘 간직하라고 타이르신 깨어있는 모습 사이에는 얼마나 놀랄만한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 잠이 든 모습의 영적 의미는 자연적 삶으로서 영적 삶과 확실히 구별된다. 물론 사르디스 교회에 타이르시는 바, 그것은 깨어 있음(wakefulness)이 자연적 삶과 구별되는 영적 삶을 강조하시는 말이다. 어찌됐든 잠자는 상태는 세상적 목적만에 목표를 두고 전력을 다하는 사람을 표현하는데 가장 쉬운 모습이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 속에 든 악한 경향성의 고삐를 늦추어 놓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야 만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한다. “제 눈을 밝게 해주셔서 저로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눈을 밝게 함(lighten)이란 영적 지식으로 이해성이 계발되는 것이다. 이 방법만이 자연적 상태에만 속한 자신의 진짜 품성을 깨울 수 있고, 일시적일 뿐인 목적에 자신의 애정을 다 쏟아 결국 자기 상태가 영원한 위협에 빠지려드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상태에 대한 치료약은 잠이 든 상태로부터 일어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살아 있게 한다. 영적으로 깨어난 직접적인 결과가 “너에게 남아 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이다. 남아 있는 것이란 아직 천국과 교통하고 있는 어떤 것들, 이것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는 이들과도 공통되는 점들이기도 한데, 그것은 예배와 품성에 관한 외적 사항들이다. 남아있는 것이 죽어가고 있다 라고 말해진 이유는 내적 본질이 없는 외적 껍데기만 있는 것은 생명의 영원한 근원과 연결되지 않았는바 항구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해주기 위해서이다. 이 세상에서 수정함이라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분께서는 한동안 참으시거나 또는 관대하게 우리를 다루어 주실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향에 있는 원리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결국 죽고 말 것이다. 시편 기자는 푸른 월계관을 가지고 사악한 자의 그럴듯한 모습을 빗대어 말한다. 그것은 이내 시들고 마는바, 뿌리가 없는 그것에서 더 거들게 없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치이다. 그러나 자기의 인격의 처지를 감지하는데 깨어있어 그 결과 영적 깨어있음에 도달한다면 그가 소유한 품성은 힘을 얻게 된다. 그러면 그들은 전과 같은 껍질은 더 이상 없다. 그들은 속이 찬 양질의 알곡이다. 그들은 가상의 세계에서 실제의 세계로 옮겨진다. 그들은 영원무궁함 자체 되시는 분과 연결을 가짐으로 힘을 받게 된다. 그분은 꾸벅꾸벅 조시는 일도, 잠드시는 일이 없이 깨어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으로부터만 우리가 깨어있는 것, 우리의 생명이 온다. 사르디스 교회로 표현되는 이들에게 깨어있고 죽어 가는 것들에 힘을 북돋아 주라고 훈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해 놓은 일들이 하느님 앞에서 온전치 못함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서술하시기 위해서이다.

글자대로 이 구절을 읽는다면, “너의 일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이다. 허울좋은 일들, 겉보기에는 매우 공평한 듯 여겨지는 일, 그런데 속이 빈 일들의 본성이 까 벌려지도록 위 구절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일이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할 때 불완전해 있을 수 있다. 천사나 인간이 제아무리 일을 잘했다 가정해보아도 하느님 앞에서는 완전치 못하다고 말해지는 것은 부인 못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르디스 교인에게 그들의 일이 하느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고 말하실 경우 그들이 했던 일의 속성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본성인 것, 그들만에 알맞은 본성일 뿐임을 묘사해주는 것이다. 일들이 텅비어 있다는 것은 결코 맞지 않는 이론이다. 그들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속이 가득차 있지 않다면, 그들은 자아와 세상 사랑으로 속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속이 채워져 있을 경우 하느님이 보시기에 또는 신성한 진리의 빛으로 보건대 속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오로지 그분의 사랑과 선함으로 가득 채웠을 경우에만 완전하게 보인다.

3. 그러나 이 교회의 사람에게서 하느님이 발견하시는 것은 텅빈 것을 발견하신 게 아닌 완전치 못함을 발견하셨는바, 이런 훈계를 내리시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 그것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네 잘못을 뉘우쳐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나타날지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받았던 것, 들었던 것을 되새긴다(remember)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더구나 그것이 매우 소중하다고 여기고 믿어왔던 말씀 속의 진리를 지성 뿐만 아니라 심정에까지 가져다 놓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굳게 지키라는 것은 진리들을 자기 생각과 삶의 안내 표지판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회개하라는 것은 속이 빈 고백의 상태에서 돌아서리는 것, 그리고 기독인으로 여겨지게 하는 겉보기에 앞서 실제라는 알맹이를 만들 필요가 있음을 우리 마음이 실감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깨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서는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이 구절, 그리고 몇 개의 다른 구절들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은, 넓은 측면에서 뒤집혀진 교회, 개인의 경우 뒤집힌 상태에 그분이 오시어 심판하게 되는 모습이 도둑이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것에 빗대어 언급되는 것이다. 지각할 수는 없다해도 어떤 확실한 형상을 수단으로 우리는 늘 경고되고 있다. 우리가 소유하는 신성에 관한 모든 지식, 특히 교인이라 불릴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것들은 우리 심정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경우, 또는 순수한 동기로부터 생명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우리에게 의해 마음 밖으로 쫓겨나거나 버림받고 마는바, 그 모든 지식은 세상의 일들과의 연결도 끊기고, 우리 생각과 애정의 중재자 역할도 사라지고 만다. 이런 견지에서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분이 도둑같이 오시어 종교적 품성을 이루는 외적인 것, 진리에 관한 지식을 거두어 가신다고는 말해지고 있지 않다. 심정 속의 악을 내향적으로 혐오할 경우, 우리의 보물들은 땅 위에, 즉 지상적 마음, 세상적 목적 위에 놓여지는바, 혐오했던 악은 그것에 놓인 우리의 보물을 강탈해 버리고 만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저 세상에서의 심사작업이나 심판은 이 세상에서 보다 더 강하게 부각되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더 많은 복이, 그리고 사악한 자에게는 정죄를 가져오게 해준다. 이런 이유는 저세계의 경우에서는 각자의 심정에 든 내향의 악은 신성함의 빛을 더 강하게 느껴져 더욱 자기들 본성에의 집착도가 광기가 있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기 때문이다.

4. 위와 같은 실수에 빠지지 않았던 이들, 비록 자기들이 위의 시험에 노출되었긴 해도 극복해버린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하신다.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몇 있다.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 이 구절에 대한 의미는 명확하다. 옷이란 바깥쪽 삶이나 고백함과 관계가 있다. 특히 우리가 원리로 삼은 말씀 속의 진리들, 또는 진리로 여긴 관념들, 그리하여 자신이 되도록 만들었거나 타인에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한 관념들과 관계된다. 옷들은 안에서 혐오된 어떤 것이 밖에 나열된 것들과 일치하지 않을 때 더럽혀진다. 사르디스 교회로 표현된 이들은 믿노라고 고백하여 정구적인 예배나 품행을 엄격하게 준수하는데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살아있는 종교가 무엇인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틈에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언급되는 이들이란 영적 동기로부터 예배 형식이나 품행을 준수한 이들, 말씀에서 배운 진리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말한다. 사르디스 교회로 묘사된 두 부류사이의 차이점은 내적 측면보다는 외적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는 듯, 다시 말해 원리 측면 보다는 실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듯 여겨질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이다. 사람이 영적 인간이 되면 될수록 울비름 역시 더욱 그의 품행(moral)이 되고 경건함 역시 더욱 그의 예배 속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어떤 측면에서는 원리로 행동하는 사람이 규율로 행동하는 사람보다 덜 엄격할 수도 있다. 법 속에 있는 사람은 바깥쪽에 있는 편협적인 신앙, 무자비함, 자기 이익추구와 병합되어 있을 수도 있다. 원리로 움직이는 사람은 종교의 상습적인 사항(conventionality)들에는 관심을 적게 둘는지 모르나 종교의 본질에 관하여서는 빈틈없는 관심을 기울인다. 그는 통상적인 사람들이 하느님에 관해 생각하는 것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는 “하느님과 이웃을 향해 죄과가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그럼에도 그의 양심은 인간의 견해를 참작하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로만 규율한다. 바로 이 진리가

본문에 있는 사람들의 옷, 즉 세상과 욕정으로 얼룩지지 않게 잘 간직된 옷인 것이다. 실로 악한 행동이 옷을 더럽힌다. 그런데 악한 행동이 없다 해서 언제나 깨끗해 있는 것만은 아니다. 옷은 속이 불순해서 더럽혀질 뿐 아니라 겉이 오염되어 더러워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정의롭다는 사람들의 옷조차도 일시적이든, 영원한 것이든 보상을 기대한 모든 행동에 꼭 붙어있는 공적(merit)이라는 것으로 깊숙한 곳에 얼룩(stain)이 있을 수도 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은 믿노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자주 언급하는 용어이기도 한데, 이는 하나님의 영향과 안내 밑에서 꾸준히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걷는다 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생각할 때, 사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과 더불어 걷는다는 것은 그분이 바래시는 대로 산다는 것, 자신의 애정과 생각의 조절을 그분께 복종시키고 있는 것, 그분이 뜻하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뜻하지 않는 것, 그분의 말씀 속의 진리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 어떤 것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걷는다면 자신이 받은 진리를 순수하게 더럽혀지지 않게 언제나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보존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밖에 있는 것들과 상응을 이룰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고백한 진리로 획득하는 것들에 불길한 목적이나 관점들이 혼합되어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일도 없다. 이런 높은 상태는 거듭나는 삶이 한참 진보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는 서로를 식별하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아예 말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있는 품성을 지상 최고의 목적으로 간주하여 마음 속에서도 최상의 자리에 배치해두는 한 우리의 부패된 본성 때문에 불완전함이 분명히 있다해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거나 경종을 울리려는 하실 망정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옷이 더럽혀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한 본 구절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다. 사실 엄밀히 생각한다면 설사 옷이 더럽혀진 것이 자기 탓이 아니라 할지라도 각 사람의 옷은 위의 불완전함으로 해서 더럽혀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사랑의 생명, 심정 안의 순수함에 반대하려는 반역적인 경향성을 종속시킬 때까지는 애당초부터 자기 옷을 깨끗이 간직해왔던 이들, 순수한 흰옷을 소유한 이들과 똑같이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옷을 죽지 않는 존재들만이 입을 옷으로 바뀌 입을 때까지는 흰 도포로 된 순진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 걷는다는 것은 기대해선 안될 것이다. 우리가 죽을 경우 영혼의 상태에 있는 본질적인 것은 바뀔 수 없다해도, 낮은 세계에서 살게 만드는 우리의 무거운 덮개는 제거된다. 동시에 자연적 감각에 의해 제한 받지 않는 마음의 영역으로 의식의 자리가 들려진다. 서양 장기관 같은 인간 삶, 언약된

무지개 대신, 천국에서는 성도들의 정의라는 흰옷을 입고 실감된 진리의 빛 안에서 그 정의 자체이시오 그 빛 자체이신 그분 옥좌앞에 서리라. 과거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은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흰옷을 입고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 아닌가? 하느님과 함께 걷는 값어치는 하느님으로부터 존재할 뿐이다. 그렇게 견도록,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실 분은 주님이신바, 자기가 노력해서 흰옷을 입는 상태가 되었다해도 자기의 공로를 주님 앞에서 내세울수 없다. 그 보상은 행한 일에 있는게 아니라 품위(grace)에 있다. 달리기를 하지 않고서도 상을 타는 경주 대회는 없다. 계명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 하느님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행하게 되는 모든 것은 그분의 권능과 은총을 수단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신실한 자들에게 보상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는 말씀의 의미란, 그들은 주님과 결함을 즐기고, 그분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가치와 존엄함은 진행된다는 말이다.

5.6. 그래서 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신다. “승리하는 자는 이와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결코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비록 모든 교회에 대한 요구사항이 악을 극복하는것이긴 하지만 극복해야 할 악은 각 교회마다 모두 다르다. 모두 다 자기들의 타락된 본성에 든 썩어진 것들과 싸워야 하는 대목은 마찬가지로, 유전적 속성과 자신들 스스로 획득해 놓은 악의 속성 때문에 제각각 특유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그중 사르디스 교회로 상징화된 이들이 특별히 그들 스스로 반대해야만 하는 것이란 종교의 내적 본질, 내적인 삶을 소유하려는 대신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면서 바깥쪽으로 요구되는 종교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들만 이행하면 완전하다고 만족하여 주저앉는 것에 대해서이다. 그들이 승리한 결과로 입게되는 흰옷은 이미 위에서 살핀바 있어 생략한다. 그러나 두 가지 다른 교회와 구별되는 축복이 약속되고 있다. 생명의 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겠다는 것, 생명 있는 자들로 계산하시겠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축복임을 분명히 함축하고 있다. 생명의 책이란 거룩한 말씀이다. 더불어 이 말씀 속의 원리에 의거 인간의 내면은 형성되거나 개혁된다. 이 책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품질이 말씀 속의 진리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의 이름을 삭제 않는다는 말은 그의 이름이 이미 거기에 적혀 있었다는 것을 함축하는 말이다. 이와 반대인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에 관해서 차후 살필 기회가 있게 된다. 이들은 주님이 대적하여야 하는 사람들의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일곱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비록 그들 중 얼마는 결점이 매우 심하고, 얼마는 미적지근하지만 아직도 신앙의 근본을 주님께 두고 있으면서 그분의 제자로 인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인바 모두 주님의 친구들로 간주되어 계산되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믿음의 집 주인이라 해도 명분상의 주인일 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삭제하지 않겠노라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그분의 교인이 되고야 만다는 것, 또는 지상에 주님이 건설하시기 위해 오시는 새로운 왕국의 주체가 되는 것, 새 교회의 생명과 원리로 들어간다는 말도 된다. 또 하나 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승리하는 자들의 이름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입증하시겠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분의 아버지” 라고 말하실 경우, 아버지는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또 다른 인물(person)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분의 아버지란 인성 측면의 본성과 구별되는 신성 측면의 본성을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지혜로부터 구별되는 그분의 사랑이 있다. 그분의 아버지 앞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입증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그분의 사랑에 일치되도록 가져다 놓는 것을 말한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수단으로 사랑 쪽으로 인도하신다. 같은 의미로 믿음을 수단으로 이타애 쪽으로 인도하신다. 그분을 사랑함이 우리를 통치하는 애정이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입증하신다. 그분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도 입증하신다고 했다. 주님께서 천사에 관해 말할 경우 천국에 사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되게 한 것들, 신성한 진리의 기운, 그 안에 포함된 신성한 사랑, 이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천사되는 모든 존재의 생명을 구성하는 것까지 천사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다. 그 이유는 천사란 그들 자신이 소유한 어떤 것 때문에 천사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때문에 천사일 뿐이기 때문이다. 천사 앞에서 누구의 이름을 입증한다는 것은 주님의 진리를 받은 데서 파생되는 믿음과 지혜의 품질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말이다. 사르디스 교회에 대한 주님의 이 약속은 하나 안에 두 약속이 있다. 그 이유가 아래 참고 성경을 보면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따로따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마태10:32). “잘 들어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누가12:8). 위 인용구절과 오늘 본문의 구절을 합산하면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는 셈이다. 하나는 아버지 앞에서의 증언으로, 또 하나는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증언함으로써, 또 하나는 그분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의 증언으로 구원되고 있다. 만일 신성한 언어가 정확하고 완전한 의미로 딱 찬 글이라면 위 구별은 의미가 심장한 교훈을 담고 있음에 틀림없다. 위 말을 글자대로 보면

사랑으로 주님을 입증하는 이들은 사랑 안에 영원히 건설되어 질 것을, 진리로 주님을 고백하는 이들은 진리 안에 영원히 건설되어 질 것을, 사랑과 진리로 주님을 입증하는 이들은 사랑과 진리 안에 영원히 건설되어 질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해되어질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천국에서 사랑 없는 진리, 진리 없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천사의 경우는 사랑보다 진리가 좀더 우세하거나, 진리보다 사랑이 더 우세한 경우에 해당되어 하나를 이루는 결속력이 보다 약한 상태이지만 사랑과 진리가 동등한 천사의 경우는 완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복음서의 경우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천사”라 말하셨지만 본문의 경우 “그분(아버지)의 천사”라고 언급되고 있다. 하느님의 천사는 지혜의 진리들이고 아버지의 천사란 사랑의 진리들이다. 자신의 자아사랑과 자이총명을 완전하게 정복한 이들,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삶 속에서 이루어낸 이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천사 앞에서 증언할 것인바 복되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회, 새 교회가 건설된 일곱 교회 중 다섯 교회를 살펴보았다. 일곱 교회가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마음의 여러 가지 상태들 중 가장 좋고 가장 나쁜 상태를 남은 두 교회가 각기 표현해주고 있다. 먼저 필라델피아 교회를 살펴게 된다.

이 교회에 대해 신성한 분이 지적할 내용은 타 교회에 비해 경미한 바, 상대적으로 타 교회의 품성보다 나은 것임을 알게 해준다. 주목되는 것은, 타 교회들에게는 그들의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자칫 그곳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있는 반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와같은 게 혼합되지 않은 채 발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필라델피아와 다른 교회의 잘한 일 사이에 있는 유사한 품성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장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필라델피아가 이렇게 말한 것,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로 하여금 너에게 나와서 네 발 앞에 엎드려 너를 경배하게 하겠으며...” 라는 구절은 스미르나의 상태인 “네가 유대인으로 자칭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라는 구절의 상태와 관계되고 있다.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보상의 결과, 따라서 아직 승리해내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말씀인 스미르나에 대한 약속에 비해 필라델피아에 대해서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아무에게도 네 월계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시어 이미 승리했음을 비치고 있다. 스미르나 교회에게는 “너는 열흘동안 환난을 겪게 된다” 라고 말하셨지만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온 세계에 환난이 닥쳐올 때에 나는 너를 보호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신다. 베르가모 교회의 경우 언급된 말씀 중에서 “너는 내 이름을 굳건히 믿고 있다” 라는 칭찬의 구절과 필라델피아에 선포된 말씀 “너는 내 말을 잘 지켰으며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 없다”는 구절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진리를 실지 사용한다는 것인 반면 굳건히 믿고 있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교회들을 각기 비교했을 때 장점이 서로 유사할 경우라 해도 필라델피아의 경우가 더 우수하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결점 없이 타 교회의 우수한 것만을 골라 있는 듯 보인다. 그렇다해도 이 교회 역시 완전한 것은 아니고 타 교회에 비해 완전해 보이다 더 가까웠다는 말이다. 사실 순수한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은 순수한 선함 안에서만 발견된다. 이들의 마음은 천국의 저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려있고 준비되어 있는 셈이며 천국과 교통하고도 있다. 이런저런 사항들이 이 교회에 보내시는 언어 속에서 밝혀지고 있다.

7.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이 기독교 거주민이 있게 되는 도성의 이름은 영적 의미 안에 포함된 그들의 품성과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아마 이 교회가 아시아에 실지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이 책의 저자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이 이름을 일부러 들어 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까지 해보게 할는지 모른다. 필라델피아란 형제다운 사랑 (brotherly love)을 의미한다. 미국 펜실바니아주의 한 도시 이름도 이런 아름다운 의미 때문에 붙여져 있기도 하다.

이 교회에 대해 주님 자신을 이렇게 밝히신다.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분이 말씀하신다.” 이 모든 표현들은 주님 안에 존재하는 신성의 완전함 중 어떤 세부사항들을 의미하고 있고 이런 사항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 필라델피아 교인들같이 호의적인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런 항목들을 나눠주시는 분배자가 되어 주신다. 그분 자신을 두고 거룩하시고 참 되시다고 말하실 때 주님께서 암시하는 것은 이 말씀을 보내는 대상들이 그분의 진리와 사랑이라는 거룩한 원리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수준의 차이는 우리로서는 감지할 수 없지만 어느 수준에서이든 거룩하고 참됨의 품질이 그분과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비치고 있는 것이다. 거룩하고 참되신 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요 그분 스스로만이 지닌 능력으로 열고 닫으신다. 보편적인 문, 영구적인 문을 닫아걸고 열게 되는 다윗의 열쇠란 무엇일까? 역사적 인물 다윗에게는 이런 권능이 없다. 그 사람으로부터 이런 권능이 파생되었을리 만무하다. 그분의 신성한 본성 안에 있는 어떤 원리를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윗은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징(type)했다는 사항에는 모든 시대의 기독교인이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주님의 왕권적 직능 측면이 무엇이 있고 사제적 직능 측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 주님은 왕이시고 신성한 측면에서 주님은 사제이시다. 신성한 진리는 우주를 통치하는 힘이고 우리가 법이라 부르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신성한 사랑은 우주를 구원하는 힘이다. 이 사랑은 우리가 감화력이라 부르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신성한 진리를 표현하는 다윗은 구속자(Redeemer)의 특출한 예징이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신성한 진리로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말씀을 육(flesh)으로 만드셨다. 그분의 인성이 거론될 때 언제나 함께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다윗이라고 예언적으로 불리신 사항이다.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 즉 사탄이나 악마의 권세에 포로가 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항은 위의 말에 아주 걸 맞는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해방자, 용사(a Man of war)로서 오셨다. 이에 대한 표현을 찾아보자. “몸을 감싼 갑옷에선 정의가 뻗어나고 머리에 쓴 투구에선 구원이 빛난다. 몸을 감은 속옷에는 응징이 숨어있고, 그 걸친 겹옷에서 열정이 흘날린다” (이사야59:17). “...죽으심으로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시어...” (히브리2:14),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그분 손에 쥐셨다” (계시록1:18).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열쇠” 까지 쥐고 있으시다 (마태16:19). 그러므로 그분이 “여시면 달을 자가 없고 단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열고 닫는 권능은 인간의 힘을 초월한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모두를 포함해서 이르는 말이다. 이 구절의 원어를 보면 거기에는 인간에 관련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분이 베푸시는 권능은 최상에 속하고 절대적일 뿐이다. 영적 견지로 볼 때 그분의 권능은 천국을 열어놓으시고 지옥을 닫아거신다. 이것이 구원의 권능이다. 구원받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이 권능은 천국에 열어지게 하시고 지옥은 닫아거신다. 하늘과 땅이 가장 작은 규모에서 인간에게 창조되어 있다. 창조를 수단으로 인간의 영적 마음은 조그마한 천국이고 자연적 마음은 땅이다. 다시 말해 이 두 마음이 천국적인 애정과 지상적인 애정의 좌석이라는 말이다. 지상에 한때 있었던 것들, 지상적 낙원이라는 것까지 죄는 지옥으로 변하게 하고 말았다. 타락된 마음 안에서 이 지옥은 항상 열려져있다. 이것이 악한 심정이요 이로부터 세상 자체를 온통 수라장이 되게 하는 모든 악덕 행위가 진행된다. 마음 속에 지옥이 열릴 때 마음 속의 천국은 닫힌다. 이를 거꾸로 진행되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다. 넓은 측면에서의 구속의 역사를 수단으로 그분께서는 인간 자신의 측면에서 위의 순서를 뒤바꾸고 있으시다. 개개인의 구속 역사는 내적 인간에 있는 천국이 열리게, 외적 인간에 있는 지옥이 닫히게 한다. 이런 역사는 오로지 주님만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천상천하의 모든 권능을 받으신 분, 육을 입으시고 구속과 영화하심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분에 의해서만 결과될 수 있다. 권능은 하느님으로부터의 하느님이 아닌, 하느님으로부터의 인간으로서의 그분이 받으신 권능이다. 그분께서는 신성으로부터 인성 안으로 모든 권능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여실 때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실 때 열 자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해야만 된다. 그런데 그분의 권능은 우리가 일함을 수단으로 가능해진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이런 확신이 서리라.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로마8:38).

다윗의 열쇠를 소유하신 바 천국과 지옥을 열고 닫으신다는 그분의 권능을 언급하신 뒤 이렇게 진행하신다.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문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넓은 측면에서 볼 때 주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통해 모든 인간에게 문을 열어 두셨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지상에서이든 하늘에서이든 그분의 왕국으로 자유로이 들어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뾰족한 측면으로 볼 때 주님 자신이 문이시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되리라” (요한10:9). 예수는 중재자이시다. 예수만을 통하여 교회와 천국에로 입장된다. 그 이유는 사람되신 그분만이 빗장 쳐진 문을 여시고 천국으로 승강하셨고 천국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바 만물중 가장 거룩함으로의 길을 터 놓으셔서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히브리9 장). 그러나 특별한 측면에서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인 같은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있게 장치해두셨다. 여타 교회들에게는 아직 닫혀 있는 상태인 문인데 왜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위해서는 열어 두셨을까? 그 이유는 이 교회가 내적 인간의 문을 천국적인 것들을 받기 위해 열어 둔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런 결과 천국 자체가 그들 영혼에 입장되어 있는 셈인데 그것도 그들이 지상적인 장막을 거둬 치웠을 때이다.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진보해가고 있거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필라델피아 교인의 대화가 천국 안에 존재한다 (필립보3:20). 그들은 천국적인 마음의 씩씩이이고 본질상 천국이다. 그렇다해도 그들이 문을 통하여 천국이라는 거처인 마음속 깊은 방으로 실지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비록 영적 마음이 열려 있을지라도 거둬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물질적인 몸을 벗어 천사가 되기 전에는 그 세계를 감각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때때로 천국의 빛과 사랑이 그의 합리적인 마음으로 내려와서 신성한 진리에 관해 명백한 지각을 주고 천국적인 사항 속에서 생명있는 기쁨을 가질 수는 있다. 이런 천국적인 상태 안에 있으면서 이를 삶의 마지막까지 이어간다면 그는 문을 통과해서 자기

밖의 천국 그리고 자기 속의 천국 모두를 의식하여 소유하게 될 것이다. 열려져 있는 문에 이어서
 주님께서 더 서술하신다. “네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 너는 내 말을 잘 지켰으며 내 이름을 부인한
 일이 없다.” 힘이 비축되는 근원은 두 가지, 사랑과 이타애이다. 모든 힘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힘은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힘에 의존된다. 사랑은 동기 측면에서의
 힘이고 진리는 방향이나 조절 측면에서의 힘이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첫째가는 사랑 즉 주님을 사랑함이 아닌 둘째가는 사랑 즉 종교와 천국에서
 두 번째 가는 사랑인 형제다운 사랑 안에 있는 이들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약한 그
 힘도 많은 악들을 극복하는데는 충분하다. 이런 약속 때문이다. “너희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대적하리라”
 (여호수아23:10). 악에 저항하는 힘을 수단으로 주님께서 선을 행하는 능력을 나누어주신다.
 그러므로 미약한 힘을 지닌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노라고 말해지는 것이고, 이는 주님의
 계명을 삶에서 실천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방도 외에 더 다른 길은
 없다. 말씀 속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 기억 속에 제아무리 많이 저장되었다해도 그것들이 애정들에
 의해 자극되어 실생활을 통치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말씀을 따르는 것도 아니요 그 지식은 영구적이지
 도 못한다. 지상에 계셨던 주님은 그분의 일거수 일투족에 따르는 행동이나 언행 모두가 말씀을
 성취하는 것과 이어져 있었다. 신성한 말씀 전체가 가장 깊은 바탕에서 지켜지고 성취됨으로
 그분 자신이 되게 하셨는데 그분의 인간적 본성까지 생명있는 말씀 형체가 되게 하셨다. 만일
 인간이 영적 존재, 천사같은 존재가 되어갈 경우 위와 비슷한 과정 즉 주님의 말씀을 지키므로
 그는 유한한 측량 만큼에서 신성한 진리의 살아있는 형체가 되리라. 참으로 말씀 속 진리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주님의 인성이 신성이심을 가르치는 대목이고 이를 인정함이 천국 존재가
 되는 원인의 하나요 천국 쪽의 문이 열린 사람 즉 본문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성경에서 이름은 품질을 표현하는 말인바, 주님의 이름은 창조물에게 알려지고
 예배될 수 있는 그분의 품질, 본성을 뜻한다. 하느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알려지고 있다. 주님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만 알려질 수 있고 예배될 수 있다. 이 인성(Humanity)이 주님의 이름(the
 Name of the Lord)이다.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화되게 하소서.” “천국 아래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 주어진 주님의 이름에는 이외 더 다른 이름은 없다.” 이 거룩한 진리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구절이 보여준다. 이 진리를 수단으로 천국이 인간 마음에 열리어진다.
 그러나 이 진리를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 가지고는 천국의 문을 열리게 할 수 없다. 주님의
 이름은 그분의 품성인바 그 품성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면서 고백하는 이들만이 가능할 뿐이다.

이 구절이 보여주는바 주님께서 이 교회가 그분의 이름을 고백했다고 언급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부인한 일이 없다고 말하시고 있다. 이 위대한 진리를 부인 않는 것은 비록 적극적 자세는 아니라 해도 잠재적 요소로 훌륭한 자세에 해당된다. 이런 상태가 필라델피아 교회로 묘사되고 표현되고 표현되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이타애와 믿음이 마음 안에서 하나되긴 했지만 삶 전체로서는 아직 하나되지 못한 상태이다. 열린 문이 그들 앞에 장치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을 통과하여 천국 상태를 충분히 실감하고 있지는 않다. 완전한 하모니와 하나됨이 그들의 영적 마음과 자연적 마음 사이에 아직은 건설되지 못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두 마음 사이를 이어주는 문은 열려있고 보다 낮은 것이 보다 높은 것에 종속되는 것이 그들이 가진 결과 중의 하나이다.

9. 이 결과가 이렇게 말해지고 있다.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로 하여금 너에게 나와서 네 발 앞에 엎드려 너를 경배하게 하겠으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천국 쪽을 향한 여정을 추구하고 그 곳으로 들어가려는 기독교인을 격려하시기 위한 거룩한 말씀 속에 있는 다양한 축복 중에서 위의 약속같이 모든 적을 발 아래 꿇게 하겠다는 약속만큼 큰 포상은 없을 것 같다. 이 약속을 글자대로 생각한다면 이는 단지 자연적 인간이 그 성취됨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 약속에 의도된 바는 자연적 인간이 아닌 자기 집안에 있는 적들, 자기 마음 속의 적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약속의 성취는 별 가치가 없는 듯 여길는지 모른다. 그 이유는 자신 속에 든 것은 원수가 아니라 친구들로 여기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자기 속에 있는 악에 쉽게 기울려 드는 속성(propensities)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최고로 여기는 애정들이 영원한 것 위에 놓여질 때 시시때때로 모습을 드러내는 악한 애정들은 그를 미워하고 선한 애정들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지려고 발버둥친다. 이런 상황이 우리 속 상태인바, 이런 애정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각자의 경험에서 확인되리라 본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악한 뿌리에 끝까지 저항하면서 도움을 그분께 진실로 간구하지 않으면 신성한 능력조차 우리들 쪽에 유리하도록 작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태도로 악과의 투쟁에 임할 때 우리는 정녕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거룩한 말씀이 보증해주는 것에 기뻐해야 하리라. 더욱이 악한 애정이 뽑혀나간 자리에 새로운 애정과 기쁨들이 이식되고 이식된 애정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결국은 복종되어지고 말리라 본다. 그 이유는 자연적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는 악이 아니기 때문이고 선한 애정들이 자연적 수준의 것을 선용해가면서 통치하게 될 때 악이 될 수도 있던 모든 것도 제거되고 만다. 이것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이 아예 전멸되기전 발아래 꿰어 경배하게 되는 모습에 담겨 있다. 천국적 사랑 또는 이타애가 주권을 쥐게 될 때 마음 속 상태들이 뒤바뀐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 그리고 모든 자연적 애정들이 높은 애정에 복종하는 쪽으로 환원된다. 유대인의 의미와 관련되는 점에서 본문과 유사한 말이 스미르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 있다. 유다의 후손이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유대인이란 주님을 사랑함을 원리로 삼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유대인인 척 하는 것, 진짜에 반대되는 것은 자아를 사랑함을 표현한다. 사실 자아사랑 자체로만 볼 때에는 악한 사랑이 아니다. 악이 자아를 통치할 경우, 그리고 높은 애정들을 자아사랑 밑에 종속시키려들 경우, 자아의 목적에 모든 것을 껴맞추려들 경우, 문제가 발생된다. 이 사랑 속의 애정들은 인간 심정 가장 깊은 속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모든 애정들을 기만하려든다. 자아사랑이 통치하게 되면 그 추론은 얼마나 미묘한지, 그 수단이 얼마나 다양한지 헤아리기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이것이 사탄의 무리로 의미되고 있다. 그럼에도 신성한 진리들을 인정하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보겠다고 함으로 해서 영적 마음이 열려질 때 이전에 우리를 기만하려 들었던 적들도 꽤 쓸모 있는 종이 된다. 거짓 유대인들이라 해도 굴복 당하게 되면 자연적 인간 속의 선한 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사실 자연적 수준의 애정들은 그 이상의 어떤 능력을 가지도록 발달되지는 못하지만 영적 인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유용한 도구는 되어줄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과거 교회의 머리나 되는 듯 서열을 다두고 그것만이 교회의 참 원리인 듯 떠드는 대신 이제는 발아래 엎드려 겸손히 경배하러 나아온다. 발은 자연적 마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자연적 사람들이 자연적 마음만을 자기들의 자리라고 인정할 때 그것들 역시 주님으로부터 내적 인간을 통해 흐르는 생명을 받기까지 한다. 그리고 제각각은 각각에 어울리는 장소에 들어왔고 각각에 알맞은 기쁨과 만족을 나누어 갖는다. 이른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10. 필라델피아 교회로 표현된 품성을 더 밝히 알게 하는 또하나 유사한 점이 있다. 스미르나 교회에 보내진 말씀은, “네가 장차 당할 고통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하여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다” 인데,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진 말씀은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온 세계에 환난이 닥쳐 올 때에 나는 너를 보호해주겠다” 이다. 인내와 고통은 매우 비슷하다. 스미르나 교회의 경우는 고통이 장차 오게 된다는 것임에 비해 필라델피아는 이미 지나갔다. 주님의 말씀이 인내하라는 명령이라 불리는데, 이는 악한 바래과 거짓 추구에 대적하는 싸움을 암암리에 비추고 있다. 이 사항은 천국적 상태에 도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수행되었어야 할 것들이다. 동시에 옛 삶을 내려놓고 새 삶을 추켜드는 두 상태 사이에서 경험하게되는 고난(privation) 역시 암시해준다. 거듭남이 완성될 수 있기 전에 영적 마음과 자연적 마음은 하나되어야 한다. 이것이 결과될 수 있기 앞서 고통받는 상태는 그 정도가 강하든 약하든 피할 수 없다. 그 강도는 거짓된 악한 원리가 그것에 유리한 쪽으로 얼마나 변명해대는가의 정도에, 실질적으로 그 삶을 유지시키려드는 정도에 비례한다. 어찌됐건 이런 원리에 저항하는 태도가 꾸준히 존속되어 시험을 이겨낼 때 그 기독인은 이후 그런 시험으로 상처를 받는데서 보존되어진다. 이런 신성한 약속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온 세계에 환난이 닥쳐 올 때에 너를 보호해주겠다”가 주어지고 있다. 일반적 측면에서 이 결정적인 때란 계시록의 끝 부분에서 묘사되는 일반적 심판의 때이다. 비록 이 심판이 영계에서 거행되겠지만 그 결과들은 자연계에서 경험하게 된다. 어느 세계이던 주님의 말을 잘 지킨 사람만이 그런 시험들로부터 보존된다. 보다 더 특별한 측면에서 시험의 때란 천국에로의 입장을 허가받기 위한 마지막 준비로서 사후 모든 이가 맞이하게 될 시련의 상태들, 주님의 오심이 어떤 이에게는 기쁨을, 어떤 이에게는 통탄함을 뜻하는데, 어찌됐든 모든 이는 죽음을 수단으로 그분의 보다 더 직접적인 현존으로 안내된다.

11. 이 교회에 말하시는 사건들이 확실히 있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이 말씀, “내가 곧 갈 터이니...”로 표현되어 있다. 말씀의 영적 의미는 시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영적 사건들은 시간 속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건의 원인은 영계 안에, 인간의 영적 상태 안에 있다. 이 상태들이 때나 시간이라는 말로 성경에서 언급되는 것이다. 주님의 재림 역시 일반적 사항과 관계되는 말이어서 이를 시간으로 따져 측정해보려 한다면 얼마나 빨리, 언제인가를 거의 이해할 수 없다. 그분의 오심이란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소개시켜 주게되는 사건이라고 이해할 때 “곧(quickly)”이라는 단어의 뜻은 확실함(certain)을 뜻한다는 것까지 적절히 이해하게 된다. 사건이 터질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아무에게도 월계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은 얼마나 절실할까! 노력해서 획득한 월계관은 깨어 경계하여 잘 보존함으로써만 간직될 수 있다. 기독인은 타인을 눌러 이긴 승리로 월계관을 얻는 게 아니라 자신을 정복함으로써 획득된다. 이 월계관에 앞서 십자가가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되리라. 부패된 자신의 속성에 든 악들을 복종케 함으로 씌울 수 없는 월계관을 획득한다. 이는 지상의 영광이라는 월계관이 아니라 영적인 월계관 즉 총명과 지혜라는 월계관이다. 스미르나 교인들에게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조건에서 월계관이 약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 월계관을 획득했다. 스미르나 교회로 표현된 이들에게는 아직 미래에 속하는 “죽기까지”를 이미 통과한 이들을 필라델피아 교회가 표현하고 있다. 스미르나가 획득하지도 못한 것, 진정한 이타애에 바탕을 둔 진정한 믿음을 이 교회는 단단히 붙잡아야 했다.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선한 생활의 계속적인 증진뿐이다. 이는 견디기 어려운 때에 종교의 품위를 단단히 붙잡기 위해 더욱 절실하다. 시련의 때를 위한 적절한 표현이 있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장차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하고 떠들어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마태24:4-5).

영적 삶의 원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아주 흥미있는 대목일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발생하지 않는 특이한 사항들이다. “나는 승리하는 자를 내 하느님의 성전 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그가 다시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내 하느님의 이름과 내 하느님의 도성의 이름, 곧 하늘에서 내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로운 이름을 그 이기는 자 위에 새기겠다.” 월계관을 이미 획득한 사람들이 아직도 정복해야 할 게 있고 승리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게 있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듯 보이는데 주목할만한 일이 될 것이라 본다. 이 교회는 두 가지 상태 즉 앞 부분에서는 전투하는 상태를, 뒷 부분에서는 승리하는 상태에 속하고 있다. 전자는 지상에서의 기독교인의 삶에 관한 것, 후자는 천국에서 기독교인이 경험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 두 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말은 “보라 내가 곧 갈 터이니...”이다. 주님의 오심은 지상적인 상태를 끝내고 천국적인 상태가 시작되게 한다. 그러므로 12절 이하의 약속은 천국적 상태에 더 특별하게 관련되고 있다. 여기서 관련된다는 말은 독단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한계를 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위 두 상태들은 지상 삶 안에서도 경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해보면 앞 부분은 개혁되는 상태에, 뒷 부분은 거듭나는 상태 자체에 해당될 수 있다. 물론 각각의 경우에 심판이 존재한다. 죽음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주님을 보다 더 직접 뵈게 될 때 심판은 마지막으로 각 사람 위에, 각자에게 속한 모든 것 위에 있게 된다. 그래서 그가 시련을 잘 견뎠다면 그의 본성 속에 든 남아있는 모든 불순물은 제거되고 영원히 천사들의 나라로 들리워진다. 극복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약속은 위 행동 후에 있는 사람들 즉 통치하는 그의 애정이 상호간의 사랑(mutual love)의 상태들인바, 이들이 그들 앞에 놓여진 열려있는 문을 통과하면 그 문은 그들 뒤에서 닫혀져 불완전하고 환난뿐인 세계와 차단되어 축복스런 안전의 상태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 교회에 대한 축복 조항 중 너무 특이해서 모든 이를 의아하게 여기는 대목 중 첫 번째 가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그분의 하느님으로서의 하느님에 관해 말하신 사항일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말씀에서 거론되는 신성한 이름에 부착된 제일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 본다. 어떤 사람이 서슴없이 추론하기를, 예수께서 그분의 하느님에 관해 말하실 때 그분의 말들은 여느 인간의 수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이런 관념은 그릇된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해야 마땅하리라.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종속된 존재라 할 경우 이는 그냥 넘어갈 만한 이야기가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계시록만을 들추어보아도 수많은 장면에서 그분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분이 또다른 누군가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된 곳은 없다. 비록 네 생물을 위시해서 천사들, 원로들 외에 수많은 무리들이 서열을 갖추어 예배를 했다고 해서 그분이 예배드렸다는 식의 생각은 암시조차도 받을 수 없다. (계시록5장) 더욱이 옥좌에 앉으신 신성한 존재가 요한에게 서로 구분되어 표현된 듯 여겨지게 만들어졌긴 해도 신성한 존재 사이에 이 분이 저 분을 숭배하는 듯한 대화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천국 천사들에 의해 예배된 대상은 신성한 존재 양 쪽 모두를 향하고 있다. 즉 “옥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 찬양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따라서 예수가 신성한 존재 중 서열이 아래라고 가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예수께서 영화하신 후 자신의 서열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등등으로 인정한 대목은 추적되지 않는다. 그분이 아버지를 예배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성함의 같은 수준이 그분께도 해당된다고 하는 대목이 더욱 많다. 이런저런 모든 대목들은 아버지와 아들 또는 하느님과 어린 양은 두 개의 분리된 인물이 아니라 현분 신성한 인물 속에 있는 두 개의 본질들 즉 신성과 인성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하는 교리의 진리를 예증하는 사실들일 뿐이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 어떻게 주님께서 말하신 “나는 하느님”이라는 말이 위에서 살핀 것과 일치되는 것일까? 이는 복음서에서 자주 언급된 주님의 말씀인 “나의 아버지”에 관한 사항과 일치됨을 알면 된다. 그분께서 아버지를 말하실 때, 비록 어떤 이의 경우 그분께서는 자신과 구분되는 누군가를 암시하고 있다고 상상할지는 몰라도 이것이 그 누군가가 예배의 대상임을 암시한다고는 누구도 결론 맺지 못한다. 두 표현 즉 아버지와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수단으로 그분께서는 자신 속의 본질을 우리로 서로 구분하여 알 수 있게 해주신다. 즉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신성한 선 또는 사랑 측면에서의 본질을, 나의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써서 신성한 진리 또는 지혜 측면에서의 본질을 알려주신다. 나의 하느님이라는 어구가 자기보다 더 높은 신성한 인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승리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인 “나는 나의 하느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새기겠다” 로부터서도 명확해질 수 있다. 하느님 자신이 그분스스로 그분의 이름과 교통이 가능할 뿐 여느 인간 창조물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무수한 예들이 구약성서에도

산재해 있다. 거기서도 이름 주님(여호와)과 하느님이 신성한 존재를 언급하는데 사용되고 있는데 때로 주님(여호와)라 불리고, 때로는 하느님, 때로는 여호와 하느님이라고 불린다. 이런 이름들이 무작정 사용된 것이라고 상상하는 이들은 없다. 오히려 이런 이름을 수단으로 해서 신성한 주권이 그 자신을 알려지게 하고 있다고 결론 맺어진다. 그리고 이 이름들은 신성한 본성의 특질 또는 서로 구분되는 본질을 묘사할 것이라고 말한다. 신성한 존재는 주님과 하느님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많이 불리는데, 신성한 본성의 가장 보편적인 두 가지 품성을 거론하고 넘어가야 하리라 본다. 이 두 가지란 신성한 사랑 또는 선행과 신성한 지혜 또는 진리이다. 이렇게 구분되는 품성은 신약성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단어 주님과 하느님은 분리되어서 자주 사용되고 때로는 함께 사용되기도 하는데, 4장의 경우 네 생물이 이렇게 외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단어 주님만이 사용될 경우, 그 부분에서의 주제는 신성한 선행,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역사가 취급된다. 단어 하느님이 사용될 경우 그 주제는 신성한 진리를 더 특별히 취급하면서 위와 같은 신성한 역사가 다루어지고 있다. 주님과 하느님이 동시에 사용될 경우 그 주제는 한가지 신성한 원리가 다른 사항에도 똑같이 연결되어 거론됨을 암시한다. 예를 들면 위에 인용한 감사 기도 구절에서 단어 하느님이 사용된 이유는 그 대목의 주제 속에 있는 이들은 신성한 선보다는 신성한 진리를,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선 자체를 원리로 두고 있다기 보다는 선에 바탕을 둔 높은 질서라는 진리를 원리로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본문의 주님께서 나의 하느님을 힘주어 말하시는 이유는 본질되는 특성인 신성한 진리는 그분께만 속해 있다는 것, 이 진리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분으로부터만 진행된다는 것을 암시해주려 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축복 자체에만 국한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첫 사항은 “내 하느님의 성전 기둥으로 삼을 것”이다. 성경 어디에서 언급되든 상관없이 성전(temple)은 글자대로의 경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지칭한다. 그리고 이 성전은 주님의 직접적인 거처로서 유대인에게 내려진 처방으로 생각되고 있다. 거기서 주님은 지성소에 안치된 궤 위에 놓여진 두 거룩 사이에 현존하시는 것으로 상상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성전은 가장 높은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한 인성을 표현하는 모형이다. 이 인성이 그분의 본질되는 신성의 거처된다. 이 사항은 다음의 말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만에 다시 지으리라”으로부터서도 명백해진다. 이 구절의 경우 “그분은 그분의 몸되시는 성전을 두고 말하심”을 뵈족하게 선포하신 것이다. 보다 낮은 의미에서 성전은 그분의 인성이라는 주님의 거처로서 때로 지상의 교회를, 때로 천국을 뜻한다. 세부적 의미에서 성전은 가장 작은 형체가 되는 교회

또는 천국인 거듭나는 마음을 뜻한다. 본문의 경우 천국을 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천국에의 입장을 허락한 이들이 열린 문을 통과한 뒤 그 문은 잠겨져 있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장된 이들을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있는 특성 즉 선에 기초한 진리를 원리로 삼는다는 것을 다시 암시하는 것이다. 기둥이 건물을 지탱시키듯 선으로부터의 진리는 교회와 천국을 받쳐주기 때문이다. 선을 그 자체로만 본다면 매우 연약하고 유동적이고 양보적이다. 이 선을 탄탄하게 하여 견고함을 주는 게 진리이다. 인간 마음 안에서 천국과 교회를 조직하려고 하는 천국적 품위들의 모든 안전성은 그것들을 떠받쳐주는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어떠한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선한 쪽으로 기울려는 경향성과 의도들은 그것의 방향을 정해주고 보호도 해주는 순수한 진리가 없게 되면 쉽사리 길을 잃고 타락하여 오히려 거꾸로 되어버린다. 이와 달리 진리에 관한 지식은 그것에 선한 의도가 없게 되면 쉽게 흔들리고 파괴되며 심지어 오류를 확증하는데 응용되기까지 한다.

그러나 위 두 가지의 장점을 뽑아낸 것, 선함을 사랑하는데 바탕을 두고 진리를 올바르게 납득할 경우 이는 어찌할 바 몰라 흔들거리는 마음을 확고히 해주고, 기독교인의 원리와 교백에 담긴 이름다운 건축물이 쓸모 하나 없는 파멸이라는 무질서한 퇴적더미로 변해버리는 것을 방지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성전 기둥이 될 것이라는 특유하게 고상한 말로 이 교인들이 나타내는 품성을 전달하고 있다. 하느님의 이름, 거룩한 성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새로운 이름이 그들 위에 씌어지도록 되어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본성 또는 품질을 표현하는 단어이다.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 위에 그분의 하느님의 이름을 쓰겠다고 주님이 말하실 때 그들에게 있는 것들, 생각과 지각과 사랑에 속한 모든 생명들은 신성한 진리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받아쓰게 됨으로 해서 언제나 규율될 것임을, 그들은 신성한 진리로부터 그들의 본성과 품질이 파생될 것임을, 그 결과 언제나 신성한 진리와 일치해 있는 것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 사항은 그들의 내향의 상태들에 더 특별하게 적용될 것임에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해도 그들의 바깥쪽상태들 즉 말이나 일에 속한 것들 역시 그들 속에 있는 품성과 같은 것임이 첨가되어 있는 말씀 “내 하느님의 도성의 이름, 곧 하늘에서 내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의미되고 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차후 21장에서 자세히 살피겠지만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해왔던 여타 모든 교회의 부족함을 완전히 보완한 교회, 주님의 재림에 있는 교회이다. 새 예루살렘이 성과 신부로서 표현되고 있다. 성은 진리의 형체를, 신부는 사랑의 형체를 뜻한다. 이 성의 이름이 필라델피아 교회로 표현된 이들 위에 씌어진다는 말이다. 하느님의 이름은 그들 인쪽에, 성의 이름은 그들 바깥쪽에서

씩어진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진행되는 진리는 그들 심정에 새겨질 것이고, 천국을 통해 그분으로부터 직접 진행되어 나오는 진리는 이해성에 새겨질 것이다. 이런 현상은 내면의 진리에 관해 아직 더 가르치고 있다. 천국은 영적 마음에 관한 형상이고 땅은 자연적 마음에 관한 형상이다. 애정을 정결하게 하는 진리가 생각을 방향지어주고 이어서 생활까지 인도하러 내려올 때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첨가하신 말씀은 그분께서 그분의 새로운 이름을 그들 위에 써놓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주님의 새 이름일까?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의 특별한 품성이라면 무엇이 있을까? 하느님의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육을 입으신 이래 그분을 특징있게 하는 것은 그분이 입으셨고 영화되게 하신 인성(Humanity)이다. 이 안에 그분은 거하시고, 이 안에서 천국의 모든 교회에 의해 예배되어진다. 이 안에서 지상의 새 교회에 의해서도 예배된다. 자기들에게 씌어진 그분의 새 이름을 가진 이들은 자기들의 믿음과 사랑의 유일한 대상으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신 주님을 심정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영화하신 몸(body)이라는 성전에 계신 구세주로부터 진행되는 새 영향력을 수단으로 자기들 마음 속의 영들을 새로워지게 한다. 이들이 지녔던 비천하기만 했던 몸(body)은 영화로운 그분의 몸의 형상을 따라 형성되어져 간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소속된 이들, 사랑과 충직으로 형성된 이들에게 약속된 축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들은 천국에 입장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천사들의 속성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우리 하느님의 이름을 가지는 것, 주님의 새 이름이 우리 위에 새겨진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을 벅차게 하리라. 우리의 속성들이 그분의 속성에 일치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반대되는 어떤 것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든 열심을 내자. 여기에 우리로 그것을 달성하도록 하느님의 도움은 우리 손 안에 당도해 있다. 상호간의 사랑(mutual love)이라는 영을 심정에 담기 위해 심정을 갈고 닦아야 하리라. 더러운 것은 빼내고 거기에 주님의 품성을 채워가야 한다. 이런 발달과정 속에서 본문에 열거한 모든 축복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기둥이 될 날이...우리 위에 영화로운 이름이 새겨질 날이 오리라.

14. 마지막 교회의 상태를 살피기에 앞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품성이다. “라오디게이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아멘 이시며 진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느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아멘은 구약성서의 용어인데 진리(the truth)를 뜻한다. 이를 위해 이사야서를 읽어보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느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느님으로 맹세하리니...”(65:16)

이 구절에서 번역된 단어 “진리”는 원어로는 “아멘”이다. 만일 이 진리라는 단어를 번역 않고 사용한다면 이렇게 된다. “땅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비는 사람은 아멘, 하느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아멘, 하느님으로 맹세하리니...” 그래서 몇몇 학식 있는 비평가들에 의해 주목되어온 사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두고 아멘 이라고 선포하실 때, 그분이 이사야서에서 말하신 신성한 존재이심을 선포한다는 것, 그리고 행복을 주는 분으로 생각되는 유일한 존재가 발표하는 것, 그러므로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느님이심에 틀림없는 분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이 계시록 외에도 주님께서서는 아멘 이라는 칭호를 입으시고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다.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참으로, 진실로, verily”라는 단어도 원어로 볼 때 “아멘”이다. 이 단어 역시 히브리 성경에서 그리스어로 바뀐 것인데 이렇게 바뀐 이유는 그 단어가 포함하는 가장 깊은 의미는 단지 진리로 말하는 게 아닌 진리 자체(the Truth Itself), 본질 측면에서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서였다. 이로부터 비평가들이 다시 확증하는 사항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할 경우 이를 원어와 엄격히 일치되게 표현한다면, “아멘인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분께서 자신을 두고 아멘 이라고 선포하실 때 그분은 자신이 신성한 진리 자체 또는 이사야의 “진리의 하느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아멘 이라는 이 거룩한 칭호를 입을 수 있는 자, 또는 아멘을 수단으로 자신이 말한 내용이 확실함을 확증할 수 있는 자는 주님 자신 밖에 없다. 모든 예언자와 사도들은 아멘 이라는 단어는 자기들이 모방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언어의 형체이고 따라서 최고의 존재에만 적절한 단어로 간주해왔다. 한 예로 바울이 자기 심정에 아주 근접된 주제를 맞이하여 아주 큰 진지함을 표현해보길 원했을 때인데도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할 뿐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고 했다. 여기서 번역된 진리라는 단어는 원어상 아멘은 아니고 아멘의 의미에 견주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리스어이다. 그럼에도 다른 경우에서 사도들은 단어 아멘을 사용할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그분께만 사용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을 언급해준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는 가운데 고린도인들에게는 바뀐서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의 모든 약속은 정말 아멘입니다.” 이에 관해 영민한 비평가가 주목하기를 “하느님의 약속은 의심할 것 없이 하느님 자신에게 아멘(또는 진리자체)이고, 그분 안에서만 아멘 인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 자신과 같다고 말하는 것과 동등하다.”

아멘 다음에 언급하시는 그분의 품성인 증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멘으로 예수를 주장한 위엄과

불일치되는 듯 여겨질지 모른다. 어찌됐든 이 증인이라는 말도 아멘 보다 하급이 아니라면 증언하는 것과는 구별된 어떤 것을 암시하는 듯 여겨진다. 그럼에도 증인과 증언한다는 것은 하나이고 동일한 신성한 존재이다. 비록 두 가지 말이 무한한 그분의 완전함의 품질 또는 원리를 구분하려고 언급될 수 있다해도 어찌됐든 하나이다. 아멘의 주님은 본질과 근원이라는 측면에서 신성한 진리인바, 진실되고 참되신 증인으로서의 그분이란 진행되어 나가는 신성한 진리, 그리고 밖으로 진행중인 신성한 진리는 근원되고 본질되는 신성한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 된다. 신성한 진리는 그 자체에 국한해서 생각할 경우 이는 유한한 존재의 납득력을 초월해 있다. 이런 점에서 어느 누구도 주님 자신에 관해 알 수 없다. 따라서 인간에게 지각될 수 있는 신성한 진리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자질에 숙박되어야 한다. 이렇게 숙박될 경우 그 진리는 근원을 명백히 나타나게 만드는 진실되고 참된 증인이 된다.

신성한 진리는 존재 자체의 근원을 태양에 두고 있는 빛과 비교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태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빛으로 지각할 수 있는 원리로서보다는 빛을 주는 힘으로서 지각한다. 또한 지상의 어떤 것이 그 태양에 접근될 수 있다면 즉각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으로 생각한다. 진실된 증인 또는 완화된 수준에서 명시된 신성한 진리는 태양에서 진행된 빛이 대기라는 매개를 통해 지상에 오는 것과 같다. 이 빛을 우리 감각이 빛으로 느끼는 것이고, 그 빛은 그 안에 열을 포함하고 창조의 모든 얼굴을 활기있게 기쁘게 한다.

그럼에도 이 빛이 비록 태양으로부터 진행되어 나오고 있다해도 태양과 하나이고, 그 반면 태양 광선에 의해 활기를 띠는 물질적 몸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고 모든 이는 느낀다.

이 빛처럼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셨다. 즉 신성한 진리가 인간의 마음에 숙박되기 위해 인간성이라는 옷을 입으셨던 것이다. 그분이 세상에 있는 인간 본성을 입으신 것은 그분의 자연적 상태에서까지 인간의 마음에 신성한 영향력을 나누어 주시기에 적절해지도록 하시려는데에 있다. 빌라도 앞에서 심문 받으실 때 이렇게 말하셨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요한 18:37). 이 구절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그분께서 인간 본성을 입으신 것은 세상으로 의미되는 자연적 상태 안에 있는 인간이 신성한 진리를 납득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천국의 태양으로부터 진행되어 나온 신성한 진리는 인간 마음의 최고 영역에만 영향을 줄 수 있을뿐 인간 전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연적 마음에는 어떤 느낌마저도 생산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영원히 멸망되어야만 하는바, 자비의 주님께서는 그분 스스로 자연적 원리를 입으시어 영화시킴으로 강력한 유입(influx)을 수단으로 하실 수 있게 되어 신성한

영향력들은 인간 안에서 주님의 원리와 상응되는 원리에 도달하시어 영향을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신성한 인성, 이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라는 측면에서 주님은 진실되고 참되신 증인이시다. 이 증거들을 인간은 지각할 수 있어 그분의 평화에 속하는 것과 친숙해지게 된다. 그분에 관한 묘사에서 더 있는 것은 그분이 하느님의 창조의 시작이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한 가지 사항이 있다. “창조의 시작”이 의미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마치 첫 번째의 것 또는 창조됨을 함축하는 듯 혼동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것의 첫 번째요 가장 높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리우스파의 착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어로 읽을 경우 뭔가가 시작되었음을 뜻하지 않고 어떤 시작이 만들어짐을 뜻한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창조의 시작”이란 창조가 생겨나게 한 것, 즉 창조의 근원이라는 말과 같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창조의 시작”이라는 어구는 이 대목에서 그분이 신성한 진리 또는 말씀으로서 취급되어진다는 또 다른 증거에 해당된다. 요한 복음서 역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주의 말씀이 천국을, 그분의 호흡이 천군 천사를 만드셨다.” 주의 말씀, 그분의 호흡이란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를 뜻한다. 본문의 용어, 창조는 영적 측면과 자연적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주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새 창조 즉 인간 거듭남의 저자도 되신다는 것을 아울러 배우게 된다. 그분은 영원한 말씀으로서의 창조의 저자이시고 말씀이 육이 되셨다는 측면에서는 거듭남의 저자가 되신다.

15.16. 타 교회나 다름없이 엄숙한 경고를 라오디게이아 사람들에게 발표하신 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고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네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너는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본문의 미지근함은 무관심이라는 상태는 아니다. 이는 영원한 것에 대한 흥미, 영혼을 위한 것에 관심이 결여된 것, 단순하고 소극적인 상태이다. 차가운 무관심, 특유한 마음의 상태 그래서 단 하나, 두려운 결과로 끝장내는 상태이다. 여기서 기술된 상태는 선과 악의 혼합 또는 결합이다. 이는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 “악령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갔다 그에게서 나오면 물 없는 광야에서 쉼 곳을 찾아 헤맨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전에 있던 집으로 되돌아가야지’ 하면서 다시 돌아간다. 돌아가서 그 집이 비어 있을뿐만 아니라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 자리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되는”

(12:43-45) 사람의 상태가 미지근한 자의 결과이다. 삼십 팔 년이나 앓은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셨을 때 주님께서 암시하신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이다. 이는 성령에 어긋나는 죄, 용서될 수 없는 죄, 이 세상에서도, 장차 맞이할 저 세상에서도 용서 안 되는 죄이다. 이는 사도들이 말할 때 “만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았는데 고집부려 죄를 짓는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떤 제물도 소용이 없고 단지 두려운 심판과 맹렬한 분노만이 저희 앞에 있겠습니까” 에서 사도들이 피해야 하는 상태이다. “한때 계발되고 천국 선물을 맛보았고 장차 올 세계의 권능을 맛보았는데 타락한다면 그들을 회개시켜 새롭게 하기로 불가능하다. 그들은 주님을 새로이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이요, 그분을 드러내놓고 모욕하는 것이다”라는 구절도 위 본문의 상태를 암시해주고 있다. 위의 인용문은 가장 깊고 가장 확증된 수준에서의 모독죄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라오디게이아 교인들은 이렇게까지 절망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부르시기 때문이고 권고하시기를 주님께에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눈을 뜨라고 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교인들이 극복만 한다면 천국 축복을 약속하시고 있다. 이 세상 삶에서 어떤 악한 종류가 회개할 수 없는 차원에서 확증되는지에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양심을 그을리려는 죄, 양심 자체에서 나오는 느낌마저 파괴하고 마는 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종교의 진리와 하느님의 사랑을 배반하게되는데서 우리를 경고해주는바 이 경고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교훈의 가치를 발휘할 것이라 생각된다. 믿음과 정의가 불신앙과 죄로 미끄러지고 만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관심한 것 또는 악이 영적 생명을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괴를 초래할 것은 명백하다.

라오디게이아에 내려진 특별한 임무는 그들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데 대하여서이다. 차디는 것은 어떤 내향적 바탕들, 즉 주님과 이웃 사랑을 수단으로 해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 것, 또는 선함이나 진리, 삶이나 지식, 천국적인 어느 품위에도 애정이 없다는 말이다. 뜨겁다는 것은 위의 사랑과 품위로 영향받는 것이다. 따라서 위 두 가지에 관한 의미를 파악하는데는 별로 힘들지 않다. 그러나 이 것도 저 것도 아닌 상태, 두 가지가 혼합된 상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선과 악, 진리와 거짓같이 서로 반대되고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요소가 섞여있을 때 그들의 하나됨은 영원히 찢어지기만 하는 마음의 상태를 창조해야만 한다. 그래서 자비의 하느님께서 저 세계 삶에서 선과 악이 분리되도록 설비해두셨다. 이 세상 삶에서도 인간 마음 안에서 선과 악은 끝까지 분리되도록 하시는 게 그분의 섭리이다. 선이 악과 혼합되지 않는 게 얼마나 바람직한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악이 선과 혼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사악한 자들이 노골적으로 활보하는 것을 원하는 것도 확실히 아니다. 본문의 경우 이런 생각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즉 같은 마음 안에 선과 악이 비록 함께 있다해도 그것들이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거나 하나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가 되고 만다.

이렇게 통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분의 온유한 사랑으로 이렇게 말하신다. “그러나 너는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창조물들이 행복되기를 바라신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을 때 행복을 거절하는 이들이 최소한 가능할 수 있는 고난을 견뎌내기를 바라신다. 죄가 무거우면 그만큼 고난도 무거워진다. 그 중에서 신성모독은 가장 큰 죄인바 가장 큰 비참함을 초래한다. 이 죄의 결과는 한 가지뿐인 바 그에 대한 형상 역시 본문에서 한 가지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미지근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신다.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거룩한 성경 말씀이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해서 언짢게 여길 필요는 없는데 그 이유는 그 의미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이다.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이유도 없이 신성한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지 않는다. 사용되는 각기 다른 형상들이 서로서로 개별적으로 일치하는 게 성경의 언어이다. 미지근한 물은 토하는 것을 유발한다. 먹어진 음식물은 소화되기 위해 위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후 영양소가 되는 부분들은 나머지들로부터 분리되어 신체의 일부가 된다. 이런 과정은 이 세상을 떠나는 모든 이가 수행하는 과정과 정확히 상응된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선한 자와 악한 자들은 마치 음식물이 신체를 돕듯이 각각 천국과 지옥을 먹여 살리고 확장되게 해준다. 자연적 양식 중 신체를 받쳐주게되는 유미(chyle)의 좋은 부분은 모세관이 받고 순수해지는 과정을 수행한 후 혈액으로 들어간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선한 자는 천국이라는 예정지에 도착하여 사도들이 신비의 몸이라고 부르기도 한 몸의 일부를 이룬다. 이에 반해 육체의 영양소로 전환할 수 없는 유미(chyle)의 부분은 영양소와 분리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악한 자는 통과해서 어둠의 왕국으로 수송된다. 선한 자에게 붙어 있던 악한 찌꺼기들은 떼어내져 천국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악한 자가 입고 있던 선한 것들도 악한 자에게서 떼어내진다. 그렇게 해서 그들도 어둠의 나라에서 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라오디게 이아로 표현된 품성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칠 수도 없는 것들이다. 악과 선, 거짓된 것과 진리들이 그들 마음 안에서 소경이 되어있어 나뉘어질 수 없다. 그들이 천국에 알맞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들 속의 악을 제거할 수 없고, 그렇다고 지옥에 알맞도록 해주기 위해서 선을 제거할 수 없다.

한마디로 땅에도 소용없고 거름으로도 쓸 수 없어 내버릴 수밖에 없는 맛을 잃은 소금이다 (누가 14:34). 저주된 자의 가장 큰 고통은 천국의 영향으로부터 있는데 마치 병든 눈에 강한 빛을 받으면 더 아픔을 느끼는 것과 같다. 두 이질적인 품질이 혼합됨으로 모독된 데에 있는 선과 진리는 그 사람으로하여금 천국으로부터 오는 유입을 받게 만든다. 그리하여 악과 거짓 안으로 즉각 흘러들므로 해서 여하한 어떤 상태도 만들 수 없어 계속적으로 찢기는 상태만 있게 된다. 이런 생각들은 마음에 품기만 해도 천사들 영역에서는 혼돈을 일으키는바 우선 이 정도에서 생각을 멈추는 게 좋을 듯 싶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 중 아주 슬프게 하는 형체는 매우 민감한 마음의 걸치레적인 양심에 만연되는 종교적인 열광이다. 이런 품성의 다른 모습을 진행해보자.

17,18.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별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고한다. 너는 나에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고 네 별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떠라.” 이 문단 역시 말씀이 어떻게 씌어졌는지 확실히 알게 해 주는 예증도 된다. 성경 각 곳은 영적 생각을 실어다 주는 자연적 형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적으로 부유하다는 말은 신성한 사항들에 관한 지식인 영적 부유함을 상징한다. 이것들이 마음의 진정한 부유함이고 이를 수단으로 천국적인 모든 복된 것을 포획할 수 있는데 마치 세상적인 안락을 자연적인 부유함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부유함은 마치 돈같이 그 자체 진정한 부유함은 아니고 부유함을 획득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영적으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할는지 모른다. 마치 수전노가 돈을 잔뜩 저축해 두고 있음에도 무척 가난하게 사는 것과 같다. 라오디게이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자이며 풍족하다고 주장한다. 이 둘을 합쳐 한마디 말로 표현된 것이 글자대로 “풍족함, enrich”이다. 위 구절의 말은 중복된 듯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모든 것 안에 존재하는 이중성(duality)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된 것인데 이런 표현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무척 많이 발견된다. 본문의 경우 선함에 관한 지식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표현해 놓고 있다. 사도들이 말한 “지식은 흑 불면 날아감”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묘사된 상태와 잘 어울린다. 사실 지식 자체는 자아찬양 쪽으로 기우는 경향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해성만 풍족해지면 헛된 것을 꾸미는게 인간이다. 이 문단은 말씀의 지식을 제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고 가정해도 그 지식과 양립되는 애정을 흠모하지 않는다면 애써 얻은 영적 부유함도 얼마나 헛된 것을 한 것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진정한 부자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이 지닌 부함에 일치되는

삶을 영위하지 않으면, 최소한 부자라는 것을 달성하는데 요구된 만큼의 어떤 노력을 꾸준히 견지하지 않는 이상 진정한 부자는 아닐 것이다. 여기서 취급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진정한 부자가 못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떠벌린 자랑거리에서 분명해진다. 이 자랑거리로 해서 그들은 영적 부유함을 성실히 잘 운용하려는 사람들의 생각에 결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성실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자랑해서 “나는 부자이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정확히 말해 “나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다” 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영적 부유함이 진정한 진리이든, 설사 그렇지 못하다 해도 그 부함을 사취하는 것, 자아확신을 표현하는 것, 더 높은 능력있는 분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 등등은 그 부함 자체가 그것을 권 소유자를 풍족하게 못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셈이다. 에집트 왕들의 진짜 영들은 신성한 지식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데 이렇게 말한다. “나의 강은 내 것, 나 스스로 그것을 만들었다.” 이런 말들은 자아충명이라는 곳에 잠복된 인간 성질 즉 말씀에서 배운 신성한 사람들에 관한 지식을 자기 영리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바 이런 구절을 신중히 고려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식으로까지는 전복되지 않으리라. 명백한 것 하나는 위 상태에 있는 이들은 본문이 말하는 것,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있다”는 것이다. 비참함은 부족한 게 없다는 말과 대조되도록 의도되어 있다. 비참해진다는 것은 버림받는 것, 걸췌된 것, 그런고로 만사에서 부족해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불쌍함(being miserable)은 풍족하다는 말과 대비되도록 의도되어 있다. 가난하다는 것은 부자라는 것과 대비되고 있다. 부자이라는 것과 풍족하다는 것은 신성한 사항들 즉 선함과 진리에 관한 지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가난하고 불쌍하다는 것은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더 첨가된 말은 위와 같은 사람은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인데 이는 그들이 선함과 진리에 관한 지식이 없을뿐 아니라 그것을 식별하는 이해성 즉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 게다가 그것들을 응용하여 자신 속의 악을 제거하려는 뜻도 없는 상태, 따라서 근원적인 벌거숭이의 수치 속에 있다는 것까지 명시해 주고 있다.

이런 위험을 알아차린다면 오히려 우리들은 자신의 심정과 지성을 솔직히 검증해서 차후 신성한 진리에 관한 지식을 어떤 태도에서 받아야 하고 흠모해야 하는지 자연히 알게 된다. 더욱이 제 아무리 자신의 지식이 높다해도 이웃 위에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올려놓으려는 자랑이라는 감정까지도 어떻게 잘 억제해야 하는지에 관해 조심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어찌됐든 겸손 만이 영혼을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심정을 꾸준히 경계하여 살피면서 주님을 찾는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자아가 영똥한 쪽으로 말썽을 일으키기전 미리 조처할 수 있게 되리라.

우리가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어떤 죄에 빠졌었다고 가정해 본다해도 주님의 영향력, 즉 우리가 자신을 개혁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한다던가, 그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는 계속 존재한다. 그분이 권면하시는 말씀 첫 마디, “나는 너에게 권고 한다”에 위의 사항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사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모든 페이지마다에서 지시된 사항을 행하도록 권면하신다. 죄의 본성과 그 결과, 죄에서 탈출해야 할 필요성, 이를 위해 설비된 신성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등등은 수도 없이 총용되는 사항들이다. 위의 권고라는 말에는 위의 사항만이 전부는 아니다. 영적 생각에서 권면한다는 말은 충고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충고에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교통되는 것, 힘뿐만 아니라 충고가 지닌 본성 쪽으로 기울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제공된 충고로 내향적인 자극을 받는 것까지 포함된다. 사실 신성한 힘과 영향이 계속적으로 현존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구원은 불가능했을는지 모른다. 마치 우리 자신의 본성이 지닌 고유한 외고집적인 경향성과 반대되는 어떤 작용이 없을 경우 자유 의지의 본질인 평형의 상태가 있지 않을 것인 바 우리는 영영 엉뚱한 데로 빠지고 마는 것과 같다. 구원이라는 역사의 첫 번째 작용은 주님으로부터서만 있게 되고 이 작용은 보편적이다. 그러나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에 의존된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역사 역시 마무리될리 만무하다. 우리로 뭔가를 하도록 권면하는 이유가 이런 근거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고한다. ‘너는 나에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떠라.’” 산다 라든가 바른다 라든가 하는 말로 비추어 보아 이는 우리들을 수단으로 행해진다는 것,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 한다는 말은 아니고 결코 보류하시는 적이 없는 주님의 원조에 힘입어 작용된다는 것을 넉넉히 비추고 있다. 결코 결석하는 일이 없는 신성한 작용이 이 구절에서도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결점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획득하도록 권고되고 있지만 사실 주님으로부터가 아니면 결코 어느 곳에서도 획득할 수 없다는 것도 명백하게 해 주고 있다. 그분이 말하시는 바는 “나에게서 ... 사라” 이기 때문이다. 각자에게 부여된 자질들을 한껏 발휘하는 수단으로 주님께 달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구원해 주는 품위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바꿔 만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즉각 나누어 줄 수 있게 손에 쥐고 있지 않다면 노력하는 우리의 자질 역시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서 ... 사라”고 타이르시는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시작되시고 마무리지어 주시는 분, 구원의 자비의 원천이신 분 외에 더 다른 분이 아니신 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든 요구하는게 무엇이든 기꺼이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받는데 필요한 품위들을 사라고 요구하신다면 이는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팔든지 아니면 그와 비슷하게 뭔가를 드리고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닐까 라고 결말지을는지 모른다. 어찌됐든 대답은 아니다 이다. 비록 우리가 그분에게서 산다고 말해 질지라도 그것들은 그분에 의해 값을 치르지 않고 주어진다. 거기에 파는 자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는 자가 파는 자도 되는 신비로움이 있다. 이 신비는 감추어 놓인 보물의 비유가 잘 설명해 준다. “하늘 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마태 13:44). 이 비유로부터 명백히 알 수 있는 바, 비록 천국적인 선물은 주님께서 자유로이 주시고 있다 해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품질이 되기 전 어떤 것을 갈라놓도록 요구되어진다. 이 요구사항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품성 외 더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지닌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 본문의 경우 주님에게서 사도록 충고되는 보물은 불로 단련된 금과 흰옷이다. 따라서 결함이 뭔지 의식하지 못한 채 애쓰고 있는 모습을 언급해 준다. 금속 중에서 가장 값진 금은 주님을 사랑하는 드높은 애정과 이웃을 향한 이타애를 나타내기 위해 성경에서 사용되는 금속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품위 중 가장 고상한 것 즉 천적인 모든 선과 영적인 모든 선을 망라해서 명시하는 금속이다. 그리고 본문의 금은 단순히 언급되지 않고 불로 단련된 금 또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해진 금이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 의무들에 연결시켜 어떤 무가치한 동기들을 쉬는 일, 다시 말해서 천국적인 대상들을 갈망하는 애정에 자아에서 통겨 나오는 어떤 것을 뒤섞어서는 안된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말씀이다. 불이란 가장 높은 측면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주님 안에 존재하는 그대로의 사랑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불로 단련된 금이란 주님의 무한한 순수성의 현존이 있어지는 만큼에서의 순수한 선이다.

시련 역시 영적 주체에 응용될 경우 시험을 뜻한다. 금을 순수하게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는 이유는 순수해짐이 시험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는 아주 심각한 증거에 대한 신빙성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매우 심각했던 시련을 앞세울 때가 많다. 이럴 경우의 시험들은 생명 속의 사랑이 죽을뻔 하게 한 불을 수단으로 한 시련들이라 불린다. 순수한 금을 획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즉 순수한 선함을 원리로 하지 않고서는 순수한 진리에 관한 지식인 영적 부유함을 진정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리에 관한 지식은 기억 속에서는 환영받을는지 몰라도, 심정 속에서는 외국인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즉 그 지식이 의도한 삶의 길을 가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그 지식들이 내면에 거처를 갖지 못하고

기억에 있는 한 그 지식은 단지 보물을 세를 얻는 수준, 빌려 온 수준밖에 안되어 언젠가 사라져 버리고 말아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고 만다. 다시 말하면 그 지식을 적절히 사용함으로 해서 깨닫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다. 알게 되는 진리에 진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수단은 이 것밖에 더 없을 것이다. 즉 순수한 선함의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획득하는 것, 그분에 대한 영적 사랑, 이웃을 향한 이타애를 발전시켜 가는 것, 이 사랑과 이타애가 흠없는 유용한 생활로 명백해지는 것뿐이리라. 획득해야 할 두 번째 것은 흰옷이다. 이 옷을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구절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어떤 악도 생각하지 않는 순진인 상태 즉 인간이 결코 자아를 관계치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고 뜻할 때 경험되는 상태, 이런 상태란 인간이 갖가지 악으로 충만된 이기적 본성을 획득하기 이전에 살았던 이들이 경험한 것을 표현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는 완전무결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묘사이므로 성경 어느 곳에도 벌거벗음이 기술될 경우 수치스러움이라는 본성을 동반 않는 곳이 없다. 본문의 경우에서도 자기의 이기적 본성 속의 악들에 폭젖은 인간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악밖에 없는 자연적 이기심, 조금이라도 그런 상태를 벗어난 이들에게는 혐오의 대상밖에 안되는 상태에 처해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 흰옷을 주님에게서 획득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기적 본성 속의 악을 제거하는 것, 더 이상 그 악을 탐구 않는 것, 마치 그 악들이 존재 않았던 듯 되는 것, 그의 애정이 그 악 너머로 상승되는 것을 뜻한다. 성경에서 흰옷의 언급은 자주 있는 편인데 이는 마음 안에 있는 순수한 진리, 즉 선에 바탕을 둔 진리를 뜻한다. 넓은 측면에서 성경에 있는 옷(garment)은 인간이 거의 자동적으로 환대하는 진리와 교리에 관한 어떤 감정, 그것이 좋은 바탕을 두었던 그렇지 않은 일괄해서 언급되는데 그 이유는 그 감정은 당사자를 통치하는 애정에 일치하기 때문이어서 그 감정은 당사자의 생명으로부터 거의 즉각적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주님에 관련해서도 옷처럼 빛을 휘감으셨다고 언급되고 있다 (시편 104:2). 빛은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빛이 주님의 옷이라고 말해질 경우 일반적 측면에서의 옷은 진리를 잡고 있는 이들에 의해 진정함에 관한 감정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빛에 가장 가까운 색깔인 흰색은 유한한 존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진리를 상징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옷과 부유함은 본문에서 거의 동시에 언급되지만 위와 같은 의미에서 서로 다르다. 부유함이란 외적 경로를 통해 처음 획득된 진리들이고, 이것들은 기억 속에 지식으로 저장되어 있다. 옷은 마음의 동시 발생적인 명령(dictate), 즉 애정들이 생각 안으로 들어갈 때 입게되는 형체들이다. 영적으로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높고 천국적인 상태인지! 이는 마음 안에 들어간 영적 주제에 관한 모든 생각들이 순수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심정이 벽차도록 풍부할 때 입으로 튀쳐 나올 수밖에 없듯 순수한 선함이 심정을 통치할 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라오디게이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방향제시는 안약을 발라서 눈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안약은 금이나 의복과 달리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어 주님께에서 살 필요가 없이 오로지 응용 부분만이 제시되는 듯 여겨진다. 안약은 진리와 결합된 선을 뜻한다. 눈은 이해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볼 수 있기 위해 눈에 안약을 바른다는 것은 진지한 애정 속으로 받은 신성한 진리의 가르침에 종속됨으로 실지 총명한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19. 이렇게 권고하시는 신성한 연설자는 이제 중요한 선포를 더하고 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신성한 징계는 신성한 사랑의 책망이다. 이런 보증은 우리에게 얼마나 보증되는 주님의 말씀인가! 이 말씀은 천국적 광채 안에서 명백히 비쳐 나오는 성경적 진리들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 이 대목에서 망설이는데 그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마치 주님께서도 인간같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듯 여겨져서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만민을 사랑하신다 이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만이 우리를 고쳐주시려는 그분의 징계와 책망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들만이 자연적 수준의 이해성을 접거하고 있는 거짓 추론과 순수한 천국의 진리 사이에 어떤 불일치가 있는지, 그리고 자연적 수준의 의지가 가담하고 있는 부패된 경향성과 진짜 천국적 선 사이에 어떤 반대되는 것이 있는지 경험할 수 있다. 더욱이 어떤 수준이든 모독이라는 죄에 빠져 이들 안에 있는 썩은 것이 얼마나 냄새나는 것들인지 실감한다. 따라서 시련들을 허용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표시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현존하시게 되는 어떤 희망의 바탕도 되는 표시이다. 이렇게 허용하신 시련 밑에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일까? “열심히 노력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다.” 노력(zeal)이란 마음에 있는 뜨거움이다. 주님께서 우리더러 노력하라고 권고하실 때 이는 우리의 온 심정을 천국적 목적과 대상에 확고히 고정시킬 필요성을 표현하시는 것이다.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데, 이 구절의 경우에 더 국한해서 설명하면 이는 천국적 주제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성의 변화이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심정의 갱신을 함축한다.

20. 앞 절에 권고와 훈계가 아름답게 포함되어 있다해도 아직 더 가능한 사항이 뒤를 잇는다. “들어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이 신성한 선포는 라오디케이아 상태에 특별히 응용되고 있기는 해도 이 말씀은 아주 보편적인 흥미를 담는 사항이다. 마치 청중의 시선을 끌기 위해 예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하신다. “들어라, behold.” 이는 중요한 어떤 대상에 시선을 집중시킬 때 사용된다. 그런데 마음의 눈은 이해성이다. 주의를 환기시켜 어떤 선포를 소개한다는 것은 각 사람의 이해성이 그 다음에 나오는 선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지성 측면이 집중하라고 하는 다음 구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중요성이 있다. 이는 심정의 문 앞에 서서 들어오도록 허가하기를 기다리시는 인간의 구세주,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다. 모든 사람은 이 신성한 형상 속에 있는 힘과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 그치는 구절은 아니다. 거기에는 마음 앞에 명백하게 가져다 놓을 만한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님이 서서 두드리시는 문이 마음의 입구라는 것은 이 문단에서 제기되는 취지로부터 명백해진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란 마음 안으로 어떤 것이 소개되는데 대한 알기 쉬운 상징물이다. 게다가 문의 용도로부터 마음의 문의 용도 역시 쉽게 알 수 있다. 집 또는 방으로 소개함 또는 진입을 허락하는데 문이 사용되듯, 마음의 문이란 소개 또는 허용, 승인을 말한다. 게다가 이보다 더 특별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인간 마음은 천국과도, 세상과도 교통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져 있다. 좀더 말해보면 내적 인간을 통해서는 천국과, 외적 인간을 통해서는 세상과 교통할 수 있게 장치되어 있다. 이 두 인간 사이에 합리적 인간 또는 이성(reason)이 존재한다. 이성은 인간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인간의 의식 세계에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흔히 이성을 놓고 인간 그 자체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성은 내적 인간과의 교류를 통하여 주님과 천국으로부터 흐르는 영향과 지각들을 받는다. 그리고 외적 인간과 교류해서 세상과 자신의 이기적 본성, 더욱이 지옥으로부터 오는 영향들을 받는다. 양쪽 방향에 있는 교통 관계의 접촉점(point)이 문이라는 이름을 수단으로 상징적 언어로 불린다. 외적 인간 또는 아레나 밖으로부터 오는 영향과 교통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주님께서 말하신 구절을 살펴보면 이해에 도움을 준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마태 6:6). 여기서 골방(closet)이란 합리적 마음 속에 있는 내면의 깊은 곳을 말하고 문을 닫는다는 말은 외적 인간과 세상으로부터 부상하는 영향들을 배척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주님이 서서 두드리시는 문은 이와 반대쪽 방향과의 교통, 또는 합리적 자질 쪽으로의 내적 인간의 입구를 말한다. 내적 인간 안에 거주하시는 주님과 교통함으로 해서만 인간은 천국적 품위들을 받을 수 있다.

이 품위들을 받아들여 인간의 것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무한하신 자비로 그분을 지독하게 낮추시어 인간으로 마음 문을 열도록 하시기 위해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다. 비록 사랑과 지혜에 속하는 모든 보물들을 가지신 주님이 내적 인간 안에 그분의 거처를 두고 계신다 해도 이 보물 중 어느 한 가지도 인간 자신의 것이 될 수 없고, 단지 그가 그 보물들을 스스로 응낙하고 음미할 때까지, 자기 이성으로 그것들을 확증할 때까지, 악의 거처인 외적 인간의 거듭남에 이 보물을 사용할 때까지,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해서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이 조화를 이룰 때까지 각자의 몫이 되지 않는다. 심정과 지성의 문에서 주님께서는 쉬이지 않고 두드리신다. 혹시 누군가가 자신 스스로 천국 방향의 암시나 천국과 꼭 닮은 어떤 것을 스스로 고안한 듯 여겨도 그 바깥쪽 원인이 무엇이었던 간에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내적 인간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이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다는 모습으로 그려진 위와 같은 일반적 영향 외에도 여기서 의도되고 있는 충분한 느낌을 가지고 인간이 문을 열도록 하시기 위해 그분께서는 특별한 가르침의 필요성을 가지시고 문 앞에서 계신다. 그분께서는 문을 두드리실뿐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들려 주신다. 그분의 소리를 듣는 이들만이 문을 연다. 주님의 음성이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 즉 신성한 진리에 관한 가르침이다. 인간의 음성이 생각과 느낌 양 쪽을 표현하듯 신성한 음성은 신성한 사랑으로 가득 찬 신성한 진리를 표현하신다. 무엇이 신성한 음성을 듣는 것일까? 듣는다는 말은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사이에 있는 상응의 언어 중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어구 중의 하나인데 흔히 대화 도중에 "...너 내 말을 잘 듣고 있느냐?..."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그대로 이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이와 같이 듣는다는 것은 이해해서 순종한다는 것을 뜻한다. 신성한 진리의 가르침을 이해해서 순종함을 수단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 주님이 들어가시어 그분이 가져오시는 천국의 선물과 품위들을 나누어주신다. 이렇게 문을 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신다. "... 들어가서 나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는 참가자의 품성이 자진해서 순종하는 천국의 즐거움을 그려내는 방법 중 가장 귀여울 것이라 생각된다. 게다가 이는 자기 주님과 잔치를 벌이는 듯 여겨지고 서로가 동등한 자격으로 잔치에 참석한 듯하게 언어가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결과되어지는 결합이 지닌 상호적인 성질이 나타나도록 표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호적인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 이 결합은 진짜 결합, 항구적으로 존재해야 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암시될 수 있게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서로 먹고 마시는 모습을 가지고 결합 또는 교체함을 표현하셨을까? 성만찬으로 신실한 자에게 가장 충만한 축복의 교통을 나열하신 이유와 대등하기 때문이다. 먹는 것은 성경 전체를 망라해서 선을 받아 자기 것으로 삼는 것,

마신다는 것은 진리를 받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표현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항이 주님에 관해서도 말해질 수 있을까?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먹고 마심이 성경에서 주님이 표현된다. 배고프다는 것은 선을 바란다는 것을, 목마르다는 것은 진리를 바란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를 주님에 관해서 응용할 경우 주님께서 그분의 선함과 진리가 인간이 받기를 열렬히 바래시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그분께서 인간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라고 말해질 경우 이는 사랑과 지혜에 관한 보물을 값없이 선물해 주심에 따른 자비심 많은 바램의 만족, 인간에 대한 주님 쪽에서 있는 교통의 만족을 표현한다. 바뀌어 인간이 주님과 먹고 마신다 라고 말해질 경우 이는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구원해 주시는 자비를 인간 쪽에서 기쁘게 받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 먹고 마심에 대해 양 쪽 모두를 함께 생각하면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협동을 함축한다. 협동함으로 해서 인간은 주님의 자비심 많은 바램에 실제로 일치되게 한다. 이 협동이야말로 주님이 인간과, 인간이 주님과 더불어 충만된 결합, 상호적인 결합을 창출케 한다.

21. 라오디게이아 교회가 원상 복귀될 경우 주어지는 약속이 이어진다. “승리하는 자는 마치 내가 승리한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옥좌에 앉은 것같이 나와 함께 내 옥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라오디게이아 사람이 해야 될 임무는 기독인이라 고백되는 상태 중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인 바, 그 상태와 연결된 악 역시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울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러나 시련이 크면 승리도 크고 애씀이 많으면 그 보상도 커진다. 승리에 주어지는 축복 역시 앞에 열거한 어느 축복보다 더 크다. 주님과 더불어 그분의 옥좌에 앉는다는 것은 유한한 존재가 도달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위대한 위치, 가장 높게 상승한 것이리라. 그러나 결과에 평행 되는 것은 그 결과를 인도하는 과정일 것이다. 따라서 그분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 앉는다는 것은 그분의 시험들 속에서 그분과 더불어 승리한 것과 같다. 이것이야말로 기독인에 대한 가장 큰 교훈이리라. 또는 가장 큰 기독인의 수행 업무이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통받고 죽는다는 것은 우리로 그분과 더불어 살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된다. 그분은 정복하셨다. 무엇을 정복하셨을까? 그분은 모든 악, 악의 모든 권세를 정복하셨다. 우리의 타락된 본성, 너무나 무른 속성을 입으시고 인간 본성이 당하게 되는 모든 시련과 시험을 참아 내셨다.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심으로 해서 그분께서는 인성이 신성에 하나되게 재회시키셨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옥좌에 아버지와 더불어 앉으셨다. 그분이 해내셨듯 정복하는 기독인들은 그분의 옥좌에 그분과 함께 앉는다. 사실 이런 경우는 주님과 우리가 맞먹도록 유사하게 진행되는 힘들다. 따라서 이 사항은 유추적 표현으로서 생각해야 하리라.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를 이룬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된 인성 안에 있는 것들에 실날 같은 우리의 모습과 조건을 드높여 비교해 주신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요 특전이 아닌가! 천국이 그분의 옥좌이다. 그분의 옥좌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 그 곳이 각 개인의 심정이든, 보편적 천국이든 상관없다. 옥좌에 계신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은 그들의 심정이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꽉 차 있으리라.

4

1. 주님을 뵈고 교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이 예견자는 새로운 환상을 보도록 허락되고 있다. “그 뒤에 나는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세계에서의 바깥 시야는 안쪽 지각에 따라 있어진다. 요한은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요한의 마음 속 하늘에 문이 열렸다는 말이다. 우리 속의 천국적 상태가 열려질 경우 우리에게도 천국의 문이 열려질 수 있다. 우리가 천국적 사항들을 지각할 때 천국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요한은 천국을 보았을뿐 아니라 거기로부터 나오는 소리도 들었다. “처음에 내가 들었던 음성, 곧 나에게 말씀하시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던 것이다. 순서상 제일 먼저 등장한 이 소리는 막연한 소리가 아닌 말하는 음성이었다. 나팔소리 같다는 역양은 그 소리의 본성과 권능을 표현해준다. 그것은 이 예언자의 애정과 생각에 보내어 이제 천국 광경을 볼 준비를 갖추도록 하시는 신성한 진리와 선함의 소리인 것이다. 이 음성이 말하였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는 자기에게 열린 문을 통해 천국으로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영계에서의 올라감을 두고 공간에서 올라가는 것같이 생각하면 안된다. 저 세계에서의 올라감이란 상태의 승강이요 거기서의 공간이란 가상(appearance)이다. 따라서 요한은 자기 생각과 애정을 승강시키라고 불려진 것이다. 그리하여 지각의 상태가 더 높고 더 내면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 이로 인해 자신에게 약속된 말씀, “이 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볼”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미래의 사항들이 표현적 형태의 시리즈로 자기 앞에서 지나가는 것이다.

2. 올라 오라는 부름과 함께 그의 상태에 변화가 왔다. “그러자 곧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미 살핀 바대로 영적 마음의 자질뿐 아니라 영적 몸의 감각들이 열리는 상태, 이 열림은 영계의 대상들을 볼 수 있게 만든다. 장엄한 빛이 이제 요한 앞에서 비쳐지고 있다. “그리고 보니 하늘에는 한 옥좌가 있고 그 옥좌에는 어떤 분이 한분 앉아 계셨습니다.” 일곱 황금등경사이에 계셨던 그분이 이제 옥좌에 앉아 계신 것이다. 등경은 교회에 대한 표현물이다. 옥좌는 심판을 상징한다. 천국은 참으로 하느님의 옥좌이고 지상은 하느님의 발판이다. 이 구절의 경우 옥좌가 하늘에 놓여있다. 그것은 심판을 위해 놓여져 있다.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공정하신 판관께서 재판석에 앉으시고...” (9:4). 심판 자체를 서술하는 20장에서 나타나는 옥좌와 이 구절의 옥좌를 연결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 요한이 본 옥좌는 개시되는 심판을 표현했다. 이 책 뒤 편에서 그가 보는 옥좌는 완성되는 심판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위대한 흰 옥좌에 앉으신 분께서 실제 심판을 성취하실 때까지 있게 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 이런 심판의 과정을 간단히 추적해본다면, 봉인된 책의 열림, 열 두 지파가 도장을 받는 것,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짐, 일곱 향로를 쏟는 것, 붉은 용의 추방, 바빌론 성의 폐망, 등등으로 요약되리라 본다. 이것들은 영계에 소속된 이들의 상태가 열려 놓인 것이고 그 상태 위에 심판이 결과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가 심판은 단 한번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동 측면에서 이 심판 작용이 마지막 시리즈라고 생각한대도 이를 수단으로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생각과 심정의 의도들이 점차적으로 열려 놓이게 되어 바깥쪽 품성과 내향의 상태는 하나로 있게 된다. 이런 결과는 수색함, 체로 처냄, 분리함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런 결과들은 옥좌에 앉으신 분이 파견한 천사에 의해 폭로됨, 뒤집힘, 황폐됨이 초래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호된 시련을 통과해 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악이 선으로부터, 선이 악에서 완전히 분리될 때 마지막 심판이 거행된다. 이것이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과 양에 해당되는 사람을 가르는 것이다. 악이 정의로부터 갈라져 선이든 악이든 각기 제 자리를 찾게 된다. 이 심판 과정의 근원과 시작이 하늘에 놓인 옥좌로 표현되어 있다.

3. 이제 요한은 옥좌에 앉으신 신성한 재판관을 기술하고 있다. “그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 같았으며 그 옥좌 둘레에는 비취와 같은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재판관에 관한 묘사는 과거 모세와 예언자가 묘사한 것과 매우 같아서 어느 누구도 위 존재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모를 수 없으리라 본다. 참으로 이 모습은 다양하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주목해볼만 하다. 모세(출애굽24:10)와 에제키엘(1:26)의 경우 재판관의 발 아래는 “마치 사파이어를 깔아 놓은 것같다고...”, “청옥 같은 것으로” 옥좌가 되어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반면 요한의 경우 재판관이 벽옥과 홍옥 같았다고 말하고 있다. 위 두 차이점은 육을 입으시기 전과 그 후에 존재한 그분에 관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 욕을 입으시기 전의 천국은 주님의 인성(Lord's Humanity)이었다. 이 주님의 인성이 천국 안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내려오신 게 그분의 신성한 진리이다. 다시 말해 이 진리가 천사들의 마음 안에서 인간의 형체 또는 천사같이 그 자체에 옷을 입히셨다. 근원적 측면에서 위 과정은 인간 마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죄가 이 아름다운 형체를 훼손시켜 놓았다. 다시 말해 신성한 존재에 대한 인간의 관념이 왜곡되어졌다는 말이다. 그래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 것, 한가지 방법 외에는 회복시킬 수 없게 된 것을 인간의 마음에 공급해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는 방법을 동원하셨다. 그리고 인간 본성을 거룩하게 만드심으로 그 인성을 완전하게 해서 완전 자체인 그분의 신성과 하나되게 끌어 올리시어 구원해주시는 그분의 영향들이 인간에게 내려올 수 있었다. 따라서 천국을 통하는 간접적인(옛) 수단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으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구원의 힘이 인간에게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는 표현적 형체인 그분의 인성은 이제 한분 사람(person)이시다. 원래는 천사같은 상태가 지금은 신성이시다. 옛날에는 천국에 계셨는데 이제는 모든 천국 위에 계시어 신성한 인성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빛으로 거하시고 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옥좌에서, 그분의 발 아래에서 보여져 왔던 보석들이 지금 그분 자신의 거룩하신 몸으로부터 일곱 겹의 광채로 빛나고 있다. 그분 자신이 벽옥이고 홍옥으로 간주되고 있다. 성경에 등장하는 보석의 정확한 속성은 확신 있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벽옥과 홍옥의 경우 그것들이 지닌 상징적 의미가 알려져 있다. 벽옥(jasper)은 흰 색을 표준으로 삼는 색깔이고 홍옥의 표준 되는 색깔은 이글거리는 빨간 색이다. 흰 색은 진리, 빨간 색은 선함을 상징한다. 그래서 위 두 돌은 신성한 존재의 필수되는 두 요소, 선함과 진리, 정의와 공정(justice and judgment)을 상징한다. 위 둘은 신성한 재판이 진행되게 하는 영원한 원리이다.

이 재판관이 벽옥과 홍옥같은 것으로 간주되는 한편 “그 옥좌 둘레에는 비취(emerald)같은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옥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란 천국의 태양처럼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의 빛의 외관을 표현한 말이다. 마치 빛이 발해 그분 주위에 영광의 원을 형성하고 있는 듯 하다. 천사들 마음 안에서 이 진리의 빛이 반영(reflect)되거나 굴절(refract)되는 것과 같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 취급하는 주제는 심판인바 이에 관련되어 무지개를 살펴보자. 본문의 무지개의 색깔은 우리가 지상에서 보는 무지개의 색깔은 아니다. 그러나 본문이 표현한 무지개의 색깔이 에머랄드 같은 이유에는 원인과 의미가 있다. 저 세계에서 모든 외관은 사상의 형성과 마음의 상태들인바 생각에 관한 품질을 표현한다. 가장 높은 천국(삼층천국)이 진리를 받으면 그들은

사랑으로 그 진리를 명백히 드러내는바 그 천국을 총괄하는 색깔은 홍색이다. 중간 천국(이층천국)의 경우 이타애(charity)로 진리를 드러내는바 그것을 대표하는 색깔은 청색이다. 낮은 천국(일층)은 믿음으로 진리를 받아 진리에의 순종으로 그 진리를 명백히 하는바 그곳의 색깔은 녹색이다. 색깔의 이런 분류는 이 세계에서든 색깔의 연속에서 얼마 정도는 알 수 있으리라 본다. 황금빛, 푸른 하늘, 초록으로 덮인 대지 등등은 어느 정도 위 천국을 추상해보게 해준다. 이 세상 무지개, 우리의 무지개는 위 세가지 색깔이 병합되어 이루어진다. 옥좌 주위에 걸린 에머랄드 무지개는 심판되어지는 이들의 상태를 표현한다. 뿐만 아니라 심판 후 오게 될 것에 관한 약속이기도 하다. 심판을 거쳤으면서도 아직 자기 본성 속에 있는 이들 즉 외적 상태 안에 있는 이들이 중간 세계 즉 자연계의 것과 매우 유사하고 거의 비슷한 세계에 체류하고 있는데, 이런 이들로 구성된 외형상의 천국(quasi heaven)으로부터 용과 그의 부하 천사들이 내던져 졌고 이런 것들이 무지개에 녹색을 주었다. 10장에서 우리는 구름을 옷입고 머리에 무지개를 두른 힘센 천사를 읽게 된다. 그러나 그 무지개의 색깔에 관한 것은 거기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다.

4. “옥좌 둘레에는 또 높은 좌석이 스물 네 개 있었으며,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스물 네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옥좌 역시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 본문을 이스라엘 교회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 숫자는 과거 그 교회에서 성전 예배를 돌아가며 봉사하도록 스물 넷으로 편성된 봉사단을 연상하게 한다 (역대기상24:29). 마치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조직한 순서와도 같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나는 사건이 있다. 즈가리야가 자기 차례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사제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했던 사건이다. 본문의 환상은 심판하기 위해 옥좌가 놓여져 있다. 따라서 재판 직분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가장 위대하신 재판관 둘레에 놓여있는 옥좌에 앉아 있는 모습과 더 일치될 것 같다. 비록 직능은 같지만 본문의 원로들의 숫자는 이스라엘 장로의 숫자나 사도의 숫자와 일치 않고 있다. 직능은 표현되어지는 사실 안에 존재한다. 인간의 영원한 운명 내지 영적 상태에 관한 심판은 한 분만에 의해 집행되어질 수 있다. 전능하셔서 모든 사람의 심정을 제 각각 아시는 그분만이 모든 사람을 재판할 수 있다. 위 원로들은 사도들이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함과 진리에 관한 모든 원리들, 또는 천국과 교회가 기초를 두고 있는 신성한 말씀으로부터 파생되는 정의와 공정을 위한 모든 원리를 표현한다. 이 원리들은 교회에 소속된 이들이 판결되어지는 원리이기도 하다. 숫자 24는 12와 똑같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숫자가 두 배로 곱해진다고 해서 그 의미가 바뀌는게 아니라 더 강화되는 것뿐이다. 숫자 12는 완전함(completeness)을 상징하는바 천국과

교회에 있는 선함과 진리에 관한 모든 원리들을 표현해 주는 숫자이다. 12가 의미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완전이 24 원로에서 뜻해주고 있다. 그 이유가 그들은 마지막 심판의 성취를 준비하는 위대하신 재판관의 옥좌 들레에 있기 때문이다.

5. 옥좌가 놓여짐은 오고 있는 심판의 나타남에 대한 신호이다. 그래서 “그 옥좌에서는 번개가 번쩍었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님의 천둥과 번개는 성경에서 심판의 두 결과 즉 악을 타도하고 선을 구원하는 결과를 생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원수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신 주님을 찬양하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읊는다. “지극히 높으신 분 여호와께서 천둥소리로 하늘에서 고함치셨다. 번개가 번쩍 번쩍...원수들을 흠어 쫓으셨다...내 힘으로는 당해 낼 수 없는 것들 손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서 건져 주시고 어깨를 펴게 해주셨다.” 그 다음 이 시편 기자는 똑같은 신성이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에게 서로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다는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한 마음으로 당신을 위하면 당신께서도 한 마음으로 위해 주십니다. 흠 없이 당신을 위하면 당신께서도 흠 없이 위해 주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당신을 받들면, 당신께서도 두 마음 품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속이려 드는 자는 피어 넘기신다” (18:13-26). 시편 77편에서 다윗이 말한다. “하느님, 당신의 길은 거룩하십니다...당신 팔을 펴서 당신의 백성을 속량 하셨습니다. 당신의 천둥소리 천국에 있고 번개가 세상에서 번쩍거리며 땅이 흔들흔들 떨어졌습니다” (77:13-18). 두 결과가 한꺼번에 언급되기도 한다. “여호와께서 왕위에 오르셨다. 온 땅은 춤을 추어라. 안개에, 구름에 둘러싸이고 정의와 공정이 그 옥좌의 바탕이요, 불길이 그를 앞서가며 에워싼 원수들을 살라버린다. 번개는 한번 번쩍 세상을 비추니...하늘이 그의 공정하심을 선포하고 만백성이 그의 영광을 뵈는다. 새긴 형상을 섬기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여라.” (시편 97:1-7). 위 구절 내지 다른 구절에서도 천둥과 번개는 주님으로부터 천국과 말씀을 통해 진행되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에 관한 상징물이다. 귀와 눈을 따로 구분지어 생각하면 이는 두 가지 마음의 중요한 자질 즉 천둥 내지 듣는 것은 의지에 영향을 주는 진리를 뜻하고, 번개 내지 보는 것은 이해성에 의해 지각되는 진리를 뜻한다.

본문의 주제에 관련해보면 위의 시각과 소리들은 심판의 표시들이다. 심판을 필요로 하게 되는 교회의 상태는 천둥을 수반한 폭풍(thunder storm)을 생산되게 하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전기가 과잉 충전된 대기는 우리가 천둥소리를 듣고 번개를 보는 방전으로 그 평형을 회복한다. 악과 잘못들로 과잉 충전된 영적 대기는 심판에 의해 그 균형을 회복한다. 이 심판이 전능하신 분의 천둥과 번개로서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다. 천둥-폭풍이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면 우리는

자유로움과 상쾌함이라는 쾌적한 느낌을 숨쉬고 건강과 생명이 산들바람 안에 있는 듯 여긴다. 이런 종류의 어떤 것이 현재의 본문에 표현되고 있다. 천둥과 번개가 있는 뒤에 소리가 있었다. 심판은 위로와 교훈을 고통하게 해주는 자비와 진리의 소리에 뒤이어진다. 마치 시나이산에서 천둥소리가 있는 뒤 모세에게 법이 주어진 것 같고, 산과 바위를 쪼개는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간 후 작고 여린 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속삭였던 것과 같다.

심판 뒤의 사람과 빛에 관한 또 다른 표시가 있다. “옥좌 앞에서는 일곱 횃불이 훗훗 타고 있었습니다. 그 일곱 횃불은 하느님의 일곱 영입니다.” 1장에서 이와 비슷한 묘사를 이미 읽어보았다. 거기서는 옥좌 앞에 일곱 영들이 있었고 사람의 아들이 일곱 황금등경 사이를 거니셨으며 그분의 오른손이 일곱 별을 잡고 계셨다. 제1장에서 일곱 영은 성령을 뜻한다. 일곱 별은 천국에 있는 교회를, 일곱 등경은 지상의 교회를 뜻한다. 일곱 등불, 이는 일곱 영으로 천국과 지상의 교회 그리고 성령을 모두 의미한다. 이 일곱 영과 등불이 천둥소리 이 후에 언급되는 이유는 옛 것이 사라졌을 때 천국과 지상에 새 교회(a New church)가 성령의 역사로 형성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심판이 도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려는 이유에서이다. 여기서의 새 교회(the New church)는 그 교회의 근원 측면 그리고 그 교회의 첫 번째되는 원리와 시작을 표현하고 있다. 옥좌 앞의 일곱 등은 등불(lamps of fire)인바 이 모습은 사랑과 빛의 하나됨, 이것이 성령 안에 모두 존재한다는 것, 이 하나됨은 하나되는 작용에 의해 생산되어진다는 것, 이 하나됨이 교회를 특징있게 한다는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옷입거나 표현한다. 예를 들면, 순수해진 결과로 순수함과 순진이 표현되도록 영이 예수 위에 내려왔을 때는 비둘기의 모습이였다. 만민에게 사랑의 영향 아래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명을 나타내도록 오순절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사도들 위에 내려왔다. 본문의 경우 불을 지닌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교회의 근원이 되고 그 교회를 존속시켜주는 게 진리와 사랑의 하나됨임을 의미해 주기 위해서 이다.

6. 불이 켜 있는 등 외에도 “옥좌 앞은 유리바다였다.” 바다에 관한 언급은 성경에 많은 편이다. 이 계시록(15:2)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바다는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냈다” (20:13). 그리고 “새 땅이 창조되자...바다도 없어졌다” (21:1) 등등이 있다. 위 구절들, 그 외 다른 구절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다란 무슨 의미일까? 성경이 씌어질 당시에는 땅은 원형으로 편편하고 물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닷가는 땅의 경계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섬이나 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멀리 떨어진 외곽에 있는 것으로

생각됐었다. 이런 땅과 바다를 동시에 생각한다면 땅과 바다는 교회를 뜻하게 되고 그 중 땅은 내적 교회를, 바다는 외적 교회를 뜻하게 된다. 그러므로 땅의 거주민은 교회의 내적 멤버를, 바다에 거주하는 사람은 교회의 외적 멤버를, 다시 말해 전자는 영에 의거 사는 사람, 후자는 글자에 의거 사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므로 유리바다는 외적 예배 안에 있는 교회에 소속된 이들 내지 교회의 외적 측면에 대한 표현적 형상인 것이다. 그런데 이 바다는 교회 위쪽에 관련되고 있다고 본문의 경우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 바다가 뺏어나간 그 앞에 옥좌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바다는 주님의 재림에서 있는 심판 이후 주님이 구성하시게 되는 승리의 교회 내지 그 천국에 대한 형상이었다. 그러나 이 바다는 최말단 수준에서 거룩해진 교회 내지 천국에 대한 형상이다. 요한이 이 교회의 바깥쪽 태두리의 형상으로서 이 바다를 보았는바 비록 그 수준이 아주 낮은 하지만 그래도 거룩해진 부분이다. 이 유리바다는 “수정 같았다.” 맑음과 투명함이 이 바다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쨌든 위 구절에 관련해 생각해보아야 할 두 가지 세부사항이 있다. 우리는 인공으로 생산된 것이고 수정은 자연적으로 된 생산물이다. 이 바다는 유리였으나 수정을 닮았다.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바다는 진리를 상징하되 넓은 측면의 진리 따라서 자연적 수준의 진리를 상징한다. 우리와 수정은 진리의 맑음을 다같이 표현한다. 넓은 측면의 진리(일반적 진리)를 받는 그릇은 외적 상태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수단으로 외적 인간이 구성되는데 아마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인간(human)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 이유는 이 외적 인간 안에는 인간 측면에 속한 게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연적 생각과 느낌들은 이 외적 인간 안에 속박한다. 그럼에도 정말 진실된 상태에서는 이 외적 인간은 신성 같다. 마치 유리바다가 수정같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이 외적 인간이 최고 높은 진리의 빛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면 외적 인간 안에 있는 최하위의 질서도 빛을 낸다. 말씀의 글자는 외적 진리인바 유리바다여서 영적 의미의 빛이 글자를 통하여 빛난다. 또 하나의 세부사항은 이러하다. 유리바다나 수정은 우리에게 빛에 관한 생각을 갖게 해주나 열에 관한 것은 연상되게 해주지 않는다. 고대인들의 경우 수정은 물이 굳은 상태같이 상상했었다. 그리스인들의 경우도 이와 비슷해서 수정과 얼음을 같은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 당시 이렇게 이해했던 것을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성경적인 표현 내지 상징주의 차원에서 도입해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유리바다로 표현된 이들은 참으로 진리 안에 있었긴 하나 그 진리에 상응하는 사랑 안에는 거하지 못했던 이들을 뜻한다. 이런 상태는 외적 측면의 교회가 지닌 특성 중 하나이다. 이것이야말로 내적 측면의 교회가 구별되게 하는 요점이기도 하다. 사랑은 종교의 품위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종교가 도달 가능한

최고 정점이 사랑이요 사랑은 여타 모든 것을 자동으로 납득하게 해준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떨치게 하는 자유의 법이기도 하다. 사랑의 모든 품위는 사라질 수 있을지언정 사랑만은 영원하다. 사랑보다 한 등급 낮은 주님의 선물이 진리이고 진리보다 한 등급 낮은 게 믿음이다. 믿음은 외적 수준의 교회 즉 최말단 천국(ultimate heaven)에 소속되게 해준다. 최말단 천국에 속한 이들이라 해도 사랑 없는 믿음 내지 선이 없는 믿음을 100% 가진 것은 정말 아니다. 오로지 진리, 오로지 믿음만을 소유한 사람은 진정한 교회 내지 천국의 어떤 곳에도 없다. 단지 최말단 천국에 거하게 된 이유는 사랑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라는 높은 상태에 도달 못했을뿐 이기 때문에서이다. 이들이 있는 곳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이다.

옥좌 앞의 유리바다 외에 “옥좌 한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박힌 네 생물이 있었다.” 이 네 생물은 구약성서에서 언급되는 거룩과 같다. 예제키엘 1장의 경우 이 생물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그 사항이 거론되는 구절에서 살피기로 한다. 이 문단에서 살필 것은 거룩이 의미하는 것에 대하여서이다. 이 경이로운 생물은 천사들은 아니다. 이 생물들은 존재라는 수준을 더 넘어 있다. 이 생물은 원로들보다 더 높은 위치이다. 이 생물은 신성(Deity)에 더 가깝다. 이 생물들은 옥좌 둘레에 있을 뿐 아니라 옥좌 한가운데 있다.

이 생물들이 옥좌 한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한가운데로부터 피져 둘레에까지 있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무엇이 주님 자신이신 말씀, 즉 하느님의 말씀 외 더 다른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말씀은 그분으로부터 방출된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모든 것의 생명이 되어준다. 그 생명이 천국이든 지상이든, 영적 측면이든, 지상의 교회가든, 천국의 교회가든, 모든 것의 생명이 되고 있다. 그런고로 해서 이 거룩은 생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부터 생물(living creature)이라 불리는데 이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인 이브와도 같다. 이것이 단어 짐승(beast)의 뜻인바, 짐승으로 번역하기보다는 활동하는 존재라는 어감을 더 갖고 있는 동물(animal)로의 번역이 더 나을지 모른다. 둘째 의미로서 거룩은 온 세계 즉 영적, 물질적 세계의 통치 정부인 주님의 섭리를 상징해주고 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서는 말씀인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섭리를 운행하시기 때문이다. 앞뒤에 눈이 가득한 생물이란 주님께서 보시는 영역은 시작부터 끝까지에 이르는 모든 것,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것, 인간의 일시적인 관심사와 영원한 관심사 모두를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므로 자연계와 영계 양 쪽에 있는 그분의 정부를 모두 섭리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주님의 섭리와 계시는 두 개의 대상 내지 목적 즉 질서와 행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성취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 즉 악을 예방하면서 선이 결과되게 운행하신다.

이런 이유로 거룩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도록 에덴의 문에 장치되었고, 법의 성결함을 위반하지 않도록 속죄판 위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 거룩들이 본문에서는 심판과 관련하여 요한에게 나타나고 있는바 거룩은 이 구절 이후 언급되는 크나큰 위기에서 천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비치고 있다.

7. 이제 네 생물의 세부 묘사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았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았으며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같았고 넷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았다.” 이 구절의 묘사는 에제키엘서에 있는 거룩의 묘사와 거의 같다. 에제키엘서에서, “...넷째 사람 얼굴인데.. 사자 얼굴...소 얼굴...독수리 얼굴도 있었다.” 에제키엘과 요한의 묘사에서 차이점은 계시록의 경우 소(ox)대신에 송아지(calf)가 언급된다는 점이다. 거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화해서 보여질 때 이는 말씀이 인간의 상태, 능력, 기질 등등에 따라 여러 가지 면모를 표현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또한 거듭나는 상태가 달라짐에 따라 거기에 적절하게 말씀이 나타나는 것도 뜻한다. 성경에서 사자는 권능 내지 힘을, 송아지는 애정을, 사람은 지혜를, 독수리는 총명을 상징한다. 말씀은 단순한 어린이 수준, 무지의 순진으로부터 성숙된 성인의 지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태에 적절히 채용되어진다. 말씀이 각기 다른 조건을 지닌 이들에게 적합하게 적용되는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마음 안에서 말씀의 진리는 여러 가지 다른 형체를 입는다. 더욱이 같은 마음이라 해도 거듭나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 각기 다른 시기에서도 각 시기에 맞는 형체를 취하기도 한다. 그리고 각기 다르게 취해졌던 모든 진리의 형체는 진보된 종교체험을 지닌 마음 안에서 공존해 있다. 거룩이 주님의 섭리를 뜻하는바 천사나 인간 위에 있는 그분의 보호하심이 몇 가지 동물을 수단으로 우리 마음에 표현되게 하시고 있다. 주님의 섭리는 우리 위에서 운행될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운행되고 있다. 참으로 주님의 섭리의 극대 효과는 우리의 이타애와 믿음, 우리의 애정과 확신을 통하여 행동되는 만큼에 비례하지만 우리의 복지를 위해 있어진다. 동물의 모습으로 그려진 거룩은 신성한 사랑과 진리가 우리의 애정과 생각 안에서 취하는 형체를 상징화해놓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모양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물 정도만을 단순히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생물들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 부분들로 구성된 복합체인데 다음 절에 있다.

8. “그 네 생물은 각각 날개를 여섯 개씩 가졌고, 그 몸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박혀 있었다.” 깃털을 지닌 창조물이 날개를 사용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신성과 천국적인 사항에 관련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날개는 새로 하여금 공중을 차고 오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하게 해준다. 더불어 새끼들을 품고 보호하는데에도 사용된다. 날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특성과 상응된다. 시편을 읽어보자. “거룩을 타고 날으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내리 덮치셨다” (18:10). 사실 신성한 존재는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 않으신다. 따라서 이 형상은 그분의 무소부재 하심(omnipresence)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분은 섭리 즉 거룩을 수단으로, 성령 즉 바람을 수단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신성한 섭리에 있는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권능이 다음 시편에는 더 자세히 표현되고 있다. “당신의 인자하심 얼마나 높은지요 오 하느님. 그러므로 사람의 자녀들은 당신 날개의 그늘만을 신뢰합니다” (시편36:7). 불순종을 일삼는 자녀에게 선언하신 예수의 인자하심(loving-kindness)을 더 상기해보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마태23:37). 시편 기자의 경우 날개로 신성의 보호하심을 묘사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날개가 의미하는 것까지 말한다.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그 깃 아래 숨겨 주시리라. 그의 진리가 너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신다” (91:4). 주님의 날개는 그분의 진리이다. 이 진리는 신실한 사람들이 신뢰하는 덮개(날개)이고 (61:4), 그들은 날개 아래에서 기뻐한다 (63:7). 거룩의 날개는 주님의 신성한 진리이다. 이 진리로 그분께서는 천국과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를 보호하고 유지 존속시키고, 위로하고 안내하신다. 각 생물의 날개는 여섯 개였다. 이사가야 본 스랍도 여섯 날개를 가졌는데 날개 돌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돌로는 발을 가리우고 나머지 둘로 훨훨 날아 다녔다 (이사야6:1-2). 스랍의 날개는 쌍으로 되어있었다. 새가 한 쌍 내지 두 개가 한 쌍 되어있는 모습은 말씀 안에 깊이 스며있는바, 이로부터 천국과 교회 안에, 참으로 온 창조 안에 널리 스며있다. 그 이유가 말씀을 수단으로 만물이 존재하고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선함과 진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것에서도 하나되어 있다. 우리는 위 문단에서 신성한 진리인 말씀, 그리고 교회와 천국은 이 진리를 받는 그릇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진리만을 뜻하는게 아니다. 진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과 진리는 한 쌍이어서 어느 하나가 동반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있지 못하다. 누군가 선 또는 진리 혹은 이타애 또는 믿음만을 소유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한 쪽 날개만 지닌 새와 같아서 무용지물이다. 최고 높은 수준에 이를 적용한다면 아마 말씀 자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말씀이 선 없이 진리만을 담고 있다면, 또는 사랑 없이 지혜만을 담고 있다면 이는 마치 거룩이나 스랍이 몸통 한 쪽에만 날개를 지닌 것과 같을 것이다. 말씀을 표현하는 거룩을 살펴보자. 그들은 세 쌍의 날개를 지녔다. 이는 선함과 진리의 세 수준 또는 총명의 세 질서를 상징한다.

이 질서에서 주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거름의 날개 안에 눈이 가득 박혀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속의 진리들은 내향적으로 신성한 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눈을 수단으로 섭리하심과 구원해주심이라는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말씀과 섭리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지혜는 감추어 놓인 지혜이다. 인간의 관찰로부터 감추어 놓인 사항이 섭리의 목적과 관점들이다. 자연적 인간 누군가가 섭리라 부르는 것은 우연의 일치, 뜻밖의 행동에 불과하다. 자연적 수준의 인간에게는 영원히 지속되는 날개, 한없이 뻗어갈 수 있는 날개 안에 눈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인간은 믿는 게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 감추어 놓인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측면에서도 자연적 인간은 말씀 안에 놓인 지혜의 어떤 표시조차 볼 수 없다. 슬기롭고 신중하다는 인간들로부터 지혜가 감추어 놓인 이유는 그들이 지혜를 모독하지 않도록 배려하신 섭리 때문이다. 세상적 수준의 슬기로운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는 이들이다. 이들과 생명나무 사이에 거름이 불 칼을 들고 서있으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거룩한 것을 모독함으로 자초하는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않게 해주고 있다. 고집스럽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성한 말씀과 그 섭리의 신비로 들어가려는 것을 거름이 막아주는 한편 그들이 생명을 주시는 분, 구원해주시는 분을 위 쪽에서 찾으려 하여 언제나 그분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꾸리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는 쪽으로 인도해준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로다’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자체 되시는 분을 쉬지 않고 찬양함은 결코 줄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의 권능을 함축하는 말이다. 제 아무리 수준이 높은 창조물이라 해도 이런 조건을 계속 유지할 지는 아무도 없다. 신성을 본질적으로 지녔을 때만이 낮이고 밤이고 쉬지 않을 수 있다. 거름이 말씀을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생각해보면 위 묘사가 얼마나 타당한지 쉽게 알 수 있다. 말씀은 신성이다. 말씀은 하느님으로부터 도래해서 그분께로 환원된다. 말씀은 하느님을 천사와 인간에게로 내려오게 해주고 천사와 인간을 하느님께로 들어 올려준다. 말씀은 무한하신 분께 의지하고 살아야 할 유한한 인간 존재들에게 하느님의 뜻과 지혜를 밝히 알게 해준다. 그리하여 주님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준다. 인간이 주님께 되돌아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한 인간 자신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수단으로 하시는 주님이실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은 밤낮으로 쉬지 않는다. 물론 위 구절의 언어가 비유 형체인 것은 틀림없다. 그 이유가 거름이 있는 곳 즉 옥좌안과 들레에는 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국이나 이 세상의 교회에는 반복해서 교차되는 상태들이 있다. 유한한 모든

창조물의 체험에는 언제나 명확함과 희미함이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창조된 어느 존재도 주님을 모시는데 변하지 않는 드높은 상태에 계속 있을 수 없다. 천사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간 마음은 교차하는 상태를 가진다. 과학 차원에서 지구의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생각하면 절반은 낮에 살고 절반은 밤에 사는바 밤낮 쉬지 않는 셈이라고 억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어쨌든 천국에서는 태양이 결코 지는 일이 없다. 그럼에도 밤과 낮이라는 말이 언급되는데는 이유가 있다. 천국은 공간이 아닌 상태의 나라인바 천사들은 명백한 상태, 즉 의심 없는 신앙의 상태에서 희미한 상태, 의심 있는 신앙으로 건너가고 다시 명백해진 상태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밤과 낮인데 이 밤낮 안에서조차 거름은 쉬지 않고 있다. 모든 상태들, 즉 활동 상태이든, 정지 상태이든, 밝은 상태이든, 희미한 상태이든 말씀과 주님의 섭리는 활동하여 뭔가 영적이고 영원한 선을 창조해낸다. 마치 우리의 육체가 일을 할 때나 잠들었을 때나 쉬지 않고 일해서 뭔가 유용한 쪽으로, 못쓰는 것은 내보내고 수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작업은 영혼의 복지를 위해서 일뿐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쉬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네 생물이 쉬지 않고 외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거룩함은 하느님께 속하고 그분으로부터 파생된 창조물에게만 존재한다. “하느님은 거룩한 분” (이사야40:25),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 (이사야 49:7, 사도행전3:14)이라 불리고 하느님의 영(the Spirit)은 거룩한 영(성령)이라 불린다. 거룩함은 죄에 반대됨을 언제나 암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주님만이 거룩하시다 (계시록15:4). 그 이유는 그분만이 깨끗하시기 때문이다. 천사와 인간이 지니는 거룩함 모두는 주님으로부터이다. 주 예수께서는 보다 특별한 의미에서 거룩한 분이시다. 그 이유는 죄짓게 하는 모든 시험을 정복하시어 그분의 인간성을 거룩하게 하시되 거룩함 자체로 만드시어 거룩함의 원천이 되셨기 때문이다. 세 번 반복되는 거룩은 주님의 인물(person)에 있는 거룩한 삼위(the Holy Trinity)로 이해될 것 같다. 그분 본성의 모든 측면에서 주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소유한 거룩함, 그것이 세 측면의 거룩함 중 어느 쪽이었든지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받았던 것인바 다시 그분께 되돌려야 한다. 거룩을 세 번 외침은 완전함도 표현하는바 세 겹의 거룩은 최고의 거룩을 뜻한다. 이 거룩은 신성이 머무르신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 거룩한 곳 중의 거룩한 곳, 지성소로도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다. 위와 같은 원형(archetype)으로 가장 위대한 대사제로서의 예수께서 모든 이를 위해 단 한번 들어 가셨는바 이것은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가 영원히 구속받게 하셨다 (히브리9:12). 그러므로 그분께 최고로 완전하게 거룩함을 돌려 드려야 지당하다. 이 분은 주 하느님 전능하신 분인바 이 세 이름은 사랑, 지혜, 권능을 표현하는데 그뿐 아니라 지옥과 죽음의

정복자까지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위 세 본질되는 신성은 인간의 구속 그리고 주님의 인성을 거룩하게 하신 위대한 역사 속에서 가장 충만되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어 가장 완전하게 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 안에서 “그분은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신 분이시다.” 이 찬양은 단순히 하느님 되시는 그분에게만 바쳐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인간(God-man) 즉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자 되시는 분에게 바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분을 두고 과거, 현재, 미래를 납득해본다면 그것은 인간 내지 인간의 구원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9-11. “옥좌에 앉으시고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에게 그 생물들이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스물 네 원로는 옥좌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서 옥좌 앞에 내놓았읍니다.” 원로란 영원한 진리 또는 공정에 관한 원리를 표현한다. 이 원리에 의거 심판이 결과된다. 더불어 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이 원리가 생산한 것인바 하느님의 옥좌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있다. 이 원로들은 거룩함과 하나되어 예배하는 것으로 본문은 묘사해놓고 있다. 즉 네 생물이 영광을 하느님께 드릴 때 스물 네 원로들은 엎드려 그분을 경배했다. 이와 같이 신실한 사람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그분을 예배한다. 참으로 천사나 인간의 예배는 말씀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진리와 사랑의 결과일 뿐이다. 말씀은 천사나 인간들로 자기들의 존재와 자비의 위대한 저자에게 존경을 돌리게 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권능이 있다. 생물과 원로 사이의 차이점이 엇보인다. 생물들은 옥좌에 앉으신 그분께 “거룩하시다..”는 그들의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다. 그러나 원로들은 옥좌에 앉으신 분 앞에 꿇어 엎드려 옥좌 앞에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 내놓고 있다. 원로의 경우 자신들은 수치스러운 것뿐인바 자기 부정이 있다. 진정한 예배자일 경우 자기 스스로부터서는 악밖에 없다는 것, 자신이 지닌 지혜나 영예는 모두 주님이 주신 선물인바 그분의 것으로 옥좌 앞에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심정으로 인정한다. 비록 하느님의 선물은 거저 주신 것이지만 주신 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지상적 선물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영적 선물은 그 선물을 수여한 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생명있을뿐이다. 그러므로 꾸준한 겸허와 계속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각오는 높은 데로부터 받았던 것은 무엇이든 보존되게 한다. 주님께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돌려드리는 속성 속에서도 말씀에 스며있는 셋으로 된 한 쌍을 보게 된다. 그 이유는 영광(glorify)은 신성한 진리를, 영예(honour)는 신성한 선을, 권능(power)은 진리와 선의 하나된 작용(operation)을 서술하기 때문이다. 거룩이 감사를 드렸고 원로들은 권능을 돌려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감사는 거룩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각 찬양의 주제에는 차이가

조금 있다. 거룩은 그분을 “계신 분, 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라고 찬양하는데 비해 원로들은 그분이 해놓으신 일을 두고 찬양하고 있다. 즉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고 존재합니다.” 주님은 그분 스스로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나 그분의 일 속에서 그 전능하심이 명백히 나타나져 있다. 원로가 드린 찬양은 모든 신앙자 특히 경건한 예배자의 경우 진지하게 합류해야만 하는 것 중 하나일 것이다. 전체 주제(theme)는 두 개의 따로 구분되는 개별 주제(subject), 그러나 혈연관계같이 있는 개별 주제가 들어있는바 이를 하나씩 분리해 생각해보기로 하자.

자연이 하느님이라고 믿는 자나 자연 너머에는 하느님이 없다 라고 믿는 자가 아닌 이상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까”라는 고백에 함세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초의 원인을 인정함은 주님의 교회 내에서이든, 밖에서이든 보편적이다. 인류의 이런 공통된 믿음을 거절해온 이들만이 부정할 뿐이다. 성경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밝히신 바와 같이, 즉 창조에 대한 신성한 의도 (purpose)와 같이, 창조자를 인정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에 속하는 요점이 있다. 원로들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존재합니다. For thou hast created all things, and for thy pleasure they are and were created.” 라고 고백했다. 어떤 이들의 경우 이 구절은 하느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말하고 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게다가 어떤 이는 이런 하느님의 영광에 대한 의미를 인간의 영광에 비추어 생각하는 실수를 범한다. 더 심해지면 자아영광(self-glory)이라는 것, 자연적 수준의 인간이 값을 매기려는 왜곡된 영광 속으로 휩싸여 들고 만다. 진정한 영광(glory)은 선한 행위의 영광(luster, 광택)이다. 그리고 선한 행위란 타인을 유익하게 함과 같은 말이다. 어쨌든 하느님의 영광이 인간의 영광보다 하위에 속한다 라거나 그분의 일이 선한 사람의 행위보다 덜 순수하게 유익하다는 따위는 상상해 볼 수도 없다. 신성한 존재는 그분의 창조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외 어떤 다른 일을 창조할 수 없으셨고 그렇게 존속되게 하실 수도 없다. 그분 자신의 영광은 창조물이 행복해지는 것 외 어떤 것으로도 확고하게 증진될 수가 없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 영광을 사랑하실 수 없다. 오로지 그분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에 영광을 주심으로서만 영광스러워지실 수 있다. 원로들이 고백한 단어만 가지고도 위와 같은 중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하느님의 기쁨(the pleasure of God, 하느님의 뜻)은 오직 하느님께서 사랑하실 때 있어질 뿐이다. 유한한 존재는 자기 심정의 바람이 충족될 때 기쁨을 가진다. 선한 사람의 심정은 고결한 사랑 즉 선한 것, 순수한 것, 거룩한 것에 의해 훈훈함을 갖는다. 주님의 기쁨은 창조물이 행복할

때만 존재할 수 있다. 시편 기자가 말한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이 잘되어갈 때 기뻐하신다” (시편35:27). 이 시편 구절은 지금 영적 의미로 숙고하고 있는 본문에 대한 주제도 된다. 영적 창조란 인간의 후손 안에서 새 심정 내지 올바른 영의 창조이다. 이 창조는 천국과 교회에서 감사(thanksgiving)할 때 꼭 있어야할 장엄한 주제(theme)이다. 천사와 선한 사람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로서 주님을 찬양한다. 더욱이 그들은 창조의 목적이 주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든 창조물의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면서 찬양을 드린다. 더 나아가 그들이 알고 있는 게 있다. 그분의 창조물이 그분에 반대되어 죄짐으로 타락되었을 때 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즉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분 자신의 형상이 새로이 창조되게 하셨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서 찬양을 드린다. 구속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요, 이 역사 속에 그분의 모습을 명백히 드러내시고 있다. 이 구속자에 관해 이사야가 말한다. “...주님의 기쁨은 그분의 손 안에서 번창할 것이다. the pleasure of the Lord shall prosper in His hand" (53:10). 그러므로 구속과 구원이라는 일은 창조의 일이다. 이 일을 위해 신실한 사람들은 최고로 열심을 내어 찬양하고 이 일이 그분을 더욱 거룩하게 한다. 구속과 구원이라는 일이 사랑의 일임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그분의 기뻐하심이 되는 일은 사랑의 일이다. 사랑의 역사는 인간으로 재 창조물이 되게 하는 수단이다. 재창조된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적 창조물을 위해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다. 그들의 영적 창조는 그분이 거룩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창조가 어느 정도만큼 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우리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어떤 것들 때문에 주님을 진실로 찬양 못하는 게 인간이다. 새로운 창조물만이 자신의 새로운 창조를 두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

5

20장 끝 문단을 보면 심판의 사건이 이렇게 씌어있다. “죽은 자들이 인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 옥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수단(means)이 무엇인지가 본 장에 기록되어있다.

1. “나는 또 옥좌에 앉으신 그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안팎에 글이 기록돼 있는 그 두루마리는 일곱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둘둘 말아 가지고 봉인된 이 책은 하느님의 메모수첩같이 연상될는지 모른다. 그 안에 모든 사람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은 “심판 날”에 들추어진다. 그러나 모든 것이 씌어있는 책이라면 그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책 중의 책, 하느님의 말씀 외 더 다른 것은 없다. 이에 대한 것은 심판을 다루게 되는 부분에서 더 명백하게 살필 것이나, 어쨌든 이 책 안에는 교회의 미래 상태에 관한 모든 것이 예견되고 기술되어 있다. 말씀이라는 책에서는 넓은 측면의 심판을 취급하고, 계시록이라는 이 책에서는 세부 측면의 심판, 즉 세상의 끝이 아니라 교회의 끝이라는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미 거론한 바 있다. 본문의 책은 안과 밖에 글이 적혀 있다. 그 이유가 말씀은 영적 측면인 내적 의미와 자연적 측면인 외적 의미들을 가진 일반적 진리와 세부적 진리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와 관련해보면 말씀은 인간의 두 상태, 내적, 외적 상태, 또는 모든 사람 각각이 지니고 있는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 모두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심판이라는 것과 관련해보면 안팎으로 씌어 있음은 심판되어야 할 두 개의 계층과 관계된다. 내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은 안에 씌어있는 것으로 판결되고, 바깥으로만 거룩한 사람들은 밖에 씌어있는 것으로 판결 받는다. 밖의 글로만 판정되는 이유는 그들이 내적 인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아야만 하는 이 책은 옥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보여지고 있다. 옥좌에 앉아 계신 그분은 이후 등장하는 어린 양과는 구별되고 있다. 이 구절을 살피는 수준에서는 옥좌의 그분이 주 하느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주는 것 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은 그분의 전능의 오른손, 전지하심으로 인도되는 전능하심 안에 있다. 우리는 이 책이 봉인된 것에 대한 의미를 살피되 절대적 차원보다는 천국과 교회에 관련된 차원을 더 중시해 보아야 하리라 생각된다. 교회의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 교회의 상태가 계시록에 기술되어 있고 그 상태란 영적 차원의 어둠과 불신앙의 하나이므로 이런 상태에 관한 말씀은 “봉인된 책”이다. “일곱 봉인”이란 말씀이 완전하게 닫혀 있다는 뜻뿐만 아니라 일곱 교회와 일곱 영으로 꼬집어 지적된 일곱 가지로 겹겹이 굳게 닫혀 있다는 뜻도 더불어 함유하고 있다. 천사는 말씀은 통해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말씀이 닫혀질 경우 그들의 영향력은 닫혀진 정도에 비례해서 휘방당한다. 그 결과 천국과 교회의 연결 역시 그만큼 차단되고 만다. 만일 이 책이 봉인된 채 영영 닫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교회는 멀해지고 어느 육체도 구원되었을리

만무하리라. 책이 열리는 때가 오면 그 책은 반드시 열려야만 하고 진리는 새로이 알려져야 한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 이제 우리는 배우게 된다.

2. “그리고 나는 힘센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과적 차원에서 생각해볼 때 만일 유한한 권능에 의해 위 봉인이 떼어질 수 없다면 굳이 위와 같은 외침은 왜 있어야 했을까? 몇 가지를 답변으로 내놓아 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비록 유한한 능력이 이 봉인을 떼어 열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하게 할 능력은 가지고 있다. 말씀이 단혀져 그 속의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된 것은 인간의 잘못들, 죄지움에 연유된다. 말씀이 단혀진 이상 열 수 있는 권능은 신성한 권능 뿐이다. 이를 인간이 확신하도록, 천상천하에서 이 진리가 명백해지기 위해서, 또는 양 세계에 있는 교회에서 이 진리를 명백히 보여주기 위해 위 선포가 있어진 것이다. 이 선포의 모양새 역시 표현적 형체이다. 본문의 천사는 어느 한 개인 자격의 천사를 뜻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천사 앞에 어떤 관사도 붙이지 않고 있는 바 글자에서도 위 설명을 뒷받침해준다. 말씀 안에서 천사가 언급될 때면 언제든지 영적 의미에서는 신성한 어떤 것이 의미되어진다. 그 이유는 천사를 만드는 천사들의 원리는 주님으로부터 있고 천사 안에 주님이 내재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천사들의 원리가 넓은 측면에서는 천국을 만들고 세부 측면에서는 각각의 특징 있는 천사를 만든다. “힘센 천사”란 천국을 통해 말하시는 주님 자신, 또는 천국이 주님으로부터 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주님이 천국을 통해 말하신다는 것은 연설 같은 외침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영을 수단으로 천사나 인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심을 뜻한다. 그러므로 천사의 외침이란 천사나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을 위해 해 주시기 위해, 신성한 권능이 그들에게 명백해질 때를 맞이할 준비를 위해 그들의 마음 안으로 신성이 유입되는 것을 뜻한다. 위 외치는 천사는 힘센 천사라 불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성한 진리가 천국과 지상의 모든 권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신성한 진리는 단독적인 진리만을 뜻하는게 아니라 사랑의 형체가 되는 진리를 뜻한다. 이런 진리가 주님이시다. 외침에서 선포하는 것은 누가 이 책의 봉인을 떼어서 열 수 있는가? 이었다. 인간이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책을 단았다는 것은 이미 거론했다. 위 질문은 이런 인간 상태와 관련되어 표현되고 있다. 위 질문에는 권능에 관한 생각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 권능은 지적 측면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측면이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책을 펴는 것 역시 도덕적 수준의 행동이다. 그 이유가 본문에서 뵈다, 연다(to open)로 번역된 원어에는 (뵈가를) 짓는 것(build), 아파 사도행전 15장16절, “그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지으리니...”에서

사용된 “다시 지음”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더 부각시켜 위 구절의 찬사가 다시 효력있게 말하라고 한다면, 누가 잃어버린 도덕적 힘이 회복되도록 도덕적 권능을 가지고 있을까? 또는, 땅에 떨어진 종교 속의 진리와 덕행이 재 건립되도록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가르침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또는 누가 황폐된 교회를 다시 건립해 줄 수 있을까? 일는지 모른다. 이런 사람의 자격은 책을 펼 수 있고 봉인을 뿜 수 있어야 한다. 책을 펴고 봉인을 뿜는 두 가지 행동은 말씀에 있는 도덕적인 원리와 지적인 원리, 또는 말씀 속의 믿음과 이타애에 관한 원리를 밝혀냄 역시 심판과도 연관된다. 그 이유가 이 책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판결 받고 이 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을 아래 구절에서 배워보자.

3.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또 땅 아래에도 없었다.” 어느 누구도 책을 펼 능력이 없다고 하는 권능의 비존재를 표현하는 위 구절의 형체는 유한한 존재의 모든 등차, 즉 가장 높은 곳 천국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 지상까지의 모두가 포함되도록 하는 일반적 측면이 부각되도록 의도되어 있다. 그러나 요한은 지금 영 가운데, 영계에 있는바 위 구절에서 언급한 세 종류의 인간은 세 종류의 천국에 있는 거주민을 특별히 뜻한다. 그럼에도 천국에 있는 사람은 지상을 통과해 올라온 사람들인바 거기에도 책을 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말씀 속의 지혜를 알아내는데 있어서 체 아무리 높은 인간 총명이라해도 인간의 심정과 지성을 읽는 마지막 심판을 읽을 수 있는 유한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감지하게 하는 표현 방법을 위 구절은 사용하고 있다. 책을 편다는 것은 도덕적 수준의 힘에 속하는 행동을, 펴진 책을 들여다 본다는 것은 지적 수준인 식별력에 속하는 행동을 구분해서 뜻하는 말이다. 인간의 심정을 들여다보아 판결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인간의 이해성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들을 스스로 알고 이해할 능력을 지닌 유한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 구절의 표현 방법은 지상의 인간뿐 아니라 천국의 사람들까지도 전능을 상징하는 그분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하느님의 책을 펴거나 들여다 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4. 이런 비슷한 결과가 요한에게 미친 효과는 이러하다.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것을 들여다 볼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요한의 슬픔은 요한으로 표현되는 속성을 지닌 사람들의 슬픔을 예시한다. 이 구절에서 요한으로 표현된 속성을 지닌 사람들이란 교회의 마지막 때, 말씀이 봉인된 책이 되어 버린 때임에도 요한이 표현하는 사랑을 얼마쯤이라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악과 어둠이 휩쓸고 있는 상태 때문에 통곡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과거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교회의 마지막 상태, 위 본문과 비슷한 상태를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어름도 지나고 추수도 끝났건만...치료할 수 없는” 이스라엘 교회를 두고 이렇게 깊은 통회를 외쳤다.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울 수 있으면, 내 딸 내 백성의 죽음을 곡할 수 있으면만” (9:1). 그러나 우리는 “울음으로 밤을 지새워 견뎌내면 아침에 기쁨이 온다”는 보증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밤은 요한으로 슬피 울게 했지만 이제 요한 위에 아침이 드리우고 있다.

5. “그러나 원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시오. 유다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분이 이 일곱 봉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승리하는 분이란 주 구세주이시다. 이 구절의 경우 주 구세주라고 말한 것 만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되리라 본다. 사자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뜻한다. 그러나 주님의 권능은 그분의 사랑과 지혜가 활동하는 것인바 이것이 유다와 다윗으로 의미되고 있다. 유다는 신성한 사랑 측면의 주님, 다윗은 신성한 지혜 측면의 주님에 대한 모형이다. 유다지파에서 난 사자란 사랑의 권능, 다윗의 뿌리란 근원 측면에서의 신성한 지혜이다. 그분은 지옥과 죽음의 정복자인 구속자 되시는 분을 상징하기 위해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 불리시고 있다. 여러 가지 칭호가 동시에 언급된 것은 주님께서 사랑과 지혜가 하나되어 있는 분이심을 알게 하는 중요한 표현이다. 따라서 그분만이 책을 펴실 수 있고 그 속을 들여다보실 수 있다.

6.7. 책을 펴서 읽을 수 있다는 위로의 말이 가져오는 결과가 아래에 이어진다. “나는 또 그 옥좌와 네 생물과 원로들 가운데 어린 양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았으며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하느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일곱 영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 옥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린 양이 주예수이시다는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바, 옥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글자대로의 표현으로만 생각할 경우 구세주 되는 어린 양은 옥좌에 앉은 그분과는 별도의 인물 또는 존재인 듯 여겨질 수밖에 없을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환상은 우리의 착상과 일치 않는 쪽으로 시선을 끌게 해주고 있다. 그 이유가 어린 양은 전능한 분이 자리 잡은 옥좌 한가운데, 그리고 옥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게 되면 아버지의 오른편에 아들이 앉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구절의 경우 아들은 옥좌 자체의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생각되게 되어 있다. 이런 표현들은 영적 수준의 생각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련 글자적 수준에서의 사실들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된 글들이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느님과 어린 양의 관계는 한분 하느님의

속성인 신성과 인성, 인간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표현들에 감추어 놓인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다. 하느님의 오른손이란 그분의 권능을, 아버지의 오른편에 아들이 앉아있음이란 주님의 인성이 그분 스스로 표현하셨듯이 “권능의 오른편으로 드높여졌다”는 것, 더 나아가 주님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을 수단으로 모든 권능을 발휘하신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똑같은 생각이 또 다른 형체 내지 또 다른 형상을 수단으로 표현되고 있다. 옥좌에 앉은 왕이 왕의 오른손에 책을 쥐고 있고 어린 양이 옥좌 한가운데에서 나와 왕의 손에서 책을 받아들고 있다. 이런 모습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고안되었을까? 주님의 인성은 신성의 권능을 행사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는 것이 아닐까? 참으로 주님의 신성만이 천국과 교회가 즐기게 되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 그러나 이 축복은 그분의 인성을 통하여야만 우리에게 와진다. 천사와 인간과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에서의 주 하느님 자신, 주님의 인성이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권능이라는 위대한 진리가 표현하는 것이 어린 양에 의해 봉인이 되어짐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근원이요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위 본문에서 그분은 마치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이 표현되고 있다. 이 모습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 이유가 십자가형의 흔적(marks)이 영광을 입으신 그분의 몸에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십자가형이라는 흔적은 그분을 새로이 십자가형에 처해버린 교회 안에 남아있다. 이런 십자가형은 한 분만이 신성하다는 사상이 부정되었을 때 시작되었고, 삼위의 두 번째 인물이 예수라고 교회가 간주했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이 거행되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인성 측면을 또 다른 인물(person)로 간주해버렸을 때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말이다. 주 예수는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느님, 창조자, 신성한 분이시다는 생각이 참다운 교리이다. 주님에 관한 교리는 기독교의 중심되는 교리인데 이 교리가 잘못 쪽으로 바뀌었을 때 주님은 실지로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것이다.

이런 사항 안에 포함된 또 다른 내면의 진리도 있다. 주님은 그분의 순진이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 어린 양으로 표현되었기도 하다. 그 이유는 그분의 본질은 순진이고 천사와 인간이 지닌 모든 순진의 저자(Author) 되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순진을 교회가 받지 않을 때 주님은 죽임을 당하신다. 그 이유가 순진이 천국의 가장 깊은 원리이듯 교회에서도 가장 깊은 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비쳐진 주님의 외관은 주님이 최고의 존재요 모든 생명의 원천되심을 거절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된 모습이다. 그래서 그분이 지상에 계셨을 때 이렇게 선포해주셨다. “아버지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것처럼 이들도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요한5:26). 이 구절의 경우 어린 양은 죽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다. 이상 살핀 바와 함께 묘사된 것은 일곱 뿔과

하느님의 일곱 영인 일곱 눈이다. 뿔은 권능을, 눈은 총명에 대한 상징물이다. 이 두 가지 상징물이 신성 측면에서 사용되면 주님 안에 있는 전능하심(omnipotence)과 전지하심(omniscience)을 뜻한다. 인성에 계신 주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눈은 지상 모든 곳에 파견되는 하느님의 일곱 영이다. “그분의 눈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보시고 그분의 눈까풀이 심리하신다.” 그러나 그분의 권능과 지혜는 다양한 등차로 있는 완전함에서 그분의 교회를 개발해주고 또 그들을 방어해 주시기 위해 고용되어진다. 신성한 영은 지상 각 곳에 보내진다. 신성은 마치 빛이 태양으로부터 흐르듯 진실로 공평하게 주님으로부터 흘러나간다. 특별한 방법으로 신성은 영적인 땅인 교인들에게 흘러든다. 하느님의 영(the Spirit)은 한결같이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가되 말씀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교회 없는 사람들이 이 영을 받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받는 수단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말씀을 소유한 교회는 영을 완전하게 받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진리의 영 되시는 그분 말고 또 누가 옥좌에 앉으신 그분의 손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 일곱 봉인을 뿔 수 있단 말인가?

8.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자 네 생물과 스물 네 원로는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이다” 생물과 원로가 말씀의 원리들을 상징한다고 간주하든, 또는 신성을 먼저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받는 천국에 있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말하든지, 지금 그들이 어린 양에게 바치는 예배는 주 예수가 최고로 신성하다는 것을 놀라웁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 천국에 있던, 지상에 있던, 바다에 있던, 모든 존재들이 신성한 인성이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것이다. 유한한 존재,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들이 바쳐야 하는 예배에 대한 주님의 칭호로서 신성한 인성이신 주님 외 더 확실하고 완전하게 선포해야 할 말이 달리 있을까? 그러나 이런 독단적인 진리와는 별도로 한분 하느님을 알고 인정할뿐 아니라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정감을 주는 생각도 해보자. 여기서 표현된 주제는 구속의 축복에 관련된 예배이다. 예배의 두 가지 큰 용도는 예배자를 겸손하게 하는 것과 예배의 대상을 드높이는 것이다. 부끄러움(humiliation)이란 행동에 존재한다기 보다는 상태 속에 존재한다. 어떤 경우 우리는 예배드리는 동안에 몸은 꿇어 엎드려 있으면서도 마음은 교만한 상태에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하느님께 부끄러워함은 마음이 비천해진 상태, 겸허히 낮은 마음의 자세에만 존재한다. 이웃을 미워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듯 이웃에 오만한 상태로는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질리 없다. 운유하고 겸손한 영이 없는 예배 속의 겸허한 외관은 아무것도 아니듯 예배에서 주님을 드높여 세움도 우리 심정과 지성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드높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게 된다.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갖추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이런 형식이 내향의 품위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배려 때문이다. 내향의 품위를 더 실속있게 갖추려 할 때 진정으로 유용한 주님께의 헌신 역시 존재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가장 큰 규모의 측면에서의 인간성에 관한 것,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교회로서 위 예배를 참작해본다면 위 구절의 표현들을 가장 큰 측면의 형상으로 각지에서 응용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럴 경우 본문에서 언급되는 “옥좌”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심정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과 진리라는 형태를 볼 수 있게 되고, “생물”이라는 단어 속에서 주님의 정부형태에 있는 원리들을 담고 있으면서 한편 그 원리를 밝혀 주는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고, “원로”라는 단어 속에서 마음 안에 있는 사랑과 지혜를 가장 높은 수준, 즉 천적수준에 있는 애정과 직감을 알 수 있게 되리라. 그리고 옥좌 주위의 많은 천사들 속에서 천적수준 아래에 있는 자질이 지니는 진리에 관한 생각과 선에 관한 영적 애정을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지상의 창조물 속에서는 선과 진리에 관한 자연적 수준의 애정과 생각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상의 모든 사항들이 예배자의 마음 안에 존재해 있지 않으면 그 예배자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다. 간략히 말해서 예배자는 자기의 모든 애정과 생각들이 연속적으로 주님 앞에 꿰어 엮드리게 하여 심정과 지성 안에서까지 그분이 최고의 사랑과 지혜 되시는 분으로 드높이지 않으면 그 예배자는 그분을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원로들은 성도들의 기도인 향이 가득 담긴 금 향로와 거문고를 갖고 있었다. 우리의 헌신함이라는 음악과 향이 최고 높고 가장 나은 우리의 애정들에 의해 바쳐지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우리 영혼 안에서 살아 있을 수 없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옥좌에로 승강될리도 만무하다. 위 구절을 보다 세세하게 살펴보자. 그분이 책을 받아들었을 때 생물과 원로들은 어린 양 앞에 꿰어 엮드렸다. 이는 주님으로부터의 권능 내지 영향력이 교회와 천국에로 흘러들러면 말씀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우리로 그분의 위대함과 선함을 감지해 꿰어 경배하게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말씀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느낌과 생각 안으로 들어오시어 우리라는 존재 전체가 그분의 거룩한 뜻에 기꺼이 복종하게 하신다. 거문고(harp)란 영적 수준의 애정들 또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또는 영적인 진리를 상징하는 악기이다. 하프를 연주함이란 믿음으로부터 예배드리는 것을 뜻한다. 금 향로란 영적인 선 또는 사랑인데 그 이유는 금이 사랑 또는 선함을 표현해주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이 금 향로에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향이 담겨 있었다. 유대교회의 의식에서의 향로가 뜻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본문의 향로에 담긴 향이란 예배에 있게되는 달콤한 향을 뜻하는데, 이 향내는

자기 구원의 저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따뜻하고 겸손한 심정으로부터 풍겨난다. 원로들이 어린 양 앞에 향을 내어놓는 기도의 모습은 마치 그것이 자기들 소유가 아닌 듯 여겨지고, 그들의 예배는 중재적인 차원인 듯 우리로 여기게 해주고 있다. 이미 배운바 중 하나는 한분 하느님이 계시고 그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있다는 것이다. 주님의 인성 측면은 창조자와 창조물 사이에 놓여있는 위대하고 유일한 중개(매체)이다. 누군가가 중재하는 듯 나타날 경우 그것은 그가 자신의 중재 측면을 표현하기 때문인바 실지의 인물과는 구분되는 공적인 품성을 가진다. 성서에서 인물(person)들은 원리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인물인 성도(saint)는 거룩한 원리를 표현한다. 원로들이 내어놓은 것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그들은 거룩한 애정들을 뜻하는데 그 이유는 이 애정만이 거룩한 분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9.10. 거룩한 애정의 음악과 향을 가지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받으실 자격이 있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고 당신의 피를 수단으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셔서 하느님께 바치셨습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두 방면에서 새롭다. 천국과 교회가 새로운 품성으로 있기에 앞서 욕을 입으심이 있었다. 구속함은 창조만큼이나 새로운 일이다. 그런데 교회는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 속의 주님까지 잃어버린 상태였다. 다시 말해 교회 속에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바”, “그분의 책이 봉인된” 상태로 놓여있었다는 말이다. 이것이 요한의 계시록에서 언급하는 교회의 상태이다. 어찌됐든 위 구절의 경우 어린 양이 책을 받아들어 이제 막 봉인이 떼어지려 하고 있다. 새로운 찬양을 드리는 셀 수 없는 많은 예배자는 넓은 차원에서의 교회를 표현하고 이 교회는 그들의 실수나 잘못으로부터 구속된 사람들, 자신을 악에서 해방시켜 구원해주는 저자되시는 분이 주님이신 바 그분께 모든 영광을 되돌려야 한다는 영감을 지닌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 노래가 새롭다고 말해지는 두 번째 이유는 그 노래의 주제가 마지막 심판과 주님의 재림이기 때문이다. 이 재림은 인간 마음이 새롭게 열리는 것이고, 이 열림은 영적 차원에서 오시는 주님을 직감하게 해준다. 따라서 어린 양에 관한 예배자들의 노래는 새로울 수밖에 없다. 개인 차원에서도 이 노래는 새로운데, 그 이유는 여기서 표현된 모든 것들이 예배자의 경험에서 사실로 굳혀지기 때문이다. 원로와 그 외 사람들이 어린 양을 새 노래로 찬양한 이유는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고 그분의 피로 그들을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이었다. 재림과 관련해 위 구절을 생각해본다면, 주님이 위와 같이 찬양된 이유는 비록 교회가 신성의 유일함과 인성의 신성함을 부정함으로 정작 그분을 죽인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교회의 잘못 중 기본되는 것이 득세하는 것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악에서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을 구속하는 수단이 된 그분의 피란 그분의 신성한 진리이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리심은 구속에 참으로 필요한 절차였다. 그 이유가 십자가의 고통은 그분의 마지막 시험이었고, 이 시험으로 어둠의 권세가 정복되어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원하는 권능을 지닌 영원히 살아있는 원리라는 측면에서 주님의 피는 신성한 진리이고 이 진리가 그 진리를 받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서 구원해준다. 이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속하는 것이다. 주님의 인성 측면이 구속자되시지만 우리가 구속되어 지는 쪽은 신성 측면이다. 신성한 본성은 순수한 신성 자체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었던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성을 입으셨다. “아들”이 신성한 진리 측면이요 “아버지”는 신성한 사랑 측면인바 신성한 진리는 각종 잘못과 악들로부터 우리를 구속해서 모든 복의 근원인 신성한 사랑 측면에 데려다 준다. 따라서 구속된 이들은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구속되는 것이다. 이 네 계층이란 교회가 지닌 모든 것을 말한다. 종족과 언어(tongues)란 생활과 교리 측면에 속한 것들, 백성과 나라란 믿음과 이타애 측면에 속한 것들을 뜻한다. 이 네 계층은 매우 평범한 상태를 지니는 이들만이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한 왕국을 이루게 하였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땅위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다. 위 구절로부터 그들은 왕으로 군림했다. 그들은 과거 자기들이 섬겨야만 했던 곳을 지금은 통치하고 있다. 전과 후의 관계를 갖는 위 두 상반된 상태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교인의 의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신하의 위치에 머물지만 그 이후 그분의 법에 순종하되 사랑으로부터 순종하면 우리는 왕의 위치에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셨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요한15:15). 이는 그들이 주님을 추종해온 뒤 심판의 옥좌에로 드높여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님의 이 말씀과 비슷한 수준을 사도들의 서간문에서도 찾아 읽을 수 있다. 즉 참된 기독교란 율법이 아닌 은총아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영적 수준의 상태인바 율법의 영 가운데 있는 이들은 율법의 글자에 더 이상 종속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이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다...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된다”(갈라디아5:22,14).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수준에서 사랑이라는 수준에 올려진 사람들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구속되어 왕과 사제가 된다. 그들이 왕과 사제가 되고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요 사제중의 사제 되신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위와 권능을 수단으로 진실되게 통치한다. 이 통치는 바깥쪽으로 통치되는 정도만큼 내향으로 통치되고 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의 심정을 통치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의 이해성을 통치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는 말이다. 그의 이해성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그리스도께 그의 모든 생각이 종속되도록 가져다 놓는 왕과 같고, 심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있어 모든 애정을 하나로 묶는 사제와 같다. 완전한 기독교인은 구세주의 형상을 따르는 것, 벨기세텍의 질서를 따른 사제인바(히브리5:6), 그는 즉시 왕과 사제이다. 주님께서 왕과 사제로 만든 이들이 온 땅을 다스린다. 기독교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땅이란 그의 지상적(자연적) 측면의 마음을 말한다. 기독교인이 진정 왕노릇이란 그의 자연적 애정과 욕구를 정복하는 것이다. 이 정복은 원래 인간에게 부여된 것(창세기1:28), 온 땅을 정복함, 그의 본성중 천국적 측면에 지상적 측면이 완전히 종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팔 복의 하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 있는 것같이 땅에서도 있게 하소서” 라는 기도문의 청원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자연적 수준의 마음에 있는 애정을 지배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복 있는 자이다.

11,12. 천적 수준의 존재들에 있는 또 다른 질서가 이제 펼쳐진다. “나는 또 그 옥좌를 둘러 선 많은 천사들과 생물들과 원로들을 보았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 구절의 천사들은 생물과 원로들의 바깥쪽에서 둥그렇게 원을 형성하고 있다. 외면에 속한 것은 하급에 속한 것을 뜻하는바 이 천사들은 원로로 표현된 천국보다 더 낮은 천국을 표현하고 있다. 이 천사들의 숫자는 “수 천 수 만이었다.” 성경에서 숫자는 양을 의미하기보다는 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천사들의 숫자란 그들의 품성을 의미하고 있다. 위 구절에서 동시에 언급된 숫자는 두 가지, “수 천”과 “수 만”인데 그 중에서 큰 숫자는 진리를, 작은 숫자는 선을 뜻하고 있다. 둘이리는 숫자가 곱해져서 더 크거나 보다 작거나 할 경우 이는 동질의 의미를 갖지만 보다 작은 숫자는 선의 측면을, 보다 큰 숫자는 진리 측면을 서술하게 된다. 그 이유는 모든 선은 각기 많은 진리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는 선은 진리로부터 형성되는바 진리를 수단으로 해서만 생산되기 때문이다. 요한이 듣게 된 이 천사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원로들처럼 많은 천사들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드높이고 있다. 타락된 교회에 의해 부정당하고 거절 당해 버린 그들은 신성한 모든 속성이 어린 양 속에 존재함을 알고 있다. 권능과 부귀와 지혜란 전능과 전지하심과 섭리하심을 말한다. 영예와 영광이란 모든 선행과 진리이다. 찬양(blessing)이란 영원히 더 없을 행복이다. 어린 양은 위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다고

말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위의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 천국과 교회에 위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어린 양이시다는 말이다

13.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은 또 다른 예배 계층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 곧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이, ‘옥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서 찬양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예배자들은 천사라 불리지 않고 생물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종교적 의미에서 생물(creature)은 새로운 생물로 되어가고 있거나 되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본문의 경우 그들은 세상에서 개혁되어서 새로워지긴 했지만 천사라 불리는 높은 상태까지는 아직 도달 못한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은 세 계층, 하늘에, 땅 위에, 바다에 있는 이들로 구성된다. 물론 이 분류는 자연계의 세 영역으로부터 취해진 말이다. 자연계에서 이 세 영역에 속한 것은 공기, 땅, 물이고 이것을 생물로 보면 새, 짐승, 고기로 간단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새란 진리를 사모하는 가운데 있는 이들, 짐승은 선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는 이들, 고기는 지식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는 이들을 표현한다. 이 세 가지들은 축복하는 천국에 놓여있고 이것들이 어린 양에게 복의 근원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준들은 저급에 속하는바 앞 절에서 언급된 것들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천국에서의 더 높은 상태, 이 상태의 결과로 있어지는 더 높은 천국은 천국의 삶에서 낮은 천국과 아예 다른 등급으로 분류되어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보다 높은 상태에 앞서 있게되는 보다 낮은 상태가 뒤바뀜으로 있어진다. 따라서 보다 수준 낮은 상태의 최정점 내지 마지막 계에 있는 품질은 그보다 높은 상태에 있어지는 최하위 내지 첫 번째에 있는 품질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보다 수준 낮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에게는 믿음이 사랑보다 더 높은 상태에 있다. 반대로 보다 수준 높은 상태의 천국에 있는 이들에게는 사랑이 믿음보다 더 높은 상태에 있다. 이외의 품위 역시 이와 동등한 원리로 배열된다. 위 구절의 경우 생물들도 천사와 동등한 찬양을 어린 양에게 돌리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천사들은 “권능”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찬양”이라는 말로 끝맺는데 비해 생물들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권능”으로 끝맺고 있다. 그러나 천사들에 비해 생물들의 경배에는 부귀, 지혜, 힘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 생물들은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있어야 하는 어떤 것이 부족해 있는 셈이다. 두 부류 모두 전체적인 윤곽을 지니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생물들의 경우 기독교인의 완전함을 충만하게 하는 어떤 특출함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 이들은 “권능”은 가지고 있으나 “힘”은 가지고 있지 않다. “영예”는 있으나 “부귀”가 없다. 영광은 있으나 “지혜”가 없다. 이들은 바깥쪽 품질은 갖추었으나 바깥쪽 품질을 자극해서 드높여지게

해줄 안쪽의 특출함 중 얼마를 원하고 있다.

14. 어린 양의 영화로우심은 옥좌 안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되어 유한한 모든 존재를 통과해 가장 하급인 하나님의 창조물에까지 내려 왔다. 그리고 영광의 성가의 소리가 마지막으로 있어지면서 그 소리가 사라지기에 앞서 “네 생물은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찬양은 찬양을 시작했던 이들에 의해 마감되고 있다. 이 노래는 옥좌 내의 거룩들로부터 발현되었다. 이제 엄숙한 노래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다.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진행된 모든 것은 이제 그분께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신성한 승인을 받고 있다.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답하고 아멘으로 찬양을 올릴 수 있을 때만이 모든 것은 진정함이 되고 효력도 있게 된다. 완전이 있는 모든 행동은 하나의 원을 형성한다. 그 자체가 귀환한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마음을 통해 육체로 내려온 후 다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올라가 새롭게 화답되는 행동으로 깨워 일어난다. 그리하여 겸허함의 새로운 상태와 내향의 생명을 생산해 심정 속의 돌판에 영원히 있을 생명을 새긴다. 이리하여 “원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

6

앞 장에서 어린 양은 일곱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책을 옥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으로부터 넘겨 받았다. 본 장은 여섯 봉인이 열리는 대목에 관해서 이다.

1. “나는 어린 양이 그 일곱 봉인 중의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중의 하나가 우뢰 같은 소리로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비록 계시록이 책 전체로서는 교회의 연속적인 상태를 묘사하지 않고 마지막 때의 마지막 상태를 폭로해주고 있던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 하강의 연속적 단계를 보여주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본 장이 이에 속한다. 그럼에도 이 환상 역시 교회 존재의 연속적 시대에 소속되었던 이들의 상태의 폭로라는 역사성과 담합되는 것은 우연적 차원 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첫 네 봉인을 떼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측면에서의 교회의 상태, 즉 진리가 순수성과 능력을 지녔던 처음이요 최상의 상태로부터 진리가 그 생명되는 사랑을 잃었을 때인 마지막이요 가장 나쁜 상태까지를 묘사하고 있다. 책의 봉인을 떼는 것을

그 뒤를 잇는 심판의 준비로서 주목해 보면 주님께서 봉인을 떼심은 인간의 상태를 밝히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이 내포하는 종교를 지녔다고 고백하는 이들로 구성된 교회의 상태를 밝히 알게 하는 것이다. 첫 봉인이 떼어졌을 때 요한은 우리같은 소리로 네 생물의 하나가 “와서 보라”는 음성을 들었다. 봉인이 떼어짐에 수반된 우리 같은 소리란 가장 깊은 천국이 대답하는 행동을 함축하고 있다. 귀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란 의지에 영향을 주는 신성한 진리이다. 능력을 지닌 신성한 진리는 우리 같은 소리를 낸 생물의 소리로도 의미되고 있다. 천사와 사람에게 “와서 보라”고 초대한 네 생물 중에서 첫째 생물은 사자였다. 사자는 힘이라는 측면에서의 진리를 상징한다. 첫 봉인이 떼어지는 것은 떼어짐이라는 것 외에 첫 봉인의 해체로 결과되는 경이로움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특이한 중요성을 가진다. 즉 단혀있던 책을 휘감았던 침묵을 깬다. 우리 같은 첫 음성이 그 열림을 선포했고 천국 전체를 관통하면서 뒤흔들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에까지 내려와 위대한 일이 절박해 있다는 생각을 지닌 모든 마음에 강한 인상을 지어주면서 “와서 보라”는 초대가 이제 막 만들어질 이 계시를 경청하도록 마음을 돌린 들을 귀 있는 자 모두를 부르고 있다. 이 계시가 다음 절에 상징적으로 담겨 있다.

2. “그리고 보니 흰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자로서 월계관을 받아졌고, 또 더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둘 것은 봉인이 떼어짐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것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상태에 관해 밝힌다는 것, 그리고 그 교인에 관해, 또는 그 책에 씌어진 것에 의거 심판될 사람들에 관해 밝힌다는 것이다. 첫 네 봉인은 각기 다른 품성의 승마자가 탄 각기 다른 색깔의 네 말을 폭로하고 있다. 그들이 지닌 각각의 특출함이 정복자가 탄 흰 말로부터 죽음이 탄 푸르스름한 말로 감퇴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사항을 심판 받아야 했던 사람들의 네 계층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 시리즈는 그들의 모든 것, 즉 가장 좋은 것으로부터 가장 나쁜 것까지의 모두를 표현해주게 된다. 그래서 위 네 부류가 교회에 소속된 이들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표현한다면 이는 교회의 계속적인 상태 역시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상태들의 본성을 알려면 우리는 이 구절의 상징적 의미를 알아야만 한다. 말(horse)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 안에 있는 동물들은 신성한 특질을 상징하기 위해 채용되어 있다. 하물며 인간의 품질과 능력의 상징물로 등장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동물 중에서도 고상한 동물인 말은 인간의 능력 중 고상한 능력인 이해성을 표현해준다. 담화(discourse)라는 단어는 이리저리로 달려간다는 것을 뜻하는데서 파생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마음의 행동은 육체의 것 중에서 그것과 상응되는 행동을 뜻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진다. 이런 바탕에서 말은 빠르고도 힘있게 우리를 운반해주는바 우리의 이해성을 상징한다. 고대 시대에도 저술자가 불경한 자이든 거룩한 자이든 한결같이 말의 상징성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해왔다. 그리스 신화의 날개 달린 말은 진리의 이해 또는 총명을 상징했다. 말이 이해성을 상징화 해주는 바 봉인이 떼어져 책에서 나온 말은 각기 다른 교회 시대 또는 각 시대의 각기 다른 마음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상징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진바, 사도들의 교회 시대가 교회 시대 중 가장 낮고 순수했던 시대였고 그 뒤 성경의 참된 의미가 잃어지거나 뒤집어지거나 해서 그 질이 점차 떨어져 갔다는 점이다. 교회 시대의 이런 하강과 각 시대의 본성은 봉인이 떼어짐에서 표현된 모습의 외관만을 읽어도 감지된다. 첫 봉인이 떼어지자 흰 말이 나타났다. 첫 말이 백색이라는 것은 첫 교회 시대에서 이해된 진리가 순수했다는 것을 뜻한다. 흰 말의 의미는 19장에 기록된 모습, 교회의 모든 환난 후, 천국이 다시 열리면서 말씀이 순수하게 새로이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이들을 따르는 천국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는 것으로 표현되는데서 명확히 알 수 있다.

흰 말 위에는 활을 가지신 분이 계셨다. 흰 말의 승마자란 진리를 이해하고 이해한 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분의 손에 들렸던 활은 교리를 상징한다. 진리들이 활로 의미된다. 그래서 활과 화살의 관계와 같은 것이 교리와 진리이다. 활은 살을 목표물에 보내고, 그 살이 “왕의 군대의 심장”을 찌른다. 교리는 말씀 속의 진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교리가 없으면 말씀은 올바르게 이해될 수 없다. 진리는 체계적으로 성경에서 전달되지 않는다. 게다가 진리 대부분은 가상적인 진리(apparent truth), 또는 성경이 찌어질 때, 계시가 내려질 때, 있었던 총명의 상태에 따라 표현된 진리로 구성되고 있다. 말씀의 글자는 일부는 순수한 진리로, 일부는 가상의 진리로 구성되어 있다. 참된 교리는 진리의 이런 두 형태의 식별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말씀 속의 순수한 진리로부터 우리의 체계와 신조를 끌어내고 동시에 순수한 진리를 수단으로 말씀의 가상적인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누구도 교리 없이는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듯이 누구도 교리 없이 말씀 속의 진리를 올바르게 채용해서 참된 믿음을 건설하든지 또는 왜곡된 믿음을 반박하든지 하는 것을 해낼 수 없다. 순수한 진리와 가상의 진리를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진짜와 오류의 차이를 가늠해 낼 수 없다. 그 이유가 대부분의 오류(error)는 가상의 진리로 구성되고 순수한 진리로 확증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진리를 알지 못한 교회가 세상 속의 악과 오류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을까? 아직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 이런 조건 밑에 있는 교인들이 자신의 심정 안에 있는 악, 이해성에 든 오류와 어떻게 성공적으로 싸워 낼 수 있을까?

만일 누군가가 자기 마음 속의 악과 오류를 식별해 뒤엎을 수 없다면 어떻게 그가 영적 수준의 마음을 자기 마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기독교회, 이 교회가 성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교리가 건전해 있는 한, 이는 흰 말을 탄 승마자와 같다. 그래서 더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 정복하고 정복해 간다. 이 교회는 시작 초 비록 연약하고 작았지만 세상의 악과 오류를 이겨냈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나라에 진리를 퍼트렸고 이 진리 밑에 모든 것을 정복했다. 또한 교인들의 생활 역시 복음의 교리로 장식되어 있었다. 강경했던 그들의 적까지도 이런 교인들의 승리를 칭송했다. 이런 상태의 교회에 월계관이 주어질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들은 진리를 위한 순교자였을 뿐 아니라 더 나은 순교자, 즉 자기희생, 자기 이기심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 자아를 정복하는 수단, 개개인의 구원의 원인이 되어주는 것까지를 망라해 월계관이 주어졌다.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승리로 지혜의 월계관, 더 없는 행복이 주어지는 승리이다. 그러나 이 월계관은 생명이 다 할 때까지 기독교적인 전투를 계속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을 뿐이다. 교전중인 기독교인은 더 큰 승리를 위해 더욱 전진한다. 그 이유가 각각의 정복 이후에도 정복해야 할 악이 더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적은 살아 있고 계속 강세해 있다. 여기서 월계관이 활을 지닌 분께 주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승리의 보상이라는 것만이 아니다. 월계관은 전진해 가는 그분께 주어졌던 것이다. 그분의 승리는 마치 왕들이 전투에서 왕관을 쓰듯이 그분의 이마에 특별한 표를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다. 지혜의 월계관은 신실한 표로서 기독교인에게 수여되어진다. 이 표는 그가 정복했을 때 그에게 수여된 승리의 월계관이다.

3.4.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한 첫 번째 상태에 내리막 길을 암시하는 것이 뒤따르고 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 한 필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세상에서 평화를 없애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곧 큰 칼을 받은 것입니다.” 흰 색이 진리를 상징했던 것에 비해 붉은 색은 사랑을 상징한다. 그러나 사랑에는 두 종류, 자연적 사랑과 영적 사랑이 있다. 자연적 사랑이 영적 사랑과 분리되면 그 사랑은 악이다. 이 구절의 붉은 색은 악한 사랑의 모형으로 이해되어 진다. 그 이유가 이 승마자는 평화를 없애는 불일치와 분열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붉은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인간의 열정이 이타애보다 덜 순수한 사랑으로 불붙고, 진리를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견해를 더 사랑하려 할 때이고 이것이 교회 하강의 첫 상태임을 묘사하고 있다. 사도들이 죽은 뒤 초기 기독교회에서 부패와 나뉘는 첫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모든 각 사람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의 하강을

일으키는 처음의 적극적인 힘은 오류가 아니라 악이다. 악이 오류를 낳는다(begot). 그 이유가 악은 악 자체를 좋아할 수 있는 것을 믿는 쪽으로 가게 하는 경향성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회의 하강에도 또 다른 단계를 거친다. 악이 우세해진 첫 효과는 지상에서 평화를 가져가는 것, 둘째 효과는 인간들이 서로 죽이도록 하는 것이다. 평화는 선함과 진리, 이타애와 믿음, 또는 의지와 이해성의 하나됨과 조화로부터 결과된다. 마음 안에서 이 하나됨은 평화를 주는데 그 이유는 이 두 개의 적극적인 능력과 원리가 통일되어 있을 때 마음은 만족하여 고요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 두 개가 불일치하면 더 이상 평화는 없다. 이 불일치는 먼저 교인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전체로 팽창된다. 그 이유가 스스로 조화를 갖지 못한 마음들은 서로서로에서 조화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조화 안된 마음의 소유자들이 지상으로부터, 땅으로 상징된 교회로부터 평화를 거두어 간다. 개인 차원에 관련해 생각하면 지상(earth)은 자연적 수준의 마음이다. 따라서 자연적 마음이 영적 마음에 의해 조절되지 않을 때 평화는 박탈되어진다. 거기에는 내적 인간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이 일어나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다. 평화가 사라지면 그들은 서로 죽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참으로 교회에서 불일치된 결과인데 이에 대해서는 기독교회의 역사가 여실히 증언해준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예견한 죽을 정도의 불일치란 개인들 사이의 불일치보다는 원리들 사이에 거행되는 불일치이다. 이런 투쟁은 악과 선, 오류와 진리 사이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파괴는 악을 수단으로 선에 속한 것에, 오류를 수단으로 진리에 속한 것에 있어진다. 계시록의 이 부분은 마태복음 24장 6,7절, “또 여러 번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소문도 듣게 될 것이다...한 민족이 일어나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칠 것이다... 이런 일들은 다만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에 응답하고 있다. 붉은 말의 승마자가 호전적이라는 것이 그가 칼을 받았다는 것에서 암시되고 있다. 이 구절의 경우 주님의 선포, “칼을 휘두르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을 충실하게 성취해주고 있다. 칼이 주님의 손에 있을 경우, 또는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싸우는 이들의 손에 있을 경우 진리를 상징하지만 칼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 휘둘러진다거나 인간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될 경우 이는 오류를 상징하게 된다. 더욱이 종과 간에 톱박의 도구로서, 양심을 갠 도구로서 교회에서 진리가 고용될 경우 이는 참으로 끔찍한 무기이다. 그 이유가 이런 진리는 이타애를 파괴하고 종교의 생명을 절멸해버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참으로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들은 지상에서 평화를 거두어 간다. 그들은 이타애와 믿음이 서로 죽이게까지 만든다. 그들은 믿음을 추켜세우는 가운데 이타애를 위반하게 하고 이타애를 종속시키려 드는 과정에서 믿음을 왜곡되게 한다. 믿음의 왜곡보다는 이타애의 죽음이 이 본문에서 취급하는

종교적 파멸의 발전 단계에 해당된다. 게다가 이 칼은 “큰” 칼이다. 크다(great)는 단어는 오류를 함유한 악을 영적으로 표현한다. 그 이유가 위대함(great)은 선의 측면을 표현하는바 이 구절의 경우 선의 뒤집힘, 즉 악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56.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검은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되, 아니면 보리 석 되를 살뿐이다.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라’ 하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그것은 네 생물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는 교회 하강의 두 번째 단계를 묘사해주고 있다. 첫째는 선함과 이타애로부터의 이탈이고, 둘째는 진리와 믿음으로부터의 이탈이다. 이것은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각 교회의 종교적 하강에 있어진 공통된 순서였다. 교회는 아벨의 피로부터 즈가리야의 피에까지 이르렀다. 먼저 이타애, 그 다음에 믿음이 지상 즉 교회로부터 사라진다. 선이 교회의 일어남에서 첫 출생에 해당되듯 악은 하강하는 교회에서 첫 출생이다. 악이 교회이든 마음에서이든 실제의 존재를 한번 획득하게 되면 오류가 그 결과로서 따라 온다. 그 이유는 진리가 악을 정죄하면 그 책망을 먼저 부정하거나 교묘한 설명으로 피해간다. 그런 다음 믿음의 원리들이 악을 창조하기 위해, 구원의 조건인 선함의 필요성을 제거하기 위해 채용된다. 그러므로 붉은 말에 이어 검은 말이 뒤따르고 있다. 처음 등장한 흰 말이 진리를 상징한데 비해 검은 말은 오류를 상징해주고 있다. 붉은 말은 교회가 말씀이 가르치는 선함 측면에 대한 참된 이해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은 말은 교회가 진리 측면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참된 이해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의지 측면이 부추키어 피임을 당하고 그 다음 이해성이 유혹된다. 먼저 애정이, 그 다음 추론함이, 이를 태고적 상징으로 되돌아간다면 먼저 이브가 유혹 당하고 그 다음 아담이 유혹 당했다. 이런 상황은 세 번째 등장하는 생물이 검은 말을 “와서 보라”고 교회를 부르는데서 더 살펴 볼 수 있다. 그 이유가 이 생물은 둘째 생물이 송아지인데 비해 사람의 얼굴을 가졌기 때문이다. 송아지는 애정을, 사람은 추론을 상징하는데 이것들의 뒤집힘이 교회 하강 중의 이 단계를 명시해 보여주고 있다. 진리 측면에서 말씀의 진정한 이해가 파멸되는 것이 지금 취급되는데 이어서 그 결과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를 표현하도록 소리가 옥좌 한가운데, 또는 네 생물 한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 네 생물은 특히 말씀을 상징화하고 있는데 “생물 한가운데”란 말씀의 가장 깊은 측면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발표는 말씀 자체로부터이다. 다시 말해 말씀의 영적 의미 안에서 표현되는 말씀의 필수적인 진리로부터이다. 검은 말의 승마자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다. 이는 이 구절에 상징적으로 담긴

의미 파악에 추가적으로 길잡이를 해준다. 그 이유가 저울은 말씀 속의 진리들이 저울질되는 심판이고 저울질을 수단으로 그들의 가치가 가늠되기 때문이다. 말씀 속의 진리가 밀과 보리, 기름과 포도주로 의미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영적 생명을 지탱시켜주는 자녀들의 양식이다. 그러나 교회가 하강하는 상태에 있을 경우 말씀 속의 원리들에 대한 가치는 가볍게 평가되어 적은 중요성만 있을 뿐이다.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페니)에 팔려지고 보리 석 되가 한 데리나온에 팔리고 있다. 밀과 보리의 숫자는 그것이 표현하는 말씀 속의 선과 진리의 비례적 가치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숫자 자체에 의미가 있다. 밀 한 되로 언급된 이유는 선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완전의 단위이다. 그러므로 밀 한 되란 선 또는 이타에 측면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모든 것, 전체로서의 선을 뜻한다. 이것이 가장 작은 가치로 평가되어 있다. 그 이유가 로마 시대 때의 데나리온은 가장 작은 단위의 은전이었기 때문이다. 보리 석 되로 언급되는 이유는 셋은 진리 측면을 서술하는바 모든 진리 또는 진리 측면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언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 교회가 도달한 이런 단계에서 말씀의 전체 가르침이 인간 판단이라는 저울로 달아보건대 말씀은 구원의 수단으로서는 미미한 가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을 경멸했다거나 업신여겼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잘라 말할 필요는 없고 단지 말씀의 가르침이 지닌 본질적인 가치가 실제 응용에서 업신여겨져 실제 응용에서의 중요도가 희박해졌다는 말이다. 성경의 가르침이 과소 평가될 경우 성경은 이론적으로 경시되지만 성경의 실제적 가치가 사라질 경우 성경은 미신적 숭배의 대상이 되는 일이 흔하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전통을 핑계삼아 무익한 말씀으로 만들어 버린데 대해 질책하셨을 그 때에도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바깥쪽으로는 대단한 숭배의 대상이 되어있었다. 이런 경우의 숭배는 성경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책이라는 수준, 생명을 주는 영이 아닌 생명을 죽이는 글자의 수준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섭리적으로 자비를 베푸셔서 인간들이 자기 견해의 평가에서 슬기롭고 신중하다고 떠들어 댈 경우 말씀 속의 내면적 진리들을 그들 눈에서 감추어 있게 하신다. 그들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생명의 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신다. 그들이 모독해 버릴지 모르는 것에 접근하는 것이 더 이상 적절치 못하면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밀과 보리의 가격을 선포한 소리가 “기름과 포도주는 다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를 주고 있다. 밀과 보리는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 있는 선과 진리들이다. 기름과 포도주는 말씀의 영적 의미에 있는 선과 진리들이다. 주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하셔왔듯이, 교회가 성경의 글자적 진리의 가르침을 뒤집고 무력화시킬 때 그 속의 영적 진리들은 손상되지 않게 남아있도록 언제나 설비해오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인들이 그분의 겔옷은 찢어 나누어 가졌지만 그분의 속옷은 제비를 뽑아 가짐으로 통째로 보존되어졌다. 만일 말씀의 내면의 원리들이 뒤집혀진다면 말씀을 통한 주님과 의 연결은 잘리어져 구원은 불가능해진다. 밀과 보리는 낭비되어 바깥쪽 생활은 생명의 빵이 없어 고통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름과 포도주는 남아 있어 영혼의 안쪽 생명만은 지탱시켜준다. 그러므로 어떤 파괴가 있다해도 말씀의 생명되는 부분은 보존되도록 장치해두셨다는 말이다.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 말아라. 그들은 그 이상 더 죽일 수 없다.” 글자 의미는 말씀의 육체 측면에 해당된다. 인간은 이것만을 뒤집거나 파괴할 수 있을 뿐이다. 생기있게 해주는 영은 순수해서 지상적 목적이나 관점을 아무 것도 아니게 여기고 싶은 이들에 의해서만 식별된다.

7.8.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넷째 생물이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푸르스름한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옥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의 사분의 일을 지배하는 권한 곧 칼과 기근과 죽음,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 창백한 말과 그 승마자란 생명의 책으로서의 말씀에 소속된 모든 것의 소멸, 말씀이 밝히 알리는 생명을 주는 원리들의 죽임을 말한다는 것을 누군들 알지 못할까? 푸르스름함(pale)은 푸른 풀로서의 녹색을 뜻한다 (계시록8:7). 이 단어는 처음 나올 때의 연한 싹을 뜻하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졌다. 그러므로 이 말의 색깔은 기독교회 초기에 있었던 생명에 관한 생각이 감금되어 더 나은 성장과 발달이 방해되었다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상상해 볼 수 있게 한다. 만일 우리가 이를 앞 절의 밀과 보리와 연결해 생각해본다면 생명의 박탈을 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을는지 모른다. 다시 말해 그 땅의 옛 곡식이 낭비되었을 뿐 아니라 약속된 수확의 첫 싹틔움도 파괴되었다는 말이다. 밀과 보리가 혈값에 팔리우고 이제 인간의 영혼은 기근으로 허덕거린다. 이 얼마나 끔찍하게 우리 앞에 표현된 형상인가! 이 말의 승마자는 죽음이었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이해가 소멸되면 이는 곧장 교회를 죽음으로 몰아세운다. 인간마음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뒤집히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 이런 뒤집는 것은 인간을 지혜롭게 하는 진리가 박탈되는 것만을 단순히 뜻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교회나 교인들 마음에 어리석게 하는 오류를 주입시키고 대신 그들 속의 선하고 참된 것을 죽이기 까지 한다. 지옥이 죽음 뒤를 따르고 있다. 그 이유가 영적 죽음은 영원한 죽음의 선구자 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의 사분의 일을 죽이는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땅이란 교회이다. 사분의 일이란 25%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말한다. 사분의 일은 숫자 4와 상징적 의미는

동일하다. 그리고 4는 2처럼 선함과 진리, 이타애와 믿음이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땅의 사분의 일을 지배하는 권능을 가진다는 것은 선함과 진리 사이의 결합을 파괴하기 위해 이 두 개의 필수적 원리를 지배하는 권능을 가졌다는 말이다. 이 승마자가 가진 권한이란 칼, 즉 왜곡된 관념으로 죽이는 것, 배고픔, 즉 천국적 지식이 결핍되게 해서 죽이는 것, 죽음 즉 이타애와 믿음이 소멸되게 해서 죽이는 것, 땅의 짐승 즉 육의 욕망을 수단으로 죽이는 것이다. 이런 광경을 인간으로 볼 수 있게 부른 거룩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았다. 독수리는 총명을 의미한다. 총명은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존재한다. 이 구절의 상태는 이것과 정반대, 즉 말씀의 이해가 파괴된 상태이다. 이런 상태일 경우 교회 상태는 누가복음에 묘사된 모습,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것과 같다.

말씀을 이해하는 교회의 상태에 관한 위 네 개의 묘사는 대단히 교훈적이다. 이는 이 예언서에 위치한 측면에서나 그 의미로부터서나 대단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들은 진리가 순수하게 알려지고 그 힘이 발휘되었던 교회 초기 시대에서 말씀이 이해되었던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첫 번째 상태였다. 교회의 두 번째 상태는 교회가 최초의 순수성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라기보다는 사랑과 이타애로부터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시작되었다. 악이 오류를 인도하는바 교회 하강의 다음 단계는 참된 교회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이는 영적 삶의 본성과 수단을 잘못 이해하는 쪽으로 유도한다. 마지막 단계는 악과 오류가 선과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 결과 말씀의 모든 참된 이해성이 상실된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지상에 안주하여 황폐만이 드넓게 퍼진다. 이런 묘사가 사건의 발달과 관련되는 만큼 위 묘사들이 예언의 시작 초기에 놓여진 것이다. 그 이유가 교회 속의 악과 재난 같은 모든 것이 성경 속의 선과 진리를 썩게 하는 시작의 씨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이 악한 경향성과 그 실재를 좋아하는 쪽으로 해석되는 만큼 영적 빛과 생명은 교회로부터 이탈되고 어둠과 죽음이 그 자리를 침공해 들어오되 교회 또는 참된 종교의 씨가 소멸되어질 때까지이다. 이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교회가 도착한 종말이다.

9. 다음 봉인이 떼어짐도 우리가 생각해오던 상태의 연속임을 보여준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이 죽었고 황천(Hades)이 사람의 사분의 일을 삼켰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이 죽임을 당해 제단 아래 있고,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하고 남용됨이 네 말의 환상으로

묘사되었는데 제단 아래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패함이 만연하던 때에 말씀을 붙잡고 증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말해지고 있다. 죽임을 당하고 갈구하는 영혼이 속박되어 있는 제단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곳, 성경에서의 황천, 초기 교회의 황천이라는 영계의 구역 안에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구역은 연옥(purgatory)이란 의미로 처지면서 그 의미가 부패되었다. 이 중간 상태는 인간이 복종해야 하는 법칙이나 상태의 변화는 갑자기 결과되는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있어진다는 법칙의 결과로 있게 된 것이다. 이 중간 상태는 수습받는 상태가 아니라 준비하는 상태라고 말해야 타당하다. 수습 기간(probation)은 이 세상의 삶에서 끝난다. 그래서 죽음에 있었던 영혼의 상태는 영원히 계속된다. 이 중간 상태에 영혼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도록 한 이유는 제각기 자기를 통치했던 사랑이 결정하는 바대로의 본질적 상태와 일치 않는 모든 것은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적 생명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 중간 상태에서의 작업은 각자의 내적 측면에 맞도록 외적인 것을 가져다 놓는 것이다. 이것의 하나됨이 천국 또는 지옥이다. 정상적 조건이라면 이런 하나됨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경우 그 과정은 오래 걸려 때로 감금된 상태에 있는 듯 보이기까지 한다. 이런 경우의 발생은 지상의 교회가 부패되었을 때이다. 진리 또는 오류, 선과 악까지도 교인들의 마음 안에서 혼합되어 있어 통상의 조건이라면 그들의 선과 악, 진리와 오류는 분리될 수 없다. 밀과 가라지의 경우 같이 그것들은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야만 한다. 이것은 일반적 심판이다. 이런 심판은 흔히 세간에서 말하는 세상 끝 날이라는 것, 곧 각 교회 시대의 끝말에 거행되어 왔다. 심판의 때가 가까워 질 즈음 준비는 완성을 위해 있어진다. 이 준비의 필수적인 부분은 모든 이가 심판되는 책의 열림이다. 이 열림은 일곱 봉인으로 봉해있었던 오류가 노출되고 제거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난다. 하나님의 책이 열려짐과 비례하여 인간의 마음과 삶에 관한 책 역시 열린다. 그 이유가 이 것이 봉해지고 열리는 것은 저 것이 봉해지고 열리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변화의 시작이 있어지면 중간 상태에 있는 선한 자들은 자신이 포로된 상태임을 보고 느낀다. 그 이유가 그들은 자기들을 짓누른 영적 속박이 제거되는 동안에 열린 진리의 힘을 보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들이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이다. 그들이 있는 곳은 거룩하고 안전하다는 두 측면을 암시한다. 예배의 필수인 거룩한 상태를 수단으로 그들은 보존되고 보호되었다. 이들이 순교자들의 영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증언했던 탓에 영적으로 죽임을 당해왔던 사람들의 영혼을 뜻한다. 이런 고통을 신실한 자들에게 가져다 준 교회의 상태는 말씀을 뒤집음에서 야기된다. 말씀 자체의 진리를 고수해온 이들은 또 다른 복음서를 창작하듯 꾸며낸 자들의 반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예수를 증거한 이들은 또 다른 구세주를 채택한 이들의 반대로 고통 당한다. 그 이유가 마지막 시대에 거짓 예언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가능만 하면 뽑힌 자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만일 주님 스스로 고통받으신 것은 그분의 집안 식구들도 고통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방식에 따라 고통받는다. 그분은 말씀으로서 고통받으셨다. 그분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과 함께 했던 말씀 측면에서가 아니라 육을 만든 말씀 측면에서 고통받으셨다. 다시 말해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 고통받음이 아니라 인간 본성으로 옷입은 가상의 신성한 진리(truth Divine) 측면에서 고통받으셨다. 제자들 안에서도 순수한 진리는 시험받거나 유혹되어 질 수 없고 단지 가상적인 진리만이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런 것들만이 거짓 교리를 수단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몸이다. 그러나 신실한 자 안에 있는 순수한 진리와 선함의 영혼은 언제나 생존한다.

10. 이 영혼들이 “큰 소리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평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 주시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신성한 사람으로서의 이들 안에서 믿음을 견지해온 제단 아래의 영혼들, 이 영혼과 반대되는 품성을 지니고 이들을 죽였던 이들 모두 중간 상태에서 체류하고 있다. 거기서도 반대적인 품성은 그대로 있어 신실한 자들과 대치된다. 한편 신실한 자들은 유일한 하느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히 예배하는 제단 아래에서 피신처를 발견해 안전히 거주하고 있다. 이 거룩한 자들이 부르짖은 큰(loud or great) 소리란 사랑 또는 선함의 소리이다. 그들은 주님께 “얼마나 오래 동안?” 이라고 부르짖었다. 자포자기하는 절규의 외침은 시험이 극도에 달했다는 것을 표현한다. 그 이유가 모든 영적 시련에는 깊은 고독감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이런 시련에 진입하면 마치 주님은 그분의 종들이 받는 고통에 전혀 무관심하신 듯 우리에게 비쳐진다. 그러나 극에 달하는 상태가 하느님에게는 기회의 때이다. 그렇게 허용될 때 자기 희생은 더 커질는지 모르고 그로부터의 구원은 더 완전해질는지 모른다. 이런 상태에 져버린 자들, 그들의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절대적 자포자기로까지 이르고 있다해도 주님을 신뢰함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인데도 주님께 부르짖되 그분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공정 자체이신 분께 아뢰는 것, 거룩함과 진실이 공정의 요소임을 알고 그분께 아뢰는 것이다. 그들은 피로운 나머지 이렇게 소리친다. “왜 당신께서는 심판 않으시고 우리의 피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이는 단어 자체로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이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바램을 표현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피가 복수할는지 모른다고 묻고 있다. 피를 뿌림은 그들이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 온 진리에 제공된 폭력을 의미한다. 땅 위에

거주한 이들에게 그들의 피를 복수한다는 것은 교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향적으로 악했던 중간 상태에 있는 이들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11. 이 간구에 대한 첫 응답이다. “그들은 흰 두루마기 한 벌씩을 받았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순수하고 거룩한 진리를 받았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다. 양심을 위해 고통받았던 이들은 교회 안에 진리가 부족해서 고통받은 것이다. 이 부족함이 지금 보충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직 아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다 죽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잠시 쉬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우리로 주목하게 하는 놀라운 증거가 이 구절에 있다. 즉 환난은 그것을 야기시킨 불행이 다 찰 때까지 끝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가 상처를 곁에서만 감아 놓게 되면 질병이 더 오래가고 더 악화될 수 있는 경우와 같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인간이 보듯 보시지 않는다. 그분은 때와 시기를 아신다.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상태는 모두 충만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양쪽 모두의 충만은 최고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선과 악이 동시에 분리되고 제자리를 할당받는다. 심판을 포함해서 주님의 모든 일은 자비 뿐만 아니라 공정을 바탕으로 하는 신성한 질서의 법에 의거 이루어진다. 하느님의 전능이 보셨는바, 모든 진리와 선함이 교회 안에서 파괴되리라는 것, 그런 다음에야 끝장이 나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탄원자의 동료 종과 형제로 의미된 그들의 파괴가 그들이 죽는 것에서 의미되고 있다.

12-14. 여섯째 봉인이 떼어짐은 끝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심판 자체의 끝이 아니라 교회의 끝 또는 교회가 완전히 전복됨을 보여준다.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삼베옷처럼 검게 변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들은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무화과나무의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 버렸고 제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산이나 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 구절의 묘사가 상징적이라는 정도는 누구라 할지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전이 요엘 2장 31절에 있는데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유대 교회의 종말을 두고 적용했다(사도행전2:20). 어쨌든 이 구절이 심정 상태와 관련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참으로 이 구절이 기독교의 종말에 관련된다는 것 역시 의심할 바 없다. 땅이 교회를 상징했듯 발광체는 교회를 유지 존속 시켜주는 수단인 천적 권능(the celestial powers)을 상징한다. 해가 검게 되고 달은 핏 빛같이 되며 별들이 땅으로 소나기 퍼붓듯 떨어진다. 거룩한 언어에 의하면 해는 하느님을 사랑함, 달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 별은 하느님과 천국에 관한 지식을 상징한다.

본문을 보면 우선 큰 지진이 있다. 이는 교회의 온전한 전복을 뜻한다. 그 다음 발광체가 어두워지고 아래로 떨어졌다. 즉 사랑, 진리, 지식이 말살되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발광체들은 어두워졌다고 말할뿐 아니라 그 외관이 비교될 수 있게 묘사되고 있다. 해는 머리털로 짠 삼베옷처럼 검게 되었다. 그 이유가 삼베옷(sackcloth)은 죽은 자 또는 죄로 인해 슬퍼하는데 걸치는 옷이고, 머리털은 가장 외적인 진리, 즉 감각적 수준의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해가 머리털로 짠 삼베옷같이 검다는 것은 교인들에 의해 생산된 어둠이 육욕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되어졌다. 달이 피 같다고 말해진 이유는 10절에서 이미 살핀 바같이 누군가가 죽어지듯 피라는 폭력이 가해진 것, 즉 생명이 박탈된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별이 설익은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진다고 말해지는 이유는 설익은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미완성의 선을 뜻하는바 마음이 광복한 추론에 의해 심하게 동요될 때 설익은 선은 땅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발광체들이 소멸될 때 천국 자체는 두루마리를 말 듯 사라져버린다. 사랑과 진리가 어두워질 때, 지식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될 때, 영적 마음, 천국이 놓여졌던 마음은 단혀지는바 이것이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진다고 의미되고 있다. 마음이 책으로 비유되는데 이는 5장과 20장의 모양새와도 일치한다. 하늘이 이탈되자 모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움직여졌다. 산과 섬이란 자연적 마음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원리들이다. 선함과 진리, 사랑과 믿음이 기독교인의 마음 안에서 자기 자리를 더 이상 갖지 못할 때 자연적 마음 속의 사랑과 믿음은 그 자리에서 움직여져야 한다. 그리고 무질서가 황행하고 파멸이 그 뒤를 잇게 마련이다.

15-17. 사멸의 이런 상태에서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성들과 부자들과 세력자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틈에 숨었습니다.” 여섯째 봉인이 떼어져 밝혀진 사람들은 앞에서 봉인이 떼어져 보여진 이들과 매우 다르다. 이들은 심판자의 얼굴을 피하려고 동굴과 바위로 도망하고 있다. 제단 아래 있던 이들은 그분께서 심판하러 오시기를 간구하고 있다. 이들은 은유하고 압박 받았던 이들이다. 이 구절의 사람들은 신하와 하인을 거느리는 압제자 또는 고관들이다. 영적 의미에서 왕은 진리가운데 있는 이들, 고관(great man)은 선 가운데 있는 이들, 부자는 진리의 지식을 지닌 이들, 장성은 선에 관한 지식을 지닌 이들, 세력자(mighty man)는 학식 있는 이들, 노예는 타인으로부터 알고 있는 이들, 자유인은 자기 스스로부터 알고 있는 이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상은 순수한 측면에서의 의미들이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왕과 기타 다른 사람들은 반대적 측면에서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류는 진리의 자리를, 악은 선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에 관한 지식은 뒤집혀져있다. 학식은 왜곡된 것을 확증하는데 채용된다. 사람들,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이런 반대적인 것들을 가지려 그것을 사랑한다. 이런 모든 것이 산의 동굴과 바위에 자신들을 숨기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산과 바위가 그들 위에 떨어져서 옥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을 피하고 어린 양의 진노를 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선율과 공포의 이런 상태는 주님 측면에서의 어떤 분노나 심각함 때문에 야기되는 게 아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 지혜 자체이다. 그래서 인간의 자녀가 누구이든 고통받게 하지 않으신다. 사악한 자를 죽이는 것은 악이다. 하나님의 순수함과 빛에 자기들 상태를 대치시킬 때 고뇌를 유발하는 것이다. 악의 고통은 악이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다투려 대들 때 발생된다. 심판 때에 이런 식으로 악한 자는 처신한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은 정의의 태양에서 오는 광선을 직접 받지 않고 피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산의 바위와 동굴에 자신을 숨긴다. 이 산들은 제자리를 이탈한 산과 같은 산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제 위치를 이탈할 때 그 사랑은 자아를 사랑함이 된다. 자아사랑이라는 산의 동굴과 바위란 그 사랑에 소속된 악과 거짓들이다. 이런 것들 안에서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도피처를 찾으려든다. 그래서 그들은 산과 바위들더러 자기들 위에 무너져 내리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자기들을 산산조각 내어 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숨겨달라는 것이다. 참으로 진정한 것은 사악한 자는 스스로 지옥으로 뛰어든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지옥의 기운이 자기들 본성과 일치하고 천국의 기운은 자기들 본성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은 천국적 스타일의 마음을 지닌 이들에게만 천국일 뿐이다. 천국과 지옥은 각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분리되는 것 이상 더 아니다. 천국이 악마에게는 고통받는 곳이 되듯 천사에게 지옥은 마찬가지로 결과가 온다. 선한 자에게 기쁨을 만들어 주고 악한 자에게 고뇌를 줄 수밖에 없는 곳이 천국의 일상적 분위기이다. 그래서 천국적 분위기는 신선한 빛과 열을 더 받지만 악한 자가 그렇게 시도할 경우 더한 고뇌만이 가증될 뿐이다. 사악한 자가 신성한 태양의 영향으로부터 느끼는 괴로움을 두고 그들은 하나님이 반대하시고 분노하신 탓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숨고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기를 바란다. 악한 자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대상은 두 가지, 신성한 사랑과 지혜, 또는 신성과 신성한 인성이다. 이것이 옥좌에 앉으신 그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분노로 의미되고 있다. 그들에게 공포를 주는 두 대상 중에서도 어린 양의 진노가 더 큰 것같이 보인다. 예수는 불신앙의 공포에 더 큰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상상될지 모른다. 이에 못지 않은 게 그분의 구원해 주시는 자비를 남용해 온 이들이다. 지금 그분의 현존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 “그분의 큰 진노의 날이 닥쳐왔다.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왜 그분의 진노의 날일까? 예수가 진노하실 수 있을까? 이는 신성한 분노가 상대적일뿐 절대적이 아님을 강제로 보이시는 게

아닐까? 어린 양의 진노는? 그럼에도 악한 자에게는 이런 것이 진짜이다. 그 이유가 그분의 순수한 사랑과 무한한 은유에 자기 상태가 상반되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소름끼치는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사랑에 자기 사랑이 더 모순될수록 그들은 그분이 더 진노하신다고 보게 된다. 그 결과 더한 고통을 느낀다.

7

종종 주목해온바, 계시록의 형상들은 그 상당 부분이 이스라엘교회로부터 취해졌다는 점이다. 유대사회에 있는 상징성이 기독교회의 미래 상태에 관한 마지막 예언에 옷을 입히고 있다. 유대사회는 일종의 예징(type)이요 그림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계시록의 저자는 이 책의 상징적 품성의 증거로서 유대사회의 그림자와 예징을, 동시에 이 책의 해석의 열쇠로 주고 있다. 본 장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열 두 지파라는 구약성의 처방 중 한 부분을 가져다 놓고 있다. 한편 거기에는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의 군중이 있다. 이 두 개의 구분되는 집단은 기독교회에서와 이방인들 사이에서 구원된 이들을 표현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출신으로 도장을 받는 십 사만 사천 명은 이 책의 예언 중에서도 매우 흥미롭고 교훈적인 부분이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의 준비 과정 중 하나이다. 계시의 많은 부분에 악한 자의 상태가 열려져 묘사되지만 본 장은 선한 자의 상태를 빛 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 선한 자들이 천국에서 승리한 교회의 양우리로 모여지는 결정의 날까지 신성한 보호의 영역(sphere) 안에 그들을 데려오고 있다. 이것이 네 바람을 잡는 것으로, 열 두 지파들이 날인 받는 것으로 의미되고 있는데 아래에서 살핀다.

1. “그 뒤에 내가 보니 땅 네 모퉁이에 천사가 하나씩 서서 땅의 네 바람을 제지하여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천사란 천사들이 있는 천국 전체를 표현하고 땅의 네 모퉁이란 영들의 세계 전체를 표현한다. 이 구절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천사들이 천국으로부터 하강하는 모습을 읽게 된다. 그리고 지옥으로부터서도 영들이 승강하고 있다. 마치 양쪽이 이 중간 영역의 소유권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경우는 심판이 임박할 때에 더욱 그렇다. 천사들은 모든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오기를 바래고 악령들은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내리고 싶어한다. 천사들은 정의로운 자들을 보호할 방패를 그들 주위에 치도록 주님께 의해 고용되어져 있다. 그럼에도 이 천사들은 각 사람 안에 있는 선한 것을 통해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만큼에서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마에 하느님의 도장을 받게 되면 어떤 악한 권세도 그들을 해칠 수 없다. 천사들이 네 바람을 제지하는 모습은 천국이 발휘하는 기능, 그리고 심판 아래를 통과해 가는 선한 자에 관련된 천국의 용도를 묘사하고 있다. 바람이 하느님의 영을 상징한다는 것은 일반화된 사실이다. “바람이 불어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같다” (요한3:8). 예제키엘서를 읽어보면 (37:9,10), 네 바람이 죽은 자들을 숨쉬도록 불려지고 죽은 자가 바람을 받아 살아나 제 발로 서서 큰 무리를 이루고 있다. 시편 104편 4절을 더 참조하면, “바람을 시켜 명령을 전하신다..” 오순절에 성령은 돌진하는 권능 있는 바람같이 천국으로부터 왔다. 그러나 사도들은 권능으로 쏟아지는 성령에 견디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도장이 찍히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참으로 성령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들은 아직 그 권능의 힘에 견뎌낼 수 없었다. 따라서 네 바람은 땅이든 바다가든 어떤 나무에든 붙지 않도록 붙잡혀 있어야했다. 대략적인 의미에서 볼 때 땅과 바다는 영들의 세계 전체이다. 영적 의미에서 그것들은 천국과 교회의 내적, 외적 측면이다. 추상적일 경우 그것들은 장소가 아닌 상태를 뜻한다. 다시 말해 도장이 찍혀질 이들의 의지와 이해성, 또는 선함과 진리에 관한 그들의 상태를 뜻한다. 그런데 지상의 수많은 물체 중에서 왜 나무가 발탁되어 이 구절에 기록된 것일까? 그 이유는 자연의 이 고귀한 산물은 마음에서 자라 나오는 고상한 것, 인지와 지각(cognition and perception)에 대한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 바람을 제지하라고 네 천사에게 내린 명령은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오는 신성한 진리의 유입을 온건해지게 하라는 명령, 그리하여 이런 원리를 지닌 이들 위에, 즉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원리를 기초로 비록 희미하지만 선함과 진리에 관한 어떤 지각을 가진 이들 위에 너무 강력하게 신성한 진리가 실시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명령이다.

2.3. 네 천사가 네 바람을 제지하는데, 요한이 “또 보니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 계신 하느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소리로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아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 천사의 품성은 다른 천사들과 다르다. 앞 절의 천사는 땅 위 네 모퉁이에 서 있는데 이 천사는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고 있다. 앞 절의

천사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천사는 그분의 본성 속의 두 필수 요소인 지혜와 사랑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현하고 있다. 네 천사는 신성한 지혜를 표현하고 해 돋는 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는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네 바람을 조절하는 천사들은 주님의 지혜를 대표하고 그 도구들이다. 그리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천사는 주님의 사랑을 대표하고 그 도구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는 사랑이다. 그 이유가 사랑이 생명이요, 주님은 그분을 사랑함을 원리로 삼는 이들 안에서만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온 천사가 큰 소리로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말라” 라고 외쳤다. 이미 언급했듯 네 천사는 신성한 지혜를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주님의 본질적 속성이 실행되는 방법의 또다른 예를 보게 된다. 사랑은 지혜를 통해, 지혜는 사랑으로부터 행동한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상징물인바 그들은 모든 악한 영향력에서 진리와 사랑을 원리로 하는 이들이 안전하도록 도장찍을 때까지 그들 위에 작용한다.

4. “그리고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을 받은 자들의 수효가 십 사만 사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는 지상적 차원이 아닌 영적 차원의 이스라엘을 뜻한다. 그들은 주님의 참된 교회, 또는 지상의 교회에서 주님을 성실히 섬겼던 이들을 상징한다. 이제 그들이 천국에 있는 교회로 영접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가 주님의 교회를 뜻한다고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교회 자체가 뜻하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교회가 추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이 구절이든 성경 어느 부분에서이든 교회에 관한 참된 진리를 모르게 된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원리들로 구성된다. 또는 이 원리를 자기 삶의 안내자로, 생명으로 만드는 이들로 구성된다. 이스라엘 열 두 지파는 교회 속의 모든 원리, 또는 인간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모든 품위(grace)와 덕행(virtue)을 표현하고 의미한다. 이것들이 개인(person)을 뜻한다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으나 단지 이 원리로 삶을 지탱해가고 자기 심정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개인들이라는 말이다. 교회의 이런 원리는 단순해서 몇 가지에 불과하다. 이 원리에는 두 계명,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함유되어있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이 걸려 있다. 법과 예언은 가르치고 복음은 이를 확증한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의 폐지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었다. 그분께서는 율법을 확대되게 하였고 존경받게 하셨다. 다시 말해 율법을 한쪽으로 젖혀 놓으신 게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에 의해 더 높여지고

더 존경받게 하셨다. 이런 사항이 교회를 구성하는 원리이다. 이 원리들이 교인들에 의해 각기 다른 등차에서 받아 실제화 되고 있다. 그리하여 교회를 구성하는 이들의 상태와 품성을 다양하게 생산한다. 천국 안에서 조차 조건과 징조를 다양하게 한다. 천국은 어중이떠중이들의 군중이 집합된 몸체가 아니라 완전하게 조직된 몸체여서 그 안에서 각 멤버는 제 위치를 가지고 그 위치에서 자기에게 적합한 기능을 발견하고 그 기능을 효과 있게 하여 제나름에 맞는 최고의 행복까지 발견한다. 우리의 육체와 같이 천국의 경우도 일반적인 나뉘고 세부적인 구분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도장 받은 열 두 지파의 설명에서 살핀다. 그 이유가 이들이 교회와 천국을 상징하고 교회와 천국은 교인 안에 교회와 천국의 원리를 지닌 이들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도장을 받은 숫자는 그야말로 신비적이다. 이 숫자는 양을 말한다기보다 질을 언급하고 있다. 숫자 열 둘은 지파들을 하나씩 점검하든 전체로서 점검하든 소속된 모든 멤버들의 뿌리이다. 이 숫자는 3과 4로 산출된다. 숫자 3은 진리와 4는 선함과 관련을 갖는 숫자이다. 이 두 숫자가 곱해져 생산된 숫자는 각 숫자가 지닌 종교적 원리의 하나됨을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도장 받은 숫자는 동일한 숫자이다. 비록 각 지파별로는 그 숫자가 아주 다르지만 결과는 같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지상의 교회의 참된 멤버이든, 천국의 교회 멤버가 되든, 진리와 선함 또는 믿음과 사랑은 그들 안에서 하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5-8. 이제 지파들로부터 도장 받은 144,000(12*12,000)명이 열거되고 있다. 계시록에서 언급되는 열 두 지파는 구약성서의 열 두 지파와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파 자체가 다른 경우와 명명되는 순서가 다른 점이다. 모든 시리즈에서 처음과 마지막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유가 이 양 극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품성을 주기 때문이다. 요한이 열거한 지파의 전체 시리즈는 유다로 시작해서 베냐민으로 끝난다. 유다는 사랑이라는 원리를, 베냐민은 행동에 있는 진리, 또는 사랑에 결합된 진리라는 원리를 표현한다. 유다와 베냐민 사이의 이런 연결은 역사적으로도 연결을 맺고 있다. 솔로몬의 왕국이 쪼개져 두 왕국으로 분열될 때에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유다왕국을, 나머지 열 지파는 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했었다. 도장 받은 열 두 지파로 형성되는 새 천국은 교회의 근간을 형성하는 원리로부터 그 품성을 얻는다.

천국의 형성에도 그 형성의 몇 가지 등차를 통해 내려오는 똑같은 질서의 반복이 있다. 그 이유가 처음 수준의 것은 그것을 존재시킬 더 낮은 수준의 것을 그 자체 재생산하는데 마지막 것, 기초가 되어줄 것을 생산해 거기에 안주할 때까지 계속된다. 시리즈의 각 수준에는 세 가지 구성요소가 있다. 철학적 언어로 이것들은 목적, 원인, 결과이고, 영적 언어로 사랑, 지혜, 선용,

또는 선함, 진리, 일이다. 지파를 셋씩 추켜들면 그들 모두는 이 세 원리들과 관계된다. 천국은 두 왕국으로 구성된다. 각 왕국에 내적 부분과 외적 부분이 있다. 첫 여섯 지파는 주님의 천적인 왕국을 형성하는 이들을, 나머지 여섯 지파는 그분의 영적 왕국을 형성하는 이들을 묘사하고 있다. 세 지파씩을 취하면, 첫 세 지파는 천적 왕국의 내적 부분을 구성하는 이들을, 둘째 세 지파는 천적 왕국의 외적 부분을, 나머지 지파는 영적 왕국의 내적,외적 부분을 구성하는 이들이다.

여기서 헤어지는 열 두 지파의 세부적 의미는 천국의 구성과 품성에 관해 빛을 드리울 것이다. 마치 열 두 지파로부터 나온 도장 받은 자가 표현하는 것과 대등하다. 첫 세 지파는 유다, 르우벤, 가드이고, 두 번째 세 지파는 아셀, 납달리, 므나세이다. 이들은 주님의 천적 왕국의 내적, 외적 부분을 표현한다. 이 왕국의 내적 부분은 주님을 사랑함이고 외적 부분은 상호간의 사랑이다. 주님을 사랑함이 유다로, 상호간의 사랑이 아셀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랑은 각기 배우자를 가지고 각각의 결혼에는 열매가 있다. 주님을 사랑함의 배우자는 지혜이고 그 하나됨의 열매는 선용(use)이다. 상호간의 사랑의 배우자는 지각이고 그 하나됨의 열매는 선한 일이다. 이타애의 배우자는 믿음이고 그 하나됨의 열매는 순종이다. 자연적 애정의 배우자는 지식이고 그 하나됨의 열매는 의무이다.

열 두 지파에서 관조되는 몇 가지 국면이 있다. 천국 전체는 세 천국과 두 왕국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전체 천국과 교회는 내적, 외적 부분의 구분이 있다. 천국이 두 왕국을 구성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열 두 지파는 두 개, 즉 각 여섯 지파씩 나뉘는데 첫 여섯 지파는 천적 왕국을, 나중 여섯 지파는 영적 왕국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체 천국을 구성하되 세 개로 세분된 천국을 표현하기 위해 셋씩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세 지파는 가장 높은 천국을, 둘째 세 지파는 중간 천국을, 세 번째 세 지파는 가장 낮은 천국을, 마지막 세 지파는 주님과 각 천국, 세 천국들 끼리를 연결하는 매체를 표현한다. 이 마지막 세 지파 중에서 즈블룬은 가장 높은 천국과 주님, 요셉은 중간 천국과 주님, 베냐민은 가장 낮은 천국과 주님을 연결하는 매체를 표현한다. 내적 부분과 외적 부분의 보편적 구분을 더 살펴보면 거기에는 천국에 있는 교회와 지상의 교회, 기독교와 이교도 모두에서의 내적 부분은 열 두 지파로, 외적 부분은 “아무도 그 수효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군중”으로 구성된다. 각 천국이 세 지파들로 표현되는데 그 이유는 각 천국마다 세 개의 일반적 원리 또는 요소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각 시리즈에서 첫 번째로 명명되는 지파는 의지에 소속된 사랑에 관한 어떤 원리를, 두 번째로 명명되는 지파는 이해성에 속하는 지혜에 관한 어떤 원리를, 마지막에 명명된 지파는 생활에 소속된 것, 의지와 이해성으로부터

과생된 사용함(use)에 관한 어떤 원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 시리즈는 그 자체 충만하여 완성을 이루고 있다. 각 천국마다 의지와 이해성, 삶에 소속된 원리들로 구성되고 그렇게 존재하나 각 셋은 완전함의 수준에서 다르다. 가장 높은 천국의 천사들에게 존재하는 사랑, 지혜, 사용은 그 아래 천국의 천사들에게 있는 것들보다 더 완전하다. 그들 사이의 차이는 너무나 커서 그들은 서로 교통할 수 없어 매개적 천사, 즉 양 천국의 품성을 갖고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만 교통된다. 각 천국에 완전함의 수준이 있되 이 수준은 너무나 많아 마치 빛과 열이 그 중심으로부터 주변으로 뻗어갈 때 점차 약해지듯 가장 위대한 완전으로부터 가장 미미한 완전으로 줄어져 간다. 그러므로 이 수준들의 차이는 감지 할 수 없어 연속적이라 부른다. 그런데 천국들끼리 라는 점에서는 매우 다른 것이 있다. 그들은 연속적인 것을 수단으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구분되게 해주는 불연속(discrete)등차를 수단으로 한다. 따라서 서로서로 돌진할 수 없고 오로지 서로간에 상응만이 존재한다.

따로 구분되는 세 천국의 존재는 인간 마음 안에 세 개의 구분되는 수준들이 있는 결과에서이다. 그 이유가 마치 웅대한 사람(the Grand Man)같이 천국은 각 개인 안의 천국과 유추된다. 인간 마음 속의 이런 수준들은 세 천국에 응답하도록 거듭남을 수단으로 계속적으로 열리고 발달된다. 맨 처음 또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듭남이 열리면 그 사람은 첫 천국 또는 가장 낮은 천국의 거주민이 되고 둘째 수준이 열리면, 중간 천국의 거주민이 되게 만들어주고, 셋째 수준이 열리면, 가장 높은 천국의 거주민이 되게 한다. 이렇게 수준들이 몇 개로 열리고, 그에 상응되는 천국에 들어가 그 천국을 형성하는 이들이 셋 씩 취합된 각각의 지파들로 표현되어져 있다. 이 지파들이 계속적으로 도장을 받는 본문의 열거는 이 상태에 상응하는 이들이 받아들이는 것, 가장 높은 상태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낮은 상태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가장 높은 천국 안에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거듭난 사람들, 가장 높은 천국의 품위를 달성한 이들, 즉 주님을 무엇보다 먼저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다. 말씀 안에서 이들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린다. 그들은 순진인 상태, 게다가 이 상태가 무지의 순진이 아닌 지혜의 순진 가운데 있다. 그들이 사랑과 지혜의 가장 높은 완전함 가운데 있듯이 그 사용 역시 가장 높은 완전함 가운데 있다. 모든 천국적 품위에 필수인 사랑, 지혜, 사용은 도장 받은 첫 세 지파, 유다, 르우벤, 가드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둘째 천국 안에는 거듭나아 왔으나 가장 높지는 않았던 그 다음 수준, 이웃을 사랑함이라는 천국품위, 즉 주님을 사랑함과 매우 흡사한 품위를 달성해 왔던 이들이 있다. 말씀 안에서 이들을 두고 하느님의 친구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는 이들을 구별지어 주는

특성인 주님께 온전히 의지함과 순진은 가지고 있지만 그분께서 명령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기쁘게 행하는 특성인 주님과 친구적 관계를 맺어왔던 이들이다. 이웃간의 사랑의 지적 배우자는 총명이다. 총명은 지각(perception)을 발생시키는 지혜보다 하위이지만 추론을 발생시켜 준다. 이 품위의 하나됨으로 맺어지는 열매는 선한 일이라는 덕행(virtue)이다. 이 세 가지는 달리 표현하면 이타애, 믿음, 일들이다. 이들이 아셀, 납달리, 므나쎄로 표현되어 있다. 최말단, 가장 수준 낮은 천국은 순종가운데 있었던 이들이다. 순종이라는 삶의 원리는 의무감이다. 이들이 제 의무에 해당되는 것을 행하기 위해 그들은 제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한다. 이에 관한 지식이 그들에 영감을 불어 넣어주는 의무감의 배우자에 해당된다. 이 하나됨의 열매란 알게 된 자기 의무에 충실함이다. 이것들이 시므온, 레위, 이싸갈로 의미되고 있다. 위 세 가지 일반적 상태들, 그들에 상응하는 세 천국들은 너무나 구분되는 바 그들은 각기 결합해주는 매체를 수단으로 서로간에 교류할 수 있을 뿐이다. 본문의 열 두 지파에 단 지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이유가 무엇일까? 단 지파는 과거 성전으로부터 가장 먼 북쪽 경계 지역의 땅을 할당 받았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가장 먼 외적 품성을 표현한다. 단 지파는 새 천국의 부분을 형성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새 땅에는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지파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군중에 이 지파도 포함되기 때문인데 다음 절에서 살핀다.

9.10. “그 뒤에 나는 아무도 그 수효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인 군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자들로서 흰 두루마리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서 옥좌와 어린 양 앞에서 있었습시다. 그리고 그들은 큰소리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옥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이십시다’하고 외쳤습시다.”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에서 나와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형성한 이들로부터 나와 구원된 모든 사람들이다. 수많은 군중이란 이방인들 사이에서 구원된 이들이다. 위대하고 복된 진리란 구원은 모든 사람이 닿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옥좌 주위에 구원된 이방인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언급된 것은 주님밖에 어느 누구도 내면의 품성을 알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그분만이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 가르쳐지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수를 셈(numbering)에는 위 사항의 의미 말고 더 있다. 이것은 질서대로 가져오는 것을 뜻한다. 질서(order)는 천국의 첫 번째 법칙이다. 질서는 혼돈을 정리된 체계로 가져온다. 지금 질서가 불일치를 조화되게 하고 있다. 분단을 통일로, 약함을 강함으로 가져다 주고 있다. 진리들은 질서의 법칙들이다. 그들은 서로를 구분 짓고 서로의 관계를 도입함으로

질서를 생산하는 바 진리 없이 질서는 존재 않는다.

위 구절은 이런 애꿎은 질문, “구원되어질 사람은 거의 없을 꺼야?” 라는 질문을 내뱉을 실마리가 없다는 것 역시 주목받을 만 하리라 생각된다. 도장을 받은 열 두 지파의 숫자에도 그런 꼬투리를 걸만한 단서가 없다. 그 이유가 그들의 숫자가 신비적이라는 것이 확연하기 때문이다. 모여든 수많은 군중 역시 그 숫자는 알려지지 않아 실제로 이든, 상대적이든 구원되는 숫자를 이는 것은 어떤 수단으로든 안되게 되어 있다. 추측해 보려 든다면 구원받는 사람은 적은 게 아니라 매우 많다는 것, 하도 많아서 셀 수 없을 지경이라는 것 뿐이다. 진리는 우리로 악에서 선을 식별하게 해준다. 예를 들면 어린이의 경우 그들이 식별을 위해 필요한 교훈을 받을 때까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법이 없는 곳에서는 법 위반도 없다. 죄는 법칙을 수단으로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더 나아가 진리는 진짜 선과 가짜 선도 구별하게 한다. 선과 악이 식별되지도 않고 행하여 질 때 가짜 선의 발생이 많다. 더 나아가 진리는 선의 종류와 수준도 가늠하게 한다. 그것은 대단히 많다. 천적 선과 영적 선, 내면의 선과 외면의 선이 있다. 순진의 선, 사랑의 선, 믿음의 선도 있다. 선은 진리를 수단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해서 선은 다양해지고 불어나고 불어난 수많은 선들이 어떤 천사나 영 또는 사람에게서 똑같은 것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해진다. 천국은 이렇게 다양해진 선들로 구성된다. 더불어 서로간의 차이도 각기 지닌 선의 종류나 수준으로 알 수 있다. 만일 모든 사람이 같은 선을 가졌다면 서로간에 어떤 구분도 있어질리 만무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무수하게 다양해진 선들이 한 개의 공통되는 선을 구성하도록 신성하게 배열되어진다. 무한인 신성한 선은 하나이다. 그러나 유한한 존재 안에서 선은 진리를 받는데 따라 품질과 양이 다양해진다. 그 이유가 선은 진리로부터 선의 품질을 갖게 되고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구세주 되는 주님에 관한 진리를 받지 못한 의로운 이방인들은 저 세상에서 자기 선에 걸맞은 진리를 받는다. 그러므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군중”이 진리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리를 입고 있었다고 말해지고, 진리가 가르치는 선을 상징하는 것인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있었다”고 말해진다. 저 세상에서 선한 이방인들이 진리로 훈육되면 그들은 자기들의 구세주로 주님을 즉시 인정한다. 그러므로 “많은 군중”이 “옥좌와 어린 양 앞에서 서 있으면서 큰 소리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옥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양’이라고 외친다. 그들은 인성 안에 주님이 계셨음을 인정한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분의 신성과 인성 속의 신성까지 인정한다. 그 이유가 천국 예배의 신성한 대상이 둘이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이고 그 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상에서 둘로 표현되어져 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신성과 인성사이에는 마치 인간의

영혼과 몸이 구분되는 것보다 더 완전한 구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구분이야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구분이 표현되거나 묘사될 때, 다시 말해서 유한한 생각의 영역으로 내려다 놓게 될 때, 환상에서와 같이 표현될 경우 신성한 본질들은 마치 신성한 각각의 인물인 듯 나타난다. 하느님을 계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천사이든 인간이든 볼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천사나 인간들이 그분을 빌 경우 그분께서 입고 나타나시기를 좋아하시는 어떤 외관이라는 베일이 쳐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주님을 향한 이방인들의 찬송은 그들도 육으로 계셨을 때의 주님의 일에 있었던 구원하시는 효능을 체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성한 일은 어둠의 권세를 복종시키고 주님의 인간본성을 영화 하시는 두 수단에 의해 모든 이의 구원을 설비해놓고 있으시다. 이 일은 모든 세계의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과 그분의 구원 사업에 관해 들은 적이 없었던 사람도 저 세상에 오게되면 그 사업의 복된 설계를 볼 수 있고 자신들 안에서 그 구원이 어떻게 실행되는 가도 알 수 있다.

11,12. 셀 수 없이 많은 군중이 그분의 위대한 자비 때문에 감사함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을 때 ‘천사들은 모두 옥좌와 원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 서 있다가 옥좌 앞에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아멘, 우리 하느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세력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에도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하는데 하물며 온 세상에서 모여든 수많은 군중이 구원의 찬양을 하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했을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요한의 영의 눈 앞에 펼쳐진 이 장엄한 광경, 이로부터 기독교인들의 위로가 나오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신성한 선함을 경배할 수 있다. 군중들이 서서 감사를 드리고 있다. 이들은 경배할 때 얼굴을 땅에 대었다. 천사들, 원로들, 네 생물들은 세 천국의 천사들이다. 본문의 “천사”는 가장 낮은 천국을 구성한다. 최말단 수준이 여타 더 높은 수준들을 포함하고 있듯 이 천사들은 옥좌와 원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있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런 원리로 볼 때 그들의 예배는 처음으로부터 최말단까지의 원리로 이뤄지는 모든 예배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양쪽으로부터의 예배가 경배를 시작할 때 아멘으로, 끝낼 때도 아멘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도 표현되어 있다. 그들이 보여준 깊은 수치스러함(humiliation)이 얼굴을 땅에 댄으로 표현되고 있다. 예배의 충만함이 그들이 채용한 언어에 담겨져 있다. 일곱 단어의 송영은 충만된 예배가 거룩함 속에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찬양과 영광과 지혜는 신성한 진리를,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세력은 신성한 선을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 두 단어는 실행하고 있는 선을 뜻한다. 이리하여 천사들은 모든 지혜와 사랑과 권능을 주님께 돌리고 있다. 이것을 영원무궁토록 누리시기를

바벨 때 이는 주님 자신에 관련해서 영원하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주님께서 천사와 인간의 영원히 진보하는 모든 상태 속에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그 권능이 현존하기를 바라는 것까지 망라하고 있는 것이다.

13,14. “그 때 그 원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다.’ 모든 거룩한 바램과 천국 빛을 위한 모든 참된 기도는 천국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원로는 요한에게 요한 스스로 묻고 싶었던 것, 천국의 교육자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그에게 던지고 있다. 원로 중의 하나가 위 질문을 하고 대답을 주는데 그 이유는 질문이나 대답에 관한 신성한 유입은 둘째 천국의 천사들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이 천국은 진리의 빛을 다른 천국의 천사보다 더 잘 받아 총명으로 식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로들이 대답한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 희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이라고 어떤 이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당한 환난이란 자연계가 아닌 영계에서의 환난이다. 구원된 이방인들은 영들의 세계에서 천국에의 입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천국은 선과 진리 또는 이타애와 믿음의 하나됨에 존재한다.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지 못했던 이들은 진리를 저 세상에서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의 거주민이 될 수 있기에 앞서 그들의 선에 진리가 하나되어야 한다. 그들이 환난을 겪은 것은 이 하나됨을 결과되게 하려해서이다. 그 이유가 결합은 시험 없이 마무리되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환난은 굉장했는지 모른다. 그 이유가 그들이 진리로서 믿어왔던 오류의 정도에 따라 시험의 격렬함도 비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듭남의 수준도 이렇게 해서 결과된다. 저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받은 새로운 진리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받으신 고통과 죽음을 포함한 주님께 관련된 것들이다. 이런 사항은 모든 사람이 제 구원을 포획하는 수단이었다. 이방인들이 주님의 일로부터 끌어낸 혜택(benefit)이 표현적 모양새를 수단으로 묘사되고 있다. 군중은 그들의 두루마기를 빨았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만들었다. 어린양의 피는 신약성서에서 많이 말해지고 있다. 이 주제는 이미 1장 5절에서 살핀바 있다. 주님의 피는 비유적으로 그분의 죽음, 영적으로는 그분의 진리이다. 그런 이유가 그분께서 죽으신 대목에 어린양의 피에 관한 진리는 꼭 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 사이에 어떤 연결도 없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주님이 인간으로부터 부딪친 반대는 그분이 말하셨고 사셨던 진리에의 반대였다. 그분의 죽음은 그분을 침묵되게 하는 효과 있는 수단으로 추구되어졌다. 이런 추구에서 인간의 분노는 하느님을 찬양함으로 변화여졌다, 그분의 박해자들은 구속의 계획을 진전시키는 도구이되 마음내키

지 않는 도구가 되었다.

생명의 문, 마치 패러다이스(Paradise)의 문처럼 인간의 타락으로 닫혀졌으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열려졌다.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생명 있게 만들어진다. 죽음이 인간에게 오지만 이를 수단으로 부활도 온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나무로의 길이 다시 열리기 위해 그분은 죽어야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과 여타 인간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인간은 제 자신의 죄에 대한 희생자로서 죽을 뿐이지만 주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희생자로서, 그분 자신의 정의에 대한 순교자로서 죽으셨다. 그분은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은”(요한 12:24) 씨를 가지셨고 또 그 씨를 보존하셨다.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의 씨라는 주장도 있다. 무한히 높은 의미에서 주님의 피는 끝이 없는 왕국의 씨이다. 순교자의 피는 주님의 진리에 충실한 예정일 뿐이었다. 그분의 진리 자체가 한 인물로 인간의 손에서 고통받으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화 되었다. 이 진리가 이제 사랑과 하나되어 드높여졌다. 이로부터 빛과 진리가 나와 보내져 인간을 인성(Humanity)의 계단으로 인도한다. 이 계단은 참된 예배자를 성결하게 한다. 그분의 피로 상징화된 주님의 진리의 효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특히 그 피를 마심으로, 그 피를 씻음으로 표현되고 있다. 순수해지게 하는 진리의 힘이 이 구절에서 우리 앞에 하나의 예로 장착되어있다. 군중은 그들의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로 빨아 희게 만들었다. 이것은 그들의 경우를 두고 최대한도로 표현한 말이다. 이방인의 정의, 아무리 진실하고 올바르게 해도 그것이 기독교적 관점이나 기독교 신앙의 빛으로 간주해 본다면 지독하게 불완전하다. 진리 없이 참된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정의는 진리에 따라 행하여지는 만큼에서 정의로울 수 있다. 어떤 종교를 놓고 성실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그 종교가 참된 만큼에서 그 성실은 진실 되다. 이교도 국가의 종교들은 결함과 오류가 많다. 모든 진리가 선으로 인도하듯 모든 오류는 악으로 인도한다. 그럼에도 어떤 종교가 정죄하지 않는 악, 또는 오히려 그 종교가 찬성하는 악도 만일 그 종교가 잘못된 가르침인데도 옳은 가르침으로 알고 성실히 믿고 따랐다 해도 죽을 정도는 아니다. 예를 들면 모하메드, 그들의 종교는 다첩제를 허용하고 있고 그 교인들은 치명적인 죄의식 없이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살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종교의 이런 부분의 원리나 실체는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에 앞서 포기되어야만 한다. 이런 경우 그것은 그 종교인의 옷에 묻은 검은 자국이다. 이런 자국은 어린 양의 피로 빨아내어야 한다. 그 이유가 기독교의 진리는 그것을 혐오하고 정죄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교도 국가의 종교가 가르치거나 인가한 여러 가지 실체들이 그들의 본성 안에 들어있어 천국의 분위기인 질서와 순수함을 오염시킬는지 모르고 더욱이 혐오되기

까지 하는바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심정이 순수한 자들에 합류되기에 앞서 포기되어야 한다. 진실된 종교가 있는 곳에서 그들은 고쳐질 수 있다. 복음의 진리와 정의에 유해한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쉽게 상상되지만 그렇지 못한 바 그들은 큰 환난을 통과해야만 한다. 더 큰 노동과 자기 희생이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만들기 위해 앞서 진행되어야만 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상상한다. 참회에서 요구되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뿌려진 피가 자기 죄의 값이라고 믿는 것이다 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주님의 피가 그분의 고통받으심과 죽음을 뜻하는바 그분의 피는 우리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구원해준다. 주님의 십자가형은 우리의 십자가형에서 실감되어진다. 그분의 제물은 우리의 제물에서 실감된다. 진리를 받고 그 진리를 사용해서 세상과 육의 불순함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 두루마기를 빨고 어린 양의 피로 그 두루마기를 희게 만드는 것이다.

15. 많은 군중은 그들에게 정녕 필요한 순수해지는 과정을 통과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옥좌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사이에 거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 등장하는 몇 개 중하나인데 이 문단으로부터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의 천국에서의 유일한 직업은 예배뿐이라고 언급해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위 구절의 묘사가 비유적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궤변적인 가르침을 위한 근거의 제공 따위는 하나도 없다. 한 가지 관점만 살펴도 이것은 분명하다.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다고 말하여지고 있다 (계시록21:25). 이 구절에서 구속된 자들이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구절이 일정한 빛과 영광을 뜻한다면 천국에 언제나 대낮만 있을 리 없다. 거기서든 여기서든 태양은 언제나 밝게 비추인다. 그러나 거기서든 여기서든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는 구름이 있고 그분의 얼굴을 덮는 주기적 순환이 있다. 어떤 창조물이든 어떤 유한한 존재이든 영원히 태양만 응시할 수 없고, 변치 않는 정신 상태나 육체 활동을 일정하게 유지존속 시킬 자는 없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모든 창조, 영적이든 자연적이든 휴면의 상태에로 주기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가리앉는다. 상태가 교차됨으로 생명은 유지되고 이 세계에서 원인과 실제에 해당되는 상태들과 상응되어 대담하고 있다. 육체의 본성과 잘 맞아 떨어지는 세상의 사람보다 영혼의 본성에 잘 맞도록 천국에서 변하는 게 덜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다. 천사들은 에테르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게 아니다. 모든 영혼도 몸을 가지고 있다. 꼭 한 가지 다른 점은 영혼이 물질계의 몸 안에서 사는 것이냐, 영체 안에서 사느냐 일뿐이다. 영계에서의 낮과 밤은 영혼의 작용과 반작용, 몸의 작용과 반작용의 교차로 생산된다. 영혼이 몸에 작용할 때가

낮이고 몸이 영혼에 반작용할 때가 밤이다. 생명의 조류가 영혼으로부터 몸을 통해 행동으로 자유로이 흐를 때가 낮이다. 살아있어 능동적인 마음의 자질들은 몸의 감각들과 감각기관들에서 그에 응하는 활동을 발견한다. 그러나 몸이 영혼보다 지탱하고 있는 활동이 더 우둔해 있으면 피로함의 표시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영혼 주위에 모여들면서 밤이 그 위를 덮어 막을 때까지 점차 그들은 깊어져간다. 감각이 둔해질 때 지각은 희미해지고 점차 시들해져 존재함 전체가 무의식으로 가라앉아 영면할 때까지 이어진다. 이런 영면의 상태에서 깨어나는 한 가지 예외는 그분께서 방문자를 보내시어 아름다운 교훈으로 꿈꿀 때이다. 천국 자체에는 밤이 없으나 그 곳의 모든 사람 각각은 활동과 휴면, 잠듦과 깨어남의 은택스런 전환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낮과 밤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고 주기적인 연속으로 되돌고 있다. 이것들은 모든 천국의 변천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나 마찬가지로 거주자의 의지와 상태에 의거한 움직임으로 생산된다. 거기서의 낮과 밤은 바깥쪽 변화가 아닌 내향의 변화로, 일반적 상태가 아닌 세부적 상태에 의해 야기된다. 이 상태는 저 상태로 단번에 건너가 모든 천국으로 퍼지지 않는다. 그렇게 퍼져야 할 필요도 없다. 아마 그 세계에 거주하는 이들 사이에 잠든다는 점에서까지도 교감되는 어떤 것이 있는 듯 여겨진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같이 존재하는 곳이 그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규격화된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낮과 밤, 활동함과 휴식은 서로 보증이나 했듯이 규칙적으로 오고 동시적으로 존재한다. 모든 사람에게 공히 낮은 언제나 낮이고 밤은 언제나 밤일뿐이다. 거주민들이 잠잘 때는 모두가 언제나 자고 깰 때는 언제나 모두가 깨어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는 시간이 없다. 낮과 밤, 일 주일이나 일 년 같은 시간이 그 곳의 거주자에게 오지 않으나 당사자로부터 온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그들은 마음의 내향의 상태에 계속되는 변화의 수단이고 결과들이다. 특히 낮과 밤은 내향과 외향의 상태에 관한 결과들이다. 그들의 내향과 명료한 상태들은 그들에게 낮이고 그들의 외향과 희미한 상태는 그들에게 밤이다. 이 상태들 모두는 천국적이다. 그들의 마음은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원리들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때는 결코 없다. 더구나 반대되는 품성을 지닌 타인에 의해 탈취 당하는 일은 더 더욱 없다. 더 큰 광명이 그들의 낮을 다스리고 그 보다 작은 광명이 밤을 다스리는데 이 두 광명은 똑같은 광명이다. 단지 이런저런 경우에 따라 직접 비추이거나 반사적으로 비추이거나 하는 것뿐이다. 옥좌 앞의 군중은 그분을 낮과 밤으로 섬기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는 일이 오직 예배뿐이라는 말이 아니다. 그들은 내적, 외적, 명료하고 희미한 상태 등등 모든 상태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말이다. 그들은 그분의 성전에서 마음이 거룩한 상태로 언제나 있다. 특별히 그들은 진리의 상태 안에 있다. 이것이

성전으로 의미되고 있다. 성막과 성전, 모두가 이 책에서 언급되는데 이 둘은 선과 진리 또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두 개의 구분되는 원리들로부터 오는 예배를 상징한다. 이방인 같은 영혼의 군중들이 지금 진리를 받았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부족했던 진리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용모는 진리 가운데 있고 이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총명한 자기들의 상태가 그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바 이것이 성전에 밤낮으로 있다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또한 성전은 주님의 몸의 성전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한 인성을 인정함으로 그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그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도 그들 안에 계시는 바, 이것이 “옥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사이에 거하신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들 “사이에” 거한다는 것은 그들 “안에” 거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사랑으로 그들 안에 거하신다. 이를 달리 말해보면 그들은 진리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은 선으로 그들을 채우신다. 진리는 선을 담는 그릇이다. 인간이 받는 선의 품질은 진리의 품질에 의거 결정된다. 그러므로 천국의 진리를 받았던 이들이 지금 천국의 선을 받을 수 있게된 것이다.

16,17.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받은 군중, 그 진리 안에 그분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선까지 받은 군중, 그들은 환난의 상태이후 쉽고 평화의 상태 중 하나에로 가져다 놓이고 각자의 상태에 맞는 풍부함의 하나 안으로 진입한다. “그들은 다시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요, 옥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생명 있는 썸터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정의로움에 따른 주림과 목마름이 채워진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은 이 구절에서 대단히 감명적이고 특유한 것에 해당된다. 이 세계에서 이방인들은 배고프고 목말랐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소유하지 않았던 선과 진리를 바랬다. 그 이유가 영적 생명이 유지 존속하는 수단인 영적인 먹을 것과 마실것에 관심을 쏟는 모든 이라면 당연히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열망은 채워지지 않은 채 있어왔다. 그들은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했고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했다. 이제 그들이 삭막한 상태를 통과해서 그것들이 풍요로운 땅에로 들어 왔는바 그들에게는 선과 진리가 덜 채워져 고통 하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양식과 음료를 즐기거나 하는 바램이 아니라 채워 질 수 없는 배고픔,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다. 이것은 탐욕스러운 배고픔, 태양의 태워버릴 듯한 열 아래서 느껴지는 타는 듯한 목마름이다. 그러므로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보증도 아울러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우리의 영적 체험에서

발견되는데 우리 영혼에 자양분을 주는 선이 없을 때, 우리 영혼을 새로워지게 하는 진리가 없고 자아와 세상사랑만이 있을 경우에서 체험된다. 굶주림의 고통과 타는 듯한 갈증, 그리고 태워버리는 태양과 기절시키는 뜨거운 열도 없을 것이라는 이중의 약속은 생명 속에 선함이 현존하고 악은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유지 지탱하도록 선과 진리를 주시는 한편 우리를 짓누르는 악은 제거하신다. 그 이유가 그분께서는 그분의 사랑의 선으로 먹이실 것이고 그분의 지혜의 진리로 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푸른 초장과 흐르는 시냇물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는 생명 있는 선과 진리의 아름다운 상징이고, 주님께서는 이 선과 진리를 그분을 선한 목자로 신뢰하여 따르는 이들에게 공급하신다. 이것이 진실한 자들의 상태요 경험일 때 모든 슬픔과 탄식이 중단되어 “하느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영적인 모든 고뇌는 악이 제거되고 선이 이식될 때 중단된다. 구원하시는 자비의 각기 다른 실행에 관련해 사용된 단어는 매우 특이해서 우리의 시선을 끈다.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고 하느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있다. 더 나아가 두 개의 이름은 다양성 때문에 사용되었거나, 또는 어린 양과 하느님은 두 가지 다른 존재들, 두 개의 구분되는 인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묘사는 어느쪽 개념에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만일 하느님이 옥좌에 앉아 있고, 어린 양은 옥좌 사이에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 역시 예수가 하느님보다 그 지위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대거나, 예수는 하느님으로부터 구분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해 보거나 해도 어느 쪽하고도 일치되는 게 없다. 하느님은 하늘의 옥좌에 계시고 예수는 옥좌 사이에 계신다. 하느님은 주님의 신성이고 어린 양은 그분의 인성이다. 달리 말해 보면 하느님은 신성한 사랑이고 어린 양은 신성한 지혜, 또는 신성한 선과 진리이다. 어린 양이 양떼를 먹이고 물가로 인도한다. 그 이유가 그분의 신성한 지혜가 그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으신다. 그 이유가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위로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지혜가 그들의 마음을 지혜로 채우고 그분의 사랑이 그들의 심정을 기쁨으로 넘치게 한다.

8

1.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면서 8장은 시작된다. 여섯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큰 변화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었다. 땅의 기초가 흔들렸고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듯이 사라졌다. 열 두 지파 사람들에게 도장이 찍혔고 온 나라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군중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었다. 모든 이런 것들은 심판을 위한 표시일뿐 심판 자체는 아니다. 일곱째 봉인이 닫고 있는 신비한 책은 옥좌에 앉으신 그분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은 천사나 인간의 눈에 감추여 있다. 이 책이 드디어 어린 양에 의해 열려지고 있다. 이 책이 완전히 열려져 만들어지는 직접적인 결과는 매우 독특하고 비상하다.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떼었을 때에 약 반 시간 동안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거룩한 책은 교회의 부패된 실재와 왜곡된 해석으로 봉하여져 있어 왔다. 거룩한 책이 이렇게 봉해진 것은 단 한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열림도 단번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봉인이 계속적으로 열릴 때마다 그 책을 봉했던 오류와 악들이 계속적으로 폭로되고 있다. 마지막 봉인의 떼어짐이 그 책을 닫히게 했던 악 중의 마지막을 털어놓자, 천국은 지금까지의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침묵에 억눌렸다. 침묵! 이 얼마나 감명적인 단어인지! 언어는 생각의 말함이다. 때로 생각이 말로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경우도 있다. 때로 생각의 형체나 소리를 수단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 느낌도 있다. 느낌이 너무 강력하면 소리가 나오는 기관을 마비시킨다. 천국에 있는 교회의 침묵은 지상의 교회의 상태가 깡그리 밝혀질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패에 관해 말한다. 더 나아가 교회의 전투나 그 의기양양함은 너무나 모순되고 너무나 완벽하게 절단된 상태여서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은 공통되는 것이 없다는 것 까지 말해준다. 지상의 교회가 깡그리 부패되면 천국에 있는 교회는 병어리가 된 듯 말이 없다. 부패됨에 관해서는 어떤 동정심도, 어떤 협력 관계도 없다. 즈카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아 병어리가 되었다 (누가1:20). 본문의 천사들은 자기들이 본 것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초월한 것들이기에 병어리가 된 것이다. 천국에서의 침묵은 반 시간 가량 계속되었다. 천국에는 시간(time)개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간(hour)의 단위가 없다. 영계에서는 시간 대신 상태가 있다. 상태의 변화가 외관을 주고 몇 시간이라는 측정을 하게 한다. 거기서는 시간의 흐름을 고정적으로 있게 하거나 균일화 할 수 없다. 거기서의 시간은 기브온 산에 머물렀던 해같이 멈추어 있을 수 있고, 아하즈의 해 시계 같이 뒤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자연계일 경우 기적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이런 사건은 저 세계의 체제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므로 그 세계의 상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한다. 거기서 시간은 상태를 읽는 것, 상태의 그림자밖에

더 아니다. 한 시간, 하루, 한 해, 한 시대 등등은 상태의 상징물이 시작되어 완성되는 것밖에 더 아니다. 한 시간은 전체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상태의 처음이자 마지막일는지 모른다.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라고 주님께서 말하셨는데 이는 그분께서 교회와 인간 생명 양 쪽에서 마감되는 시기에 관해 말하신 것이다. 천국에 침묵이 흘렀을 때 교회의 마지막 시간이 왔다. 그런데 이 침묵은 반 시간 가량이었다. 아마 침묵이 한 시간을 다 채웠더라면 그 종말은 너무나 완벽해서 사라져버린 그 교회를 계승할 새 교회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끝장을 보아 더 다른 시작도 없었으리라는 말이다. 반 시간으로 끝내었는바, 이 끝은 완전한 끝장은 아니고 어떤 시작이 뒤를 잇는 끝장이다. “그 날을 줄여주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같이 하강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천국에서의 침묵이 폭로한 것의 본성은 무엇일까? 땅 위 교회의 마지막 행동, 생명의 책을 봉했던 마지막 봉인은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괴변의 건설이었다. 이것은 개혁교파(Reformation)의 행동인데 이는 프로테스탄트(Protestant)종교의 교리와는 별개이다. 이 프로테스탄트 주의가 악과 재난 같은 것뿐이라고 상상될까? 이 교회는 개혁의 때 이전에 이 책이 봉인되는 것만 빼고 모든 것을 가졌다. 개혁교도들이 이 책을 마지막으로 봉했다. 그리고 그들은 봉인된 책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이 사람들은 그 책을 조심스럽게 붙들고 있었다. 이 책의 해방은 개혁교파의 큰 성취였다. 이 성취는 기울고 있는 해를 10도 가량 뒤로 가게 했다. 비록 낮이 더 길어졌다해도 밤이 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 진정한 교회의 낮은 계속 진보하고 그 낮의 해는 계속 승강하고 있다. 해가 정오를 지나 하강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저물어야만 한다. 교회의 하강은 치료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어떤 질병과 비슷하다. 개혁교 이전의 교회의 질병은 완치되는 것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 교회는 열 두 해를 하혈 병으로 앓고 있던 복음서의 여인과 비슷하다. 그녀는 치료를 위해 인간 의사들로부터 고통받았다. 그녀는 치료 때문에 가진 모든 것도 소비했다. 더 나빠진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개혁교 라는 의사의 새 치료약은 또 다른 인간적 차원의 묘약일 뿐이었다. 이들이 주장한 공적(merit)에 관한 논리는 전임자가 주장한 것과는 또 다른 것에 불과했다. 그들은 행위(works)들로부터 공적을 떼어내려면 구원받는 조건으로부터 행위를 축출하는 도리밖에 더 없다고 보았다. 이런 마지막이고 숙명적인 오류가 생명의 책을 닫은 마지막 일곱째 봉인이었다. 이 봉인이 떼어짐은 이 오류의 파괴적 본성과 결과를 폭로했다. 이것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어댈므로 거행되는 불가사의한 일들로 묘사되어있다.

2.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면서 요한이 말한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는 나팔이 하나씩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 책에 봉인이 붙여지게 한 특별한 악들이 봉인이 떼어지면서 폭로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곱째 봉인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로 특징되는 악이다. 이것들이 일곱 나팔의 소리로 폭로되고 있다. 나팔이 주어진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란 누구였을까? 일곱 교회가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뜻하고 옥좌 앞의 일곱 영이 하나의 전능하신 영을 뜻하듯 하느님 앞의 일곱 천사는 천사들의 전체 천국인데 더 뾰족하게 보면 믿음만을 고집함에 직접 반대하는 천국이다. 천국을 구성하는 두 개의 큰 원리가 있다. 그것은 사랑과 믿음이다. 거기에는 사랑 쪽에 더 치우쳐 있는 천사가 있고 믿음 쪽에 더 기울어 있는 천사도 있다. 사랑 쪽에 더 기운 천사들이 가장 높은 천국을 형성하고 믿음 쪽에 더 기운 천사들이 둘째 천국을 이루고 있다. 왜곡된 믿음은 천국의 모든 것에 반대되어진다. 그 이유가 그 곳의 모든 사람은 참된 믿음 또는 진리의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리와 믿음이 우세해져 있는 둘째 천국인 영적 수준의 천국에 더 직접적으로 반대된다. 이 천사들은 진리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해지는데 이에 비해 더 높은 천국의 천사는 선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해진다. 그들은 시온의 성벽에 서 있는 파수꾼들이고 이들은 접근하는 적이 있을 경우 경고하며 감추어 놓은 위험을 폭로해 인도해준다. 이들은 일곱 나팔이 주어진 일곱 천사이다. 나팔, 표본적인 교회(representative church)에서 대단히 잘 사용된 악기인데 이 나팔소리는 난공불락이던 여리고의 성벽을 허물었고, 미디안의 수많은 적을 산산이 흩어져 달아나게 했다. 이 나팔소리는 신성한 진리를 상징하고 이 진리를 기쁘게 받으려 하는 겸허한 그릇에 주님에 의해 주어지는 어느 것도 감히 대적할 수 없다. 그래서 일곱 나팔이 일곱 천사에게 주어졌다고 말해지는 것이다. 천사들도 인간 처럼 주님으로부터 진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신성한 진리를 받을 수 없다.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모든 체계, 해, 달, 별, 땅들을 뒤흔들 때 천사들은 주님과 더 내면적으로 가깝게 하나되었다. 천국이 신성한 영향과 보호 아래 있을는지 모를 시련의 날에 그들은 하느님 앞에 서 있다.

3.4. 일곱 천사가 제각기 나팔을 받았을 때, “다른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와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향에 섞어서 옥좌 앞에 있는 황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천사는 사랑을 원리로 하는 천국, 천적 수준의 천국을 표현한다. 그는 신성한 진리가 심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성한 사랑의 일을 수행하려고 와 있다. 그 이유가 심판에서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옥좌가 진리의 정부를 상징하듯 제단은 사랑으로부터의 예배를 상징한다. 금향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의미한다. 일곱 천사들은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이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져 있다. 하느님께로 올려지는 이 향은 미리 그분으로부터

받은 향이다. 은혜의 옥좌에 도달하는 기도는 예배자의 심정 안으로 먼저 내려와진 것들이다. 인간 심정의 계단에서 타고 있는 불까지도 먼저 내려와 있다. 이로부터 거룩한 생각의 금향로는 “예언자의 입술에 닿은 숯덩어리” 같이 살아있는 숯으로 채워져 천국으로부터 점화되어 있다. 그 이유가 “이상한 불”을 사용하면 그 불을 사용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천사들에게 주어진 많은 향은 성도들의 기도와 섞여서 제공되어져 있다. 이 성도란 누구일까? 왜 그들의 기도가 나팔이 주어지고 나팔을 불게 되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접합점으로 바쳐지는 것일까? 심판은 분리를 전제로 한다. 모든 민족들이 심판되어질 때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 서로를 갈라놓는다. 심판에 앞서 진행되는 이런 분리가 이 책의 20장에 이를 때까지 이 예언의 전체에서 취급되고 있다. 일곱 나팔이 울려 퍼져 결과되는 것은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교리에 실제로 있었던 자들과 명목상으로만 있어왔던 이들을 중간 상태 안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14장 마지막까지는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교리로 구별되는 프르테스탄트 교회에 소속된 이들의 상태를 다루고 있다. 중간 상태에는 이 교회의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마치 양과 염소,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듯 혼합되어 있다. 결정의 날이 다가오면 선한 자는 천국으로, 악한 자는 지옥으로 보내지는데 이것이 심판의 마지막 결과이다. 그러나 서로 반대되는 두 부류가 심판될 수 있으려면 먼저 분리되어야 한다. 이 분리가 단순히 양 쪽으로 나누어 정렬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분리는 매우 쉽고 대단히 빠르게 결과를 보았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의 몸체 안에 식별되지 않게 섞여 있는 그들은 외관상으로는 품성이 매우 유사해 있다. 이는 마치 가라지가 자라는 동안 밀과 거의 같은 외관을 지닌 것과 같고, 아마 양가죽을 쓴 이리와의 비슷하다. 따라서 외관으로는 식별할 방법이 없는바 내향의 품질이 드러나게 해서 판명되어야 한다. 이는 단번에 이뤄질 수 없고 등차적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행동에 의해 악한 자의 내면의 상태는 까 벌려 지는 바 이것이 일곱 나팔소리에 뒤이은 것들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이 일곱 나팔소리는 신성한 진리의 유입과 작용을 묘사하고 이를 수단으로 그들의 심정과 생명의 상태가 열려져 놓인다. 거룩함과 미덕으로 입혀진 바깥쪽 모양새는 벗겨지고 만다. 사실 실지 정의로운 것과 눈에 보이게만 정의로운 것을 분리함은 내적 인간의 상태가 드러나 명백해져야 결과될 수 있다. 안쪽 상태를 보게하는 채로 치는 것이나 칼로 썰는 수단 같은 것은 선한 자를 괴롭게 하거나 상하게 할 염려가 있고, 그 반면 악한 자가 선한 자와 연결된 채로 있게 할 우려도 있다. 마치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도 뽑힐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 비유에서와 같다. 이는 선한 자를 우선 보존하시려는 신성한 조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수단 중의 하나는 선한 자를 주님과 더 가깝게 연결하고 결합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분의 보호하시는 영향력이 선한 자 주위를 감쌀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더 가까운 연결은 가장 순수한 애정, 가장 깊은 애정으로 작동되는 천적 수준의 천국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유입됨으로 결과될 수 있다. 제단에 와서 서 있는 천사가 가장 높은 천국의 모형이다. 그에게 주어졌던 향은 신성의 유입을 상징하고 천적 수준의 천국이 그 중매체였다. 바쳐지게 될 향과 더불어 성도의 기도는 아직은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이제 막 분리되려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란 그들의 사랑과 예배, 또는 주님께 그들의 심정을 바침 또는 승강시키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분께 더 가깝게 하나되어진다. 이상과 같은 모든 것이 암시하는바, 이 예배는 사랑의 예배라는 것이다. 제사장적인 왕국에 소속된 천사는 사랑으로부터 예배하는 천사이다. 그의 향은 금향로 안에 담겨 있다. 그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금제단에 바친다. 그가 바치는 기도들이란 성도들이요, 성도란 이름은 그들의 영적 품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가 그들의 기도와 섞은 제물은 향이었다. 이 향은 거룩한 생각들, 사랑으로부터 진행되어지는 생각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는 마치 이 향의 연기가 금제단의 불로부터 생산되는 것과 같다. “그러자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순수한 천사적인 사랑의 은택 있는 향, 이 향이 성도의 애정의 기도와 섞여서 하느님께로 올라갔다. 이 향의 연기는 마치 달콤한 냄새 같고 쉼의 냄새와도 같다. 달콤함은 은택과 사랑이라는 제물이고 영혼을 위해 은택과 사랑이 확실하게 보증될 때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쉼을 가진다.

5. 천사가 성도들을 위험한 찰나에서 끌어내서 천국과 더 가까워지도록 연결시키고 주님과 더 결합되게 하여 그들의 안전함이 더 완전한 상태에 머물도록 하는 한편, 성도들이 휴식하는 곳을 넘어 있는 곳에서는 이와 아주 다른 결과가 생산되었다. “그 뒤에 그 천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히 담아서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등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에 불을 켜주고 그들의 기도가 하느님의 옥좌에 은택스런 향으로서 올려지게 한 똑같은 불이 이제는 번쩍거리는 섬광으로, 땅을 쪼개는 지진으로 그 권능이 바뀌어 내려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의 놀랄만한 예증, 같은 성질의 마음이나 아니나에 따라 똑같은 신성한 사랑은 그 마음에 불을 켜주거나 살라 없애거나 평화를 있게 하거나 환난을 초래한다는 예증을 갖게 된다. 천국의 따뜻함과 회열, 그리고 지옥의 불과 고통은 실상 똑같은 근원을 가진다. 똑같은 신성한 사랑이 천사들의 심정은 빨갛게 빛을 내지만 악마의 심정은 태워 그을린다. 그 이유가 전자는 순수함으로 받고 후자는 왜곡시키고 뒤집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천적 수준의 천사는 금향로를 거룩한 불로 채웠다. 그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섞은 향을 바쳤다. 이 향의

연기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에게 올라갔다. 그런데 이제는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으로 내려오고 있다. 지금 거룩한 불이 떨어지는 이들은 성도들과 섞여 있어왔던 죄인들이다. 그들의 기도는 천사들이 금제단에서 바친 향과 함께 올라가지 않았다. 신성한 사랑은 이들의 심정 안의 어떤 헌신에도 불을 켜줄 수 없었다. 지금 이 사랑이 그들 안으로 더 강력하게 흐르고 이제 오로지 환난만이 생산될 뿐이다. 그들 사이에 신성한 사랑이 유입된 결과의 표현은 얼마나 인상적인지! 그들은 믿음만을 생명으로 삼았다.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이유는 사랑과 이타애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의 생명이 되어 있었어야 했던 사랑이 이제 그것의 죽음이 되고 있다. 그들이 친구로서 받기를 거절했던 것이 이제 그 자체 적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사랑이 그들에게 어떤 적개심을 가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에 죽기를 각오할 정도로 적개심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과 생명의 전체 상태는 사랑에 반대되어있다. 신성한 유입이 그들의 내면을 밝히고 이전에 감추어 놓은 생각과 심정 속의 의도들을 까 벌릴 때 다툼질하는 추론의 소리가 있고 광폭적인 생각이 번득거리고 난폭한 애정이 천둥치듯 하고 내향의 경련이 지진같이 있게 되어 이전에 있었던 그들 삶의 질서 전체가 뒤엎어진다. 어쨌든 이런 모습은 그들 슬픔의 시작이요 그들의 진짜 상태의 첫 폭로이고 믿음만이라는 그들의 진짜 품성이 완전히 나열되어 지는 드라마의 첫 행동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일곱 천사의 나팔소리에 뒤이어지는 경이로움에서 그 뒤의 행동을 추적한다.

6. “그때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채비를 차렸습니다.” 준비함이란 시도함(endeavour)이다. 우리는 수단들을 획득해서 배치함으로 행동을 위해 준비한다. 천사들은 수단들을 획득했다. 나팔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제 그들은 나팔을 사용할 채비를 하고 있다. 천국이 어떤 위대한 일의 수행에 도구가 되어질 때 도구로서의 할 바를 모두 시도해서 신성한 존재가 의도한 씀씀이가 성취되도록 해야만 한다.

7. 준비가 갖춰지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우박과 불덩어리가 피범벅이 되어서 땅에 던져져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버렸습니다.” 나팔을 불이란 천국으로부터 주님의 신성한 진리의 권능이 심정을 수색함을 묘사하는 것이다. 첫 나팔소리가 울려 퍼진 결과는 열매 없는 마음의 속성에 관한 첫 번째 폭로를 상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내려오는 비, 태양광선으로 인해 퍼지는 따뜻함은 진리와 사랑의 상징물이고, 그것들은 천국으로부터 인간 마음으로 흐른다. 그러나 빗방울이 하강하면서 얼어 우박이 될 때, 태양의 복된 열이 파괴적인 불로 바뀔 때 우리는 오류로 변한 진리, 선이 악으로 되어버린 상징물을 가지게 된다. 이 상상은

현 주제와 관련되어 매우 인상적이다. 믿음만으로는 차다. 그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리를 묶되 마치 냉기가 물을 얼음으로 응결시키듯한다. 시편을 찾아보라. “양털 같은 흰눈 내리고 재와 같이 서리 쌓이며 우박이 덩어리로 The아진다...” (147:16) 그분께서 진리를 이런 형태로 주시는 까닭은 냉혹한 도덕적 분위기를 통과해왔기 때문이다. 눈과 우박은 겨울의 옷으로서 지상에 깔린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시어 녹이고, 바람 불게 하시어 물 흐르게 하실” 때까지 지상을 덮고 있다. 사랑 없는 믿음이 하강하는 진리를 받지만 이는 마치 겨울철을 맞은 땅이 내려오는 비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생명 있는 말씀과 주님의 영이 하느님으로부터 보내져 인간에 의해 받아질 때 얼어붙은 진리는 녹아지고 그 물은 사막에 흐르는 시냇물 같이 흐른다. 아주 다른 경우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이다. 소리가 퍼지자 우박이 떨어졌다. 이는 천국적 사랑이라는 녹여주는 따뜻함으로 작동된 게 아니라 지옥적 사랑의 파괴적 불로 되었다는 말이다. 게다가 이것들은 피와 범벅이 되었는데, 이는 믿음만일 경우 오류와 악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진리, 왜곡된 해석으로 야기되는 진리의 뒤집힘까지 섞여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불과 우박이 대기에서 발생되어 땅에 떨어지듯 이 구절에서도 불과 우박이 피와 뒤섞여 나팔소리에 이어 땅에 떨어졌다. 악과 오류가 마음 안에서 산출되거나 형성되면 삶으로 내려온다. 또는 그것들이 내적 측면에서 산출되면 외적 측면으로 내려온다. 신성한 진리가 유입된 결과는 감추어 놓은 것을 명백히 드러나게 만드는 것, 벽장에서 귀에 대고 속삭여 말해왔던 것을 지붕에서 외치는 것이다. 이런 수단들로 심판은 궁극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파괴적인 요소들을 지상에 던진 결과는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태워진 것이었다. 그래서 이들 상태의 특징적인 것이 이제 폭로되고 있다. 그들은 겉으로는 멀쩡하나 속으로는 왜곡되어 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같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다.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졌듯이 이 구절에서는 나무와 푸른 풀이 타버렸다. 믿음만을 고백하는 교회의 사람들은 자연적 애정과 성경의 진리에 관한 지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나무와 푸른 풀이다. 그러나 내적 인간속의 왜곡된 원리가 돌출되고, 특히 자아사랑이라는 감추어 놓았던 불이 태워버리겠다고 바깥쪽으로 돌출될 경우 그들이 지닌 애정과 지각은 태워진다. 이 구절에서는 삼분의 일이 태워졌다고 말해지고 있다. 삼분의 일은 숫자 삼과 같이 전체라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8.9.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물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바다 속에 사는 피조물의 삼분의 일이 죽고 모든 선박의 삼분의 일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앞 절의 재난은 땅에 떨어졌는데 이 구절의 재난은 바다에 떨어지고

있다. 땅(earth)은 인간의 자연적 마음을 상징하지만 육지(land)와 바다를 동시에 생각한다면 이는 인간의 의지 측면과 지적 측면을 상징한다. 영적 의미에서 육지(land)는 물로 싸여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는바 육지는 안쪽에, 바다는 바깥쪽에 해당된다. 이를 교회의 모양새로 생각해본다면 교회가 크게 두 부류, 더 내면적 믿음의 신비로 들어가는 부류, 즉 성직자와 그저 듣고 믿는 부류, 즉 평신도로 구성되는 경우와 비슷하다. 불이 땅 위에 떨어졌는데 지금은 마치 타고 있는 산처럼 되어 바다에 떨어지고 있다. 땅에 떨어진 똑같은 불이 그 자체 확장되어 바다에 떨어지고 있다. 의지 안에서 점화된 불은 머지 않아 지성을 침공한다. 중심에서 시작된 것은 곧이어 사방으로 퍼진다. 불붙어버린 자아사랑이 타고 있는 것이 산이고 던져진 바다는 지성이다. 바다가 변화어진 피란 왜곡된 진리, 뒤집혀진 진리이다. 죽여진 고기, 파괴된 배란 진리에 관한 지식과 교리들이다. 이런 지식과 교리는 자아사랑이 활성화되면 멸망한다. 바다에 사는 피조물이 죽었다는 이 구절의 말투는 에제키엘(47장)의 환상에 있는 것과 유사하다. 성소로부터 흐른 거룩한 물이 바다에 흐러 그 물이 치료되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게 되고 수많은 고기가 득실거린다.” 자연적 이해성 안에 있는 종교적 진리에 관한 지식은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죽어 있을 수도 있다. 사용하기 위해서 앎을 사랑함은 생명이요 지식의 혼에 해당된다. 이 사랑이 거두어지면 그 지식은 죽고 만다. 이를 달리 말해보면 애정이 있는 모든 생각은 살아 있다. 애정을 거두어 버리면 생각은 죽는다. 에제키엘서의 경우와 계시록의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이다. 첫 경우에서 생명이 지식에 분배되어 졌는데 둘째 경우에는 생명이 지식으로부터 거두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식이 이미 죽었다면 어떻게 그 지식이 죽는다고 말해질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지식은 그 생명되는 것인 종교적 사용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오류투성이의 교리라 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교리는 없다. 사용(use)은 교리를 살아있게 한다. 모든 신조(creed)는 어떤 쓸모있는 목적을 위해 인간을 결합하게 한다. 그러나 사용함이 전혀 없다면 결합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사실 어떤 신조가 큰 영적 타락을 말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고 심지어 어떤 특별한 악을 정죄하지 않거나 허용하는 골격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신조도 재갈이 물려지지 않은 허가증의 남발을 예방하는 어떤 굴레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성경 자체에서도 그 예증을 찾아볼 수 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관습의 일부였던 것들, 즉 다첩제나 이혼을 손쉽게 되는 등등이 존속되도록 모세에 의해 허용되어졌다. 그러나 방지될 수 없었던 악이 입법적 제한 아래 가져다 놓임으로 누그러졌었다. 하느님의 섭리는 모든 역사 안에, 모든 종교 안에 있어 왔듯이 유대인의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왜곡된 종교와 모든 이교도도 어떤 허용을 가지고 어떤 임무를 띠고

있다. 오류라는 것은 참으로 악에 속한다. 그 이유가 진리로부터의 이탈은 결국 선으로부터의 이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류도 그 안에 생명 되는 선에 관련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 없이 그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모습이 자연계, 준비과정 속에 있는 이 세계의 경우인바 이 세계에서는 선과 악,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저 세계는 아주 다르다. 거기서는 선과 악, 진리와 오류는 분리되어 진다. 거기서 인간은 선하든지 악하든지, 참되든지 거짓되든지 해야만 한다. 이 두 가지가 한 등차에서 양립할 수 없다. 각 자에게 우세해 있던 사랑, 또는 삶의 마지막은 그들이 어느 쪽에 있을 것인가를 결정해준다. 만일 자기가 지녔던 우세해져 있었던 사랑이 선이라면 그는 악을 단념할 것이다. 그 반대라면 선을 거절한다. 이런 분리는 한 순간에 결판을 볼 것같이 여겨질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 거기서도 인간 본성은 계속 인간적이다. 비록 존재하는 장소가 다르다해도 삶의 법칙은 똑같다. 인간 존재는 연속적인 등차에 의해 변화되어간다. 지상에서의 삶이 남보다 좀 더 길었던지, 짧았던지 간에 각자 점진적으로 생산해왔던 조건들, 교육이나 훈련, 습관 같은 체제로 야기되어왔던 각종 인간 조건들은 점진적인 과정, 때로는 고통스런 과정에 의해서가 아니면 바뀔 수 없다. 이런 과정이 계시록이라는 책안에서 표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계속적인 변화의 어떤 부분들이 일곱 나팔소리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생명을 가졌던 바다의 피조물이 죽어가고 배가 파괴되는 것은 종교적 지식이 소유했었던 어떤 생명력이 소멸되는 것, 그리고 그들 종교의 교리가 포함했던 어떤 진리의 파괴를 묘사한 것이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찢는다던가 체로 치거나 걸르는 주체는 악한 자라는 점이다. 모든 종교 안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다. 가장 나은 종교라 해도 악한 자를 구원할 수 없고 가장 나쁜 종교라 해도 선한 자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되느냐 또는 구원되느냐는 각각의 삶의 품질이 결정해준다. 진리가 오류를 압도하는 것도 삶 안에 있다. 진리는 큰 도로이고 오류는 샣길이다. 오류는 더 꾸부러지고 더 엉클어질수록 더욱 커진다. 대단히 진지하고 정직한 여행자라면 그는 가던 길의 종점에서 천국나라를 발견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왔었던 사람들이요 “누구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군중”들이다. 믿음만의 교회에서 살았던 성실하고 정직했던 이들은 천사가 향과 섞어 금제단에 바쳤던 기도의 주체인 성도들이다. 무관심과 비정직했던 자들은 신성한 진리의 자세한 관찰과 조사의 대상이다. 불타는 산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었다. 이는 자아사랑, 그 사랑이 자연적 마음 안에 들어가 점령할 때 그 마음에 있는 진리의 지식은 악의 거짓으로 온통 바뀌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리하여 애정이라는 어떤 생명이 있는 모든 생각이 죽어지고, 어떤 쓸모있으려 하는 경향성이 있는 모든 교리, 어떤

유용한 일을 수행해보려는 모든 교리도 멀해진다.

10.11.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큰 별 하나가 췌불처럼 타면서 떨어져 모든 강의 삼분의 일과 샘물들을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썩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물의 삼분의 일이 썩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쓴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첫 셋째까지의 나팔소리와 연결된 모든 것은 마음의 영적 상태가 더 바깥쪽으로부터 더 안쪽에 이르면서 점진적으로 폭로되고 있다는 것, 마치 변장한 사람의 진짜 내적인 상태가 홀랑들어날 때까지 그 사람의 가면을 하나씩 벗겨 가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처음 우박과 불이 땅에 던져졌고, 그 다음 불타는 산이 바다에 던져졌고, 지금 불타는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있다. 또한 처음에는 나무가 죽고, 그 다음 고기가 죽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죽고 있다. 땅이 인간의 바깥 측면의 모형인데 비해 하늘은 인간의 내적 측면, 내적 인간의 모형이다. 하늘의 별들은 진리에 관한 내면적 지식들, 또는 내면적 진리들 자체, 납득의 목적이 되는 것들을 상징한다. 선한 사람과 더불어 내면적 진리 또는 진리에 관한 지식은 깨끗하고 꾸준하게 빛을 발한다. 그러나 악한 자와 더불어서는 변동이 심하고 배회하는 별같이 덧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은 “큰 별” 이었다. 그런 이유가 이것은 믿음만 이라는 것과 관련된 지식 또는 총명이기 때문이다. 즉 프로테스탄트 교회로서는 이것이 위대한 교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교리의 상태는 계시록의 이 부분을 점유하는 주제가 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믿음은 개혁교파의 별이다. 이것은 이 교회의 모든 총명이 채용한 한 개의 큰 원리인바 이를 수단으로 타 종교와 구별되고 유지하며 설명되고 방어도 한다. 그러나 천적 진리(celestial truth)라는 나팔이 울려 퍼지자 그 별은 하늘에서 떨어졌다. 마치 타고 있는 등불(burning lamp)같이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그 빛은 인공적이기 때문이다. 마치 지상적인 등불이 천국적인 별에 비교된 것과 같다. 이 별이 불타는 등불로서 보여지고 있다. 이는 자아의 불이 인간의 총명을 빨아들여 마치 그 외관이 신성한 진리를 입고 있는 듯 보일 때이다. 이 별은 강과 샘물, 즉 교회의 내면적 진리와 말씀에 떨어졌다. 바다가 외면적 진리, 즉 말씀의 글자적 의미가 함유하고 있는 진리를 상징하는데 비해 강과 샘은 내면적 진리, 즉 말씀의 내적 의미가 함유하는 진리를 상징해준다. 이 물에 떨어진 별은 썩(wormwood)이라고 불리고 있다. 불타는 등불이 눈에 관련이 있는데 비해 쓴맛은 혀와 관계가 있다. 진리는 그 자체로서는 꿀보다 더 달지만 거짓으로 변할 경우 썩 같이 지독하게 쓴맛을 낸다. 사탄이 빛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듯이 자이총명도 천국적 지혜같이 나타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탄이 번개 치듯 하늘에서 떨어질 때 악의로 가득찬 속성이 나타나듯, 자이총명도 그것이 차지했었던 높은 자리에서 떨어질 때

제 본성을 드러내 자아사랑으로 불타고 진리를 왜곡시킴으로 쓴맛을 낸다. 그리고 변장이 벗겨진 자아충명이 믿음의 진리같이 말씀에서 획득한 진리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그 진리를 거짓으로 변하게 한다. 그것들은 썩이 되었다. 쓴 물을 마신 탓에 죽은 많은 사람이란 말씀 속의 진리가 왜곡됨으로 해서 파괴되어진 인간의 원리들이다. 사람이란 단어가 말씀에서 언급될 경우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자질을 뜻한다. 이 자질 중 중요한 자질이 이성(reason)이다. 참된 추론력이 파괴될 때 진실로 인간 되게 하는 인간 속의 모든 것이 파괴된다. 이것이 여기서 이해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12. “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졌으며 낮의 삼분의 일이 빛을 잃고 밤의 삼분의 일도 마찬가지로 빛을 잃었습니다.” 황폐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하늘의 모든 군대가 타격을 받고 있다. 해, 달, 별은 교회에 생명되는 것, 교회에 생명을 주는 원리되는 것, 즉 사랑, 믿음, 지식을 상징한다. 이 구절과 비슷한 모습은 신, 구약 성서 모두에서 교회의 종말을 거론할 때 자주 등장한다. 여기서는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 설명했듯이 숫자 3은 어떤 형체에서이든 완전함(completeness)을 표현한다. 이 구절에서 말해진 1/3이 33%를 뜻하는 게 아닌 것은 분명하다. 낮과 밤의 삼분의 일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말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낮과 밤은 자연계의 낮과 밤이라는 때와 상응되는 삶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그것들은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에 속하는 것들, 또는 영적 마음과 자연적 마음에 속하는 것들을 표현한다. 그 이유가 마음이 영적인 빛 가운데 있으면 낮에 해당되고 자연적 빛 가운데 있게 되면 밤이기 때문이다.

13.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오는 상태가 끝에 이르면 변화가 거행된다. “나는 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큰 소리로 ‘화를 입으리라. 화를 입으리라. 땅위에 사는 자들은 화를 입으리라. 아직도 불어야 할 천사들의 나팔이 셋이나 남아 있다’ 하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태의 변천이 방문객 같은 천사의 등장으로 암시되고 있다. 뒤이어지는 세 재난은 앞에서 진행된 것과 속성 면에서 폭넓게 다르다. 이 천사는 마치 땅 위의 거주민이 체험해야 할 화를 발표하라고 보낸 듯 여겨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천사들의 메시지는 신성한 섭리가 사물의 속성상 예방해줄 수 없어 앓고 있는 상태를 완화되게라도 해주고자 하는 신성의 간섭이다. 도구로서 쓰이게 되는 천사는 주님을 표현하는데 특히 그분의 사랑 또는 진리 또는 사랑과 진리의 품성 면에서의 그분을 표현한다. 말씀 안에서 주님은 날개를 가지고 날으신다고 말하고도 있다. 말씀 속의 진리가 그분의 날개이다. 그 이유가 그 진리를 수 the wind)단으로

그분의 사랑이 천사와 인간의 심정 안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기 때문이다. 바람 날개(the wings of) 이 날개로 그분이 날으신다고 말해지는데 이 날개란 그분의 말씀 속의 영적 진리들이고 이것이 가장 높은 의미에서 진리의 영(the Spirit of Truth)을 구성한다.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수단으로 어디에나 계시듯 그분께서 날으심은 유한한 존재에 그분의 영이 역사하심을 표현한다. 천사와 인간이 그분의 영(the Spirit)을 받겠다고 할 때 그들에게 온다. 그들이 주님의 영을 더 내면적으로 받을 경우 그분은 그들에게 더 가깝게 접근하신다. 주님의 신성한 진리를 내면으로 영접함이 이 구절에서 천사가 “하늘 한 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의 “하늘”은 천사가 거주하는 천국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의 원리가 살고 있는 인간 마음 속의 하늘까지 뜻한다. 현 시점에서 이 천사를 보낸다는 것이 암시하는 바란 영들의 세계 또는 중간 상태에 있는 악들과 바깥쪽으로 연계되어 있는 이들의 마음의 가장 깊은 속으로 신성의 유입이 있다는 것, 그 목적을 주님과 더 가깝게 연결되도록 이끌어 주시려는데 있다는 것, 이리므로 해서 사악한 자를 기다리는 재난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동시에 사악한 것들과의 분리도 더욱 쉬워지게 해주시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지상적 상태 또는 자연적 상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땅은 자연적 마음도 명시해준다. 물론 이는 선한 악하던 마찬가지로인바 이 마음은 영적 고뇌의 화를 입는 주체이다. 그러나 두 반대되는 주체는 결과 역시 반대되는 양상으로 맺어진다. 그 이유가 악한 자에게서 선을 떼어내는 신성한 진리의 수색작업은 선한 자로부터 악을 떼어내기 때문이다. 원리 측면에서의 이런 분리가 각 개인들에게서도 같은 결과를 보게 한다. 만일 악한 자 안에 선이 없고, 선한 자 안에 악이 없었다면 그들은 서로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선한 자와 악이 더 이상 한 품성에서 섞여있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서로 섞이지 않는다. 선한 자는 악한 자가 가진 듯 여겨지는 선을 수단으로 악한 자와 접촉하고, 악한 자는 선한 자가 가진 듯 여겨지는 악을 수단으로 달라붙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은 외관적 차원에서의 소유물에 한정되어 있다. 그 이유가 품성의 본질되는 부분을 형성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든 외관상으로만 자기 것인 듯 보일 뿐 실제로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9

1.2. 앞 장에서 날아 다니는 천사의 나타남은 과도기의 상태(transition state)를 명시한 것이라고 살펴 보았다. 이제 기술되는 광경은 이미 살폈던 것과는 다르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때 나는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별은 끝없이 깊은 지옥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그 지옥 구덩이를 열자 거기에서부터 큰 용광로에서 내뿜는 것과 같은 연기가 올라와 공중을 뒤덮어서 햇빛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나팔소리는 하늘과 땅을 향해서 였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낮은 곳이다. 이 천사는 심연, 끝이 없는 구덩이를 열고 있다. 다섯째의 나팔소리에 네 번째의 경우같이 하늘에서 땅으로 별이 떨어지고 있다. 인간의 오류는 천국적 지식을 땅으로 끌어내린다. 게다가 지식은 그 자체만으로는 참되고 축복의 수단인데 이것을 거짓된 것으로 바꾸고 저주의 수단이 되게 하는 것이 오류이다. 참된 믿음은 하늘을 열리게 하고 지옥은 닫히게 하지만 왜곡된 믿음은 천국을 닫고 지옥을 연다. 교회의 첫 시기에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안내한 그 별, 인간 심정에서 일어난 새벽이 교회의 마지막 시기에서는 영적 마음이라는 하늘로부터 자연적 마음이라는 땅으로, 심지어는 감각적 원리라는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 중간 영역, 중간 상태에 머물고 있는 이들과 관련해 위 구절을 생각하면 끝이 없는 구덩이가 열린다는 것은 지옥 자체의 열림이다. 악한 자의 경우는 이와 직결되어있고 그것에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구덩이가 표현한 외관은 믿음만으로 구원됨이라는 왜곡된 원리의 본성을 표현하고 있다. 먼저 연기가 큰 용광로에서 솟구치듯 했다. 이 연기가 해와 공중을 어둡게 했다. 용광로란 지옥에 팽배해 있는 사랑을 상징한다. 해는 천국을 비추일 경우 사랑을 상징한다. 연기란 오류의 상징물이고 공기는 진리를 상징한다. 불이 연기를 생산하듯 악은 오류를 생산한다. 연기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광선을 가로막듯 오류는 마음을 어둡게 한다.

3.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땅에 퍼졌습니다.” 연기는 악한 애정으로부터 유출되는 왜곡된 생각들을 상징하는 바, 연기로부터 나온 메뚜기(locust)는 왜곡된 생각의 본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메뚜기의 활동은 그것들의 끔찍한 결과를 상징화하고 있다. 구덩이의 연기로부터 출현한 메뚜기들이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 신비적인 창조물의 묘사가 메뚜기라는 어떤 특정한 생물이라고 대답되었다해도 자연계의 메뚜기와는 전혀 다르다. 그것의 형체와 특성이 메뚜기 같으나 그것들은 어떤 특이한 것과 병합되어있고 어떤 점에서는 전혀 일치 않는 성질로 이루어져 있다. 메뚜기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된 편인데 대체로 격렬한 천벌로서 간주되었다. 셀 수 없는 숫자로 덮쳐 사방이 어두워지고 그것들이 푸른 것이라곤 모두 먹어 치운다. 그것들 앞에 에덴의

동산이 있는가 하면 그것들이 지나간 뒤에는 삭막한 광야만 남아 있다. 자연계에 있는 동물들은 인간의 어떤 애정을 상징해준다. 각 애정의 본성은 그 애정을 상징화한 동물의 특성에서 알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떤 경우 인간은 자신의 참된 총명이나 또는 왜곡된 총명을 수단으로 그것의 근원되는 본성의 부분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자연적 애정에 어떤 성질을 나누어줄는지 모른다. 고대 시대 때에 현자들이 이를 지각한 결과로 생산된 것이 이교도의 신화에 등장하는 합성 동물이다. 이런 사실이 계시록의 메뚜기에서도 응용되어 있다. 메뚜기는 감각에 가장 가까운 인간 마음 속의 애정에 관한 모형이다. 이 애정은 모든 것을 감각적인 바탕으로부터 판단하고 간주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목적이 감각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모든 애정은 각기 그것에 부응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애정을 그 자체로만 보면 눈먼 바램일 뿐이고 생각이 그 바램의 대상으로 안내하는 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애정에 그 애정 나름대로의 특유한 형태와 특성을 갖게 하는 것이 생각이다. 이 생각을 동원해 우리는 연기에서 올라온 메뚜기의 독특한 특성을 추적해본다. “...그 메뚜기들에게는 땅에 있는 전갈들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상대방을 마비시킨다는 결과로부터 전갈은 감각적 인간의 지성에 소속된 설득력을 상징한다. 감각적 인간은 감각으로부터 추론하고 판단한다. 또한 감각이 내주는 증거를 발판으로 상대방의 애정을 마비시키고 지성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믿음만을 고집해서 나온 구원이라는 관념보다 인간 마음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게 또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은 회개와 정의로움을 수단으로 여러 해 동안 하느님과 화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달성하느라 헛되게 애를 쓰지만 믿음이라는 행동만으로 양심과 심정에 즉각 이를 성취하는 것이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독특한 효력이라고 하는 근사한 증거를 우리는 주위에서 얼마나 자주 듣는지 모른다. 이는 전갈이 쏘아서 정신을 마비시키는 것밖에 더 아니다. 선함이 아니면 하느님과의 재회도, 화합도, 마음의 평화도 있어질 수 없다. 자아를 복종시키고 하느님을 드높이는 것 외에 참된 선함은 없다. 회개와 수정 없이 참된 선함은 성취될 리 만무하다. 삶의 목적과 의도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참된 선함이 존재할 수 있을까? “...당신은 본래 그대로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오라, 당신의 정의로움으로 그분께 칭찬 받으려 하지 말라...그분이 당신의 정의이다...네 스스로 정의로움을 달성하려들면 너는 그분의 정의를 업신여기는 격이 된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는가?...”라는 식으로 정의로움과 선함을 살짝 비꼬아 버린 설득이 전갈의 힘이다.

4-6. 메뚜기에게 권능이 주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한정되어 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쳐서는 안 되고 다만 하느님의 도장이 이마에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 때에 주는 고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다섯 달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죽으려고 애써도 죽을 수 없고 죽기를 바라더라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 날 것입니다.” 메뚜기들은 풀을 해칠 수 없고 단지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도록 허락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나와 도장받은 사람들은 구원되는 각가지 계층의 교인들이다. 도장받지 않은 자란 구원되지 않는 불신앙자들이다. 이들은 메뚜기의 권능에 복종 당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가 이들의 속성은 감각적 추론이 둘러대는 설득력에 즉각 복종할 태세를 완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메뚜기의 피해를 당할 사람들이다. 그 이유가 여기서의 사람이란 인간성을 구성하는 사람되는 특질, 동물과 구별되는 특질, 즉 생각하고 뜻하는 특질, 또는 진리를 이해하고 선함을 사랑하는 자질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각적 원리들이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죽이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메뚜기에 국한해보면 메뚜기들은 도장받지 않은 자들을 죽이지 말고 괴롭히도록만 되어있다. 그들의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쏘 때와 같은 고통이었다. 전갈이 쏘게 되면 국부적으로 무감각을 생산하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 전갈이 쏘므로 야기되는 것 같은 정신적 고뇌는 그 힘의 활동을 강력히 억제하려할 때 마음이 경험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메뚜기의 이 권능은 그 범위와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그것들은 설득당한 희생자를 다섯달 동안만 괴롭힐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의 분량이 아니라 상태의 분량과 상응된다. 이는 그들의 실제 삶에서 매우 적게 남아있었던 것같이 뜻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감소되는 것을 뜻한다. 그 이유가 이 능력의 중지가 죽음이기 때문이다. 죽어져 가는 고통이 더욱 커진다던가, 정신적 활동이 거세게 압박되어 가면 생각하고 느끼는 능력이 완전히 소멸되는게 더 나을 듯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 즉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죽으려하거나 죽기를 바란다. 그들은 지적인 것을 죽게 하고 의지의 죽음까지 바란다. 이것은 가련한 정신병자가 죽으려하고 죽기를 바라는 것같이 마음이 불건전해지는 징조이다. 인간 자질의 병적 행동은 종종 이런 쪽으로 기울려 한다. 건강한 활동이 그들에게 결코 없다. 자살행위가 생명을 끊을 수 없을 때 오히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정신적,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경우 즉 정신이 흐트러지고 희망 없는 정신적 노력만 있을 경우 그들은 모든 것의 전멸로 고통이라는 감각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그들은 죽어질 수 없고 죽음을 명령할 수도 없다. 의지와 이해성이라는 인간 자질, 뜻하고 생각하는 능력은 타인의 추론에서 나오는 독소나 자신의 추론이 뽑는 독소로 인해 죽어갈는지 모르나 결코 파괴될

수는 없다. 이것들 안에 그들의 인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의 불멸을 보증하는 하느님과 파기할 수 없는 연결 덕분에 그것들을 즐긴다.

7-11.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준비가 갖추어진 말 같았으며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것들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았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쇠로 만든 가슴방패와 같은 것으로 가슴을 썼고 그것들의 날개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수많은 전투마차 소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의 꼬리와 같은 꼬리를 가졌으며 그 꼬리에는 가시가 돋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 꼬리로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지옥의 악신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말로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 곧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말(horse)은 이해성을 상징하고 있다. 이해성은 창조자께서 그분의 진리를 알고 납득하라고 우리에게 부여된 대단히 고상한 자질이다. 이런 이해성이 오류를 자아내는데 고용되어질 경우 이는 합리적 능력이라기보다는 추론(reasoning)이 되어버린다. 그 이유가 진리를 오류로, 오류를 진리로 보는 합리성을 지닌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감각적 인간도 피상적이지만 상당한 재능을 부린다. 감각적 인간은 자기들의 부족한 능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들은 전쟁터의 말이 전투를 위해 준비되는 것만큼 지적인 싸움을 위해 열심을 낸다. 그들은 백전백승이라는 자신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공이 눈에 띄게 실패로 보일 때에서도 조차 승리를 장담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런 것들이 메뚜기의 모습, “전투준비가 갖추어진 말 같고 머리에 금관 같은 것을 쓴 것 같은” 것이다. 비록 감각적 인간이 합리적 인간보다 더 동물적이라 해도 자기들이야말로 다른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므로 메뚜기는 사람의 얼굴과 여자의 머리털을 가졌다. 그들은 남자의 특성인 지혜, 여자의 특성인 애정, 즉 사랑의 지혜와 지혜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얼굴을 가졌는데 이빨은 사자의 것이었다. 그 이유가 그들은 “아무도 구출하지 못하는 동안에 물고 뜯고 갈기갈기 찢을” 준비가 항상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공격용 무기와 함께 방어용인 쇠로 만든 가슴방패를 하고 있다. 금속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풍부히 땅 속에 존재하며, 가장 유용한 쇠(iron)는 자연적 진리 또는 최말단의 진리, 즉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 함유된 진리를 상징한다. 그러나 글자적 의미는 진리를 떠받치는데 사용될 뿐 아니라 오류를 방어해 보호하는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말씀의 글자에 있는 가상적 진리(apparent truth)들은 감각적 인간에 의해 진짜 진리로서 입증되어 사용된다. 사탄도 진리를 반박하는데 성서를 인용할 수 있다. 사탄의 제자들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사탄이란 진리를 뒤집는 수단으로 오류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공통된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록 말의 모양을 했다해도 이 생물은 아직은 메뚜기이다. 그들이 전투하러 돌진하게 되면 “그것들의 날개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수많은 전투마차 소리 같았다.” 전투마차란 교리를 상징한다. 마차바퀴가 추론을 상징하는데 이 바퀴가 달리면 공격이든 수비이든 이루어낸다. 바퀴와 날개는 움직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서로 유추되는 게 있다. 그러므로 메뚜기의 날개소리가 전쟁터로 내달리는 많은 말의 마차와 비교되는 것이다.

감각적 인간 자체가 강함, 아름다움, 개방성, 용감성 같은 특질을 지녔다해도 애당초 접지된 것은 감각적 본성이라는 특성이다. 마치 뱀이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도 더 간교했던” 경우와 같다. 외관상 멀끔하고, 고백할 때는 심정을 다 열어놓은 듯 해도 감각적 인간은 음험하고 독이 있다. “믿음, the faith”을 가지고 다룰 경우 그들의 믿음은 “믿음만, faith alone”으로 바뀌면서 끝이 없는 구덩이의 연기 안에 모든 주제를 물어버린 다음, 진리를 파괴하느라 전력투구한다. 거짓된 설득이 통일된 체계를 갖추면 무척 강력해진다. 그러므로 메뚜기들은 흐트러진 균중으로서 움직이거나 행동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왕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을 이끌어 가는 권세를 권 통치 아래 있었다. 그들의 왕은 끝이 없는 구덩이의 천사였다. 이 구덩이는 믿음만, faith alone을 생명과 교리로 삼아 살다가 죽은 이들의 영이 거처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이 구덩이의 천사란 믿음 자체, 파괴하는 천사, 믿음만, faith alone 이라는 교리가 인격화된 것이다. 이 믿음은 히브리어로나 그리스어로나, 즉 구약성서에서나 신약성서에서나, 율법에서나 복음에서나 공히 진리의 파괴자가 되어왔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고백하면서도 실재화하지 않는 것은 유대교회 모두에게 파멸의 원인이었었다.

이제 규모가 굉장한 군대의 임무를 살펴보자. 우리가 이 군대의 임무를 말할 때 우리는 예언적 환상의 언어에 의거 말하게 된다. 따라서 신성이 허락한 것, 섭리적 목적에 종속된 것 그 이상에 속하는 그들의 임무는 이해 못하게 된다. 인간의 의지와 지혜는 선천적으로 하느님의 의지와 지혜에 반대되려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어 그 자체 보편적인 파멸로 계속 가려한다. 신성한 권능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되지 않으면서 인간의 활동을 예방해줄 수 없다. 그러나 신성한 섭리가 그들의 작동을 한정지어 준다. 이 한계가 신성한 허용이다. 그러므로 허용(permission)은 인가를 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억제수단이다. 이 예증이 본문에도 있다. 즉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쳐서는 안된다” 라는 대목이다. 이 푸른 것들은 인간의 영적 생명을 받쳐주는 진리와 선에 관한 생명있는 원리들을 상징한다. 푸른 풀밭으로 신성한 목적은 그분의 양떼들을 인도한다. 생명수의 강가에 심어진 나무는 철마다 열매를 생산해준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신실한 자의 마음에서 자라는바 비꼬아 버린 추론이나 현혹하는 설득 따위는 푸른 것들에 어떤 실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우리가 기억해야하는바, 모든 이런 경이로움은 인간 마음의 상태 변화 그것이 자연적 마음이든지 영적 마음에서든지 거기에 있는 상태들을 묘사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사람들 “사이에, among”는 일반적 상태가 있고 상태의 변화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람 “안에 있는, in” 상태의 변화와 그 상태의 결과들이다. 그리하여 각 사람의 외적 상태와 일반적 상태는 언제나 각자의 내적 상태와 세부적 상태에 상응되고 있다. 본문의 환난 속에는 언제나 두 반대되는 부류, 신실한자와 비 신실한자,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포함되어있다. 선한 자와 신실한 자는 환난으로부터 오는 피해로 고통받지 않는다. 환난의 체로 처지되 그들은 알곡으로서 분리된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겨와 같이 날려진다.

나팔소리가 믿음만이라는 교리의 속성을 명백해지게 한다. 그 교리의 결과 중 하나가 보여지는바, 그것은 뜻하고 생각하는 인간의 자질을 심하게 손상시켜 의롭게 생각하고 슬기롭게 뜻하는 능력을 무능력에 가깝게 만들고 바램과 상상하는 능력마저 불건전함의 희생먹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날아다니는 천사에 의해 선포된 화를 입는 것 중의 하나이다.

12-15. “이렇게 재난이 또 하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앞으로 두 가지 재난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하느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모퉁이에 달린 뿔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유프라테스강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는 풀려났습니다. 그 천사들은 연 월 일 시에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강에 매여 있다가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풀려난 천사들이란 누구일까? 유프라테스강은 아시리아와 가나안을 분리해주는 강이었다. 아시리아는 마음속의 합리적 원리를 상징하고 유프라테스는 가나안으로 모형화된 마음 속의 영적 원리와 합리적 원리를 분리해주는 합리적 진리이다. 이것은 아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있을 경우이고 본문의 상황으로는 적대관계이다. 파괴적인 천사는 그 강에 묶여 있을 뿐, 죽이는 일을 준비하고 있고 풀려나기만 하면 거룩한 땅의 주민을 섬멸하려고 있다. 이런 상태가 어떤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이성이 참된 종교편이 아닌 그 반대편에 서 있을 경우 적극성을 띄우면 참된 종교를 파괴하려든다는 것이다. 메뚜기가 연기로부터 출현하듯, 번개가 구름에서 나와 번쩍이듯, 나방이가 번데기에서 까고 나오듯, 유충이 알에서 부화하듯, 천사가 강가에서 출현하듯, 추론은 이성으로부터 뿜겨 나온다. 자연적 이성은 자연적 추론만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적 이성이 자연적 수준의 것만을 추론한다면 올바르게 추론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추론하려 시도할 때면 언제든지 올바르게 못하고 왜곡되게 추론한다. 그 이유가 자연적 이성은 어둠 가운데서 추론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올바르게 추론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빛을 축출하려고 그 자체 주위에 어둠을 불러모으기만 할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적 이성이 올바르게 못하고 왜곡되게 추론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가 영적 문제들에 관해 물어오거나 토론의 주제가 될 경우 자연적 인간은 무능할뿐 아니라 악의를 품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적 인간은 오류뿐만 아니라 악을 찬성하는 쪽으로 추론한다. 결국 진리에 반대하고 선에 대항하려든다. 그래서 네 천사가 있다. 이 숫자는 선과 진리의 결합을 언제나 말해주는 데 본문의 경우 악과 오류의 결합이다. 강에 천사가 묶여있었다. 지금 풀려나고 있다. 바깥 측면의 역제 수단은 자연적 인간을 묶어두어 종교와 선과 진리에 대항하여 노골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방지해준다는 말이다. 외양만의 종교와 더불어서 천사들은 그 사람의 자연적 삶의 기간에는 묶여 있을는지 모른다. 죽음이 그것들을 자유롭게 한다. 밑과 가라지는 수확 때까지 중간 상태인 섞여있음에서 함께 자라도록 허용된다. 만일 즉각 있어지지 않는다 해도 중국에 가서는 세상이 강요한 바깥쪽의 모든 역제 수단은 제거되어져서 심정 속의 비밀스럽던 생각과 의도들이 공개되어 명백해진다. 강제적인 억압은 악한 바람과 왜곡된 생각을 소멸시켜 주지 못한다. 아마 오히려 그것들을 부추기거나 더 원숙되게 만들는지 모른다. 그것들은 언제인가를 위해, 즉 해와 달과 날과 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악한 바람과 왜곡된 생각은 끊임없고 상당히 우세하다. 그것들은 마음의 모든 상태들, 가장 세분된 상태에서부터 가장 일반적 상태까지, 지극히 작은 상태에서부터 가장 큰 상태에 이르기까지 잠입해간다. 그리하여 그것들이 뜻하려한 악한 일을 준비해놓고 결국은 그 일을 저지르고야만한다. 그것들은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인다. 모든 것 안에는 삼위일체(a trine)가 있다. 종교의 경우 이 삼위는 이타애와 믿음 그리고 일이다. 이 셋 중의 하나가 거두어지면 모두 멸망한다. 그런고로 성경에서 말하는 1/3은 전체를 뜻한다. 만일 이 천사들이 죽이려한 또다른 몇 분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고려되는 선한 일일 것이다. 만일 일들을 종교로부터 거두어 버린다면 무엇이 남아있을까? 이타애와 믿음은 일이 아니면 그 실제의 존재를 가지지 못한다. 일하지 않는 종교는 모래 위도 아닌 공중에 집을 짓겠다는 것이다.

16. 그런데 이 죽음의 천사들은 그들의 명령을 받는 군대를 가지고 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리는 기마병의 수효가 이 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는 앞에서 등장한 군대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게 있다. 두 군대의 비슷한 점은 둘 다 똑같은 거짓 원리를 표현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른 점은 똑같은 목적을 성취하려하되 다른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앞의

군대는 설득력(persuasive power)을 표현하고 뒤의 군대는 논쟁력(시비력, argumentative power)을 표현한다. 둘째 군대는 처음의 군대가 시작한 것을 뒤따르면서 완성하고 있다. 설득하는 힘은 의지로부터 더 나온다. 확신하는 힘은 이해성으로부터 더 나온다. 첫 군대가 끝이 없는 구덩이로부터 출현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감각적 의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군대는 유프라테스의 계곡으로부터인데 그 이유는 이것이 합리적 자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첫 군대는 메뚜기군대로 “전투준비가 갖추어진 말 같았다.” 그 이유가 감각적 설득은 추론이 아니라 추론과 비슷할 뿐이기 때문이다. 둘째 군대는 말을 탄 기마병인데 그 이유는 기마병은 추론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첫 군대의 말들은 전갈의 꼬리와 같은 꼬리를 가졌는데 그 이유는 전갈이 쏘듯 설득은 인간의 자질을 파괴하지 않고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군대는 사람을 해칠 능력을 가졌으나 죽일 수는 없었다. 둘째 군대의 말들은 뱀의 꼬리를 가졌는데 그 이유는 뱀은 감각적 지혜와 감각적 추론을 표현하고 이를 수단으로 거짓 원리들이 지능적으로 확증해서 진리를 이해하는 자질을 파괴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군대는 사람을 해칠 뿐 아니라 죽이는 능력까지 지녔다. 마음이 추론을 수단으로 본질적인 오류를 확증할 경우 진리는 살육 당한다. 인간 마음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는 오류를 좋아하는 교묘한 추론이 본문의 기마대이다. 그 이유가 순수한 의미일 경우 승마자(horsemán)란 추론이고 승마자를 태운 말은 이해성이기 때문이다. 이해성은 참된 것과 함께 할 때는 참되고 거짓과 함께 할 때는 옳지 거짓일 뿐이다. 이 군대의 숫자는 그 군대의 세력을 묘사하지만 더불어 그 군대의 품성도 기술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를 셈(numbering)은 정렬해 놓는 것을 뜻하고 추론은 타인의 견해를 반박하고 자신의 것을 확증하기 위해 논쟁의 지식과 배열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수효가 이 억(two hundred thousand thousand, two myriads of myriads)이라고 말하고 있다. “억”이란 악에 근원을 두고 나오는 거짓 원리들이다. 이로부터 그들이 추론해낸다. “이 억”이란 악과 오류의 결합을 표현한다. 이 숫자는 참으로 대단히 규모가 큰 숫자이다. 그것들이 혼합된 무리로 파괴의 일을 위해 정렬되어 있다. 정신 차원의 목적물은 그것들이 알려져 분류될 때 수가 세어진다. 하느님께서서는 별의 숫자를 말하신다. 그분만이 그분께서 새로이 창조한 이들의 마음 안에서 천국의 진리를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아시고 배치하신다. 이 진리들은 천국의 군대이다. 이 군대는 주님과 그분의 백성의 적들과 맞서 각기 제 위치에서 싸운다. 주님께서서는 적의 수효를 세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그들의 수효를 아시고 그분의 종들에게 그 수효를 알려주신다. 요한이 기마병의 수효를 알았듯이 주님 가운데 있는 이들은 자기들 안에 계신 그분께서 자기들을 공격하려는 오류의 품성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정복하겠다고 얼마나 능란하게 전투배열을 갖추었는지 알게

해주신다.

17. 요한은 기마병의 숫자가 얼마인지 들었을뿐 아니라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모습이 내 눈에 비치었는데 그들은 불과 풍신자석과 유황의 가슴방패를 붙였고 말들은 그 머리가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준다. 이것들은 형제자매이다. 그래서 각각의 사물에 대한 인상과 상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계가 있어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완전해진다. 듣는 것은 애정에 속한 기관이고 보는 것은 생각에 속한 기관이다. 그 둘은 서로 작용하고 반작용한다. 그래서 각각은 서로 주고받아서 사물에 관한 납득이 완전해져 각각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런데 본문의 경우 요한이 보는 것에는 특유한 점이 있다. 그는 앞에서는 자기가 영 가운데 보았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환상 가운데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실사 요한의 이 환상이 진짜였지만 그것의 근원은 비실재였다. 말과 승마자는 이 군대가 표현하는 거짓 추론이 근원하는 공상에 관한 상징이요 이 상징성을 위한 창조였다. 자연적 인간의 추론은 감각의 오류를 기다랗게 잡아 늘린 것밖에 더 아니다. 또는 실재에 반대되는 환각에 대해서, 사물의 외관에 관해서 교묘하게 확증하는 것일 뿐이다. 진짜 진리가 결여된 상황이나 또는 참여된 상황이나에 따라서 가상적 진리를 좋아하는 추론의 지적 품성이나 도덕적 품성은 폭넓게 달라진다. 예를 들면 외관에 기초한 천동설 외에 다른 학설이 없었을 때에 천동설을 뒷받침하려는 설명의 시도는 자연스러웠을뿐 아니라 칭찬을 받기도 했었다. 그러나 우주의 진짜 체계가 발견되었을 때 지동설에 반대되는 천동설을 옹호하려는 시도의 양상은 매우 달랐다. 그 이유가 거짓이 진리라고, 진리가 잘못되었다고 입증하려는 시도란 인간 자질의 남용이고 모든 인간 마음에 있는 하느님의 보좌인 정의와 심판에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영적 사항에서도 이와 같다. 말씀 속의 가상적 진리만이 인간이 아는 전부였을 때 그 진리의 일관성과 조화를 보여주겠다는 어떤 솔직한 시도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기특한 것이었다. 그러나 말씀 속의 진짜 진리가 빛 가운데 놓여졌을 때 이 상황은 적개심만을 흥분시켜 옛 것과 새 것이 싸우는 상태를 가져올뿐인 경우, 인간은 위의 두 학설의 대립과 대등한 과오를 범하게 된다. 이것이 자연적 인간의 태도이다. 감각의 범주에 믿음을 두고 있을 경우 그는 그 범주 안에 놓여 있는 주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계발되고 또 합리적일는지 모른다. 그가 학문과 과학 등등에서 저명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 속에 감추여 놓인 신비를 더 한층 꿰뚫어 보는 사람은 자연보다 더 높은 세계를 보고 이것이 자연에 나타난 외관과 다르다고 스스로 확증하면서 자연의 세계는 영의 세계를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하다고 말하게 된다. 영(spirit)은 감각의 범주 너머에 놓여있다. 이로부터 생명이 와서 자연이

살고 있다. 생명이 그 속성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 생명은 사랑이다. 사랑이 생기를 불어넣고 지혜가 방향을 가늠한다. 이것이 태양에서 이글거리고 나무에서 꽃피운다. 감각의 눈에 자연은 태양으로부터 산다고 나타나기 때문에 생명이 자연이라고 가상하는 것, 결과를 관찰하고 원인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이런 이론을 받쳐주는 모든 추론은 감각의 오류로부터이다. 이 책의 환상(vision)은 계시록을 부정하는 이들만에 관계되는 게 아니다. 이 책은 그 속의 계시를 인정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계시의 본성과 가르침을 감각적으로 추론하고 판단하는 이들과도 관계된다. 더욱이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궤변이 진리라고 자신을 확증시키고 타인까지 인정시키려드는 사람과도 관계된다. 모든 이런 추론은 오류로부터이다. 자연적인 것들에 오류가 있듯 영적인 것에도 오류가 있다. 다시 말해 자연 안에 가상적 진리와 진짜 진리가 있듯 계시록 안에도 존재한다. 종교에 있어지는 오류(error)는 대체로 성서의 가상적 진리(apparent truth)를 진정한 진리(real truths)로 확증하는 데서 비롯된다. 말씀의 가상적 진리를 순박한 사람이 믿고 있는 한 어떤 피해도 결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하느님은 성내시고 질투하시고 죄인을 처벌해야 속이 풀리시는 분이라고 믿을는지 모른다. 이럴 경우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느님을 두려워함이 그 사람에게게는 더 강할는지 모르나 그가 신성의 속성을 이렇게 보고 있어도 그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이런 가상적 진리가 진정한 하느님의 속성이라고 채택하고 확증할 때, 체계화한 신성의 상부구조로 추켜세울 때 심각한 오류가 되어간다. 대단히 비극적인 오류 한 가지가 있다. 정의로운 하느님께서 죄인의 죽음을 요구하실 때 죄 지은자 대신 무고한 자의 피로 만족될 수 있다고 믿게한 오류이다. 이런 오류를 인간이 좋아한다는 것은 얼마나 교묘하게 독특한 동물인지! 그들의 말을 대신 말해보자.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 죄인에게는 죽음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게다가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 안에서 죄를 짓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정죄 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모든 인간을 위해 하느님의 아들이 그들의 죄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받아야 할 벌로 고통받지 않았더라면 모두 영원히 죽고 말리라는 것이다. 신성한 정의는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만족되었는바 하느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을 의롭게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그분이 요구하시는 전부는 믿음뿐, 즉 그리스도의 희생의 효력을 믿는 것이다. 신실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해야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자기 믿음의 열매 또는 증거에 불과하다. 인간은 일함 없이 구원될 수 없다. 그러나 그 일함이 구원에 아무런 기여를 해주지 못한다.” 위와 같은 말은 대단히 짧은 그들의 추론이지만 이와 다른 많은 추론으로 하느님의 명령은 인간의 전통으로 인해 효력 없게 된다. 실질적 율법의 이론적 찬양이 율법을 변조하는

수단으로 돌변했다. 이런 궤변의 주창자가 그 교리를 방어하느라 지껄이는 논쟁이 “말이 두른 불과 풍신자석과 유향의 가슴방패”이다. 그들이 이 교리를 가르치는데 채용한 추론들이 말의 입에서 뚫어지는 불과 연기와 유향이다. 불과 유향은 더 낮은 세계를 묘사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이 두 가지는 영원한 화를 입은 영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지닌 두 개의 큰 요소, 즉 악인 것을 사랑하고 거짓된 것을 믿는 것을 상징한다. 지옥의 불은 지옥의 최소 단위로서의 불이 아니고 영원한 벌을 받도록 신성한 분노로 점화되어 계속 타고 있는 불도 아니다. 지옥의 불은 사악한 자의 심정 안에서 타고 있는 것, 자아사랑의 불, 그러므로 하느님을 미워하는 불, 서로 미워하는 불, 사실상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천국적 불에 반대되는 불이다. 이 세상에서는 덕행이라는 외관을 옷입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가 덕행의 외관조차도 그 나름대로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불과 유향 외에 말의 가슴방패에는 풍신자석(jacinth)이 있다. 불과 유향 외에 말의 입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있다. 하늘같은 푸른색(cerulean blue)인 풍신자석은 총명을 상징한다. 그러나 악한 자에게서는 자아에서 비롯된 총명, 자아사랑의 제물이다. 그들의 입에서 불과 유향과 더불어 유출되는 연기는 악한 사랑의 불로 인해 생산된 거짓이다. 악한 사랑이 거짓된 생각을 생산한다. 악과 거짓은 피해를 주는 가르침과 악한 행위를 생산하고자 할 때는 하나로 담합한다. 요한이 주목한바 이것들은 말의 입으로부터 뚫어 나왔다. 이 모습은 추론함과 가르침의 위와 같은 행동을 암시하는게 분명하다. 말이 사자의 머리를 가졌듯이 그들의 추론이나 가르침은 태워버릴 듯 뚫어내나 사자의 입으로부터서의 응변은 어두워지게만 한다. 사자는 힘을 상징한다. 이는 진리에 반대하는 진리를 옹호할 때이든 언제나 힘을 상징한다. 악마는 으르렁대며 이리저리 서성대며 뭔가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려 드는 사자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탄은 거짓된 외관 아래 희생자를 엄습한다. 이를 위해 빛의 천사로 위장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성경의 참 언어에서 멀어지게 추론해댄다. 악은 악마이고 거짓은 사탄이다. 악에서부터 진행되는 왜곡된 모든 추론은 그 근원이 악마적이고 그 본성은 사탄과 다를 바 없다.

18.19. 악으로부터 생산된 거짓의 본성이 사탄과 다를 바 없는바 그 결과는 죽음뿐이다. “그 말들의 입에서 뚫어내는 불과 연기와 유향, 이 세 가지 재앙 때문에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말들의 힘의 근원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었습니다. 그 꼬리는 뱀과 같으며 머리가 달려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칩니다.” 생각과 추론은 입에서 진행되는 것들이다. 말로 의미된 이들과 더불어 이것들은 불이라는 자아사랑으로부터, 연기라는 왜곡된 것을 사랑함으로부터, 유향이라는 거짓과 악을 수단으로 선과 진리를 파괴하려는 욕망으로부터 터져나왔다.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들이다.” 이것들이야말로 더럽히고 파괴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인간적이라는 모든 것, “삼분의 일” 사람으로 의미되듯 모든 것을 파괴한다. 이미 살핀 바같이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란 사람들의 전체를 뜻한다. 그렇다고 이 예언은 말이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지적인 지각 또는 모든 이해성이 파괴되었다는 뜻이다. 그 이유가 인간의 모든 이해성이 인간성, 인간을 사람다움게 만드는 특질, 영적인 마음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자연적 수준이 되어갈 때 그 교회의 모든 추론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뜻을 헤아리는데 있어 오류에 근원을 두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감각적 인간이 파괴를 시도할 때 사용하는 힘이다. 그 이유가 말씀의 글자적 의미로부터 악을 좋아하는 쪽으로 추론하는 수단을 써서 그들은 직접적이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악을 정당화 할 수 있고 변명하는데, 이를테면 성경 자체를 자신들의 본질적 원리에 반대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나타나게 만들면서 그것을 교묘히 수단으로 삼는다. 신비한 말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었다. 입이 사자인 반면 꼬리는 뱀이었다. 이는 대담함과 교묘함,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찬성하는 쪽으로 확증하는 대담성과 교묘함이다. 그런데 말의 꼬리를 형성한 뱀이 머리를 가졌다. 교리의 머리란 그 교리 중에서 가장 빼어난 부분, 그 교리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꼬리는 그런 교리를 확증하는 부분이다. 이렇게도 예언서에서 말해지고 있다. “...그 머리란 장로와 잘난 체하는 자들이요 그 꼬리란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이다.” (이사야 9:15). 사자의 입은 자연적 추론이고 뱀의 입은 감각적 추론이다. 사자의 입이 주장한 것을 뱀의 입이 확증한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타인을 해친다. 마음이 잉태한 것을 감각이 확증할 때 진리와 정의의 관한 원리는 치료약이 없을 만큼 피해를 당한다.

20,21. “이런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마귀들을 경배하고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걸어도 다니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미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대해서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란 진리의 이해성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나 개혁이나 거듭남이 안된 사람들이다. 지각하는 자질이 아직 그 힘을 지니고 있는 이들과 더불어 믿음만의 교리의 결과가 여기서 놀랄만하게 명백해지고 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구원은 믿음만으로 된다 라는 신념은 실제로 그 교리를 파기하고 참된 회개의 실행을 방해한다. 회개의 필요와 그 가치는 다음과 같은데 있다. 선을 받으려면 먼저 악이 제거되어야 한다. 악은 오로지 진지한 회개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견해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믿음 자체가 모든 것을 함유한다고 고집스럽게 믿는다.

믿음의 행동이 용서함과 정당함을 확고히 해주고 있다. 만일 죄가 용서되고 신앙자가 정의롭다면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 정의로워진 후 신앙자는 성별 된다는 것, 또는 점차 완전히 기록해진다 것은 참으로 수긍된다. 그러나 정의로워지는 첫 번째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기록해지는 두 번째 작업이 결과될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잘못 납득되는 한 가지는 용서함의 본성에 관해서이다. 용서(pardon)에 관해 생각하는바, 그것은 지상의 통치 아래에서와 같이 법이 어떤 범죄적 행동에 과해진 벌을 삭제하는 신성한 명령으로 상상해왔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통치 체제에서 죄는 죄가 제거될 때만이 용서되어진다. 그러나 과거에 있던 죄는 어떠한가? 과거의 죄는 죄를 짓게 하는 경향성이 제거될 때 용서되어진다. 이외에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없다. 저질러진 죄는 저지르지 않았던 상태로 되어질 수 없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욕망이 심정에서 뿌리뽑아질 때 법의 요건이 충족된다. 그 이유는 욕망이 순종했기 때문이다. 악은 악을 미워하여 금하는 만큼에서 제거된다. 선은 선을 사랑하여 실시하는 만큼에서 획득된다. 그러나 악을 미워하여 금하는 정도에서 선은 사랑되고 실시될뿐이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종교의 진짜 시작은 회개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회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과정인지 확신하게 해줄 만큼의 많은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얼마나 진지한 회개가 수행되었느냐로 가늠되듯 회개도 믿음에 같은 비중으로 의존하여 쌍벽을 이룬다. 이 둘은 서로 의지해서 자라가고 강건해진다. 그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하고 반작용한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열매 없는 나무 같을 뿐이다. 설사 믿음이 선을 행하고 있는 때조차에서도 행해진 그 선은 순수하지 못하다. 그 이유가 회개 없는 악이 그 선 안에 잠복하고 있어 기회만 잡으면 그 선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이런 회개치 않은 악이야말로 타락한 자가 숭배하는 악마이다. 그 이유가 인간은 자신의 악을 심정 안에서 즐기는 악의 숭배자이기 때문이다. 악마란 개인적으로 볼 때 각자의 악한 바램을 뜻한다. 이것이 본문에서 취급되고 있고 성경에서 심하게 정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외에 악한 욕망도 악마로 의도되는데 거기에는 금이나 은, 동, 돌, 나무로 만든 우상들이 있다.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걸지도 못한다. 자연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이든, 바라는 어떤 목적 때문에 명령하는 수단으로서이든 금과 은의 숭배자이다. 그러나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에도 우상들이 있다. 교회의 우상들은 인간의 손으로 작업된 종교의 교리를 구성하고 있다. 그 이유가 교인들이 성경의 진리로부터 자신의 지혜를 수단으로 교리를 공들여 고안해내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모든 오류들도 성경으로부터 끌어 내진다. 오류를 만들어내도록 해석된 성경도 성경인 듯 보인다. 성경의 진리들은 교리적인 우상을 제작하는 재료이다. 이 재료로 된 것 중에서 금 우상은 신성과 천적수준의 사항에 관한 교리의 오류이고, 은 우상은

영적 차원에 관한 사항, 동 우상은 이타애에 관한 오류, 돌 우상은 믿음에 관한 오류, 나무 우상은 선한 일에 관한 오류들이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살아있고 실용적이다. 그러나 이 진리들이 인간의 착상에 의해 어떤 모양을 갖게 되면 그 진리들은 보지도, 듣지도 걸지도 못한다. 인간에 근원을 둔 모든 교리들은 영적 생명이 결여되어있어 성경을 신뢰하는 이들에게마저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없다. 그 교리들은 눈이 멀어있다. 그 이유가 진리의 이해성을 열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귀머거리이다. 그 이유는 선함에 관한 지각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걸지 못한다. 그 이유가 인간에게 선한 삶을 살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 스스로 만든 이런 생명 없는 우상들에 절하는 이들이기에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는다.” 살인이란 영적 생명, 즉 하느님을 사랑함을 본질로 하는 생명이 파괴되는 것을 뜻한다. 마술이란 선한 것을 뒤집는 것이다. 음행이란 참된 것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도둑이란 구원해주는 지식을 타인에게서 빼앗는 것이다.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교리를 삶에 응용하는 이들은 위와 같은 악들을 행한다. 그들이 그 교리를 제 스스로 확증한다면 회개치 않는다. 회개치 않는 자의 끝은 멸망이다.

10

신성한 책의 입급째 봉인이 열렸을 때(8:2), 일곱 나팔이 일곱 천사에게 주어졌는데 그 중 여섯 나팔을 불었다. 각 나팔소리의 울려 퍼짐은 하늘과 땅을 흔들었고, 한편 지옥 자체는 더욱 무질서해지게 풀려져 파괴가 더욱 진행되었다. 이 모든 사항은 표시(sign)들이고 이것이 환상에서 예언자에게 표현되었다. 이는 교회의 상태를 점진적으로 폭로한 것이다. 동시에 그런 교회에 소속되었던 저 세계에 있는 이들의 상태도 폭로한 것이다. 이들은 교회 하강의 각 단계에 있는 교회의 품성을 표현했다. 일곱 천사 중 한 천사만이 아직 나팔을 불지 않았다. 이 천사의 나팔은 회년의 나팔이다. 이 소리는 노예 상태의 통치가 막을 내리고 자유 상태로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한다. 이 장에 기록되고 이어지는 뒷장에 기록된 사건들, 여섯째 나팔소리와 일곱째 나팔소리 사이에 기록된 사건들은 이미 우리가 생각해본 이들로부터의 각기 다른 품성을 지녔다. 그리고 이 중간의 사건들은 일곱 번째 소리가 소개하는 것들의 더 나은 상태에 대한 예비적인 것들이다.

1,2.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구름에 싸여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둘러있었으며 얼굴은 태양과 같았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펴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 땅을 디디고...” 이 천사의 모습, 그리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어지는 상황은 여섯째와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는 그 사이에 있어진 모습과 유사한 점이 있다. 봉인이 떼어지는 것들 중에서 네 천사들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네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천사 하나가 동쪽으로부터 승강했는데 그는 하느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각 지파 출신 십 사만 사천 명에 도장을 찍었다.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소리 사이에서는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왔는데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을 지녔고, 요한이 이 책을 먹음으로 그로 하여금 여러 민족들에게 예언할 수 있게 했다. 그 다음 두 하늘의 증인의 진리에 그들의 증언을 주고 있다. 유대교회의 종말에 앞서 세례자 요한과 주님이 등장했다. 이는 교회의 믿는 멤버들에 도장을 찍고 진리에 증언을 주시게 위해서였다. 이 장의 두 증인처럼 두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하늘로 들려졌다. 교회의 종말 전에 또 다른 교회의 시작을 위해 준비가 있게 된다. 이것은 어떤 새로운 계시, 또는 진리의 명백해짐으로 결과되고야만한다. 일반적 처방의 마무리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위기가 가까웠을 때 쇠퇴하는 각기 다른 시점마다에서 요구되어진다. 이와 같은 것 중 하나는 니가야 종교회의였다. 이 회의는 교회들이 아리안주의(Arianism)에 먹이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주었다. 이 방파제 중 하나가 개혁교(Reformation)였다. 그리하여 교회가 로마 교황의 부패로 완전히 파괴되는 것에서 구해주었다. 이는 거룩한 성경의 책이 감추고 있었던 부분에 나타나있다. 교회의 모든 부패는 말씀 안에서 밝히 알리는(계시적인, revealed) 진리의 부패를 동반한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회복은 말씀이 함유한 진리의 회복을 통해서 결과되어진다. 교회의 부패가 봉인이 떼어짐으로, 나팔소리가 퍼짐으로, 대접을 쏟음으로 폭로되고 있다. 이런 모든 폭로는 책과 연결되어 보여지고 있다. 이 책으로부터 심판도 결국 결과되고 있다. 천사의 손에 들린 책은 파멸이 진전되는 것을 억류하고 마지막 회복을 위한 설비도 갖고 있다. 힘센 천사는 그의 역할로부터 표현적 품성을 보이고 있다. 그는 신성한 진리 또는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에 대한 모형이다. 그가 입고 있는 구름은 말씀의 글자적 의미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무지개는 말씀의 영적 의미인데 이 의미는 글자적 의미 안에서, 글자적 의미를 통해 빛을 낸다. 누구도 태양을 직시할 수 없듯이 누구도 하느님의 얼굴을 직바로 쳐다볼 수 없다. 영적 의미는 그분의 말씀 가장 깊은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러나 내재하는 빛이 글자라는 구름 위에 드리울 때 그 교리에 단비 내리듯, 아침이슬이 내려앉듯 드리운다. 그리고 그 빛이

단비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광선으로 쪼개져 비치면서 평화를 언약하는 표시와 천국의 총체적인 아름다움을 등글게(arch) 형성해준다. 내적 의미로 있는 말씀의 특성이 천사의 모습으로 더 한층 묘사되고 있다. 황금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처럼 그의 얼굴은 해같이, 그의 발은 불기둥 같았다. 해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상징물이고 이 사랑과 지혜는 천사와 인간에게 영적 생명과 빛의 근원이다. 이것들이 말씀의 가장 깊은 측면을 구성한다. 이 깊은 측면의 의미가 하강하면서 각 가지 등차에 고루 나누어주되 가장 낮은 수준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천사의 발로 표현되어있고 불기둥 같은 그 발이란 몸과 발의 관계 같이 높은 진리와 말씀의 최말단 의미의 관계로 있는 신성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천사의 손에 들려 있는 책이란 옥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보여졌던 책과 같은 책이다 (제5장 참고). 이 때의 책은 일곱 봉인으로 봉하여져있었다. 어린 양이 그 봉인을 뺌으로 이제 열려져 있다. 이 열린 책이 그것을 받을 준비된 이들, 요한으로 표현되는 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 책은 요한이 맨 처음 보았던 책과 같으나 한 가지 차이는 “작은”책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가 말씀 전체가 아닌 말씀의 진리들 중 하나만에 관계되어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한 개의 진리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성만이 유일한 신성이시다 라는 진리이다. 이는 둘이지만 하나이다. 그 이유가 그 둘은 말씀의 본질이자 중심 되는 진리요 교회에도 본질이자 중심 되기 때문이다. 이 진리는 큰 책을 요약한 작은 책에 해당된다. 교회가 신비로운 주님의 몸체 중 어느 부분을 구성하기에 앞서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서 내향으로 소화해야 한다.

그의 손으로 열린 책을 들고서 천국으로부터 내려온 영광스런 존재, 인간의 눈에서 감추어 있었고 봉해져 있었던 진리를 다시 읽도록 한 영광의 존재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있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옥좌요 땅이 그분의 발판인바 위 천사의 행동모습이란 은 교회는 주님의 후원과 주권 아래 있다는 것, 땅은 영적 의미에서 교회이다라는 표시이다. 바다가 땅과 동시에 언급될 경우 땅은 교회의 내적 측면을, 바다는 교회의 외적 측면을 뜻한다.

그런데 왜 이 천사는 오른발로 바다를 딛고, 왼발로 땅을 딛고 있었을까? 오른쪽은 선함에, 왼쪽은 진리와 관계된다. 그러므로 천사가 오른발로 바다를 딛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외적 측면을 형성한 단순한 자들의 마음 안에 주님이 쉬실 수 있는 기초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왼발로 땅을 딛고 있었다는 것은 교회의 내적 측면을 형성한 슬기로운 자들의 마음 안에 그분의 진리를 위한 기초가 있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표현된 교회는 선함에도, 진리에도 기초가 있었던 교회가 아니다. 최악의

상태까지 포함해서 교회에는 얼마 안되는 마음의 상태이지만 거기에 선함과 진리가 남아있도록 아껴두신 것들이 잔존하고 있기에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여기에 주님께서 그분의 발을 놓으실 수 있고 주권을 행사하신다.

34. 이렇게 천사가 오른발을 바다에, 왼발을 땅에 놓았을 때, “마치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고향을 지르자 일곱 천둥이 각각 제소리를 내며 말을 했습니다.” 천사의 외침이란 마치 사자가 제 새끼를 유린당할 때, 또는 제 먹이를 강탈당할 때의 소리같이 힘의 표현 뿐만 아니라 번민의 표현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이는 교회가 회복되도록 추구할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는 표현이다. 특히 이 외침은 사랑 측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크다”(loud, great)가 선함 측면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이 환상과 관계되는 교회의 상황은 요엘서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것, 즉 추수 때가 무르익어 심판의 낮을 기다리는 것, “야훼께서 시돈에서 고향치시고 예루살렘에서 소리치시니 하늘도 떨고 땅도 떠는구나. 그러나 야훼께서는 당신 백성의 은신처, 이스라엘 백성의 산채가 되시리라” (3:16). 천사의 이 외침은 박살난 교회의 상태 때문에 통곡하는 사랑의 소리, 동시에 진리의 권능으로 회복된다는 약속의 소리이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겁내지 않을 자 있겠느냐? 주 야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전하지 않을 자 있겠느냐?” (아모스3:8). 천사가 고향치자 일곱 천둥이 제소리를 냈다. 4장 5절에서 이미 살핀바와 같이 옥좌로부터의 천둥과 번개는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한 신성한 진리를 뜻한다. 천사의 소리에 화답한 일곱 천둥소리는 삭막한 교회의 상태에 외친 신성한 사랑에 대한 천국의 응답이다. 일곱은 거룩함의 숫자이고 숫자 하나는 완전함 또는 완성됨을 표현한다. 천둥침은 계시가 지니는 본성이다. 그 이유가 계시는 하늘을 통해 오기 때문이다. 천국에 있는 신성한 진리는 신성한 사랑이 인간 사이에 있는 교회에서 그 자체 명백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시는 우리로 알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직은 아니다. “일곱 천둥이 말할 때에 내가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자,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비밀에 붙여두고 기록하지 말아라’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명령이 다니엘에게도 있었다. “...이 환상은 오래 있다가 될 일이니 비밀에 붙여 두어라” (8:26).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비밀에 붙여두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천둥들이 명시하는 진리들은 공표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 이유가 그 진리들은 아직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즉 그 진리들은 인간의 마음과 삶의 책에 찍어지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뜻한다. 참으로 요한이 곧바로 기록하려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가 요한으로 표현되는 이들은 그 진리를 이해하고 기쁘게 받아 교통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그들이라 해도 확실하고 안전하게 받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말이다.

그 이유가 요한은 아직 이 작은 책을 먹지 않았고, 그 진리의 달콤함과 쓴맛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용이 내던져 질 때까지 그것을 받을 수 없었다.

5.6. 이 명령이 요한에게 내려졌을 때 요한이 말한다.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던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구절은 다니엘서의 기록과 유사한 점이 있다.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윗쪽에 서 있던 분이 두 손을 하늘로 쳐들고는,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는 말이 들렸다. ‘한 때, 두 때하고 반 때가 지나 거룩한 백성의 군대를 부순 자가 죽으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12:7). “...바라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순금 띠를 띠고 있었다. 몸은 감람석 같았고 얼굴은 번갯불처럼 빛났으며 눈은 등불 같았고 팔다리는 놋쇠처럼 윤이 났으며 음성은 못 사람이 아우성치는 것 같았다” (다니엘10:6). 이 인용 구절의 “한 사람”은 본문의 “힘센 천사” 같았고 이는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 신성한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참으로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한 사람”은 요한이 본 “사람의 아들” (1:13-15)과 대단히 비슷하다. 요한이 보게된 천사는 인성 안에 계신 주님의 모습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몸 자체가 감람석(beryl) 같았다는 구절과 더불어 구약 성서에서 언급되는 하느님에 관한 여타 환상과는 다르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그분의 보편적인 주권의 표시로서 땅과 바다를 디디셨는데 이제 그분은 그분의 권능의 상징으로 손을 드시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맹세하신다. 신성한 존재의 맹세는 누구 앞에서 있어질 수 없고 그분 스스로 하시는 맹세만 있을 수 있다. 사실 그분만이 맹세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에서 맹세하실 수 있다. 그분만이 성실되고 참된 증거자 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진리이시다. 그분의 말은 확실하고 변경될 수도 없다. 참으로 천사는 또다른 천사를 두고 맹세한다. 그러나 그 다른 것이란 신성한 사랑 측면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생명되는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볼 수 있는 하늘,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창조하셨을뿐 아니라 천사들의 하늘, 인간 사이에 교회가 존재되게 하셨다. 그 이유가 하늘과 교회의 창조는 볼 수 있어야 그 목적이 완성되는바 성경에서 창조가 다시 말해질 경우 언제나 영적 차원에서 의미를 준다. 교회와 세상 아닌 것이 계시록 환상의 주제 되는 바 시간이란 단어는 교회와 관련된 언급이고 세상에 관련된 게 아니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사실 지상의 교회는 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다. 지상의 교회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역사는 교회 상태와 그 변화의 기록이다. 그러므로 시간은 상태를 뜻한다. 교회는 수많은 상태의 변화를 통과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교회를 구성하는 사랑과 믿음의 상태 자체가 더 이상 있지

얇을 것인바 교회의 마감이 서둘러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에서조차 시간은 상태의 연속이다. 낮과 밤, 여름과 겨울, 이런 것들의 연속이 시간을 만든다. 이런 것들의 교차가 중단되면 더 이상 시간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영적인 낮과 밤, 여름과 겨울, 뿌리고 거두는 때와 상응되는 교차 상태는 영적 삶의 조건되는 상태를 생산한다. 이런 것들이 중단될 때 내적 세계를 위해 더 이상 시간은 없다. 그것은 밤이고 겨울이다. 어둠과 죽음이 통치한다. 그러므로 시간의 종말이란 세상의 종말과 아무 관계가 없고 교회의 종말과 관계된다.

7. 이런 극한 상황에도 희망이 있다.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터인데 그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해주신대로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이 완성될 것이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과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영원무궁토록 군림하실 것이다" (11:15). 이 말은 예언자들이 받았던 기쁨의 소식이다. 모든 예언들은 주님께서 온 지상에서 왕으로 군림하실 때를 증언하고 있다. 그 때란 주님의 둘째 강림의 때, 하느님의 신비로움이 완성되는 때, 이 복된 완성(consummation)에 장애물이 된 것을 제거하게 되는 심판의 때이다. "작은 책"이란 하느님의 말씀 중에서도 특히 신성한 인성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느님이시라는 위대한 진리를 언급하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세대가 흐르면서 잃어버렸던 복음의 중심되는 위 진리가 이제 회복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전보다 더 명백해지게 하고 있다. 이것이 "책을 펴두고 있다"는 2절에서 의미되고 있다. 이 책이 요한에게 건네져 받아먹는 모습으로 마지막 때 주님에 관한 위 말씀 속의 교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가 표현되고 있다. 새 처방의 본질 되는 원리는 옛 처방이 사라지기 전에 언제나 미리 알려진다. 그 이유가 새 원리의 기초는 옛 원리의 남은 것들로부터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남은 것이 요한을 수단으로 여기서 표현되고 있다. 사랑 또는 이타애를 원리로 삼는 이들이 요한에 의해 표현되고 이것이 새 믿음의 첫 번째 그릇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사랑받는 제자에 관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에서도 표현되어져 있다. 이는 비록 믿음이 교회 안에서 죽어진다해도 그분의 재림 때까지 이타애는 잔류할 것임을 예수께서 상징적으로 가르치신 것이다. 즉 이타애의 상태에 있었던 이들이 주님의 둘째 강림의 교회에 관한 원리를 첫 번째로 받게 된다는 말이다. 그들이 새롭게 밝히 알려지는 원리들을 영접함이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먹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접한 상태가 먹음으로 야기되는 달고 쓴맛으로 표현되고 있다.

8-11. 요한이 하늘로부터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가서 천사의 손에 있는 그 책을 받아라.” 영접할 상태에 있는 이들, 이 진리를 알고저 하는 이들은 내향으로 받아 적는 방법으로 그 진리를 밝히 알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주님께로 갈 수 있게 인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들을 그분으로부터 직접적으로는 가르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하신다. 그분은 열린 책을 그분의 손에 들고 계신다. 천국의 소리가 요한을 초대하듯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그 책을 받아먹으라고 초대하시고 있다. 인간들은 값없이 제공되는 이 책을 요한처럼 가서 받아먹어야 한다. 주님께서 모든 권능을 지니셨지만 그분의 능력은 가까이 응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서만 효과적으로 일할 뿐이다. 그분은 부르고 간청하고 명령하시나 강요하지는 않으신다. 이사야서 55장 1,2절을 읽어보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너희 먹을 것 없는 자들아, 오너라. 돈 없이 양식을 사서 먹어라. 값없이 술과 젖을 사서 마셔라. 그런데 어찌하여 돈을 써 가며 양식도 못되는 것을 얻으려 하느냐? 애써 번 돈을 배부르게도 못하는데 써 버리느냐?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보아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뻐진 것을 푸짐하게 먹으리라.” 책을 먹는다는 것은 책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책을 입에 넣는 것과 배 안으로 책을 받는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여기서 지적하고 있다.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쓴맛이었다. 입은 생각과 상응되고 배는 의지와 상응된다. 진리가 생각 안으로는 쉽게 받아지지만 의지 안으로의 입장은 어렵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자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지! 그러나 죄로부터 떠나 진리와 행위를 수단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서 응낙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의로움을 입었다고 믿기만 하는 이들은 어려운데 없을지 모르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되 죄의 실제적 결과로부터가 아닌 죄 자체로부터 해방시켜주신다고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예수 스스로 고통을 통해 완전해지셨는바 그분의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야 완전해진다는 진리의 영접은 얼마나 쓴맛인지! 예수께서는 악과 지옥과의 싸움을 수단으로 입으셨던 인성을 신성으로 만드셨는바, 그분의 추종자도 심정과 삶 속에서 악을 정복함으로 거듭나야가 천국적이 되어야 한다는 진리의 행위는 얼마나 우리 배를 아프게 할까? 여기에 복음이 밝히 알게 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중한 진리의 쓴맛이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나 내향으로 그리고 실제로 실감하는 쓴맛은 처방의 말기에서 그것을 처음 받은 이들과 함께 더 위대하다. 그 이유가 옛 믿음과 새 믿음 사이에는 무엇보다 먼저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오류의 체계는 점진적으로 건설되어져왔다. 복음서의 진리들은

인간의 능숙함으로 모양새를 잡았다. 인간의 교묘함은 복음의 진리에 연장을 들이대어(출애굽기 20:25), 그 진리가 점령해야 할 장소에 오류가 적합하도록 짜 맞춘다. 이런 조건에서 진리를 받는 그릇은 오류의 울가미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해야만 한다. 그리고 오류를 지지하려드는 양쪽에서의 영향, 내향이나 외향의 영향에 저항해야 한다. 이런 저항은 내향의 싸움을 더욱 격렬하게 한다. 그러나 이 싸움이 종식될 때 맞이하는 평화는 그 얼마나 확고부동한지! 예수를 신성한 인성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 여호와로서 안다는 것은 평가할 수 없는 가치와 말할 나위 없는 능력의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 소유는 제자들로 예언자처럼 신성한 임무를 받아 집행할 수 있게 한다. 즉 “너는 여러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 새 처방이란 측면에서 이 구절을 역사적으로 응용한다면 이는 인간의 갖가지 조건과 만국 백성에 진리를 새로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이 예언하게 되는 각기 다른 계층의 이름들에는 보다 더 특이한 의미가 담겨 있다. “백성과 민족”은 영적 차원에서 볼 때 선과 진리를 원리로 삼는 이들, 또는 말씀이 선과 진리를 가르쳐 줄 때 기쁘게 그것을 응낙하는 이들이다. “언어와 왕”이란 말씀이 가르치는 선과 진리에 관한 원리들에 관한 지식과 지각이다. 말씀은 그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고 약속하지만 생각을 천국 쪽으로 돌리고 말씀 속의 진리를 기쁘게 응낙하는 이들만이 그 가르침을 받는다. 이들을 향해 요한은 주님과 그분의 새 왕국에 관한 진리를 다시 예언하거나 가르쳐야 한다. 기독교의 체자라는 점에서 볼 때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이란 기독교 체자의 마음에 있는 애정과 생각들이다. 그러나 요한이 발표하는 대상이 이방인이라면 그것은 자연적 마음속의 애정과 생각인바 이것들이 내적 인간에 군림하는 원리의 영향 아래 가져다 놓여져야 한다는 의미도 말하고 있다. 인간성(humanity)의 큰 세계는 개인적인 사람 안에 그것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류의 상태와 조건이 복되게 변화해 가려면 각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1

1,2.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는 임무를 받은 요한에게 명확하지는 않으나 앞장과 친밀하게 연결되는 또 다른 의무를 수행하도록 명령받고 있다. “또 나는 지팡이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 때 이런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서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보아라. 그러나 성전의 바깥들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것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새 처방의 예언자로서 그 처방의 원리를 받고 그것을 가르치는 임무까지 받은 그는 이제 교회 상태를 올바르게 검사하도록 명령받고 있다. 이것이 성소를 재는데 그 원리를 응용함을 수단으로 의미되고 있다. 유대교의 성전은 첫째로 주님 자신의 몸에 관한 모형이다. 둘째로 그분의 신비한 몸체로서의교회, 세째로 성령의 성전으로서 개인적인 기독교인에 관한 모형이다. 주님의 신비한 몸이 되는 교회가 지금 요한으로 측량하게 하는 대상이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주님의 신비한 몸체에는 천국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모두가 포함된다. 이럴 경우 천국의 교회가 본문의 “성전”으로, 지상의 교회는 “성전 뜰”로 의미되고 있다. 그러나 요한은 보편적 교회를 구성하는 측면에서 천사들의 천국 전체를 측량했을까? 확인되어지는 품질은 새로운 기독교인의 천국 또는 새 천국을 형성하는 이들이다는 것이다. 측량한다는 것은 단지 평가함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배열해서 올바른 질서로 가져다 놓는 것까지임을 첨가해볼 때 알게되는바 이 거룩한 측량은 이 예언의 부분이 관계되는 때에 진전되고 있는 신성한 일과 관련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는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까지 포함된다. 그 이유가 하늘에서 새 교회의 형성은 지상의 새 교회 건설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교회는 중간 영역의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도장을 받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와 셀 수 없이 많은 군중들로 구성되거나 최소한 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요한으로 측량하라고 명령된 성전을 형성했다. 이는 그 관계되는 자체로부터 명백하다. 그 이유가 하늘에서 열려져 있었던 하느님의 성전이 본 장 끝 절에서 언급되는 것과 같이 때문이다. 본문의 성전 측량과 유사한 구절이 에제키엘서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거기서(40 장) 측량사가 성전과 제단과 뜰의 폭을 재고 있었다. 마치 요한이 환상가운데서 본 것 같다. 그리고 에제키엘서에서 내려진 명령은 이스라엘 가문들이 그들의 불법을 부끄러워하도록 그 패턴을 측량하는 것이다. 그 의미에서 분명한 것은 측량자가 표현하듯 주님의 참된 교회와 그 백성의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백성에게 그들의 불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즈기리야 역시 측량줄을 지닌 사람을 보았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길이와 넓이를 알아보려고 측량하러 가는 도중이었다. 이 책 뒷부분에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길이와 넓이, 높이를 재었다. 교회의 측량이란 교회의 사랑과 믿음을 재는

것, 그로부터 교회의 일도 재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품질을 총망라하는데 양적 측면이기보다는 서로 사이의 관계에 관한 측량이다.

성전을 측량하도록 요한에게 주어진 도구는 지팡이 같은 갈대(a reed like unto a rod)였다. 이 표현은 두 종류의 본성이 하나로 병합된 듯 비쳐지고 있다. 갈대는 교회의 믿음 측면의 품질을 측량하고, 지팡이는 교회의 사랑 측면의 품질을 측량한다. 갈대는 연약하고 불안정한 믿음을, 지팡이는 강력한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 예언자는 약하고 무른 사랑과 믿음을 지닌 이들을 향해 신성의 온유함을 묘사할 때 그분을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꺾져 가는 심지도 꺾지 않으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보낸 사람이 지닌 들떠있는 믿음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물으신다. “너희는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나 힘을 상징하는 지팡이는 시온으로부터 나가고 이 지팡이는 깊은 고뇌와 격렬한 시련에 있는 그분의 백성을 위로한다. 요한이 교회를 측량하는데 사용한 지팡이같은 갈대란 믿음과 사랑에 관한 교회의 교리 안에 있는 말씀에 진리와 선함이 들어있다는 것 외에 더 다른 의미는 없다. 앞장 끝 절에서 살핀바 같이 요한은 책을 먹음으로서 측량의 표준이 전달되어 있고 그 작은 책이란 사랑과 믿음의 교리 자체이다. 그러므로 교회 상태의 점검도 그 표준에 의거하고 있다. 성전이 측량된다는 것에는 그 교회 자체가 교회를 구성해주는 품질을 소유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예언자는 성전 바깥은 측량 말도록 명령받고 있다. 이 명령이 함축하는 바, 지상의 교회에는 평가해서 선포할 측량자도 없고, 참된 교리도 없고, 사랑과 믿음도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새 성전이 지상에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다가 옛 성전은 참된 사랑 또는 참된 믿음의 천국적 품질의 어떤 것도 가지기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전의 바깥들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말아라.” 그 이유인즉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바깥들은 기독교가 되는 것을 중단하고 이교도가 되었다. 이교도의 멤버들은 더 이상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자녀이다. 이런 이유가 이방인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서이다. 하나는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말하고 또 하나는 교회에 적개심을 품은 이들도이다. 후자의 이방인의 품성이 이 구절에서 의도된 이방인들이다. 즉 이방인적인 원리, 교회에 반대되는 원리들, 영적 선함에 반대되는 자연적인 악, 진리에 반대하는 오류들이다. 그 이유가 이방인들은 진리에 반대하는 쪽에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진리에 무지한 쪽이라고 말해야 타당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교회 안에도 이방인이 있다. 이 이방인에게 황폐한 교회가 주어진다. 그들은 오류보다는 악의 영향을 더 받는다. 성전 바깥들을 점령한 이방인들은 거룩한 성을 발로 밟는다. 예루살렘의 성, 이것은 거룩한 성으로 의미되는데 이는 교회, 그러나

교리 측면에서의 교회이다. 교회의 교리는 거룩하다. 그 이유는 그 교리 모두는 하느님을 사랑함과 인간에 대한 이타애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이 거룩한 도성을 발로 밟으리라고 선포될 경우, 그 의미란 교회 종말에 사랑과 이타애라는 거룩한 교리들은 자아사랑과 사리사욕에 의해, 인간의 욕구와 욕망에 의해 짓밟힌다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일시적인 것에, 하늘에 속한 것이 땅에 속한 것에, 영적 사항이 자연적인 것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측량되고 평가되어 실제화 될 때 종교는 발에 짓밟힌다. 발은 자연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주도권을 쥐게 되면 신성한 모든 것, 영적인 모든 것은 짓밟힌다. 이렇게 이방인이 주도권을 쥐고 그릇된 정치가 계속되는 것에 할당된 시간이 있었다. 그것은 “마흔 두 달” 계속되었다. 이 숫자는 계시록의 이 형체 외에 성경에서 더 다른 형체도 가진다. 모든 경우에서 이 숫자는 셋(three)과 반(a half)이라는 숫자로 그 자체의 의미가 풀려진다. 다시 말해 마흔 두 달(forty and two months)은 삼 년 반(three years and a half)이다. 이 구절,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숫자(셋 그리고 반)는 끝과 시작을 뜻한다. 셋은 완성된 시기, 상태의 결말, 처방이 종료됨을 뜻한다. 그러나 절반(a half)이 추가되었을 경우 이 절반(the half)은 새로운 시작을 뜻한다. 그러므로 셋하고 반은 옛 것이 끝장을 보고 새 것이 시작됨을 뜻한다.

3.4. 새 교회가 하늘에서 형성되었을 때 지상에서도 그것의 시작을 위해 수단들이 제공되어야만 할 것이다. 영적인 빛은 마치 자연계의 빛이 대기를 통해 태양으로부터 오듯이 천국을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자연계의 빛이 결과를 생산하려면 그 빛을 받고 반영해주기도 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빛도 이와 같다. 영적인 빛을 받는 대상은 지식들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모든 처방(dispensations)은 새 계시에 의해 소개되고 새 계시는 새 계시자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모세가 있었고, 세레자요한이, 계시자 요한이, 스베덴보리가 있게 된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과 그에 앞서 있던 교회들에 대한 모든 특사들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 앞서 있던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완성된 상태로 우리가 소유하도록 신성한 계시의 어느 부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은 말씀에 신성한 계시를 더 보태지는 않았다. 그러나 말씀을 열고 그것을 설명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와 사도들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가장 늦은 종을 통해 해석을 주셨다. 이 종은 계시자라기보다는 해설자, 또는 계시 자체가 함유한 비밀을 밝힌 계시자이다. 그를 통해 하느님께서 잃어버렸거나 잘못 이해되었던 말씀의 진정한 교리에 관한 지식과 교통을 이루어 더 이상 말씀의 근원되는 의미가 잃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말씀의 근본적인 권능을 잃지 않게 하셨다.

지금 열리는 말씀 속의 두 위대한 교리 또는 원리가 두 증인으로, 그리고 이 원리의 공표가 두 증인이 예언함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천국적인 건의자(memorialist)에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 구절을 이와 유사한 예언과 연결하여 세심하게 살펴보면 나타나는 바, 이 두 증인이라 함은 하느님으로부터 진행되는 두 원리 또는 품위가 인격화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지상의 교회에 그분과 그분의 나라에 관해 증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증인이라 함은 지상의 하느님 앞에서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이며 두 등불입니다.” 즈가리야 예언자의 환상은 계시록의 이 부분의 상징성에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확정짓는데 대단한 도움을 주고 있다. 4장에 기록된 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보이고..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씩 서 있었다.” 즈가리야와 말을 하던 천사가 이 환상을 설명하기를, “이것은 야훼께서 즈루빠벨이 할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다. 만군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시다.” 두 올리브나무가 천사에 의해 더 설명되기를,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온 세상의 주를 모시도록 기름부어 성별한 두 사람을 뜻한다.” 예언자에게 이런 환상이 주어지던 그 때, 즈루빠벨은 바빌론에서 귀향한 일부 유대인의 우두머리가 되어 큰 실망과 주저함 속에서 예루살렘성과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즈루빠벨에게 주님의 영이 이 거룩한 사업을 지원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의도되었다. 주님의 영은 그분의 사랑과 지혜의 영이고, 그분의 사랑은 심정을 따뜻하게 하고 그분의 지혜는 이해성을 개발시킨다. 유대인의 처방 아래에서 그분의 사랑과 지혜가 기름을 지닌 올리브나무, 불을 가진 촛대로 상징화되어 있었다. 이 기름, 왕이나 제사장을 기름부을 때 늘 사용되었던 올리브 기름은 사랑이라는 거룩한 원리를 상징하고 있고 이로부터 모든 성화됨이 파생된다. 가장 높은 의미에서 거룩한 기름은 신성한 사랑 그 자체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 기름은 세상에 오시게 되는 주님을 표현하는 이들이 거룩한 직능에 취임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주님이 메시아, 기름부은 자, 그 본질이 신성한 사랑인 거룩한 분이라 불렸다. 그분에 관해 씌어있는바, “그분의 하느님은 그분의 친구들을 기름의 기름으로 기름부으셨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하느님은 그분에게 뒷박으로 재듯 빠듯하게 영(the Spirit)을 주신게 아니라고 선포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의 기름부은 자는 주님의 신성 측면이 아니라 인성 측면이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주님과 관련해 이해될 경우 이는 신성과 인성 사이에서 있어지는 일들이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경우에서도 권세가 신성에 나누어 주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신성은 애당초 이 권세를 쥐고 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분의 인성이 영화됨으로 모든 권세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 모든 권능을 이미 지닌 신성처럼 되었다는 말이다. 주님의 인성이 신성하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 가르쳐지고 증언된 위대한 진리중 하나이다. 예수에 관한 증언은 모든 예언의 영이다. 신약성서의 예수가 구약성서의 여호와이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첫째가는 큰 진리이고 이 진리 자체는 “두 증인”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주님에 관한 말씀의 증언이다. 또 하나는 인간에 관한 말씀의 증언이다. 즉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성경의 이 두 교리는 두 큰 계명,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모든 율법과 예언이 걸려 있다는 계명과 똑같다. 주님을 사랑함 없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함 없이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도 없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라는 종교에 있는 본질이지만 개혁교회(the Reformation)가 특별히 건립한 전통에 의해 효과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 전통(tradition)이란 이렇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인데 그는 구별되는 하느님(the Godhead)이라는 인물이다. 그가 인간이 저지른 위법에 대한 벌을 받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인간은 그분의 죽음과 정의를 수단으로 구원된다는 것, 즉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리스도가 했던 것만으로 가능하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대신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해주었다고 상상되는 어떤 것, 그러나 그분이 결코 해주지 않았던 어떤 것을 믿으라고 가르친다. 그리스도의 영을 수단으로 신앙자가 일구어 내야 하는 정의 대신 신앙자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정의를 인간에게 귀여게 한(the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그 교회는 가르친다. 위 둘 모두 불가능한 억지소리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의 죽음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의는 무한한데 이 정의가 유한한 존재의 정의로 귀여히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인간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귀여되는 것, 그리스도의 정의가 인간에게 귀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믿는 신앙은 성서적 의미나 해설에서 신앙이 아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기대된 것에 관한 물체(substance)이다.” 존재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이 진짜이다 라고 말하는 믿음보다 더한 어떤 것이다. 어쨌든 진짜 아닌 것을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런 믿음을 놓고도 신실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럴 경우 신실함 자체는 있겠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아니다. 이런 믿음을 붙들고 있는 교회에 두 증인이 예언하러 나타난다. 여기서, 참으로, 그들의 가르침이 필요하나 그들의 증언은 받아들여질성 싶지 않다. 오류가 득세하는 판국에 진리의 설교자들이 있게 되면 그들은 배움을 걸치고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타애와 믿음 속의 생명력만이 살아 있는 교회를 만드는바 그들은 이타애와 믿음의 생명 없는 형체에 통곡한다. 그들이 입은 의복에는 일반적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더 있다. 그것은 예언을 말해줄 교회에 관련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겉옷은 진리들의 상징물이다. 진리들은 영혼에 생명을 주는 열, 사랑을 보존한다. 마치 겉옷이 육체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 성경에서 의복(clothing)은 정의로서 말해지고 있다. 정의(righteousness)는 진리가 실제어로 환원된 것이다. 그 이유는 진리가 실제적이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진리는 실제적(practical)이고 모든 실체는 진리에 따라 존재한다. 만일 진리가 오류와 혼합되었다면 그 실체는 나쁘다. 그 이유가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계시록의 두 증인은 두 개의 큰 교리, 하느님을 사랑함과 사람을 사랑함이라는 종교의 두 큰 원리이다 라고 인식할 때 구원하는 품위인 이 원리가 무시되고 모든 능력을 믿음이라는 한 개의 품위에 전임시키는 교회에 예언할 경우 그 원리가 배움을 걸친 외관은 얼마나 독특하게 타당한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물어 볼 수 있다. 왜 이 두 증인이 이런 중대한 때에 교회에 증언하도록 보내져야 했을까? 왜 두 증인이 자기들을 이미 거절하고 증언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죽이고 저주하는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보내졌을까? 이것은 신성한 섭리의 불변하는 질서, 즉 교회의 한가지 처방이 막 끝이 나고 또 다른 처방이 시작되어 새로운 진리가 옛 처방에 계시되는 것이다. 노아는 아담적 교회의 마지막 세대에 정의의 설교자였다. 더욱이 우리는 세례자 요한과 주 예수의 경우에서 더 놀랄만한 예를 발견한다. 그들은 시효가 만료되는 유대교회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 부패했고 믿지도 않는 세대에 이 큰 진리를 전파했다. 그리고 두 증인같이 그들은 생명의 수단인 이 증언을 제공받은 이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이 교회를 계승해온 교회의 마지막에 앞서 새 교회, 새 예루살렘의 교리가 반포되어야 신성한 섭리의 복된 법칙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두 증인의 가르침은 건널 수 없는 옛 것과 새 것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는지 모른다. 참으로 서술 자체가 표현하듯 그들은 일천 이백 육십 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마흔 두 달”처럼 일천 이백 육십도 삼 년 반을 만든다. 이미 말했던 바대로 마지막과 시작을 뜻한다.

5.6. 이 구절은 증인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적개심을 지닌 이들 사이에서 예언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들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누구도 이와 같이 죽고야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졌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온갖 재앙으로 몇 번이든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을 처벌하는 권능, 마치 하느님의 보복하는 권능의 특사가 증인들인 듯 여겨지지만 우리는 본문을 절대적 의미보다는 관계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적대하시는 자들로부터서도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보류한다거나 처벌하거나 등등의 일은 하시지 않는다. 참으로 말씀에서 표현된 그대로라면 하느님께서서는 보복이나 처벌을 하시듯 여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글자적 의미일 뿐이다. 글자적 의미(literal sense)는 일반적으로 외관에 의거해서 사물을 묘사한다. 진짜 진리(real truth)란, 악이 악한 자를 죽인다는 것(시편34:21), 인간의 죄가 들어오는 복을 차버린다는 것 등등이다(예레미야5:25). 태양이 그것의 열과 빛을 차단할 수 없듯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으로부터서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차단하실 수 없다. 처벌과 고통은 하느님, 또는 하느님에 속한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선함 자체에 반대하는 악으로부터, 그분의 진리의 빛을 차단하는 불신앙으로부터 온다. 하느님에 속한 모든 것은 축복만 가능할 뿐 저주할 권능은 하나도 없다. 본문의 두 증인의 경우도 이와 같다. 두 증인, 즉 하느님을 사랑함과 인간을 사랑함이라는 원리의 본성에는 파괴나 보복이라는 속성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처벌은 이 증인을 해치는 이들에게 오고 있다. 마치 두 증인이 가해자에게 벌을 준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가 선이 끝을 맺고 악은 시작하기 때문이다. 축복이 끝나고 저주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처벌의 본성이 증인들에 의해 일으켜졌다고 말해지는 재난으로 표현되고 있다. 종교 원리의반대적 측면에도 두 종류가 있다. 이것이 위반자에게 두 종류의 보복을 가져다주고 있다. 의지측면의 반대는 종교의 선에 대한 것이고, 이해성 측면의 반대는 종교의 진리에 대한 것이다. 반대됨이 원문에서 증인들을 다치게 하고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의미되고 있다. 여기서 말해진 표현은 노골적인 적대행위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 이유가 그들을 다치게 하려 드는 의지, 즉 “만일 누군가가 그들을 다치게 하고 싶다면...”라고 묘사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 타락된 상태의 교회에서 조차 외형상으로, 또는 말로 나타내는 종교 원리에 대한 존경의 표시도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존재할 때 있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외형적이고 노골적인 적대감은 궁극적으로 은근히 싫어함을 수반하게 된다. 이미 살핀 바같이 이것이 본 구절의 예에 있는 경우이다. 또한 짐승들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는 것으로 의미되고 있다. 반대 세력의 두 종류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 하나는 증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의미되고 있다. 그들을 다치게 하려는 바램은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하고 적들을 살라버린다.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바램은 그들이 가해지기를 바랬던 피해를 되돌려 받게 하고 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자이사람이라는 거룩치 않은 불이고 이 사랑은 하느님을 사랑함이라는 거룩한 불에 정반대 된다. 그런데 이 불이 증인들의 입에서 나온다고 말해지고 있다. 마치 살라버리는 불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해진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해지는 이유는 악한 자는 하느님의 사랑을 반대쪽, 즉 자아사랑으로 돌아서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럴 때만이 하느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고, 그분의 입술이 불어낸 숨으로 그분은 사악한 자를 죽인다. 정의로운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하느님의 숨기운과 똑같은 숨이 사악한 자의 경우 그를 죽인다. 그 이유는 이 숨을 정의로운 자는 응낙하지만 사악한 자는 거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숨이 이런 사람에게는 생명과 기쁨의 원인이 되어주지만 저런 사람에게는 죽음과 재난의 원인이 되고 만다. 보복의 영적 법칙에 의거 상해를 입히고 싶어한 사람에게 그 상해가 되돌려지듯 악은 악을 의도한 이들에게 되돌아간다. 이는 영적 상태 측면에서, 영계에서도 그 행동에 대한 불변하는 법칙이다. 그 이유가 자연계의 법칙이 자연계에서 언제나 일정하듯 영적 법칙은 영계에서 한결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연계에서 살고 있다해도 영의 측면만 때아보면 우리는 영계의 거주자인바 우리는 영적 법칙에 종속되어있다. 마치 몸이 자연의 법칙에 종속되어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영적 법칙보다 수준이 낮은 형체인 도덕적 법칙(moral laws)도 더 높은 법칙만큼이나 일정하지만 이 세계에서 그것의 결과는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모세와 주님에 의해 가르쳐진 보복의 법칙은 둘 다 신성한 법칙, 즉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라는 말씀에 근원을 두고 있다 (마태7:12). 이 법칙이란, 천국과 의로운 자들 사이에서는 선 때문에 선을 되돌려 받고, 악한 자들, 저 세계의 경우 더더욱 악 때문에 악을 되돌려 받는다. 그러므로 두 증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은 자는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은 자명하다. 네가 그들에게 했던 대로 너에게도 있어지리라.

증인의 권능은 적을 삼키는 불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하늘을 단아서 예언하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수 있었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었다. 불과 물은 사랑과 진리의 상징물이다.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을 새롭게 하고 열매 풍성하게 하는 비일 경우 이는 천국으로부터 내려와 마음을 기운나게 하여 열매맺게 하는 진리를 상징한다. 그러나 신성한 진리가 꾸준히 하강하기 위해 영혼(soul)은 비가 내리지 않은 땅만큼이나 삭막하게 바짝 말라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의 유입(influx)은 선한 자에게 있어진 만큼이나 악한 자에게도 필수적이다. 그런 유입이 없는 인간 자질 자체로만의 행동은 중단될 것이다. 이것 없이 백합과 장미가 더 자라지 못한 만큼이나 마찬가지로 가시와 엉겅퀴도 더 자랄 수 없다. 마음이 거짓을 생산하는 자질이나 수단을 가지지 않으면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 해도 유용하고 복된 것을 생산하는 힘을 저지시키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쓸모 없고 피해만 입히는 것들이라 해도 완전하게 그렇다고까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척박하고 거름 없는 토양에서 풍부하게 자라는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그 척박한 토양을 어느 정도까지는 치료해주기

도 한다. 그것들의 죽음이 생명의 수단이 된다. 썩어진 그 식물체는 더 낮고 더 좋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질을 증가시킨다. 훗날 이로부터 더 나은 식물체가 자랄는지 모른다. 신성한 진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의로운 자이든 불의한 자이든 누구에게나 보내는 비이다. 마치 신성한 사랑이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공히 비쳐주는 태양인 것과 같다. 신성한 진리의 하강조차도 자칫하면 저지될 수도 있다. 하늘이 닫아져서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닫히는 하늘이란 무엇이고 누가 하늘을 닫는다는 말일까? 두 증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그들이 예언하는 것은 재난의 때라고 말해질는지 모른다. 그 이유가 그들은 자기들에게서 기인된다고 하는 행동을 생산하는 반대자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미에서 천사들의 하늘, 이를 통하여 진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지상의 교회로 내려오는바 이것이 닫힌다는 말이다. 교회가 썩어지게 될 때 영들의 중간 영역의 상태는 악한 자의 영혼들로 드넓게 채워져 있어 천국을 통해 오게되는 신성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바 이런 상태는 그 아래 교회에 있는 정의로운 자에게 비를 내릴 수 없게 한다. 닫혀질 수 있는 또 다른 하늘이 있다. 인간의 영적 수준의 마음이 닫혀질는지 모른다. 그럴 경우 어떤 천국적 영향력도 그 사람의 자연적 수준의 마음으로 내려와 선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다. 천국적인 모든 영향력은 먼저 영적 수준의 마음으로 들어 온 다음 자연적 수준의 마음으로 흘러내린다. 지옥적인 모든 영향력은 자연적 수준의 마음으로 온다. 악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나 마찬가지로 지옥의 영향력이 영적 마음으로 승강할 수 없어도 그 영향력은 영적 마음을 닫히게 해서 어떤 천국적인 것도 주님으로부터 영적 마음을 통해 내려올 수 없게 한다.

이렇게 유입하는 진리의 흐름이 막혀질 때 자연적 마음은 마치 하늘의 비와 이슬을 받지 못해 땅이 황폐해지듯 되어버린다. 엄밀히 말해서 하늘로부터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은 진리의 영(the Spirit of truth)이다. 지식 차원의 진리는 썩어진 말씀에서 파생된다. 이 진리가 본문에서 피로 변하는 물로 의미되고 있다. 그 이유가 진리의 영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마음에 있는 오류의 영(the spirit of error)은 하느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거짓으로 변하게 한다. 진리의 영이 단기워졌을 때, 그리고 말씀 속의 진리가 왜곡되었을 때, 자연적 마음은 선함에서 열매가 없는 것 외에 온갖 종류의 악과 거짓에 시달리게 된다. 이것이 땅이 당하는 재앙들이다. 본문에서 증인들은 자기들이 뜻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런 재앙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타 재난처럼 이 재앙도 그들의 뜻에 반대된 결과로 일어나고 있다.

7. 적을 파괴하고 온갖 재앙으로 땅을 내치는 권능을 가진 증인들인데 또 다른 더 강력한

적에 의해 죽기까지 하는 처부숨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끝내면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그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증언을 끝냄은 시간 차원이 아닌 상태 차원이고 그들의 증언에 종결을 가져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 의미에서 증언이 증언을 끝냄은 교회가 끝장을 보는데 까지 와졌을 때이다. 세부적 의미에서 내적 인간의 하늘이 닫히고 자연적 인간이 말씀의 진리를 거짓으로, 선을 악으로 변하게 했을 때 증언이 끝난다. 그런 다음 가장 쓰디쓴 미움이 흥분되고 가장 적극적이고 결사적인 적대감이 시작된다. 짐승이 끝없는 구렁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다. 지금까지 증인들은 땅의 권세와 맞서야 했다. 지금 그들은 지옥의 권세에 시달리게 된다. 지금까지 그들은 지상적인 사랑의 반대와 대결해야 했다. 지금 그들은 지옥적 사랑의 반대에 부딪쳐야 한다. 천국이 닫힐 때 지옥은 열린다. 어떤 모양새로든 파괴하는 천사가 구렁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다. 이 구절의 경우 파괴하는 천사는 짐승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는 이전에 나타났기라도 했던 냥 그 짐승이라고 말해진다. 물론 그가 그런 이름으로 지금까지 언급된 적은 없다. 그는 메뚜기, 또 다른 형체일 경우 메뚜기떼의 왕과 동일하다. 그는 또 다른 모양새로 있는 믿음만(faith alone)의 교리이다. 오히려 이 짐승은 논쟁의 또 다른 형체를 표현하고 있다. 이 형체를 수단으로 믿음만이라는 원리는 진리와 반대된 위치에서 유지 존속되고 진리에 맞서 자신을 방어한다.

이 교리를 떠받치는 논쟁에서 한 두 가지는 이미 앞에서 생각해보았다. 이제 다른 논쟁에도 시선을 돌려보자. 구원은 믿음만을 수단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인간이 자신을 위해 언제나 요구되었고 요구되어질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다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작성되어야만 한다. 구세주가 모든 것을 다 마련했으니 인간이 해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공적만으로 구원받는데 완전히 충분하다는 것만을 믿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논쟁을 대단히 짧게 서술해 본다면 믿음만으로 구원됨이라는 교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닐 것은 분명하다. 이 교리는 신학이라는 복잡한 체계와 구속에 관한 도표 위에 얹혀있다. 이 체계의 진짜 기초는 신성(Godhead)으로 인정되는 구분되는 세 인물(person)이다. 이 삼위 중 첫 번째 인물은 인간의 죄를 위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인물은 이 배상을 갚고 있다. 셋째 인물은 구속된 영혼에게 그에 따른 혜택을 전달하고 있다. 구원에 관한 이런 도표 같은 계획이 확증하려 들고 설명해대려 애쓰는 추론은 비록 그것이 건전함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어쨌든 대단히 잘 꾸며져 있다. 이렇게 논쟁한다. 하느님의 법은 너무나 완전해서 그 법은 완전한 순종, 따라서 죄인일 경우 죽음을 요구한다. 하느님의 정의는 대단히 완고해서 이 정의에 위반되면 완전한 배상 없이는 용서될

수 없다. 그러나 죄인 그 자신-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는데- 이런 배상을 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의로워진 죄인이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계속한다는 것은 이론상에서나 가능할 뿐 실제로는 불가능한 바, 그는 과거에 있는 죄를 위해 배상할 수 없고, 이런 그들 자신에 속한 것은 그를 정죄하기에 충분할 뿐이다. 과거에 있는 그의 죄외에 모든 사람 각각은 생각과 말, 그리고 행위에서 계명을 깨뜨리고 있다.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에 따르면 모든 죄는 하느님의 분노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추론을 수단으로 누군가 자신 속에 어떤 죄도 원래 있지 않았던 분이 있어왔다는 것, 그분 위에 인류의 죄들, 즉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죄들이 놓여 있을 것이라는 것, 그분 안에서 그것들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인간들은 시도한다. 이런 누군가는 하느님의 아들, 즉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고 부서진 법과 위반해버린 정의에 요구되는 모든 것에서 고통받은 하느님의 아들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죄에 대한 충분한 처벌이 가해졌다해서 용서와 구원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정의에 어떤 정의 하나라도 추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죄인의 행위, 일 따위는 구원의 조건중 한 조건도 형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취소시키고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는데는 꼭 한가지 조건밖에 없다. 즉 죄를 위해 완전히 충분한 제물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다. 성격이든, 이성으로이든, 위의 교리들이 얼마나 불일치하는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이런 교리의 한 두 가지 요점을 검증해 보고자 위와 같은 말들을 늘어놓는다는 자체도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모른다. 사실인즉, 위 교리 전체는 한마디로 오류에서 발견될 뿐이다. 이 교리는 하느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모두에서 죄와 정의에 관해서, 공정과 용서에 관해서도, 의로워짐과 구원에 관해서도 잘못 납득한 결과이다. 그리고 구속의 혜택이 확보된다고 말하는 수단인 믿음의 본성조차에서 잘못 납득된 결과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그분의 진짜 본성이다. 그분의 모든 속성들은 사랑의 속성들이다. 창조는 사랑의 작업이었다. 인간은 사랑의 일 중 가장 높은 대상이었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은 사랑의 일의 목적 중 가장 높다. 창조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의도되었다고 많이 말해진다.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은 인간이 복받을 때이다. 하느님께서 창조나 구속, 섭리나 은총으로 해오셨고 해가실 모든 것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다. 그분의 자비가 인간을 위해 이렇게 하시는 만큼 그분의 정의도 그렇게 하신다. 그분의 참 법칙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기능을 발휘한다. 그분이 행하시는 만사에 있는 하느님의 의도는 인간을 그분 자신의 실제적 형상(moral image)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신성한 본성의 분담자”가 될 때만이 인간은 신성한 축복의 분담자 일 수 있다. 그런데 고통을

전가시키고, 귀속된 정의로움으로 어떻게 신성한 본성에 가담하는 결과가 있어질 수 있을까? 구속에 관한 책략의 대부분에서와 같이 위의 경우도 일이라는 것을 인간의 안쪽보다는 바깥쪽에 놓아두고 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구속이 결과되게 하셨다. 그분께서 구속을 그분 안에서 그분을 수단으로 성취하셨다는 것도 진정한 사실이다. 주님은 인간의 본성 안에서, 그 본성을 수단으로 구속을 달성하셨다. 이런 그분의 일은 인간의 본성과 필요성에 완전하게 적합하다. 주님께서 그분의 인성에서 달성하신 것은 죄로부터 인간이 구원되고 정의로움을 건설하는데 요구되는 진짜 작업이다. 육안에서 있어졌던 주님의 일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는 것과 그분의 인간 본성을 영화 하시는 일이다. 주님의 영화하심은 우리 거듭남의 완전한 원형(archetype)이다. 거듭남이아말로 인간을 타락의 결과로부터 구속하고 하느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데 필요한 진짜 작업이다.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삶, 그분의 시련과 시험들, 그분의 고통과 죽음 등등은 그분의 인성이 완전해지는데 요구된 수단들이다. 그분이 겪으신 잔혹한 체험들은 신성이 인간의 죄 때문에 부과한 처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오류에 오염되어 괴물같이 되어버린 공상이다. 오히려 이것은 그분께서 악의 권세와 다투신 결과라고 말해야 타당하다. 그분이 영화하신 인성, 이제 그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 바 이것이 우리 거듭남의 근원이요 모형이다. 그분이 영화하셨기에 우리도 거듭나질 수 있다. 우리의 일은 그분의 일의 형상과 결과이다. 우리가 이겨갈 때 우리는 옥좌에 앉으신 그분과 함께 앉는다. 그분이 정복하셨을 때 옥좌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앉으셨다. 육에서의 주님의 일은 속죄(atonement) 즉 속죄의 참 의미인 재회(reconciliation)의 위대한 일이었다.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의 인물 안에 계신 신성에 인간 본성이 재회하게 하셨고 이와 상응되는 일을 통하여 우리로 그분과 재회하게 하신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안에서 세상이 그분과 화해하도록(reconciliation) 하셨다” (고린도후5:19). “우리가 원수였던 때에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그분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우리는 지금 하느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5:10,11). 믿음은 우리가 주님의 신성한 일의 혜택을 받는 조건이다. 그런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구원을 증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믿음 없이 우리는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만으로 획득되지 않는다. 바울이 말한 이 구절은 참으로 사실이다. “인간은 율법의 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갈라디아2:16). 이 구절에서 바울이 뜻한 것은

율법을 예식적 차원에서 준수하려 드는 것을 두고 한 말일뿐 실제적 차원의 법(moral law)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마태19:17)는 주님의 말씀보다 어찌 바울의 서신에 적힌 말이 더 우선 순위에 있을 수 있을까? 법률을 근거로 헌법을 개정하려든다면 역시 아니겠는가?

믿음-만으로(faith-alone) 구원받음이라는 교리는 일-만으로(work alone) 구원받음이라는 카톨릭 교회(Romish Church)의 실제적 교리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일-만으로 구원받음에서의 그 일은 교회조직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변해버렸다. 일들에는 구원을 위한 공적이 있다라고 선포하여 왔다. 누군가가 그의 선한 행위의 초과분으로부터 자신을 위해 천국을 구매한 후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고통받는 어떤 영혼에 혜택이 가도록 초과분의 선한 행위 중 잔여분을 줄 수 있다고 우기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교리의 부패는 그것의 거절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이런 총체적인 남용의 참된 개혁은 선한 일이 기독교 사회에서 점유하고 있어야 할 진정한 위치에도 회복되도록 있어왔다. 교회의 통탄할만한 것은 교회내의 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했다는 것이다. 인간 견해의 역사에서 발견하는바 이쪽이 극도에 달하면 그것은 또 다른 어떤 것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선한 일이 구원받게 한다는 교리를 지닌 교황청의 부패에 대한 반작용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한 모든 것을 통째로 거절하게했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은 믿음만에 의존된다는 것으로 비틀어놓았다. 이리하여 또 다른 요상한 표준이 세워졌다. 이 표준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표준 밑에서 사람들은 과거 교회가 손가락하나 까닭하지 않으면서 자기들 위에 얹혀놓은 무거운 짐을 내던지는 해방을 발견했다. 어쨌든 개혁교파는 고상한 일 한 가지는 성취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손에 놓이게 했고 개인적으로 심판받는 권리를 회복되게 했다. 이런 큰 축복은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위한 길을 예비해주었다. 그 이유가 이 오심은 말씀을 통해 달성되기 때문이다. 이 오심은 말씀의 글자적 의미를 회복하고 말씀의 영적 의미를 펼쳐 알려줌으로 달성된다. 이런 것들이 주님의 오심을 구성하고, 참된 기초 위에 교회를 재 건립하는 수단들이다.

이런 추리는 지당한 귀결이라 본다. 위와 같은 큰 주제에서 있게되는 진리의 계시(밝히 알게 함)는 주님의 오심에 관한 본성과 목적을 자연적 수준만의 견해로 입증하는 이들에게 강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인간 영혼의 구원과 밀접한 관심이 있는 기독교의 교리에 관련되는 말씀의 해석과 설명이 있게 될 경우 더욱 강한 반대를 일으킨다. 두 증인이 신성(Godhead)의 절대적 하나됨, 즉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분의 인물 안에 신성이 거주하심, 그리고 그분의 계명에 따른 삶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서 있을 때, 이런 교인들, 즉 세 인물의 하느님에

관한 교리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든가 교리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이들에 의해 반대될 것임은 과히 이상할 일도 아니다. 이 교리가 구령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짐승은 견해 측면의 상징물이기보다는 열정 측면, 생각 측면이기보다는 애정 측면의 상징물이다. 그리고 이것이 오류 쪽에 편입되어있을 경우 그것은 진리가 자기의 지배력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 진리에 심한 역정을 분출하고야만한다. 진리의 가르침 때문에 적대감을 일으키는 강렬한 흥분(passion)은 거둬나지 않은 심정에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끝없이 깊은 구렁이고 이로부터 그런 격정이 올라온다. 이 심정은 모든 것보다 더 사기적이고 가망 없을 정도로 사악하다. 자아만을 사랑함은 이 심정을 통치하는 열정이고, 거것이 그 도구여서 이를 수단으로 갖가지 음모를 획책한다. 거것이 본문의 메뚜기이고 자아사랑은 짐승이다. 이 둘은 두 증인에 대항하려고 하나로 뭉쳐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의 몸체로서 교회에 관련해 예언을 이해하든지 또는 교회를 특징짓는 그 속의 원리 측면에서 예언을 이해하든 결론은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가 지닌 자연적 학문으로 견해를 지적으로 확증하고, 이것이 성직자적 권위로 추인되고, 대중적 의향이 이를 떠받쳐 주고 있는데 새 견해의 출현에 강력한 적대감이 도출 안 될 리 만무하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기 것으로 간주하고 아끼는 것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도전장을 기꺼이 내놓는다는 말이다. 이것이 본문에서 거론되는 전쟁이다. 뜻을 같이 해 담합한 오류가 마음을 지배하고 인간의 일상업무를 관장할 경우 진리는 정복당하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협상이 드넓게 퍼질 때 교회는 종말 가까이 있다. 이것이 여기서 표현한 상태이다. 이 환상의 다음 부분은 그 결과가 무엇이어야만 하는지 보여준다.

8.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성의 한 길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 도성은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곳이며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에집트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자연적 측면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곳이다. 소돔과 에집트라 불리는 큰 성은 주님의 참 품성, 즉 인성까지도 천상천하에서 유일한 하느님이심이 부인됨으로 영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하신 곳이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 그분의 인성에 관해, “천상천하에서 모든 권한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말하셨기 때문이다. 이 권능은 그분의 신성이 소유하셨던 권능, 파생된 것이 아닌 독립적인 권능이다. 그분의 인성이 완전히 영화하셨을 때 그 인성은 그 안에 내재하던 신성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한 교회는 소돔과 에집트라고 불린다. 이 둘은 각기 부패함과 교회에 반대함으로 구별되어진다. 소돔은 천사와 톱으로 표현된 천국과 교회 자체에 반대했다. 에집트는 이스라엘 후손을 노예화하고 그들이 가려는 것을 거절함으로 교회 자체에 반대되었다. 소돔은

종교의 선에 반대하는 악을 표현했고, 에집트는 종교의 진리에 반대하는 오류를 표현했다. 이와 같은 것이 교회의 상태일 경우 주님은 새로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그분의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한다.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달랠 수 없는 미움으로 핍박되어졌다. 그들은 증인의 매장을 거절했다. 그들의 시체는 큰 길에 버려졌다. 이 생명 없는 시체는 사랑이라는 생명이 파괴된 교회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다. 사랑의 구원하는 효능이 부정되고 반박 당할 때 이 생명은 인간 마음 안에서 파괴된다. 믿음만 일 경우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이론상이거나 실제적으로나 홀로 있을 경우 이타애와 일은 죽어 있다. 그 이유가 이들 중 어느 하나도 영적 생명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원하는 능력은 서로가 존재치 않으면 효능이 없기 때문이다.

9. 증인의 시체가 도성의 길에 놓여 있는 한편,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동안 그들의 시체를 구경할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대와 유대인의 사회에서 누군가의 사후 명성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은 그를 매장해주지 않는 것이었다. 이런 예는 예레미야 16장 4절에서도 읽어볼 수 있다. “사람들은 참혹하게 병들어 죽겠지만 상례를 갖추어 묻어 줄 사람이 없어 거름처럼 땅위에 툇굴리라.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은 사람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타 관습이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매장과 연결되는 종교적 또는 영적 생각에 그 근원을 가지고 있다. 초기 시대의 사람들은 육체가 죽게 될 때 영혼이 진실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이유가 영이 하느님께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장은 생명에로의 부활에 대한 표시였다. 죽은 자의 매장을 거절함은 유죄로 판결하는 강한 표현이고 영원한 생명을 지닐 가치가 없는 자로 간주하는 표시였다. 두 증인의 매장을 거절함은 두 증인으로 표현된 원리에 불쾌함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마치 믿음만을 원리로 지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들을 죽일뿐 아니라 생명에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식과 같다. 그렇다고 이것이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교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이가 이런 정서를 지녔다고 몰아 세워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 반대는 교리적 원리 자체가 본래부터 지닌 바대로를 묘사한 것 뿐이다. 믿음만의 교리는 이 교리에 동감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 구원에 관한 참된 교리가 주님의 특사의 저술을 통해 교회에 회복되었을 때 극렬한 반대가 있었던 것은 주로 성직자 계층에서 였다. 만일 그들이 두 증인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거리에 죽은 시체를 버려두도록 허용하고 그들의 이해성이 든 심정에서이든 그 시체가 매장되기를 거절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 시체가 삼일 반 동안 버려있게 한다. 옛 교회가 끝을 맺고 새 교회가 시작할 때까지 그들은 부활할 수 없었다. 그들은 옛 교회와

함께 죽었고 새 교회와 더불어 다시 산다. “삼일”은 마지막 심판 때에 완료되었고 “반”나절은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 완성되었다. 이후 큰 변화가 거행되고 있다.

10. 불신앙과 악의 더 깊은 상태가 위에 이어 묘사되고 있다. 그들을 죽이고 내던지는 것만 가지고 만족치 못해 서로 즐거워하기까지 한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교환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두 예언자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괴로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땅은 교회를 상징하고 땅위에 사는 사람들이란 교인들이다. 물론 이들은 믿음만을 주장하는 교리가운데 있는 교인을 뜻한다. 그들은 두 증인의 죽음에 기뻐한다. 마치 경고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게 해서 혼란스럽게 만들던 질책자가 눈앞에서 영영 사라졌을 때 기뻐 뛰는 모습 같은 것이다. 진리가 침묵 속에 잠기고 선이 잠들어 놓일 때 양심의 괴로움은 중단되어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의 기쁨에 몰입하도록 인간을 자유롭게 놔둔다. 서로 구분되면서도 혈연관계에 있는 위의 두 사랑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두 사랑의 상호교류와 상호확증이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11,12. 교인들이 진리의 증인이 죽은 것을 두고 기뻐하는 동안 이 증인들은 자기들을 보낸 분에 의해 일으켜지고 있다. “사흘 반이 지났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예언자는 자기들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들은 원수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구름 안에 있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옛 교회의 끝은 그들의 죽음을 보았고 새 교회의 시작은 그들의 부활을 보았다. 어쨌든 그들이 일어난 것은 지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였다. 교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지만 지상에서 내뿜릴 때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피난처를 발견한다. 그러나 하늘과 지상은 천사와 인간이 거주한다는 장소 차원보다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원인 측면이든 결과 측면이든 교회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말씀은 교회를 형성해주고 말씀의 이해에 따라 교회의 품성이 결정된다. 말씀의 내적(영적) 의미가 “하늘”로 의미되고 있다. 그 이유가 내적 의미가 하늘에 있는 교회를 형성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적(외적) 의미가 “땅”으로 의미되는데 그 이유는 이 의미가 지상의 교회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적 인간 또는 영적 마음이 하늘로 의미되는데 그 이유가 거듭나는 사람의 내적 측면은 하늘에 있는 교회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적 인간 또는 자연적 마음이 땅으로 의미되는데 그 이유는 거듭나는 사람의 외적 측면은 지상에 있는 교회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앞 구절에서 증인들이 지상에 나타나고 죽임을 당했다고 말해졌는데 이는

증인들이 표현한 원리들이 지상의 교회에 알려졌을뿐 아니라 그에 대한 가르침이 진정한 해석을 수단으로 말씀의 글자 또는 자연적 의미에서 나타나도록 만들어 졌다는 것을 뜻해준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은 교인들이 그 해석 속의 진리를 부정했고, 그들이 표현한 원리들이 말씀 속의 원리임을 거절했다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들이 생명을 받았다”는 표현은 새 처방 또는 교회의 시작에서 이렇게 거절된 원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유입됨으로 회복되어졌다고 이해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다”는 표현은 그들이 교회에 있는 일부 사람들의 삶에서 안정과 힘을 어느 정도 획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표현은 그들이 말씀의 내적 의미와 내적 인간 안에서, 하늘로 철수하여 보존되되 그들이 바깥쪽, 가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이다. 증인들의 원수들이 그들의 승강을 보았다. 재림하는 주님은 그분을 찌른 이들에 의해 보여지게 되었다. 그분은 구름에서 오신다. 증인들이 구름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 구름은 말씀의 글자적 의미를 상징한다. “증인들의 원수”란 증인들이 표현한 원리를 경멸하고 거절한 이들이다. 이 원리를 부정하는 이들도 이 원리에 관해 얼마간의 지식은 가지고 있다. 그들은 영에서가 아닌 글자에서 그 원리를 알고 있다. 그들은 구름 넘어가 아닌 구름 안에 있는 원리를 보고 있다. 그들은 영적 사황에 관해서 천국 쪽에서가 아닌 지상 쪽에서만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다른 점이다. 이것이 분리의 원인이다.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사이를 구별짓는 선(line)은 교회의 영적 인간과 자연적 인간을 분리하는 선(the line of separation)을 형성한다.

말씀의 자연적 의미가 증인들이 승강하는 구름으로 의미되는데 이 의미는 자연적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은 밝히 알리지만 그들이 지각하기에 미처 준비되지 않았거나 적절치 못할 경우에는 그들로부터 감추여 있게 작용한다. 이와 같이 밝히 알림, 감추여 있게 함, 분명하게 함, 시야에서 안보이게 함, 등등에 관한 예는 두 증인의 경우 외에도 많이 있다. 주님 자신의 경우에서, 그분은 진리로서의 주님 자신을 유대 교회 말기에 인류에 명백해지도록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분은 영적으로 소돔과 에집트라 불리는 도성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다. 그분께서는 지상이라는 심정에서 사흘 밤 낮 누워 계시고 한편 그분의 적들이 기뻐 즐거워하는 동안 새 생명을 받고 일어나셔서 사십일 동안 제자가운데서 걸으셨고 그 뒤 하늘로 승강하셨는데 구름이 제자들의 시야로부터 그분을 받았다. 모든 새로운 교회의 경우 새 진리는 반드시 옛 교회에 먼저 전파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새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어 기쁘게 영접하는 이들을 발견하고 이들로부터 새 교회는 그 시작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선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악한 자를 격노케 한다.

선한 자가 응낙한 것은 악한 자에 의해 거절된다. 진리가 명백히 나타남은 일종의 심판으로 작동된다. 그 이유가 심판은 선한 자를 악한 자에게서 분리시키는 바 선 자체가 악에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이다.

주님의 승천과 증인들의 승천에는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 주님의 승천은 제자들만에 의해 목격된 것으로 나타나고, 두 증인들의 승천은 그들의 원수들이 바라보았다. 어쨌든 주님에 관해서 말해진바, 그분의 재림에서 모든 눈이, 그분을 찌른 이들과까지도 보게되리라고 했다. 그분의 재림이란 심판하러 오심이다. 심판은 주님을 모든 사람, 즉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서 명백해지게 한다. 선한 자는 그분을 선함과 진리로서 볼 것이고 악한 자는 그분을 선함 없는 진리로서 볼 것이다. 선한 자는 자비로 고무되어진 진리로 심판되고 악한 자는 자비 없는 진리로 심판된다. 이런 결과는 심판자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심판될 사람의 상태가 달라져서 초래된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생명책과 더불어 자기 생명책에 씌어진 사랑으로부터 심판되어진다. 자비로운 자는 자비로 심판된다. 그 이유가 그들은 자기 심정의 돌판에 자비를 새겨 놓았기 때문이다. 무자비한 자는 자비 없이 심판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자비함이 그들 심정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판결했던 것같이 모두 판결되어진다. 지상의 주님을 증거하러 하늘로부터 두 증인이 내려옴은 주님의 강림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는 그분 자신인 그분의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의 하강이고 명백해짐이다. 그 이유가 주님이 어떤 인물로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말씀 속의 영적 의미를 밝히 알게 해서 진정한 교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오시는 바 권능으로 오시기 때문이다. 모든 교리는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서 끌어 내진다. 이 의미를 통해 영적 의미도 밝히 알려진다. 글자적 의미는 사람의 아들이 오는 구름으로, 영적 의미는 그분의 권능과 영광으로 의미되고 있다. 그분이 승강하실 때 그분을 감추게 했던 구름이 그분의 하강에서 그분을 밝히 알게 한다. “너희 곁을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방법으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1:11).

두 증인의 사건이 담긴 흥미 있는 이 환상의 주제는 이렇게 간략히 서술해 볼 수 있다. 모든 각 교회의 끝이 있기 직전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위한 준비가 마련된다. 그 이유가 새 것은 옛 것 안에서 그 시작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새 것의 싹틈이 옛 것 안에 보존되어 있다. 옛 것이 죽어야 새 것이 살는지 모른다. 새 것의 시작을 위한 준비는 옛 것과 분리되었던 진리가 옛 것에 새로이 전파됨으로 있어진다. 이 전파는 인간 마음의 변경된 조건에 부응해서 새로이 포용하거나 벗어 던지는 식과 더불어 진행된다. 그 이유가 진리는 진리를 받도록 창조된 인간마음처럼 최종적인 것은 모르고 무한하게 계속 가기 때문이다. 기독교회의 진리는 유대교회가 끝을 맞기 전에 세례자 요한과 주님에 의해 유대인에게 전파되었다. 이 증인들은 죽임을 당했으나 그들이 전파했던 진리가

그들 안에 있게 되었다. 어쨌든 유대인 중 일부가 진리를 받았고 그들과 함께 기독교는 시작되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였을 때 그들은 자기들을 괴롭힌 자를 처치했다고 하여 기뻐했다. 그러나 사흘 밤 낮 동안 땅의 심장에 계신 후 생명이 그분 안으로 들어갔고 사십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구름이 제자들의 시야로부터 그분을 받았다. 준비가 새 기독교회의 시작을 위해 있어지면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계시록21:2)이 새 교회의 두 기본되는 원리, 즉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신성하시다는 것과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기동되는 교리가 전파됨으로 예견되었다. 이 기본 원리는 교회 말기 때에 큰 교회조직에 의해 거절되었다. 어찌됐건 그 원리는 소수에 의해 받아들였다. 이 소수의 마음에 있는 교리들이 생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 원리는 발로 일어서고 그들의 내적 인간의 하늘로 승강했다. 거기서 흠모되고 보존되면서 점진적으로 그 원리의 힘이 느껴지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로 그들의 증거를 받을 수 있게 권유된다. 이런 몇 가지 교회의 처방(dispensations of the church), 즉 아담 교회- 노아 교회- 이스라엘 교회 라는 교회의 처방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가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에 앞서 있었다.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계시된 진리는 더욱 더 두껍게 겹을 싸서 더욱 보이지 않게 되어 결국 이스라엘교회에 이르러서는 교회의 영적 품성은 시민적, 도덕적 법 안에 완전히 감추어 놓였다. 영원한 상벌은 일시적인 목적을 위한 억지 순종 때문에 시야를 잃었다. 주님의 오심은 새로이 승강하는 질서의 시작이었다. 이 질서에서 진리는 차츰차츰 두껍게 입혀졌던 껍질인 말씀의 글자라는 덮개를 벗어 던지고 있다. 그래서 내재하는 영과 생명이 보일 수 있게 되고 있다. 주님께서는 옛 법칙을 가지고 새 영적 진리를 밝히 알게 하심으로 이를 실시하시되 그 진리를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만큼에서 이행하셨다.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 그 중의 일례이다. 어쨌든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비유(proverb)같은 것을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해 분명하게 보여줄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셨다. 이렇게 약속된 때란 그분이 재림하시는 때였다. 주님의 둘째 강림은 인간 구속의 계획을 미무리하시는 것이되 이는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는게 아니라 기독교의 첫 처방을 끝내고 둘째 처방을 개시함으로 있어지고 둘째 처방에서 기독교의 원리들은 처음 처방보다 더 완전하게 발달된다. 참으로 일부 기독교인들,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는바, 종교적 진리들은 그 진리가 더 팽창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왜 그렇게 될까? 과학은 한계가 없다고 알고 있다. 그 이유가 하느님의 일이 완전하게는 결코 알려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분의 일보다 덜 심오할까? 또는 추측이 더 가능할까? 진리는 인간 마음이 이를 받도록 창조된 것처럼 끝이런 게 없다는 것을 알고 무한으로 계속 갈는지 모른다. 이 무한은 무한하신 분의 단순한 형상에 불과할 뿐이다.

13. 박해와 제거함의 결과이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그 지진 때문에 사람이 칠 천명이나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싸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종교의 본질인 사랑과 진리의 원리가 거절되고 제거될 때 그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이런 무너짐이 지진으로 의미되고 있다. 교회 파괴의 원인은 교회 자체 내에 존재한다. 영적 지진은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의 불이 활동을 개시함으로 발생된다. 오랫동안 갇힌 상태의 이 불이 드디어 그 힘을 분출하고, 자유로워지겠다고 하는 투쟁은 교회를 뒤흔들고 전복시키는 폭동을 생산한다. 도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짐이란 무너진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파괴의 속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십분의 일에 관한 의미 중에서 가장 친숙한 예는 유대교회에서 십분의 일을 바치는 데 있는 의미일 것이다. 그들의 모든 산물의 십분의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주님에게 바쳐졌다. 이는 모든 산물을 주신 분이 그분이심을 인정하는 것, 백성들의 사용을 위해 비축해 둔 것에 그분의 축복을 보증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십분의 일은 모든 것, 또는 이것 없이 다른 부분들은 영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도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짐이란 교회에 있는 모든 교리적 진리가 파괴됨을 뜻한다. 이와 더불어 선함에서 근거된 진리인 거룩한 진리의 참된 이해가 유실되는 것이 칠 천명이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의미되고 있다. 그러나 파괴의 어떤 경우에서도 구원된 잔여분이 있다. 참으로 이 구절에서 취급되는 사람들이란 자기 속에 선함과 진리의 남겨져 있던 것이 모두 파괴된 부류와 일부이지만 보존되었던 이들이다. 십분의 일이란 남아있는 것(remains)을 뜻한다. 도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칠 천명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거룩한 진리와 선함의 남아 있던 것이 파괴되어 버린 이들을 뜻한다. 그 반면 두려워 떨던 살아남은 자란 선함과 진리를 얼마라도 남겨 보존했던 이들을 뜻한다. 이들은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자기 속에 가졌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앞에 있었다. 그러나 이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었다. 이 두려움은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위험하다는 느낌이 마음에 강하게 인상지을 때 심정을 뒤흔든다. 고통의 두려움은 죄지음의 두려움 쪽으로 인도해준다. 이것이 거룩한 두려움이다.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심판이 땅 위에 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거룩한 두려움에 의해 이끌리는 이들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고백하고 예배함으로 구원된다.

14. 셋째 재난을 입는 것에 관해서는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천사에 의해 선포되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곧 셋째 재난이 올 것입니다.” 곧(quickly)이란 확실함(certainty)을 뜻한다. 교회에 닥치는 세 번째 재난은 교회에 종말이 오게 하는 것, 그리고 심각하게 확실함으로

서둘러진다고 선포되는 것이다.

15. 세 번째 재난에 앞서 기쁨의 새 원인을 알리고 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과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영원무궁토록 군림하실 것이다’” 하느님의 섭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어떤 섭리의 장치도 없이 끝을 완전히 맺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소리는 앞의 여섯 나팔소리와는 달리 큰 기쁨의 소식, 만백성에게 있게 될 소식을 선포하는 하늘에서의 소리들이 퍼지고 있다. 이 소식은 과거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져다준 것과 취지가 유사하다. 그 이유가 둘 다 주님의 오심에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전자는 주님의 첫 강림에, 후자는 둘째 강림에 관련되어 발표되고 있다. 일곱째 천사는 유대인들의 일주일 중 일곱째 날처럼 땀흘림과 시련의 시기이후 맞이하는 거룩한 쉼과 평화의 상태를 표현한다. 일곱 번째의 나팔소리가 들추어내는 상태는 위와 같은 행복한 상징과 화답하고 있다. 계속된 무질서와 삭막함의 상태 이후에 질서와 번영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다.

이 예언이 완전하게 입증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 세상의 나라는 하느님의 옥좌의 거처인 정의와 공정을 원리로 통치해질 것이다. 이렇게 통치되는 때가 언제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 곳이 교회이든, 정부이든, 개인의 마음이든 하느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가 널리 보급되리라는 약속이다. 이것이 예언의 궁극적 성취인 반면 더 가까운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있다. 요한이 여기에 기록한 것을 보고 들었을 그 때에 그는 영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가 듣고 본 것은 영계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 또는 거기에 있는 나라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기도 하다. 그 세계의 나라는 자연계의 나라와 똑같지는 않다. 그 곳의 나라는 진리를 원리로 통치하는 체제에서 사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이유가 그 곳의 모든 사람은 자기들 마음과 삶이 확정한 일반적 원리에 의거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거기에는 천국과 교회를 통치해 가는 두 개의 보편적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선함을 원리로, 진리를 원리로, 또는 하느님을 사랑함을 원리로, 서로 사랑함을 원리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이 두 사랑에 대한 애정들은 수많은 수준이 있는데 마치 다양하게 선물받은 것 같지만 똑같은 영들이다. 천국 자체, 그리고 이를 주님 측면에서 관조한다면 거기에는 하나의 나라밖에 없다. 그 이유가 한 분 왕만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국을 이끄는 두 개의 보편적 사랑 측면에서 관조한다면 거기에는 두 나라가 있다. 그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한 나라를 형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이 또 다른 나라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해도 그 둘은 한 몸 안에서의 폐의 나라와 심장의 나라를 구성할뿐이

다. “주님의 나라가 되었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선포된 이 세상의 나라”란 진리에 일치된 교리를 원리로 통치되어진 모든 이들이다. 심판 이전, 즉 악이 아직은 선과 혼합된 상태에서 이들은 주님의 신하된 수준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측면에서는 주님과 매우 가깝게 결합될 수 없다. 그러나 악이 제거될 때, 즉 하나됨을 방해한 장애물이 제거되었을 때, 하느님의 사랑과 빛이 그들이 지녔던 진리 안으로 흘러들어 그들의 진리들은 신성한 빛으로 예증되고 신성한 사랑으로 따뜻해져 주님의 것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우리 자신, 즉 교회 멤버라는 개인적 차원에 생각해보자. 각 개인에 응용하면 “이 세상”이란 자연적 수준의 마음이다. 우리가 기독교리로 훈육될 때 우리는 그 진리를 지식 차원에서 받게 된다. 그 다음 신앙과 행동지침의 원리를 형성하는데 그 진리를 채용한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수단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첫 행동은 자신 안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행동은 선과 악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심판이라는 일에 해당된다. 그 이유가 영계에서 선을 악에서 나뉘게 하는 게 하느님의 심판인 반면 이와 상응되는 심판의 일이 거둬지고 구원되는 자연계의 각 사람의 마음에서도 똑같이 결과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서 실제로 선과 악이 분리되는 결과를 있게 하는 심판 이전에 우리가 알고 믿는 진리들은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있다. 그 진리들은 그분의 영만이 스며 있는 게 아니라 대체로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 있다. 그 진리들은 그분의 이름만으로 규율되고 통치되는 게 아니라 주로 우리 자신으로 통치되고 있다. 그 진리들은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채용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다. 기독교인의 제자들이 심판을 통과해갈 때 가라지밭에서, 염소가 양으로부터, 거위가 진리로부터, 악이 선으로부터 우리 지성과 심정 안에서 분리되어 진다. 그리하여 분리되고 드높여진 원리들이 진실로 주님의 것이다. 그 이유가 그것만이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왕이란 마음을 지배하는 원리가 된 진리를 말한다. 생각과 애정은 신하이다. 진리는 맨 처음 지식 차원에서 마음에 존재한다. 비록 획득된 진리가 그 자체로서는 신성하다 할지라도 처음 상태의 그 진리는 신성도, 마음 속의 천국적인 것도 아니고 세상적 바람과 목적 아래 있는바 세상 그대로의 것일뿐이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 목적이 제거되면서 그 자리를 더 높은 목적이 채울 때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천국적인 것이 되어가고 어느 일면에서는 신성하다. 즉 “이 세상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이다.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신성한 통치자에 관한 본문의 칭호는 특이하다. 서간문에서는 이렇게 읽어볼 수 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이다” (고린도전3:23). 그러나 이는 주님 자신의 말씀의 또 다른 형체일 뿐이다. 그분께서 제자들에 관련해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주십시오...내가 이 사람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요한17:21,23). 그리고 계시록의 다음 장에서, “...우리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라고 읽는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서는 단수 표현이 아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계시록의 단어에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언급한 적이 결코 없다. 그러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이해해야 할까?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란 주님과 그분의 인성이다. 그분의 첫 강림의 교회에서 주님의 인성은 신성이 아닌 영적 수준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므로 그 인성은 유한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는 주님이 선포한 표현에 반대된다. “아버지께서 생명을 가지셨던 것과 같이 그분이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로 가지도록 그에게 주셨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서는 마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나타나셨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인성이 신성하다는 것이 부인될 때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신다. 그분의 두 번째 강림에서는 그분의 인성이 신성하다고 인정되어진다. 주님께서 신성 측면에서의 아버지와는 동등하나 인성 측면에서의 아버지일 경우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참된 교회의 교리가 아니다. 주님의 신성 측면이 아버지이고 그분의 인성 측면이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고, 다시 말하면 주님, 한 인물(one Person)이다. 이 내용이 “세상의 나라는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선포 자체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이 구절에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군림하실 것이다.” 문법적 측면에서 보면 통치하시게 되는 그분이 주님이 아니냐 라고 반박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가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만일 주님만이 통치하신다면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 말 속에는 교회가 알고 고백해야 할 극도로 중대한 진리가 표현되어 있다. 기독교 신앙의 영광과 권능은 예수의 신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성이 신성함에 있다. 주님께서 지옥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모든 신앙자에게 천국을 여신 것은 하느님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인간으로서 이다. 그분께서 인간의 심정에 있는 악의 나라를 복종케 하시고 그 자리에 정의의 나라를 건설하신 것은 하느님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인간으로서이다. 그리고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는 것도 하느님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인간으로서이다. 이 위대한 진리는 조직체로서의 교회이든, 개인 안에 있는 교회이든, 어느 곳에 적용한다해도 다니엘의 다음 예언과 동등한 진리가 되어있다. “주권과 영화와 나라가 그에게 맡겨지고 인종과 말이 다른 못 백성들의 섬김을 받게 되었다. 그의 주권은 스러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갈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7:14).

16.17.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천국에서 그분의 새 나라를 건설하시는 주님의 쾌거를 노래했을 때,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던 스물 네 원로도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느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소서. 하느님께서서는 큰 권능을 펼치시며 군림하고 계십니다.’ 이 원로들의 경배는 5장에서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5장에서 그들은 네 짐승과 하나되어 책을 받으실 자격이 있고 그 책의 봉인을 떼실 수 있는 어린 양을 찬양했다. 천국은 주님의 행동과 상호교류한다. 그리고 그분께서 천국을 통해 교회에 행동하듯 교회의 경배는 천국을 통해 주님께로 올라간다. 이 경배의 주제는 주님께서 큰 권능과 통치권을 가지셨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 경배의 세부사항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여기서의 권능은 관계적인 권능만을 뜻할 수 있다. 신성한 권능, 이는 주님 안에서 그 자체로만 볼 경우 이는 무한하고 언제나 동일하다. 그러나 천국과 교회에서 그분의 권능은 그들의 상태에 따라 다양해진다. 그들 위에 군림하는 그분의 권능은 그들 안에 있는 그분의 권능과 비례된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그분의 권능은 그들의 심정과 지성이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에 비례한다. 만일 천사와 인간이 사랑하기를 중단하고 하느님을 믿기를 그만둔다면 그분의 권능은 끝나고야 말 것이다. 악과 불신앙이 인간 사이에서 우세해질 때 그 우세함에 비례하여 주님의 권능도 줄어든다. 따라서 인간이 멸망하지 않는 것, 교회가 회복되는 이유는 멸망의 원인이 제거되도록 무슨 조치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주님께서 육을 입으셨을 때 이 역사는 그분을 창조물에 새로이 더 가까운 관계가 되게 해서 더 직접적이고 능력있게 작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경우에서 그분은 권능을 가지시어 군림하셨다. 이 역사는 주님과 인간 사이의 교류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하여 다시 열어 놓는 효과를 보았다. 썩어있는 말씀은 이 교통의 첫째가는 매개체이다. 그 속의 진리가 희미해지거나 뒤집혀지면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능은 그만큼 줄어든다. 교회에서 그분의 권능을 회복하는 주요한 수단은 그분의 말씀에 있는 참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모든 교회는 진리의 발달 또는 어떤 새로운 적용을 요구한다. 인간 마음은 언제나 동일한 채로 남아 있지 않는다. 신성한 진리는 변화하는 인간 마음의 요구에 그런 대로 어울려 준다. 그 이유가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보다 더 심오하기 때문이다. 인간 마음이 받을 준비를 갖추는 때 말씀에 관한 더 심오함이 말씀 안에서 열릴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주님의 두 번째 강림으로 형성되는 교회에 알려지는 진리는 첫 강림으로 형성된 교회 속의 진리가 단순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더해서 새로운 진리들이 있다. 또는 옛 진리가 벗기어 내놓은 진리가 있다. 이 진리는

첫 교회가 받을 수 있게 준비되었던 것, 이해할 수 있었던 신성과 영적 주제들을 더 깊고 더 명료하게 표현한다. 지금 열어 보여주는 말씀의 영적 의미는 주님의 손에 있는 새롭고 더 큰 권능이다. 말씀의 영적 의미를 수단으로 그분께서는 이전보다 더 위대하고 충만되게 인간 영혼 안에서 구원하는 권능을 펼치시어 거듭남을 집행하실 수 있다. 말씀의 영적 의미가 열림으로 달빛이 햇빛같이 되었고 햇빛은 일곱 날들의 빛으로 일곱겹이 되었다.

주님과 인간사이에 교통하게 하는 두 번째 매개체는 천사들의 천국이다. 신성의 영향은 천국의 천사를 통해 지상의 인간에게, 또는 천국의 교회를 통해 지상의 교회에 와진다. 그러나 이런 내러움은 중간 영역의 상태, 즉 지상을 떠난 모든 영들이 우선 모여 있게 되는 곳,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심판될 때까지 머무르는 곳에 존재하는 장애물로 말미암아 지장을 받을는지 모른다. 지상에서 교회를 형성했던 수많은 세대가 거기에 모여 있다고 가정한다면 선 또는 악에 대한 그들의 세력은 대단할 것이다. 그러나 타락하는 교회가 진리의 순수함과 종교의 생명되는 것에서 더욱 멀리 이탈한 이래 계속 중간 상태를 채워 왔겠지만 악의 경우 그 곳이 마지막 저항하는 곳일뿐이다. 영들의 세계로부터 이들을 제거하는 것은 지상에 새 교회가 형성되기 전의 필수사항이다. 이는 오로지 일반적 심판, 모든 이들을 각기 제 거처에로 옮기는 작업에 의해서만 결과될 수 있다. 모든 천국적인 영향이 땅 위 인간으로 건너갈 때 통과하는 중간 영역이 이를 방해하는 매체로부터 자유로워 질 때 땅 위 새로운 교회는 건립될 수 있다. 악에서 분리된 영들의 세계에 있는 선한 자들이 먼저 새로운 영향을 받게 되고 새로운 처방의 시작을 구성한다. 그 이유가 그들 가운데서 새 하늘이 형성되고 이로부터 지상으로 새 교회가 내려오기 때문이다. 이들이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는 것은 마지막 나팔소리에 뒤이은 큰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천국 안에서 퍼지는 소리에 의해 “이 세상의 나라는 우리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군림하실 것이다” 라고 경축되고 있다. 이러기에 원로들이 옥좌 앞에 엎드려 심오한 경배를 드려 하느님을 예배한다. 그분께서 큰 권능을 지니시고 군림하신다.

18. 원로들의 찬양이 이어지지만 이 구절의 노래는 앞과는 다르다. “이방인들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분노를 샀으며 때는 와서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대소를 막론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상을 받고 땅을 어지럽히던 자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나라에서 신하가 된 이들은 심판으로 구원된 중간 상태에 있던 선한 자들이다. 그 반면 분개하는 이방인(nation)들은 내던져진 악한 자들이다. 이들이 분개하였다고 말해지는데 그 이유는 악한 자에게 있는 심판이 그들 생명의 안쪽 상태를 까발려 놓아서 하느님께

대한 감추었던 적개심, 또는 그분의 선함과 진리에 대한 적개심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한 자를 내던진 심판이 선한 자를 들어올린다. 죽은 자들의 때, 심판되는 때, 비록 악한 자는 분노의 때이지만 의로운 자는 상을 받는 때이다. 이런 보상과 처벌을 바깥쪽 측면에서의 선물과 형벌같이 이해해서는 안되리라. 영계에서, 그리고 영적 삶에서의 보상은 내향의 선함으로 튀어나오는 바깥쪽 행복이고 처벌은 내향의 악으로부터 솟구치는 바깥쪽 재난이다. 그 이유가 선은 그 자체가 보상이고 악도 그 자체가 처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보상되는 선한 자의 세 계층이 언급되고 있다. 예언자와 성도란 진리를 알고 그것에 따라 사는 교회 내의 사람들이다. 이들이 주님의 종이며 성도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란 하느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예배하는 모든 종교내의 사람들이다. 대소에 속하는 이들이란 종교적 신앙에 관한 지식과 삶을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보상받는 한편 악한 자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처벌되고 있다. 이것이 “망했다”로 말해지고 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땅을 어지럽힌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땅”으로 의미된 교회는 오류와 악으로 멸망된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들 안에 있는 선함과 진리의 원리를 파괴함으로써 자신들 안의 교회를 파괴한다.

19. 심판에 선행되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상태가 명백해짐이 이제 묘사되고 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의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의 궤가 나타났으며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하느님의 성전이 닫혀있었다. 마치 그분의 생명책이 봉인되었던 것과 같다. 이 책의 퍼짐이 성전의 열림을 준비했다. 땅 위 주님의 성전은 오류와 악으로 닫혀 있었다. 지상의 성전이 인간에게 닫혔듯 천국의 성전도 인간에게 닫혔었다. 그 이유가 교회 내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천국을 닫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앙까지도 닫아 놓는다. 주님의 몸예에 해당되는 성전으로부터 신성한 영향이 흐른다. 악과 오류들을 멀리 내다 버릴 때 성전은 다시 열릴 수 있다. 성전이 천국에서 열릴 때 그 안에 계약의 궤가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 이 묘사는 의미심장하다. 계시록의 이 부분에서 취급되는 교회는 율법의 행위란 예식 차원이 아닌 실제 차원의 법 이행, 그리고 그 법에는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다. 성전이 열렸을 때 궤가 보여졌다. 궤 안에는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진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다. 이는 율법이 제 자리를 찾고 그 권위도 회복되었다는 표시이다. 이 궤는 계약의 궤라 불리는데 더 타당한 말은 언약(covenant)의 궤일는지 모른다. 계약은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소유를 남기고저 하는 문서이다. 언약은 상호간에 만족하여 이뤄지는 두 사람의 동의이다. 이와 같은 속성이 언약의 궤이다. 이것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동의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다. 인간은

순종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구원이 도덕적, 실제적 법에 순종하지 않고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 또는 구원의 조건을 이 사람이 수행하고 그 보상을 저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가상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열린 성전에서 언약의 궤가 나타났다는 것은 위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반박하고 책망하는 것이다. 더불어 거룩한 돌판은 구원의 조건이요 수단이어야 한다는 표시이다. 성전이 열리고 궤가 보여지자 번개와 소리와 천둥과 지진, 큰 우박이 있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이 일곱째 봉인이 떼어질 때 있었는데 지금은 일곱째 나팔소리가 불어지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 곧 교회가 큰 잡음을 내면서 소멸한다는 표시이다. 이런 소동은 신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평화와 안정에 반대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분개한 “이방인들”의 법석담과 변화도 암시한다. 성낸 논쟁, 괴변적인 주장 같은 견해들의 싸움으로 분출된 떠들썩함이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다. 악한자의 바뀐 조건이 땅이 융기하는 “지진”이다. 그들이 쏟아 붓는 파괴적인 오류들이 “큰 우박”이다. 이런 기본적인 동요들은 교회의 “기본요소”들이 지상적인 사랑의 열기로 녹아 내릴 때 교회를 마구 뒤흔든다. 어쨌든 또 다른 표시도 있다. 선한든 나쁜든 모두는 완전한 시작 전에 표를 해두고 해명하도록 불리운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음 장에서 취급되고 있다.

12

땅 위에 그분의 교회를 새롭게 건설하는 주님의 작업(Lord's Divine work)이 진전을 이루는 또 다른 단계가 이 장에서 기술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여느 다른 작업에서와 같이 무한한 사랑과 지혜의 작용에 저항하는 악한 세력이 이 작업을 뒤집어 놓으려 하고 있다.

1. “하늘에는 큰 경이로움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이 열 두 개 달린 왕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 장엄한 광경이 지금 이 예언자에게 표출되고 있다. 이 광경은 우리가 얼핏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흥미와 극도의 중요함을 내포하고 있다. 요한이 지금 하늘에서 본 여인은 후에 그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두 경우 모두에서 여인은 교회의 모양새이다. 본문의 이 여자는 새 교회, 주님의 두 번째 강림으로 형성되는 교회,

이미 하늘에는 존재하나 세상에로 실지 내려 올 수 있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새 교회이다. 이 때의 하늘에 있는 그녀의 외관은 선행된 사건을 간직하고 있고 이 시리즈의 적절한 결론도 형성해놓고 있다. 이 세상의 왕국은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 하느님의 성전이 천국에서 열렸고 언약의 궤가 그 안에서 보였다. 이제 교회 자체의 형상이 천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영예로운 외관을 찬찬히 들여다보자. 이 여인은 태양으로 옷을 입었고 달을 밟고 머리에는 열 두 개의 별이 있는 왕관을 쓰고 있었다. 말씀 전체에서 물질적인 하늘의 발광체는 비물질의 발광체, 즉 천사들의 하늘, 교회, 인간 마음에 있는 발광체를 표현한다. 태양은 사랑을, 달은 믿음, 별은 사랑과 믿음에 관한 지식을 상징해준다. 회복된 교회의 영예로움이 끝이 없음을 예견하면서 이사야는 말한다.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고 너의 달이 다시는 스러지지 아니하리라” (60:20).

흔히 세상의 종말로 이해해 버리는 시대의 종말(consummation of the age) 즉 교회의 종말을 예보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셨다. “이런 날들의 환난 후에 즉각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마태24:29) 이 구절의 말보다 더 교회의 종말을 상징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 이런 자연계의 발광체들이 지상에 관계되듯 사랑, 믿음, 진리는 교회와 관계된다. 이런 원리가 실패할 때 밤이 올 뿐아니라 그 교회의 끝이 오는 것이다. 하늘의 빛들이 어두워짐으로 교회의 종말이 예보되는바 끝을 맞는 교회를 묘사하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듯이 교회가 이전의 광휘를 회복하고 이전의 영예로움으로 장식된 왕관을 쓰는 상태가 여인이 태양으로 옷을 입고 달을 밟고 열 두 별이 달린 왕관을 쓴 모습 그 이상으로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 어쨌든 이 모습에는 일반적으로나 세부적으로나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인이 태양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교회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가 하느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 이유가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사랑이 종교의 생명이듯 교회의 생명이다. 달이 그녀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은 믿음은 교회의 기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녀의 머리에는 열 두 별이 있는 왕관이 있다는 것은 천국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은 총명과 지혜로 교회에 왕관을 씌운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다.

2. 교회가 여인으로 표현되었는바, 이제 뒤따라오는 내용은 이 교회와 관련되어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 여자는 뱃속에 아이를 가졌으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신실한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성서에서 말해진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모두의 어머니이다” (갈라디아 4:26). 다시 태어나는 이들, 또는 위로부터 있는 이들은 하느님이 그들의 아버지 되는 만큼이나 참으로 교회가 그들의 어머니요 그들은 교회의 아들과 딸들이다. 그러나 교회의 어머니쪽 속성을

이해하는데 더 추상적 의미가 있다. 교회는 원리들의 어머니이고, 인간 마음 안에서 원리의 출생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 또한 교회는 선함과 진리의 어머니이고 이것이 세상으로 교회를 알게 해준다. 그 이유가 교회를 통해 주님은 그분 자신을 인류에게 밝히 알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표현된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인바 사람들이 여인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지상에 내려와 사람들 사이에 거할 수 없다. 여인이 뱀 아이란 그분의 통치를 수단으로 해서 그분을 가슴에 담고 있는 자손, 즉 그분의 교회의 하강을 위해 그들을 준비하게 하는 그분이다. 그래서 여인은 지금 해산하기 위해 고통받으며 진통으로 괴로워 울고 있다. 말씀의 글자에서 아이가 출생할 때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죄는 진실로 새 출생에 수반되는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다. 새 출생에 수반되는 고통은 각자가 지닌 오류와 악의 강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우리가 여인을 신실한 자의 어머니 또는 신실함 자체의 어머니로 생각해보든, 땅 위 교회의 상태이든, 이 예언의 부분과 관련되는 때의 교회 상태는 하늘에 있는 교회가 천국 원리, 즉 인간 사이에 참된 교회의 건설을 준비하게 해주는 교회의 통치와 가르침을 생기게 하는데 곤란을 겪게 하거나 고통받게 한다.

3. 교회가 출산으로 고통하는 한편 아이가 출산하자마자 괴물이 그 아이를 삼킬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고 머리마다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우선 의문시되는 것은 왜 하늘에 이런 괴물이 나타났을까 하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번개가 하늘에서 떨어지듯하는 사탄을 보았다는 주님의 선포를 마음에 상기해보는다면 이 괴물의 갑작스러운 출현이 우리를 별로 놀라게 하지는 못한다. 물어보아야 할 게 있다면, 이 용이 등장했던 하늘, 그것과 미가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하늘, 이로부터 사탄처럼 내던져졌던 하늘은 무슨 하늘이었는가 일 것이다. 이 하늘은 천사들의 하늘이 아닐 수 있다. 이 책 자체는 어떤 하늘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이유가 20장에서 요한은 크고 흰 옥좌, 그분이 그 위에 앉으셨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졌다고 읽기 때문이다. 사라져버린 이 하늘이 큰 붉은 용이 나타났던 하늘인데 이 하늘의 속성은 미가엘과의 싸움을 취급하는 구절에서 더 생각해보기로 하자.

여인이 주님께서 땅에 건설하시려는 교회를 상징하듯, 용은 이 교회에 반대하는 적대감을 지닌 것, 그래서 교회가 존재 안으로 진입 없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것을 표현한다. 교회는 본질로만 생각하면 사랑과 진리의 원리로 구성되는데, 용은 악과 거짓의 원리를 표현한다. 사실 이런 용어는 대단히 넓은 의미이다. 따라서 참된 모든 교회는 각기 특유한 품성을 가진다. 비록 참된 교회의

본질되는 원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두 원리로 언제나 구성되어 있다해도 이 두 원리는 교회의 특성에 의거 그 품질과 수준이 달라진다. 마치 참된 교회가 건설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각자의 조건과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어지는 것과도 같다. 하느님을 사랑함과 하느님에 관한 지식은 서로 필수적인 관련을 갖고 있다. 참으로 인간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분을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을 알지 않고서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의 품성은 그들이 지닌 하느님에 관한 지식의 범위와 본성과 필수적 관계를 가진다.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보다 하느님을 더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 그 이유가 기독교인들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인물로 그분 자신을 명백하게 보여주셔서 그분에 관해 유대인보다 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속성과 본성에 관해 더 알고 있는 만큼에서 더 완전하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하느님을 사랑함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사랑, 완전한 그분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완전하신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이 완전하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완전하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참된 사랑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한 본성과 품성을 그분 자신의 인물,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으로 진열해놓았다. 그래서 만일 인간이 위 모형을 신성의 본보기로서 교회의 마음 안에 계속 간직했었다면 교회의 타락은 있어질리 만무하고 오히려 더욱 진취적인 발전만 있었으리라. 어쨌든 이 완전한 모형은 교회의 마음에서 떠나 있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의 하느님을 계속 바라보는데 만족치 못했다. 영혼과 몸의 관계같이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보고 예배하는 대신 교회들은 아버지라는 파로의 한 인물과 아들이라는 또 하나의 인물을 등장시켰다. 더불어 교회는 그 둘을 인물편에서 뿐만 아니라 품성 측면에서도 다르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 두 인물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각기 다른 관련과 태도를 갖는다고 간주하였다. 그들의 창조자요 입법자로서 신성의 첫 번째 인물은 그들에게 그분의 법도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아담이 범했다는 죄로 타락이 시작되었을 때 그분의 공정은 인류의 영원한 죽음을 요구했다. 이리하여 인류의 아버지는 공포를 불어넣는 존재로서 그들의 마음 앞에 놓여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공정의 표준을 그들 스스로 더 낮게 책정하는 것을 본보기화 하기 위해 그들은 인류의 탈출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하느님이 인류를 죄 때문에 주려 하신 벌을 아들로 하여금 짊어지게 한다는 아들과의 언약이다.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완전한 공정을 고수하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했다. 인간이 범했거나 범할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해 충분히 만족시킨 가운데 인간은 이제 구원되었는데 그 구원은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뭔가 할 수 있게 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대리인 자격으로 해놓은 것 때문이다. 그분께서 구원을 위한 모든 충족요건을

채웠다는 대속함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은 모든 참된 종교의 토대를 침식시키려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같은 논리는 신학적 체계이고, 종교적 신앙인데 이것이 큰 붉은 용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큰 붉은 용은 순수한 기독교 신앙자들, 특히 이제 회복되어 드높여질 교회, 여인으로 표현된 새 교회인에 직접적으로 적대관계에 놓여 있다. 새로운 처방 밑에서 기독교의 진리들은 충분히 밝히 알려지고 있어 더 명확하고 더 내면적으로 지각될 것이다. 이런 것은 말씀의 글자를 계발된 해석에 의해 파악할 때 결과된다. 이를 수단으로 뺏어지는 교리는 본래의 순수함을 회복 시켜 주고 말씀의 글자 속의 영적 의미가 드러남으로부터, 이 드러남을 수단으로, 지상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더 가까운 교통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런 해석과 해설의 법칙은 대단히 정밀하고 명확한바 진리는 실수나 부패됨의 가능성을 배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요동할 수 없는 반석 위에 놓여진다. 이 반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머릿돌 되시고,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 천상천하의 교회가 예배할 유일한 대상으로 알려지고 인정되리라. 구원은 사랑, 믿음, 그리고 일이 하나됨으로 결과되며 이 세 원리는 구원의 수단이자 영원한 생명의 조건이다. 많은 세부사항들이 위 두 교의에 포함되어있다. 그래도 그것들은 더 위대한 분의 영광과 광휘를 장식해주는 작은 광명에 불과하다. 주님에 관한 교리에 포함된 세부사항 중 하나는 그분의 인성은 신성하다(the Divinity of His Humanity)는 것이다.

그분의 인성이 신성한바 사람으로서의 주님은 그분의 구원하시는 모든 권능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실 수 있다. 그 이유가 주님의 구원하는 힘이 그분의 신성한 인성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람으로서의 그분이 구속하셨듯, 사람으로서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주신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고통받고 죽으셨고 그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승천하셨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끝날 까지도 언제나 그분의 교회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큰 영광과 권능과 함께 하늘의 구름 안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육을 입으신 연유로 주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소생하도록 작동하시어 그분자신 처럼 우리를 만드실 수 있다. 우리가 그분처럼 만들어짐으로, 그분과 함께 삶으로,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그분과 함께 일어남으로 해서만이 구원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각자 기량껏 그분이 하셨던 것을 행해야 하고 그분이 되어 가셨던 같이 되어가야만이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된다. 그 이유가 천국과 교회는 그분의 신비한 몸체, 그분 자신의 영광스런 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를 형성해주고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는 수단이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종이다. 천국에의 입장을 허가

받는 유일한 조건은 천국적인 마음씨(heavenly-mindedness)이다. 심정과 영이 새로워진 만큼에서 하느님의 나라에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도 판가름된다. 이렇게 새로워진 종교가 신성을 갈라놓고 십계명을 격하시킨 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란 예상은 과히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반대자들은 믿음을 구원의 해결사로 해놓고 있다. 엄밀히 볼 때 이 믿음은 죄로부터 우리의 구세주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 대신 그 벌을 받아 고통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일 뿐이다. 이 믿음이 용이고 이 용의 특질이 그 믿음의 본성을 묘사해주고 있다.

20장에서 이 용은 “늪은 뱀, 악마이며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다. 뱀은 인간의 본성 중 감각적 부분, 육(flesh)이라 불리는 인간의 부분을 상징한다. 육은 영에 거슬러 갈망하고 (갈라디아서5:17), 내 마음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는 다른 법이 있다 (로마7:23). 영에 거슬러 갈망하고 대결하는 것, 영이 육에 거슬러 바래고 대결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자주 언급되고 다양한 각도로 기술되고 있다. 이것은 에덴에서 시작했다. 파라디이스에서 인간을 유혹하고 부추긴 것이 늪은 뱀이요 아직도 그것의 갈망과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인간의 영적 본성에 거슬러 갈망하고 다투는 것이 인간 고유의 감각적 본성이다. 이들이 여기서 용과 여인으로 의미되고 있는데 마치 에덴에서 이브와 뱀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나 계시록의 용은 창세기의 뱀이 더 이상 아니다. 우리 시대의 감각적 지혜는 태초 시대의 감각적 지혜가 아니다. 이 지혜는 과학과 이성의 논쟁으로 획득된 것들이다. 이 지혜는 그 근원과 힘이 과거와 견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크게 증가되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용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것이다.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고 뿔은 힘을 상징한다. 그러나 여기서 표현한 지혜는 하느님 편에서는 어리석음인 용의 지혜이고, 용의 머리 숫자와 뿔의 숫자는 그의 지혜와 능력의 품성의 정도를 암시하는 게 아니다. 일곱은 거룩한 숫자이고 열은 완성된 것이다. 비신앙자가 거룩한 것을 모독할 때 신앙자와 더불어 거룩함의 상징은 비신앙자와 더불어서는 모독의 상징이 된다. 그러므로 용의 일곱 머리는 교회와 말씀의 거룩한 진리를 모독함에 관한 표시이다. 말씀 속의 거룩한 진리들이 일곱 왕관으로 의미되는데 이 진리가 진리에 반대되는 오류를 확증하는데 남용됨으로 모독된다. 비록 이교도의 견해를 확증하는데 진리가 사용되었다해도 말씀 속의 진리 자체는 계속 고귀하고 거룩하다. 성경의 진리들이 왜곡되어 해석되고 이교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데 응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형식적이고 외관적인 성경에 관한 것도 자신의 이해성을 맹목적인 믿음에 종속시켜 놓고 거룩한 것이라 말해지는 것이면 미구잡이로 존경하려드는 이들에게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진리가 왜곡된 것을 확증하도록 만들기에 앞서 그 진리들이 먼저 왜곡되거나 그 진리가 가르치려 의도하지도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 해석하여

응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경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교리를 가르친다. 이 교리에서 삼위일체는 세 인물들로 구성되고 각 인물은 각기 하나님과 주님이라고 가르친다는 쪽으로 설명되게 할 때 이 삼위일체 속의 진리는 왜곡되고 만다.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가지고 인간은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만들려고 설명할 때 이 진리는 왜곡되고 만다.

4. 용에 관한 묘사는 용이 표현한 원리의 본성을 우리로 이해하게 했는데, 이 용의 행동이 기술되고 있다. “그 용은 자기 꼬리로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꼬리란 머리가 고안해낸 것을 입증하는 힘을 의미한다. “그 머리란 장로와 잘난 체하는 자들이요 그 꼬리란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이다” (이사야9:15). 별은 진리에 관한 지식이다. 별들을 하늘에서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다는 것은 말씀 속의 진리가 신성과 영적 사항에 관한 자연적 수준의 견해를 확증하도록 설명되어질 때를 말한다. 이런 시도가 의도적이냐 직접적이냐 등등은 상상해볼 필요가 없다. 거짓 원리가 한번 채택되면 세월이 흐르면서 진리가 희미해지고 그로부터 이탈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놀랄 것은 어떻게 성경이 교묘히 설명되어 거짓 원리와 일치되는 증거를 가져오게 하는지이다. 이렇게 되어 한분 하나님 안에 세 인물이 있다는 교리가 마지막으로 정착하고,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교리도 채택되고 확증되어갔다. 이들 교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용으로 의미되고, 말씀 속의 진리와 그 교리를 지원하는 이 진리의 응용이 별로 의미되는데, 용의 꼬리가 그것들을 휩쓸어 땅에 내던졌다. 참으로 이 용의 힘은 별의 삼분의 일에 미쳤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살핀바 있듯이 삼분의 일은 숫자 3처럼 모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삼분의 일이란 용이 표현하는 교리에 관련되는 말씀 속의 모든 진리이다.

어떻게 용의 꼬리가 별을 휩쓸어 땅에 내동댕이쳤는지는 용이 표현하는 교리들을 옹호하는 이들이 자기들 견해를 승낙하는 듯 여겨지게 말씀 속의 진리를 설명하는 태도에 관한 몇 가지 예를 들먹거리려보면 판단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단일성(unity)을 선포한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이교도들에게 있는 하나님들에 반대된다는 면에서의 단일성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주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고 말하셨는데, 이는 그 두 분이 한 분 하나님이요 한 명의 인물이 아님을 뜻한다고 설명된다. 구원의 조건으로 계명을 참작해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을 폐지시키려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하고 말하셨는데, 이는 참으로 주 예수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러나 그 완성은 우리로 완성하도록 하는 본보기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대리인으로서의 완성이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그분이 청년에

게, “네가 생명의 나라에 들어 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고 일러 주셨을 때, 그분께서 그에게 전달해주시려 한 것은 그가 율법 아래 있었던 유대인인바, 그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 그러므로 율법 가지고는 구원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려 하셨던 것뿐이다 라고 설명한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정의이다... 라고, 우리의 모든 정의는 그분 속에 있다... 라고 선포하나, 이는 순종으로 우리에게서 창출된 우리 정의의 저자는 아니신 듯 여겨지고 오히려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대체된 우리의 정의를 뜻한다 라고 설명한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정의로움은 불결한 누더기옷 같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이는 우리 고유의 정의가 아닌 우리가 행한 정의는 무엇이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려 말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말씀은 선포하기를, 하느님은 악을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순수한 눈을 지니셨는바 불법을 쳐다볼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우리가 악과 불법을 하느님의 시야에서 멀어지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의 현존에 나타나기 위해 우리의 불결함은 그리스도의 정의라는 오점 하나 없는 도포로 덮어 감추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억지로 말미암아 말씀 속의 진리들은 자연적 이성의 힘에 휩쓸려지고 마음의 영적 영역에서 자연적 영역으로 내동댕이쳐지고 있다.

별들을 내던진 “용은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그 아기를 삼켜버리려고 그 여자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참된 교회는 거짓과는 영원히 반대되어 있다. 새 것과 옛 것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런 반대는 직접 서로 마주 본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교리 측면에서 그러하다. 예언의 이 부분이 묘사한 것은, 세 인물의 신성과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교리를 추켜세우는 이들이 주님과 삶에 관한 교리가 출생되려는 것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바램과 몸부림이다. 이와 비슷한 모양새가 주님의 첫 강림 때의 상황, 즉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자 헤로데가 아기를 죽이려 시도했던 모습이다. 이때 아기 예수를 보전하고자 위촉된 이들과 비슷하게 본문에서도 사내아이가 보존되도록 신성한 수단이 강구되고 있다.

5.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느님과 그분의 옥좌가 있는 곳으로 들러 올라갔습니다.” 사내아이의 출생은 대단한 사건이다. 이 아이는 예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은 그분의 인물측면이 아닌 왕국 측면에서 였다. 주님의 왕국은 그분의 정부이고 이 정부의 원리는 그분의 말씀 속의 교리와 법들이다. 사내아이란 여인으로 표현된 새 교회(the New Church)의 교리이다. 하늘에 있는 교회가 내려와 지상의 교회가 되기에 앞서 그 교회의 원리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만들어야만 한다. 교회는 교회의 원리가 알려진 곳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지식은 사랑과 믿음으로 구성되는 교회의

선구자이다. 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 때 어떻게 모르는 것을 두고 사랑할 수 있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사내아이의 출생은 여인이 표현한 교회의 교리가 출생함 또는 밝히 알려지는 것이다. 그분의 상징적 품성에 일치되게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인간의 통치자와 선생이 되어있다. 그는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런 그분의 권능에 대한 상징은 마치 그분께서 그들을 통치할 뿐 아니라 만국을 매질이라도 할 것처럼 가혹함의 징조를 나타내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분의 지팡이에 관한 글자적, 영적 의미 모두는 그분의 통치에 관한 참된 본성을 설명하고 있다. 본문에서 다스린다(rule)로 번역된 단어는 먹인다(feed)도 뜻한다. 영적으로 먹인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내아이의 사명은 진리의 통치와 훈육을 수단으로 인간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 이유가 교회 자체가 그들 사이에 하강하기 때문이다. 쇠는 자연적 진리를 상징한다. 이 진리는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

사내아이의 출생은 또 다른 실용적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교회의 참된 멤버가 되어 가는 사람들 각각에게는 이와 상응하는 출생이 있다. 종교의 원리는 마음 안에서 임신되어 생활에서 출생한다. 용이 표현하는 원리도 마음 안에 현존하고 활성적 상태에 있으면서 천국 원리가 출생하자마자 그것을 삼켜 버릴 준비가 되어있다. 육에 적이 되지 않으면서 영 안에 임신될 수 있는 선은 아무것도 없다. 생활에서 선을 생산하는 모든 수고는 자연적 수준의 의지와 이해성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만나고야 만다. 선이 현존하면 악은 흥분된다. 동시에 선을 파괴해야겠다는 바람이 일어난다. 시험이라 불리는 정신적 싸움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 전투는 어느 한 쪽이 정복해 버릴 때까지 계속되어 결국 어느 쪽이 지배권을 쥐게 된다. 그러나 새로 태어난 원리는 이런 시련에 굴복하지 않는다. 마치 본문의 여인과 아기가 보호되듯 섭리는 새 원리를 보호한다. 여인이 아이를 낳자 그 아기는 하느님과 그분의 옥좌에로 들려졌다. 이 대목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이 모습은 거듭나는 삶의 어떤 단계와 교회의 어떤 조건에서 있어지는 주님의 섭리적 체제를 묘사해놓고 있다. 이 모습은 다른 케이스에서 본보기화 되어 있다. 모세가 보존되는 경우에서 하느님께서 모세를 살리고자해서 히브리 유아들을 살육하는 에집트인들을 강제적으로 막지 않으시고 아기 모세가 숨겨지고... 강에 버려지고... 파라오의 궁전에서 양육되는 우회적인 설비를 강구해두셨다. 모세의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한 생명인 예수의 생명까지도 헤로데의 팔을 꺾는 식의 강경책으로 보존되게 않으시고 유아들이 무더기로 살육 당하는 그 곳에서 아기 구세주를 피신시키는 수단을 강구하셨다. 이런 앞의 사건은 큰 교훈을 가르친다. 왜 신성한 권능이 악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휘둘러지지 않을까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는 대목이다. 이 대목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악도 동기와 행동으로 구성된다. 만일 동기가 제거된다면 행동은 자동으로 멈춰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행동이 언제나 강제적으로 억제된다면 그 동기는 행동을 억제하려는 온갖 시도에 저항할 것이다. 주님의 섭리 또는 은총의 목적은 동기 측면의 악인 심정 속의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동 측면의 악은 어떤 한계에서 위와 같은 목적 때문에 허용되어진다. 참으로 하느님은 어떤 악도 인간이 하지 말도록 명령하시고 불순종하면 처벌한다고 위협하신다. 그러나 명령에 순종해 악을 단념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들 자신의 행동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행하는 동기를 가진다. 그러면 이전의 동기는 약해지면서 마지막으로 이전의 행동까지도 정복한다. 이 방법만이 인류에게 유익한 쪽에서 악을 예방해줄 수 있다. 비록 악이 강제로 억제되지 않는다 해도 보호조치가 필요한 대상에게는 그것을 제공한다. 이 용은 신성한 권능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내쫓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여인이 낳는 아이를 삼키려고 지켜 서 있었지만 아이는 태어나자 하느님과 그분의 옥좌로 들려졌다.

악의 세력에서 선을 보호하는 수단 중 하나는 선을 악의 시야로부터 옮겨 놓는 것이다. 특히 선이 약하고 악이 강할 경우, 즉 이는 유아기에 더욱 필요한 조치이다.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폭력으로 위협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피하셨다. 유아기에 예수께서 헤로데의 분노를 피하려고 에집트로 운반되셨다. 본문과 형식상으로 가장 가까운 경우는 에녹 일 것이다. 그는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느님께서 데려 가신 것이다” (창세기6:24). 이 구절의 예는 인간이 더 이상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이해할 수 없고 자기 것 삼을 수 없을 때 땅으로부터 하늘로 그 지식을 옮기는 것을 표본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사내아이의 경우, 이 이야기가 하느님과 그분의 옥좌로 데려 가졌다면, 신성한 섭리의 꾸준한 작용으로 거룩한 것을 모독하고 파괴하는 이들로부터서는 그것들을 철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두 증인을 살필 때 이미 언급했다. 이 두 증인은 모욕당하고 죽임을 당했음에도 생명을 되찾고 천국으로 올려져 적의 접근을 넘어섰다. 개인의 경우, 선과 진리가 합리적 마음에 출생되어 영적 마음으로 올려지면 이것이 “하느님과 그분의 옥좌”에로 올려지는 것인데, 투쟁으로 해서 악이 정복되어 내던져 질 때까지, 마치 용이 미가엘에 의해 내동댕이쳐질 때까지 그곳에서 흠모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인간의 천국 원리는 공개적인 명백함에 안전하게 얼굴을 내밀 것이다. “하느님과 그분의 옥좌”에 관해서 더 언급할게 있다. 이는 신성한 것과 천국 적인 것을 뜻하는데, 그 이유는 천국이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사내아이가 하느님과 그분의 옥좌로 들려올라가는 때란 신성의 권능과 천국적인 사랑이 교회의 순수한 교리를 관통하고 에워싸서 악의 권세로부터 보호될

때이다.

6. 아기가 하나님과 그분의 옥좌로 들려 올라가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곳은 하나님께서 천 이 백 육십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시려고 마련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모든 사람, 모든 새로운 교회가 통과해야 하는 상태이다. 에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안전한 길은 없고 광야를 통해야 한다. 어린 교회(young church)가 에집트의 고기가마와 노예신세 안에 남겨진 후부터 이 교회가 곡식과 포도주, 젖과 꿀의 땅으로 진입할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호되고 먹여졌었다. 옛 교회의 말기에 사람들이 옥으로 살 때 거기에는 새로운 사람을 위한 영적 자양분이 없다.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직접 오는 자양분 외에는 더 방법이 없다. 마치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주위에 아침마다 내린 것 같고 바위로부터 물이 흐른 것과 같다. 영적 바위는 그리스도 였다 (고린도전10:4). 예수께서는 몸소 광야를 통과하셨다. 거기서 그분은 에집트에 억류된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인 빵을 먹으라는 유혹을 받았다. 세례자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그는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살았다. 이런 것들은 교회의 영적 조건에 대한 모형들이다. 이런 조건에서 새 교회가 어리고 연약해 있어 성숙될 때까지 보호함과 자양분의 공급이라는 신성한 수단이 강구된다. 이 교회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둔 장소가 있었다. 장소가 상태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께서 초기의 교회를 위해 설비해둔 상태인 조용함(quietness)과 희미함(obscurity)은 이 교회의 강건과 안전함을 위한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주님의 승천 뒤에 기독교회의 희미함도 그것의 보존을 위한 수단 중의 하나였을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 교회가 맞보았던 비교적 조용함도 그 교회의 자양분과 내적 성장, 그리고 확장을 위한 준비과정에 기여했다. 이 상태에도 역시 시험이 있다. 이것이 사막에서 이스라엘이 배고프고 목말라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시련은 이 백성들로 모세에게 불평하게 해서 왜 자기들을 에집트에서 끌어내었는가 라고 따지게 했다. 이런 상태와 더불어 그 교회가 받는 구조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사람 사는 고장으로 가는 길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길 잃고 헤매며 주리고 목마름으로 기력이 다 빠졌던 자들,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울부짖자 야훼께서 사경에서 건져주셨다. 길을 찾아 들어서게 하시어, 사람 사는 고장에 이르르게 하셨다” (시편107:4-7). 교회가 광야의 상태에 있는 동안 신성한 돌보심이 이렇게 명백하게 밝히 알려신다. “아픔을 만나신 것은 광야에서 였다. 스산한 울음소리만이 들려오는 빈 들판에서 만나, 감싸주시고 키워주시며 당신의 눈동자처럼 아껴 주셨다” (신명기32:10). 사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에서 이렇게 인도되고 가르쳐지며 보호되었다. 광야에서 여인이 거처한 기간은 마흔 두 달이다. 이 숫자 역시 사십으로

자주 표현되는 의미인 시험에 관련되고 있다. 또한 마흔 두 달의 다른 표현인 일천 이백 육십 일, 그리고 때, 때들, 반 때, 그리고 셋하고 반이라는 숫자와도 관련된다. 이미 살핀바 있듯이 이런 모든 숫자는 끝과 시작을 의미한다. 마흔 두 달은 삼 년 반이다. 그래서 이는 옛 교회가 끝나고 새 교회가 시작됨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이 처방이 종료되고 저 처방이 시작하는 것이다. 비록 이런 정점에서 새 교회는 있다(be)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존재한다(exist)고 말할 수는 없다. 아직 이 세상에 건설되지 않은 것이다. 이 교회가 에집트에서 빠져 나왔으나 가나안에는 아직 진입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광야에 아직 있는 것이다. 교회의 원리들은 마치 두 증인같이 소돔과 에집트에서 승강해서 하늘에서는 마치 여인이 해를 옷입은 것같이 나타났다. 그리고 사내이로서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나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서 거할 곳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때가 찰 때까지, 즉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서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광야에로 가버렸다. 이런 일이 있기에 앞서 그녀 자신과 아기를 삼키려 위협했던 적들이 정복되어야만 한다.

7.8. “그 때 하늘에서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천사 미가엘이 자기 부하 천사들을 거느리고 그 용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용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발붙일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막 태어나 무방비 상태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아기를 죽이려 했던 시도가 좌절되자, 이 용은 그 아기를 올려놓은 하느님과 그분의 옥좌로까지 추격하다가 미가엘을 만난 것처럼 보인다. 어쨌든 이런 상상도 환상의 바깥쪽 면모일 뿐이다. 이 환상은 내적 상태에 관한 외적 표시인바 내적 상태에 대해 관심을 모아본다.

전쟁이 터졌다고 말한 하늘은 천사들의 하늘, 의로운 자가 완전해져 가는 하늘은 아니었다. 천사들의 하늘은 교전 상태가 완료된 이들이 평화롭게 거주하는 곳이다. 전쟁 자체가 하늘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흔히 생각하는 개념은 이상한 면이 있다. 어쨌든 이 상상, 즉 늙은 뱀, 악마며 사탄인 이 용은 애당초 빛의 천사로 창조되었는데 자기를 창조한 그분이 다스리는 하늘의 주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역했다는 상상이다. 이런 착상은 소설에서나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상상은 가공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진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야생적이다. 만일 이런 상상이 성경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진리의 말씀 안에는 이런 착상에 어떤 권위도 부여하지 않는다. 사탄이 하늘에서 내던졌다고 말한 것은 한 번 이상 더 있다. 즉 주님께서는 사탄이 번개가 하늘에서 떨어지듯 하는 것을 보셨다. 이런 경우이든 저런 경우에서이든 이것이 천사들의 하늘에서이라고 이해하면 안된다. 이 하늘은 마지막 심판 이전에 영들의 세계에 남아있던 이들의 하늘이다. 거기에 그들이 모여서 그들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그들은 이것을 하늘로서 간주했고 이 하늘이야말로 자기들 상태에 잘 어울려 향유되어왔다. 이런 하늘은 지상에서 비슷한 품성을 지닌 사람들이 형성했던 하늘이라고 상상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세상에서 종교에 무관심하고 내향으로는 반대 입장에 있으면서도 기독교회에 살고 있고 교회의 각종 예식이나 봉사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밀밭 속의 가라지 들이다. 이들은 흡사 참 교인 같아서 서로를 구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심판에서는 분리되어진다. 어쨌든 그들도 한 동안이긴 하지만 그들의 바깥쪽 조건과 같은 곳에서 평화로이 살도록 허용된다. 바깥쪽에서 보기에 서로 비슷할 경우를 표준으로 한다면 이런 상상적인 하늘은 존재할 수 있으나 안쪽이 서로 유사할 경우를 표준으로 삼는다면 이런 상상의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 듯 사라진다. 그리고 새 하늘은 의로운 자만이 거할 수 있도록 형성된다. 이런 가공된 하늘, 상상적인 하늘이 “전쟁이 터졌다”고 말해진 하늘이다. 거기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그의 부하들이 맞붙었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란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원리의 싸움, 즉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다. 여인을 떠받치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도 같은 원리, 즉 참된 교회를 구성하는 주님에 관한 원리와 삶에 관한 원리들을 표현한다. 그 반면 용과 그의 부하란 신성을 나누게 한 교리와 믿음만의 교리 즉 주님께서 말하셨던, “네 어머니에게 간청해라. 그 이유가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녀의 남편도 아니기 때문이다”에 속하는 것들을 표현한다.

위 두 교리가 상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교리를 옹호하는 이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모든 종교적 품위와 덕행은 믿음 안에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행동일 뿐이고 믿음으로부터 흐른다. 믿음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충족시킨다고 믿는 이들이라 해도 사람의 일을 부정 않겠지만 거기에는 큰 악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 이 믿음은 믿음의 모든 것을 하등 중요치 않은 듯 여기는 쪽으로 끌고 가버리는 경향성이 있다. 이 싸움은 먼저 영계에서 시작되었고 용이 내던져 질 때까지 거기서 계속되었다. 이 용은 이기지 못했다. 원리의 실질적인 힘은 사물의 일반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교회가 하강하는 동안 선과 악의 평형, 그 결과 천국과 지옥사이의 평행은 어지럽혀진다. 교회가 하강을 계속하는 한 이런 혼동은 계속되고 증가된다. 마지막 심판 외에 어느 것도 교회의 하강을 억제할 수 없다. 마지막 심판은 이 하강에 끝이 오게 하는 것인데, 그 때에 새 교회가 영계와 자연계 모두에서 건설이 시작된다. 옛 것의 마지막 때와 새 것이 시작하는 때, 이것은 변천하려는 때이고 싸움이 있는 때이다. 본문에서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때이다. 결과의 본성은 시기의 본성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옛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져가는 때 악과 오류는 제아무리 많은 숫자가 덤벼도 승리할 수 없다. 그들의

힘은 사라졌다. 그들의 힘보다 더 큰 힘이 그들과 맞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들의 하느님께 신실해 있을 때 방향을 굳힌 별들이 시스라에 맞서 싸운다. 이와 같이 하늘의 교회와 하늘 아래의 교회가 하나되어 천국의 진리를 파괴하려는 공격에서 방어 태세를 갖추는 때 용과 그의 부하들은 여지없이 패하고 만다. 용과 그의 부하가 승리 못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하늘에서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 그들이 싸운 하늘은 그 자체 폐지되었다. 가짜 하늘을 수단으로 용으로 표현된 영들은 천사들의 하늘을 어지럽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지어 놓았던 하늘이 더 이상 발견되지 못하는바 혼돈케 하던 원인이 제거된 것이다.

9. 미가엘의 승리의 결과가 더 서술되고 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계를 속여서 어지럽히던 늪은 뱀인데 이제 그 늪은 땅으로 떨어졌고 그 부하들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용은 이제 악마와 사탄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런 명칭이 용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는 용의 속성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이 싸움이 용에 대해 더 이상 털어놓을게 없기 때문이다.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져졌다. 이 구절이 심판을 묘사하는바 이는 그들 스스로 지었던 가짜 천국이 영들의 세계라는 땅으로 떨어진 것을 뜻한다. 이것이 땅이라 불린 이유도 그것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 중간에 위치하는바 우리로서는 땅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의 묘사를 더 자세히 보면 “내던져 아래로 떨어졌다” 로 읽히는바, 이는 보다 높은 상태에서부터 보다 낮은 상태로의 하강을 그려주고 있다. 참으로 심판 자체의 과정이란 주님의 말씀, “너희가 어두운데서 말한 것을 빛 안에서 들을 것이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은 지붕에서 선포될 것이다”에 의거 벗겨지고 들추어내지는 과정이다. 심판의 행동은 털어놓는 과정의 마지막 결과밖에 더 아니다. 이 과정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각자 자신의 선과 악의 상태에 걸맞은 장소에 놓여진다. 용이 땅에 내던져지는 것은 그의 마지막 심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20장에서 기술되어 있다. 용이 내던져진 땅이란 이미 살핀 바같이 자연계의 땅에 유추되는 것인 영들의 보다 낮은 부분이다. 이를 더 확장시킨 의미로 굳이 말한다면 용이 자연계의 땅으로 내던져졌다고 까지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 이유가 영계의 그 쪽 부분에서 거행된 것은 자연계에서 그와 상응하는 결과를 가지기 때문이고, 사실 서로 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기도 하다. 이를 개인적 차원에 적용해보면, 하늘과 땅은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이다. 그러나 미가엘이 용과 싸웠던 하늘이 천국적 애정과 생각의 고향인 내적 인간은 아니다. 그 이유가 그 곳은 어떤 악도, 악과의 싸움도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싸운 가상의 천국에 걸맞은 장소는 외적 인간의 내적 측면, 즉 자연적 애정과 생각, 바람과 상상들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자연적 인간이 그의 가상적인 천국을 세우는

곳이다. 이 곳에서 그의 의지는 자기의 상상이 이상적이라 하는 것을 형성한 틀 아래서 자연적 바람을 자유롭게 흠모한다. 그리고 행복의 환상에 흠뻑 취한다. 젊은이들에게 이런 백일몽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피해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 삶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추구할 때 이 착각들은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위험을 주는 오류가 된다. 인생의 어떤 시기에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건설하는 이런 가상의 천국은 영계의 것과 유추될 뿐아니라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견해를 실제로 지지하는 사람이 떠받치려하는 가상적 천국의 근원이 된다. 그 이유가 우리의 모든 자연적 이상과 행복에 관한 환상은 일함도 없이 믿음 위에 크든 작든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의 저주라고 믿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기 얼굴에서 흐르는 땀에 있는 빵을 먹기 위해서 가능만 하면 분투 노력한다. 끈기 있는 노동의 열매라는 삶의 수단을 추구한 것은 그 수단을 자신이 선택했다기 보다는 필요함이 발생한 결과였을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부자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짧은 길의 발견은 역사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인간 본성이 지닌 공통된 목표이자 공통된 결점이 되어왔다. 정복을 위한 전쟁, 강탈하려는 음모, 한탕을 노리는 도박 테이블, 복권 추첨, 이런 등등에 인간 본성은 극단의 정열을 쏟는다. 이런 것은 단순히 이상향으로 있는게 아니라 효율적 노동 없이 부유해지려고 서두르는 태도이다. 그러나 더 세련되고 적법하게 소득을 얻는 많은 수단도 똑같은 열정에서 튀어나온다. 사실 일하지 않는 믿음은 자연적 인간의 신조이다. 이 신조를 이 세상의 일상 업무로부터 장차 맞을 삶의 것으로 운반하려든다는 것은 놀랄만한 억지는 아닐까? 만일 누군가가 자연적 성향이 강해서 가장 짧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 세상의 일시적인 행복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면 그가 그런 식으로 영원한 저 세계의 행복도 추구하고 싶어 할 것은 당연지사가 아닐까? 그래서 그는 아마 자기 망상에 더 등지를 틀 것이고 그것도 최소한 마지막 망상의 날까지 일 것이다. 그 이유가 일함이 없는 믿음에 이 세상이 놓는 장애물과 똑같은 장애물을 종교는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적 의무는 단순히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 체제 내지 그분의 모든 가르침이 우리에게 말하는바, 모든 종교는 삶에 관련을 가진다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시되 가장 짧은 코스, 가장 쉬운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에 의해 이끌어 가신다. 예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되 불레셋 지역을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홍해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출애굽기13:17). 불레셋 땅으로 표현된 믿음만으리가 아니라 자아 부정과 끈기있는 노동이라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 거기서 그들은 삶의 법을 받고 거기서 그 법에 순종함, 믿음만으로 정당해진다는 오류에

반대되는 법에의 순종을 배운다. 그 이유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하느님으로 믿고 그분의 계명에 따른 삶에 의해서 획득되기 때문이다. 이 진리가 용과 대적하고 용을 정복한 미가엘이다. 이 천국의 진리를 받고자 자기 마음을 여는 자는 누구든지 미가엘과 똑같은 결과를 경험한다. 어쨌든 본문의 전투 기록에 국한해 생각해 볼 때 이 용은 완전히 정복되어 제거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던져 졌을 뿐이다. 먼저 오류와 악이 안쪽 인간으로부터 제거된다. 그후 바깥쪽 인간에서 제거된다. 먼저 우리의 동기 측면에서, 그 다음 생활 측면에서 제거된다. 외적 인간으로부터 악과 오류가 제거될 때 완전한 해방이 있어진다. 이것이 불타는 호수에 용이 던져지는 심판이다.

10. 용이 내던져 졌지만 그렇다고 그 용의 권세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해와 별을 휩쓸어 버릴 만큼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던 하늘로부터 제거된 것 뿐이다. 그래도 지상의 교회와 영들의 세계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려온 이들과 천사들의 천국 사이에 두절된 교통이 다시 열렸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서 믿음만으로...라는 사기적인 원리에 고개를 흔들고 그것과의 전투까지도 기꺼이 선택한 이들은 행복하다. 이는 진리의 영접을 위해 마음을 열므로서만 있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용과 그의 부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던져 졌을 때 요한은 말한다. “그 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은 쫓겨났다. 밤낮으로 우리 하느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이 쫓겨났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하느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는 주님의 본질인 신성과 그분의 신성한 인성이다. 이 본질이 교회에서 인정되어 질 때 하느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난다. 참으로 교회에서이란 인간의 마음에서를 뜻한다. 그 이유가 교회 또는 하느님의 왕국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어서 일반적 차원의 존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 개별적 차원의 존재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 자신의 경우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이다. 또한 주님 스스로 이를 표현하셨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당신께서는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신실한 자의 믿음에 함께 함이 아니라 사랑에 함께 하신다. 이들은 믿음을 통해 그분을 영접하되 사랑 안에 계신 그분을 영접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은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신다.” 믿음은 현존(presence)을 주고 사랑은 결합(conjunction)을 준다. 구원됨은 믿음 때문에서이지 사랑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들이다.” 그 이유가 말씀 속에서 “형제”란 주님을 사랑함과 서로 사랑함을 수단으로

하나된 이들을 뜻하기 때문이다. 추상적으로 고려해보면 “형제”는 기독교형제애라는 공통된 테두리 안에 있는 교인을 하나되게 하는 사랑을 뜻한다. 사랑은 모두를 하나되게 한다. 믿음은 모두를 분열시킨다. 자기 종교의 첫째가는 요소를 사랑이라고 꼽는 이들은 믿음의 주제에서 견해가 다를 때 조차에서도 하나되어 공존한다. 그렇게 하나되어 있는 곳에서 교회는 하나이다. 설사 각 멤버들이 다양하고 또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해도 하나이다. 자기 종교의 첫 순위로 믿음을 꼽는 이들에게 분열은 필연적이다. 그 이유가 교회의 모든 파벌들마다 제각기 자기들은 참된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어떤 교파의 경우 자기들의 신앙 논리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까지 말한다. “하느님 앞에서 형제를 고발해댄 이들”이란 사랑이 종교의 첫째 요소요 구원의 근본 조건임을 부정하고, 나아가 신성의 이름, 하느님으로 의미되는 진리를 수단으로 구원된다는 것을 모조리 부정하는 이들도 있다. “밤낮으로 고발해댄다”는 것은 이런 부정을 끈질지게 해대는 것을 말한다.

11.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을 수단으로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았다.” 어린 양의 피는 이미 살판바와 같이 (5장9절) 깊고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님의 피는 자연적 측면의 의미일 경우 그분의 고통받으심과 죽음을 뜻한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가졌던 악마를 이겨낸 것은 죽음을 통해서 였다. 이 구절의 죽음은 자연적 측면이 아닌 영적인 죽음을 뜻한다. 악마가 자연적 죽음의 원인이 아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자연적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려고 오셨던 것도 아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영적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분 자신의 죽음은 자연적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 죽음까지 포함된 죽음이었다. 그분께서는 죽으시는 가운데 물질적인 몸의 생명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입으셨던 타락된 인성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셨다. 그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낸 것은 이런 죽음의 차원에서 였다. 주님의 죽음이 가져온 결말은 생명이었다. 그분께서는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그러나 내려놓은 생명과 다시 얻은 생명은 똑같은 생명이 아니었다. 그분께서는 인간 허약함을 모두 지닌 인간 어머니 쪽에서 상속된 생명을 내려 놓으셨고, 신성의 완전함을 모두 지닌 아버지쪽, 신성의 생명을 얻으셨다. 이런 모든 사항이 그분의 피에 담긴 의미이다. 그러므로 신실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부하를 이겨낸 것은 죽은 자의 피가 아닌 살아있는 구세주의 피를 수단으로 해서 였다. 그들은 단순히 주님 스스로 고통받고 행하셨던 것만으로 승리한 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내려놓고 다시 얻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목숨을 내려놓고 다시 얻게 해주시려해서 였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도 악마를 정복해간다. 자이를

정복함 없이 기독교인을 위한 승리는 없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로 이겨낸 이들에 관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주님처럼 자기들의 목숨을 내려놓은 것이다. 그러나 주님과 인간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 자신의 신성한 생명을 얻도록 어머니 쪽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고, 신실한 사람들은 그분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들의 생명을 내려놓은 것이다. 그들이 싸워 이기게 된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 때문이다. 그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은 사랑과 진리의 생명이다. 그분의 삶이 사랑 측면의 생명을 의미하듯 그분의 피는 그분의 진리 측면의 생명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달리 그들은 자기들 안에 생명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여져 살아있는 원리가 된 진리, 이를 수단으로 신실한 자들은 악마를 이겨낸다. 그 다음은 역시 이것이 “그들이 증언한 말”이 된다. 이들 마음 속의 이 원리는 그들 자신의 체험에서, 그들의 생명인 사랑, 믿음, 순종에서 증거를 가진다. 주님의 피와 증언한 말은 악을 정복하는데 병합된 수단이다. 그러므로 용과 싸워 이겨낸 정복자들이 육의 차원에서 순교했든지, 그렇지 않았던지해도 최소한 영의 차원에서는 순교자가 되었을 것은 틀림없으리라.

12. 용이 내던져지고 소리가 울려 퍼졌는바,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러나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가 크게 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으니 땅과 바다는 화를 입을 것이다.” 천사들은 인간의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서 기뻐한다. 그들은 영계에서, 인간의 마음에서 최고 높은 자리를 강탈해 있던 사탄을 내쫓아 던져버리기 위해 오셨던 일 중의 하나인 구세주의 탄생에 기뻐했다. 비슷한 상황이 주님의 둘째 강림의 때에도 존재했다. 그러므로 비슷한 해방과 비슷한 기쁨도 있었다. 그러나 천국의 천사에게 기쁨의 원인이 된 것이 땅의 주님에게는 화를 입히고 있다. 용이 하늘로부터 내던져 졌지만 중간 상태인 땅으로부터 제거된 것은 아니다. 화를 당해 통곡할 수밖에 없을 주민이 거주하는 이 구절의 “땅과 바다”는 뒷 장에서 “사라졌다”고 말해진 땅과 바다이다. 그리고 이 “땅과 바다”란 교리 적으로나 실제로나 생명 없는 믿음을 원리로 삼은 이들의 거주지이다. 악마의 분노가 있게 된 것은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데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영계에서의 시간, 그러므로 말씀의 영적 의미에서의 시간은 상태를 의미하는바 자기 때가 짧다는 것은 악한 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의 확실함을 뜻한다. 악한 자가 자기들의 마지막 상태에 더 근접될수록 그들의 분노는 더 커진다. 그 이유가 그들이 완전해지려면 악으로 더욱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악은 교회의 적이라는 경우를 두고 매우

인상깊게 표현되고 있다. 이 악이 천국에 있는 동안 용이라 불리고 있다. 내던져졌을 때 이 악은 악마와 사탄이라 불리는 늑은 뱀으로 말해지고 있다. 이 구절에서는 단순히 악마라 불리고 있다. 후에 이 악은 뱀과 용으로 명명되고 있다. 그래서 이 악은 그것이 나타나는 주변 상황과 관계가 있고, 그 것이 언급되는 것과 연결을 이루고 있다.

13.14. “그 용은 자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깨닫자 그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있어서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거기에서 삼 년 반 동안 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용은 사내 아이를 삼키려던 계획이 좌절되자 이제는 여인을 학대하고 있다. 사내 아이는 하느님과 그분의 옥좌에로 들리워졌다. 그리고 이 곳에 이르는 길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로 방어되어졌다. 즉 교리는 안전하나 교회는 아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초기에 세상에서 있었던 것의 되풀이임을 알 수 있다. 헤로데는 그분이 태어나자마자 그 사내 아이(the Man-child)를 삼키려고 시도했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후 천국과 하느님의 옥좌에로 들리셨을 때 유대인들은 마치 이 구절의 용이 그러했듯 교회를 박해했다. “그들이 너희를 이 도성에서 박해하면 저 도성으로 피신하여라”는 주님의 방어 계획이 이 구절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여인은 광야로 날아갈 수 있게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고 있다. 이 여인은 시련 받아 피로에 지친 영혼의 소원, “비둘기처럼 날개라도 있다면 안식처를 찾아 날아가련만, 멀리멀리 광야로 가서 숨어 있으련만”이라는 소원을 비록 방법을 다룰지언정 체험하고 있다. 독수리의 날개가 비둘기의 날개 대신 주어지고 있다. 이 날개는 과거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파라오의 박해로부터 광야로 운반한 날개이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날개에 태워 나에게로 데려 왔는지 보지 않았느냐?” 독수리의 날개는 소경에 불과한 믿음에 반대되는 지적인 믿음을 상징하고 이 믿음은 영적 총명으로 안내 받는다. 마치 독수리의 비행이 그의 꿰뚫어 보는 눈에 의해 안내되는 것과 같다. 용이라 불리는 파라오는 히브리 어머니의 사내 아이들을 삼키려 진력했으나 그의 야만스러운 칙령을 피했던 사내 아이, 모세를 통해 철저히 깨졌다. 이 날개는 천국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믿음을 아름답게 상징한다. 이 믿음은 사랑의 진리로부터의 믿음인데 이것이 여인에게 주어졌는바, 이는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방어할 수 있는 진리를 주신다는 것, 주님의 교회의 적들의 세력과 현존에서 그녀를 떠밀어 주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날아간 광야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종교의 세계가 광야 상태 안에 있었다. 그럼에도 거기에 구원되어 질 사람이 남아있었다. 이들 사이에서 여인은 은둔처를 발견한 것이다. 거기서 그녀는

뱀의 얼굴을 피해 삼 년 반 동안 먹여 살려지고 있다. 다시 말해 옛 처방이 완전하게 끝장을 보고 새 처방이 실제로 시작될 때까지 그 곳에서 은둔하고 있다. 교회가 바깥 쪽의 존재를 세상에서 가질 수 있기 전, 그 교회의 원리가 몇몇 마음들 안에서 내향으로 영접되는 게 먼저 있어야만 한다. 그들의 믿음과 숫자가 충분히 증가 했을 때만이 가시적인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 여인은 자기가 있을 장소를 발견하리라.

15.16.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자 “그 뱀은 그 여자의 뒤에서 입으로부터 홍수처럼 물을 토해내어 그 홍수로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사악한 자의 입으로부터 악한 생각과 온갖 불결한 것이 나온다. 그 이유가 심정에 가득 찬 것이 입을 통해 말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교회 또는 교회의 원리를 반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때라 해도 그것은 추론의 수준일 뿐이다. 감각적인 이들, 특히 뱀으로 의미되는 이들도 진리에의 반대를 그럴듯하게 추론할 수 있다. 오히려 오류를 두둔하는 쪽으로 설득하는 경우도 많다. 그럴 수 있는 근본 원인이 있다. 모든 사람은 감각 차원에서 증거를 들이대면 그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려는 경향성을 본래 지녔기 때문이다. 이런 추론들은 홍수처럼 밀려와서 참된 추론을 익사시키려 위협하고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사이의 울타리를 휩쓸어 경계 표시 자체를 말살시키려 한다. 이런 경우 여인은 홍수에 떠밀릴 수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땅이 여인을 도왔다.” 이제 “땅”과 “광야”를 구분해 보아야 할 것 같다. 타락된 교회가 광야이다 해도 그 교회가 말짱 황폐된 것은 아니다. 사막에도 오아시스는 있고 거기서 순례자가 새 기운을 얻는다. 여인을 도운 광야에 있는 땅은 비록 타락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해도 타락되지 않은 이들로 구성된다. 그들은 파멸의 모든 각 시기에 보존된 잔류자들이다. 이들 사이에서 새 교회는 피난처를 발견하고 먹여 살려지며 방어도 되어진다. 말씀이 드넓게 뿌려질 때 길가나, 들밭, 가시덤불 같은 심정의 땅에 많이 떨어지지만 그 중에 정직한 심정이라는 옥토를 지닌 이들이 있는바 그들은 진리를 받고 흠모하면서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오류를 무력화시킨다. 정직한 심정인 옥토처럼 여인을 도운 땅은 추상적 의미에서 볼 때 선함을 원리로 삼는 심정이다. 그러므로 자기 심정에 선함의 원리를 보존해둔 이들을 뜻한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의 많은 이들이 믿음만을 고백하는 동안 그들은 믿음만을 생명으로 삼아 살지 않고 이타애의 삶을 영위했다. 뱀이 제 입에서 토해낸 홍수가 삼키려 들었던 그 목표물이 위의 사람들이다. 뱀이 홍수를 뱉어냈을 때 땅이 입을 벌려 그것을 받았다. 뱀의 입에서 나온 홍수란 각종 교조를 두둔해대는 각양각색의 추론에 있는 거짓의 홍수이다. 새 교회의 원리를 받았던 이들이 자기들 안에 희망이 있는 이유를 제시함이 땅이 입을 벌려 홍수를 마시는 모습이다. 이성(reason)과 추론함(reasoning)은 더 꼼꼼히 생각해보면

서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성은 이해성에 속하고 추론함은 상상에 속한다. 진리는 이성을 주고, 오류는 추론을 수단으로 자체를 지지한다. 이성은 추론을 삼켜버린다.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마술사의 지팡이를 먹어 치운 것과 같고, 또한 제자들이 아무 피해도 입지 않으면서 죽게 만드는 것을 마신 것과도 같다. 이렇게 땅은 용이 토해낸 홍수를 들이켜 여인을 도왔다.

17. 비록 용이 그녀를 파괴할 수 없었다 해도 “용은 그 여자에 대하여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러 갔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되 첫 약속,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창세기 3:15)는 구절을 상기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이 구절이 첫 약속에 대한 특별한 성취라고 오관할 필요도 없다. 비슷한 여건은 비슷한 시대에서 나타난다. 늙은 뱀이 되돌아오고 그 뱀의 공격 목표였던 여인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시작하는 모든 새 교회는 싸워야 할 뱀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영적이거나 천적인 것들은 감각적이거나 지상적인 것과 언제나 반대되어 있다. 교회는 세상에 반대되어 있다. 그래서 투쟁은 언제나 재발된다. 첫 교회는 그 투쟁에서 졌으나 마지막 교회는 이기고 있다. 두 번째 에덴의 뱀, 첫 번째에서 처럼 여인을 공략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것이 실패하자 그녀의 후손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여인의 후손, 개인적으로 고려해보면, 이는 교회의 멤버, 교회의 아들과 딸들이다. 추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여인의 후손이란 진리 또는 믿음의 원리들이다. 그 이유가 이것들이 신실한 자의 마음 안에 있는 교회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참된 교회의 참된 멤버들은 진리를 믿음만의 문제로 붙들고 있지 않는다. 그들은 진리를 실제 응용해간다. 그리고 삶을 안내하는데 진리가 얼마나 유용한지 높이 평가한다. 그러므로 여인의 후손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말해지고 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의 계명에 의거한 삶은 주님의 교회의 참된 멤버의 핵심 되는 특징이다. 용이란 세 하느님을 믿고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교리를 견지하려드는 이들의 형상임을 생각해볼 때, 뱀이 여인을 미워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녀의 남은 후손과 전쟁을 일으키려는 원인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녀의 남은 후손이란 이전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로서 말해지는 사람들, 여인이 자기 처소를 발견했던 이들, 그녀의 원리를 영접함으로 그녀의 후손이 된 이들을 말한다.

13

1. 이 장에서 우리는 두 짐승에 관한 사건을 가지게 된다. 두 짐승 중 “하나는 바다로부터”, 다른 하나는 땅으로부터 올라왔다. 이런 특이한 창조물들은 용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짐승이 용을 대신하고도 있다. 그 이유가 용은 짐승을 마치 그의 도구를 사용하듯 하는데 용의 힘과 그의 자리와 큰 권위가 첫 짐승에게 주어졌고, 첫 짐승을 통해 둘째 짐승에게도 주어지고 있다. 여인의 후손을 쫓아가는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금 두 짐승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바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마치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해 볼 수 있을런지 모른다. 용이 힘을 발휘한다란, 그것들이 똑같은 원리이되 그 원리가 더 발달되고 더 노골적으로 명백해졌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참된 교회의 원리를 받고 지지해온 사람들인데 비해 두 짐승들은 거짓된 교회, 최소한 환상의 이 부분이 취급하는 거짓 교회의 원리를 붙잡고 지지하는 이들이다.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용 같은 원리를 더 외적이고 피상적으로 받는 이들을 표현한다.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더 내적으로 또는 더 깊게 용의 원리를 받은 이들이다. 이 원리들은 앞에서 설명한 땅과 바다의 의미로부터이다. 그러므로 두 짐승이란 평신도와 목사, 또는 그들이 받는 원리를 표현한다. 그 이유가 목사는 평신도보다 종교적 신앙의 원리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씀은 어느 개인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원리들을 취급한다. 같은 원리를 지닐 경우 종교의 같은 영에 있듯 말씀의 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종교의 품성을 아는 것은 모든 이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 원리를 붙잡고 있는 이들이 어떤 부류이냐는 중요치 않다. 참으로 심정을 아시는 한 분 주님 외에 어느 누구도 인간의 품성을 알 수 없다. 외관으로만 가늠할 수는 우리는 내면을 알 수 없는바 어떤 사람의 실체, 즉 인간의 품성은 헤아릴 수 없다. 이것은 현세에서 우리에게 슬기롭게도 감추어 놓여 있다. 현세는 우리가 수습받는 기간이어서 모든 사람은 영적 자유로움에 놓여 있고, 모두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끼고, 특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아마 자기의 내향의 생각과 느낌을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자유롭게 생각함도, 느끼는 것도, 더구나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타인의 내향의 품성이 우리로부터 감추어 있는바 우리는 그 품성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더구나 판단할 수도 없다. 이와는 달리 원리를 알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합당할 뿐아니라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져 있기도 하다. 원리를

판단할 경우 우리는 이타애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원리를 더 공정하게 판단한다면 위험한 길과 안전한 길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자신으로 보게 하고 타인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 가장 높은 이타애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견해를 정당화하는 데는 대단히 호의적이어서 타인이 자신을 나무라는 소리를 개인적 비방으로 간주하지 않으면서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 과연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 있는 진리만을 말할 수 있고 사랑 안의 진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을는지! 어쨌든 개인 측면이 아닌 원리 측면에서 현 주제가 관조되도록 유념하면서 두 짐승에 관한 환상의 의미를 숙고해보자.

용이 두 개의 이상한 형태로 다시 나타나는 바 우리는 두 짐승이 용이라는 원리를 떠받치는 두 개의 수단과 도구를 표현한다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종교적 원리는 이성과 성경에 의해 특별히 지탱되어진다. 진리는 건전한 이성과 성경의 참 의미를 떠받친다. 그 반면 오류는 왜곡된 이성과 성경의 가상적 의미를 떠받친다.

첫 짐승의 출현은 용의 출현과 대단히 흡사해서 둘 사이의 차이점만을 주목해보아도 될 것 같다. 둘 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용은 그의 머리에 일곱 관을 썼는데, 짐승은 그의 뿔에 열 관을 쓰고 있다. 관 또는 왕관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진리들이다. 머리 위에 있는 왕관(diadem)은 마음 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온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뿔 위에 있는 왕관은 뭔가를 입증하거나 확신시킬 의도에서 들이댄 말씀으로부터 온 진리들을 뜻한다. 용이 자기 머리에 썼던 일곱 왕관 대신 이 짐승은 자기 머리에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갖고 있다. 어쨌든 그 의미는 모두 같다. 일곱은 거룩한 숫자이다. 일곱 왕관은 말씀으로부터 온 거룩한 진리들이다. 그러나 용의 머리 위에 있는 이런 진리들은 모독되어있다. 진리의 더럽힘이 “하느님을 모독함(blasphemy)”이다. 그 차이가 이러하되, 이 표현은 다른 표현보다 더 노골적이고 완전하게 거룩한 진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용에는 일곱 관이 있었는데 이 짐승에는 열 관이 있다. 이 숫자는 풍부함을 표현하는바 이제 짐승 자신이 표현하는 교의(tenet)를 유지 존속시키려고 생긴 것이다.

2. 이 짐승에 대한 묘사, 그리고 그 짐승을 통해 표현된 궤변에 관한 묘사를 완성하는데 요구되는 게 더 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았는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외관에서는 아름다우나 성질에서는 몹시 사나운 표범은 감각을 즐겁게 해주지만 영혼에는 위험천만인 교리에 관한 형상이다. 표범의 얼룩진 피부는 진리와 오류가 혼합된 상태에 꼭 맞는 상징물이다. 신성한 공정(Divine justice)은 순수하지만 오히려 너무나 순수해서 누구도

그분의 공정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여 그분의 공정은 이 교리에 의해 옹호되는 듯 하다가 단번에 비난되고 만다. 신성한 법은 완전한 법인 것은 틀림없지만 너무나 완전해서 누구도 그 법을 지켜낼 자 없다고 하여 이 교리는 그분의 법을 추켜세웠다가 그 즉시 격하시킨다. 또한 이 짐승은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졌다. 곰은 말씀의 글자적 의미를 상징하고, 곰의 발은 그 의미 중에서도 가장 수준 낮은 진리들을 상징한다. 이 진리들은 가상의 진리들, 예를 들면 이 진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분은 성내시는 분, 복수하시는 분, 그런데도 쉽사리 용서하고 관대한 분이라고 말한다. 이런 진리를 기초로 처벌과 용서에 관련된 주제가 정착해 있다. 사자의 입은 대단한 세력으로 구원의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을 선포한다. 이 주제는 운명지워지고 잃어버린바 된 죄인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고 공정과 자비의 속성과 다투지 않으면서 화해되게 하고 있다. 이런 교리 형체에 “용은 그의 힘과 그의 자리와 큰 권위를 주었다.” 원리에 있는 힘과 통치와 권위는 그 원리를 표현하고 구체화 시켜주는 신조 또는 교리적 형체로 건너갔다.

3. 용에서 파생된 힘과 권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은 머리 하나에 치명상을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치명상은 “하느님의 말씀, 즉 성령의 칼”에 타격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에 치명상을 입힌 말씀의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선한 일(good work)에 관한 가르침이다. 구약 성서의 경우 이 가르침은 일(work)의 언약으로 완전히 쟁겨져 놓여 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신약 성서에 있는 은총(grace)의 언약에 의해 폐지되거나 반대 쪽에 놓여 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이 선포, “나는 율법을 폐지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젊은 청년에게 주신 대답,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는 가르침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만일 교리가 생존하고 싶다면 이 “치명상”은 치료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상처가 나왔다”고 본문에서 읽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치료되었다는 말일까? 위의 주님의 선포는 극도로 중요한 바 부정할 수 없다. 위 주님의 선포를 비껴 설명하면서 믿음과 일의 대립관계를 제거함으로써 치료가 된 것이다. 이런 식이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게 아니라 완성하시러 왔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대신 율법을 그분 스스로 완성하시러 오셨다. 그리하여 그것의 별로부터, 그리고 구원의 조건이라는 책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주님께서서는 계명을 지킬 필요성을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분은 이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판결하리라는 점에 대해 이는 설명하기 더 곤란하다. 아예 설명을 붙이지 않는다. 초기 기독교회의 유신론자와는 달리 근대의 기독교인들은 도덕적 법의 책무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 책무가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무 수행을 믿음의 증거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런 문장이 완성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 믿음의 증거인 일로 판결된다. 웨슬리는 이 주제에 이런 이론을 가졌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일에 따라 보상받는다. 이는 죽기 직전의 회개로 믿게 되는 이들에게 난처한 질문일는지 모른다. 일해놓은 것이 없는데 믿음을 가졌다고 참회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 모든 주제 중 가장 핵심 되는 사항에서의 위와 같은 추론과 해설은 이미 받아들여기로 작정해버린 마음들을 흡족되게 해주었는바 “이것을 온 세상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놀랄 필요는 없으리라.

4. 그런 주장에 만족해 한 “그들은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짐승에게도 절을 하며 ‘이 짐승처럼 힘센 자가 어디 있는가? 누가 이 짐승을 당해 낼 수 있겠는가?’ 하고 외쳤습니다.” 용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 원리를 인정한다는 말이다. 짐승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 교의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궤변 뒤에 원리가 있지 않았다면 그 궤변이 마음들을 장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권세를 휘어잡기 위해서 교리는 심정의 경향성과 지성의 은밀한 생각을 표현해야만 한다. 망설임이나 의심들이 일어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들이 제거되었을 때 궤변이 건전하다는 확신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바 그 궤변의 찬미자에 의한 외침이 이 구절에 잘 표현되어 있다. 율법의 명에 만큼이나 화나게 하는 명으로부터 종교 생활을 구제해주는 교리는 없다. 이 논쟁을 반박할 자 누가 있을까?

5.6. 짐승의 행동은 그의 품성과 잘 어울리고 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지절일 입을 받았고 마흔 두 달 동안 세도를 부릴 권세를 받았읍니다.” 그의 머리에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쓰고 있듯 그는 말씀 속의 진리를 뒤집고 있다. 그가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냈기에 이를 마흔 두 달 동안 계속하도록 세도가 주어졌다. 꾸준히 되풀이되는 이 숫자는 셋과 절반 자체가 표현된 것이고 마흔 두 달에 대한 설명도 해주는 바, 짐승이 표현하는 독단적 주장의 세도는 옛 것이 끝나고 새 것이 시작할 때까지 계속 될 것임을 말해준다. 이 세도를 지나자, “이 짐승은 하느님을 모독하기 시작했고, 하느님의 이름과 하느님의 성막을 모독했으며 하늘에 사는 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 짐승이 표현한 독단적 주장은 “하느님과 그분의 이름”으로 의미된 것, 즉 하느님의 유일성과 인성이 신성함을 부정함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뒤집고 있다. 이 두 가지의 본질되는 진리가 뒤집혀지면 “성막”으로 의미된 것, 즉 교회의 예배와 교리에 관한 것들, 그리고 “하늘에 거주하는 자들”로 의미된 천국을 구성하는 원리 역시 뒤집혀지고 만다. 교회의 참된 교리와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느님에 관한 교리와 그분의 예배이다. 그리고 천국을 구성하는

원리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다. 이 사항들의 하나됨이 상대 차원에서의 천국을 구성한다. 이 사항들이 통일되어 존재하게 하는 이들만이 장소 차원에서의 천국에도 거주할 수 있다.

7. 이 짐승은 불경한 말을 내뱉다가 이제는 불경한 행동도 서슴치 않고 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길 힘을 받았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읍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성도는 교회의 거룩한 진리들이다. 거짓이 진리에 이의를 제기할 때 거짓은 진리와 싸우게 된다. 그러나 직접적이고 공개된 싸움은 교회에 소속된 이들을 수단으로 하는 말씀 속의 진리라고는 결코 있어지지 않는다. 모든 이들은 한 때 성도에게 전달되었던 믿음을 옹호한다고 고백한다. 어쨌든 성도들과의 싸움은 그들의 명목적 수준 그 이상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싸움에 가담한 이들이 양심적일수록 그들은 더 위협하다. 구원의 조건으로 삶의 거룩함을 가르치는 말씀 속의 제반 진리들, 또는 말씀 속의 진리들을 정복함으로 성도들을 정복한 이들이라면 어느 정도 성도 자신까지 정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가 성경의 가르침에 즉각 일치하게 나타나는 것들 안에 유혹하는 힘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정의 자연적 바람에 일치할 수 있는 것들 안에 미혹하려는 힘도 있기 때문이다. 교리가 널리 행해지는 것은 “그 짐승이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는 구절에 의해 분명히 의미되고 있다.

8.9. 그러나 그 교리가 널리 보급된다해도 그것은 어떤 계층만에 국한해서이다.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세상의 창설로부터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자들은 그에게 절을 할 것입니다.” 땅이 교회를 의미하는바 땅에 거주하는 이들이란 교회의 멤버들, 또는 교회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이 구절이 주는 한가지 확실한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 또는 교회의 오류 투성이의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적혀있지 않은 이들만이 절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책에 써어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관한 그들의 견해에 비록 잘못이 있다해도 그분의 책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온 이들이다. 생명에 관한 어린 양의 책에 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다. 자기가 믿는 교리가 제 아무리 참되다해도 이들은 세상과 육에 따라 살아온 사람들이다. 잘못(error), 그것만으로 단죄되는 것이 아니다. 진리, 그것만으로 구원되는 것도 아니다. 잘못은 악을 가깝게 보아 넘긴다. 진리는 악을 성나게 한다. 잘못은 악을 덜 단죄하려 하나 진리는 더 단죄한다. 어린 양은 세상 창조 때부터 죽임을 당했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는 주님의 죽음이 이 세상 창조 때부터 예견되고 설비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대체로 많은 이들이 이해하고 있다. 거기에 의심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영적 의미이다. 이 의미에서 세상은 교회를

뜻하는바 세상의 창설은 교회의 설립을 뜻한다. 그리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은 주님의 인성이 신성함을 부정한다는 것을 뜻하는바, 세상의 창설로부터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은 교회의 창립에서부터 위 신성한 진리가 부정됨을 뜻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기독교회의 첫 건설을 뜻하는 게 아니라 교회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의 창설로부터이다.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주님의 인성 부분을 영적 차원으로 간주하지만 신성차원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그들의 경우 그분의 인성은 공간 차원의 한 부분에 한정되고 유한할 뿐이다. 기독교 신앙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편재(omnipresence)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주님의 편재가 그분의 인성 안에 있다는 말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인성이다. 그분의 영화된 인성은 그분의 삶과 죽음의 모든 미덕(virtue)의 참 체현(very embodiment)이다. 영화된 인성은 하늘과 땅에서 구원하는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 구절의 주제를 경청하고 이해 해두어야 한다는 중요성이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 들으라”는 말씀에 암시되어 있다. 귀가 이해성이라는 자질을 뜻할 뿐 아니라 진리가 가르치는 것들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경향성까지를 뜻하는바, 귀를 가지고 있고 듣는다는 것은 이 구절의 주제에 더욱 필요하다. 이 구절의 의미에 영혼의 흥미가 영원히 집중되어야 하리라.

10. 교리 안에 실지로 있는 결과가 매우 인상적인 품새로 그려지고 있다. “잡혀 갈 사람은 잡혀 갈 것이며 칼을 맞아 죽을 사람은 칼을 맞아 죽을 것입니다.” 잘못이 이해성에 사기치면 이해성은 포로가 된다. 그것이 심정을 부패시킬 때 심정은 죽는다. 보복의 참된 법칙이 여기에도 놓여있다. 누군가에게 가해진 영적 피해 모두는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거짓된 모든 것, 악한 원리 모두는 그 것 안에 그에 상당하는 벌을 지니고 있다. 거짓과 악으로 돌진하는 사람은 똑같은 악하고 거짓된 결과를 생산한다. 선함과 진리가 천국과 행복이듯 악하고 왜곡된 것은 지옥과 재난이다. 이 구절에 더 첨가된 말이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성도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씌어있는 이들이다. 그들은 유혹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단련되었다. 교회에서 악과 오류가 판을 칠 때 그 쪽으로 끌려가지 않았다 해도 그들은 오류를 믿고 악을 행하는 군중의 대열에 끼라고 유혹되어질 수 밖에 없어 그런 물결에 저항해야만 한다. 이런 예언과 관계되는 진짜 때를 예견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셨다. “네 인내로 네 영혼을 소유해라.” 인내는 시련과 시험을 견뎌내게 한다. 인내하는 동안 부닥친 시험이 그들의 믿음을 확증해준다.

11. 그러나 또 다른 이 믿음의 상징적 형체가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 처럼 두 뿔이 있었으며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이미 설명한 바대로 이 두 짐승은 용같은 원리, 이 원리가 단순하고 슬기로운 이들 사이에서 그 자체를 펼쳤을 경우 이성과 믿음의 증거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이들과 피상적으로 들어가는 이들, 그러므로 평신도나 목사들 사이에 있는 용같은 원리를 표현한다. 이 두 계층은 조직체의 내적, 외적 멤버를 형성한다. 지금 등장한 짐승은 오직 두 개의 구별되는 점을 가지고 있다. 즉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것과 용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범 같았다고 2절에서 말해진 것 같이 어린 양 같았다는 방식으로 이 짐승은 말해지고 있지는 않다. 이 짐승이 어린 양의 속성을 흉내낸다는 것, 뿐만 아니라 뿔이 상징하는 것인 어린 양의 힘을 가장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짐승이 흉내낸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모든 종교적 선생들이 자기들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하느님과 재회와 죄로부터의 구원이 가르침의 목적이라고 공표 한다. 그러나 용과 그의 짐승들로 표현된 이들은 인간이 하느님에게 재회하는 것뿐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에게 재회한다는 것까지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특사로서의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였을까? 이랬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그들의 죄과를 돌리시지 않고 세상이 그분 자신과 화해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그리고 화해의 단어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고린도 후서5:19,20). 여기서도 하느님이 세상과 화해하시려는 그리스도, 더구나 세상이 하느님과 화해하는 그리스도에 관해 말해진 것은 없고 오로지 세상이 그분 화해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느님에 관해서 일 뿐이다.

그런데 사도는 특이하게 명백한 위의 서술에 또 다른 것을 잇고 있다. 이는 그분의 속죄에 관한 대속의 본성을 가르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그분을 죄 있는 분으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느님의 정의를 만들도록 하셨다.” 여기서의 암시는 속죄 제물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때로 여기서처럼 죄라는 간단한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므로 그 의미란 예수께서는 죄 없으신 그분 자신을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로 만드셨다는 것이다. 그러면 속죄제물은 무엇을 뜻할까? 공통된 관념이란 속죄제물에서 하느님께서 의인이 범한 죄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죄인 대신 동물의 죽음을 열납하셨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따라 생각한다면 세상 모두의 죄를 대신하도록 그분의 죽음이 열납됨으로 그리스도는 죽게되었었다는 것이 된다. 이 사항도 오류와 많이 섞이긴 했지만 어떤 진리가 놓여 있다. 유대교의 헌물에는 벌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 같은 것은 들어있지 않았다. 유대교의 제물은 두 가지, 즉 예배자의 희생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제물에 관한 모형이었다. 그러나 제물은 헌물을 죽이는데 있지 않았다. 유대교의 예식에서 동물의 죽음은 제물이 되는데 필요했던 것일 뿐 아니라 제물이 헌납되고 거룩한 불에 의해 살라지고 하나님께로 달콤한 냄새가 승강되는 것에 제물자체가 존재했다. 다시 말해서 동물을 제물로 삼음은 예배자가 제물이 된다는 것을 상징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예배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는 제물로 자신을 바치게 된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온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12:1). 우리가 순수해진 생각과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는 더 특별한 길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된다. 그 이유가 우리의 생각과 애정은 최상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자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의 순수한 생각과 애정들이 제단에 바쳐진 흠 없는 동물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한다. “하느님, 내 제물은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당신께서는 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51:17). 히브리서에서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바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찬양합시다. 좋은 일을 하고 서로 사귀고 돕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제물로서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13:15-16). 이런 품성이 그리스도의 제물이다.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 (히브리서9:14). 진실로 그분의 제물은 모든 제물 중의 제물이었다. 그것은 그분 고유의 영원한 신성(Godhead)이도록 완전해진 인성의 완전한 신성화이었다. 이것은 모든 유대교 제물에 관련해서는 위대한 대형(antitype)이었고 기독교의 모든 제물에 관련해서는 원형(archetype)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위 구절에 의거 그것의 목적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죽을 일로부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의 위반된 공정과 폭행같이 휘둘러진 법을 변호하기 위한 무서운 필요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속하는 제물의 교리가 말하는 것을 옹호하는 이들에게만 정의일 뿐이다. 신성한 자비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그들은 말하기도 했다. 하나님은 불공평 없이 범칙자의 온 인류에게 자비로울 수 없었고, 그러므로 그분의 공정과 법은 경멸되어졌다. 하나님의 공정은 만족을 요구했고 그분의 법은 보상을 요구했다는 원리에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의를 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상, 즉 하나님의 공정은 자신이 위반한 죄 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준다는 대체된 벌이라는 원리, 자신 스스로 법에 순종해야 하는 대신 누군가가 대신 순종하는 대체된

순종이라는 원리에 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신성한 정의를 우습게 여긴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분의 정의를 비난한 것에 해당된다. 이것은 공정에 관한 첫 번째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이것은 시냇물을 근원지에서부터 오염시키는 것이고, 그 불순한 물을 하느님의 영적 정부의 모든 체계에 운반했을 뿐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영적 관계와 의무에 관한 인간의 모든 관념에도 가져다 놓았다. 이것은 이교도의 반론이다 라고 누군가 단정할는지 모른다. 반대 그 자체가 타당하다. 기독교인에게 소속되어야 할 질책이 이교도에게로 돌려서 놓여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느님을 거스른 죄”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말하도록 인간의 심정 안으로 기어 들 수 있었을까? 그러나 이 명목은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교리의 머리 위에 엄연히 씌어 있고, 이 교리는 하느님께서 그분의 순진한 아들에게 그분의 죄 있는 창조물의 피를 씻었다는 원리에 기초되고 있다. 참으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의 뿔을 가지고 있으면서 용 같이 말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생각하고 가르치도록 인간을 자극한 것이 늪은 뱀 말고 또 있을까?

신성한 공정은 만족(이행, satisfaction)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는 위에서 인정했었다. 그러므로 요구되는 것은, 누가 그 요구를 만족시킬 것인가? 일 것이다. 여하튼 그 요구가 이행될 수 있다면 그것은 법을 위반한 당사자에 의해 이행되어야만 한다. 죄인 그 자신 외 누구도 죄에 대해 배상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어떤 이는 추측에 불과한 이론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죄우지간 이것은 진리이다. 신성한 법은 거역할 수 없다라든가, 신성한 공정은 절대적으로 용서가 없다라든가, 죄인은 저지른 자기 죄과에 따른 요구에 무능하다라든가 하는 따위의 말을 듣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것들은 억측같이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정성들여 만든 억측의 체계는 하느님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 심정 속의 자연적 경향성에 그 근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와 같은 정교한 상태에 도달될 때까지, 마치 “용과 그의 짐승”의 경우 처럼 몇 단계의 발달과정을 통과해왔다. 그럼에도 하느님은 모든 창조된 존재가 불완전하듯 불완전한 존재로부터 완전한 순종을 언제나 요구하셨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없다. 그리고 하느님은 충분한 만족함 없이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 특히 하느님의 법과 공정은 죄지은 자 대신 무구한 자를 대신 벌줌으로 만족될 수 있다는 착각은 더더욱 근거 없는 억지일 뿐이다. 신성한 공정의 거역할 수 없는 법은 예제키엘 18장 20절에 있는, “죄 짓는 영혼은 정녕 죽으리라”와 같은 것이다. 이에 못지 않은 불가침의 법이 21절에 있다. “그러나 만일 못된 행실을 하던 자라도 제 잘못을 다 버리고 돌아와서 내가 정해진 규정을 지키고 바로 살기만 하면 그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공정은 죄인이 죄지음을 중단하고 정의를 행함으로써만 이행되어 질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이를 행하여만 하되 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수단으로 행하여야 한다. 우리가 올바르게 되어 가는 것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하느님의 공정은 이행될 수 없다. 신성한 속성의 어떤 것도 그 속성 자체가 우리의 심정과 지성에 이식되어 우리로 “신성한 본성의 참가자” (베드로후1:4)가 되게 하지 않고서는 충족될 수 없다. 종교의 목표이자 목적은 인간의 품성을 하느님의 품성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종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외에 어떤 것도 없다. 이보다 더 완전한 충족은 있을 수 없다. 시간 안에서이든, 영원 안에서이든 인간의 행복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더 이상의 것은 없다. 하느님은 무한하게 행복하시다. 그 이유가 그분은 무한하게 선하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선함과 지혜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만큼에서 우리도 그분의 행복을 나누어 갖게 된다. 자신 대신 타인이 고통받아준다 든가, 또는 정의를 실천해준다 든가 등등의 편법 가지고 인간 품성이 위와 같이 바뀔 수가 없다. 그러나 왜곡된 확신, 거짓된 것에 신뢰를 두도록 피어냄으로 위의 엄연한 진리도 심각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사상이 있다. 이런 것이 둘째 짐승으로 표현된바 이제 살펴보자.

12. 둘째 짐승에 관해서 말해진바,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과 땅 위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회복된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용은 첫째 짐승에게 그의 모든 권세를 주었고, 첫째 짐승은 둘째 짐승에게 그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다시 말해 용은 첫째 짐승을 수단으로 힘을 발휘한 다음 첫째 짐승을 통해 둘째 짐승을 수단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모든 이교도는 이런 식으로 발생해서 그 발달이 진행된다. 먼저 심정 안에서 하나의 원리가 통겨 오른다. 그 다음 이해성에 있는 거짓 추론에 의해 틀이 짜지고 마지막으로 성서를 왜곡되게 해석하여 그것이 확증되게 해서 굳힌다. 이런 식으로 교리도 발달되어 가는데 그 중의 마지막 단계가 여기서 묘사되고 있다. 이 짐승의 세부적 특성은 이러하다. 그는 권세를 행사할 뿐 아니라 첫째 짐승의 이익을 도모하는 쪽으로 운동 움직이고 있다. 첫째 짐승은 추론으로 떠받친 교리를 표현한다. 둘째 짐승은 성경으로 확증한 교리를 표현한다. 종교적 주제를 놓고 인간은 성경을 해석하려고 이성을 채용한다. 그리고 이성을 확증하도록 성경을 채용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경을 자기 식으로 해석하기 위해 성경을 채용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참된 선생과 거짓 선생 사이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 참된 선생은 성경 안에서 하느님의 마음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거짓선생은 자기 주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을 발견하려고 애쓴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를 찾게 되면 혀로 법을 붙들기를 좋아하는 이들을 만족시키는 입증자료로 활용한다. 어떤 체계가 한번 형성되면 그것을 채택한 이들은 그

체계를 통해 성경을 두루 살핀다. 결국 그 체계 안에 성경을 집어넣는 셈이 된다. 다시 말하면 전자가 후자 안으로 들어가 후자가 전자의 힘까지 모두 발휘한다는 말이다. 후자는 전자를 숭배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 성경을 수단으로 교리를 입증하는 목적은 종교계의 동의를 획득하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둘째 짐승은 독특하게 성공적이었다. 그 이유가 “땅과 땅 위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회복된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다” 라고 말해졌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로 볼 때 땅은 교회이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교인들이다. 이를 추상적 의미로 보면 땅과 그 곳의 사람이란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는 선함과 진리의 원리들이다. 따라서 교회의 선함과 진리에 관한 원리들이 믿음만의 교리에 일치되게 만들어지고 그것을 확증해주고 드높이는데 사용될 때 땅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치명상을 받았으나 치료된 짐승에게 절하는 것이다. 첫째 짐승이 죽을 정도로 상처를 입고도 치료되었다는 사항에 대해 더 언급해볼 때 이는 다른 사항의 임무를 위해 추가적인 이유를 공급하고 있다. 그 이유가 선한 일이 구원받는데 효력이 있다는 말씀의 증언은 너무나 많을 정도로 반복되고 직선적이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슬며시 발뺌을 하려하지만 이는 결코 완전히 침묵될 수 없는 사항인바 이를 포함한 종교의 품위들이나 교회의 다른 원리들까지 일괄적으로 믿음이라는 오직 한 개의 품위에 절하게 만들어 버린다.

13-15.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권위를 떠받치는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것을 요한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그 짐승은 여러 가지 큰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땅에 불을 내리게도 하였읍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기적을 가지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현혹시켰읍니다. 또 땅 위에 사는 사람들더러 칼을 맞고도 살안나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였읍니다.”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사건의 경우, 성경은 참된 예언자의 예는 기록하고 있지만 거짓 예언자의 예는 없다. 단지 바알 예언자들이 이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것 뿐이다 (열왕기상19장). 이 신비적인 짐승은 여느 실제 사기꾼이 이 짐승 앞에서 행했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보였다. 참된 선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한 것은 무욕의 사랑이라는 불이다. 분과적인 사랑은 교리를 사랑함, 교리를 좋아하는 이들의 사랑이다. 이간질, 당파적인 것, 적개심 같은 것이 세상에 창출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익히 안다. 이 불의 본성은 그 불이 내려오게 된 의도로부터 명백해진다. 그 의도는 사기치는 것이다. 앞에서 살폈듯이 사기치는 데는 두 가지 방법, 즉 권유하거나 납득시키는 방법이 있다. 권유(persuasion)는 의지의 애정에 호소한다. 다음 의지를 통해 이해성의 생각에도 호소한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다는 것에 해당되는 호소함이다. 종과 속의 불이 애정에 호소하는 그 목적은 종파적인 사랑이 그들 안에서도 점화되게

하려는데 있다. 그런데 이 불이 인간의 시야 안에 내려오고 있다. 시야(sight)는 이해성과 관계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은 기적으로 있어졌고, 이는 이해성을 피거나 현혹시키기 위해서 였다. 이 불이 기적으로 가져와졌다는 참 사실은 그것이 납득시키려기 보다는 오히려 권유하려고 의도했음을 보여준다. 기적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납득되도록 의도하지 않는다. 기적은 마음에 감명을 주고 진리에 귀를 잘 기울이게 해준다. 이것만이 납득시켜준다. 이것은 참된 기적의 경우인데,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기적에서 그분께서는 신성한 사랑의 불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인간의 시야에까지 가져다 놓았다. 이와 대칭 되는 거짓 예언자의 불, 모방된 불은 가상적인 하늘로부터 자연적 인간이라는 땅으로 내려온 것이고 그의 왜곡된 가르침을 인간 마음이 받는 쪽으로 기울도록 의도하는 것이다. 이 큰 기적은 사람들 앞에서 뿐 아니라 첫째 짐승 앞에서도 행해졌다.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한 이유는 그들이 그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행해졌고 그에게 사람들이 절하도록 피기 위해서 였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이 칼을 맞아 부상당했으나 치료된 짐승의 형상을 만들도록 피었다. 정신적 형상이란 지적인 착상인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사상과 납득으로 재생산된다.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고 짐승이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권한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도 하였다.” 모든 사람 각각은 자기에게 믿도록 가르쳐진 것에 관해 어떤 이상적인 형상을 형성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에 숨을 불어넣는 생명 또는 영은 천국 또는 지옥으로부터 온다. 진리의 영은 천국으로부터 오고 사랑이다. 오류의 영은 지옥으로부터이고 미워함이다. 그렇다고 종교적 오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워함으로 영감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런 추측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오류나 잘못들 그 자체에 관해서 이고, 오류의 영은 진리의 영에 반대된다는 것, 종교적 오류에 있는 이들이 그들 자신의 오류의 영에 감염된 만큼에서 그들은 미워함 안에 있어진다. 섭리적으로 이것은 언제나 같은 경우가 없다. 오류가 심정을 부패시키지 않은 채 이해성 안에 있을 수 있다. 마치 진리가 심정을 교정해주지 않은 채 이해성에 머무르는 경우나 마찬가지이다. 어쨌든 그들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다. 인간이 진리에 따라 주기만 한다면 진리는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간다. 그러나 인간이 오류를 따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인도해버린다. 이 짐승이 형상에 준 생기(spirit)는 천국적 생명과 흡사한 듯 보였다. 그 이유가 그가 그것 안에 주입한 생기는 얼핏 보면 성경에 일치하는 듯 여겨지기 때문이다. 확실히 죽은 상태인데도 살아 있는 외관을 주었다는 말이다. 이 영이 오류의 영인 것은 짐승이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게

하였다는 것으로 입증되어진다. 자기 것을 믿지 않는다고 영원히 죽으라는 형벌을 말하는 것은 왜곡된 종교의 특색이다. 모든 비신앙자에 대한 교회의 저주는 주님의 교회의 순수한 교리가 썩어진 이래 모든 이교도들의 아우성이었다.

16,17. “또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인간을 차별있게 하는 이런 조건이나 수준은 자연적 차원이 아닌 영적 차원에서이다. 낮은 자, 높은 자란 총명이 덜하거나 더하거나 하는 것이고, 부자나 가난한자란 지식이 많거나 적은 것이고, 자유인이나 종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생각하는 것 등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 즉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한다. 즉 그들은 교회의 믿음에 일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이들은 팔거나 사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이 믿음에 일치해 있지 않으면 그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한다. 이 믿음의 특성이 짐승의 표(mark), 짐승의 이름, 그 짐승의 이름의 숫자로 의미되고 있다. 일종의 상형문자처럼 이 표시(mark)는 그 이름이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이름은 그 표시가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마치 일반적인 원리가 세부적 원리를 내포하는 경우 같다. 그러므로 이 숫자는 최말단적인 형체이고 다른 것이 포함하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이 표현하는 교리의 품성을 이해하고 발견해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18.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해력(understanding)을 가진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 보시라. 그것은 사람의 숫자이고 그의 숫자는 육백 육십 육입니다.” 이 요상한 짐승의 미묘한 숫자를 설명해보려는 노력이 많은 이들에 의해 시도되었었다. 그러나 이 신비를 풀겠다고 시도한 이들은 환상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 이것도 환상의 중요한 한 부분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설명할 수 있을까? 짐승으로 표현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몰랐는데 그 짐승의 이름의 숫자로 의미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짐승이 믿음만의 교리를 상징하는바 짐승의 숫자는 그 교리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 미묘한 숫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숫자는 셀 수 있고, 교리의 특성은 이해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만 식별될 수 있다고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다고 총명한 어떤 인물이 신비를 밝혀 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이 예언의 주제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상징적인 이 숫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미 여러 번 살폈듯이

말씀 안에 있는 숫자들은 양이나 부피가 아닌 품질을 뜻한다. 그러므로 열거하는 것 또는 수를 세는 것이란 세어진 것의 품성이나 품질을 알아내는 것이다.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교리의 특성 내지 품질이 상징적 숫자 666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의미는 숫자 여섯의 상징적 가치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 의미의 세력(force)이 숫자 여섯이 세 번 반복됨을 수단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섯은 완성(completeness)을 표현하는 숫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일을 열세 동안에 완성하셨다. 열세는 노동의 한 주일을 형성하여 쉬는 날에 선행한다. 더 높은 의미에서 볼 때 열세는 우리가 하늘 나라에서의 영원한 쉼에 이르도록 이 세상에서 수습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상태를 표현한다. 신실한 사람에게 열세는 진리의 상태가 선함의 상태에서 끝나는 것, 믿음의 상태가 사랑의 상태에서 끝맺는 것을 뜻한다. 수습 기간이 의로운 자에게는 쉼으로 종결되지만 불의한 자에게 불안 걱정으로 종결된다. 진리와 믿음의 상태가 선함과 사랑에서 끝맺지만 거짓과 비신앙은 악과 미워함에서 끝을 본다. 이것이 짐승의 이름의 신비한 숫자로 의미되고 있다. 믿음만의 교조는 완전하게 오류 투성이의 품성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여섯이 의미하고 있다. 오류의 극치는 진리의 거짓화, 진리를 부인함이다. 이런 오류 투성이의 유독한 교조의 내면적 품질 또는 그 본성은 이 숫자가 표현하는 일반적 특성을 분석해봄으로 더 밝혀진다. 숫자 여섯은 둘과 셋이 곱해짐으로 생산된다. 둘은 선한 것, 셋은 참된 것을 표현한다. 고로 둘과 셋의 합작으로 생산된 여섯은 선함과 진리의 하나됨을 표현한다.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악과 거짓의 하나됨이다. 선함과 진리의 하나됨이 종교를 구성하고 종교를 구성하는 것은 교회와 천국도 구성한다. 이 두 품위의 하나됨은 신성한 일과 신성이 수여하는 선물의 끝, 세상의 창조와 통치의 끝, 계시와 구속의 끝이다. 이것들은 인류의 영원한 행복 외에 더 다른 끝은 없다. 이런 끝을 맞는 수단으로서 선함과 진리라는 원리가 하나되어 인간 품성이 완전해진다. 이런 하나됨이 천국적 결혼이고, 하늘나라의 모습이 되는 결혼의 대칭(antitype)이다. 참된 모든 종교가 이런 하나됨을 증진시켜 가듯 왜곡된 모든 종교는 이런 하나됨을 약화시키고 해체시키려 들고 선함과 진리의 하나됨 대신 악과 거짓의 하나됨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계시록의 이 부분에서 다뤄지는 교회는 구원을 믿음만에 의존하고 있다. 구원의 조건에서 일이라는 것을 배제하면 이는 신성한 법을 도덕적 교훈으로 하향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이 된다. 성경에서 행함의 중요성을 하향시킴으로 해서 구원받는 조건에서 일은 둘째가는 중요성, 둘째 의무로 전락되고 있다. 이런 잘못은 많은 다른 것도 포함하고 있다. 그것들 중 하나가 주님께서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도 있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핑계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14

1. 성경의 역사 부분과 마찬가지로 예언 부분에서도 두 개의 반대되는 요소들은 언제나 있다. 마치 본성적으로 두 개의 반대되는 세력이 있는 것과 같다. 창세기의 시작에서 뱀이 이브의 유혹자로 에덴에서 나타났던 때로부터 그 뱀이 불뭇에 던져지는 계시록의 끝에 이르기까지 선과 악, 빛과 어둠 사이에는 싸움이 계속 있어왔다. 그러나 창조된 그대로만 생각하면 힘 그 자체는 서로 파괴적이라고 말할 수 없고, 질서와 행복을 파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본성상 반대되는 두 세력처럼 그들의 균형(equilibrium)은 평화가 있게 하고 유용한 행동도 발생되게 한다. 하느님과 자아, 천국과 세상, 이성과 감각, 영과 물질은 서로 반대 될 뿐아니라 행성이 제 궤도를 지키듯 그들의 생명과 빛의 중심 주위를 돌면서 계속 그 위치를 지킨다. 모든 것은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으로 구성되고 작용과 반작용을 함께 붙잡고 있다. 엄격히 말한다면 이것은 참되다. 그리고 우주에서 능동적 힘은 한 개밖에 없고 그것은 하느님이다. 소위 우리가 자연의 힘이 활동한다고 말하지만 그 힘은 하느님의 힘이 재 활동한 것밖에 더 아니다. 행동하는 모든 힘이 하느님으로부터인 한편 반작용은 질서에 일치할 수 있고 또는 반대되어 있을 수도 있다. 질서적인 행동은 하느님의 힘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비질서적인 행동은 그분에 거슬러 일하는 것이다. 인간만이 비질서적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인간만이 자유의지(free-will)를 가지고 있기때문에서이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인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과 행동은 그분의 삶과 행동에 반대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우리의 삶과 힘이 우리자신의 것으로 나타나는 외관(appearance)으로부터 존재한다. 이 외관 없이 우리는 합리적 존재로서 행동할 수 없다. 우리는 영향을 받은 바대로 행동만 할 수 있다. 의지와 이성으로부터가 아니면 하급의 창조물같이 자극과 본능으로부터 행동해야 한다. 두 개의 반대되는 세력은 이미 말했듯이 인간 안에,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것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때로 이것이 주도권을 쥐기도 하고 때로 저것이 주도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런 형상은 이 책을 총망라해서 두루 관찰할 수 있다. 12장의 경우, 태양으로 옷입은 여인이 나타났는가하면 그 여인이 낳는 사내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용이 여인에 반대되어 등장한다. 그 뒤 이

용은 여인까지 삼키려 시도했고, 실패하자 그 여인의 남은 후손을 추격하고 있다. 또한 용과 그의 두 짐승이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씌어있지 않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휘두르고 있다. 이것은 그림의 어두운 쪽을 형성했다. 이제 그림의 밝은 쪽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나는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보여진 이 집단은 도장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의 십사만 사천 명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장이 용의 유혹하는 권세로부터 그들을 보존해주었다. 그리고 지금 온 땅이 용의 지배하에 있어질 때 의로운 자의 영들은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의 언덕에 출현하고 있다. 구세주가 시온산 위에서 서 있는 것으로 말해지는 예언들에서와 같이 이 환상의 영적 생각은 이렇다. 그분은 사랑 가운데 교회와 교인들과 함께 현존하신다. 교회를 자칭하는 두 이름 중 예루살렘은 믿음 측면에서의 교회를 뜻하고, 시온은 사랑 측면에서의 교회를 뜻한다. 시온산 위에서 어린 양과 함께 출현한 이들은 사랑으로부터 진리를 인정하는 이들, 신성한 인성 안에 계신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들이다. 사랑에 관한 그들의 상태가 그들 이마에 적힌 아버지의 이름으로 더 묘사되고 있다. 아버지는 사랑을 표현하는 신성의 이름이다. 그분의 사랑이 심정에 새겨지고 마음을 지배할 때 그분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진다.

2.3. 요한이 이렇게 드높여진 사람들을 본 뒤 “큰 물소리와도 같고 요란한 천둥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그 소리는 하프를 켜는 사람들의 하프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십사만 사천 명은 옥좌와 네 생물과 원로들 앞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땅으로부터 구출된 십사만 사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소리와 노래를 듣게 했던 천국은 기독교인의 천국, 주님이 세상에서 구속의 일을 통해 완전해진 의로운 자로 형성된 천국일는지 모른다. 천사들은 주님의 첫 강림 때에 노래했다. 지금 그들은 그분의 두 번째 강림이 가까워지면서 노래하고 있다. 그들은 악과 오류의 득세를 꺾고 신실한 자들을 해방한 그분의 쾌거에 기뻐하고 있다. 그들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았는데 이는 풍성한 진리를 상징한다. 그리고 천둥소리와도 같았는데 이는 선함을 상징한다. 또한 음악소리였다. 음악은 애정의 언어이다. 먼저 하프를 연주하는 하프연주자의 소리였다. 그 다음 노래 소리가 있었다. 줄로 된 모든 악기처럼 하프도 진리를 목적으로 하는 애정을 뜻한다. 소리는 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애정을 뜻한다. 천사는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언급되는 이들, 즉 유리바다에 서서 노래한 것과 흡사할 거라고 추측해도

크게 빛나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어쨌든 이 노래가 시온산 위에 서 있는 구속된 이들과 주님께 관련된 천사 군단의 느낌과 정서를 표현했다는 정도만을 알아도 족하리라 본다. 이 노래는 시온의 자녀밖에 다른 이는 배울 수 없었다. 도장을 받은 이들이 이런 새 노래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은 천사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하는 새 천국에 사는 천사들일 것이다.

4.5. 구속된 이들의 품성이 묘사되고 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사람들이며 처녀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 다닙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출되어 하느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들은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교도 성전의 신녀(vestal)나 카톨릭교의 수녀(nun)에 관한 암시가 없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둘 다 종교적 오류의 산물이다. 결혼이 감각적이고 지상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전까지는 처녀성(virginity)을 계속 지니는게 영적이고 천국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았었다. 성경의 상징적인 처녀(virgin)는 제아무리 순결하다해도 결혼한 여자(wife)보다 덜 완전하다. 물론 처녀도 결혼할 수 있고 혼례를 준비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녀는 천국적 결혼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그녀는 선하고 참되며, 사랑스럽고 신실하다. 그러나 선함과 진리, 사랑과 믿음이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그녀의 완전함을 내보일 만큼 충분히 하나로 결합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수준이 여기서 표현된 처녀 교회의 경우이다. 그녀는 어린 양의 신부도 아내도 아직 아니다. 처녀가 신부요 아내가 되는 것은 장차 있게 되는 계시록의 극치인데 이는 이 책의 뒷 부분에서 발견된다. 한편 무리를 이룬 이들의 상태가 기술되고 있다. 즉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들은 17장에 있는 것, 땅의 왕들과 놀아난 여인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더럽히지 않은 자란 악과 오류로부터 자유롭도록 자신을 보존했던 이들이다. 다시 말해 거룩한 것에 모독된 것을 섞지 않은 이들, 세상으로부터 오점이 튀어 묻지 않게 자신을 관리한 이들이다. 이들은 진리의 말씀에서 높이 평가되는 처녀의 영혼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간다. 즉 이는 그들이 신성한 인성으로 계신 주님을 자기의 하느님이요 구세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도장을 받은 자가 표현한 이들의 특출한 수준과 특이한 태도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들이 새 기독교국과 새 기독교회를 형성한다. 그들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즉 창조자요 구속자 이시다. 그들은 그분을 자기들의 믿음과 사랑과 생활로 따라간다. 그들은 그분이 어디를 가든 따라간다. 주님께서서는 그분 스스로 영광으로 건너가셨던 방법으로 신실한 자를 인도해 가신다. 그 이유가 그분이 영화하신 것같이 그들도 거듭나기 때문이다. 지상에서 그분을 따라가기를 끝낸 이들은 천국적 완전과 더

없는 행복이 끝없이 펼쳐지는 과정을 통하도록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출된 자(또는 구입한 자)였다. 주님께서 육 안에서 이룬 위대한 일로 해서 모든 사람은 구출되었다. 모든 사람은 그들밖에 있는 압도적인 지옥세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해방되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지옥 세력으로부터 서는 그분의 영(성령)에 의해 세부적으로, 즉 각 개인 하나 하나에 대해 작업됨으로 구출되어진다. 이것이 신하(subject)가 된 처녀들이 구속된 것, 또는 구입하신 것에 해당된다. 그들은 악과 오류로부터 해방되고 선함과 진리를 선물 받았다. 그들은 천사들 중 하나로 세어지도록 사람 사이에서 구출되었다. 그들은 마치 슬기로운 처녀가 기쁨의 소리, “보라, 신랑이 온다. 나가서 그분을 맞을” 때까지 중간 영역의 상태에서 그분을 기다렸던 이들로 어린 양과 하느님의 첫 열매이다. 그들은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첫 열매들이다. 그 이유가 땅의 첫 열매는 인간의 첫 출생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 주님에게 거룩하다. 그 이유가 그들은 거듭남의 시작 또는 새로운 출생, 뒤따른 모든 것의 전조(foreshadow)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유의할 사항이 있다. 첫 열매는 종교 생활의 처음에서의 시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끝에서의 시작이라고 불리지는 것을 표현한다. 첫 열매는 익은 곡식의 첫 수확, 수확 철에서 맨 처음 거둔 열매들이다. 이는 강가에 심어진 나무의 잘 익은 열매, 이미 뿌려졌었던 씨의 열매, 꾸준하고 신뢰하는 돌보심으로 씨의 성장이 관찰될 결과라는 열매이다. 우리가 생산해서 주님께 바친 첫 열매는 우리의 내적 인간 안에 뿌려져 뿌리를 내린 영원한 진리라는 씨의 첫 열매이다. 그래서 이 열매는 바깥쪽 인간에서도 사랑과 이타애라는 행위를 산출한다. 하느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인 그들 자신은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수단으로 새로이 탄생해온 이들이다. “하느님과 어린 양”은 주님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신성한 사랑과 지혜를 표현한다. 이런 거룩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교활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 참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은 단순한 마음씨를 지녔다. 그래서 감추어 놓을 게 하나도 없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추구하는 것을 둘째 목적으로 삼는 일이 없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하느님을 섬기는 것과 선함과 서로의 행복을 보살피는 것이다. 그들은 과오가 없다. 그래서 하느님의 보좌 앞에서도 흠이 없다. 악과 온갖 왜곡된 길을 금함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자기의 겉옷을 간직한 채 그들은 부끄럽지 않게 하느님의 옥좌인 천국에 등장한다. 엄밀히 말해서 가장 수준 높은 천사라 해도 하느님이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순수한 자는 아무도 없다. 단지 그들의 목적이 순수하고 흠이 없어 그분의 옥좌 앞에서 결함이 없다는 말이다.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아뢰께서 잘못을 묻지 않고 마음에 거 것이 없는 자, 그는 복되다” (32:2).

6. 요한이 말한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높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모든 나라와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천사는 요한이 보게된 엄숙한 메시지를 전하는 세 번째 천국의 사자(bearer)이다. 열 두 지파가 도장을 받고 일곱째 봉인이 떼어진 후 요한은 하늘을 날으면서 “땅의 거주민은 화가 있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 (8장13절). 이후 그는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고 그 책을 먹기를 바랬던 권능의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제 요한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고 있는 천사를 보고 있다. 위 세 천사 사이에는 어떤 연결이 있다. 마지막 천사가 주님의 권능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 명백히 해주고 있다. 동시에 그분의 심판의 가장 기쁘고 의기양양한 결과이기도 하다. 시온산 위에 있던 집단은 주님께서 천국에 있는 새 교회로 거두어들인 수확 철의 첫 열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이 수확은 지상의 새 교회를 뒤따르게 한다. 이미 살핀바 같이 교회는 원인의 세계로서 천국에서 시작되고 결과의 세계로서 지상에 내려온다. 이 부분의 경우는 어쨌든 실제로 지상에서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것의 준비이다. 이제 그 길이 준비되었는바, 먼저 용으로 표현된 장애물의 제거, 그 다음 중간 영역(상태)로부터 선한 자들의 승강, 구원의 기쁜 소식이 새로이 전파될 수 있게 된다. 천사는 주님 자신의 상징이다. 영원한 복음은 주님 자신이 지상에서 육 안에 계신 동안 전파하셨던 복음과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면 단지 더 현충 영광스럽게 된 것뿐이다. 사실 그분께서 설교하셨던 복음은 희미해지고 부패되기까지 했다. 복음이 함유된 책은 봉인되어 있어 왔다. 그 봉인이 열려졌다. 이 책은 기독교회의 예언자에게 전달되었다. 그 책의 신성한 진리가 이제 인간과 모든 나라와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교통되고 있다.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고 받을 수 있는 각계 각층의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있다.

7. 그러나 예언의 이 단계에서 볼 때 이 복음은 사랑과 평화의 복음으로서 아직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천사가 이렇게 외쳤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려라. 그분이 심판할 때가 왔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물을 만드신 분을 예배하여라.” 여기서 하느님을 두려워함은 노예 같은 처지에서 두려워함이라 볼 수 없고 사랑의 두려움, 경의를 표하는 느낌, 대부분의 존경함이 두려움과 꼭 혼합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두려움을 수반하는 존경심 같은 것이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라고 권고된 이들은 또한 그분께 영광을 드리도록 요구된다.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영광되게 하는 것은 그분이 모든 선행과 진리의 저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둘은 하느님의 심판에서 언제나 하나되어 있다. 그 이유가 심판은 진리가

말했지만 그렇다고 진리 단독으로가 아니라 선행과 하나된 진리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서 이 구절의 천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드리라고 명령하는데 그 이유는 그분의 심판 때가 닥치기 때문이다. 넓은 측면에서 이 심판은 모든 이에게 해당되지만 특히 교회에 악과 오류를 가져다 놓은 것은 심판 이 후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것에 해당된다. 그래서 새 교회를 시작한 이들에게 “하늘과 땅, 바다와 샘물을 만드신 그분을 찬양하라”고 명령되고 있다. 그들이 이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으로 그분을 예배하도록 요구되는 이유는 그들이 교회의 구성요소이고 그들을 지으신 분은 교회의 기초되고 교회를 형성하게 한 있음(Being)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심판에 뒤이어 결과되는 하느님의 새로운 창조이다. “하늘과 땅”이란 천국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또는 교회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을 뜻한다. “바다와 샘물”이란 말씀의 글자적 의미와 영적 의미이다. 동시에 그 의미들로부터 파생된 교회의 교리이다.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은 저자되시는바 그분만이 예배되어야 하리라.

8.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한 후, “둘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무너졌다! 큰 바빌론 도성이 무너졌다! 자기 음행 때문에 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바빌론이 무너졌다!’ 하고 외쳤습니다.” 종교의 또 다른 부패된 원리가 교회의 또 다른 분파(branch)로 체현되고 있는바 우리는 이것을 자세히 관찰해야 할 것 같다. 이는 환상의 미래부분에서 확연하게 나타난다. 바빌론은 종교를 빌미로 지배욕을 성취하는 자아사랑이다. 바빌론은 타락(the Fall)이래 자아 드높임(self-exaltation)을 위해 세력을 움켜쥐도록 인간을 자극해왔던 인간 심정 안에 든 중요한 사랑을 성경에서 지칭할 때 사용된 한가지 품새이다. 이것이 왕권적 측면일 경우 세상을 정복해서 지배하려드는 욕망에 해당되고, 제사장적 측면일 경우 교회 안에 있는 정복과 지배욕이다. 이 원리의 본성은 예언의 뒷 부분에서 충분히 기술되어 확실히 알도록 까 벌려져 있다. 이 구절에서는 암시만 있을 따름이다. 바빌론은 큰 도성이라고 말해지는데 그 이유는 이 교리를 수단으로 지배욕이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해 큰 권세를 가지기 때문이다. 지배욕은 음행이라는 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들이 마시게끔 유혹함으로 그 권세를 떨치고 있다. 이 구절의 의미란 가르침과 권유로 마음이 마취되게 해서 인간을 영적으로 술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보편적으로 감지하고 있다. “음행이라는 분노의 포도주”란 지배욕이 진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 실지로 그것은 부패되고 모독된 진리이다는 뜻이다.

9-11. 셋째 천사가 경고하는 소리로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낙인을 받는 자는 하느님의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순수한 포도주다. 이런 자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향의 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향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토록 올라 올 것이다.” 보편적인 복음의 선포가 있는 다음 그 복음에 반대되는 두 세력에 관한 소개가 있는데 의도한 이유나 의미가 그 안에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진리를 익히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악과 오류에 빠져든 결과는 진리에 무식한 채 오류에 젖어 있는 상태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짐승에게 절을 하는 이들은 하느님의 분노의 포도주를 마실것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하느님 안에서 분노의 상태는 그 단어조차 없다. 하느님의 사랑이 썩어진 심정 안에서 분노로 변질된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가 뒤집혀진 이해력 안에서 거짓말로 변한 것이다. “하느님의 분노의 포도주”는 그분의 말씀 속의 순수한 진리가 거짓으로 변한 것이다. 잔과 포도주의 관계같이 교리는 진리와, 말씀의 글자는 말씀의 영과, 마음 자체는 마음 안으로 흐르는 사랑과 지혜와 관계된다. 이 양쪽 모두가 뒤집히고 파괴되는데 분노를 쏟는 것이다. 위협되는 고통, 어쩌면 자비로 선포되는 고통은 천국적 진리가 뒤집혀 생산된 악한 상태의 결과일 뿐이다. 짐승에 절한 자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과 유향이란 그들 자신의 심정을 태우는 악한 사랑이다. 고통의 연기는 악한 사랑으로부터 진행되는 거짓이다. 그들이 거룩한 이들과 어린 양 앞에서 고통받는다고 말해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상태가 천국과 주님께 반대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놓고 생각하기를, 주님과 그의 천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즐긴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자나 직역주의자에 의해서만 환영받아 질뿐인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억측일 것이다.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이름의 낙인을 받는 자는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구절의 뜻은 이렇다. 믿음만의 종교를 인정하여 심정과 지성에 그 교리를 새겨 버린 이들은 그 교리로부터 튀어나오는 악과 거짓에 계속 감염될 것이라는 뜻이다.

12.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하느님을 예배하는 이들 쪽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성도들이 소개되고 인내가 발휘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곤경의 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진리와 오류, 선과 악 사이에 싸움이 있게 되면 신실한 사람들은 시험의 상태를 겪기 때문이다. 이 상태는 피할 수 없고 또 유용하다. 시험의 상태는 찌꺼기를 걸러내 순수한 은(silver)만을 남게 해주는 수단이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거짓 성도에 반대되는 참된 성도의 품성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짐승에 절하는 이들은 행함 없는 믿음을 신봉하는 이들이다. 이와

반대되는 성도는 일과 믿음이 하나로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이들이다. 그들은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니면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킨다.

13. “나는 또 ‘이제 부터는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기록하여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옳은 말이다. 그들은 노동에서 쉬게 될 것이다. 일이 그들을 뒤따르기 때문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죽음을 자연적인 것만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 절과 앞절이 연결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을 뜻한다고 보면 두 서술은 하나의 시리즈를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시험, 또는 내향의 싸움은 시험을 이긴 사람들과 더불어서는 옛 사람이 죽는 것, 부패된 이기심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 이것은 주님 안에 있는 이들에게서 죽어가는 것, 그분이 보시기에 값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지는 죽음이다 (시편116:5).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이들은 복되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사건의 진보에서 이 구절의 단계 이 전, 악과 오류가 이 세상과 중간 영역의 상태에서 득세하고 있었을 때 진리가 오류에, 선이 악에 반대하는 수단들은 모자랐다. 그래서 그들 사이의 싸움도 덜 격렬했다. 시험이 덜하면 순수해짐도 덜해진다. 순수해짐이 덜해지면 행복해지는 것도 덜해진다. 지금 보편적 복음이 전파되었는바 이제 경우가 다르다. 이제부터는 빛과 어둠이 정복에 요구되고 있다.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복된 자들은 그들의 수고함에서 쉬게된다. 그들의 일이 그들을 따른다. 이 구절은 일(work)과 노동(labor)을 구분 짓고 있다. 일과 노동은 폭넓게 차이가 난다. 노동은 악에 저항하는데 있고 일은 선을 행하는데 있다. 노동은 죄의 결과이고 일은 거룩함의 열매이다. 죄는 땀흘림을 유발하는데 죄가 정복되면 노동은 중지되고 영혼은 쉼을 즐긴다. 천국에는 노동이 없다. 그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이다. 거기서 우리는 노동을 그치고 휴식을 갖는다. 우리의 교전 상태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로부터서는 쉬지 않는다. 일이 우리 뒤를 따르고 있다. 일은 우리의 영원한 상속분으로 우리와 더불어 수행된다. 우리가 일을 수행하되 그것은 보상받아 획득한 만큼에서 만 행해지는 게 아니라 더 없는 행복이 솟어나게 하는 심정과 삶의 상태로서 행해진다. 일한 기록은 우리 심정에 상태로서 새겨진다. 이 상태로부터 사랑의 일은 언제나 진행되고 증가되는 기쁨과 행복의 소출은 끝이 없다. 믿음 만으로가 아닌 사랑의 일은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이들의 뒤를 따른다.

14. 주님을 섬기다가 죽은 복된 자들과 성도들의 인내 그 뒤를 심판의 환상이 있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14장의 나머지 부분이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 날카로운 낫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모습과 흡사하다. 이 중요한 주제에 관한 일반적 신앙은 신약성서의 예언 부분의 글자적 의미로부터 형성되어져 있다. 이런 예언의 부분들은 순수하게 비유적이고 오히려 순수하게 영적인 측면만 있는고로 영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이 예언들의 글자적 성취는 한때 불합리한 신앙의 범주에 억류되었었지만 이제는 과학에 의해 합리적인 신앙의 경계 너머에 놓여져 있다. 세상이 끝남, 별이 추락함, 해와 달이 기능을 잃음, 사람의 아들이 구름 안에 나타남, 그분 앞에 모든 민족을 불러모음 등등은 계시가 있어졌던 옛날 시절 같은 때에서만 먹혀들 수 있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성경의 글자적 해석이 더 이상 먹혀들 수 없다해서 맹목적으로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거룩한 저술가가 되도록 영감이 붙어넣어지고 환상으로 준비된 그 사람은 예언이 성취되는 때를 알았고 계시록의 빛에 증언을 하도록 과학의 빛도 주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은 계발된 해석에 의해 빛을 내고 있다. 영적 의미에 따르면 세상의 끝, 시대의 종말이란 교회의 끝이다. 별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는 것이란 종교적인 지식과 믿음과 사랑이 실패하는 것이다. 우리들 앞의 이 환상에 있는 사람의 아들은 신성한 진리 또는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앉으신 흰 구름은 말씀의 글자적 의미이다. 이렇게 구름으로 표현된 이유는 말씀의 자연적 의미가 영적 의미를 베일로 가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의 머리에 있는 금관과 그분의 손에 들린 낫은 모두 심판에 관한 상징물이다. 금관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에 관한 상징물이고 낫은 그분의 진리에 관한 상징물이다. 사랑과 진리는 하느님의 심판들 안에서 하나되어 있다. 심판은 진리가 말지만 각각의 모든 심판에서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신다.

15-20. 이제 우리는 세 천사의 등장을 맞이한다. 두 천사는 성전으로부터, 한 천사는 제단으로부터 출현하고 있다.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낫을 들어 추수하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 위에 휘두르자 땅 위에 있는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도 또한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불을 지배하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당신의 날카로운 낫을 들어 땅의 포도원에서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들이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위 본문을 보면 두 수확자가 등장하는데 한 명은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포도를 수확하는 사람이다. 곡식과 포도는 종교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두 요소들이다. 곡식은 교회의 선이고 포도는 진리이다. “곡식은 청년들에게 힘이 솟게 하고 새 포도주는 처녀들을 피어나게 한다” (즈가리아9:17) 그러나 이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교회는 그 교회의 첫 사랑을

떠났고 자기에게 복을 내리는 그 복의 저자 되신 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렸다.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주었으나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을 위해 준비했다. 그러므로 나는 곡식이 익을 때가 되고 포도주가 맛이 들 무렵에 돌아가 회수하리라” (호세아2:8-9). 이렇게 위협을 준 때와 절기가 오고 있다. 지금까지 주어지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남용한 자들로부터 회수되어 타인에게 주어지고 그들 자신들은 구석으로 밀려난다. 두 수확자, 하나는 구름으로부터, 또 하나는 성전으로부터 출현하고, 전자는 추수할 것을 거두고 후자는 포도를 수확하는데 이들은 신성한 진리의 작동을 표현한다. 신성한 진리가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 있는 경우가 “구름”과 “사람의 아들 같은 분”으로 의미되고 신성한 진리가 말씀의 영적 의미에 있는 경우가 “성전”과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로 의미되고 있다. 수확자의 이런 품성과 일치하는 게 추수의 본성이다. 말씀의 글자만을 아는 이들은 글자의 수준에서 심판되고, 말씀의 영을 알고 있어 왔던 이들은 영의 수준에서 심판된다.

그런데 낫을 가진 두 명, 즉 사람의 아들 같은 구름 위에 있는 분과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는 또 다른 두 명이 나와서 거두어들이라고 요청할 때까지 수확물을 자르지 않았다. 구름 위에 앉은 분은 성전에서 나온 자에 의해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온 자는 제단으로부터 나온 자에 의해 요청되었다. 신성한 심판은 사랑으로부터 행동되는 지혜에 의해 결과되어진다. 지시하는 두 명의 천사란 두 왕국 즉 지혜의 왕국과 사랑의 왕국을 구성하는 두 계층의 천사를 구성하는 천국 그 자체를 표현한다. 이 두 왕국이 “성전”과 “제단”으로 의미된다. 그러므로 제단으로부터 출현한 천사는 “불을 지배하는 천사”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불은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땅의 포도를 수확했을 때 그 천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큰 분노의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즙 틀에 던져 넣었다.” 포도즙 틀이 시련과 심판을 상징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의미이다. 그 이유가 시련과 심판은 포도즙 틀같이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리하기 때문이다. 각 개인 측면일 경우 시련과 심판은 그의 악한 원리로부터 선한 원리를 분리시킨다. 교회측면일 경우 그것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리시킨다. 또한 시련과 심판은 인간이 해놓은 일들을 테스트해서 그 일의 본질 되는 진짜 품성을 판명시켜 준다. 이것이 본문의 경우에 해당된다. 열매라는 차원에서 포도 역시 일을 상징한다. 제공된 호된 시련은 짐승의 숭배자, 즉 믿음만의 교리 속에 실지로 있었던 이들의 업적에 관한 진짜 품성이 드러나 놓여있게 한다. 포도즙 틀이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즙 틀이라 불리고 있다. 이미 설명된 원리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에 따라 표현되는바 인간 안에 있는 악이 하나님에게 분노의 모습을 보이게 한다. “그 술 틀은 성밖에 있었고 포도가 그 속에서 짓밟혔다.” 계시록의 모양새들은 유대사회 체제로부터 많이 유래되고 있다. 유대사회에서 불결한

모든 것이나 불유쾌한 행위는 먼저 진지 밖으로 운반되고 그 곳에서 처리했다. 후에는 도성 밖에서 이루어졌다. 주님 자신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곳도 도성 밖이었다. 그 이유가 도성 밖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포도즙 틀이 짓밟히자 “그 술 틀에서부터 피가 흘러나와 말갈레까지 닿았는데 일천 육백 펄롱에 퍼졌다.” 포도주가 포도의 피라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 포도들이 산출한 것은 포도의 피가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의 피였다. 악한 자가 거주하는 도성이 소돔과 에집트였다. 그리고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에 속한 것, 고모라 벌판에 속한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즙의 포도들이고 그들의 포도송이들은 쓰다” (신명기32:32). 여기서의 포도는 일반적으로 포도주가 상징하는 진리 측면이 아니라 거짓 측면이고, 이것이 죽임을 당한 자의 피가 상징하고 있다. 그들의 피와 연결을 이루어 주목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포도즙 틀로부터 흘러나오되 대단히 깊어서 말갈레(horse-bridles)까지 닿았고 대단히 넓어서 일천 육백 펄롱(furlong)의 공간을 덮었다. 그것의 깊이와 넓이를 표현하는 특이한 이 형식은 그 상징적 표현의 의미파악으로부터만 이해되어질 수 있다. 말(horse)은 이해성을 상징한다. 이 고상한 동물을 지휘하는데 사용되는 말갈레(고삐)는 지성을 지휘하고 안내하는 진리를 상징한다. 그런데 갈레가 놓여진 말의 입은 음식을 먹는에도 사용한다. 먹을 것을 줌(feeding)이란 가르침(instruction)을 의미한다. 몸에 음식을 주는 것과 마음에 지식을 주는 것은 같다. 그러므로 피가 말갈레에 닿았다란 말속 속의 진리들이 이런 정도까지 왜곡되어버렸다는 것, 즉 이해성이 진리를 수단으로 안내를 받거나 가르침을 얻거나 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정도로 거짓 속에 깊이 빠져 버렸다는 뜻이다. 피의 바다의 넓이는 그 정도의 깊이가 의미심장함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자연계의 숫자 폭으로만 보아도 이 백 마일(천리)되는 공간이 피로 얼룩졌다면 그 얼마나 참담한지! 공간이라는 물질적 생각이 상태라는 영적 생각으로 바꾸어 질 때 피가 흐른 이 공간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서 이는 거짓화된 진리가 마음에 드넓게 퍼졌다는 뜻이 된다. 이런 상태의 품질이 피가 덮은 면적의 숫자로 표현되고 있다. 이 숫자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그 숫자의 뿌리를 추적해야 한다. 그러면 그 숫자의 품성을 알게 된다. 열 여섯은 넷과 같은 의미이고 넷은 둘과 같은 의미, 즉 결합(conjunction)을 의미한다. 순수한 의미일 경우 선함과 진리의 결합을 의미하나 반대적 의미에서는 악과 거짓의 결합을 뜻한다. 백(hundred)이라는 부가적인 숫자는 앞 숫자의 의미를 바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앞 숫자의 농도를 더 증강시킨다. 본문이 언급한 측량치 역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펄롱(furlong)은 길(way)을 측량하는데 쓰인다. 길은 선함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뜻하나, 반대 의미일 경우 악으로 인도하는 거짓을 뜻하는바, 이것이 이 구절에서의 의미이다. 피가 일천 육백 펄롱을 덮었다는

것은 진리가 선함으로 인도하는 대신 거짓이 악으로 인도했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해준 표현이다. 이럴 경우 그 자체 구원이요, 교회와 천국을 구성하는 선함과 진리의 결합은 전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반대로 악과 거짓의 결합만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와 천국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할뿐이다. 그러므로 포도즙 틀을 짓밟는 것에 관한 전체적인 형상은 완전한 종말을 말하고 있다.

15

1. 8장에서 우리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에 관해 읽었다. 마지막 천사의 나팔소리를 제외한 나머지 나팔소리는 땅에 갓가지 재난을 가져왔다. 이제 요한이 말한다. “나는 또 크고 놀라운 다른 표시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분노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팔을 지닌 천사가 나팔을 불에 따라 악이 생산된 게 아니라 악들을 열어보인 것 뿐이라고 이미 살핀바 있다. 마치 법이 죄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해야할 것을 말하고 죄를 명백히 드러내게 해줄 뿐인 것과 같다 (로마서7:5이하참조). 법이 분노를 일으킨다고도 말해지고 있다 (로마서4:15). 이것은 본문에서 재앙들이 하나님의 분노로 채워져 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마지막 일곱 재앙의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처벌함이 아니라 폭로됨이다. 폭로되게 하는 것은 진리이다. “꾸짖어진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명백해진다” (에페소5:13). 악과 잘못된 폭로는 분노를 일으킨다. 분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녀 안에 있는 것이다. 외관과 일치하는 분노는 그것을 꾸짖은 것, 그것을 빛에 가져다 놓은 것의 원인이 된다. 이런 마지막 일곱 재앙들도 하나님의 분노로 채워져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낡고 퇴폐적인 것들이 끝을 맞이하도록 폭로하면서 새롭고 열매있는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여 완성되게 하고 있다.

2,3. 이런 특사가 출현하고 그들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사건 그 중간에서 마치 폭풍 구름의 짙은 틈새로부터 비치는 한줄기의 광선같이 보여지는 게 이 구절에 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숫자를 가지고 이름을

나타냈던 그 자를 이긴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거문고를 타며 하느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유리바다(sea of glass)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 구절의 모습은 과거 에집트를 빠져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추격해온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물리쳐 승리를 안겨다준 여호와께 감사하여 흥해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른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구절의 무리들도 과거 그들을 속박했고 박해했었던 강력하고 음험한 적들로부터 해방되는 승리의 사건을 축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집단은 이스라엘 백성 그 자신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적인 용은 영적 소돔과 에집트 도성 안에서 제국의 으뜸가는 권좌를 차지하고 있었다. 계시록의 이 부분과 이스라엘 역사의 부분에 유사점이 있다고 눈여겨본다면 의미 측면에서도 유사한 점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있으리라 본다. 그래서 전자로 표현된 것을 안다면 후자에 의해 의미된 것을 말하는데 어느 정도 확신 있으리라. 에집트에 있던 이스라엘은 속박된 상태의 교회를 표현했고 에집트는 그 교회를 노예로 부린 것을 표현했다.

참된 이스라엘은 선한 일 안에서 이타애와 믿음을 하나되게 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것만이 진짜 종교이다. 다시 말해 종교의 가르침이 심정과 지성, 그리고 생활에서 하나로 묶어진 것이다. 어떤 종교이든 이 세 가지를 분리하거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그것들 중의 이 것 하나, 또는 저 것 하나를 대체시킨다면 그 만큼 그 종교는 오류 투성이가 되고 만다. 에집트인이란 행함에 관계없이 지식 안에만 있어도 그것이 종교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표현한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고백할 경우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다. 이것은 신성하게 예견되었다. 이렇게 말해지기까지 하고 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차거워졌다는 것(마태24:12), 재림에서 사람의 아들은 땅에서, 즉 교회에서 믿음을 찾지 못하리라는 것이다(누가18:8).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있는 믿음도 없다. 사랑이 없고 믿음도 없으면 선한 일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취급되는 것은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교리이다. 용은 이 교리와 그 교리로부터 결과된 악을 상징한다. 용의 두 짐승은 그 교리를 떠받치는 수단들이다. 유리바다 위의 군중이란 이런 교리로 이룩된 믿음을 극복한 이들도이다. 이 승리를 위해 그들은 많은 고난을 통과했다. 그들의 고난은 바깥쪽 뿐만 아니라 안쪽에서도 있었다. 이런 완전한 해방 또는 승리는 영원한 세계로 가기 전에, 참으로 추수가 있기 전에 있어야 한다. 그 다음 그들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 유리바다, 마치 홍해바다같이 두 가지 양상으로 간주될는지 모른다. 홍해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파라오의 파멸이란 그림을 가지고 있다. 이런 두 가지 면모가 4장의

유리바다에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바다로 묘사되었다. 옥좌 앞에서 보여진 유리바다는 최말단 수준에 있는 새 천국을 의미한다. 최말단 수준이란 바다로 의미되는 것, 즉 일반적 지식 수준에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다. 두 가지 면모를 구분해 보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물벽 사이를 통과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본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그들이 바다 건너에서 그들을 추격했던 파라오의 군대가 익사하는 승리를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유리바다는 일반적 진리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단죄하는 진리, 궁극적으로 심판하는 진리까지 의미한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마치 파라오의 군대가 자연적 차원에서 죽었던 것과 같다. 유리바다가 지닌 의미가 이리하기에 여기서 말해지고 있기도 하다. 그 이유가 영적 사항에 관해 알고만 있는 이들, 겉보기에 그 지식의 소유자인 사람들, 그들은 심판 때에 가졌던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 이 바다는 불과 섞여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선함 없이 지식을 지닌 이들은 악 가운데 있는 경우가 된다. 그 이유가 그들은 불로 상징되는 자아사랑과 세상사랑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두 가지 사랑을 정복한 자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밟고 서 있는 군중들이다.

이런 두 사랑을 정복한 승리를 축하하고자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형식에 불과한 법이 아닌 실제의 법을 준수하는 이들, 그래서 수고함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교리 내지 그런 원리와 싸워왔던 이들이다. 따라서 이를 찬양하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는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율법과 복음의 하나됨은 그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분리되어 왔던 이 둘, 절대 화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왔던 이 두 가지가 한 개의 장엄한 조화 속에서 결합되어 있는 것은 그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이 노래의 본질이요 영혼이다. 이 두 가지는 알파와 오메가, 두 개의 보편적 원리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이룬다. 구속되는 복받은 본문의 군중이 모세를 노래하고 어린 양을 노래하는 것보다 더 확신을 주는 증거로 내보일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것은 군중들이 체험한 열매이고 그들의 애정과 지각의 표현이다. 그들은 삶에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주님 안에서, 그분의 법도 안에서 발견했다. 지금 그들은 거룩함 안에서 이 둘을 하나되게 하고 있다. 이 둘은 참된 교회의 모든 찬양과 감사에서 하나되어 있다. 모세를 하느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가 섬기는 하느님이 예수임을 인정하는 것 외에 더 다른 참된 예배는 없다. 악은 하느님께 반대되는 죄로서 알고 금하고 그분에게 일치하는 정의는 행하도록 하려는 신성한 목적을 율법이 섬길 때, 이것이 “하느님의 종 모세”이다. 예수를 신성한 인성 안에 계신 여호와로 예배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가 하느님 바로 그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노래의 주제는 우리의 시선을 더 끌어당기고 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성도들의 왕이시여 당신의 방법은 공정하고 참되십니다.” 창조와 섭리, 구속과 구원이라는 주님의 일, 그분의 창조물을 다루는 그분의 방법은 공정하고 참되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라는 변경될 수 없는 원리에 기초를 둔 실제적인 정부의 주체들이다. 주제에 관한 이런 일반적 관점은 군중의 노래에서 표현된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못한다. 주제가 거듭난 자에 의한 찬양이라고 더 높게 그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이 노래는 거듭난 사람의 체함이다. 거듭난 자의 찬양을 불러일으킨 신성한 일들은 특히 저 세계에서 그들을 새 피조물로 만드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천국적 상태, 천국적 장소로 들어올린다. 모든 하느님의 일의 대상이요 목적이기도 한 인간 영혼의 거듭남은 그 자체 “크고 놀라운” 일들이다. 사건의 원인부터 결과까지 들여다 보게되는 저 세계로 들어올려 질 때 우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 안으로 가져다 놓은 지혜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여기서 보다 훨씬 더 명백하게 보게된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느님의 권능 안으로 옮겨지는 지혜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해주는 주님의 방향, 이 세상에서는 희미하게 나타나겠지만 저 세상에서는 밝은 빛 안으로 가져다 놓여 그 방법이 모든 면모에서 “공정하고 참되다”는 것이 보여진다.

따라서 위의 정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이렇게 외친다. “주님,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시니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명백함을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사랑으로부터 뿜겨 오르는 두려움, 사랑되어야 함을 그르칠까봐 있어지는 두려움이다. 찬양함은 드높임이다. 사실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 “사랑으로부터 당신을 섬기지 않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진리로부터 당신을 찬양하지 않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이는 거룩함을 이룩해 왔던 이들밖에 누구도 고백할 수 없는 문장이다. 이 고백은 이성적으로 보는 진리의 차원이 아니라 거룩해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리의 차원이다. 이 고백은 자기들의 거룩함이 그분으로부터이요 그분의 것임을 심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아만을 떼어 들여다 본다면 모두 불경하다. 우리 속 모든 거룩함은 그분 속에 있는 것인 바 그분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한다.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모든 민족”이란 단순한 선 가운데 있는 이들, 마치 마음이 호의적인 이교도들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진리가 알려진다면 성의 있게 그 진리를 받는다. 주님의 진리는 명백함을 있게 하는 그분의 심판이다. 그 이유가 선과 악, 죄와 정의를 가름짓는게 진리이기

때문이다.

5. 승리한 집단을 보고 그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 요한이 말한다. “이런 일이 있는 뒤에 나는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는 구속된 자들의 노래로서 위 구절의 노래가 적합했다는 표시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 계명이 적혀진 돌 판은 성막과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신성한 법은 증거(testimony)라고 불렸다. 십계명이라는 법이 믿음만의 원리에 반대되는 법으로서 이 구절에 놓여져 있다. 성막의 성전은 닫혀져 왔었고 그 법은 감추어 놓였고 소홀시 되어 왔다. 이제 하나님의 법에 관해 명시해놓고 있다. 이 법이 제 위치를 찾은 것 뿐만 아니라 그 법의 내적 의미가 밝혀짐으로 성전이 열리고 있다. 밝혀진 내적 의미를 수단으로 그 법의 영성과 권능이 인간 구원을 위해 명백해지고 있다. 성전과 성막은 주님의 인성에 관한 예징(type)들이다. 증거판(testimony)은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예징이었다. 성전과 성막은 천국과 교회와 거듭나는 사람의 예징도 된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열려진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 이유가 모든 것이 명백히 될 때 주님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전과 성막은 다른 의미도 지니고 있다. 주님과 관련시켜 볼 때 성막은 그분의 사랑을, 성전은 그분의 지혜를 뜻한다. 천국과 관련해 생각하면 천적 수준과 영적 수준의 왕국(the celestial and the spiritual kingdom) 또는 가장 깊은 천국과 그 다음 깊은 천국(the inmost and the second heaven)을 뜻한다. 교회에 관련해서도 이와 같고 거듭나는 사람의 경우 성막은 새 의지를, 성전은 새 이해성이다. 증거의 성막의 성전은 거듭난 사람 안에서 보여질는지 모른다. 그 이유가 십계명이 그의 심정 안에 씌어져 그의 내향의 부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6 “그 성전으로부터는 재난을 하나씩 손에 든 일곱 천사가 나왔습니다.” 천사들은 주님께 의해 파견되었다. 그들은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표현하는 것에 의해 인간의 믿음과 생활을 테스트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심정과 지성의 상태를 교회의 두 본질, 즉 주님을 유일한 하느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계명에 따른 삶을 기본 교리로 삼아 열려 놓여있게 하는 것이다. “이 천사들은 깨끗하고 눈부신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모시옷이란 그들의 정의이고 금띠란 그들의 사랑이다. 법이 진리이고 실제로 사용한 진리가 정의이다. 법을 사랑하여 실제에 놓일 때 사랑은 진리와 정의를 묶는 띠(zone)이다.

7. “그 때에 네 생물 중 하나가 그 일곱 천사에게 금대접을 하나씩 주었는데, 거기에는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하느님의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옥좌 둘레에 있는 네 생물은 신성한 섭리이다.

이 섭리를 통해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말씀이 모독되는 것에서 지키신다. 그리고 이 섭리는 천국과 교회에 있는 신성의 목적과 작전(divine purpose and operation)이 진전되어 가는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것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올 수 밖에 없다. 그분은 사랑 자체요 지혜 자체이신 바 그분으로부터가 아니면 사랑과 지혜는 나올 수 없다. 이미 살핀바 같이 하느님의 뜻으로 돌려지고 있는 이 구절의 분노는 섭리에 반대되어있는 이들 위에 운행하는 하느님의 사랑이다.

8. 천사들이 대접을 받자 “그 성전은 하느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일곱 천사의 일곱 가지 재난이 다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연기는 마치 유대교의 성막과 성전에 주님이 군림하실 때 그곳을 채웠던 구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는 신성한 모든 영광에 있는 덮개, 마치 말씀의 글자적 의미가 그 속의 영적 의미를 덮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과 에집트 군대 사이에 놓였던 구름의 경우, 에집트 군대에는 어둠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을 주었듯이 이 구절의 신성한 영광의 연기는 재앙에 의해 어둠의 원인이 다 흩어질 때까지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되었다. 성전이 천국을 표현하는바 도장을 받았던 이들 까지도 중간 상태에 있는 악과 오류의 결합이 깨질 때까지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 이유가 악한 자가 내던져 질 때만이 선한 자가 승강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교회나 사람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천국과 교회, 천사와 인간 사이에 있어 왔던 장애물이 길 밖으로 놓여질 때까지 그들은 말씀 속의 내면의 진리로 들어갈 수 없었다. 위로부터 오는 빛과 영향력이 인간 마음 안으로 내려올 때까지 그들은 말씀의 영적 의미, 말씀의 참 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영적 대기권이 깨끗해져서 천국의 태양광선이 관통해서 땅 위 인간의 심정과 지성 안을 비추일 때까지 그들은 말씀의 영적 의미로 들어갈 수 없었다.

16

본 장은 대접을 쏟는 광경을 취급하는바 이와 관계되는 교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선 생각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는 앞의 일곱 나팔을 지닌 천사들을 뒤따르면서 그들이 했던 일을 완성하고 있다. 나팔소리와 대접을 쏟는 것 모두는 일반적 심판이 선포된 영계에 있는 이들의 상태를 검색하여 까벌려 놓은 것을 묘사하고 있다. 상징 자체가 암시하는바대로 대접을 쏟는 것은 나팔소리가 있었을때보다 더 자세히 검색하고 더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팔소리는 그들이 행동했던 것들의 상태와 품성을 들추어 냈다. 그리고 대접을 쏟는 것은 그들을 덮어주고 있던 그럴싸한 껍치레인 그들의 미덕과 총명을 제거했다. 나팔소리와 대접을 쏟는 것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데 이는 마지막을 제외한 모든 대접들이 나팔소리로 흔들렸던 똑같은 대상물, 즉 땅, 바다, 샘, 유프라테스, 짐승의 좌석, 해라는 것들에 쏟아졌다든 사실로 확실해진다. 그런데 일곱째 대접은 공중에 쏟아졌다. 이 결과는 일곱째 나팔소리가 울림에 이은 결과와 매우 다르다. 재앙의 위 두 시리즈는 과거 모세가 에집트인들에게 가져다 준 심판,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주민에 가져다 준 것들과 비교될 수 있다. 이 두 재난의 시리즈 사이에는 광야여행이라는 오랜 간격이 있다. 계시록에도 이와 유사한게 있다. 이스라엘로 표현된 교회가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먹여 살려졌다. 교회를 표현한 여인은 뱀의 면전에서부터 삼 년 반 동안 광야에서 먹여 살려졌다.

일곱 나팔을 지닌 천사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설명할 때와도 같이 일곱 대접을 쏟는 주제에서도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예언의 이 부분에서는 요점을 살피는데 그치려본다. 나팔소리가 울림으로 야기되는 재난과 대접을 쏟음으로 야기된 재난을 비교해 생각한다면 서로 사이의 구분되는 품성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1.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다 마무리 될 때 까지는 열려 있는 성전에 들어 갈 자는 아무도 없다고 서술한 요한은 이렇게 더 말하고 있다. “나는 또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일곱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천사들이 나온 성전은 천국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 즉 가장 깊은 천국, 주님이 그분의 신성한 법과 말씀 안에서 그분의 거룩함으로 계시는 그 곳이다. 그러므로 대접을 쏟음으로 나타낸 검색작전은 주님의 인성의 성전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법으로부터 진행된다. 이 법에 의거 모든 사람은 심리되고 심판된다. 일곱 천사에게 각자 지닌 대접을 쏟으라고 한 그 땅이란 교회를 뜻하는 일반적 이름이다. 이 교회의 상태가 더 충분히 영글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을 구성했던 요소로 환원된다. 대접을 쏟음이란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진리가 바깥쪽으로 쏟아짐을

의미하듯, 교회 또는 교인의 마음이 지닌 다양한 자질, 상태, 원리들이 대접이 쏟아지는 땅으로 의미되고 있다. 그럼에도 더 특별하게 의미되는 교회가 이제 예언의 아래 부분들에서 취급되고 있다.

2. “첫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낙인을 받은 자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한 자들에게 끔찍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우박과 불덩어리가 피범벅이 되어서 땅에 던져져 땅의 삼분의 일이 타고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탔으며 푸른 풀이 모두 타버렸다. 이는 악한 사랑과 하나된 거짓 설득력이 불로 범벅된 우박으로 의미되고 나무로 의미된 선함과 진리가 타버리고, 푸른 풀로 의미된 믿음 안의 생명있는 모든 것이 타버리는 교회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대접을 쏟았을 때는 나무들을 태워버린게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기만 했다. 이 사람들이란 인간 본성을 구성하는 의지와 지성이라는 자질을 뜻한다. 그리고 그 본성에 끔찍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 이 종기란 죄지어 끔찍한 악과 거짓이 마음의 내면에 숨겨져 있다가 발각되어 돌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의지와 이해성의 썩은 상태를 암시하고 있다.

3.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었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바다는 피가 되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었다. 이는 진리의 거짓화가 더 완전하고 더 깊은 상태임을 표현한 것이다. 그 이유가 피를 뿌림은 진리에 폭력을 휘두르는 것, 진리로부터 선함이라는 생명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썩은 피인 죽은 자의 피란 진리에서 선함의 생명을 강탈한 것 뿐 아니라 악의 생명을 수단으로 진리를 모독하고 썩게 한 것까지 뜻한다. 말씀속의 진리, 그리고 말씀에서 파생된 그대로의 교회 속의 진리가 타락된 심정의 악들로해서 썩어질 때, 또는 말씀 속의 진리가 오류투성이의 믿음 아래서 힘을 얻어 자라고 있을 경우 진리에 대한 모든 애정과 지각은 죽고 만다. 그 이유가 진리에 관한 지각이나 애정이 바다에 있는 생물로 의미되는바 바다가 죽은 자의 피로 이루어지면 모두 죽기 때문이다.

4-7.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강과 샘들이 쓴 물이 되었고 많은 사람이 이 물을 마시고 죽었다. “세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검색되어 명백해진 것보다 거짓과 악이 더 깊은 상태라는 것을 말해준다. 악한 자의 결과가 이제 발견된다. “그리고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이렇게 심판을 하시니 당신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당신은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과연 이 심판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제단으로부터 ‘웁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올바르십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은 말씀 속의 진리들을 의미하고 물의 천사란 말씀의 영적 의미(spiritual sense)를, 제단에서 나오는 천사란 말씀의 천적 의미(celestial sense)를 상징하고 있다. 또는 이 둘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두 천사는 주님의 영적 왕국과 천적 왕국(the Lord's spiritual and celestial kingdom)을 표현한다. 물의 천사는 주님을 정의로우신 분 또는 공정하신 분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정의 또는 공정은 주님의 신성한 사랑 또는 선함을 표현하고 있다. 정의는 그분의 선함에 근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천사는 그분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 이유는 이 표현이 무한성과 영원성을 서술하고,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그분은 자존하신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이름이 여호와이신 그분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그분을 두고 말할 때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거룩한 분”이라 한다. 공정이 신성한 사랑 또는 선함 측면을 표현하는 한편 거룩함은 신성한 지혜 또는 진리 측면을 표현한다. 이 두 속성은 이미 살핀바 같이 신성한 심판에서 하나되어 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정의와 거룩함을 그분의 것으로 돌리는데 그 이유가 그분께서는 그렇게 판결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뿌렸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시라고 피를 주었다. 그 이유가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성도란 거룩한 생활을 영위한 이들이다. 예언자란 거룩한 진리들을 가르치는 이들이다. 이를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은 거룩함과 진리를 뜻한다. 성도들과 예언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은 거룩한 것을 모독하고 스스로 그것을 뒤엎었다는 것이다. 불성실한 자가 거룩한 것을 스스로 모독하고 뒤집었다면 그들이 모독하고 뒤집어 놓은 것 밖에 가져갈 게 또 있을까? 복주시는 구세주께서 그들 마음에서 솟어나 흐르게 하는 진리의 샘과 강이 피로 변했는데 마실 것이라곤 피 밖에 무엇이 더 있을까? 불성실한 자는 이외 더 바랄게 없다. 그들은 자기들에게도 지긋지긋한 그 물을 마셔야 한다. 그게 그들에게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받을 당연한 보답이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행함인바 그와 달리 그들은 뜻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 그들은 참혹한 체험의 저자이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주님은 정의로우시다”는 것이 물의 천사에 의해 고백되고 있다. 글자적 의미에서 볼 때 본문의 처벌은 하느님께서 가한 처벌, 유대교회의 보복의 법칙에 의거 가해진 처벌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살핀바 같이 이 법은 신성한 질서가 일시적이고 자연적 수준에서 명백해진 것에 불과하다. 이 영원한 법에 의하면 선과 악은 그것을 행한 이들의 가슴에로 되돌아간다. 어느 다른 신성한 법같이 이것도 사랑에 근원을 두고

지혜로 작동된다. 그래서 제단에서 나온 천사는 물의 천사의 증거를 확증하고 있다. 진리의 영광 사랑의 영 모두가 주님은 그분의 심판에서 참되고 공정하시다고 선포하고 있다.

8.9. “네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그 결과 해는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몹시 뜨거운 열이 사람들을 지져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하느님을 찬양하기는 커녕 그 재난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느님의 이름을 저주하였습니다.” 이는 넷째 천사의 나팔소리에 이어 나타난 재앙보다 더 심한 결과이다. 해, 달, 별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고 낮과 밤의 삼분의 일이 빛을 내지 못했다. 이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타격을 주지 않았지만 이 구절에서는 불로 지지고 있다. 해는 사랑의 상징물이다. 이 대접을 쏟음으로 사람들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들 사이에서 찾아지는지를 심리 받았다. 그러나 이 두 사랑대신 발견된 것은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이었다. 이 사랑은 인간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고 인간을 지져댄다. 이 사랑은 참된 인간에 속하는 모든 것을 살리었앤다. 결과적으로 이 사랑은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도록 인간을 꺾어간다. 그 이유가 자아사랑은 신성한 사랑을 미워함, 신성한 진리를 더럽힘, 이 두 가지 결과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자아사랑의 불은 심정을 죄로 불사르고 양심을 그을리게해서 심정과 양심을 대단히 무감각하게 만들어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심판자요 구세주되시는 분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회개하려는 것을 거절케 하고야 만다.

10.11.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짐승이 앉은 자리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나라가 어둠의 세계로 변화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고통과 쓰라림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저주하였습니다.” 다섯째 나팔소리의 결과는 이 구절과 다른 듯 보인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끝없이 깊은 구렁이 열렸고 메뚜기 군단이 그 곳으로부터 출현했다. 어쨌든 실지의 차이점은 없다. 메뚜기의 왕과 군대는 용과 그의 부하의 선구자이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발달되는 각기 다른 단계, 명백히 드러나는 형체에서 각기 다른 형체일 뿐이다. 구렁이로부터 출현한 메뚜기는 악한 의도에서 진행되어지는 거짓 생각의 표시이다. 악한 의도는 거짓 설득력의 시작과 근원에 해당된다. 그들이 표현해준 거짓 설득이 지금 그 자체 건설되어 교회를 통치하고 인간의 마음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이 구절에서 거짓 설득력을 표현한 게 짐승인데 이 짐승이 왕국과 보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 천사들이 대접을 쏟고 있다. 짐승의 자리, 즉 중심되는 원리가 이제 신성한 진리의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그 결과가 기술된 것이다. 그의 왕국은 어둠으로 짝 차게 된다. 짐승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상징한다고 이해할 때 그 짐승의 자리에

대접을 쏟음으로 그의 왕국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상적 모양으로 말한다. 이 교리 안에 감추었던 품성이 적나니해지면 진리의 빛은 하나도 없고 오류의 어둠으로 짙 채워진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것이 그 교리로 삶을 확증한 이들의 상태이다. 이 상태는 진리를 몹시 싫어하고 진리를 뒤집겠다는 쪽으로 흥분된다. 이것이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고 쓰라림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저주하는 것으로 의미되어 있다. 태양의 광선이 병든 눈에 고통을 주듯이 진리의 빛은 무질서한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마음이 잘못을 뉘우치거나 하느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회개는 죄가 면제되는데 허등 쓸모가 없다고 가르쳐져 있었다.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를 위해 용서되어진다. 회개는 의로워짐에 뒤이어 계속된다. 그러나 의로움을 보증할 힘은 없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이 믿음의 뿌리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것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 때 빛으로 가져와진다.

12. “여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유프라테스라는 큰 강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려되었습니다.” 여섯째 천사의 나팔소리는 유프라테스강에 매여 있던 네 천사를 풀어주었다. 여기서 유프라테스강의 물이 말라버렸다. 전자에서는 자연적 이성의 본성과 경향성이 묘사되었는데 후자에서는 그 이성의 제거가 표현되었다. 유프라테스는 이성(reason)을 상징한다. 이 강이 낙원의 네 강물 중의 하나일 경우 그것은 하느님의 지혜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파생되고 행동도 하는 인간의 이성을 상징한다. 그러나 타락 이래 인간의 이성은 하느님의 지혜와 자연스럽게 반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자연적 경향성에 몰입하게 하는 어떤 독단적 주장(dogma)을 옹호하는 쪽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모든 잘못, 오류는 자아 탐구에 양심마저 합세하기를 바라는 가운데 직접적이든 덜 직접적이든 그 원인을 두고 있다. 이것이 죄이기도 하다. 오류를 옹호하는 곳에 하느님의 진리가 방문하게 되면 그것들은 자체 안에 건전한 이성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된다. 위대하고 당당하게 흐르던 강물이 바짝 말라있는 것이다.

강물이 말라버림으로써 동쪽의 왕들의 길이 마려되었다. 거짓 추론을 제거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가 이해성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길이 트인 것이다. 왕이란 진리의 상징물이다. 동쪽, 해돋는 쪽이란 정의의 태양으로서의 주님이시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새 교회의 시작이 동쪽의 왕들로 의미되고 있다. 그 이유가 태양이 떠오름은 아침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침은 주님의 강림, 지상에서 그분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 참으로 이런 역사는 장애물의 제거로 결과된다. 이 결과 교인들은 진리를 영접할 준비를 하게 된다. 이는 정직한 심정이라는

옥토를 지닌 이들을 수단으로 한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럴싸한 추론의 설득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유프라테스강이 아시리아로부터 동쪽의 가나안 지역을 갈라 놓았었는데 그 강물이 말라버림으로 아시리아로부터 거룩한 땅으로 진입하는 길이 마련되었듯이 왜곡된 추론의 제거는 올바른 추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로 들어가게 해주는 길이 트이게 한다.

13-16. 어쨌든 위와같은 경우는 오류투성이에 있는 자신을 내면적 추론으로 확증해버린 이들,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교리로 자신을 너무 깊이 확증해놓고 있는 이들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이다. 그들의 왜곡된 추론이 노출되면 그것들에 적대감이 일어나 또 다른 추론을 일으켜 이를 수단으로 진리에 반대하고 자기 논리를 옹호한다. “나는 또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은 더러운 악령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구리는 추론의 상징물이다. 용이 신성을 갈라놓은 교리와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원리의 상징물이었는데 이제 제 뜻을 실현하고자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 원리를 지지한 자들이 참된 믿음과 그 믿음을 지키려는 이들에 대하여 봉기하는 표시이다. 이들은 악마들의 영이라 말해지고 있다. 이는 그들의 추론이 악에 근원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들이 기적을 행하나 그것은 사기쳐 놀라게 하는 것일 뿐이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을 위해서 땅의 왕들과 온 세계의 왕들을 모으려고 나간 자들입니다.” 땅의 왕과 세상의 왕은 동쪽으로부터 오는 왕들과 품성이 반대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들은 진리와 정의의 나라에 반대하도록 용에 의해 고용된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이란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발표가 있다. “보라 나는 도적같이 온다.” 오심에 관한 본성을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오심은 인물의 오심, 자연적 차원의 오심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오심이라는 것은 이미 살핀바 있다. 여기서 부분적이지만 그분의 오심이 소개된 것은 시련의 날에 보호를 입증하는 진리와 정의를 꼭 붙잡고 있으면서 경계하라고 인간에게 권유하려는데 있다. 그 이유가 “벌거벗고 다니는 부끄러운 꼴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용을 정복하는 최강의 힘이 있으시다. 설사 그 용이 “히브리말로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땅의 왕들을 다 모았을” 때의 세력까지도 정복하신다. 하르마게돈(Armageddon)이란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는 없다. 므기도(Megiddo)와 므기돈(Megiddon), 이로부터 위 이름이 형성되었는데 이곳은 몇번의 피비린내나는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여기서 시스라가 대패했고 선왕 요시아가 패한 곳이다. 비평가들은 단어 하르마게돈의 의미에 관해 서로 일치할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계시록 풀이]의 저자는 더 높은 것, 영적 생각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 “천국에서 하르마게돈은 명예욕, 지배욕을

의미한다. 히브리어에서 아람(Aram or Arom)은 드높음(loftiness)을 뜻한다. 고대 히브리어, 아라비아어 처럼 므기또는 마음의 드높음으로부터 진행되는 사랑을 뜻한다. 이와 똑같은 의미가 즈가리야 12장 11절, "므기또 골짜기의 하닷림몬"으로도 의미되고 있다. 이곳에서 치뤄진 전투의 본성은 충분히 파악된다. 이는 옛 것과 새 것 사이의 싸움,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서 그분을 영접하고 따르는 이들과 이를 거절하고 악과 오류에 남아 있는 이들 사이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이 전투는 둘째 강림의 교회에 있는 빛과 첫째 강림의 교회를 침공한 어둠 사이에서 치뤄진다. 오류는 그것을 채택하는 마음에서는 짝 달라 붙어있다. 그리고 필사적인 투쟁없이 고착된 상태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용, 짐승, 거짓 예언자들로 상징화된 원리 또는 독단적 주장과 동쪽의 왕들로 의미된 진리들 사이의 싸움은 길고도 격렬하다. 이는 몸체라는 교회 측면 뿐만 아니라 교인이라는 개인 측면에서도 길고도 격렬한 싸움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마음 속의 하르마게돈은 옛 설득력과 새 믿음 사이에 벌어지는 내향의 싸움이다. 모든 사람은 의로운 자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만에 의해 살고 싶어한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되 더 지름길인 불레셋 지역을 통과하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라는 길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그것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정복하는 이들에게 있어지는 싸움, 슬픔, 위로 등등이 즈가리야서에 이렇게 기술되고 있다. "그 날이 오면, 내가 몸소 나서서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못 민족을 멸하리라. 내가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용서를 빌 마음을 품게 하리니 그들은 내 가슴을 찢어 아프게 한 일을 외아들이나 맏아들이라도 잃은 듯이 슬퍼하며 곡하리라. 그 날이 오면, 므기또 골짜기 하닷림몬에서 처럼 예루살렘에 곡성이 터질 것이다...그날이 오면, 샘이 터져 다윗가문과 예루살렘성민들의 죄와 때를 씻어주리라" (12:9-11,13:1). 이 예언은 육으로 오시는 주님과 관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똑같은 상태가 영으로 오시는 주님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이런 차이는 있다. 둘째 강림의 날에 있는 싸움은 첫 강림 때의 싸움보다 더 격렬하다는 것이다. 첫 강림 때의 전투는 므기또이지만 둘째 강림 때의 전투는 하르마게돈이다. 기독교회는 유대교회가 추락했을 때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추락했다. 교회가 더 밝은 빛에서 이탈할수록 더 큰 어둠이 드리운다. 선이 더 순수해지면 악한 자는 더 거칠어진다. 본 장에서는 하르마게돈에서 전투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단지 용의 군대가 거기 집합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싸움의 결과로 서술되는 부분이 19장 19-21절에 있다. 거기서 짐승과 땅의 왕과 그들의 군대가 압도당하는 것을 살필 것이다.

17,18.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공중에다 쏟았습니다. 그러자 '다 되었다' 하는 큰 소리가 성전 안에 있는 옥좌로부터 울려 나왔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큰 소리가 나며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이래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소리가 일곱째의 대접을 쏟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이유가 소리는 어차피 공기를 매체로 전달되는바 일곱 번의 모든 나팔소리 역시 공중에 쏟아지는 격에 해당되므로 특별히 구분지어 말해질 수 없는 연유에서이다. 어쨌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일곱째의 것들은 존재하는 사물의 상태의 마지막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일곱째 나팔이 쏟아진 공기란 인간의 생각을 상징한다. 태양 다음으로 공기는 자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이 생각은 애정 다음으로 인간 본성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생각을 통해 애정은 마음 속의 모든 자질과 힘을 작동시키고 활성화한다. 폐와 몸의 관계와 같은 것이 지성과 마음이다. 숨쉬는 것이 전자에 해당된다면 생각은 후자라고 할 수 있다. 생각은 모든 것에 고루 미치고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접이 공중에 쏟아졌다는 것은 신성한 진리의 행동이 교회의 모든 것, 마음의 모든 것 안에 즉각 있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일곱째 천사가 공중에 그의 대접을 쏟았을 때, “다 되었다” 라는 큰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다. 모든 상태가 명백해진다는 것은 끝이 충만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이런 끝장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다. 이 소리에 뒤이어 큰 소리와 번개와 천둥이 울렸다. 이는 모든 것이 전복됨을 뜻한다. 이것이 특별히 지진으로, 앞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것보다 더 크다고 말해진 것이다. 이런 때를 예견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이런 지진은 세상의 시작, 즉 교회의 시작 이래 결코 있지 않았고, 결코 있지 않게 될 환난이라고 말하셨다.

19-21. 이 지진은 대단해서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모든 나라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섬들은 도망을 가고 산들은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난이 너무나 심해서 하느님을 저주하였습니다.” 큰 도성과 모든 나라의 도시들이란 진리와 선, 또는 믿음과 이타애에 관한 교리들이다.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도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의 교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파멸된다는 말이다. 섬들이 도망을 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은 마음 속의 진리와 사랑 속의 선 모두가 떠난다는 것, 이에 이어 우박으로 의미된 파괴적인 오류와 거짓들이 있게 된다. 우박 한 개의 무게는 한 달란트이다. 가장 무거운 은전(silver)의 무게 단어가 가장 큰 거짓을 상징하기 위해 고용되고 있다.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느님을 저주했다. 우박은 그들의 극악한 오류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모독의 근원이고 진리의 근원인 말씀은 왜곡되게 한 근원이다. 이런 소요와 뒤집힘 중간에 “하느님께서 그 큰 도성 바빌론을 잊지 않으시고 그 도성에게 당신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곧 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주제와 이 구절 사이에 명확한 연결은 없다해도 언어 자체는 관련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큰 도시가 조각이 나고 도성들이 무너질 때 큰 바빌론이 하느님의 기억 안으로 왔다.

에집트와 바빌론은 포로로 잡혀있게 되었던 두 지역이다. 전자는 이스라엘 후손으로서, 후자는 유다의 후손으로서 포로가 되었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은 교회가 자기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 두 원리들을 표현한다. 먼저 오류(error)가, 그 다음 악(evil)의 원리 아래 있게 된다. 먼저 왜곡된 과학, 그 다음 자아찬양 아래 있게 된다. 초기 교회의 내리막길은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시작되어 바벨탑을 건립함으로 끝을 냈다. 이스라엘 교회는 에집트에 억류됨으로 시작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끝을 냈다. 기독교회는 아타나시안 신조(Athanasian Creed)로 시작해서 천주교(popery)의 건설로 끝을 냈다. 하강을 위한 이 교회의 첫 큰 단계는 에집트, 또는 왜곡된 신학적 과학이었고 둘째 단계는 바빌론 또는 보편적 지배를 탈취한 것이다. 개혁교(Reformation)는 초기 기독교의 신앙을 회복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교회(the church)를 아타나시안 신조로 되돌아가게 하되 대속함의 오류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오류(salvation by faith in substitutional atonement)를 더 보탤 뿐이다. 거짓 과학과 이기적인 지배라는 두 원리가 체현된 이 두 신조는 서로 친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전자가 명백해지면 후자를 기억나게 한다. 이 기억함은 두 신조의 상태와 품성에 관한 서곡일 뿐인데 그 상태와 품성이 다음 두 장의 주제이다.

17

이 장과 다음 장은 바빌론을 취급한다. 바빌론은 계시록 예언의 중요한 주제중 하나이다. 바빌론의 특성이 본 장에서 더 특별히 취급되고 있는데 바빌론의 패망과 황폐해짐은 다음 장에 기술되고 있다. 이런 것에 관한 세부항목에 들어가기 전에 예견자는 위대한 바빌론에 관한 것을주고 있는바 바빌론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을 우선 조사해보는 것이 유용할 것 같다. 이 사항은 성경의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서도 취급되고 있다. 비록 바빌론에 관한 것을 어떤 특정한 종교 단체를 지목해 굳이 적용해 보지 않는다 해도 바빌론 식의 원리는 모든 종교적 공동체, 모든 각 개인에 이르기까지 널리 해당된다. 그 이유가 하느님의 말씀은 원리들을 다루기 때문이고

개인이나 공동체에 적용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원리를 응용했느냐에 비례해서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바빌론이 의미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살펴야 할 것이다. 성경에서 바빌론 또는 바벨이 등장하는 첫 구절은 그것의 품성을 알아보는데 손쉽게 해 준다. 홍수 이후 머지 않아 사람들이 불어났고 온 땅은 한가지 언어를 사용했다. 그들은 도시를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탑을 쌓고 있었다. 이런 일의 목적은 그들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려는데 있었다. 이런 그들의 시도가 전능하신 분에 의해 판단된 바 그것은 자이만의 신뢰와 자아 드높임이 명백해진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영적 자만과 지배욕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 이유가 이 사건은 글자에 속하는게 아니라 거룩한 역사의 비유시대에 속하기 때문이다. 시날 지방 사람들의 꿈과 하란 지방에서 야곱의 꿈은 그 취지나 의미에서 그 얼마나 다른지! 시날 지방 사람의 꿈은 솟구친 탑을 수단으로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자신을 들어올리는 것이었다. 야곱의 꿈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가게 하는 사다리를 수단으로 승강하는 것이었다. 시날 지방 사람의 경로에서 들려온 것이 있다. 그것은 루시퍼(Lucifer)의 발자국 소리, 가장 높은 분 같이 되려고 하느님의 별 위로 자기 자리를 드높이려고 하늘로 승강하겠다는 그의 포부이다. 야곱의 경로에서는 천사들의 발자국 소리이다. 이들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영들을 보살피고 있다. 그들은 인간의 생각과 애정이 하느님께 오르도록 해서 하느님의 선물이 인간에게 내려오게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바벨의 탑은 사실 모든 우상 중의 최악에 해당되는 우상, 즉 자아를 숭배함을 상징한다. 자아사랑(self-love)은 하느님을 사랑함에 정면 대치되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종교의 영에 직접 반대되는 사랑이다. 그럼에도 이 사랑은 자아의 목적을 에워싸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종교 안에서 발견된다. 자아사랑은 인간 생활의 모든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바빌론 식의 원리는 모든 독재주의, 가정이나 사회, 국가나 교회주의의 근원이다. 독재주의(despotism)가 순전히 악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아니다. 독재는 무정부 상태와 전제주의 정치 중에서, 보존과 분해 중에서 택일하게 할 때 더 큰 악의 예방을 위해 덜 큰 악이 등장할 수 있는 경우 일 것이다. 다시 말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것을 택하는 것일 뿐이다. 때로 국가나 교회에 자유를 가져오는데 전제주의가 학교의 선생 같은 노릇도 한다. 이것은 바깥쪽에서라도 질서 유지와 그 질서에 종속되는 습관을 길러주어 외형상일지라도 질서 있게 한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질서와 자발적인 순종의 원리가 마음에서 성장할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전제주의의 세력이 자유주의에 흔히 반대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전제주의가 자유주의를 다시 압박할 경우 이것은 흔히 자유주의의 성장을 자극하는 수단이 될 경우가 많다. 이런 사항들은 성경이

그것을 취급하는 종교 생활의 일과나 교회에 있는 활동과 능력에 단지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다. 교회의 거룩한 것을 수단으로 지배권과 권력을 획득하는 이들이야말로 영적, 신비적인 바빌론이다.

자아 사랑과 자아 높임이 역사적 부분이든 예언적 부분에서이든 바빌론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아보는 것은 쉬울 것이다. 단 한군데의 인용으로도 바빌론이 표현한 악의 품성을 보여주는데 충분하다. “웬일이나, 너 새벽 여신의 아들 셋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던 네가 짝혀서 땅에 넘어지다니! 네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나의 보좌를 저 높은 하느님의 별들 위에 두고 신들의 회의장이 있는 저 북극 산에 자리 잡으리라. 나는 저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 가장 높이신 분처럼 되리라’”(이사야14:12-14). 참으로 위 구절은 역사적 측면의 바빌론, 대단한 권세와 화려함으로 일어섰던 바빌론에 관해 쓴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측면의 바빌론은 영적 바빌론 내지 예언적 측면의 바빌론에 관한 한가지 유형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 억류되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이 영적 교회의 유형들인 것과 같다. 유다 왕국이 정복되고 그 백성이 포로가 되는 것은 교회 원리를 지배하는 자아를 표현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의 불경한 잔치, 그가 성전에서 거룩하게만 사용해야 할 그릇을 가지고 우상을 찬양하여 마시는 그릇으로 모독되게 사용했을 때 같은 상황은 육적수준의 마음이 지닌 욕망과 열정을 채우기 위해 거룩한 것을 모독되게 사용한 형상을 표현한 것이다. 바벨탑의 높이가 극에 달했을 때 같이 바빌론의 불경함이 극에 오르자 벽에 나타난 손가락 글씨는 사악함이 언제나 자초하는 신성한 심판의 표시(sign)였다.

성경속에서 바빌론에 관한 또 다른 특출한 모양새가 우리의 시선을 끌게 한다. 그것은 이름 그 자체에*ti* 표현되는데 이를 살피려면 도시와 탑을 세우는 대목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주께 넘는 그들의 건축 산업을 중단시키고 야심 찬 그들의 의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섞으시고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러므로 해서 그것의 이름은 바벨, 또는 혼동(confusion)이라 불렸다. 영적 자만(pride)의 뿌리인 자아사랑이 종교라는 형태로 옷입고 거룩한 수단들로 해서 불경한 목적을 추구할 때 자아 사랑이라는 것은 이름 바벨이 함축한 것, 즉 혼동이 되어간다. 자아사랑, 그리고 이 사랑과 혈연관계 되는 세상사랑은 엄밀히 볼 때 그 자체로는 악이 아니다. 에덴에 있던 뱀의 경우,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속성에 국한되어 있을 경우라면 그것도 하느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뱀도 제 용도를 위해 쓰여지는 위치를 벗어나지 않으면 좋은 것에 해당된다. 제 각각의 위치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에 종속된 상태이다. 이것이 참된 질서이다. 이와 반대로 자아사랑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 위로 높여지고 이웃사랑이

세상사랑 아래로 내려가 서열이 뒤바뀔 때 무질서이고 질서 없는 바 이것이 혼동이다. 이것은 하느님의 질서에 거꾸로 이다. 신성한 질서가 인간행복의 법칙인바 거꾸로 된 법칙은 인간 재난의 법칙이 된다.

뒤집어진 질서는 분명한 표시가 있어도 자기 속성을 팔아 넘기지 않는다. 오히려 비참한 결과를 수단으로 더 자주 자기 속성을 명백히 드러내 보인다. 때로 참된 질서가 파괴되는 더 큰 외관을 보이게까지 한다. 교회 조직체들은 자유로운 구성체보다는 짓누르는 독재주의 아래에서 바깥쪽으로의 질서와 평온은 더 진열할는지 모른다. 권위가 더 명령적이고 훈련이 더 엄격하면 바깥쪽의 복종과 단합은 더 완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은 마음이 비굴할 정도로 복종하는 상태로부터 생기는 환경 아래에서나 가능할 뿐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존재한 교회 또는 종교적 처방이 타락할 때의 상태이다. 기독교회, 이 교회에 앞서 있었던 교회처럼 어둡고 수동적 시대를 가졌었고 교회적 독재주의의 건설로 끝을 내고 있다. 이런 결과는 피할 수 없다. 어쨌든 한 동안 그것도 유익한 대목이 있었다. 그것은 강한 손을 수단으로 하는 결합력이 선천적으로 없는 요소들을 한데 모았고, 자기 조절력을 상실한 이들의 바깥쪽 진출을 제한 시켰다. 이것은 더 이상의 자발적 회개가 없는 때에 참회를 강요했다. 이것은 더 이상 참된 헌신이 없는 때 겉치레의 경건심을 복돋았다. 그것은 종교적 신념이 없는 때에 종교적 설득을 인용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타애를 실시 않을 때 (자선의) 시혜(alms)들을 주었다. 그것은 더 이상 참된 결혼의 성분이 없는 때에 독신생활을 찬양했다.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인을 만들 수 없을 때 개종자들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 이런 등등은 두 번째 이하의 순위에 있을 덕행들인데 이것이 본질적으로 첫째가는 우수함이 결여된 곳에 공급되어 남녀들이 종교적 의무를 준행하게 만드는 동안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둘째가는 기초 위에 교회 도시를 세워갔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날리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성직자 계급 제도라는 탑을 세웠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의 조건이 불변하고 영속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인간 마음은 그것들 아래로 가리앉거나 위로 오른다. 종교는 한 때 타락을 경험하면 사멸되는 고통을 당하거나 거듭남을 획득하거나 해야한다. 다행스럽게도 하느님의 섭리는 악이 완전히 승리하거나 선이 완전히 실패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선과 악 사이의 균형(equilibrium)이 크게 상처받을 수는 있어도 그 능력을 깡그리 잃지 않는다. 신성한 권능은 간섭해야 할 최적기를 발견하고 균형(balance)을 회복한다. 간섭해야 할 때와 시기는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있다. 인간이 미처 생각지도 않는 때에 주님은 오신다. 이만하면 확고하다고 생각할 때가 심판의 때일 수가 많다.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노력하여

항구적인 자기 거주지를 만들었을 때,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자기 명성을 굳혔다고 할 때, 자기 업적이 훌륭하여 더 이상의 업적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장 위대해 졌다고 생각할 때, 이런 때에 그분이 오실는지 모른다. 도시가 완성되고 탑의 끝이 하늘에 닿는 듯 할 때 주님은 인간의 자손들이 이렇듯 세워 놓은 권세 있다는 구축물을 “보러 내려오신다.” 기독교회는 용서하기 위해 불경스럽게 모른 채 한 죄들을 장려했던 탐닉을 교부하는데 신성의 특권인 자비를 찬탈함으로 증가되는 교회의 암묵적 요구에 관을 씌워주었을 때 주님께서는 교회 조직으로 통치자의 탑을 쌓는 포부를 “보러 내려오신다.” 그분의 오심이 육체라는 형식 안에서 오시지 아니하고 침묵의 영향으로 권능의 영 안에서 오신다고 그것이 덜 참되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그분은 인간의 마음 안으로 내려오셔서 이해성을 계발해 주신다. 그들이 이런 빛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면 지극히 높은 분에 거슬러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드는 악과 오류의 어떤 것을 보게 된다. 이 빛의 광선은 다양한 시기에서 어둠을 통과하여 내려온다. 그리고 이 빛을 받는 마음을 관통하여 각 개인의 수고함 안에서 결실을 맺는다. 비록 열정적인 결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 결코 없다. 인간의 마음이 준비하고 있으면 차후 그 준비된 마음에 도움이 있어진다. 마음의 상태가 준비를 마무리 할 즈음이면 붙들고 있던 그 손에 능력이 와진다. 교회 단체, 이것이 진리와 사랑이 아닌 인간의 능력과 권위의 무게를 수단으로 생산되었다면 이는 지상에 존재할 수 있는 크나 큰 악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생명있는 종교의 존재가 의지하는 예배와 생각의 자유를 거두어 간다. 개인적 심판에 관한 원리가 대중의 힘을 얻고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대중들의 수중에 많이 입수된 것은 개혁교파 사람들을 승리로 이끈 값진 기회였다. 이것은 교회 제도적 권위가 저항할 수 없는 세력에 안착했다. 이 순간부터 로마의 무차별적인 공격력은 차단되었다. 그렇다고 완전히 압도당한 것은 아니고 힘이 약화된 것, 또는 그 힘에 있던 약점이 노출된 것이다. 개혁은 거듭남은 아니었다. 회복이란 단어조차도 그 교파에 적용되지 못했다. 옛 누룩을 일소해버리지 않았다. 교회의 순수성과 건전함을 회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찾아내고 받아들인 것들에 새 오류라는 양념이 첨가되었을 뿐이다.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교리가 추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혼동이 증가되었다. 그런데 이 혼동에 안전함도 있다. 서로간에 일치 않는 교파들 속의 요소들이 서로 맞서 행동한다. 그래서 서로 병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큰 해악을 감소시켜준다. 프로테스탄트 교파의 분열은 안전의 근원이 되고 선의 수단이다. 그것은 정제된 물이 썩는 현상을 방지하고 경쟁을 유발해준다. 종파는 서로의 악과 오류를 억제시키고 선한 일을 서로서로에게 불러일으킨다. 분파가 한데 모아진 것보다 더 낫다. 그것은 액체 속의 미립분자 같고 얼음 덩어리로 고정된 액체와 비슷하다.

로마교회가 개혁교회의 출현으로 받게 된 제지 사항(check)이 계시록의 이 두 장에 기술된 사건은 아니다. 그 이유가 개혁교는 소생된 것이지 새로운 창조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다시 죽어야 할 나자로의 부활 같은 것이다. 그것은 저무는 해를 뒤잇되 시계바늘을 뒤로 조금 되돌려 놓은 것과 비슷하다. 개혁교는 낮의 길이를 길게 했지만 그렇다고 밤의 도래를 막지 못했다. 온 교회를 마감하는 밤이 교회 처방의 완성이요 끝, 마지막 심판이다. 이 밤에 사람의 아들은 도적같이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으면서, 예상 못한 상태로 오신다. 이런 조건의 오심에서도 놀라지 않는 것은 불신앙자들, 인정치 않는 이들이다. 교회의 마지막, 교회 처방의 마감이 어떤 교회 조직체의 존재를 직접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은 영계에서 거행되는 사건인바 심판의 직접적인 결과는 영적이어서 보일 수 없다. 그 결과는 인간의 상태가 변화를 시작함으로써 바깥쪽 결과를 생산하고 그 모습을 밝히 드러낼 뿐이다. 새로운 계시가 만들어지고 그 영향이 행동을 시작한다. 그렇다고 기존의 병합된 작용보다 더 빠르고 더 폭넓은 것은 아니다. 옛 것이 새 것에 자리를 주게 된다. 이런 명령의 하달은 슬기롭고 복된 섭리의 영역이다. 똑같은 법칙이 모든 큰 영적 변화를 규제하고 조절해서 표본이 되는 교회 안에 자연적 큰 변화를 규율한다. 이스라엘 후손이 그들에게 상속분으로 허락된 땅으로 진입하고 심판이 그 땅의 민족들에 내려졌을 때 신성한 관관이시자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이 이렇게 말하셨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그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점차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 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야수가 들끓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신명기7:22). 인간에게 종속된 동물적 본성은 무엇이든지 성급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 설사 더 높고 더 완전한 통치력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도 그러하다. 점진적인 진보가 섭리의 법칙이자 자연계의 법칙이기도 하다. 참된 모든 발전은 주님의 일이고 서두를 때를 결정짓는 것도 그분의 일이다. 이제는 본문의 환상을 살피자.

1.2. 앞 경우에서와 같이 요한은 새로운 광경(scene)에로 안내되고 있다. “대접을 하나씩 가진 그 일곱 천사 중의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엄청난 탕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 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놀아났고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란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표현된 여인의 오염된 것, 그리고 오염의 품질은 결혼의 고결함과 처녀성의 순결함과 비교해봄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위 두 상태와 그것의 위반에 관하여는 성경에서 많이 거론되어 있다. 처녀와 결혼은 그 자체가 신성하다. 그 이유는 자연적이고 도덕적 수준의 결혼과 처녀는 영적이고 영원한 원리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눈으로 확인되는 외형적 제도로서의 결혼은 내향적 상태의 결혼이 생산한 결과 또는 형상이다.

내향의 결혼은 영적이고 영원한 원리인 선함과 진리의 하나됨인데 이것은 먼저 신성한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 그로부터 천사와 인간의 마음 안에 이루어진다. 이 천국적이고 영적인 결혼은 두 천국의 원리가 순수하게 보존됨 즉 두 원리의 하나됨이 결혼을 구성하지 않으면 존재 할 수 없다. 그래서 모세의 법이 음행과 간음을 강경하게 다루고, 예언자들이 종교적 부패나 영적 부패를 묘사할 때는 간음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진홍색 짐승을 탄 여인이 엄청난 탕녀의 뻘뻘스러움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여인이 바빌론이다. 우리는 여인을 발견하되 두 가지로 발견하는데 여기서는 부패된 도성과 추잡한 매춘부로, 이후 새 예루살렘에서는 도성과 정숙한 여인으로 발견된다. 여인은 모든 생명의 필수 요소인 애정(affection)을 상징한다. 교회가 지성 측면에서 말할 경우가 도성이고 심정 측면에서 말하면 여인이다. 여인 측면에서 볼 때 바빌론은 자아사랑을, 새 예루살렘은 주님사랑을 표현한다. 어떤 심정에서이든 자아사랑은 통치하는 애정이어서 바빌론 식의 여인이 즉위하여 앉아 있다. 그녀가 앉은 많은 물이 백성과 군중과 나라와 언어들이라고 15절에서 말하고 있다. 백성과 나라의 영적 생각들, 종교적 양상은 그 안에서 어떤 영감으로 간주된 것들이다. 다시 말해 교회내의 모든 종교들은 그것들이 진리를 올바르게 해석했든, 잘못 해석했든 말씀에서 파생되는바 말씀 속의 진리는 추상적으로 볼 때 여자가 앉은 물이고 그 물위에서 그녀가 통치한다. 나라들, 마찬가지로 땅의 왕과 주민들도 영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백성과 나라가 말씀 속의 진리이듯, 그것을 통치하는 왕이란 이끌어가고 규율하는 진리이다. 이것들은 자아사랑이 균형을 경우 부패되고 만다. 그 이유가 자아사랑은 모든 것, 설사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것이라해도 자기 목적에 따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목적이 이기적이면 그밖의 모든 것은 부패된다. 심정 안의 자아사랑은 이해성 안의 모든 진리를 자아 사랑의 이익을 위해 팔아 치우고 모든 생각까지 중독 시킨다.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술취함은 진리의 남용으로 생산된 지적으로 도취되는 것, 진리를 사용하되 이기적 탐닉을 위해 선용하지 않는 가운데 발생하는 지적 심취이다. 악은 진리를 거짓으로 변질시킨다. 이를 위해 악은 말씀의 가르침을 뒤집고 말씀의 순수한 포도주를 음행의 포도주로 바꾼다.

3. 요한에게 와서 보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영 가운데에서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진홍색 짐승을 탄 여자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뒤통에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히 적혀 있었고 머리 일곱에 뿔이 열 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와 아내를 보여주었던 천사는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 진홍색 여인을 요한에게 보여준 천사는 그를 광야로 데리고 갔다. 전자는 새 땅에서 엮고 후자는

옛 땅에서 었다. 바빌론 식의 교회는 광야에 있었다. 광야의 상태는 삭막함이다. 여인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천사는 말했는데 요한은 그녀가 진홍색 짐승 위에 앉은 것을 보았다. 이 두 모습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 듯 하다. 이미 살핀바같이 물은 말씀 속의 진리들이고 짐승은 말씀 자체를 표현한다. 환상에서 요한에 의해 보여진 주님은 백마를 타셨고 하늘의 군대가 그분을 뒤따르고 있었다. 여호와는 거룩을 타고 계셨다 (시편18:10).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타고 계신다. 이것이 그분을 그분의 교회에, 인간 마음에 더 가까워지게 한다. 말씀의 진리와 교리들은 구원의 말과 병거이다 (하박국3:8). 모든 교회마다 자기들의 근원이 성경(Bible)에 있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믿음과 희망의 바탕이 되는 것이 성경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성경은 각기 다른 마음에서 각기 다르다. 성경이 주님에 관련되면 빛나는 거룩이지만 진홍색 여인에 관련되면 머리 일곱에 뿔이 열 개라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가득 채운 짐승이다. 자기 야망을 위한 견해들과 이기적 이익에 하느님의 말씀을 종속시키려는 이들의 경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로 가득 채워진다. 그 이유가 말씀의 거룩한 진리가 모독되기 때문이고 이 모독이 성령모독이기 때문이다. 거룩들, 그것이 성경에 묘사된 그대로를 생각하면 네 머리를 가졌다. 그 이유가 거룩이 상징한 말씀은 인간의 각기 다른 상태, 선함과 진리를 위한 각자의 용량, 이 둘을 결합시키는 능력에 따른 각각의 사람에 알맞게 숙박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홍색의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지녔다. 여기에는 자연적 측면이 없는바 뿔의 숫자와 머리의 숫자 사이에는 신비한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 틀림없다. 상징적 의미에서 숫자는 헤아려진 사물의 품질을 표현한다. 머리는 지성 또는 지성에 속하는 것, 즉 지식, 총명, 진리에 속하는 것의 상징물이다. 머리의 뿔은 지적인 힘을 상징한다. 지식은 힘이다. 종교계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식은 선하든 악하든 힘이다. 말씀이 올바르게 이해되고 성실하게 응용된다면 말씀은 선을 위한 모든 힘이다. 그 이유가 그것은 신성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말씀이 잘못 해석되고 못된 것에 응용된다해도 말씀은 악을 위해서도 힘이 되어준다. 어느 누구도 정당한 수단으로 나쁜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를 존경하기 때문에 독단적 주장으로 구축해 놓은 것, 교훈으로 가르쳐진 것은 무엇이든 맹목적 믿음으로 수락하는 종교인들에게는 그릇된 해석과 비뚤 응용도 잘 먹혀들고 있다. 이것이 진홍색 짐승을 탄 여인으로 표현된 이들의 행동과 품성이다. 이기심의 상징물, 감각적 사랑의 상징물인 이 여자는 가장 정당한 수단에 의해서, 즉 지혜로 가득 차고 아름다움이 완전한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도 가장 더러운 목적을 달성해낸다. 불경한 목적을 위해 거룩한 진리가 사용될 때 이것이야말로 모독의 진짜 행동이다.

모독된 말씀의 거룩한 진리가 짐승의 일곱 머리이다. 이 머리의 열 뿔은 진리 안에 고유하게 있는 힘이다. 이 힘은 선한자뿐만 아니라 악한자도 발휘할수 있다. 9-12절에서 짐승의 머리는 산들이고 뿔은 왕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 설명에도 의미가 있는 바 차후 살핀다.

45. “이 여자는 자줏빛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고 있었으며 자기 음행에서 비롯된 흥측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히 담긴 금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는 ‘온 땅의 탕녀들과 흥측한 물건들의 어미인 대 바빌론, 비밀’이라는 이름이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징과 그 명칭은 이 주제를 얼마나 잘 예증하는지! 이름답지만 도덕적으로 오염된 창조물, 이것이 가장 우아스러운 의상을 차려 입고 가장 귀중한 보석으로 사치스럽게 번쩍거리고 있다. 사실 하느님께서 도덕적인 사랑스러움을 신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은 그것에 꼭 맞는 장식품을 가지고 있다. 바깥쪽 장식품은 순수함의 아름다움을 더 높여주는바, 저속한 인물도 이것으로 겉을 단장하기를 열렬히 바란다. 이런 원리는 인간 삶의 모든 것에 골고루 스며 있는데 종교라고 이것에서 예외는 아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있는 어디서든지 거짓은 참된 것과 우열을 겨룬다. 때로는 거짓된 것이 참된 것보다 바깥쪽을 치장하는데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 부분에서 더 우월할 때가 많다. 자연의 풍부함이 덕스러운 자이든 사악한 자에게든 공히 열려 놓여 있듯이 말씀 속의 보물도 성실한 자이든 불성실한 자이든 모두에게 열려 있다. 두 부류 모두 말씀의 빛나는 귀중한 진리들, 즉 자줏 빛과 진홍색 옷, 금과 보석과 진주들로 마음을 풍요하게 하고 잘 꾸밀는지 모른다. 바빌론의 부패된 딸도 예루살렘의 처녀 딸들을 장식한 아름다운 옷과 부유해 보이는 보석으로 치장할는지 모른다. 교회가 신성한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채용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대신 교회 자체의 이기적 드높임을 증진하는데 사용한다면 깊숙이 부패될 수 있다. 거룩한 것을 가지고 매춘 행위를 하는 모습이 에제키엘서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이렇게 말하신다. “너를 보석으로 단장하고 팔에는 팔찌를,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이마에 보석을 박아주고 귀에는 귀고리를 달아 주었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족두리를 씌워 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은패물로 단장하고 모시옷에, 비단옷에, 수놓은 옷을 입었다...그런데 너는 네 아름다움을 믿고 명성을 미끼삼아 몸을 팔았다...네 옷을 가져다가 산당 언덕에 색색으로 퍼놓고 그 위에서 몸을 팔았다...또 내가 몸을 장식하라고 준 금은 패물을 가져다가 사내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는 몸을 팔았다.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 형상들에 입혔다...또 네가 나에게 낳아 준 아들 딸 마저 끌어다가 그 형상들에게 제물로 잡아 바쳤다.” (16:11-20).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는 바빌론이 되어가거나, 유다가 바빌론에 포로가 되듯 하기도 한다. 그 이유가

바빌론에 포로가 됨은 선이 악에, 하느님 사랑이 자아사랑에 종속 당하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회는 하느님을 부르는 것, 예배되는 모든 것보다 자신을 드높인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성전에 자리잡고 앉아서 자신이 하느님이라고 보여준다” (데살로니가2:4). 이 교회의 손에 들린 신성한 지식의 금잔은 온갖 역겨운 것, 음란의 추잡함으로 가득 채워 있다. 신성한 사항들에 관한 지식은 잔에 불과한바 말씀의 순수한 진리이든, 섞음질된 진리이든, “핏빛 포도즙” (신명기32:14)이든, “거품이든 포도주”이든 (시편75:8) 어느 것으로든지 채워 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제 수중에 붙들고 있는 잔은 “위로의 잔” (예레미야 16:7)이 될 수 있고, “전율의 잔”이 될 수도 있고 (이사야51:17), “구원의 잔”이 될 수도 있고 (시편116:13), “황폐함의 잔” (에제키엘23:33)이 될 수도 있다. “바빌론은 한때 야훼의 손에 들린 금 술잔이 되어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었다. 그 술을 마시고 나서 온 세상이 실성을 하였었다” (예레미야51:7). 고대 바빌론이 온 땅을 도덕적으로 술 취하게 했듯이 근대의 바빌론은 온 교회를 영적으로 술취하게 만들었다. 근대 기독교파들은 각자의 왜곡된 견해와 야망적 계획의 포도주로 술취했다. 비록 그들이 여인의 피임을 받았다 해도 그녀의 속성이 명백히 쓰여 있고 돌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사기 당하지 않을 듯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바빌론 그 자체가 비밀(mystery)이다. 바빌론의 신비는 서로를 구분 짓는 수준에서의 이름이 아니라 바빌론의 품성을 설명해주고 표시해주는 수준에서의 이름의 의미를 알 때까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기독교의 해설자들이 예언의 이 부분을 어떤 특정한 교회 조직체에 적용하려고 시도했었다. 특히 서로 질타하는 두 큰 종파가 서로를 놓고 이를 상대방에 적용했었다.

바빌론이 부패된 상태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도록 의도되어 있을 리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유지되어 왔었다. 그 이유가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불실한 배우자로 매춘부가 아닌 간음부로 불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통칭은 한때 주님의 아내였었던 교회를 놓고 사용되고 있다. 뒤로 미끌어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읽어보자.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는 이미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너희 어머니의 지아버가 아니다. 그 얼굴에서 색욕을 지워버리고 그 젖가슴에서 정부를 떼어버리라고 하여라” (호세아2:2). 교회는 이런 죄 모두를 위반했는지 모른다. 그 이유가 그녀는 그들이 표현하는 두 가지 영적 악을 위반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영적 간음은 종교의 선을 모독하는 것이다. 영적 매춘은 종교의 진리를 모독하는 것이다. 영적 바빌론이 이 두 가지 모두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런데 그녀는 여기서 말씀의 진리를 모독한 자로서, 탕녀의 어머니, 세상의 왕들과 음란의 포도주를 마신 자로서 표현되고

있다. 그 이유가 탕녀, 왕, 포도주는 그것이 부패되고 모독되었든, 순수해있든 진리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는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을 살필 때, 주님과 그분의 재림 때의 교회와의 하나됨이 주님과 그분의 교회가 완전하고 충만된 결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같은 논리로 여기서 진홍색 짐승을 탄 여인에 적용하는 한 개의 통칭도 제한된 의미에서 이해될는지 모른다.

6. 바빌론의 품성이 그 이름만으로도 잘 표현되었는데 이제 행위로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의 피에 취해있었습니다.” 교회가 초기 시절에 박해로 고통받았었는데 이제는 그 교회 자신이 박해자가 되었다는 것은 진정한 사실이다.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이교도들도 심각한 처벌을 받을만한 범죄로 간주되어졌다. 바빌론 식의 원리는 이런 박해함을 명확하게 본보기화 하고 있다. 그들의 박해는 종교의 적을 향해 실시 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적이라고 생각된 이들을 겨냥해 실시되었다. 시악한 정교(orthodoxy)가 덕스러운 이교보다 훨씬 덜 범죄적이었다. 교회는 독점적 권리를 확고히 지키고 제 힘을 기르기 위해 교회의 권위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이런 목적을 위해 교회는 자유로운 모든 생각과 독립된 견해들을 밀쳐내는 쪽으로 시도해 나갔다. 박해함이 시대의 영과 일치할 수 있다고 말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영과도 일치될까? 그것은 복음의 가르침의 참 글자에 반대되었다. 종교적 박해는 교회의 부패함에서 튀어나온다. 그래서 자연적 차원에서 행동된 것은 그것이 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구성하는 표시이기도 하다. 교회는 성도를 만들고 순교자가 되게 하는 영적 원리들을 억누르고 스스로 뒤집었다. 성도를 만드는 것이 거룩함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 순교자를 만드는 것이 충성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 교회는 이런 덕행을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뒤엎었다. 그 여자는 가장 높은 거룩함을 바깥쪽 신성한 의무의 쓸모 없는 생명, 즉 헌신만이 연속되도록 만들었다. 마치 하느님께서 주님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 보다 제물을 바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듯, 마치 순종함이 제물보다 더 나은 게 아닌 듯 하게 만들었다. 그 여자는 이타애의 생명에 은혜를 입은 신성한 의무에 관한 포상으로 경건함의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거룩함이 형식적인 헌신을 계속하는데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것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의 피의 첫 번째에 해당된다. 이런 바깥쪽 박해는 내향의 결과밖에 더 아니다. 바깥쪽 행동들이 더 이상 참아지지 않을 때라해도 내향의 악들은 계속 죄를 저지르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런 것은 모든 교회인, 참 교회에서조차도 죄로 범해질는지 모른다. 그 이유가 자기 스스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원리를 뒤엎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도와 순교자의 피로 술취하기 때문이다. 참된

종교와 위 상태가 얼마나 대비되는지가 기록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은 순교자의 성도의 피로 취한 여인을 보았을 때 탄복하는 경이로움이 아니라 소스라쳐 놀람으로 쳐다보게 된 것이다.

7. 요한이 자기 앞에서 보여진 이 광경에 얼떨떨해 있을 때 하늘의 소리가 그를 불러서 그 비밀을 해명해주고 있다. “그 때 그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일곱에 뿔이 열 개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말해주마...’” 천사는 설명하려고 고백하는 비밀만큼이나 비밀스러운 언어 속의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펴놓고 있다. 이미 말했던 바, 여인이 탄 그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다는 것, 이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함으로 교회는 그 교회의 품성이 무엇이든 교의를 떠받치게 하고 교의가 실제화된 것을 정당하게 만든다. 이것이 짐승에 관한 천사의 설명 자체가 설명될 때 더 명확해 질 것이다.

8.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그것이 장차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겠지만 마침내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천지창조 때부터 생명의 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후에야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짐승을 보기 때문이다...” 짐승이 존재하고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있었고 있고 언제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썩게 한 교회에 관련해 볼 경우 말씀은 원래대로 있지 않는다. 그 이유가 말씀은 말씀 속의 진리를 알고 인정하여 정의로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패된 교회는 마치 불성실한 기독교인처럼 그들도 말씀은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나 동시에 말씀 없이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거룩한 책이라고 인정하고 받들어 모시지만 실제 응용에서는 그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모독한다.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을 경우 말씀이 처한 상황이 본문에서의 짐승의 상황들,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올라오고 마침내 멸망한다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말씀의 진리가 왜곡될 때 말씀은 끝없이 깊은 구렁 안에 있는 것이다. 말씀의 선이 섞임질 당할 때 말씀은 멸망한다. 끝없이 깊은 구렁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대양으로부터 그 의미를 갖고 있다. 멸망이란 파괴란 뜻이다. 교회의 하강에서 이런 단계들, 말씀을 이렇게 취급함에서 이런 단계도 그 결과를 가졌다. 기독교회가 하강의 첫 단계에 있는 동안 확정하지 못했던 의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평신도의 수중에 성경을 맡겨 놓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었다. 하강의 둘째 단계에서 소극적 자세가 확정된 사항이 되었다. 그리고 교회가 개혁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되었다. 이 교회가 성경을 읽는 행위를 어떤 의도가 있어서 금지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실제에서 그런 정도로 부정된 것이다. 예언의 언어에서 짐승은 깊은 구렁에서 올라와서

멸망하게 된다. 로마 교회는 자기들의 성경 해석은 유일하고 전혀 틀림없다고 주장했을뿐 아니라 교회의 결정 사항까지 성경의 가르침에 얹어 놓았다. 이 교회의 증거에 따르면 교회는 성경 전에 존재한 것이 된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의 주장이 성경에 종속될 수 있을까? 이렇게 교회가 높이 뜨는 가운데 그 교회의 함몰도 더 확실해지고 더 빨라졌다. 말씀은 교회에 대해 안내자일뿐 아니라 방어자이기도 하다. 교회가 자신을 말씀 위에 놓을 때 의무이자 안전한 길인 좁은 길을 이탈해서 파멸에 이르는 넓은 길로 진입하고자 한다. 교회 밑에 종속된 말씀이 정작 교회를 생존하게 한다고 교회가 알게 될 때 그 교회 자신은 의아해질 수밖에 없다. 이 교회의 끝이 와질 때, “땅 위에 살았던 그들은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그럼에도 존재하는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생명의 책에 적혀 있지 않았다).” “땅”이란 교회를 상징한다.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교인들이다. “세상” 역시 교회를 뜻한다. 세상의 기초가 놓였단 교회의 기초가 놓였다는 말이다. 그런데 세상의 기초가 있던 때부터 생명의 책에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것과 적혀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마치 이 구절의 언어는 선택받은 자와 영벌을 받는 영원한 칙령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거나 정당화하는 듯 비쳐질 수도 있다. 교회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생명의 책에 씌어진 이름 역시 예정되었다(preordination)는 논리를 찬조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교회의 기초가 놓인 때란 교회가 시작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시작될 때의 교회의 상태, 더 내적 의미로 말하면 교회의 기초가 된 원리들을 뜻한다. 사실 교회의 안전성은 교회 원리의 건전함에 달려 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생명의 책에 적혀 있지 않은 이름들이란 교회의 근본되는 원리와 일치 않는 품성, 즉 생명책에서 밝히 알게 한 근본되는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 않는 품성을 말한다. 교회 연보록에서 추앙받는 자리에 올라 있는 이름들이라고 해서 생명의 책에 적히는 것은 아니다. 주님을 찌른 자들도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보게 되듯 말씀의 권위를 짓밟은 이들도 권능과 영광 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리라.

9. 천사는 짐승의 비밀을 선포한 후 짐승의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있다.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타고 앉은 일곱 산이며 일곱 왕들이다.” 지혜를 지닌 마음이란 자연계와 영계사이에 놓여진 법칙,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사이에 창조되어 존재하는 어떤 관계에 관한 법, 즉 상응의 법칙으로 드러내짐으로 “계시, revelations, 밝히 앎”을 보는 마음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산들은 사랑과, 왕들은 지혜와 상응된다. 3절에서 살핀 바대로 짐승의 일곱 머리란 말씀으로부터 파생되는 지식과 총명을 상징하는 표현물이다.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선함과 진리밖에 더 없다. 다시 말해 사랑과 지혜, 이타애와 믿음 외에 더 가르치는 것은

없다. 말씀이 가르치는 선함과 진리라는 원리가 일곱 산과 일곱 왕으로 의미되고 있다. 성경에서 산은 사랑과 선함의 표현물이고 왕은 지혜와 진리의 표현물이다. 여인이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다. 처음에 여인은 많은 물 위에, 그 다음 진홍색의 짐승 위에, 그 다음 짐승의 머리인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다고 말해져 왔다. 이것은 교회의 계속적인 상태들을 묘사한 것이다. 처음에 교회는 말씀의 글자에 있는 단순한 진리들로 통치되고, 그 다음 말씀 자체로, 마지막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선과 진리를 넘어 통치된다는 말이다. 처음에 교회는 자기들이 말씀의 진정한 해석자라고 주장하고, 그 다음 자기들의 해석이야말로 독자적이고 빈틈없는 해석자라고 주장하고,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해석으로부터 선이 행해져야 하는 것, 진리로서 믿어져야 하는 것을 받아 적는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처음에는 주창만 했지만 그 다음에는 움켜쥐었는데 결국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

10. 이제 천사는 일곱 왕에 관한 비밀스런 말을 전달하고 있다. “그 중의 다섯은 넘어졌고 하나는 살아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왕이 나타나더라도 잠시 동안밖에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일곱 왕들이란 말씀 속에 있는 으뜸가는 거룩한 모든 진리들이다. 으뜸은 왕이, 거룩은 일곱이 뜻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다섯은 몰락되었다. 이런 상태에 관해 이사야가 말한 것이 있다. “공평은 뒤로 제쳐놓았고 정의는 얼씬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성실은 거리에서 짓밟혔고 정직은 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함이 종적을 감추고 악에서 발을 뺀 자가 도리어 약탈당하는 세상입니다” (59:14,15). 이들은 한 때 땅 위 하느님의 교회와 나라, 하느님의 도성이었던 거리에서 몰락했으나 이제 “큰 도성이 되었고, 이것이 지상의 왕들”을 통치하고 있다. 이것들이 교회의 진리들을 통치하고 있다. 아직 일곱 중의 하나는 살아있고 다른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넘어진 왕들이란 이웃에 관련된 진리들, 즉 정의와 공평, 정직을 가르치는 진리들이고 남아있는 진리란 주님에 관련된 진리들이다. 이 진리는 성경에서 제일가는 두 진리이다. 하나는 그분의 신성을 가르치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인성이 신성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진리, 즉 그리스도를 구세주 하느님으로 가르치는 진리, 그리스도는 천상천하의 모든 권세를 쥐시고 있다는 진리는 교회 안에 존재하고 언제나 인정되어 왔었다. 이 진리가 살아있는 한 명의 왕이다. 이것은 주님의 섭리 하에 있어서 이 신성한 진리는 결코 몰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진리에 교회의 모든 기초가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섭리적으로 신조(creed)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것은 니가야 종교회의이래 기독교 국가의 믿음을 형성했다. 그렇다고 이 신조가 주님의 인성이 신성하다는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신조는 예수가 하느님과 인간이라고 가르칠 뿐 예수가 하느님-인간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진리는 복음서에서 주님에

관련되는 진리 중 가장 높은 진리이다. 주님자신도 그분과 아버지가 동등함을 자주 표현하셨다. 이 진리아말로 교회가 아직도 명백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진리이다. 이것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 다른 하나의 왕이다. 물론 이 진리는 수많은 토론의 주제가 되어와서 이 진리에 관한 얼마간의 지식은 획득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잠시밖에 살지 못했다.” 이 진리에 관한 사상은 정착된 신학사상 사이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사라졌다. 아마 이 진리는 기독교 이전의 어떤 시대 때보다 기독교 믿음에서 더 멀어져 있다. 비록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교리를 보존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진리가 순수하게 보존되어 오지 않았다. 주님의 신성에 관한 참된 교리는 그분만에 속하는 유일한 신성이다. 그러나 두 개의 다른 신성한 인물과 함께 그분의 하나됨은 신성의 모든 층만이 육체적으로 거하는(골로사이2:9) 완전하고 참된 그분에 관한 신성,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히 찬양 받아야 할(로마9:5) 그분의 신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부패됨 외에도 이 진리는 모독되어왔다. 천상 천하에 있는 예수의 권능이 자기에게 수여되어 행사하도록 되었다고 불경하게 주창함으로 모독되고 말았다.

11. 비밀스런 천사의 설명중 또 다른 부분이 남아있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바로 그 여덟 번째 왕이다. 그 왕도 그 일곱 왕들과 동류로서 마침내는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이미 살핀 바대로 짐승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일곱 산과 일곱 왕은 말씀이 포함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선함과 진리에 관한 원리들이다. 그런데 여덟째이면서도 일곱인 짐승, 말씀에 관련해보건대, 그 의미는 무엇일까? 말씀은 선함과 진리의 샘이다. 샘은 거기로부터 흘러나온 시냇가에 있다. 태양은 열과 빛의 샘으로서 태양에서부터 진행되는 모든 광선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태양은 광선 그 이상의 존재이다. 그리고 광선들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와 같이 선함과 진리의 샘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부터 근원되는 모든 선과 진리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말씀은 그것들 모두와 구분되고 그것들 위에 존재한다. 말씀이 자기 자체를 묘사하는 비밀스런 언어에서 말씀은 여덟 번째인데도 일곱에 속하는 것이다. 수수께끼 같은 이 언어는 더 내면에 속하는 의미, 더 정확하고 교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숫자 일곱은 거룩함을 표현한다. 숫자 여덟, 마치 그것이 숫자 둘로부터 파생되듯, 이는 하나됨(union)을 표현한다. 말씀은 거룩하고 거룩함 자체이다. 말씀의 이런 품질이 “일곱과 동류”라고 표현되고 있다. 또한 말씀은 사랑과 지혜, 선함과 진리의 하나됨이다. 말씀의 이런 품질이 “여덟 번째”로 표현되어 있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요 지혜 자체이시고 그분 안에서 이 두 본질의 하나됨은 그분의 존재와 품성의 완전함, 그러므로 그분의 거룩함의 완전함이다. 주님이 이러하시듯 말씀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말씀은 그것의 가르침을 수단으로

우리로 얼마라도 주님의 품질이 되도록 밝히 알게 하고 있다. 교회의 의무는 이런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면서 가르치는 것, 말씀이 드높여지고 확대되어 보이게 해서 가장 큰 경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자아찬양과 이기적 지배의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할 때 그 교회의 품성은 과연 무엇이 되어 있다는 말일까? 이럴 때 교회는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수준의 말씀을 타락되게 한다.

12-14. 이 장의 남은 부분은 두 계층의 인물, 서로간에는 구분되지만 그 둘 모두는 바빌론의 품새로 묘사된 것과는 다른 것을 취급하고 있다. 그 중 첫 부류가 이 절에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때 왕노릇할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자기들의 권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어 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겠지만 마침내 모든 군주의 군주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며, 그의 부르심을 받고 뿔뿔히 충성을 다하는 부하들도 함께 승리할 것이다.” 이 부류를 형성하는 이들은 여인에 반대하는 것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그들의 권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있다. 이 부류란 로마의 교회에 적개심을 갖지 않은 이들, 그러나 교회 스스로 사취한 권력과 권세에 하느님의 말씀을 귀속시키는 이들, 그리고 권력과 권세가 로마 교황제로 이전되었고 형식적 척령으로 이것을 장치해둔 것이 절대 확실하다고 실지로 주장하는 이들이다. 물론 로마 교회 안에도 교황이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고, 사랑의 힘과 믿음의 능력을 말씀으로, 그리하여 주님께 귀속시키는 이들도 얼마 정도는 언제나 있어 왔다. 옛 카톨릭 운동은 이에 관한 폭넓고 놀라운 예이기도 하다. 이 운동의 지도자들은 카톨릭 교회와의 교류를 유지하는 가운데 있고 싶어 한다. 그러나 천사의 언어에서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권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있다. 카톨릭 국가들이 로마 카톨릭에 복종함과 헌신함은 각기 다양했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은 매우 달랐다. 어쨌든 대중적인 정서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카톨릭 프랑스에서 예로 들어 볼만한 몇 명은 얀센파(Jansenist)나 포트 로알파(Port Royalist) 사이에서 찾아지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저서나 행동에서 열 왕인 열 뿔로 상징화된 신성한 진리의 권세를 명백하게 했다. 그런 국가 안에는 교황의 권세를 인정하되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인정하고 교회 안의 최고의 권위를 말씀으로 간주하는 이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었다. 이들이 “아직 나라를 갖지 못했지만 짐승과 함께 한때 왕과 같은 권세를 받는” 이들에 해당된다. 그들은 독립된 정부를 획득하지 못했으나 진리가 증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이 권능을 짐승과 함께 향유하는 “시간”은 시간이라는 간격을 말하는게 아니라 삶에 관한 상태이다. 한 시간으로

의미된 상태는 인정(acknowledgement)에 관한 그들의 상태이다. 말씀이 교회에서, 믿음이나 규율이 라는 문제에서이든 최상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들의 상태는 짐승과 함께 한 시간 동안만 권능을 받고 있다. 주님께서는 승리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옥좌에 그분과 함께 앉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다. 책임이 하나도 없고 틀림이 언제나 없다는 절대 권세를 옹호하는 자신의 잘못과 편견을 타파하고 절대적 권능을 밝혀진 하느님의 말씀에로만 돌리는 이들은 당당한 권능을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대담하게 말해보자면, 이런 사람들은 계속 증가하고 힘도 얻을 것이다. 밤이 가고 동녘이 터 오르고 대낮이 시작되면 모든 오류가 살 수 있던 어둠은 쫓기고 만다. 주 예수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느님, 창조자, 구속자, 구세주, 그분의 인성이 신성이라는 진리는 고색 창연한 독단적 주장이라는 명에서 자신을 부분적으로 끌려 놓은 이들의 마음에서 강한 저항을 만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인성이 신성이라는 사상에 저항함으로써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은 그들에게 확신시켜 줌으로 그들을 극복할 것이다. 그 이유가 그분은 “왕 중의 왕이요 군주 중의 군주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천국과 교회의 모든 선과 진리의 저자이시다. 말씀이 신성하다는 진리를 수용하는 모든 이들, “왕들”에 속하는 이들은 예수만을 왕들 중의 왕 되시고, 교회의 모든 진리가 파생된 진리 자체이신 분으로, 그들 모두를 이끌어 가는 분으로, 그분만이 신성하심(Divinity of Jesus)을 참으로 유일한 예수의 신성임을 궁극적으로 인정할 것이다.

15. 이제 천사는 여인에 관한 처음의 서술로 되돌아오고 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본 많은 물, 곧 그 탕녀가 앉아 있는 그 물은 백성들과 군중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물에 관한 의미는 1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여기서서는 왜 물이 소개되는지에 관해서만 살피면 될 것 같다. 많은 물이란 말씀 속의 진리들이다. 먼저 진리들이 교회에 복종 당한 것으로, 교회에 의해 매음된 것으로 언급되어져 있다. 그 이유가 진리 위에 앉은 불성실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진리들은 백성, 군중, 나라들, 언어들이라고 설명되는데 이는 그녀가 지배한 것이 자연적 측면이 아니라는 것, 그녀가 권세를 부린 대상이 되는 사람의 영적 상태의 다양함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 설명이 여기서 소개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예언의 이 부분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16,17. 이제 두 부류 중 둘째 부류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네가 본 열 빨과 그 짐승은 그 탕녀를 미워하여 벌거벗기고 처참한 지경에 빠뜨릴 것이다. 그리고는 그 탕녀의 살을 뜯어먹고 마침내 그 탕녀를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당신의 뜻을 이루려는 욕망을 심어 주셨고 뜻을 모아 그들의 왕권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구절의 사람들이 여인으로 묘사된 교회에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부류에는 단순히 교황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이들 뿐 아니라 교회의 도덕적 부패와 일반적 지성을 다소나마 목격해 왔던 이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강하게 반대한 이들까지 포함된다. 9,10세기는 유럽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서도 가장 어두운 때였다. 12세기에 알비주아파(Albigenses)가 교회의 잘못과 부패에 봉기했다. 그러나 그 종파가 소멸될 때까지 가차없는 격분된 박해를 당했다. 프랑스의 이런 알비주아파 외에도 영국의 위클리프와 독일의 라로드(Lollard)가 재봉기해서 생명의 말씀과 영적 자유에 관한 주장이 계속 살아 있게 했다. 그 이유가 “하느님께서 그들의 심정 안에 그분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놓으셨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개혁교파(Reformation)가 일어났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마음에 계속 이어져 왔던 운동의 정점밖에 더 아니었다. 수세기 동안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그렇다고 빛이 완전하게 소멸된 적은 없었다. 그들이 악하게 되어 갔다해서 선이 완전하게 좌절된 것은 아니었다. 교황의 욕망이 극에 달할 때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사람의 마음에 그분의 마음을 놓아두셨다. 그래서 그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주셨다. 열 왕이 성취한 것이 하느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짐승의 의지를 뜻한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 짐승은 하느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 말씀의 의지와 가르침은 로마 교회와 교황의 의지와 가르침에 반대된다는 것이다. 이 바탕에서 열 왕들은 그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주기로 동의했다. 타락한 교회가 있는 모든 시대에 있던 이들은 독재적인 권력에 반대하고 그 권력의 부패를 까벌렸다. 그들이 큰 목적으로 삼은 것은 말씀을 갖가지 종류의 감옥에서 석방시키는 것이었다. 개혁교파인들의 큰 성취는 그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주는 것이었다. 개혁교파는 하느님의 말씀을 교회 권위의 최고자로 옹호하면서 온 교회는 구원의 샘에서 생명의 물을 퍼올릴 권리가 있다고 주창했다. 이외에도 개혁교파는 교회 부패의 많은 것을 까벌렸고 교회 속의 많은 악을 무력화 시켰다. 그들은 그녀를 미워하여 별거벗기고 그녀의 살을 뜯어먹고 불살랐다. 그러나 개혁교도는 교회의 질병을 치료되게 한 것은 아니고 증세를 완화시킨 것뿐 이었다. 이 노력은 처방의 기간을 영속되게 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어지게 했다. 실패 없는 예언에 의하면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짐승에게 그들의 왕국을 준 것이었다. 말씀의 성취란 옛 처방이 사라지고 새 처방이 도래하는 것이다.

18. 이렇게 천사는 끝맺는다. “네가 본 그 여자는 세상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구절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글자와 영적 의미간에 우연의 일치가 있었을지 모른다. 한 때 교회는 기독교계의 모든 왕들을 지배했다. 영적 원인이 자연적 결과를 생산했다.

한때 교회는 기독교국의 지적 측면의 모든 힘을 장악했다. 일시적인 권세 위에 영적인 지배(dominion)가 그 결과였다. 교회의 권세가 인류의 선을 위해 집행되고, 이기적인 것의 확장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면 교회는 나라들을 노예화하려는 대신 그들을 계발해주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 속의 진리까지 통치하려했던 주체님은 것들은 땅의 왕들을 지배할 권리까지 주창하는 쪽으로 끌고 가버렸다. 더 일반적인 계발과 더 높은 총명은 그 교회가 움켜쥔 손에서 그 권능을 빼앗겼다. 더 나아가 그 교회가 교회 속의 진리를 통치한 것도 그녀의 수중을 빗겨날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18

새로운 광경, 그러나 한 가지는 이미 숙고해 본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바빌론의 품성이 앞 장에서 들추어졌고 본 장에서는 바빌론의 심판이 기되어 있다.

1. “이런 일이 있는 뒤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었고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 때문에 땅이 환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앞의 천사들은 일곱 대접을 가졌던 천사들 중의 하나였다. 그 이유가 그 때는 조사하는 때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진 천사이다. 그 이유가 분리의 날이기 때문이다. 이 천사가 소유한 것은 신성한 선함의 권세, 인간 악의 권세에 반대되는 권세이다. 그래서 땅 즉 교회가 인간의 영광인 거짓에 반대되는 신성한 영광의 참된 빛으로, 오류의 어둠에 반대되는 진리의 빛으로 환해졌던 것이다.

2. “그는 힘찬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대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악마들의 거처가 되고 더러운 악령들의 소굴이 되었으며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다.’ 힘찬 소리는 힘찬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심판을 발표하는 신성한 진리의 소리 역시 신성한 사랑의 소리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심판에서 자비를 기억하신다. 주님께서는 진리만이 아닌 진리와 사랑이 하나됨으로부터서만 판결하신다. 악한 자는 사랑없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바 자비없는 심판을 받는다. “바빌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는 주님의 측면에서 진리의 외침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외침이기도 하다. 교회의 측면에서 두 번씩의 외침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사랑의 무너짐과 진리의 무너짐이다. 바빌론이 “대” 바빌론이라고 말해졌듯 교회의 무너짐도 크게 무너졌다. 즉 잘못만 있는게 아니라 악과 잘못이 하나되어 교회와 교인의 불법이 팽창해졌다는 것, 따라서 그들의 무너짐도 커진 것이다. 진리와 사랑으로부터 타락된 이들은 결국 악마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악령을 붙잡고 있으며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새들의 집이 된다.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 악마들이고, 두 사랑과 호흡하는게 욕망이고 더럽고 미움받는 새들이란 사악한 생각들이고 이 생각들의 집이 이해성이다.

3. 바빌론을 심판하는 이유이다. “모든 백성이 그 여자의 음행으로 말미암은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놀아났으며 세상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사치 바람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서로가 몹시 싫어하는 본성 안에 있는 원리들이 하나됨 또는 모독된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빌론의 특성인바 위 구절 안에 묘사된 것이다. 선함과 진리는 동종이어서 서로의 뜻이 일치한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됨은 천국적 결혼을 형성하고 천국 그 자체이다. 악과 거짓은 서로 유사하게 동맹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됨은 천국적 결혼에 반대되고 천국 자체와도 반대되어 있다. 어쨌든 서로 사이에 본성이 일치 안되는데도 병합되거나 결합된 경우도 있다. 즉 선이 거짓과 진리가 악과 결합된 경우이다. 이것들이 여기서 표현되어 있다. 백성과 왕은 선함과 진리라는 원리들이다. 여인과 그녀의 불순한 포도주는 악과 거짓이다. 선이 거짓된 것과 결합함이 여인의 음행으로 말미암은 분노의 포도주를 백성이 마신 것으로 의미되고 있다. 참된 것이 악한 것과 결합함이 세상의 왕들이 여인과 음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미되고 있다. 이런 이상한 혼합은 엄격한 측면에서 선함과 진리의 모독이다. 이런 죄악은 교회 내에 있는 이들에 의해서만 저질러 질 수 있는 죄악이다. 그 이유가 그들만이 선하고 참된 것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이 지식이 영적 부자인데 그 이유가 지식은 지적 측면의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 품성을 지닌 이들은 거룩한 사항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려는데 적극적으로 동시에 그것을 거룩하지 않은 용도에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이 세상의 상인 즉 교회의 상인들, 그녀의 사치바람에 부자가 된 교회의 상인들이다.

4. “또 하늘로부터 이와 같은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를 버리고 나오너라. 너희는 그 여자의 죄에 휩쓸리지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늘로부터의 새로운 소리는 권면의 소리이다. 우리 역시 잘 경청해야 할 것이다. 자연적 의미에서 이 소리를 생각하면 마치 부패된 종교 단체와는 절교하라는 부름인 듯 여겨질는지 모른다. 이런 사항이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소리의 권면 사항은 더 실용적인 측면이 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종교 단체가 그들의 악을 버리지도 않은 상태에서라도 그들과 인연을 맺고 있거나 끊을 수 있고, 그들의 죄과에 가담되지 않으면서도 연결된 상태를 유지해 갈 수도 있다. 어쨌든 한 가지 뾰족해지는 사항은 우리가 가담하거나 포기한 단체가 어떤 단체이든 명령적인 기독교인의 의무에 해당되는 게 있다. 그리고 이 의무 이행은 우리를 모든 이가 흔히 범하는 죄에서 구원해준다. 자아 사랑은 바빌론적인 원리이다. 이 사랑의 원리는 모든 심정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공동체,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의 일상사 안에 자리매김되어 있다. 이것은 사회생활, 가정생활, 공적, 사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악과 아픔, 쓰라림의 원인의 절반이 넘게 차지하고 있다. 종교적 측면에만 국한 해보아도 이것은 자신들 스스로 정의롭다고 천명하는 개인이나 종파들 안에서도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타인을 경멸해댄다. 한마디로 개인적이든 집합체로서 이든 우리가 자아 사랑 안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바빌론 안에 있는 셈이다. 이 악한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빠져 나옴으로 해서 “그 여자의 죄에 휩쓸리지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이런 악을 포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그 악의 품성과 결과 즉 그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한다. 위 권면의 말씀은 이런 악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에게 보내지고 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다. 영적으로 백성과 민족은 상대적으로 진리 안에 있는 자와 선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때로 우리는 진리 안에 있으면서도 자아 사랑 안에 있을는지 모른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바빌론 안에 있을는지 모른다. 우리는 바빌론에 포로가 되어 버린 유다 백성일는지 모른다. 그들이 바빌론에 끌려간 것은 그들이 신성한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유에서이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 선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는 포로가 된 신세이다. 이렇게 포로된 모든 사람에게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내 백성이야, 너희는 그 여자의 죄에 휩쓸리지 말라” 라는 권면이 보내지고 있다. 그 이유가 죄는 그 죄를 아는 이들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여자가 당하는 재앙을 받지 말라” 고 권면하는 이유는 죄로 인한 재난은 그것을 알면서 그 가운데 있기를 고집하는 이들에게 덮쳐오기 때문이다.

5. 바빌론을 심판하는 이유가 위와 같은바 주님의 백성더러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고 권면되고 있다. “그 이유가 그 여자의 죄는 하늘에까지 사무쳤고 하느님께서서는 그 여자의 사악한 것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의 취지는 무엇일까? 마치 위 구절은 하느님께서 그 여자의 과거 죄를 자각하실 때, 즉 그 죄가 하늘까지 사무칠 때까지 계속 죄짓도록 허용하시는 듯 비쳐질 수도 있다. 비록 자유-의지가 존재한다해도 악은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악의 한계가 자유-의지를

보존시켜 준다. 자유-의지는 악과 선, 천국과 지옥간의 균형(equilibrium)에 의존된다. 만일 악의 힘이 선의 힘을 압도한다면 그 둘 사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능력은 상실될 것이다. 악의 힘이 자유의지가 의존하고 있는 균형의 존재를 위협할 정도로 증가한다면 악은 심판에 의해 억제되어야 한다. 참으로 마치 폭풍적 결과로 억제된다. 심판은 마치 폭풍같이 균형을 회복시킨다. 그녀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도달하고 하늘의 힘이 흔들릴 때(마태24:29) 바빌론의 불법이 최고 권위에게까지 감히 부상하려 들고 천국의 안정을 위협할 때, 더구나 이것이 천사와 인간 마음 모두에서 그러할 때 하느님께서서는 그녀의 사악함을 기억하신다. 이것이 여기서 밝히는 진리이다. 그리고 죄가 하늘까지 사무치고 하느님이 인간의 죄를 기억하신다는 구절이 언급되는 성경 어디에서이든 같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

6.7. 바빌론에서 나오라고 주님의 백성에게 권면하신 것 외에 소리는 이런 명령을 더하고 있다. “그 여자한테서 받은 만큼 돌려주고 그 여자의 행위를 갑절로 갚아 주어라. 그 여자가 부어 준 잔을 갑절로 되돌려 주어라. 그 여자는 영화와 사치를 스스로 누렸으니 그만큼의 고통과 슬픔을 그 여자에게 주어라. 그 여자는 마음 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집행하라고 명령되는 이 구절의 보복의 법칙은 천적인 법칙, 즉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남에게 해주어라는 법칙에 근원을 두고 있다. 신성한 질서의 법칙이 있고 이 질서는 신성한 정부를 통치할 만큼 보편적이다. 천사와 영적 인간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법칙이 있고, 자연적 인간과 악한 영 사이에는 미움이라는 법칙이 있다. 보복의 법이 모세의 법전에서 발견되도록 허용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연적 수준의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영적 수준의 교회를 건설하시러 세상에 오셨을 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법은 폐지되었고 오히려 양갓땀하지 말라고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셨다 (마태5:38). 이것은 천국의 법이다. 천국에 반대되는 왕국에서, 천국적 사랑에 반대되는 사랑이 우세할 경우 보복의 법은 존재하여 빈틈없이 그대로 실시되고 참혹한 무자비로 집행된다. 저 세계에서 있게 되는 바깥쪽의 처벌은 모두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입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아무도 처벌 않으신다. 오히려 악령들이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므로 해서 기뻐한 그 처벌을 온건해지게 해주실 뿐이다. 보복에 관한 모세의 법은 위와 같은 형태였다. 모세가 이런 법을 창안한 게 아니다. 이 법은 자연의 법이고 타락한 본성의 법이다. 이 법은 모세의 출생 훨씬 전에도 존재해왔었다. 유대법이 했던 모든 것은 이런 법을 좀 더 억제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한 것이다. 저 세상 삶에서도 이렇게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모세의 법을 주신 그분은 지옥에 있는 보복의 법을 부드럽게 하거나 억제되게

해주셔서 악한 자가 파괴만을 바라는 것을 조금 더 완화시키신다. 보복의 법칙도 교정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그 법도 질서의 법에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성한 정부의 통치가 이 법을 통해 집행될 수 있고, 무정부 형태, 무질서의 나라에 존재할 수 있는 외적 질서가 보존될 수 있는 유용한 쪽으로 응용될 수 있다. 똑같은 이유로 해서 말씀의 글자에서 사악한 자의 벌이 주님께서 내리신 것으로 기술되고 있고, 본문에서 주님의 백성에게 그 여자한테서 받은 만큼 바빌론에게 되돌리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주님의 백성이 말씀의 진리 안에 있는 교인들이듯, 이를 추상적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진리 자체들이다. 말씀 속의 진리를 모독함으로 사악한 자들은 그들을 처벌하는 법과는 더 먼 거리의 법, 즉 진리의 법에 최초의 근원을 둔 응보를 자신들에게 되돌아오게 한다. “그녀에게 받은 만큼 되돌리라”고 “백성”에게 내린 훈령이 표현하는바, 진리가 모독되어진 만큼 그 법의 지옥 형태가 그 위법자에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 여자가 영화와 사치를 누린 만큼 고통과 슬픔이 주어진다는 법이 공포하는 바, 자아 사랑의 자만과 자아 총명의 지적 허영은 다른 빛 안에서 심정의 슬픔과 지적 어리석음으로 변해진다는 것이다. 참고로 누가 복음을 더 읽어보자.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굶주릴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웃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슬퍼하여 울 날이 올 것이다” (6:24,25). 어쨌든 응보는 갑절의 피해가 있게 된다. 이는 또 다른 법칙을 표현하고 있다. 완성되는 모든 것은 저 세상 삶에서 갑절이 된다. 성경의 영적 의미에서 “갑절”이란 곱해지는 게 아니라 결합을 뜻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선과 악의 관계 모두에게 사용된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자. “이스라엘은 갑절이나 수치를 받았고 능욕밖에는 돌아 온 차지가 없었으므로 이제 저희 땅에서 받을 상속은 갑절이나 되고 누릴 기쁨은 영원하리라” (61:7). 사악함의 종말은 악과 거짓이 상호 결합하는 것이다. 정의로움의 완성은 선과 진리의 상호 결합이다. 선과 진리의 결합은 천국을 만들고 악과 거짓의 결합은 지옥을 만든다. 악이 거짓과 결합함이 그 여자의 행위를 갑절로 갚으리라고 의미되고, 거짓이 악과 결합함이 그 여자가 부여준 잔을 “갑절”로 되돌린다는 것으로 의미되고 있다.

이런 재난들이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는 그녀의 내향적 떠벌림을 덮치고 있다. 악과 선, 거짓과 진리 사이의 차이는 매우 놀랄만하고 교훈적이다. 자만과 겸손, 자아만을 신뢰함과 자아를 부정함은 서로 반대되는 품성들이다. 이것이 개인 차원에서 그러하듯 교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의 부패가 더 할수록 교회는 자신의 우쭐함과 드높여진 지위에 더 신뢰를 두려고 한다. 여인의 영화로움이 이를 잘 드러내놓고 있다. 그녀는

자기 심장 안에서 재잘거리고 있다. 다시 말해 바깥쪽이 아닌 내향의 떠벌림이다. 사람들 안에서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겸손을 흉내내는 자만이 있다. 교회는 자기가 종들 중의 종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반면 드넓게 지배하기를 열망한다. 그리고 이 욕망에 이의를 제기하는 반대자에게 저주가 내리기를 추잡하게 바라면서 조롱자의 발을 성도의 발이 되게 씻는다. 그녀는 이교도의 영혼을 부드럽게 돌볼는지 모르나 그들의 몸을 괴롭히고 불사른다. 더욱이 심중에서 하는 말은 은밀한 생각이란 뜻 그 이상의 의미가 더 있다. 심장이 육체안에 있듯 의지는 마음 안에 있다. 이것은 공히 생명의 샘이다. 그러므로 거기서 말해지고 행하여 진 것은 전체 체계를 살아 있는 시냇물로서 통과하여 흘러간다. 자아 사랑이 “여왕”이 되어 옥좌에 앉아 명령을 하달하면 그 나라의 가장 먼 구석에까지 그 사랑의 통치력이 전달된다. 그녀의 태도는 안전을 확고히 느끼고 있다. 그녀는 여왕으로 앉아 있다. 그녀는 여왕이라고 천명하면서 한편으로는 과부가 아니어서 슬프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선포한다. 참으로 그녀는 과부는 아니다. 그렇다고 그녀는 아내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언젠가 아내였었다. 만일 아내가 아니었다면 최소한 시집보내지는 처녀, 신부이었다. 그녀는 한 때 주 예수의 신부였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직도 주 예수의 배우자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과부가 아니라고 단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언의 소리가 그녀가 되어가는 꼴을 선포할 때 진리의 증거는 그녀가 탕녀라고 결론짓는다. 그녀의 상태는 예언서의 이 말씀,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는 이미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너희 어머니의 지아버가 아니다” (호세아2:2)에서 잘 그려져 있다. 이사야서를 더 읽어보자.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며 이혼장을 써 준 일이 없다. 나는 너희를 채권자에게 판 일이 없다. 너희는 너희의 잘못으로 팔려 간 것이다. 너희가 못되게 굴었으므로 너희 어머니가 쫓겨간 것이다’ (50:1). 주님과 교회가 분리된 원인은 본문이나 이사야서에서나 똑같다. 이는 사체적인 포부가 아닌 일반적 부패의 결과이다. 사체적인 포부는 일반적 부패가 목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형체이다. 교회의 이혼이라는 모든 경우에서 진짜 원인은 어떤 특정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에 있다. 즉 “네가 못되게 굴었으므로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이다.”

8. 교회가 여왕이고 아무 슬픔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을 추켜 댔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여자에게 죽음과 슬픔과 기근 등의 재난이 하루 사이에 닥쳐 올 것이며 마침내 그 여자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루 사이에..”란 심판의 날이다. 이것은 시간이 아닌 상태에 관한 심판을 말한다는 것은 5절에서 이미 언급했다. 그녀가 타도될 것은 확실하게 보증되고 있다. 그 이유가 심판하시는 주 하느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심판의 결과로 와지는 재앙은 신성이 괴롭히려 가한 벌이 아니라 그들의 내향의 상태가 명백해진 결과이다. 이 재앙은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다. 생명의 반대인 죽음은 생명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 소멸된 것이다. 사랑이 생명이다. 주님을 사랑함과 서로 간의 사랑은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구성한다. 이 사랑의 소멸은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다. 죽음이 소극적인 상태만은 아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소멸은 자아와 세상을 사랑함이 적극적으로 존재한테 기인한다. 이것들이 적극적인 요소들이고 그들이 우세해지면 죽음이라 불리는 상태를 구성한다. 이런 상태는 양 세계에 공통적인 것인데 저 세계의 경우 이 상태는 실지 그러하게 나타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죽음 자체보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볼 뿐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공포의 그 왕을 정면으로 보기는 좀처럼 힘들다. 그는 고등교육으로 옷입혀져 있고 양반의 행세를 하고 다니며 그의 동기는 교묘함으로 감추어 놓여 있어 그것의 일그러진 형체, 섬뜩한 모양새가 잠깐 들어낸 것만 가지고도 공포에 떨어야 한다. 저 세계의 경우 이 세상에서 버젓이 차려 입은 껌질이 벗겨져 있어 악한 것들은 끔찍하다. 죽음과 함께 슬픔과 기근이 오고 있다. 악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는 대단하게 즐거울 수 있겠지만 저 세상에서는 그 반대로 변해져 있다. 기쁨이 슬픔으로, 충만함이 텅빈으로 되어 있다. 더 나아가 불은 점화되되 결코 소진될 수 없고 다 타버리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다. 참으로 이 불은 사라지되 선하고 참된 모든 것을 사른다. 그러나 천사들의 사랑, 무한한 사랑과 선함으로서의 주님 자신에 반대하는 꺼질 수 없는 미움으로 계속 타고 있다. 위와 같은 것이 자아를 사랑함인바 이것은 하느님을 사랑함, 사랑 측면의 하나님과 직접 반대되는바 여인의 흑독한 파멸이 그녀를 심판하는 주 하느님의 권능의 탓으로 돌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이 심판은 주님이 악한 자와 반대되어서가 아니라 악한 자가 주님에 반대해서 발생된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자아 사랑의 반대가 극에 달할 때 대 화재 같은 결과를 자초해낸다. 마치 불 속에 휩싸인 물체가 불에 저항하려해도 급기야 덮치는 불의 매체로 재빠르게 같은 불이 되어 또 다른 물체를 태우는 경우와 같다. 저항이 더 거셀수록 그 연소작용은 더 완전하다. 하느님을 사랑함에 반대되는 자아 사랑은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에, 영원한 불에 보관된다. 만일 자아 사랑이 그 반대를 중단한다면 지옥 자체의 불은 꺼질는지 모른다. 이미 살핀 바 같이 (17장16절) 성경에서 불사름은 모독자에 가한 벌로서, 세부 차원에서 모독한 바빌론의 벌로 자주 말하여 지고 있다. 나답과 아비후가 사제 직무를 찬탈해서 주님 앞에 이상한 불을 바쳤을 때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다” (레위기10:2). 모세나 아론에 대적하여 향을 피워 가지고 나왔던 코리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이백 오십 명의 무리도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살라 버렸다”(민수기

16:35).

9.10. 지금까지는 바빌론에 반대한 이들과 관계되었는데 지금 언급되는 것은 그녀에게 합세한 이들에 관해서이다. 이들은 세 부류, 즉 왕, 상인, 선장들이다. 세 부류가 지닌 종교적 의미를 살피게 된다. 먼저 왕에 관해서이다. “그 여자와 함께 음란한 일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땅의 왕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무서운 일이다! 이 강한 큰 도성 바빌론에 화가 미쳤구나! 네가 일시에 하느님의 벌을 받았구나!’ 하고 부르짖습니다.” 이 왕들, 열 뿔로 표현된 이들과 달라 여인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 그들은 그녀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녀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왕들은 그녀와 신나게 놀아났고 상인과 선장들은 그녀와의 장사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다. 먼저 그녀는 세상 왕들을 다스렸고 (17장18절), 후에 그녀의 바람이 결과를 맺어 왕들이 그녀의 죄악에 가담한 것이다. 이 왕들이 열 왕들과 다른 점은 그들의 칭호에서 드러나 있다. 그들은 땅의 왕이라 불리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 왕은 진리를 상징하고 땅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땅의 왕들은 교회의 진리를 표현한다. 이 왕들은 진리들 또는 한 때 진리였던 것들을 표현한다. 그 이유가 진리들이 교회에 의해 한 때나마 단순히 붙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모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리가 모독되는 이유는 진리를 악한 용도에 응용했기 때문이다. 진리의 올바른 사용은 인간에게 거룩함을 가르친다.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이들이 성화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17:17). 인간을 거룩함으로 인도 해주었던 것이 내향으로는 불결한데도 바깥으로는 거룩한 어떤 것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 그것은 모독된다. 이렇게 해서 진리는 악과 결혼된다. 사실 진리와 악의 결혼은 성립 안되는바, 이는 불경함으로 빠져드는 것, 악과 범죄적 연결을 맺는다고 말해야 타당할 것이다. 이러면 진리가 불순한 바람, 야망적인 견해를 섬기게 된다. 이것이 “여인과 음란한 일을 벌인” 광경이다. 이러면 의지 안의 악한 기쁨은 이해성 안의 진리가 뒤집혀지게 작당하고, 정작 악을 책망하도록 되어 있는 진리는 이제 악에게 아첨하는 말만 내놓게 된다. 이것이 “그녀와의 방탕한 생활”이다. 교회가 뒤집은 진리는 말씀의 글자에 속한 것들이다. 이로부터 교회의 교리도 파생된다. 이런 진리들이 땅의 왕들로 의미되고 있다. 성경의 글자는 뒤집혀질 수 있다. 그 이유가 글자는 주로 가상적 진리들 (apparent truths)로 대부분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진리들이 진짜 진리들로 채택되어 그 가르침이 영과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의 실제와 견해들을 확증해 버릴 수 있다. 말씀의 글자적 의미가 뒤집혀 피해를 받은 결과 중 한가지 놀랄만한 예를 들면,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말한 대목의 해석이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은 어느 사도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다. 게다가 베드로가 그런 권능을 주창하거나 실시했다는 증거가 있는 적도 없다. 이는 베드로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에서 불어넣는 영감이 주어진다는 말이다. 이 진리가 인간의 손에 있는 베드로의 열쇠로 뒤집혔고 자신이 베드로의 승계자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 자처하면서 교회의 머리라 선포하고 자기가 뜻하는 바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고 내쫓기도 한다는 말은 그 얼마나 섬뜩한가!

역지를 부러 뒤집힌 이 세상에서의 신성한 진리는 저 세계에서는 격렬한 결과를 수반한다. 뒤집힘으로 해서 악과 한번 결합된 진리는 악과 떼어지는데 참담하리 만큼 혹독함이 없이는 결코 떼어내지지 않는다. 한 마음 안에 존재한 악과 진리는 고대 우화에서 묘사된 조건들, 하늘과 땅에서 번갈아 있게 하는 상황을 생산한다. 진리는 영혼을 천국이라는 위쪽으로 끌어당기고, 악은 지옥이라는 아래쪽으로 파묻으려 한다. 이런 상태는 여느 다른 것보다 더 심하게 미래에 고통받는 원인이고, 이것이 바빌론의 고통의 뿌리이다. 그래서 그녀를 태우는 불을 보고 왕과 상인과 선장들이 두려워 멀리 서 있었다. 그녀가 심판 받을 때 바빌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함이 크다. 영계 또는 영적 사항에서는 공간이라는 게 없다. 서로 닮지 않은 상태가 저 세계에서는 거리가 떨어지는 원인이요 거리의 측정치이다. 그럼에도 바빌론을 동정하는 이들, 또는 바빌론에 소속된 이들이 그녀가 파멸되는 날에 그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악덕으로 이윤을 챙기고 타인의 약점을 찌르는데 앞장 선 이들이 재난 때에 그들을 버리는 것은 이 세상 일에서도 너무나 흔한 일이다. 그러나 두 세상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 세상의 경우, 타인의 허점을 찌러 이윤을 챙기고 그들을 부러먹은 이들이라 해도 변명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곳은 인생의 수습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 이런 일에 가담하거나 선동만 했다해도 생산된 파멸이라는 몫을 배당 받는다. 그 이유가 그곳은 인생의 결실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구절에서 생각해보는 두 개의 다른 상태가 있는데 하나는 바빌론의 사람에 특유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과 그 외 다른 사람에게도 공통된 상태이다. 그들에게 특유한 상태는 모독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수단들을 불경한 목적 달성에 사용한다. 불신앙자는 진리를 거절하지만 위선자는 진리를 왜곡시킨다. 왜곡된 진리, 결국 왜곡된 지식과 같이 왜곡이라는 연기를 악의 불이 지피어 낼 때 격렬함을 호흡하고 일깨운 반성 속에서 참담한 결과 안에 있는 자신의 뒤집혀진 마음을 보게 한다. 안심과 불안이라는 상태의 교차가 사악한 자에게 있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다. 그들이 자기 사랑의 기쁨에 빠져 있을 경우 그들은 자기 상태의 품성과 결과에 눈이 멀어 있다. 그들이

불안과 고생으로 진입하면 한순간이지만 제 악한 본성을 보고 그로 인해 받게 될 고통에 두려워
떨다. 몹시 후회한 죄인은 자기 죄로부터 한 페이지만 멀리 서 있다. 죄를 사랑함이 그의 내적
생명이다. 그래서 만사가 잘 될 경우 그 생명이 그의 모든 삶, 안쪽, 바깥쪽 생명이 되어 있다.
재난이 올 경우 그가 소유한 어떤 선이 그의 내적 생명을 꾸짖는다. 그래서 그는 한 때라도 겸손해져
악한 품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다른 자아로서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자신을 보게 된다.

태우는 연기란 자아 사랑의 불로 발생하는 거짓 원리이다. 심정 안에 있는 악한 사랑은 이해성에
있는 거짓 사상의 발전소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사랑을 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다. 마치 생각이
애정을 밝히 알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거짓된 생각은 악한 자에게 그의 애정의 본성을
밝히 알게 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슬픔을 일으키는 것은 더더욱 없다.

일반적인 납득 차원에서 생각해볼 때 땅의 왕들이란 통치하는 원리라기 보다 자신의 괴리나
의도, 계획 등에 깊숙이 파묻힌 교회 안의 통치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의 죄는 그녀와 함께 더
깊숙이 틀어 박혀 있다. 그녀의 쾌락에 더 동참할수록 그들은 그녀의 괴로움이 자아낸 공포에
더 떨고, 그녀가 심판되는 시간이 올 때 “이 강한 도성”의 탄식을 더 밀착된 느낌으로 동참할
수 밖에 없다.

11-14. 바빌론에 동정을 보내는 또 다른 부류는 상인들이다. 이 계층은 두 개의 구분되는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15절에서 다시 언급되는 상인들은 여기서의 상인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빌론의 패망에 슬퍼하는 네 개의 다른 특성의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사 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여자가 망하는 것을 보고 울며 슬퍼합니다.”
지상의 상인들은 자연적 삶에 요구되는 것들을 팔고 사는 이들이다. 교회의 상인들은 영적 삶을
받치는데 요구되는 것을 포획하고 나누어주는 사람들이다. 하늘나라가 “장사하는 사람” (마태13:45)
으로 비유되고 있다. 그러나 비천국적 마음을 지닌 상인들은 거룩한 것을 불법 거래함으로 자기
명예와 소득을 추구하는 이들이다. 영적 생명을 유지 존속하게 하는 모든 것은 선함과 진리라는
두 개의 보편적 원리라고 납득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원리는 세부사항에서 끝이 없는 다양함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세부사항이 자연적인 것의 모양새로 이렇게 열거되고 있다. “그 상품에는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모시, 자주 옷감, 비단, 진홍색 옷감, 각종 향나무, 상아 기구,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 계피, 향료, 향, 몰약, 유향, 포도주, 올리브, 기름,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그리고 노예(몸)와 사람의 영혼 따위가 있습니다. 상인들은 그 여자를 보고
‘네가 그렇게도 간절히 탐냈던 실과가 너에게서 사라졌으며 온갖 화려하고 찬란했던 것들이 너에게서

사라졌으니 네가 다시는 그것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바빌론의 부와 교역을 형성한 위의 긴 상품목록은 “큰 도성”의 다종다양하고 방대한 교역량에 대한 그럴듯한 그림을 주려고 소개된 듯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자연적 대상물과 산물들이 영적인 것을 상징하듯 위 각각의 상품은 각기 의미를 가지고 영적 친근 관계에 의거 배열되고 있다. 맨 먼저 보여지는 것은 바빌론의 재산과 부유함을 구성하는 것들을 쌓아 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대단히 흥미 있고 교훈적인 품성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계시록의 형상들이 유대교회로부터 대부분이 취해졌다는 것은 이미 주목해본바 있다. 계시록은 마치 모세 요경과 같다. 유대교의 종교의식은 표본적으로 다양한 형체들을 체현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몇 가지 것들은 각기 적당한 축하 예식을 위해 요구된 것들이다. 이들 중 가장 높은 것이 성막인데 후에는 성전이었다. 바빌론도 교회의 한가지 품새이다. 그러나 크게 부패된 상태에 있는 교회의 품새인바, 이 큰 도성의 재난을 구성한 다양한 물품들은 하느님의 집을 섬기는데 사용되었거나 그 집을 건축하는데 들어간 물품에 응답된다. 성막을 위한 헌납물품은 “금, 은, 구리, 자줏빛 양털, 붉은 보랏빛 양털, 진홍색 양털, 고운 모시실, 염소털, 분홍색 수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기름, 향유, 가루향에 넣는 향료, 에봇과 가슴받이에 박은 홍옥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보석들이다” (출애굽기 25:3-7). 계시록의 이 부분에서 언급된 것들은 위의 것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12절), 금, 은, 보석, 진주, 그리고 각종 향나무가 있는데 이것들은 거룩한 주조물을 장식하거나 만드는데 들어간다. 금과 보석은 아론의 가슴받이를 형성했다. 그 다음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 비단, 진홍색 옷감이 있다. 이것은 성막의 커튼과 덮개들, 그리고 대사제의 옷감이었다. 끝으로 상아 가구, 값진 나무들, 구리나 쇠, 대리석들은 거룩한 집의 성스러운 그릇에 응답된다. 교회가 여인에 비유되듯, 고운 모시옷과 자주 옷감은 대사제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녀의 옷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금과 보석은 그녀의 장식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인은 진홍빛 짐승에서 본바와 같이 자줏빛과 진홍색 옷감으로 차려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였다. 그리고 이 장에서 그녀는 고운 모시옷, 자줏빛과 진홍색 옷감으로 옷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저 큰 도성처럼 통곡하고 있다.

둘째로(13절), 계피, 향료, 향, 몰약이 있는데 이는 등불을 위해 거룩한 기름에 첨가한 양념 그리고 향료와 응답되고 있다. 그 다음 포도주, 기름, 밀가루, 밀은 성막의 제수와 곡식예물에 응답된다. 그 다음 소와 양은 제물과 번제물에 응답한다. 그리고 말, 수레, 노예, 사람의 영혼에

관한 사항은 건너 뛰기로 한다.

셋째로(14절), 과일, 찬란하고 화려했던 것은 주님께 성별해 봉헌했던 들판의 여타 생산물과 과일과 응답된다. 즉 그분을 섬기는데 바친 십분의 일의 수확물들이다. 이 십분의 일은 사제직을 부양하고 각종 예식과 사회활동을 위한 것이다.

이상의 비교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실제적인 유추이고 종교의 근본되는 요소들에 응답하고 서로간의 관계와 친척 관계에 의거 배열되고 있다. 첫째는 교리에, 둘째는 예배에, 셋째는 사용에 따른 효과, 삶의 즐거움에 관계된다. 이런 분류를 기초로 각 절을 다시 살핀다.

12. 이 절에서 언급된 품목은 교리에 관계된다. 열거된 것들은 세 종류이다. “그 상품에는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모시, 자주 옷감, 비단, 진홍색 옷감, 각종 향나무, 상아 기구, 값진 나무, 구리, 쇠,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다.” 이 품목은 세 시리즈를 구성하면서 각 시리즈는 쌍으로 구성된다. 즉 금과 은, 보석과 진주이다. 그리고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 비단과 진홍색 옷감이다. 그리고 각종 향나무와 상아기구, 값진 나무와 구리, 쇠와 대리석이다. 이들이 세 시리즈로 구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모든 것에는 세 수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쌍으로 배열되었는데 그 이유가 모든 것은 선함과 진리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금으로 상징된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높은 선으로부터 대리석으로 상징된 감각에 속하는 가장 낮은 진리에 이르는 갖가지 종류와 수준에 있는 선함과 진리의 원리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쌍으로 짝지어 배열되는데 그 이유는 모든 교리는 마치 모든 율법과 예언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이타에 달려있듯 선함과 진리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향나무와 대리석의 경우 우리가 쌍으로 연결했지만 성경에서 함께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향나무는 첫째로 언급되고 대리석은 자연적 시리즈에 속하는 것들의 마지막, 또는 자연적 마음에 속하는 원리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낮은 진리는 감각에 적용되는 진리들이다. 보다 높은 모든 선은 순종의 선에서 마감되고 그 선 안에 안주한다. 그리고 보다 높은 모든 진리는 외관의 진리, 즉 가상적인 진리에서 마감되고 그 진리에 안주하고 있다.

13. 이 절에 열거된 것들은 예배에 관계되는데 이것들 역시 세 종류이고 쌍으로 짝지어 배열되고 있다. “계피, 향료, 향, 몰약, 유향, 포도주, 기름,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몸(노예), 사람의 영혼”이다. 이 쌍들은 선하고 참된 것과, 세 수준, 즉 천적, 영적, 자연적 수준과 관계되고 있다. 그러므로 계피는 사랑으로부터의 예배, 향 또는 향료는 지혜로부터의 예배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사랑은 지혜를 수단으로 은택스럽고 향기롭게 되기 때문이다. 지혜 없는 사랑은 지각 없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다양함이 없고 그것의 본성과 사용의 알아차림도 없는 것이다. 몰약과 유향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것의 방향을 정하고 품위있게 하는 진리이다. 포도주와 기름은 천적 수준의 근원, 즉 주님을 사랑함에 근원을 둔 진리와 선을 의미한다. 밀가루와 밀은 영적 수준의 근원, 즉 이웃을 사랑함에 근원을 둔 진리와 선을 의미한다. 이 뒤를 잇는 세 쌍들, 즉 소와 양은 영적, 자연적 근원으로부터의 진리들이고, 말과 수레는 합리적 근원으로부터의 진리와 선들이다. 그리고 노예와 사람의 영혼은 자연적 근원으로부터의 진리와 선들이다. 노예나 영혼은 동물에 비해 더 월등하다고 생각되겠지만 이것은 인간의 권리가 박탈된 상태라는 점에서 단지 용역의 도구에 불과한 수준에서 언급되고 있다.

14. 바빌론의 재산을 구성한 것들의 세 번째 부류는 교리와 예배의 실과, 종교적 확신과 의무수행의 결과로 영혼이 바라는 것들인 마음의 기쁨과 만족감에 관계되는 것들이다. “네 영혼이 그렇게도 탐냈던 것, 온갖 화려하고 찬란했던 것들”이다. 이런 귀중한 모든 것이란 말씀 속의 귀중한 것들을 의미하고, 이것들이 지식으로 소유되어 있고 소득을 위해 맞바꾸고 있지만 저 세상에서는 그 소유권이 박탈된다.

교리가 참되고 예배가 신실하다면 심정의 기쁨과 마음의 흡족함은 그 열매이다. 그러나 자아 충명이 교리에 우선되고 자아사랑이 예배보다 우선시 될 때 기쁨은 슬픔으로 변하고 마음의 만족은 격정과 불만에 침식당하고 만다. 부패된 종교는 그것들이 포획한 위엄과 풍요함을 인간의 마음에 준 영향으로부터 일어난다. 저 세상에서 이런 모든 것이 막을 내릴 때 영적 경멸과 타락의 비열한 것밖에 거기에 남아 있는 게 더 있을까? 그들 삶 속의 기쁨은 가버리고 슬픔만이 살아 있는 죽음으로 자기의 존재가 되어 있다.

15-19. 바빌론 자체가 파괴되었다. 그래서 그녀의 모든 부와 영광은 먼지 속에 묻히고 그녀 자신의 자아 사랑의 불로 살라졌다. “그 여자 때문에 부자가 된 이 상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을 보고 두려워 멀리 서서 울고 슬피하며, ‘무서운 일이다. 고운 모시옷과 주홍색 옷과 진홍색 옷을 몸에 두르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던 이 큰 도시에 화가 미쳤구나!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일시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었던 말인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울며서, ‘무서운 일이다! 이 큰 도시에 화가 미쳤구나! 향해하는 배의 선주들이 모두 그 도시의 사치 생활로 말마암아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다 일시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의 상인들이 바빌론의 패망에 슬퍼하고 있다. 바다와 육지, 13장에서 살핀 바 대로 이는 교회를 구성하는 두 계층, 즉 교회의 교리나 예배를 내면적으로 들어가는 부류인 성직자와 바깥쪽에 머무르는 부류인 평신도들을 묘사하고 있다. 상인은 바빌론의 재산을 소유했었던 자이고 선장은 그것의 운반자였다. 그런데 이 두 부류 모두 큰 도성의 파멸에 슬퍼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부류 모두 그녀와의 거래에 생계를 걸고 있고 그녀와의 교역으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빌론이 도시라 불리고 있다. 그럼에도 고운 모시옷, 자주와 진홍색 옷감으로 옷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 시간 동안에 그 큰 재산들이 사라졌다. 심판은 상태의 본질까지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 그런데 심판이 결과를 본 것 중 이보다 더 큰 변화는 없다. 종종 심판은 세상을 뒤바꾸어 놓는다. 언제나 심판은 세상적이다. 심판은 모든 외관을 벗겨 내어 참 모습의 수준이 가능하게 한다. 어떤 변화가 이보다 더 클 수 있을까? 그런데도 아무 변화도 없다. 상태가 재조정되면서 부유함은 가난이 되고 가난이 부자가 되고, 행복이 재난으로, 가없음이 행복으로, 드높음이 떨어지고 비천함이 드높아 질는지 모른다. 심판이 교회에 가져오는 것은 진짜 아닌 것을 진짜로 대체한다. 종교가 이기심과 지배욕을 위해 외투를 뒤집어 쓸 때, 경건한 척 함이 거룩함의 자리를 차지할 때, 바깥쪽 예의바름이 미덕의 자리에 놓일 때, 그 종말은 재촉되고 종교는 죽어져서 장차 새로운 시작이 있어 새 교회가 형성될 어떤 그루터기도 남을 수 없게 된다. 끝장을 보게 될 때 언제든지 있어지는 것은 온갖 화려하게 살되 자신과 세상적으로만 살았던 이들을 두고 슬피우는 것이다.

20. 비록 심판이 가져오는 끝장이 악과 거짓에게는 통곡이지만 선과 진리에는 기뻐 외칠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늘과 성도들과 예언자들이여, 기뻐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거룩한 사람들은 사악한 어떤 인물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사악한 원리의 단죄, 정의와 진리의 승리에 기뻐한다. 참으로 이런 기쁨은 천국적인 원리, 거룩한 원리, 올바른 원리 자체의 기쁨이다. 악과 오류가 설칠 때 천국적 영향은 차단되고 정의와 진리의 교훈은 은밀하게, 동시에 공개적으로 업신여겨진다. 그러면 천국은 닫히고 사도와 예언자는 슬퍼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해 정당한 보응을 해주실 때, 죄와 죄인들이 그들에게 덮어놓은 것이 중상모략임을 입증해주실 때, 이렇게 해서 적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그들은 기뻐하고 그들을 맞이하는 모든 이들과 심정으로 교통한다.

21. “또 힘센 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바윗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 큰 도성 바빌론이 이렇게 던져질 것이니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힘센 천사는

신성한 권능, 특히 천국을 통해 실시되는 권능을 상징한다. 행위 자체는 바빌론을 던지는 신성한 권능, 뿐만 아니라 던져지게 된 바빌론의 권능까지 상징하고 있다. 문명화된 생활을 표시하는 첫째가는 가장 흔한 기구인 맷돌은 영적 삶의 첫째가는 가장 공통된 표시 중의 하나를 상징한다. 곡식은 생산된 이후 각기 적절한 용도를 위해 갈아야 한다. 이와 같이 말씀에서 주어진 하늘의 곡식도 영적 사람의 각기 알맞은 용도에 충당되도록 잘 숙고해봄으로 교통되어야 한다. 탐사와 숙고함은 일종의 빵은 작용이다. 그 이유가 이 행위는 하나의 합성물을 성분요소로 분석하는 것, 또는 전체를 세부사항으로 환원시키는 작용이기 때문이다. 말씀의 가르침을 탐사하고 숙고하는 것도 물론 진리를 밝혀 내던가 오류인 것을 확증하든지 하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다. 잘못된 것을 확증할 경우 이기적 목적을 더 성취시키려해서 인바 이것이 천사에 의해 바다에 던져지는 맷돌로 표현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 돌이 맷돌이다 라고 말해지지 않고 맷돌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류를 맞다고 확증하는 인간 자질은 참 이성이 아니라 이성 같은 것일 뿐이다. 잘 교육을 받아 영리하지만 꾀렵치한 인물은 이성이라는 자질이 아닌 추론력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간은 문제의 어느 쪽이든 확증할 수 있다. 그들은 어느 쪽이냐 에는 무관심해서 자기 이익에 부합되면 어느 쪽이건 상관치 않는다. 오류를 확증하는 힘은 마치 바빌론의 멸망이 상징하는 것같이 내던져야 할 맷돌 같은 큰 돌이다. 부패된 교회의 힘은 그것의 왜곡된 추론과 결말이 노출될 때 깨지고 만다. 이것은 인간의 논쟁에 의해 되는게 아니라 계발된 이성, 천국으로부터 들어오게 된 빛, 정의의 태양에서 흘러드는 열과 빛을 가로막았던 구름이 심판으로 제거된 후 재개된 천국의 빛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바빌론을 내던진 광폭한 힘은 바빌론으로 표현된 종교 원리가 교회 안에 등지를 틀었던 그 자리에서 뽑아 내던진 피할 수 없는 권능에 대한 표현이다. 교황적 권위주의와 교황의 말은 절대 확실하다는 종교적 독재가 교회의 목에 맷돌같이 매달려 있지 않았다면 교회는 영적 타락의 밑바닥까지 가라앉지 않았을런지 모른다. 질서의 법칙인 보복의 법칙은 개인에게 적용되듯 교회에도 적용되는바 그녀 스스로 유유히 저지른 악을 자신에게 가져다 놓는다. 이런 교리와 짓으께는 독재주의가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인류의 복지를 위한 것이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에 절대적 재산을 주장했던 교회는 영적, 자연적 자유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참되고 생명 있는 종교는 종교적 시민적 자유 밑에서만 번성할 수 있다.

22,23. 교회 만능주의는 깨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그것의 형체와 이름은 남아 있을는지 모른다. 이런 상태가 근대적 바빌론일지 모른다. 인쪽으로는 황폐된 채 곁쪽에서는 화려한 자부심을 내세우는 지 모른다. 이 모습이 이 구절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그 큰 도성 바빌론이 이렇게 던져 질 것이니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거문고 타는 사람들과 노래부르는 사람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과 나팔부는 사람들의 음악이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기술자들도 네 안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땃돌소리도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네 안에서 등불도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가 되었고 만국 백성이 네 미술에 속아 넘어 갔다.” 위에서 표현된 형상들은 매우 인상적이고 쉽게 이해된다. 바빌론의 황폐됨이 이러할 것임을 아는 것은 쉽다. 선함과 진리를 위한 애정들의 하모니에서 발생하는 기쁨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음악가”들로 의미되고 있다. 총명과 지혜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은 “기술자”로 의미되고 있다. 선함과 진리를 탐색하고 문의해움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 “땃돌 소리”에서 의미되고 있다. 진리의 식별과 계발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 등불에서 의미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이 결여된 결과로 선함과 진리의 결합도 더 이상 없다는 것, 천국적 결혼을 구성하는 이런 결합, 천국의 자질을 주는 이런 결혼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신랑과 신부의 음성”에서 의미되고 있다. 이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을 때 거기에는 참으로 피폐함 자체만 있게 된다. 황폐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바빌론의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였고 그녀의 미술로 만국 백성이 사기 당했다. 그녀의 사제들은 왕이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교인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자유로이 있도록 설득력을 발휘하는 대신 교회의 지배 아래 강제로 끌려다 놓기 위해 권위를 내세우고 이를 위해 영적 차원의 부와 힘 대신 교회 조직의 체력 단련에 정열을 쏟았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미술을 응용했고 파괴적인 원리와 그것의 실재를 수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중독 시켰다. 이런 모든 것은 자유로운 생각을 억압하고 좋은 자질의 발휘를 마비시킨다. 이런 짓으로 피해가 특별히 많은 계층이 본문에서 “백성”들로 의미되고 있다. 그들은 사기에 걸려 들어 오류에 파묻혔다.

24. “예언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리고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바로 그 도시에서 발견되었다.” 예언자와 성도들은 추상적 측면에서 생각하면 말씀 속의 진리와 선들이다. 이들의 피란 그것들이 왜곡되고 더럽혀져 파괴된 것을 뜻한다. 땅이 교회를 상징하는바 교회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이란 교회의 원리들이 파괴됨을 뜻한다. 말씀 속의 원리가 천국적인 생명을 박탈 당할 때 교회는 멸망되고야 만다. 교회가 말씀에 의해 심판되는게 아니라 말씀이 교회에 의해 좌우된 것은 로마의 교회, 프로테스탄트의 일부에서 진정하다. 그러나 이런 공같은 교회의 밤과 종말을 자기 머리에 가져오게 한 사제적 권위의 소산이다.

19

앞에서 우리는 기독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발생한 두 개의 큰 악들의 결과와 본성을 열어 보았고 그것들이 점차적으로 결국 송두리채 교회의 원리들을 뒤엎은 것도 살폈다. 이 악들 중 하나는 자이를 사랑함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사랑함이다. 전자는 주님에 대한 교회의 사랑을, 후자는 이웃을 향한 교회의 사랑을 뒤엎었다. 이것들이 큰 탕녀로, 큰 붉은 용으로 의미되었다. 이것들은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순서를 따라 계시록에서 기술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계에 있는 질서에 따라 폭로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원리의 첫째가는 큰 부패를 표현한 바빌론이 둘째가는 큰 부패인 용의 뒤를 잇고 있다.

비록 표시(sign)와 상징물(symbol)로 표현된 두 악들이 기독교회의 두 큰 분파로 전시되어 왔다해도 어떤 특정한 종교 단체에 국한되어 소속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해왔던 모든 교회는 두 큰 악의 지배 아래 타락되었다. 그 악들은 우리의 타락된 인간성 안에 상속된 악들이다. 이 악들에 흥미를 가지려 하는 경향성이 우리 본성 안에 상속되고 있는 바 모든 사람들은 본 주제에 개인적 흥미를 가진다.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은 똑같은 상태에 쉽게 빠질 수 있고 실제로 같은 원리들을 적용해 가기 때문이다.

1,2. 이제 이 환상이 그것 자체를 벗긴다. 그래서 새로운 광경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일이 있는 뒤에 큰 군중이 우렁차게 외치는 듯한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 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세가 우리 하느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정하시다. 음란으로 세상을 망친 그 엄청난 탕녀를 심판하셨다. 당신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여자에게 벌을 내리셨다.’” 바빌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은 하늘에서의 기쁨은 지상에서의 승리의 함성 같지는 않다. 지상의 승리의 함성에는 때로 정의나 자비 같은 게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큰 군중으로 의미되는 가장 낮은 천국의 사람이라 해도 불신앙자, 교인이든 아니든 그들이 재난을 당한 것 가지고 기뻐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심판 뒤에 하늘에서 터져나온 승리의 함성은 선이 악을 이겼기에, 진리가 잘못을 극복했기에, 그로부터 영적 혜택이 결과되기에 있어진 함성이다. 그러므로 할렐루야의 요지는 구원이다. 이것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그분의 참되고 정의로운 심판, 즉 음란으로 땅을 망친 그 엄청난 탕녀를

심판하신 주님께로 돌리고 있다. 천사들은 기뻐하며 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심판으로 하늘의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과 빛, 또는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지상에 내려오는 사랑과 진리, 또는 교회를 통해 인류에 내려오는 사랑과 진리의 하강을 가로막았던 것들을 제거해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천사들에게 기쁨의 원인이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천사들의 행복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소유한 것을 교통하는데, 서로 나누는데, 자기들을 파견해 그들을 보살피서 구원의 상속자가 되도록 한 그 사람들과 교통하는 가운데 존재한다. 자기들이 받은 복을 상대방과 나눔에 있어서 그들은 모든 축복의 저자이신 그분만을 모방한다, 그리고 그분은 복을 더 증가되게 해서 그들에게 재 지불하신다. 그 이유가 유입은 유출에 의거 있기 때문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가6:38). 주는 것이 천사의 복이듯 받는 것은 인간의 복이다. 그들이 천사가 주는 자비를 자유로이 받을 때 자비는 두배로 복이 된다. 그 이유가 받는 이에게도 축복이고 동시에 주는 이에게도 축복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행복은 받는 것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도 천사와 똑같은 질서 아래 있다. 인간의 행복도 천사들의 것과 마찬가지로 주는 것에 존재한다. 인간에게도 유입은 유출에 의거된다. 인간이 받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그들이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되 흔들어 넘치도록 담아 주신다.” 즉 받는 용량은 주는 용량으로 증가된다. 천국적 지혜는 기억을 팽창시킴으로 증가되는게 아니라 심정을 확대함으로 증가된다. 이것은 사랑의 노동으로서 그들의 의무를 행하는 인간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이 천국을 통해 자기에게 제공된 것을 받지 못할 때 천사들의 기쁨은 줄어든다. 천사들의 영향을 줄여서 수용하는 원인에는 일반적이고 매체적인 원인 뿐만 아니라 세부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땅 위 교회의 상태, 그리고 중간(매체) 되는 상태 또는 영들 세계의 조건은 인간이 천국의 선물을 수용하는 척도를 가늠하는데 어떤 할당된 몫을 가진다. 이들이 주님의 구원하시는 작전수행의 적당한 도구가 되는데 적합치 않을 때 신성한 선과 진리가 천국을 통해 유입되는 것은 지체되거나 뒤집혀지기까지도 한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제재받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심판의 작업에서 그것들이 제거되었다. 천사들은 심판이 구원의 수단이 될 때에만 기뻐한다. 심판이 심판의 길을 부패케 한 이들에게 처벌로 떨어질 때가 불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신양자에 대한 신성한 심판에서는 보복이라든가 하는 따위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음란으로 땅 또는 교회를 부패케 한 엄청난 탕녀를 심판하는 경우에서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여자에게 벌을 내리셨다라고 말해지고 있을 정도이다. 주님의

종들,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는 그분의 말씀 속의 진리들이다. 그 이유가 진리들은 선함의 종들이요 사랑을 섬기기 때문이다.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의 진리가 왜곡되고 더럽혀질 때 그분의 종들의 피가 흘러진다. 그분께서는 뒤엎어져 생명과 유용함을 박탈 당해 버린 진리의 정당함을 입증하시고 정의에로의 안내자였던 태고적 소산을 회복해 주실 때 “당신의 종들이 피를 흘린 것을 되갚아 주신다.” 개인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하느님의 종들이란 주님을 진리 안에서 섬기는 이들이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증거한 탓에 순교를 당했다. 바빌론이 표현한 이들의 엄청난 죄는 타인의 믿음과 이타애를 왜곡시켜 그들이 영적 생명에 피해를 주거나 파괴해버린 데 있다. 영적 순교자들인 그들의 영적 생명, 믿음과 이타애는 과거 그들을 억누른 악과 유혹해대던 오류에서 해방시켜주는 심판으로 되갚아 주신다. 그들이 말씀으로부터 획득했던 진리가 각종 거짓 해석과 오류를 돌변시킨 사리사욕적 진리의 응용, 그러므로 해서 진리가 악을 승낙하는 쪽으로 기운데서 자유로워 질 때 “그들의 피는 정당하게 보응된다.”

3. 하늘의 군중이 하느님을 자기들의 구원의 저자요 정의로운 심판자로서 찬양을 했을 때 “그들은 다시, ‘할렐루야하고 외쳤다.’ 하느님을 찬양함은 두 애정, 즉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부터이다. 이 두 사랑은 그것이 기도이든, 감사에 속하는 예배이든,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이다. 이 두 사랑은 종교의 총체이다. 그 이유가 종교적 모든 부패는 이 두 사랑이라는 원리가 부패됨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사랑의 정당성이 입증되면 회복으로 변형된다. 엄청난 탕녀의 심판은 지배함을 사랑함과 자아만을 사랑하여 부패시키는 영향력으로부터 종교를 해방되게 하고 지켜준다. 이런 해방은 의로운 자에게 기쁨의 원인이 되는데 그것은 일반적 결과 뿐만 아니라 세부적 결과에서도 그러하다. 그들은 부패된 종교를 가졌던 이들과 헤어졌기에 그 해방을 기뻐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 그리고 중간 영역의 상태에서 죽음과 심판 사이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을 흡수하려 했던 부패된 종교의 영향권을 벗어났기에 기뻐했다.

의로운 자를 내려놓았던 영향력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준 심판은 악한 자에게서 그들이 뒤집은 진리, 그들이 더럽힌 선을 빼내고 본래 그들에게 소속된 것인 악과 거짓만을 남겨 둔다. 이상태가 이제 기술되어 있다.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간다.” 왜곡시켰던 진리를 빼앗아 그 가면을 벗기면 악은 거짓된 것 외에 더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이유가 불이 있으면 연기가 동시에 있어지듯 악한 사랑은 당연하고도 동시에 거짓 생각만을 생산한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에서 불의 연기로 의미해놓고 있는 것이다. 심정의 애정으로부터 튀어나와 이해성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원무궁토록 올라간다. 이것은 막연히 끝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모든 생각, 말, 행동 안으로 들어가 형체를 만들고 그 형상 자체까지 만들려 한다.

4. 하늘에 있는 군중에 의한 주님을 찬양함이 이제 원로들과 네 생물에 의해 화답되고 있다. “그러자 스물 네 원로와 네 생물이 옥좌에 앉으신 하느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하고 말했습니다.” 더 높은 권능으로 응답하는 아멘과 할렐루야는 더 낮은 천국에서 외친 진리가 더 높은 천국에 의해 확증되는 것이다. 그리고 네 짐승이 가장 높은 의미에서 표현하는 천국 안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 위에 있는 말씀 자체에 의해서도 확증되는 것이다. 세부적 의미 차원에서 모든 진리는 개개인의 경험에 관계되는바 낮은 천사의 할렐루야에 더 높은 천사의 화답은 천국적인 곳에 있는 이들, 천국적 상태에 있는 이들의 마음에 있는 더 낮고 더 높은 애정과 지각 사이에 존재하는 하모니와 통일성을 표현하고 있다. 진정한 예배는 내향의 애정으로부터 진행되어 바깥쪽에서 표현된다. 더불어 참된 예배는 내향의 애정으로부터 진행되어 바깥쪽으로 표현된다. 동시에 참된 예배는 그 예배를 있게 한 애정을 강해지게 한다. 만일 바깥쪽 행동이 없다면 내향의 응답도 있을 수 없다. 만일 경건한 느낌이 바깥쪽 예배의 행동에서 그 자체 발생되지 않으면 그것은 시들해져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진리의 영이 안으로 흘러드는데서 마음을 닫히게 까지 하고 만다. 이와 반대로 만일 그것이 심정으로부터 찬양과 기도 안에 오고 있다면 마음은 새로운 영향과 선물을 받기 위해 열려진다. 참으로 이것은 참된 모든 예배의 결과요 목적이기도 하다. 이에 관해 다음에서 읽게 된다.

5. “그때 그 옥좌로부터 이와 같은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종들, 그리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 우리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옥좌 둘레, 그 아래에 있는 이들의 찬양에 응답하는 옥좌로부터의 이 소리는 주님으로부터 었다. 주님께서서는 제이무리 높은 천국에 있는 이들이라 해도 청취할 수 있는 소리로는 말하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성령 즉 신성한 진리가 안쪽으로 흐르게 하심으로 심정과 지성에 말하신다. 이것이 기도이든, 찬양이든, 참된 모든 예배에 대한 신성한 응답이다. 이 구절의 주제와 관련해볼 경우, 하느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든 이에게 그분을 찬양하도록 부르심은 말씀 속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더럽힘으로 교회를 부패케한 길을 제거하신데 대해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지상의 신실한 자와 천국의 모든 이에 대한 권면에 해당된다.

6.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하느님의 모든 종을 불러 주신 옥좌로부터의 소리가 깊은 흥미를 지닌 신화와 대리인들 모두에게 영광으로 답하고 있다. “또 나는 큰 군중의 소리와도 같고 큰 물소리와도 같고 요란한 천둥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느님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시리즈와의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때 처음의 할렐루야는 보다 낮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 즉 “하늘에 있는 군중”으로 의미된 이들에 의해 외쳐졌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원로로 의미되는 가장 높은 천국에 있는 이들에 의해 외쳐졌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는 큰 군중, 큰 물소리, 요란한 천둥소리로 의미된 모든 천국에 의해 외쳐졌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천국, 진리의 애정으로부터는 많은 물소리로, 선함의 애정으로부터는 천둥소리로 의미되는 바 온 천국이 주 하느님 전능하신 분의 다스리심에 기뻐하고 있다. 그들이 주님, 하느님, 전능한 분으로 의미되는 그분의 사랑, 지혜, 권능의 정부를 인정하고 그 아래로 올 때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인간의 심정 안에서 다스리신다. 세상적인 사랑, 지혜, 권능은 인간 안에서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 그들의 권위를 찬탈했다. 그들의 지배는 이제 끝났고 신성한 정부와 왕국이 회복되었다.

7. 군중은 주님의 통치가 시작함에 뒤따르는 또 다른 사건을 경축하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되었다.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고...” 어린 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아내인 교회이다. 주님과 교회의 결혼은 이 예언적 환상이 관계된 시대 훨씬 전에 거행되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은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결혼은 새로운 교회를 암시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분의 첫 강림 때에 배우자로 삼았던 교회는 불성실로 돌아섰다. 그녀는 주님께서 그녀와 함께 들어갔었던 언약을 깨트렸다.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그들의 인종 부분에 내 법을 놓고 그들의 심정 안에 그 법을 적겠다.” 이것은 교인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지는 조건이었다. 교회가 이 언약을 영의 수준에서는 물론 글자적 수준에서도 깨트렸고, 교회의 어떤 분과는 공식적으로 율법 자체를 언약으로 간주한다. 이외에도 세 신성한 인물을 인정하는 교회가 어떻게 신성한 한 분과 참된 결혼이 있어 질 수 있을까? 교회라고 해서 세 남편을 가져도 되는 것일까? 이와 같은 믿음은 그 자체 주님과 교회의 결혼을 해체시키는 게 아닐까? 그러나 비록 전체 측면에서의 교회가 불성실을 입증해버리고 그 여자가 첫 번째의 사랑을 떠났다해도 이 본문 그리고 여타 다른 경우에서 같이 그루터기(remnant)가 될 사람이 보존되어왔고 그들과 더불어 있는 결혼은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 이 남겨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인성이 신성이냐 아니냐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하느님이요 구세주로 믿음과 예배에서 그분께 접근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결혼을 방해하는 반대 쪽에 있지 않으나 그렇다고 결혼을 완전하게 만드는 찬성 쪽에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결혼이라기 보다는 약혼의 수준에 있었다. 그들과 더불어 어린 양의 혼인은 아직 오지 않고 있다. 그분의 아내는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질 교회에 들어감으로 결혼까지 성사되게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준비해야만 한다. 어떻게 그들이 자신을

준비할까? 지금 어린 양의 아내라 불리는 교회는 광야에 있었던 여인,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삼 년 반 동안 뱀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먹여 살려졌던 그 여인과 똑같은 교회이다. 그녀는 아직 극소수에 그쳐 있는 사람들, 주위 사람과 의견으로는 구별 안되는 교인들, 두 증인에 관한 메시지를 수락하지 못했고 “사내아이”의 보호와 통치 아래에 자신을 놓지 못한 부류의 사람을 표현한다. 이 상태에 있는 교회가 준비할 때란 새 교회 속에 있다는 이들이 “집합하고, 개시하고, 교육을 받는다” 때이다. “집합”하기 위해 그들은 서로 모여 어떤 몸체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시작하고 교육받기 위해서 그들은 이전에 소유했던 이들과 구별되는 다른 매체와 수단을 가져야 한다. 새 교회가 옛 것과 구분되는 조직적 존재를 가지는 것, 멤버에게 예배나 생활에 관련된 것을 가르치는데 어떤 몸체가 요구하는 수단이나 대리인을 가지는 것 등등 외에 더 다른 의미로는 아직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옛 것과의 구분이란 단어가 옛 것과의 분리, 기독교회와는 별개의 조직체가 필수조항이라는 것은 아니다.

주님과 교회의 완전한 결혼은 교회가 주님의 신성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성의 신성까지 인정해야 하는바 주님과 교회의 충만한 결혼은 지금까지 거행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른다.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존재해왔던 모든 교회들은 표본적 교회에 불과해서 그들 아래 있는 진리만을 보아 왔다. 그들은 매체를 통해, 또는 간접적으로 천국을 통해 주님과 교통하거나 결합되었다. 그러므로 주님은 천사라는 어떤 인물로 열조들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나타나셨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간 어머니에게서 탄생하심으로, 즉 “그분이 천사의 본성을 입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입으신 것”, 즉 세상에 오셨을 때 인간과 더불어 그분의 현존과 교류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이었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 하여 보았다. 그 이유가 그분을 본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았는데도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분의 인성을 영화하시어 신성을 만드셔서 비록 자연적인 눈으로 그분을 보는 것은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과거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글자로만 보고 다루었을 때보다 더 친밀하게 현존하시고 있다. 말씀이 육을 만들고 우리 사이에 거하셨을 때 주님과 교회의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듯이 그분과 직접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육을 입으신 이래 주님과 교회의 실제적이고 충만한 결혼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회가 완전해지는 쪽으로 계속 가야 한다는 것, 애매모호한 수준이 아닌 정확한 구분이 있는 수준에 의해 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조건에서였다. 이의 첫 단계가 주님께서 육으로 오셨을 때 시작되었다. 이의 두 번째 단계는 그분께서 영으로 오심에서 시작되었다. 둘째 강령인 영 안에 그분이 오심이 세상의 종말로 흔히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살핀바 있고

아직 더 살펴보겠지만, 주님의 둘째 강림은 참으로 첫 기독교 처방의 종말이고 동시에 둘째 단계의 시작이기도 하다. 주님의 첫 강림으로 인류에게 줄 큰 축복이 베풀어 졌는바 그분의 둘째 강림으로 인류에게는 더 큰 축복이 내려지고 있다. 두 강림 사이의 차이는 이렇게 말해볼수 있다. 첫 처방은 일반적 진리들에 관한 지식을 받았고, 둘째 처방은 세부적인 진리들에 관한 지식을 받았다. 이런 지식은 아무렇게나 증여된 선물이 아니라 지혜롭고 복 주시는 섭리에 의해 수여된 것이다. 이 처방의 배열은 인류의 정신적 발전에 기초되어 있어 각 처방의 작용은 발전단계들을 생산해주고 있다. 일반적인 모든 진리가 세부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듯이 세부사항에 관한 지식은 진리에 관한 우리의 관점을 계발하고 확장시켜준다. 그 이유가 주제에 관한 일반적인 관점(넓은 측면에서의 관점)은 희미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것이 기독교회의 첫 번째, 두 번째 처방 사이에 있는 구분의 본성인바, 주님에 관계되는 두 처방의 경우도 똑같이 구분되는 품성을 갖고 있다. 똑같은 진리가 양쪽에 소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똑같은 계시를 소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째 처방은 말씀 속의 진리에 더 내면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더 내면적 결합으로 들어갈 수 있다. 또는 첫 번째 처방보다 더 완전한 주님과 의 결혼으로 들어갈 수 있다. 관계 측면에서 볼 때 첫 번째 교회와 주님의 하나됨은 약혼의 수준이었다. 둘째 교회와는 결혼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이 주제에 관한 관점에서 첫 교회도 주님의 아내였는바 그녀의 불성실함은 치명적인 죄였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에서 약혼된 처녀는 서약된 아내로서 간주하여, 남편될 사람에 대한 불성실은 간음으로 고려되어 죽는 형벌까지 내렸는데 (신명기22:23,24), 이런 법들이 위의 사항을 표본화했기 때문이다. 천국 군중이 기뻐 환호하는 어린 양의 혼인은 약혼이 아니라 충만되고 완성된 상태의 결혼이고 교회 자체와 결코 분해될 수 없을 하나됨이었다.

8. 결혼식이 다가왔고 주님의 아내가 준비를 마쳤는데 대해 군중들이 기뻐했을 때, 이렇게 말해진다. “그들은 하느님의 허락으로 회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되었다.” 새 교회 속에 있게 될 사람들이 시작해야 하고 가르쳐져야 할 진리들은 주님의 아내가 차려입게 되는 고운 모시옷이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이 교회는 진리에 관한 지식을 획득한 것만 가지고는 고운 모시옷을 차려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진리를 거룩한 생활 안에 실제로 가져다 놓음으로서만 차려 입을 수 있다. “그 이유가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이기” 때문이다. 성도란 거룩한 생활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 자기들의 옷에 세상의 더러운 게 묻지 않도록 노력한 이들이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아내에게 수여된 옷은 단순히 고운 모시옷이 아니라 회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이다. 사실 말씀 속의 진리는 성도들 안에서 회고 깨끗해 있는바, 그들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때까지 우리 속의 진리는 깨끗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오류로부터 우리를 자유로워지게 할 때까지 회어지지 않는다. 이것들로부터 순수해질 때 정의와 진리는 주님의 참된 교회의 진정한 멤버들의 성도다운 옷을 형성한다. 이럴 때만이 그들은 성도의 정의인 고운 모시옷을 입는다.

9. 모든 것이 이제 완료되고 가장 중요한 발표가 천사에 의해 요한에게 있어진다.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 말씀은 하느님의 참된 말씀이다’하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은 그분의 진정한 품성 측면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교회와 주님이 완전하고 충만되게 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교회가 그분을 교회의 믿음, 사랑, 예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는 것인바, 이는 초연적인 영광의 사건이다. 그래서 참으로 결혼 잔치에 초대되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런데 이 초대에는 어떤 한계를 내포하고 있을까? 이 부름은 주님의 사랑만큼이나 한계가 없고 그분의 은총만큼이나 자유롭다. 결혼예의 초대장은 마치 생명의 물을 제공 받는 것 같이 모든 이에게 보내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원하는 이는 누구나 오라.” 그러나 성경에서 부름 받는 이들이 닥치는 대로 아무나 초대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초대에 응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기울은 이들이 초대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이들은 “그의 부르심을 받고 뿔뿔히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계시록17:14). 이 구절에서 “부름 받는 자”는 영적 싸움에서 주님 편에 있는 세 부류 중의 하나를 형성한다.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올는지 모른다는 것은 편파적인 선출이라는 좁은 의미의 믿음에 반대되고, 이를 알고 믿는 것은 복된 것이다. 또한 소극적 측면의 복된 것도 있다. 부름을 듣되 감각의 귀로 들을 뿐 아니라 순종을 뜻하는 귀로 부름을 듣는 이들은 복된 것이다.

혼인 잔치가 만찬(supper)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만찬의 때가 옛 교회의 끝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거행되는 결혼은 새 교회의 시작이다. 이 처방이 끝날 때 또 다른 처방이 시작된다. 이 둘 사이에는 벌어진 틈이 없다. 이런 상황과 같은 밤, 이런 상황과 같은 때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교회의 마지막 과월절을 지키시고 동시에 기독교회의 첫 성만찬을 거행하셨다. 전자는 지나갔고 다른 것으로 진입하고 있다. 처방들 자체가 이리하다. 옛 것 속에 보존되었던 모든 것이 새 것 안으로 건너가고 있다. 그리하여 새 것에서 새로운 빛과 생명을 얻는다. 어린 양의 결혼 만찬은 주님께서 그분의 새로운 교회와 하나된 것을 경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는 부름받는 이들의 영적 생명을 지탱시켜주기위해 만들어 놓으신 섭리 장치이기도 하다. 이 설비는 앞서 있어왔던 교회의 처방에서 있어질 수 있었던 어떤 것보다 더 풍요롭다. 그 이유가 인간 마음이

이제는 더 많고 더 높은 진리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 발달의 어느 단계에 있어왔던 선함보다 더 완전한 선함을 이룩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더 완전한 선함과 진리의 결합 즉 천국 결혼이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부름 받고 있다. 그 이유가 선함과 진리의 결합이 주님과 결합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천사가 요한에게 이 복된 발표를 기록하라고 말한 것은 너무나 잘된 일일 것이다. 그 이유가 이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하여 단순한 기록을 남긴다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는 글자라는 바깥 쪽에서 부름받고 영이라는 안쪽에서도 부름받아 심정에 복 그 자체를 새긴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이 말씀은 하느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 이유가 새롭고 참된 교회가 지상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 이 교회는 주님께 충성하고 이 충성이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확증된 것이 있다. 천국 결혼에 들어가는 이들은 주님과 결합한다는 것, 그들은 영원히 복되리라는 것이다.

10. 이를 전달한 천사의 영광과 훌륭함을 보고 요한은 그에게 신성한 예배를 드리려 했다. “그 때 나는 그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이러지 말라. 나도 너나 너의 형제들과 같이 일하는 중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같이 예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다. 예배는 하느님께 드려라. 예수께서 계시하신 진리야말로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한 천적 존재, 어린 양의 결혼 만찬에 초대된 자는 복되다고 선포한 이 존재가 유한한 존재의 경의가 드높일 수 있는 것 이상의 더 어떤 것으로 예견자에게 비친 것은 과히 놀랄 사항은 아니다. 이 천사 역시 큰 권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 왔을 때 그는 큰 영광으로 번쩍 거렸었다. 그럼에도 요한은 많은 천사들을 보았는데 그들 중 어떤 천사라도 지금 요한에게 명령한 천사보다 덜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선포는 천적 특사의 현존과 연결되는 이들 역시 대단히 인상적인 여건 하에 전달되었었다. 따라서 위 구절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큰 교훈을 가르칠 섭리적인 기회의 하나일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 중 하나는 연결되어 가는 사건 중 하나와 특별히 관계되고 있다. 요한에게 위 메시지를 적으라고 말한 천사는 18장 2절에서 “대 바빌론이 무너졌다”고 권능 있게 외친 천사였다. 이 함락 자체는 앞 장에 기술되어 있다. 천사 앞에 엎드린 요한의 태도는 모든 마음들에 상속되어져 어떤 경향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모습 자체는 바빌론으로 표현된 교회의 모습을 어느 다른 것 보다 더 드러내주고 있다. 이 자연적 경향성은 고대 이교도에 의해 신격화된 사람의 근원이었다. 이 경향성은 기독교회가 성도 요람에 수록한 이들을 신성시하는 쪽으로도 이끌고 갔다. 모든 이런 예배는 천사의 “이러지 말라”는 말로

꾸짖어지고 있다. 순수하게 신성에 대한 예배는 “예배는 하느님께 드려라”는 명령만이 합당한 것으로 선포되고 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이시며 누구에게만 예배해야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의 참된 대상이다.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느님이다. 그분의 인성은 신성이다. 그분의 인성은 몸과 영혼의 관계처럼 그분의 영원한 신성과 하나이다. 인간에게서 몸과 영혼은 유한하지만 예수의 그것은 무한하다. 주님의 인성, 그러므로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은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이 그분의 교회의 남편이다. 어린 양의 아내 되는 교회에 대한 영감의 언어는 이것이다. “...그는 너의 주님이시니 그 앞에 꿇어 절하여라” (시편45:11). 천사의 이 말을 미루어 짐작하면, 천사는 영화된 인간의 영밖에 더 아니다 라는 직접적이고 소극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더 가르쳐주는바 천사와 인간은 동료 수준의 종들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유한성은 마찬가지로 무한한 분을 경배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모두 예수께서 구속해주신 은혜를 입어 복을 받고 있다. 모두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흥미를 둔 적극적인 대리인이다. 그들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증인들이고 모든 진리는 이것과 관계된다. 그분은 진리 자체이시다. 모든 진리는 그분에게 근원을 가지고 있고 그분에 관해 증언한다. 예수의 증거는 진실로 예언의 영이다. 그분과 관련이 없는 예언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이럴 경우 어떤 약속도, 어떤 희망도 붙어 넣어 주지도 못한다. 예수는 예언의 참 영혼이다. 육으로 명백해짐은 그것의 첫 번째 충만이었고 두 번째 오심의 최말단적 성취의 근원이요 기초가 되었다. 이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더욱 높은 수단이다.

11. 또 다른 나타남이 이제 표현되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가 예언을 이끌어 가는 주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흰 말이 있었고 ‘신의’와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방금 앞 절에서 어린 양으로 말해졌던 그분, 그분과의 결혼이 있어졌고 그분의 아내를 단장시켰던 그분이 이제 전쟁하는 사람, 피 묻은 옷을 입고 천군을 거느린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변화는 비록 역지스럽기도 하지만 5장에서 언급된 것, 즉 유다 지파의 사자가 봉인을 떼고 책을 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린 양이 나타나고 사자되시는 분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것과 유사할는지 모른다. 갑작스럽고 놀랄만한 이런 변천은 이미 살폈지만 환상의 과정에서 자주 발생된다. 주님의 모습의 이런 큰 변화를 헤아려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다. 어린 양의 결혼, 이는 있게 된다고 말해졌는바, 천국 안에 있는 교회와 거행되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와는 아직 결과되지 않는다. 새 기독천국, 이것은 천국에 있는 그분의 새로운 교회인데

이 교회는 도장 받은 열 두 지파와 처녀의 군중들로 표현된 사람들로 형성되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아내로서 천국에 있는 이 교회와 결합하셨다. 그러나 이 새 교회는 지상에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새 예루살렘은 하느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다. 주님과 교회가 영계에서 결혼하는 것과, 자연계에 있는 교회와 그분이 결혼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중요한 일들이 결과되어야만 하는 것은 틀림없다. 사내 아이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던 권세는 여인 뒤에서 홍수 같은 물을 보냈고 그녀의 남은 후손과 전쟁을 일으키려 했는바 이 권세야말로 정복되어야 한다. 이 권세는 천국에 교회가 세워진 당연한 결과로 세우려 하시는 것을 가능만 하면 방해하려고 그분의 일이 진전되는 것을 방해하는바, 흰 말의 승마자는 이것과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전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듯이 어린 양의 아내도 그분을 따르는 군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 아래서 그분의 복 주시는 일을 반대하는 자를 정복하는 도구가 되어 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한 개의 큰 사건, 즉 흰 말을 타시고 그분이 오시는 것으로 묘사된 주님의 두 번째 오심과 연결되고 있다. 천국의 구름에서 나타나신다고 말해진 복음서의 주님의 재림에 관한 묘사와 계시록의 이 부분의 재림에 관한 표현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물론 양 쪽 모두, 즉 묘사와 표현 모두는 영적으로만 이해되어야 한다. 두 가지 사이의 차이는 어떤 불일치도 발견되지 않지만 의미심장한 구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만은 감지된다.

구름은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종종 성경에서는 병거와 말과 비교되고 있다. 주님에 관해 이렇게 말해진 대목이 있다. “...그분은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신다” (시편104:3). “보아라, 야훼께서 빠른 구름을 타신다” (이사야19:3).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구원의 병거와 말을 타신다고도 말해지고 있다 (하박국3:8). 성경의 상징적 언어에서 구름과 말 모두는 진리의 상징물이다. 둘의 차이란, 구름은 진리에 관한 지식이고, 말은 진리에 관한 이해이다. 하늘이 열려 흰 말을 타신 주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늘이 열림은 교회이든 개인 차원에서이든 이는 천국에서 이해되듯 신성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다. 흰 말을 타신 그분의 이름이 이를 암시하고 있다.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불리우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말씀이다. 그러나 씌어있는 말씀은 영원한 말씀을 밝히 알게 한 것이다. 전자에서 참된 것은 후자에서도 참되다. 씌어있는 말씀은 그 본질 측면에서는 신성이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이 말씀은 주님만을 취급하고 있다. 말씀은 안쪽 의미, 즉 천국적 의미

차원에서는 천국과 천국적인 것들만을 취급한다. 영적 의미는 특별히 천국에 있는 교회의 사용을 위한 것이다. 마치 자연적 의미가 땅 위 교회의 사용을 위한 것과 같다. 그럼에도 땅 위 교회는 영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지상의 교회가 이해하는 수준은 천국에 있는 교회와 비교해보면 질게 깔린 어둠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은 수준이다. 천국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지상의 교회는 천국에 있는 교회와 더 가까운 교류를 가지며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룩한다. 말씀의 영적 의미를 밝히 알게 함(계시)은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구성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주님은 말씀 속의 그분의 품성 안에, 즉 이 구절에서 말해지는 “이름” 안에 오신다.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은 개인적 인물로 지상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 자신을 밝히 알게 하시는 방법 밖에 더 다른 오심은 없다. 참으로 말할 수 있는바, 그분은 거기서 그분 자신을 이미 밝혀 놓으셨다고 말해 볼 수도 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분께서는 성경에서 그분에 관해 밝히 알게 함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교회는 모른 채 있었던 게 아닐까? 참으로 교회는 말씀을 언제나 소유해 왔고 아직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의 참된 글자적 의미조차도 언제나 몰랐었고 이해 못했다. 교리 측면에 관련해 볼 때, 시대의 흐름에서 글자적 의미는 크게 뒤집어 졌는데 이제 원상복구가 요구되고 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에 관해서 이들은 결코 이해 못해 왔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언을 글자대로만 이해했기 때문이다. 영적 의미를 수단으로 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의미는 이 구절의 예언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의미는 사람들이 글자 의미를 잘 이해하고 깊이 있게 연구해서 산출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천국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열어준다. 예언이란 말에 관련해 볼 때 주님의 둘째 강림에 관한 예언에 관해 배운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들은 주님께서 구름 안에 오시리라는 것, 그 다음 죽은 자를 일으키고, 세상을 심판하고, 하늘과 땅을 멸하여 모든 것에 종말을 드리운다는 것이다. 성경을 글자적 의미대로만 믿는 이들이 위와 같이 믿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노릇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과거 예언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에는 먹혀들었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그 이론은 버티는 것조차도 힘들어 졌다. 글자적역주의자들이 뒤로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와 함께 그들의 근거가 붕뜨게 되어 이 요점, 저 요점으로 몰려 다녔지만 결국 다투어오던 건수마저 점차 줄어 결국 백기를 들고 만다. 그럼에도 백기를 들게한 것은 과학은 아니다. 그 적들이란 과학을 수단으로 성경을 공격하는 이들, 그리고 과학에 대항하여 성경을 방어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말씀의 영적 의미는 논쟁의 바탕 자체를 제거하고 있다. 이 의미는 과학이 이 예언들의 글자적 성취라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과학은 말씀에 포함된

더 높은 의미를 더 낮게 이해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도움 자체를 허용한다. 참된 과학과 참된 종교는 언제나 일치될 보고 있다. 그 이유가 과학의 길에 드리운 똑같은 빛이 종교의 길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내려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된 빛은 한 개 밖에 없다. 그래서 과학의 사람이 그 빛의 덕을 입듯 종교의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 저자 되신 하느님은 그러므로 해석자, 자연과 계시의 해석자도 되신다. 그럼에도 자연의 참된 해석은 성경의 참된 해석에 선행한다. 성경은 시대의 과학에 일치되어 씌어 질 수 밖에 없는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가 받아 적는 이들이 이해하거나 믿는 것 외에 더 다르게는 기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일진대 과학이 등장하는 정도에 맞추어 그들에게도 설명되어질 수 밖에 없다. 과학적 진리가 건설되기 전에 마음은 과학이 지적하는 종교의 진리, 또는 과학과 상응되는 종교적 진리의 수용을 위해 준비될 수 없다. 지구는 조그만 평면 밖에 더 아니다 라고 이해되는 수준에서는 주님이 구름 안에 오시기로 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만국 백성이 그분 앞에 집합한다는 것 등등을 믿도록 강요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짐쟁이 같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싶어했던 것과 같은 것들, 지상이 죄로 더욱 부패해져가고 시대를 지날수록 더 퇴폐해져가는 한 세상 끝은 더욱 당겨지고 있다고 사람들로 믿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이것들은 과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다시 말해 영적 또는 종교적 진리를 위해 자연적 기초를 더 이상 형성하지 못한다. 새 과학은 새 신학을 위해 길을 준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성경의 새로운 해석, 세부적으로는 예언의 언어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위해 과학이 길을 준비해 주고 있다.

비록 계시의 부분들이 새로운 과학에 자신을 적용하는 듯 외관상 보일지라도 계시가 과학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는 쪽으로의 결론은 성립되지 않는다. 자연적인 지식은 종교적 진리에 선행하는데 이는 이런 법칙, 즉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고 자연적인 것이 첫 번째이다. 그 후에는 영적인 것이 첫 번째가 된다”는 법칙에 따라 선행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존재의 연속이 아니라 나타남의 연속이다. 자연적인 것은 시간 측면에서 첫째이나 영적인 것은 목적 측면에서 첫 번째이다. 영적인 것은 원인이고 자연적인 것은 결과이다. 자연적인 것들은 수단이어서 이를 가지고 영적인 것들은 지혜가 그녀의 집을 지을 수 있게 재료를 수집한다. 그 이유가 자연적인 것은 영적인 것의 결과일 뿐 아니라 그릇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참된 모든 과학은 그 나뭇에서 거룩한 바 이것이 종교를 섬기는데 헌신될 때 완전히 거룩해진다. 이 수단들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인류의 영적 흥미를 섬길 때 과학은 계시의 저자에 경의를 표하고 이 저자의 가장 높고 가장 고상한 선용을 이룩한다. 종교적인 모든 진리는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마치 과학적인 모든 진리가

자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다. 과학과 자연의 관계같이 신학은 성경의 참된 해석 그 이상의 것은 없다. 신학이든 과학이든 창조력은 없고 단지 밝혀내는 것 뿐이다. 말씀을 밝혀 낸다는 것은 그것의 내적인 영적 의미를 열어 보여 주는 것이다. 말씀의 영적 의미 안에서 주님은 두 번째 오신다. 그분의 오심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나라에 관해 더 높고 더 명백한 관점을 주고 그것들이 그분의 오심을 구성하고 있다. 그것은 그분의 인물과 품성을 더 완전하게 진열해 주고 있다. 그것은 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천국이 어떤지를 더 명백하게 보이고 있다. 그것은 성경의 주제들, 즉 창조와 섭리에 관해서, 구속과 구원 등등의 모든 주제들에 새로운 빛을 드리워주고 있다. 그것은 우리로 천국의 빛 안에서 이런 주제들을 볼 수 있게 한다. 그 이유가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밖에는 달리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영적으로 보게 해준다. 그래서 말씀 중에서 알기 쉬운 의미를 전혀 가리지 않은 대목에서도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그 이유가 열린 천국에서 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새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 속의 진리를 통해 그분의 교회에 그분을 밝히 알리겠다는 표시이자 약속이다. 열려 있는 천국은 마음 밖에 있는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천국, 내적 인간의 천국, 영적 마음이다. 이 천국을 통해 주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시어 그분의 빛을 드리워 이해하게 하신다. 이 열린 천국을 통해 그분께서는 개개인의 모든 마음에 두 번째 강림하신다. 참으로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은 제일 먼저 우리의 세부적인 마음으로 오시어 그분을 영접하는데 가능할 수 있는 바깥쪽, 안쪽의 수단을 준비해두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통해 성경의 교리적 의미나 영적 의미가 이해되도록 열리고 계발되는바 타인들이 영적 식별의 빛을 추구하고 받는 것을 준비하도록 지식들이 설비된다. 신성한 모든 의도는 내향의 빛과 바깥쪽의 가르침이 하나된 작용으로 수행되어졌다. 내향의 빛 홀로라면, 또는 영의 작용은 빛을 되튀기는 대상물이 없는 빛과 같다. 빛이 어둠을 비추는데 어둠은 그것을 납득 못한다. 바깥쪽의 가르침은 내향의 빛이 드리워질 대상물을 공급한다. 그리고 이를 수단으로 내향의 빛은 마음의 눈에도 반사된다. 그러므로 바깥쪽 계시도 필요한 것이다. 바깥쪽 지식은 객관적인 진리이다. 내향의 빛은 이 진리를 주관적인 진리로 만든다. 바깥쪽 계시가 없이 내향의 빛은 지식을 나누어주지 못한다. 내향의 빛 없이 바깥쪽 계시는 식별력을 주지 못한다. 이 둘은 모두 필수적인데 바깥쪽 계시를 설명하는 것이 내향의 빛이다. 성경의 문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거기에 알맞는다는 글자적 의미를 추가 해놓고 이것이 성경을 총망라해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그의 신체 구조를 나열하고 각 신체 기관의 기능을 설명한 다음 이것이 그 사람을 다 설명한 것이라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육체가 의지를 행동화하는바 신체 역시 경이롭고 아름다운 도구라 해도 육체는 도구에 불과할 뿐 영혼이 그 사람이다. 말씀 속의 영혼은 영적 의미이고 글자적 의미는 육체에 해당된다. 주님이 창조에서 생명되어 계신 것 같이 그분은 말씀 속의 생명이시다. 어쨌든 말씀의 글자적 의미 역시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지! 그럼에도 이 의미는 영적 의미의 의복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의미는 유용함의 도구가 되도록 의도되어 있다. 지금까지 말씀은 글자적 의미만으로 이해되어왔다. 말씀 안에 영적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은 태고의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말씀의 영적 해석의 법칙은 알려지지 않았는바 성경의 영적 해석은 해설자의 마음을 표현했을 뿐 하느님의 마음이 표현된 게 아니었다. 말씀의 영적 의미의 본성은 이 절을 뒤잇는 구절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 구절은 말씀을 그 자체 있는 그대로에서 취급하고 있다. 흰 말을 타신 그분은 “충실과 진실”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충실함과 진실함은 선함과 진리와 똑같은데 이는 신성한 본성의 필수적인 원리들이다. 이는 말씀의 본질적인 원리이기도 하다. 정의로움, 이 안에서 그분은 심판하시고 이를 수단으로 전쟁도 치루는데 정의는 그 실행(operation) 측면에서 선함과 진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신성한 모든 심판은 그들이 선함과 진리로부터 행하듯 진행되는바 이는 완전한 정의와 공정의 결정들이다. 모든 신성한 전쟁은 공정이 불공정에 맞서는 것, 정의가 불의와 맞서는 것, 선이 악에, 진리가 거짓에 맞서는 것이다.

12.13. 흰 말을 타신 분에 관해 더 말해지고 있다. “그분의 눈은 불꽃같았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으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분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에 젖은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 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눈은 그분의 지혜이다. 불과 유사한 불꽃은 그분의 사랑이다. 그분의 머리에 있는 많은 관은 그분의 사랑과 지혜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들이다. 이 진리를 수단으로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백성의 심정과 지성을 다스리신다. 이것들은 이미 설명했었던 모습들이다. 그 외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기다리고 있다. 승마자의 이름이 주어지긴 했는데 그 이름은 그분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이는 씌어 있는 말씀과 인물에 관한 특징이다. 무한한 분을 알 자는 무한하신 분밖에 더 없다. 씌어있는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밝히 알리는 영원한 말씀 뿐이다. 그것의 지혜는 무한하다. 그 이유가 영원한 말씀은 가장 깊은 본질 측면에서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원한 말씀은 천사나 인간에 무진장한 지혜의 샘이다. 비록 주님만이 그 샘의 깊이와 완전함을 아신다 해서 유한한 존재가 그 샘의 지혜에 관한 모든 지식마저 전무한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에 관해 하신 말을 여기서 들추어보자. “아버지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마태11:27). 그런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요한6:44). 주님만이 인간에게 그분의 말씀을 알도록 가르치실 수 있다. 인간은 말씀을 밝히 알게 하는 지혜의 빛을 수단으로 그분이 계시하신 지혜를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앞 길은 당신의 빛을 받아 환합니다”(시편36:9). 이와 같이 그들은 자기들의 심정에 그분의 사랑을 받는 만큼에 비례해서 그들의 이해성에 그분의 빛을 받을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빛도 없다. 주님은 무한한 지혜이시다. 아버지(the Father)인 사랑만이 인간을 아들(the Son)인 지혜에로 이끌어 준다. 그 이유가 거기에는 유한한 지혜는 어떤 것도 없고 오로지 사랑의 지혜만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으면 진리 안에 생명, 혼이 없다. 인간이 선함을 사랑하기를 중단하면 그는 진리에 관한 이해를 상실한다. 그리고 그들이 선함 대신 악을 사랑하려할 때 그들은 진리대신 거짓을 채용한다. 진리는 참으로 선함이 지적으로 지각된 것밖에 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함에 관한 지식이다. 그분의 빛은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지혜의 빛이다. 이것이 사랑으로부터 올 때 그것은 우리를 사랑에 인도하려 한다. 어떤 것에 관련된 진리는 그것의 선함 또는 용도에 관한 지각과 지식이다. 어떤 것의 선용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축출할 수 있는 선 또는 우리가 그것을 수단으로 획득하거나 행할 수 있는 선이다. 종교적 진리의 사용은 우리의 발을 정의라는 진리의 길에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의 목적 차원에서 더 없다. 이외로 인도하는데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는 유용함이 없게 될 것이다. 진리의 생명이 선함이듯 거짓의 생명은 악이다. 거짓은 악 자체를 옷입히는 빛이고 이 거짓을 수단으로 악은 우리의 승낙을 받아 낸다. 참으로 그것은 왜곡된 빛이다. 그러할진대 그것은 왜곡된 선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 결국에 가서는 악을 선이라 부르는 상태, 선을 악이라 부르는 상태, 어둠을 빛 대신 놓고 빛을 어둠 대신 놓는 상태에 이르고야 만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심한 듯 여겨질는지 모른다. 그러나 종교적인 모든 잘못은 그 잘못을 나무라는 진리의 빛을 차단하는 어떤 악에 그 근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악을 변명하거나 감추어 주는 어둠 아래 숨어 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종교적인 잘못들이 성경으로부터 끌어내지고 또한 성경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의 글자를 수단으로 끌어내거나 입증하되 이 글자가 생명의 영과 분리될 경우 죽는다. 영과 글자의 관계는 선함과 진리, 목적과 수단, 본질과 형태의 관계와 같다. 글자가 영에서 절단될 때 글자는 영이 가르치지도 않는 것을 가르치게 할 뿐아니라 영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까지도 가르치게 만든다. 기독교회의 두 개의 큰 잘못은 이미 말한바 있지만 글자가 말씀의 영에서 절단된 상태로 교회의 존재를 둔 것이다. 그리고 글자를 하나님의 영에

의거하지 않고 인간의 영에 의거 해석한 것이다. 천국을 닫고 여는 권능은 단 한사람에게 있었던 적이 결코 없었고, 말씀의 글자가 그 가르침의 영에서 분리되지 않았다면 구원이 한 개의 품위에만 배당된 적도 결코 없었을 것이고, 말씀의 영과 글자 모두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가르침 중의 어떤 것에 반대되는 인간 견해를 지지한 적도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흰 말을 타신 분은 피로 범벅된 옷을 입고 계셨던 것이다. 말씀의 옷이 글자적 의미이고 이 의미가 영적 의미에 옷을 입혀준다. 인간의 잘못과 뒤집음이 말씀을 피로 얼룩지게 하는데 피란 죽임을 당한 진리들이다. 말씀이 가르치는 본질적 진리를 파괴하는 인간의 해석들은 말씀으로부터 생명과 생명을 주는 힘을 박탈한다. 흰 말을 타신 그분의 피로 얼룩진 옷이란 하느님의 말씀과 인간의 영혼 모두에 가해진 폭력을 상징한다. 꾸며진 성경의 권위, 구원할 수 없는 그것 가지고 구원을 추구하도록 방향지을 때 그 종교는 참된 안내자가 되기를 중단하는 것이고 교회는 참된 교회 되는 것을 중단한다. 이럴 경우 교회는 끝장을 보고 만다. 그리고 구원의 수단이 설비되도록 새로운 교회가 조직된다. 주님의 오심은 이런 목적이 결과되는 것이다. 주님은 증거 없이 그분 자신을 놔두지 않으시고 교회 없이 인간을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이쪽이 끝날 경우 또다른 것이 그것을 잇도록 언제나 설비하시고 있다. 위기는 심판이다. 심판은 영계에서 교회의 참된 자를 거짓된 자로부터 분리한다. 그리고 심판은 자연계에서 사람 사이에 있는 진리를 잘못들로부터 분리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으로 표현된 이유이다. 똑같은 이유에서 그분은 말씀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 이유가 심판하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이다. 말씀의 법과 원리들은 교회와 교인이 심리되는 테스트이요 그들을 측량해주는 표준이기도 하다. 말씀으로서의 주님은 선과 악, 진리와 거짓 모두에 관련되어 표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인물은 그분께서 전자를 표현하는 면모이고 그분의 피묻은 옷은 그분이 후자에서 나타나는 면모이다. 이런 이중적인 면모는 심판의 특성인데 이것은 정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모두에 결과되어지고 있다. 그분의 첫 오심, 이 오심은 역시 심판의 때 였는데 첫 오심에 관련되어 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에돔에서 온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걸치고 보스라에서 온 이분은 누구신가? 위엄찬 옷을 입고 위세를 떨치며 저벅저벅 걸어 온 이분은 누구신가? ‘나는 구원을 약속하는 자, 도울 힘이 많은 자이다.’ ‘어찌다가 당신 옷에 붉은 물이 들었습니까? 당신 옷은 마치 포도주틀을 밟다가 물든 것 같군요.’ ‘나는 혼자서 술틀을 밟아야 했다. 나의 백성 가운데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너무나도 노여워, 나는 그것들을 마구 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나의 옷이 온통 피투성이가 된 것이다. 원수값을 날을 정하고 버르고 있다가 마침내 복수할 해가 왔다” (이사야63:1-4). 주님의

탓으로 기록된 노여움과 복수는 물론 가상적일 뿐이다. 그분에게는 성냄이 없다. “격분은 내 안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성냄이 반사된 것이다. 그분의 옷에 물든 피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그것은 포도주틀로부터이다. 그것은 심판되는 이들의 피이다. 거짓과 악을 수단으로 진리의 왜곡자들이 말씀의 글자에 얼룩을 만든 것이다.

14.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주님 자신을 결혼하게되는 어린 양이라고 말한 뒤 즉각 피로 얼룩진 옷을 입은 용사로 표현되었듯이 그분의 아내라 불리는 그분의 교회를 집합적으로 형성하는 이들이 천국에 있는 군대,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는 군대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 이 군대들은 천사들의 천국 전체를 뜻하는게 아니라 말씀을 내면으로 이해해서 주님과 결합하는 교회, 새 기독교인의 천국, 천국의 새 교회를 뜻한다. 말씀의 이해는 그들이 탄 말이다. 그리고 말씀의 순수한 진짜 진리가 그들이 입은 깨끗하고 흰 고운 모시옷이다. 어린 양의 아내와 더불어 천국의 이 군대의 정체는 그들의 존재, 그 여자처럼, 희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으로 잘 차려 입은 것에서 암시되고 있다.

천국은 그것 외 각기 다른 기능과 용도에 따른 품성과 형체 아래 묘사되고 표현되고 있다. 천국이 주님의 아내, 그분의 몸, 그분의 성전, 그분의 왕국, 그분의 군대로 불리고 있다. 사랑으로 그분과 결합할 경우 천국은 그분의 아내이다. 장엄한 사람(the Grand Man),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의 가장 완전한 형상일 경우 그분의 몸으로, 그분이 더 직접적으로 현존하는 장소일 경우 그분의 성전으로, 그분의 사랑과 지혜의 정부 아래 있을 경우 그분의 왕국으로, 그분 휘하에서 악과 거짓에 반대하고 그것을 정복하는 도구일 경우 그분의 군대로 각기 불리고 있다.

천국의 천사들은 마치 주님이 만군의 주님이라 불리듯이 군대, 군단으로 불리운다. 그 이유가 그분의 진리의 그릇들로서 완전을 만들어 임무를 부여받은 수많은 의로운 자들은 일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지상의 교회가 기독교생활의 싸움에 성공적으로 종사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한 그분의 손에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 싸움은 자아, 세상, 육과의 싸움이고 이것은 각양각색의 형체로 있는 주님, 천국, 교회의 적이다. 이런 악들의 사랑을 스스로 확증하거나 탐닉하는 이들은 주님과 인간의 개인적인 적들이다. 그들이 말 위에 앉은 그분과 그의 군대에 맞서 전쟁을 일으키는 짐승들, 땅의 왕과 그의 군대들로 표현되어져 있다. 마지막 심판에 앞서 영계에서 거행되는 것인 이런 싸움은 악과 잘못 안에 있는 이들이 선함과 진리 안에 있는 이들에 반대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 싸움의 본성중 어떤 것은 흰 말을 탄 그분의 군대와 땅의 왕의 군대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흰 말의 승마자는 하느님의 말씀, 천국의 군대라고 불리는데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말씀 속의

진리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 진리들은 주님의 권능의 실제 도구들이다. 참으로 명백한바, 심판의 대리인으로서 말해지는 이들은 개인적으로 심판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열 두 사도에게 말하시기를, 그분의 나라에서 그들은 열 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을 때 그분이 그들에게 말하신 것은, 심판이 결과되게 하는 진리로서의 그들의 표현적 품성에 관해서이다.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지닌 그분을 따르는 군대는 그러므로 말씀 속의 모든 천국적 진리들이다. 이 진리들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천국을 유지 지탱하게 한다. 동시에 그분의 말씀은 진리와 정의의 원인이 된다. 천국의 이 군대들이란 그들이 천국에서 지각할 때의 말씀 속의 진리, 즉 말씀의 영적 의미를 표현한다.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깨끗하고 흰 고운 모시옷은 바깥쪽에서 빛나는 총명과 흠없는 정의로움으로 모습을 드러낸 진리들이다. 또한 그들은 말을 타고 있었다. 이것이 표현적으로 가르치는 바, 말씀의 영적 진리는 이제 주님이 건설하기 위해 오시는 교회, 새 교회를 형성하는 이들에 의해 지적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15,16. 군대의 지도자로서, 말씀으로서의 주님이 정복하러 나가고 정복하게 된다는 것이 특색 있게 묘사되어 있다. “그분의 입에서는 모든 나라를 쳐부술 예리한 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친히 쇠지팡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분노의 포도를 담은 술틀을 밟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짜내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군주의 군주’라는 칭호가 적혀있었습니다.” 이미 살핀바(1장 16절)대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란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이고, 이 진리가 오류와 싸울 때는 칼과 같고, 악과 싸울 때는 쇠지팡이와 같다. 이 악은 쇠지팡이로 다스리는 모든 나라로 의미되고 있다. 그분께서 포도즙틀을 밟는 것은 심판 자체이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의 형상은 정복자의 발아래에서 적들을 짓밟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것이 죄있는 사람 사이에는 너무나 실제에 해당되지만 정의로운 하느님과 더불어서는 오로지 가상일 뿐이다. 그분의 심판이 그분의 적들에 의해 느껴질 때는 마치 그들이 보복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 비록 그들이 자비의 층만 속에 있다해도 그들의 느낌은 한결같다. 물론 자비는 지혜로 방향지어 진다. 그러나 분노로는 영향력을 결코 발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님 안에 분노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분의 넓적다리와 옷에 씌여진 이름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분의 옷으로 의미된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서, 그분의 넓적다리로 표현된 말씀의 영적 의미에서, 그분의 신성한 성품은 순수한 지혜와 사랑이라고 보여주고 있다. 신성한 지혜일 경우가 그분이 왕일 때이고, 신성한 사랑일 경우가 그분이 군주일 때이다. 게다가 그분은 왕중의 왕이요 군주 중의 군주이시다. 그 이유가 그분은 최고 수준의 진리요 최고 수준의

사랑이시오, 천사와 인간들에 있는 모든 진리와 저자이시기 때문이다. 천사와 인간들에게 사랑과 지혜의 원천이신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한 분 위대한 존재(One Great Being)이시다.

17,18. 이후 요한이 말한다. “나는 또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모든 새에게 큰 소리로 ‘자, 다같이 하느님의 큰 잔치에 오너라. 왕들과 장성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과 모든 자유인과 노예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살코기를 먹어라’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살육한 후에 새들이 죽은 자의 살코기를 먹는 전쟁에 관한 형상을 또 다시 갖는다. 그럼에도 이 전쟁에는 더 깊은 의미를 암시하는 것들이 있다.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 뿐 아니라 천국 가운데서 날고 있는 모든 가금류(fowl)들이 하느님의 큰 만찬에 불리우고 있다. 신성한 의미가 있는바 우리는 이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주님께서 죽이신 것은 사람(person)이 아니라 원리들이다. 그분은 악과 잘못에 대해서만 전쟁을 하셨다. 그러나 악과 잘못은 선함과 진리가 뒤집혀진 것이다. 악과 잘못이 죽어질 때도 악과 잘못 속에서 뒤집혀 있던 선함과 진리는 잔존한다. 교회의 원리들은 뒤집혀져 있었다. 그것들이 심판에 가져와 악이 선에서, 거짓이 진실에서 절단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될 때 끝을 내는 처방 속에서 뒤집혀 있던 선하고 참된 것이 회복되어 새 처방 속에 있게 될 이들에게 제공된다. 새 처방에 있을 이들이 천국에서 날고 있는 가금류로 의미되고 있다. 가금류란 진리를 찾고 있는 애정들의 상징물이다. 본문의 초대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이들에게 실지로 존재한다. 이 애정들에게 먹이가 공급된다. 그들은 영적 또는 천적 애정들이다. 그들은 천국에서 날고 있는 가금류들이다. 그리고 마련된 잔치는 모든 애정들을 만족시킨다. 그 이유가 이 초대는 천국을 날고 있는 모든 가금류에 대해서이기 때문이다. 이 초대는 태양 안에 서 있는 천사에 의해 주어지고 있다. 천국 안에는 한 개의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의 열은 사랑이고 그 빛은 지혜이어서 이 태양은 천사와 인간의 도덕적이고 지적인 자질이 생명있도록 계발시켜 준다. 이 태양은 정의의 태양으로서의 주님 자신이다. 이 태양이 요한이 본 태양이라고 예상해보는 것은 별로 필요하지 않으리라 본다. 그는 그것의 표현적인 형상만을 보았고, 그 형상은 주님 자신, 언약의 천사, 하느님과 인간을 결합시켜주는 큰 매체되신 그분의 인성을 표현하고 있다. 주님은 이제 막 그분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려 하시고 있다. 이것은 결혼 언약이다. 그리고 이것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초대되는 결혼 만찬이고, 진리가 진리이기에 진리를 사랑하고, 선이 선이기에 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초대되는 만찬이었다. 진리의 선은 참으로 그들이 분담하도록 초대되는 것에 속한다. 그 이유가 가금류는 왕들과 장성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부름받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는 지각의 직접적인 대상이고

선은 그것의 목적과 목표이다. 하느님의 위대한 만찬은 근원과 목적을 선함에 둔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설비된 것이다. 사실 주님의 사랑은 한정되었거나 어느 한쪽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들 외의 다른 사람은 이 초대를 듣지도 못하고 또는 좋아해서 초대에 응하지도 않는다. 진리를 진실로 사랑하는 이들만이 그분의 오심에서 그분을 영접하려고 마음 자세를 갖추고 있어 제물을 수단으로 그분과 함께 언약으로 들어간다. 천국을 날고 있는 가금류로 의미되는 이들은 “결국에 가서는 부름 받는다.” 이 특이한 잔치에 가금류만이 초대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잔치는 그들을 위해 준비된 양식의 영적 의미가 이해될 경우 가금류로 표현된 이들에게 풍요로운 잔치가 된다. 왕이란 말씀에서 파생된 교회 속의 진리들을, 장성(captain)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다. 장사(mighty men)는 교리로부터 오는 박학(erudition)을, 말은 말씀의 이해를, 말 위에 탄 이들은 말씀의 이해로부터 오는 지혜를, 자유인이란 말씀으로부터 직접 이끌어 내진 진리에 관한 지식, 억류된 자란 다른 채널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생된 진리에 관한 지식, 낮고 높은 자란 정도에 따라 보다 크고 작은 모든 원리들을,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백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람의 살코기를 먹는다는 것은 갖가지 종류의 선한 원리들을 내 것 삼는다는 뜻이다.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굶주리고 갈망하는 애정의 소유자에게 각기 수준에 걸맞게 말씀 속의 진리와 말씀에서 파생된 교리를 공급하신다. 이들은 위대한 하느님의 만찬에 초대된 자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을 위해 만든 설비(provision)이다

19-21. 위에 반대하는 군대가 이제 기술되고 있다. “또 나는 그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흰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잡이로서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낙인이 찍힌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자들을 현혹시킨 그 거짓 예언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산 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 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흰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온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16장에서 읽은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악령 셋이 나왔는데, 이것들은 악마의 영으로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며 전능하신 하느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을 위해 온 세계의 왕들을 모으려고 나갔고, 세 악령은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이것이 본문에 있는 싸움이다. 여기서 적대감 있는 군대들이 함께 모였다. 이것은 선과 진리 그러므로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에 대항하는 악과 잘못들의 마지막 발버둥이다. 개구리 같은 불결한 세 악령은 말씀의 순수한 세 영들, 즉 사랑의 영, 진리의 영, 정의의 영에 광폭하게 직접 대적한다. 흰 말

위에 탄 그분의 인물 안에서 진리가 명백해질 때 이 진리에 대항하는 잘못들을 방어하고 지탱시키려 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싸우는 적들이다. 이 마지막 싸움은 악이 말씀 속의 선과 싸운다고 하기보다는 거짓이 말씀 속의 진리와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 편이 더 낫다. 대적하는 군대들은 믿음만이라는 독단적 주장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온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주님의 정의를 자기 것으로 귀속하는 것에 의탁할 뿐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그분으로부터 정의를 획득하는데 게을렀던 자들이다. 그들은 실제적인 종교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그들의 신조의 그늘 아래에서만 꿈틀대며 살고 있다. 그들은 사기 당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예언자가 일으킨 기적을 수단으로 기꺼이 그 사기를 양심에 받았고 평화, 평화, 거기에 평화는 없다고 외침으로 죽어 있는 잠에 빠지도록 양심을 달랜 자들이다. 그 결과가 상징적으로 본문에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지닌 흰 말 위에 탄 그분과의 싸움에서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은 붙잡혔고 유향이 타오르는 불 못에 산채로 던져졌다. 그들이 잡혀서 산 채로 불 못에 던져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죽인다는 말과 죽어있다는 말로 이해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선한 자의 경우 죽음은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것은 무엇이든지 소멸됨이다. 악한 자의 경우 죽음은 그들 속에 있는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소멸되는 것이다. 심판은 이런 죽음을 결과되게 한다. 이런 분리가 결과되는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의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리가 결과될 수 없는 악한 인물도 있다. 이들은 모독이라는 죄를 지은 자들이다. 모독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섞을 경우, 거룩한 것과 불순한 것을 섞을 경우 발생되는데 이것은 분리될 수 없다. 이들이 바로 잡혀서 산 채로 불 못에 던져진 자들이다. 이 못은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상태이다. 불과 유향은 불경한 생명을 구성하는 것인 악한 사랑과 거짓된 생각들이다. 불경한 자가 그들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그들을 억류한 바깥쪽의 금지라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때 그들은 스스로 장소 측면에서의 지옥으로 빠져든다. 지옥은 그들 자신의 상태의 형상이요 자기 상태가 돌출된 것이다.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잡힌 반면, 나머지들은 말 위에 탄 그분의 칼에 맞아 죽었다.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는 거짓 설득의 진짜 속성을 열어 보인다. 이로부터 악한 자는 진리에 대적하려고 스스로 덤벼든다. 진리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공중의 모든 새들이 죽은 그 고기로 배를 채웠다. 이들은 천사들이 초대할 가금류가 아니고 그들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니다. 첫 잔치의 고기는 선함이라는 원리를 뜻하고, 두 번째 잔치의 고기는 악이라는 원리이다. 첫 잔치에 초대된 새의 종류는 천국을 날아다니는 가금류인바 진리와 선함에 대한 천국적 애정들이다. 두 번째 잔치에 오게 된 것들은 악과 거짓에 대한 애정들이다.

20

본 장의 앞 부분은 천년(millennium)이라 불리우는 것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주제에 관한 약간의 예비적 소견을 제공하는 것도 유용하리라 본다.

단지 글자적 의미에 기초한 견해가 교회의 시작 때부터 일부 사람들에 의해 이런 식으로 도입되어 왔다. 즉 주님께서 두 번째 강림하시면 그분은 천 년 동안 지상에서 통치한다. 그분의 강림은 의로운 자의 부활을 뒤잇게 한다. 이렇게 부활한 성도는 살아 있는 이들과 함께 그분의 천년 왕국의 주체세력을 형성한다. 이 통치기간 동안 짐승과 거짓 예언자 같이 붙잡힌 사탄은 여전히 억류되고 끝없는 구렁에 감금되어서 천 년이 지날 때까지 더 이상 만국 백성을 현혹하지 못하게 된다. 평화와 행복의 천 년 후에 감옥에서 풀려난 사탄은 밖으로 나가 땅 위 사방에 있는 백성들을 현혹한다. 그리하여 바다의 모래만큼 많아진 그들이 온 세상에 나타나서 성도의 진지와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도성을 에워싼다. 그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 버린다. 그들을 현혹시키던 그 악마도 불과 유향의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 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도 있는 곳이다. 그 다음 부활과 심판이 거행되고 온 드라마는 세상의 끝으로 결말을 본다.

위의 생각은 예언의 가장 기초되는 글자적 해석에서조차도 불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쉽다. 우선 예수와 하느님을 증언한 탓에 목을 잘리운 사람과 짐승의 낙인을 받지 않았던 이들과 첫 부활의 주인공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다. 이런 묘사에는 세상의 시작 이래 살아왔던 의로운 자들까지 포함되었다고 상상하기 힘들다. 둘째로 비록 첫 부활이 언급되었다해도 바다가 죽은 자를 토해내고 죽음과 지옥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죽은 자를 토해내는 것이 둘째 부활을 의미한다고 추정하지 않는다면 둘째 부활에 관한 언급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덤으로부터 온 땅의 사악한 모든 자에 관한 부활에 대한 답변은 없다. 그리고 사탄이 성도에 대항하여 모으고 이끄는 대 집단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풀려난 사탄이 온 땅에 널려 있는 나라들, 곡과 마곡을 현혹시키고 불리모아 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성도와 지상에서 홀로 통치한다는 것은 글자적으로 이해하려고 결코 의도하지 않은 예언의 글자적 납득에 기초되어

있다. 그래서 이는 글자대로 성취된다는게 불가능하다.

본문에서 취급된 광경은 영계에서 있는 상태라고 이미 말했었다. 관계 그 자체가 이에 관한 증거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기로 된 이들은 예수의 증거를 위해 목을 잘리운 사람들의 영혼이다. 참으로 그들은 부활을 획득했다. 그러나 이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될 진리의 추가적인 증거도 된다. 그 이유가 이미 말했던 바 같이 성경에서의 부활은 자연적인 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계의 육체는 한번 한쪽으로 놓여지면 다시 되찾지 못한다. 이제 본문을 세세하게 살펴보자.

1-3. 앞장에서 우리가 읽은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붙잡혀 불 못에 던져졌고, 흰 옥좌에 앉으신 그분과 그분의 군대에 대항하려고 모인 그들의 군대마저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짐승과 그의 군대더러 싸우라고 했던 용 그 자체는 아직 붙잡히지 않고 있는바 환상의 이 부분은 그의 포로가 되는 것을 취급하고 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주님에 관한 특징 중 하나이다 (1장 18절). 비록 끝이 없는 구렁이 불과 유향으로 타고 있는 연못과는 다르다 해도 둘 다 어둠의 왕국의 부분이라는 마찬가지이고, 이는 보편적인 통치자의 휘하에 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주님을 표현해야만 한다. 열쇠와 사슬은 그분의 권능을 상징할 뿐이다. 마치 그분의 권능이 비신앙적인 사람들에게 작용될 경우에 있는 현상과 같다. 신성한 권능은 언제나 똑같다. 이 권능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권능이 작용되는 대상의 차이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의로운 자를 사랑으로 매어 이끄신다 (호세아11:4). 그분께서는 사악한 자를 진리의 사슬로 묶어두신다. 그렇다고 그분께서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미워하시는 게 아니다. 그분께서 정의로운 자를 이끌어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분의 사랑을 받아 들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악한 자를 묶어두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분의 진리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진리가 알려져 알고 있으나 사랑되지 않고 실체화 되지 않을 때마다 그 진리는 악한자로 어둠의 왕국에 감금되도록 영혼을 묶는 사슬이 되어간다. 그럼에도 엄밀히 말한다면 악한 자로 어둠에 처하도록 포로가 되게 묶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뒤집혀져 버린 진리이다. 그 이유가 악은 진리를 거짓으로 변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바 인간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은 그 얼마나 큰 것인가! 거짓되게 함으로 어두워진 진리의 빛은 지옥을 통치하는 어둠이다. 그것은 무지라는 어둠이 아니다. 무지는 규탄받게 함 또는 포로됨을 있게 하지 않는다. 진리를 알고 있는 반면 고집 부려 악한 삶을 영위하는 이들이 진리의 꾸짖음을 받게 된다. 베드로와 유다에 의하면

첫 유산(estate)을 간직하지 않은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보류해둔 영원한 어둠의 사슬은 그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진리로 날조해낸 족쇄이다. 이와 똑같은 사건은 아니라 해도 똑같은 속성 중의 하나가 이 구절에 묘사되어 있다. “그는 늙은 뱀이며 악마이며 사탄인 그 용을 잡아 천 년 동안 결박하여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 기둥 다음 그 위에다 봉인을 하여 천 년이 끝나기까지는 나라들을 현혹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을 묶어둠은 일시적이다. 그는 장차 오게될 큰 날의 심판까지 보류되었다. 그는 아직 볼 못에 던져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시적으로 억류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4. 이렇게 취급되는 광경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영계의 영역(region of the spiritual world), 중간에 해당되는 상태(intermediate state)로 이미 살핀 바 있는 영역에 관한 광경이다. 죽게될 때 여기에 모든 영혼은 들어가는데 이곳은 자기들의 마지막 상태로 건너가지 않은 영혼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보전되는 곳이고 거기서 심판 자체가 거행된다. 이 구절의 예언이 관련되는 때는 심판 전이다. 크고 흰 보좌가 놓여지고, 크고 작은 죽은 자들이 보좌에 앉은 심판관 앞에서 있다. 심판들의 속성에 관한 사건들은 차후 진행된다. 그러나 이것들은 마지막 심판에 선행되는 검색과 분리이다. 늙은 뱀을 묶고 격리시키는 이런 과정들 중 하나이다. 이것은 악한 자를 선한 자로부터 떼어놓는 것,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를 닦칠 심판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 즉 악한 자에게서는 자기 것인 듯 붙어 있는 선을 떼어내고, 선한 자에게서는 자기 것인 듯 달라붙은 악을 떼어내는 것이다. 이리하여 전자는 지옥에 내려갈 수 있게 해주고 후자는 천국에 오를 수 있게 준비된다. 밀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렁, 이제 늙은 용을 받기 위해 열려졌다. 이는 9장에서 읽은 바 같이 다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로 열려졌다. 그 때의 열림은 메뚜기 군대가 나오게 했지만 지금은 용을 집어넣기 위해 열리고 있다. 뱀의 제거로 응답될 즉각적인 의도란 성도들이 평화로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도록 허용될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우리는 6장에서 읽었다. 거기에 기록된바 다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제단 아래에 하느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해방을 외치자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 처럼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형제들의 수효가 찰 때까지 잠시 쉬라고 했다. 해방되는 때가 이제 오고 있다.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 나와 보좌 위에 앉는다. “나는 또 많은 높은 좌석과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계시하신 진리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해서 목을 잘리운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낙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이 구절의 순교자는 영적 측면이다. 설사 그들이 자연계에서 그러했다해도 이는 순수하게 영적 차원이다. 영적 순교자란 기독교인의 싸움에서 죽기까지 열심을 낸 이들이다. 그래서 지금 생명의 관을 받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서 그 시대를 휩쓸었던 오류로 고통받았었다. 죽은 뒤에 그들은 유혹만 해대는 용의 영들의 권세로부터 그들이 천국으로 올라 갈 준비가 마무리되어 들리울 때까지 보존되었다. 그들이 올리워진 보좌란 그들이 지금까지 확증하면서 건설해왔던 천국의 진리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실시하게 될 심판이란 그들로 하여금 선함과 진리, 믿음과 사랑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형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심판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통치함이란 사랑을 수단으로 그분과 결합하는 것이다. 그들이 다스리는 천 년이란 시간의 어떤 기간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 이유가 영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자연계에 시간이 있듯 영계에는 상태(state)가 있다. 상태의 품질이 숫자들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숫자 천(thousand)은 그들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상태로 성숙되고 충만됨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 년은 하루 같고 하루는 천 년이기도 하다. 영원한 분에게 그러하듯 영원한 세계도 그러한바 고정된 시간대라는 것은 없다. 그 곳의 주민들은 상태의 측정인 가상으로 보여지는 것 외에는 시간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

5.6. “이것이 첫째가는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 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첫째가는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합니다. 그들에게는 둘째 죽음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제가 되고 천년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둘째 죽음의 권세가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첫째가는 부활이란 죄라는 죽음으로부터 정의라는 생명으로 영적 차원에서의 부활을 뜻한다. 죽음은 그들 위에 어떤 지배도 하지못한다. 그들은 죄에서 자유로운바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도 자유로워 있다. 나머지 죽은 자란 둘째 죽음에 빠지기 쉬운 불의한 자가 아니라 똑같은 환난을 거치지 않아서 똑같은 승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첫째가는 부활을 획득한 이들이란 시간의 질서에서의 첫 번째라는 말이 아니라 등급과 특출함에서 첫째가는 것, 즉 주님을 사랑함을 원리로 삼은 것, 천적 수준의 원리를 획득한 이들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제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나머지 죽은 자란 영적 수준이라는 등급, 즉 이웃을 사랑함을 원리로 삼은 이들이다. 성경의 상징적 언어에서 이들은 왕이라 불리운다. 비록 이 구절에서는 그렇게 명명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들을 왕으로 이해해야 하리라.

7-10. 그런데 “천 년이 끝나면 사탄은 자기가 갇혔던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온 땅에 널리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찾아가 현혹시키고 그들을 불러모아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의 수효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사탄을 묶어 두고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인 신성한 행동들로 간주해서는 아니되고 그것은 구원의 복된 그분의 일이 더 진전된 행동으로 섭리적 수준의 일반적 작용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심판은 이런 섭리적 행동들 중의 일부이다. 그리고 악령들은 큰 드라마의 일부를 연기하는 것이다. 악령은 정의로운 자를 선동하고 유혹하는데 집착한 대리인밖에 더 아니다. 그들의 권세가 통치되어지고 그들의 의도가 위압하는바, 어떤 것이 의로운 자에게 좋은 것이 되듯 그들에게도 그만큼 가능할 수 있다. 그들의 악용이란 주님이 선포하신 경우 즉 사탄이 베드로로 하도록 바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일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있다.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이제는 키로 밧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러나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사탄이 정의로운 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허용되는 것은 정의로운 자를 까불어서 그의 밧로부터 겨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사탄의 이런 권세부림이 위와 같은 섭리에 불일치 될 경우 그 악용은 섭리적으로 방지되거나 완화되어진다. 사탄을 묶고 푸는 것도 이런 섭리의 법칙에 국한된다. 악령은 정의로운 자에게 체로 까부르듯 힘을 발휘하지만 동시에 사악한 자를 황폐되게 한다. 악령은 악한 자를 악으로 선동함으로 황폐되게 만든다. 그 결과 악한 자를 덮고 있던 가면이 벗겨져 그들의 품성이 적나라해진다. 이런 것이 이제 사탄으로 행하도록 허용된 악이다. 감옥에서 풀려난 사탄은 이제 나라들을 현혹하러 밖으로 나가 그들이 성도들과 전쟁하도록 선동하고 있다. 계시록의 이 부분 속의 상징적 품성, 그리고 그 의미까지도 에제키엘에 있는 비슷한 예견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이것은 주님의 첫 강림 때에 성취된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할 것이다. 에제키엘서의 38, 39장에서 우리는 곡과 마곡에 대항하는 한 예언자를 발견한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안심하고 사는 동안 곡이 복讎 그의 장소에서 힘있는 군대를 가지고 나온다. 그 군대가 구름같이 땅을 덮는다. 이런 강력하고 격렬한 군단의 끝장은 계시록의 군대의 것과 똑같다. 주님께서는 그 군대에 폭우와 함께 큰 우박, 불, 유황불을 퍼붓는다. 이것은 “훗날에 있게 될” 것에 관한 예언이다. 이것들은 유대교회의 훗날이었다. 마치 계시록의 것들이 기독교회의 훗날인것과 같다. 이 군대란 교회를 침공해서 과멸을 위협하는 비신앙적인 것과 오류라는 홍수 외에 달리 무엇일 수 있을까? 이것은 유대교회와 기독교회 처방의 훗날에서 똑같이 진실되다. 땅이 교회를 뜻한다고 알게 될 때 이런 예견은 교회 종말의 조건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불법이 팽배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찬 것으로 칠해질 것이다.” “사람(Man)의 아들이 올 때

그분께서는 땅에서 믿음을 발견하실까?” 사랑과 믿음이 인간(man)의 후손 사이에서 실패할 때 그들 가운데 있는 교회 역시 실패된다. 그 이유가 사랑과 믿음 없는 교회는 이름뿐이고 형체 밖에 더 있겠는가? 그럼에도 교회 자체의 존재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교회가 이 세대에서 실패할 때 섭리적으로 또 다른 세대에서 일으켜 진다. 훗날의 곡과 마곡, 즉 악과 잘못은 “은 세상에 나타나서 성도들의 진지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에워 쌓는다.” 그러나 오히려 공격자만 파멸 당한다. 어쨌든 삭막함이 널리 퍼져도 남겨질 자는 보존되고 있다. 이는 비록 인간의 눈에는 보일 수 없다 해도 영가운데 있는 이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영적인 시야가 열려 있는 이들은 볼 수 있고 영계에서는 공개적으로 진열된다. 지상의 교회가 지상으로부터 영원한 세계로 건너간 이들이 있는 거기에 있다. 시간 차원에서 영원 차원으로 건너간 의로운 자는 도장을 받은 열 두 지파, 유리바다에 집합된 군중, 흰 말을 탄 천국의 군대, 성도들의 진지이다. 시간 차원에서 영원으로 건너간 불의한 자는 메뚜기, 용, 진홍색 여인, 곡과 마곡의 군대이다. 성도들의 진지와 나라들의 군대에서, 우리는 그들의 최말단 조건, 그리고 실제적이고 관계적인 상태에서 표현하는 교회의 두 반대 측면을 볼 수 있다. 진리는 잘못으로, 선은 악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것이 훗날의 교회의 상태이다. 이것이 영계에서 진열된 바 자연계에서 영적으로 진열된다. 영들의 세계에 나타난 환상에 시선을 돌려보자. 우리가 이미 말했던바, 악령이 일하도록 허용된 것은 선한 자 뿐 아니라 악한 자의 상태도 열려 놓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가 하늘로부터의 불이 그들을 삼켰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외관은 불로 살라진다고 말해진 이들의 마음의 상태에 관한 결과이다. 사악한 자를 삼키는 불은 그들 자신의 악령의 불, 악을 사랑함, 탐욕 같은 것들이다. 내려오는 천국도 그들 자신 안에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내면은 천국의 형상이도록 창조되어 있다. 그리고 마음의 외면은 세상의 형상이도록 창조되어 있다. 사악한 자의 마음의 내면이 열려 놓이고 아무런 제약 없이 행동하게 될 때, 영계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게 확실한데, 열린 그들의 행동은 올가미가 되고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리고, 이것이 그들의 바깥쪽 사람을 잘 꾸며 놓은 그럴듯한 도덕성과 암전한 외관을 삼켜버린다. 한편 그 걱정은 억제되어 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이들의 결과이다. “그들을 현혹시키던 그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 곳은 그 짐승과 거짓예언자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용이 악마와 사탄이라 불리고 있다. 이것은 죄와 지옥 자체의 두 요소, 악과 거짓된 것의 하나됨이다. 용이 나라들을 현혹하려 나갔을 때 그는 사탄이라 불렸다. 그가 그들을 현혹했을 때 그는 악마라 불리고 있다. 악마라는 이름 아래 그는 지금 못에 던져지고

있다. 거짓된 것이 선동한다. 그것이 악으로 유인한다. 악은 왜곡된 것을 수단으로 선동한다. 악이 불 못에 던지는 것이다. 어쩌면 잘못된 것도 순진할 수 있다. 비의도적일 경우이다. 어쩌면 그것은 덕스러울 수도 있다. 신실한 신앙을 목적으로 삼고 있을 경우이다. 그러나 악이 알려질 때, 왜곡된 것과 하나될 때 의도적이 되고, 그것은 부패된 심정의 상태와 결실이다. 이것이 생산될 때 생산된 그 악은 그 자체의 내면 상태가 최말단의 조건으로 있는 불 못에 영혼을 내던진다.

11.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심판 자체, 참으로 인상적이고 교훈적인 심판 그 자체, 일반적, 세부적 면모에서의 심판 자체를 접하게 된다. “나는 또 크고 흰 옥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4장에서 하늘에 놓인 옥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 환상의 이런 부분을 취급하면서 우리가 서술한바, 거기에 놓여진 옥좌는 심판을 상징한다는 것, 거기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 그 반면 예언자가 지금 본 크고 흰 옥좌는 완성되고 있는 심판이라는 것이다. 이 두 심판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검색과 벗겨냄, 선하든 악하든 그것에 붙은 것을 분리함, 이리하여 마지막으로 심판받을 수 있는 상태로 되어지는 것이었다. 심판에 앞서 있는 분리는 복음서에서 밀과 가라지의 분리, 충성스런 종과 불충한 종을 가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분리, 양과 염소의 분리 등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지금 우리 앞에 오는 주제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분리가 아니라, 그들이 마지막 거처로 갈 수 있게 중간 상태에서 그들을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선한 자는 그들을 완전해지게 해왔던 상태에 걸맞은 천국으로, 악한 자는 그 반대의 장소, 즉 그들의 내향의 상태에 걸맞은 바깥쪽 조건이 있는 곳으로 옮겨진다. 심판자와 심판에 우리의 관심을 모아보자. 옥좌는 심판을 상징한다. “아훤께서 영원히 왕좌에 앉으시고 재판하실 옥좌를 다지셨으니,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시리” (시편 9:7-8). “아훤께서 공정한 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신다” (시편9:16). 그분의 심판은 무한한 사랑과 지혜의 결정들이다. 이것이 옥좌에 상징적 품성들로 씌어져 있다. 옥좌가 크다(greatness)는 단어를 사랑을 상징하고, 옥좌의 희다(whiteness)는 단어를 사랑에서 진행되는 심판의 지혜이다. “참되고 정의로움이 당신의 심판이다” (계시록16:7).

12. “나는 또 죽은 자들이 인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 옥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생각해보기에 앞서 심판자에 관심을 두어보자. 하느님이 심판자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야만 한다” (고린도후5:10). 그러므로 하느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일 뿐이다. 이 사도에 의한 또 다른 서술에서는 두 이름이

무관심하게 사용되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아닙니까? 성서에도 ‘정녕 나는 모든 무릎을 내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이 나를 하나님으로 찬미하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로마 14:10-12). 하나님만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분만이 심정 속의 비밀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인간을 테스트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 이유가 그분은 인간 안에 있는 것을 아시고(요한2:25) 세상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인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죽은 자들이 서 있는 것이다. 지금 심판의 옥좌 앞에 집합된 죽은 자들이란 자연계의 죽음을 거친 이들, 그리고 지금 중간 상태, 즉 심판이 거행되는 중간 상태에 있는 이들이다. 이들이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 기독교의 시작 이래 살았던 모든 사람까지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공개된 사악한 자는 불 못에 던져졌고 확증된 선은 시온산으로 옮겨졌다. 혼합된 품성을 지닌 자들, 바깥쪽의 교류에서 혼합되었던 이들. 그래서 중간 상태에 남은 이들이 일반적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크고 작은 이들, 즉 그들의 조건과 품질이 무엇이었던지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 심판의 수단과 과정에는 깊은 흥미를 자아내는 주제가 있다. 그 이유가 이것은 모든 경우에서 똑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각에 직접 관계된다. 책들이 펼쳐 있다. 이 책이란 무슨 책인가? 인간 마음 자체가 이 책이다. 이 안에 모든 생각, 말, 행동이 씌어 있다. 모든 것을 드러내 밝히는 빛으로 열리고 읽게 될 때 행하여져 왔었던 모든 행동, 그 행동을 있게 한 생각과 그 행동이 있도록 자극한 동기까지도 씌어진 책 속에서 보다 더 명백하게 추적되고 있는 것이 발견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정밀하고 확실한 의미가 있다. 이것은 마음 자체의 본성에서 결과된다. 행동하는 힘의 차원에서 볼 때, 마음이 그것의 자질을 선용하거나 악용함으로써 되어진 바로 그것이다. 애정과 생각은 마음 안에 쌓여진 것들이 아니라 마음 자체의 상태와 형상들이다. 이것들은 육체의 삶 동안에는 수식되고 변화할 수 있다. 사후 그것들은 고정되어진다. 마치 결정체로 되듯한다. 그리고 영원히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것들이 심판에서 열린 책들이고 이 기록으로부터 모든 이는 심판된다.

그런데 또 다른 책이 펼쳐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다. 위에서 언급한 책은 인간에 관한 책들이다. 이 책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책에 씌어 있는 것과 인간 자신의 책에 씌어 있는 것과 일치하느냐 또는 불일치 되느냐에 의거한다. 하나님의 책과 일치되는 책을 지닌 이들, 즉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마음을 지닌 자들은 생명으로 판결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책과 일치 안되는 마음을 지닌 자들은 죽음으로 판결된다. 하나님의 책이 생명의 책이라 불리는 이유는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죽음의 책이라 불린 적이 결코 없다. 인간의 책은 생명의 책인 하나님의 책과 불일치할 경우 죽음의 책들이다. 인간의 “이름들”이 생명의 책에 써여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품성들”이 생명의 원리와 일치할 때이다. 생명의 원리란 하나님을 사랑함과 인간에 대한 이타애(charity)이다. 필립보서 4장 3절을 읽어보자. “나와 한 명을 멘 내 진실한 협력자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자들은 글레멘스를 비롯하여 다른 협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느라고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올라 있습니다.” 이 책에 써여진 것만을 수단으로 우리는 심판에 설 수 있다. 마지막 때에 관해 다니엘이 말한바, “...그런 때라도 네 겨레 중에서 이 책에 기록된 사람만은 난을 면할 것이다”(12:1). 한 가지만 생각할 경우 모든 사람은 생명의 책에 써여있다. 모든 사람은 천국을 위해 의도되어 있다. 출생하는 순간부터 모든 이는 생명의 책에 써여 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죽는 아이는 생명으로 들어간다. 생명의 법칙에 반대되어 살아온 것에 의해 그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서 지워진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나의 기록에서 지워버린다”(출애굽32:33). “그들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 버리고 의인들의 명부에 올리지 마소서”(시편69:28). 산 자는 생명의 책에 적혀 있고 죽은 자는 적혀있지 않다는 위와 같은 원리에서 천국적인 사람은 천국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누가10:20), 그리고 지상적인 사람은 땅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다(예레미야17:13).

만일 생명의 책을 밝히 알게 하신(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간주한다면 그 말씀이 알려진 이들만이 그 말씀에 의해 판결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좀더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은 보편적인 법칙들이라는 점이다. 말씀에 써여진 것들은 그분께서 어떤 방법에서, 그리고 어떤 쪽에서 인간 심정에 기록하셨던 법칙의 더 명백한 계시 밖에 더 아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 의해 많은 적든 명백하게 인식되고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로마서1:20). 우리가 아는바, 하느님은 무한하게 슬기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것, 공정과 공의는 그분의 옥좌가 있는 곳이다.

13,14. 예언의 상상과 일치되게 할 때 우리가 발견하는바, 심판되어질 사람들은 그들이 누웠던 곳, 또는 틀어 박혔던 곳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바다는 자기 안에 있는 죽은자들을

포기했고 죽음과 지옥도 자기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석방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행적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치 앞 부분에서 일어났던 이들은 땅으로부터 왔고 본문에서 일어나게된 이들은 지옥과 죽음으로부터 나온 듯 비쳐질는지 모른다. 이런 묘사의 상징적 품성은 다른 세부항목들로부터 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 장소가 상태를 의미한다는 원리에서 볼 때 죽은 자가 심판받기 위해 오게 된 그 장소란 그들의 품성이다. 성경에서 바다는 육지를 에워싼 것으로 생각되어있다. 그래서 섬에 살고 있는 이들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것으로 말해왔다. 바다가 포기한 죽은 자들이란 비교적 차원에서 무지와 단순한 상태에 있어 왔던 이들, 다시 말해 악하지는 않으나 무지한 이들, 상대적으로 피상적인 이들, 선한 자연적 인간 또는 외적 인간들이다. 그러나 죽음과 지옥이 석방한 이들은 사악하고 불경한 이들, 법을 위반하고 죄지은 가운데 죽은 이들, 악으로부터 오는 거짓 설득 가운데 있는 이들이다. 단어 황천(hades)이 지옥으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무덤을 뜻하는 단어로 번역하기는 너무 한계가 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떤 장소라기 보다는 상태를 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간 상태에 있는 사악한 자의 어느 특별한 부류에 관련되고 있다. 그러므로 죽음과 지옥은 악과 거짓, 사악한 자와 불신앙자이다. 이들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되었다. 모든 사람을 판결하는 수단인 의무의 표준은 순수하게 실용적인 것이다. 믿음도, 경건함도, 사랑조차도 아니고 일(work)이 품성의 진정한 기준(criterion)이다. 모든 종교는 삶에 관계된다. 종교가 요구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종교의 목적으로 삶을 가지고 있다. 가장 높은 기독교의 품위인 하느님을 사랑함까지도 이웃을 실지로 사랑하는 그 안에서 참된 그분에 대한 사랑을 발견한다. 하느님을 사랑함은 가장 높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사욕이 없는 선함을 사랑함이다. 이런 사랑을 하는 만큼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이런 것을 실제화 하는 만큼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작업해내게 된다. 하느님의 일을 해냄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악한 일을 일삼은 이들이 불 못에 던져진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 상태는 확증된 자아 사랑과 자기 기만 중의 하나이다. 자아 사랑은 타인을 미워한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에 반대이다. 주님을 사랑함이 천국이듯, 자아의 사랑은 지옥이다. 전지는 재창조되고 기쁨이 창출되는 불이고 후자는 허물어지게 하고 통곡을 창출시키는 불이다. 이것이 참으로 두려운 두 번째 죽음이다.

15. 이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간단한 서술이야말로 얼마나 참되고 인상적인지! 하느님에게는 파멸의 책이 없다. 그분이 가지신 수많은 부피의 책들은 생명을 위해 써어있는 것뿐이다. 그분의 신성한 법칙에

일치하는 생명을 지닌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썩어 있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 책 안에 썩어있지 않은 모든 사람, 그들의 품성이 사랑과 의무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그들 스스로 불바다에 던져진다. 죄인이라 해도 죽기를 바래지 않는 그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사악함에서 돌아서기를 바래시는 그분은 생명의 책에서 누구도 제적되기를 바래시지 않는다.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도록 하려고, 그 생명을 더 풍부히 가지도록 하려고 오셨던 그분은 생명의 책에 만민이 썩어 있는 것을 발견했으면 하시는 것 밖에 더 바래시는 게 없다. 따라서 그들 자신의 악과 불의한 삶이 어둠의 나라에 종속되게 만든다.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행동되는 무한한 권능까지도 불의한 자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엄숙하며, 곰곰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유익한지! 공정은 하느님에게 사악한 자를 단죄하며 영원히 처벌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 이것은 하느님의 공정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불공정이다. 만일 그들이 불법을 중단할 수 있다면 그들은 불행해지는 것도 중단할 것이다. 그러면 신성한 공정은 더 이상 그들과 반대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그것에 반대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 지은 빚(debt)을 염두에 두고 추측된 모든 요구(claim)는 한순간에 철회될 것이다. 그들을 감옥에 던져 넣고 감금했었던 이런 빚진 것들을 하느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 자신의 본질적 생명의 책 안에,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생명에, 그로부터 있게 되는 생각 속에,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 기억되어 있다.

21

우리는 위대한 묵시록 드라마가 결론을 맺는 곳에 다가 와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이 장을 향해 있고, 이 장 안에서 신비했던 모든 여건이 각기 해결점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 장은 극적인 장엄함 그 이상의 어떤 것들로 관을 쓰고 있다.

1.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성경에는 국가적인 변화, 교회의 변화 같은 큰 변화들에 관한 예들이 아주 많은데, 이것들이 땅과 하늘의 변화로 묘사되고 있고, 어떤 경우는 그 하늘과 땅의 파괴와 재창조로까지

묘사되고 있다. 더욱이 계시록을 사려 깊게 읽는 독자라면 이 책의 예언적 선포는 비유적이거나 영적인 특성이 있다는데 별 의심을 가지지 않으리라 본다. 그렇다해도 위 사항에 대한 증거로서보다는 설명을 위해서라도 성경 자체가 이 책의 결말을 어떻게 명백해지도록 지적해 주는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웅대한 비유적 표현에 관한 진실되고도 정확한 의미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빛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라도 가능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언의 의미를 확인하는데 가장 만족할만한 방법은 말씀의 다른 부분에 있는 비슷한 예언과 비교해 보는 것이다.

“내가 하늘을 흔들면 땅이 진동하여 제자리에서 밀려나리라” (이사야13:13). “땅이 주정꾼처럼 비틀거린다. 원두막처럼 흔들린다...달은 창백해지고 해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리라” (이사야 24:20,23). “땅을 내려다보니 끝없이 거칠고 하늘을 쳐다보니 캄캄합니다...위로 하늘은 상복이나 입고 아래로 땅은 애곡이나 하여라 하시더니” (예레미야4:23,28). “야훼께서 시돈에서 고향치시고, 예루살렘에서 소리치시니, 하늘도 떨고 땅도 떠는구나” (요엘4:16, 구변역3:16). “하늘이 두루마리인 양 말리고” (이사야34:4). 이상의 구절에 대해서 깊게 논하는 것은 별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되어 생략하기로 한다. 이상의 예들에서 하늘과 땅이 가진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모두 비유적이러는 것, 성경 각 처에 있는 영적 의미들 같이 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더불어 본문의 하늘과 땅도 같은 성격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문맥으로부터나 그 단원이 관련되는 사건으로부터 서도 명백히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사야서의 또 다른 단원의 경우는 조금 더 명백한 빛을 주는데, 그 이유가 그 구절은 주님의 오심에 관련된 예언 부분이요, 유대교회가 끝날 때의 기독교회 건설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인 듯 하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땅을 굽어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스러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져 주민이 하루살이처럼 깨지리라. 그러나, 내가 베풀 구원은 영원하고 내가 세울 정의는 넘어지지 않는다...나는 너희 입에 나의 말을 담아주고 나의 손 그늘에 너희를 숨겨둔다. 하늘을 펴고 땅을 세우면서 시온을 향해 선포한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 (이사야51:6,16). 하늘과 땅이 이 구절에서는 교회의 모양새로 명백하게 고용되고 있다. 그래서 연기처럼 스러진 하늘, 옷처럼 헤어진 땅은 유대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하늘을 펴고 땅을 세우심은 기독교회를 의미한다. 본문의 서술과 가장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는 구절이 이사야 65장에 있다. “보아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지난 일은 기억에서 사라져 생각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나는 ‘나의 즐거움’ 예루살렘을 새로 세우고 ‘나의 기쁨’ 예루살렘 시민을 새로 나게 하리라...그렇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 앞에 남아 있으리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것처럼

너희의 자손과 이름도 이어가리라” (65:17-18, 66:22). 이 문맥에서 명백한 것은 위 예언은 주님이 육으로 오시는 때와 관련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의 변화됨이란 끝을 맞게 되는 유대교회를 이어갈 기독교회의 시작이라는 의미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

본문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계시록에서 언급된 이 창조는 유대교회 뒤를 이어왔던 교회가 장엄한 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면전을 떠날 때, 새 교회의 건립에만 관계되고 있다는 것을 모순 없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보(prediction)의 형태에 공통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예보들을 글자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냐 또는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냐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세상의 끝(the end of the world)에 관한 예보들, 그 예보가 영성을 제공하는 것을 빼놓고 생각한다면 그 예보가 글자대로 성취되어지리라는 것은 상상 해보기에도 거의 힘든 사건들로 표현되어 있는바 글자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어있다. 세상이 파괴될 때 그 세상에는 새 창조에 의해 다시 놓여지고 있다. 사도 베드로에 의한 세상 끝에 관한 유명한진 예보는 비유적 성격에 관한 증거를 가지게 한다. 그의 둘째 서간에서 말하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 버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3:10) 이 구절은 여느 구절보다 사실적으로 그려 나타내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이 구절 역시 지상이 통째로 파멸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함은 아닌 것 같다. 이 사도는 “마지막 날(그날)”을 시대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물에 잠겨서 옛날의 세계는 멸망해 버렸습니다. 사실 하늘과 땅은 하느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멸망당할 심판의 날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에 타 버리고 말 것입니다” (3:6,7). 사도가 거론한 사건과 노아 시대의 사건, 모두가 같은 성질에 속한다고 말한다면 누군가가 찾는 마지막 파멸은 두려워해야 할 이유도 없고 예상할 필요도 없는데, 그 이유는 노아 시대 때에 있었던 홍수 사건은 하늘과 땅이 파멸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파멸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아의 홍수는 자연적 차원의 대홍수도 아니었다. 사람의 아들(예수) 시대 때의 불 역시 자연적 차원의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두 가지 모두 히브리서에서 언급된 모양새, “...단 한번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죄를 없이 하셨다” (9:26)라는 종말이다. 위 두 사건의 차이란, 하나는 거짓이라는 홍수로, 또 하나는 악한 사랑이라는 불로 멸해진 것 뿐이다. 어찌 됐든 본문과 베드로의 서간에서 하늘과 땅의 파멸이 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베드로도 계시록의 요한처럼 새 창조에 관한 어떤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3:13).

현 세상에 종말이 있게 된다는 주장은 일반화되다시피한 신조이다. 그 반면 새 땅의 창조에 관한 생각에서는 별로 심각해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경우 어찌면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 땅은 장애물로서만 여겨질런지도 모른다. 세상에 널리 있는 신조에만 의거하면 세상의 파멸은 아담의 종족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 주님의 중재적인 통치는 막을 내리고 아들은 왕국을 포기하여 하느님이 모든 것 안의 모든 것으로 존재하시도록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목적을 위해 새 창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어떤 이들은 상상하기를, 새 땅은 부활하는 성도들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사람들의 경우, 이런 예언을 영적 측면에서 그 일부를 수용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부분의 예언은 글자대로 받은 뒤 두 가지를 접합시켜 생각하기를, 새 땅은 부활하는 성도들의 지상에서의 새 육체를 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요한이 발표한 새 땅의 창조는 글자대로 이해될 수 없다는 다른 암시도 있다. 즉 새로운 땅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다고 말했다. 물이 없는 땅에서 인간은 거주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땅의 거주민은 현재의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새 땅이 이전 땅보다 더 완전할 것이라 말할 경우, 새 땅의 거주민이 더 행복하다고 할 경우 바다가 없는 것은 그 거주민을 위해 더 편리하고 안락하게 해주는 한 걸음 진보된 것이라고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사실 저자의 경우 이런 사항들은 상상도 하기 힘든 말들이다. 어찌됐든 새 땅이 새 교회를 표상(figure)한다고 간주할 경우 바다가 없는 것에 불완전이 있지 않더라는 것을 발견할는지 모른다. 이미 살핀바 있는바, 바다는 이방인들, 그리고 교회 안밖에 있는 이방인 같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는 때에는 더 이상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이 존재 않을 것이다. 주님에 관한 지식은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 땅을 덮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님을 아노라 말하는 그의 이웃을 더 이상 가르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한 개의 울타리와 한 분의 목자만이 계실 것이다. 참으로 예언 자체가 말하는바, 이방인들은 이방인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인바, “만국 백성들이 그 빛 속에서 걸어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은 그들의 보좌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 올 것이다” (21:24). 이 예언의 참 현상을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바다의 보물이 너에게로 흘러오고 못 민족(이방인)의 재물이 너에게로 밀려오리라” (60:5). 더 이상 바다가 없다는 땅에 관한 약속은 교회 내에 더 이상 무지가 없고, 더 이상 미신적 관습이 없겠으며, 더 이상 우상숭배도 없고, 실제의 이교도라 할 수 있는 유명무실함도 없게 되고 오로지 하느님의 성막이 드넓게 인간과 함께 존재할 것이고, 주님만이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새 땅에 바다가 없다는 것은 교인들에 대한 약속일 뿐 아니라 혼계의

측면도 담겨 있다. 다시 말해 새 교회(the New Church)의 사람은 “바다는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내는” 심판에서 비쳐진 죽은 예배를 갖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역시 더 이상 바다는 존재 않는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이란 인간들에게 있게 될 영적인 생명력 또는 종교 생활에 관한 새로운 질서 또는 새로운 조건이라는 것밖에 더 다른 의미는 없다. 이는 인간이라는 세대들이 원리 측면에서 새롭게, 생활 측면에서도 새로워진다는 말이다. 이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이들이 새 교회(the New Church)를 구성한다. 이제 위 사항들을 개인적으로 응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하늘(heaven)은 천국(heaven)의 형상(image)인 영적 마음 또는 인간의 안쪽 부분을 말하고, 땅(earth)은 세상의 형상인 자연적 마음 또는 인간의 바깥 부분을 말한다. 이들이 새로(a new)창조될 때, 즉 위로부터 태어날 때 21장 첫 절의 선포는 각자의 가장 실제적인 측면에서 실감되어 진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창조에서 재창조(re-created) 또는 거듭난 인간 영혼 그 이상의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재창조는 주님에게 있어서 위대한 모든 일들을 마감 짓는 원인이요 최말단의 결과이다. 그분의 역사 모두는 인간 재창조, 거듭남과 관련되어 있다. 그 외 다른 그분의 일들이 있다해도 그것 하나 하나는 모두 인간 거듭남에 관한 모형(type)이다. 그 이유가 목적에 존재하는 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 안에 모두 존재하고, 그 수단의 진행 속에는 첫 원인이 된 것부터 최말단의 결과까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자연은 인간과 그 인간의 재창조에 속한 것들로 딱 차있고 하느님은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일(work)에 있는 표현물(representative)들을 수단으로 인간과 인간의 재창조를 기술해 놓으시고 있다.

주님의 교회가 각 사람 안에 존재하는 만큼에서 인간 사이에서도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긴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처방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 새 교회(the New Church)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의미되고 있다고 우리는 간주한다. 가장 폭넓은 일반적 관점에서 새 하늘은 새 천국에 있는 새 교회, 새 땅은 지상에 있는 새 교회이다. 천국에 있는 교회 또는 새 기독교인의 천국은 기독교라는 처방의 시대 동안 살았던 의로운 모든 사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이들로 형성되어졌다. 지상의 새 교회는 이제 인간에 알려진 교회의 원리들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보편적 형체로 볼 때 새 교회는 각 사람의 신조(creed)가 어떤 것이든 모든 나라 안에,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선한 사람들까지 포함된다. 조금 덜 광범위한 측면에서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은 땅 위 새 교회의 내면과 외면을 구성해준다. 교회의 내부란 교회의 원리들이고, 외부란 원리들이 실제 응용된 형체로 구성된다. 이 교회의 내부는 주님을 사랑함이고, 외부는

이웃을 사랑함이다.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함은 인간을 사랑함에서 그 품성이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랑은 종파(sectarianism)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 사랑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중시하는 교회인 새 교회(the New Church)는 타인들 안에 있는 사랑이 명백해질 때 이것이 기독교인의 품성이 일하는 것으로, 이것을 기독교인의 형제애의 끈으로 인식한다. 새 교회는 인간을 그들이 지닌 믿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의해 판단한다. “너희는 그 행위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리라” (마태7:20).

2.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뒤, 그는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거룩한 성은 지상의 교회를 표상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믿는 것도 일반화 되어 있다. 세상의 끝장을 뜻한다고 이해되고 있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 뒤 물질적 세계가 존재 않게 되는 고로 천국에 새 예루살렘을 놓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이런 추측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비하고 있는 본문에 명확히 불일치 되는 소리이다. 게다가 본문은 거룩한 성이 하느님께서로부터 천국을 통해 지상에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천국에 있는 교회를 서술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말이다. 그렇지만 그 서술이 위의 궁극증을 달래 줄 수도 없다. 천국은 영화된 상태 그리고 가장 높은 완전함에서의 교회이다. 이 책 예언의 앞 부분에서 교회는 태양을 입고 있는 천국의 여인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현 본문은 그 여인이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우리도 계속 살았던 것인데 교회는 천국에서 시작되는 고로 지상에 존재하기 위한 교회는 하느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반드시 내려와야만 한다. 바울은 천국적인 예루살렘을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서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 천국에 있는 교회는 땅 위 교회의 부모라고 이 사도는 가르치는 게 아닐까? 이 말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새 예루살렘은 땅 위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구약성서에서 예루살렘은 교회의 모형(type)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새 예루살렘이 새 교회이다 라는 뜻 외에 무엇이 더 있을까? 영적 의미에서 교회는 새 땅과 새 도성 양쪽으로 표현되고 있다. 땅은 교회의 일반 원리라는 측면에서, 도성은 교회의 교리라는 측면에서 각기 교회를 표현한다. 구약성서에서 교회는 도성과 처녀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구약도 본문처럼 두 가지 형상(image)이 두 가지 다른 사상들로 표현되고 있다. 종교 속의 교리 그리고 여타 다른 외부적인 것들 자체는 내재하는 애정들과 따로 구분된다. 마치 주위가 이름답고 높은 탑들과 궁전으로 가득찬 시온, 더욱이 장엄함을 지닌 시온, 그런데 이 시온에 거주민이 없을 경우 화려한

고독 밖에 더 있을 게 없다. 교회 속의 교리가 생명 있는 애정의 거처가 아닐 경우 그 교리는 위와 같은 시온밖에 안된다. 예언자들은 애정이 병합된 교리를 시온과 예루살렘의 딸로, 본문의 경우 어린 양의 아내, 신부로서 인격화 해놓고 있다. 이 애정들이 교리 속의 생명을 구성한다. 이 생명, 애정을 수단으로 교회는 주님과 결합한다. 선함과 진리는 사랑하는 마음(애정)에 의해, 이 애정이란 차원에서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와 아내이다. 새 교회를 신랑과 아내로 만들게 해주는 가장 뛰어난 애정은 주님을 사랑함이다. 새 교회의 장엄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성하시다는 것, 그리고 이 교리에 안주할 수 있는 애정만이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애정만이 승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애정은 이웃을 사랑함과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랑에서 모습을 확실히 가진다. 제일가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두 번째 가는 사랑 없이 존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함은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신부와 아내가 되게 해주는 애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명있는 애정은 그 애정이 담긴 교리로부터 구별되는 고로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천국을 통해 내려오되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로서 본 것이다.

사랑에 관한 애정 특히 주님을 사랑함에 관한 애정이 교회로 하여금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한다면 결혼식을 위한 준비수단인 단장함은 무엇일까?

바빌론이 패망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그분의 신부가 몸단장을 끝냈을 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되었다(계시록19:7,8). 본문의 경우 그 여자는 단순히 몸단장을 끝냈다(array)라고 말해지지 않고 잘 차려 입었다(adorn)라고 말해지고 있다. 19장의 경우, 교회는 스스로 준비되었는데, 이는 어린 양의 신부가 몸단장을 끝낸 것,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인 말씀 속의 순수하고 진정한 진리들로 훈육받은 사람들에게 의해 교회가 형성된다는 말이다. 사랑은 결혼에 필수이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하게 될 대상의 인물(person)과 품성(character)에 관한 지식을 기초로 해야만 한다. 이런 지식을 수단으로 교회는 자신을 준비해서 신성한 남편과의 결혼에 임하게 된다. 교회는 그분의 인물이 여호와-예수, 한분 주님, 그분의 이름은 하나뿐임을 알아야 한다. 그분의 품성이 사랑 자체와 지혜 자체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주님의 인물과 품성에 관한 지식 없이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진정으로 될 수 없다. 이 지식은 새 교회가 타 교회와 구별되는 탁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이 탁월함 때문에 주님의 신부는 희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을 입게 된 것이다. 거룩한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라는 고운 모시옷을 먼저 입은 것에 더하여 지금 이 교회는 남편을 위해 준비된 신부, 잘 차려 입은 신부로 나타나고 있다.

교회가 잘 차려 입는다는 것은 거룩한 말씀 속의 진리들이 요구(enjoin)하는 일을 해내서 자기가 획득한 진리들을 잘 가꾸어 나간 결과인 교회의 품위와 미덕들이다. 이를 수단으로 하면 주님과 결합은 확고하게 이루어진다. 장엄한 결혼 축시인 시편 45편을 영적으로 이해해 보면, 주님과 그분의 교회가 결혼하는 것을 축하하고 있다. 그래서 신부, 왕들의 딸(공주)들은 “모든 영화를 지니고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왕에게로 인도 될 것이다” 라고 읊고 있다. 금으로 수놓은 신부옷이란 사랑의 진리들과 총명으로 형성된다. 사랑은 이러한 것들, 심정과 지성 그리고 삶 속의 진리가 되어야 한다고 이해하는 옷들로 입혀진다. 이런 진리들은 예루살렘이 입어야 하는 “이름다운 옷들”이다 (이사야52:1). 주님은 그들을 신실한 자들에게 입혀 주시는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정의가 펠럭이는 겹옷, 신랑처럼 빛나는 관, 패물로 단장한 신부같이 꾸며주신다 (이사야61:10). 이런 상징적인 것들은 자연 안에서 더욱 완전하게 찾아 볼 수 있다. 대지는 초록으로 자신을 옷입힌다. 식물들은 수많은 싹들로 해서 꽃을 피워 자신을 옷 입힌다. 이 모든 것들은 결혼예식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 이 결혼으로부터 황금의 수확이 와서 맛있는 과일로 끝을 맺는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구원의 옷, 신부가 걸친 패물에 관한 서술에 이어, “땅에서 새싹이 돌아나듯 동산에 뿌린 씨가 움트듯 주 야훼께서는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의가 서고 찬양이 넘쳐흐르게 하신다” 라는 말로 끝맺고 있다 (61:11). 3절은 한 걸음 더 진전된 깊은 감명을 받게 해주고 있다.

3. 요한이 교회를 도성으로, 신부로 보았을 때, 그는 “옥좌로부터 울려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실 것이다.’” 하느님의 집(성막)은 하느님께로부터 천국을 통해 내려오는 거룩한 성의 중심되는 필수요소로 생각되도록 본문은 서술하고 있다. 성막, 이는 새 예루살렘에서도 특별한 시선을 끌게 하는 대상으로 뽑혀지고 있다. 이 성막은 천국에서 따로 떼어놓은 대상으로서 이미 보여져 왔었다. 이렇게 이미 보여져왔던 성막이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15절에서 요한은 말한다. “나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전은 증거의 천막이었습니다.” 지상에 성막이 나타나기 전에 증거의 성막이 열리는 것은 옛 것이 완전히 끝을 내기 전 새로운 것이 언제나 개시된다는 데 대한 섭리적인 부분의 하나이다.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린다는 말은 말씀의 영적 의미가 열린다는 뜻이고, 이를 수단으로 말씀의 내면에 있는 진리가 밝히 알려진다는 말이다. 교회들이 충분히 황폐되기 전 말씀은 내면적으로 또는 영적 의미에 관하여 밝히 알려진다. 그 이유는 이렇게 알려져야 새 교회(the New Church)가 건립될 것이고, 이 안으로 이전 교회에 소속되었던 사람들이 초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 교회를 위해서 내면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면의 진리들은 새 교회의 사용을 위해 존재하는바, 옛 교회가 끝나기 전 미리 밝혀져야 함이 지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새 것이 시작되는 수단이 바로 내면의 진리들이기 때문이다. 옛 것 속에 아껴두신 것들(remains)이 새 것의 시작이 되어야만 한다. 유대인의 마지막 번째가 기독교인의 첫 번째가 되었다. 기독교회 속의 진리들은 유대교회 속의 사람들 모두에게 일단 발표되어졌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 즉 자기들 선조들의 교회 안에 남아 있던 선하고 진정한 것들을 잘 보존했던 사람들만이 기독교회 속의 진리들을 영접했다. 이 영접함에 새롭고 더 높은 기독교회의 원리들이 접붙여졌다. 가장 높은 의미에서 성막은 성전처럼 신성한 인성에서의 주님 자신을 표현한다. 성막과 성전의 의미를 좀 더 세밀히 구분해 본다면, 성전은 신성한 진리 또는 지혜 측면에서의 주님의 인성, 성막은 신성한 선 또는 사랑 측면에서의 주님의 인성을 표현한다. 주님은 보다 높은 차원의 표현물을 수단으로 새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표현되고 있다. 그 이유는 새 교회에서 주님은 최고도의 진리 측면보다는 오히려 최고도의 선의 측면에 중심을 두어 예배하기 때문이다. 천국에서 보여진 성막과 성전은 합병되어 있다 (15장5절). 새 예루살렘에서 성막만이 보여지고 있다. 성막만 볼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이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천국으로부터의 큰 소리는 신성한 사랑 자체의 소리요, 그 뜻은 주님이 신성한 인성으로 사람들 사이에 현존하신다는 기쁜 소식이 천국을 통해 선포한다는 것이다.

성막은 주님 자신의 영광스런 몸을 표현하는 한편 그분의 신비한 몸인 교회도 표현한다. 본문에서 성막은 한편으로는 도성에 관련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전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거룩한 성, 이미 살핀바와 같이 교리 측면에서의 교회, 성막은 예배 측면에서의 교회를 뜻한다. 이런 이유로 본문이 도성에 이어 성막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예배는 성막에 의해 표현될 뿐 아니라 성전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성막과 성전은 교회의 예배를 표현하는 것, 즉 예배의 대상으로 주님과 관계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면 성막은 사랑으로부터의 교회의 예배를, 성전은 믿음으로부터의 교회의 예배를 표현한다. 사랑과 믿음이라는 천국적 품위 (grace) 모두가 없다면 진정한 예배도, 진정한 교회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의 예배의 품성(character)은 교회 자체의 품성처럼 두 품위들이 서로의 위치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영적 교회의 경우 믿음이 우선 순위에, 사랑이 그 다음 순위에 있다. 천적 교회의 경우 사랑이 첫 자리를, 믿음이 둘째 자리를 점령한다. 이 차이는 기독교인의 생활이 진보해 가는 순서로부터 발생되어 표현되고, 이를 집합해서 생각하면 각 기독교회가 발전해 가는 순서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기독교인은 사랑의 품위를 획득하기 전에 믿음의 품위를 획득한다. 물론 각 기독교인의 삶의 진보 첫 단계에서조차도 사랑 없이 믿음은 존재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첫 단계부터 사랑이 그 사람의 가장 높은 품위로 존재하는게 아니다. 그런고로 그는 사랑이 자기 심장 속에서 최고의 애정이 되도록 애쓰게 된다. 사랑이 그의 가장 높은 애정일 때 그는 기독교인의 품성과 삶에서 가장 높은 상태에 도달되어 기독교인의 가장 순수한 기쁨(joy)들을 누리게 된다. 이 상태에서 믿음은 사랑 안에서 잃는바 되면서 사랑은 모든 것 안의 모든 것으로 존재한다. 한마디로 거기에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의 성막(집)만이 그와 함께 있다. 오히려 그 사람 자신이 지고하신 분의 거처(성막)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기독교회의 진보(progression) 역시 기독교인의 삶의 것과 비슷한 순서를 밟아 왔다. 첫 기독교회는 주님의 성전이 첫 순위이고 두 번째가 성막이었다. 기독교회에 있는 상태들의 이런 진보는 이스라엘 교회에 있었던 예정(Type)들과 닮은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교회의 경우 성막이 성전에 앞서 존재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육으로 오시기 이전의 교회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하강했던 것이고, 그 이후 교회의 진보는 위쪽으로 향해 있다. 첫 기독교회는 유대교회보다는 더 완전하다. 두 번째 기독교회는 첫 번째 보다 더 완전하다. 두 번째 기독교회는 처방에 있는 더 높은 품성은 이 책 예언에서의 중대사요 결론이다. 이 안에서 예언을 통해 주어지는 약속들, 두 번째 교회에 있게되는 영광되고 평화로운 상태가 실감되어진다. 또한 종교적 지식과 정의가 보편화 될 때, 만민과 나라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을 종교의 의무로서, 그리고 영적 흥미로 알게 될 때 그들은 부유하고 위대해지며 슬기롭고 선해질 것이다. 위 사항은 기독교국이라 자칭하는 나라와 백성들까지 포함되어 배워야 할 교훈이다. 서로간에 치고 받는 다툼과 시기함으로 물든 이해관계는 기독교인의 진정한 본성을 얼마나 조금 납득했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고, 자비로운 영, 사리사욕 없는 영의 영향이 얼마나 적은지 실감나게 만든다. 이런 지저분한 것들은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함에서 결과되는 축복 중의 하나는 그분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 스스로 그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다(the presence of God)는 말은 보편적인 말, 아마 신앙인이라면 모두 다 친숙한 말에 해당된다. 그 이유가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시오 보존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현존은 존재라는 축복 외에는 어떤 것도 보증 못해주고 있다. 그것은 우리를 고결한 삶,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단지 그것은 행복되게 할 수 있는 자질 또는 능력만을 보존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를 거룩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현존(Divine

Presence)은 우리 안에(in us)있게 될 때이다. 바로 이 사항이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와 함께(with us)함에 대한 의미이다. 그분이 우리의 심정과 지성 또는 의지와 이해성 안에 거하실 때 하느님은 성경책의 의미 안에서 우리와 함께(with us) 거하신다. 개인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거듭나는 의지는 하느님이 건설하시어 영원히 앉히실 새 성막이다. 이 성막 안에서 그분은 인간과 더불어 영원히 거하신다. 의지가 새로워질 때 이해성도 새로워지는데, “그의 눈은 아늑한 보금자리, 옮겨지지 않을 성막, 예루살렘을 보리라. 그 말뚝이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고 그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사야 33:20). 그리고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과 맺은 이 계약은 영원히 깨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들을 불러나게 하고 나의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나는 나의 집을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에제키엘37:26,27). 우리의 주님은 분명한 언어로 똑같은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신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리라” (요한복음15:10).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 복음14:23). 그러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으리라 “야훼여? 당신 성막에서 살 자 누구입니까? 당신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허물없이 정직하게 살며 심정으로부터 진리를 말하는 자...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15편). 그런데 하느님의 현존은 조건이 없는 것도 발견된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마태복음5:45).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 것은 그분과의 계약을 지키느냐의 여부에 의존된다. 계약은 쌍방의 동의인바, 서로가 계약내용을 준수할 때만 성립되는 것이다. 신성한 법은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조건을 담고 있다. 법의 글자는 옛 계약이고 법 속의 영은 새 계약에 해당된다. 그 계약은 이러하다. “그 날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맺을 계약이란 그들의 가슴에 새겨 줄 내 법을 말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준다. 그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어,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31:33). 이것이 기독교의 계약이다. 이 계약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신다”는 약속이 기대어 쉬고 있는 곳이다. 주님과 모든 결합은 그분의 사랑과의 상호성에 의해 결과된다. 그분은 만민을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와 결합되기를 바라시고 있다. 만일 인간이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구원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다 구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써 아니라 그들이 그분을 사랑함으로, 다시 말해 그분의 사랑을 그분께 되돌림으로 가능하다. 주님은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신다. 그러나 그분이 그들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구원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분 안에 거함으로 구원되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명심해야 할 진리이다. 이 진리는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 즉각 주님의 자비가 쏟아지고 그 즉시 구원되었습니다 라고 공공연히 발표해대는 이들 속의 관념에 담긴 거짓 희망의 기초를 뒤흔들어 준다. 주님께서서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라는 아름다운 비유로 위의 상호성 (reciprocation)의 교리를 가르치시고 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15:5,7). 이와 같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우리로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느님 친히,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하느님이 되신다.

4. 주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 또 다른 축복의 결과, 그리고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오는 직접적인 결과가 이제 기술되고 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글자대로 이해한다면, 새 예루살렘은 천국 안에 있는 교회를 뜻한다 라는 견해를 잘 받쳐주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그 이유는 거기에서만 위와 같은 일들이 실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통된 생각 속에 진상에 가까운 것이 있다. 고통과 죽음을 면제받는 약속은 중간 상태 또는 영들의 세계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의 상태와 직접 관계되는 말이다. 그 세계에서 이루어진 심판은 이전 것들에 종지부를 찍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죽음이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죽음이 불 못에 던져졌기 때문이다. 거기서는 더 이상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여인을 박해하고, 여인의 후손과 전쟁을 했던 용이 결국 그가 있을 자리에 처박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악과 잘못이라는 영들이 떼지어 다니던 중간 상태인 영들의 세계에 있던 신실한 자들은 천국으로 들리워졌는바 그들의 적들에 의해 당했던 고통이나 슬픔에서 자유로워졌다. 이와 같이 본문의 예언은 영들의 세계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즉각적인 결과인 반면, 똑같은 사건으로부터 결과히는 변경된 상태인 자연계와도 관계가 있다. 넓은 의미에서 하늘과 땅은 천국에 있는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뜻한다. 그러므로 새 하늘(a new heaven)은 하늘에 있는 새 교회(a New Church), 새 땅(a new earth)은 지상의 새 교회(a New church)를 뜻한다. 지상에 있는 새 교회(the New Church)의 경우, 이 교회는 천국에 있는 새 기독교회(the New Christian Church)로부터 이고, 이 문단이 의미하는 천국에 있는 교회이다. 이 교회에 더 이상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더 이상의 고통도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처방(the

New Dispensation) 아래에서는 어떤 측면이나 의미에서든 슬픔이나 죽음이 중단될 것이라고 외골수 같이 이해해서는 안된다. 인간이 자연계에서 태어나는 한, 악에 잘 기울려는 경향성이 있다. 그리고 재-탄생되어가서 영적이고 천적으로 만들어져야 함이 요구되고 있는 한, 거기에는 슬픔도 울부짓음도 죽음까지 존재한다. 그 이유는 슬픔의 종말이 기쁨의 시작이요 죽는 것은 영생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라는 것, 죽어야만 한다는 인간의 운명이 자연적 차원에서 폐지된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가 익히 아는 기독교 삶에 있는 모든 자연적 차원의 시련들이 더 이상 없다는 것도 절대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전의 처방에 속하는 악이나 잘못들이 생산하는 슬픔이나 죽음은 더 이상 없다는 말이다.

이 구절의 약속은 완전한 성취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처방 그 자체는 결코 죽지 않는다. 또한 이전의 처방들이 나열해 온 쇠퇴의 징조나 질병이 발생하는 조짐 따위는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새 예루살렘(the New Jerusalem)이 내려옴은 거룩한 이 책 자체, 목시적인 환상의 광경에 관을 씌우는 것에 해당되는 바, 새 교회(the New Church)는 하느님의 땅 위 처방에 관을 씌우는 것에 해당된다. 이 처방 안에서 주님의 신성한 목적, “교회로 하여금 티나 주름이나 그 밖의 어떤 추한 점도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심”이 천천히 그러나 온전히 성취되어 갈 것이다 (에페소5:27).

이제 이 구절의 언어가 지상의 교회에 관련하여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자. 다시 성경책이 스스로 주석을 달아 놓은 곳을 찾아가보자. 세상에 오시어 주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한다. “이 산 위에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을 가리우던 너울을 찢으시리라. 모든 민족들을 덮었던 보자기를 찢으시리라. 그리고 죽음을 영원히 없애 버리시리라. 야훼, 나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벗겨 주시리라. 이것은 야훼께서 하신 약속이다” (이사야25:7,8). 주님이 죽음을 이긴 승리는 죽음의 권세를 가졌던 자(악마)에 대한 승리이셨다 (히브리2:14). 이를 수단으로 그분은 인간 구속이라는 위대한 일이 결과되게 하셨다. 주님이 인류를 해방시켜 주실 상태들이 예언서에서 죽음을 포함하는 고통이나 고뇌, 슬픔 등등 중의 하나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병자를 고치시고 고뇌하는 자를 위로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등등의 유익을 주는 일들은 인간에게 영적 건강과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한 걸음 더 진전된 위대한 일들을 표현한다. 그 다음 주님이 건설하시는 교회는 그분이 시작한 위대한 선한 일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한 때이긴 하지만 교회는 정복하고 정복해 갔다. 그러나 일치 단결한 믿음, 사리사욕이 없는 사랑,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이 계속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계시록은 악과 잘못들의 시작과 그 발전을 폭로해 놓고 있다. 그 폭로는 푸르스름한 말,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탄 말, 그 뒤에 지옥이 따르는 이 말, 초기 교회에 심어졌던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 이 교회 후손에게 유업으로 남겨졌던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을 마구 짓밟는 이 말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미리 보여지고 미리 말해지고 있는 바 그에 대한 치료약 역시 준비되어야 한다. 주님은 두 번째 오시어 두 번째 교회를 건설하시기로 되어 있었다. 이 새로운 처방은 첫 부활과 두 번째 죽음을 제거하심으로 진행되기 위한 것이었다. 교회는 사람의 새로움 안에서 일어나기로 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게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위의 세부사항들은 각기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의미 안에서 교회 속의 멤버들은 위로를 받고 계몽도 있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없다고 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다. 영적 죽음이란 영적 생명의 소멸을 말하는바, 이 영적 생명은 사랑과 믿음이다. 중단될 눈물, 슬픔, 울부짖음, 고통들은 소위 죽음의 한 부분들이다. 그 이유는 이것들은 죄의 결과들이고 그 중에서 죽음은 그 보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죽음이 총액에 해당된다면 이것은 할부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죽음이 폐지되면 이것들 모두 역시 중단된다. 만일 악과 거짓의 확증된 상태의 죽음이라면 죽기 전 고통의 상태는 죽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되기 위해서는 그 원인들이 충분히 추적되어야 할 것이다. 슬픔의 뿌리에 놓인 것은 의지 안의 악이다. 눈물과 울부짖음을 생산하는 것은 이해성에 있는 거짓이다. 그 반면 고통이나 힘든 일은 생활이라는 것에서 발생된다. 눈물과 울부짖음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듯 여겨질 것이다. 그런데도 본문에서는 각각 언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죄를 뉘우침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인바, 눈물(tear)은 진리의 손실을 슬퍼하는 표현이고, 울부짖음(crying)은 진리 안에 있는 선의 손실을 탄식하는 표현에 각기 해당된다. 거듭나는 삶에는 경건한 슬픔, 눈물짓는 회개, 그리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는 꾸준한 노력이 있다. 이미 살핀바와 같이 이런 사항들은 거듭나는 사람에서는 폐지 될 수 없는 절대요소이다. 이 약속은 위 요소를 충족시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약속이다. 이들에게는 정복 못하고 있는 악과 죄들로부터 슬퍼하는 경험은 더 이상 존재 않는다. 더 이상 있지 않게 된 죽음, 슬픔, 울부짖음은 행복한 사건인 거듭나는 삶의 진보 동안 참회자가 고통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참회할 게 없다는 이들이 삶을 끝낼 때 고통받는 회개 않은 죄의 결과들이다.

5. 하느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죽음의 통치도 끝났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사라졌음을 선포하신 뒤 이제 새로운 왕국의 시작을 발표하신다.

그 안에서 생명과 건전함 그리고 평화의 축복을 즐기게 된다. “그 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내려오고 있다.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고 선포하셨다. 죽음과 슬픔은 더 이상 없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발표는 중간 상태에 있는 것들, 즉 선한 자는 천국에 올려지고 악한 자는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으로 생산되는 중간 상태의 새로운 모든 조건에 직접 관계하고 있다. “사라져버린 이전 것들”로 의미되는 중간 상태에 있는 것들의 상태는 의로운 자의 영으로부터 일어났으며 아직 온전해진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의 영은 제 부끄러움을 모른 채 서로 혼합된 상태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변화의 본성과 결과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단련을 받아 깨끗해질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끝내 눈이 열리지 않아 악한 것을 계속할 것이다...” (12:10).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모두 내향의 본질이 된 삶의 단순한 상태에 들어가서 끼리끼리 모이면서 이전 상태의 것들은 막을 내린다는 말이다. 옛 것이 끝남과 함께 새 것이 시작된다. 비록 이런 끝남과 시작이 원인의 세계인 영계에서 먼저 거행되었다 해도 결과의 세계인 자연계에서도 계속되어진다. 그렇다해도 원인에 속한 것이 결과에 속한 것들에서 우리에게 똑 같게 보여진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가 영계에서 변화된 것이 자연계에서 발생된다 해도 그것은 등차별로 상응에 의해서 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위 발표 안에 표현되어 있다. 그 이유는 옥좌에 앉으신 분께서 뭔가를 만드시겠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신다고 말하시기 때문이다. 이는 새 예루살렘의 하강에 관한 요한의 말과 일치한다. 그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는 진리가 계속 내려오는 것을 표현하고 이 진리가 인간 마음에 계속 받아들여지는 것, 그리하여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까지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영과 말씀을 수단으로 꾸준히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신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려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어떤 큰 변화가 자연계에서 있었을 경우 그 원인되는 것과의 연결을 인식할 수 있으리라는 것에 대해서이다. 비록 이런 연결은 있을지언정 알려지지 않는다는. 이외에도 영계에서 있어진 크고 유익한 변화들의 결과가 영적 품성 속에 언제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이 천국의 원인을 암시하도록 언제나 나타난다고 일괄적으로 상상하고 있어도 안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연계에서이다. 사실 이는 영계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전 것의 사라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 이유는 옛 것들의 심판도 없이 끝을 맞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전쟁이나 격변 또는 환난 같은 것이 먼저 있으면서 그분의 오심이 있다고 말하시고 있다. 진짜와 진짜인 듯 보이는 것, 진짜와 가짜, 선과 악 사이의 구별을 명확히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그 둘 사이를 구분하려드는 것은 무엇이든, 그리고 선을 드높이고 악을 내던지는 것, 이런 것들 모두가 심판의 속성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싸움이나 환난 같은 것 없이는 좀처럼 결과되지 않는다. 이런 효과를 가지는 세계에서 거행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의의 통치에 관한 약속이다. 둘째는 인간의 영적 측면에서 이다. 인간의 영적 상태는 그 자체가 시민 생활이나 도덕적 생활 안에서 뿐만아니라 종교적인 견해나 행동지침 안에서 분명해진다. 영적 원인들은 가장 적극적인 생활 국면에서 결과된다. 인간 마음의 동거나 총명들은 그것과 잘 어울리는 수단으로 해서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므로 비록 원인이 영적이라 해도 직접적이고 보일 수 있는 결과들은 자연적일는지 모른다. 참으로 영적 원인의 자연적 결과가 먼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타당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진보의 질서로 보면 영적인 것이 먼저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자연적인 것이 먼저이면서 그 뒤를 이어 영적인 것이 오기 때문이다. 각 개인 또는 세상도 낮은 측면에서 높은 측면으로 삶이 이루어져 간다. 다시 말해 더 높은 것들은 더 드높은 선용이 결과되게 하기 위해 낮은 것들을 도구로서 채용하거나 낮은 것 안으로 들어가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높은 것의 성취를 가져오게 한다. 마치 지상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승강되는 수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과 같다.

이미 말했던 바는 중간 상태의 모습, 심판에 앞서 있던 것, 즉 수많은 영들에 관한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어둠에 쌓여 있어서 이들은 진리의 빛이 하느님께로부터 천국을 통해 인간의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마치 짙은 구름이 지상에 닿으려 하는 태양광선을 차단하는 것과 같다. 이 어둠이 생산한 정신적 희미함은 이미 언급한바 있다. 이 장애물이 거두어졌다. 그래서 정의의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이제 어떤 장애도 없이 인간 마음으로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안쪽으로 흐르는 진리의 빛과 더불어 동시에 사랑의 불이 그 안에 있어 진리에 관한 지식을 새로이 밝히 알게 해준다. 이렇게 안쪽으로 있는 영향과 바깥쪽에 있게 되는 수단들이 하나로 묶여진 행동으로 새로운 자극과 방향이 마음에 주어져 더 진정한 믿음, 더 순수한 사랑, 더 거룩한 삶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한다. 어찌됐든 확실히 해둘 말이 있다. 이런 신성한 의도가 성취되는 것도 단순한 종교적 감정 위에서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빛은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영적 수준이든, 자연적 수준의 마음이든 똑같이 비쳐주어 각 마음의

주제나 추구함이 각기 특이한 연구를 형성하도록 계발해주기 때문이다. 모든 지적인 빛의 근원은 신성이고 그 본성은 영적이다. 주제가 무엇이든 진정한 빛이 뿌려져서 그 빛을 받은 마음에서 설사 자연적 수준이 된다해도 어찌됐든 그 빛은 영적일 뿐이다. 따라서 올바르게 방향이 잡혀 있다면 그 빛은 영적 삶을 위한 선용에 이바지하여 종교적 선함과 진리의 원인을 진보시켜 준다. 과학자나 학문을 경주하는 사람들이 자기 분야를 연구하는데 열심을 내도록 하는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 결과 끌어내지는 결말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 모두는 에집트인에 불과할 뿐이다. 과학이나 각종 학문들은 에집트인과 같이 이스라엘을 풍부하게 해주지만 때로 망쳐 놓기도 한다. 이런 것들의 운명은 기브온 족(여호수아9:27)과 같이 하느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 올리는 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의 발전이나 지식의 확장은 신성한 빛의 새로운 유입의 결과들에 존재한다. 어쨌든 지식을 생산해서 배분해주는 이들은 문명사회에 기여하는 개척자로서는 칭찬할만한 업적이라 생각된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신다고 선언하신 뒤 요한에게 명령된 것은 “기록하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이었다. 기록함이란 확증이다. 그 이유는 씌어진 것은 정착되어 고정되기 때문이다. 인간 측면에서 이를 생각해본다면, 각자의 원리들이 행동에 옮겨져 생각과 애정에 관한 그의 상태가 확증될 때 그것은 각자의 심정이라는 돌 판에, 또는 자기 생명의 책에 새기게 된다. 이렇게 새긴 것은 영원히 남아 있게 된다. 새 피조물이 된 이들과 함께 “확실하고 참된 말”이 그들 존재의 전부라고 기록된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 요한의 손에 의해 기록된바 이는 신성한 진리들이 사랑의 힘에 의해 심정에 기록된다는 뜻이다.

6. 위 발표에 이어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다 이루었다. It is done” 라는 신성한 선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이제 다 끝났다. It is finished!” 라는 선포와 같은 취지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본문의 선포는 십자가로부터가 아니라 옥좌로부터이고 고통으로부터가 아닌 영화된 인성으로부터이다. 그럼에도 위 두 말씀은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십자가의 예수께서 “이제 다 끝났다” 라고 말하심은 유대교회의 끝장을 선언하신 것이다. 본문의 “이제 다 이루었다”는 첫 기독교회의 끝장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처방의 종료는 새로운 처방의 시작이다. 유대교회가 막을 내렸을 때 기독교회가 시작되었다. 마찬가지로 첫 기독교회의 끝에서 두 번째 기독교회가 시작되었다. 첫 강림의 교회가 사라졌을 때 두 번째 강림의 교회가 나타났다. 위 두 사건은 똑같은 성질이고 유추적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교회의 본성은 첫 번째 교회의 본성에서 유추하여 알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간략히 비교해보자.

비록 주님께서 “이제 다 끝났다”고 선포하신 것이 유대교회의 끝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의 성경의 끝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성경이 폐지된게 아니라 그 면모가 변화되었던 것이다. 율법과 예언서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유대주의가 사라져 버리고 그 대신 기독교주의가 도래했다. 예식에 관한 법들은 글자 그대로에서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영의 차원에서 건설되었다. 성직수행에 관한 법은 그리스도의 제물에서 가장 높게 성취되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박아 제거하셨다. 하나님께 우리를 산제물로 바치는 예배와 의무수행 속에서 위의 법들은 우리에게서도 영적으로 성취되고 있다. 도덕적 수준의 법 역시 그대로 있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왔던 것같이 하나의 규율이라는 것 대신 기독교인들 사이에 원리로서 건립되어 있다. 한마디로 더 높고 더 순수한 정의가 더 낮은 수준의 정의를 계승한 것이다. 그림자가 실제에 길을 놓아 준 셈이다. 유대주의는 사라지고 그 대신 기독교사상이 일어섰다. 참으로 유대주의는 붕괴된 것이다. 온전하게 유대주의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끝을 맺지 않고는 계속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어쨌든 유대주의는 또 다르고 더 나은 것을 위해 길을 예비할 의도로 처방된 일시적인 것 그 이상은 결코 아니다. 한마디로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학교의 선생 수준에 불과했었을 뿐이다.

이상 살핀 순서로 첫 기독교회와 둘째 기독교회에 관해서도 말해야 할 것 같다. 참으로 기독교회 자체는 최종적인 처방이다. 그러나 처음 건설된 기독교회는 완전함에 있어서 충분할 수가 없었다. 비록 유대교회보다 더 높은 수준에 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가장 높게 승강된 것은 아니다. 인류의 영적 측면은 그리스도가 등장하실 때까지 계속 아래로만 향하고 있었다. 맨 바닥까지 이른 상태에서 시작된 첫 기독교회가 단번에 진리의 전부를 붙잡는 다거나 가장 높은 우수함을 실감할 수 없는 일이다. 슬기로운 계획에 따라 주님께서서는 첫 기독교회가 진리를 청중할 수 있는 만큼에서만 그분의 진리를 주셨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해두신바, “나는 아직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의 너희는 그것을 들을 수가 없다” 이었다. 만일 교회가 총명과 미덕에서 더 높은 상태로 부상했다고 생각해본다면 이것은 기독교 자체가 더 높게 발달해서 달성된 게 아니라 선함을 더 완전하게 발휘하고 진리를 더 분명하게 식별함으로 달성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큰 변화는 알아차릴 수 없는 수단과 분명히 구분되는 등차를 수단으로 결과되어졌다. 자연계 안에서 생명은 계속적인 발달과 더불어 불연속적인 등차에 의해 성숙된 결과를 만들어 낸다. 어린 아이가 성인이 되지만 그것은 몸이 성장하고 마음이 팽창되어서만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존재한 능력들, 그리고 마음이 생명과 총명에 있는 분명히 구분되는 더 높은 등차로 승강함으로 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런 방법으로 더 높은 처방은 더 낮은 처방을 계승해 간다. 따라서

두 번째의 교회는 이미 첫 번째의 교회 속에 있었다. 마치 성인이 아기 속에 이미 있었던 식이다. 두 번째 교회는 발달 단계나 완전함에서 첫 번째 교회보다 더 높은 상태이다. 옛 것들은 사라져 버렸다. 모든 것은 새롭게 되었다. 첫 기독교회는 붕괴되었다. 이제 새로운 교회가 요구되는 것 외에 더 다른 것은 없으리라. 그러나 타락 때문에 요구되어 진다고 말하기보다는 목적에 다가가는 과정으로 또 다른 교회를 수단으로 완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옥좌에 계신 주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신 뒤 첨가하신 말씀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책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하는 이 선포는 모든 완전함이 되신 그분, 무한한 사랑과 지혜, 교회 원리의 근원이자 목적이 되는 분, 우리 믿음의 저자이시며 마무리 지으시는 분과 연결되는 새로운 질서를 표현하기 위해 도입된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계속하신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주님은 근원되시고,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는 원리, 생명을 주는 원리로서의 진리의 샘이다. 진리의 생명은 사랑이다. 근원적 측면의 진리는 살아 있다. 그 이유가 근원되는 측면 안에서 신성한 진리는 신성한 사랑과 하나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인간 마음 안에서만 이 둘은 분리되어 질 수 있을 뿐이다. 이 분리가 파멸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 분리는 교회 파멸의 원인도 되는 것이다. 교회가 파괴되는 원인은 사랑과 진리의 분리고 교회가 회복되는 원인은 사랑과 진리의 하나됨이다. 회복되는 교회에 주님께서 다시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로서 그분 자신을 밝히 알게 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목마른 자에게만 주어질 뿐이다. 그 이유는 진리를 바래고 있어야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 자체를 위해 진리를 바라는 사람, 이는 선을 위해 바라는 것인바, 진리가 가르쳐지고 진리를 받게 된다. 그 외 누구도 생명의 물을 마실 자는 없다. 사랑 없는 진리는 실제 분야인 선용 속에 있는 진리가 아니다. 마치 얼음이 되어버린 물과 같다. 따라서 따뜻함이 얼어붙은 것을 자유롭게 할 때까지 물로서의 사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한다. “당신 말씀 보내시어 모두 녹게 하시고 바람 불게 하시어 물 흐르게 하신다” (147:18). 목마른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태양이 그 영향력을 보류할 수 없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물은 더 보류할 수 없다. 이사가야 노래했듯 “돈 없이값없이” 수여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55:1). 하나님의 선물을 두고 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 선물과 동등한 어떤 것도 가져다 놓을 수 없다. 그것들을 받게 될 때 그것이 자신 고유에 속한다고 간주할 수 없다. 독선에 속하는 모든 사상, 이 사상으로 싹틔운 모든 느낌이 없는 것이 주님의 새 나라에 있게 되는 독특하게 구별되는 품성들이 지니는 특질이다.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왕의 선물을 공적을 내세우지

않는 순수한 자비 속에서 자기들에게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로서 간주한다. 이와 같은 진리가 주님께 의해 제자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10:8). 그런데 이런 진리들이 뒤집혀 있다. 은총은 인간에게 값없이 온다고 여기면서도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값없이 오는 게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그것을 구매했다. 예수께서 모든 값을 다 지불했고 인간은 그분을 믿음으로 구매한 선물을 받는다고 설득하고 있다. 그리하여 값없이 주신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박탈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색깔이 다른 정의에 있는 믿음에 구원이 의존되도록 인간은 유도되고 있는 것이다.

7. 원 저자로부터 값없이 받게 되는 선물인 진리는 그것을 받는 이들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 진리의 첫 번째 사용은 제 잘못과 악을 극복해 가는데 있다. 더불어 선함과 진리를 실제로 획득해서 영원히 소유하게 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거저 주는 선물에 대해 다음의 선포가 따라온다.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승리함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살핀바 있다. 승리는 일곱 교회의 공통된 의무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행복한 결과만을 지적해 본다. 선하고 참된 모든 것은 악하고 거짓된 모든 것을 극복하는 사람에게 상속된다. 이는 영원한 법칙이요 변경이 없는 질서이다. 이런 상황이 매우 이상한 듯, 또는 매우 위험한 교리를 담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에 대한 설명 자체가 그 진리를 이해하게 해줄 것이다. 악이 인간 심정의 땅을 이루고 있는 한 어떤 선도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 다행히 악이 제거된다면 진리의 씨를 옥토가 받게 되는바 풍성한 결실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악의 제거는 선을 받고 행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안쪽에 있는 악을 극복하지도 않은 채 바깥쪽에서 선을 행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의 선은 겉치레의 선이거나 위선일 수밖에 없다. 이는 선을 사랑해서 결과된 선행이 아니다. 선행으로 기대되는 보상인 명성, 칭찬을 위해 외관을 중시한 선행일 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상속받는 이들은 승리한 자들이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천국인 모든 품위들을 내향으로 상속받은 다음, 외향의 상속인 천국 자체 즉 순수성과 미덕의 거주지인 천국을 받게 된다. 자신 속에 든 악을 정복하는 이들은 자기 하느님으로 주님을 가지고 있는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자라야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새로이 출생하려면 완전한 변화 즉 옛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을 때 가능하다. 이런 개별적인 변화는 모든 다른 것들이 변화되게 해주는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가 암시한 넓은 측면의 변화에 이어 개별적인 변화가 첨가되어 있는 것이다.

8. 선에 속한 모든 것이 자아를 충실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상속되는 반면, 불성실한 이들은 자기들의 죄과라는 참혹한 결과로 위협받게 된다. “그러나 비겁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흥측스러운 자와 살인자와 간음한 자와 마술쟁이와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곳은 불과 유행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심정과 생활 속에 든 악을 정복함에 반대되는 이들은 그 악을 탐닉하는 이들도. 천국적인 상속에 반대되는 것이 불과 유행이 타는 것이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남에 반대되는 것이 둘째 죽음이다. 이러한 두 가지 부류 또는 상태는 또 다른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새로운 상태는 선과 악, 진리와 진리의 왜곡됨 사이의 분명한 구분을 야기시킨다. 교회 또는 종교가 퇴조될 경우 위 구분은 더욱 덜 분명하게 보여져 아예 구분이 없을 정도까지 쇠퇴된다. 자각 의식, 이는 자기 심정이 선과 악 중 어디에 있는지를 구분해 준다. 또는 하느님에 속한 것과 자신에 속한 것이 어떤 것인지 구별해주는 의식 세계이지만 쇠퇴되는 교인들은 이 의식을 상실하게 된다. 이들은 악을 극복하기 전에 반드시 그 악이 죄가 되고야 만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 악과 싸우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그 악이라는 멍에 밑에 남아 있게 되면 필시 맞이하게 될 참혹한 결과에 대해 정식으로 통감하고 있어야만 한다. 모든 잘못된 것은 이해성을 흐리게 하고, 양심을 무디게 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경향성은 거짓된 안전의 상태로 유인해낸다. 한마디로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사이에 놓인 구분을 말살시킨다. 모든 진리는 이와 정반대 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속의 잘못된 것들은 행동보다 믿음을 드높이려 한다는가, 필수되는 내향의 경건함보다는 형식적인 경건을 치켜세워 보려는 결과를 낳게 한다. 진리는 매우 귀중하다. 그 이유는 이해성 위에 뿌려놓은 왜곡된 신앙이 덮고 있는 베일을 찢어 그 본성이 드러나게끔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심정의 진정한 상태가 어떤지 밝히 알게 해준다. 따라서 악이 그 자체를 방어하고 은닉하는 수단인 궤변을 간파하게 해준다. 진리는 선의 조연자요 성직자이다. 이외 더 다른 기능이 진리에게는 없고 더 다르게 사용되지도 않는다. 이 구절과 비슷한 표현이 22장 15절에 다시 있으므로 그곳에서 한꺼번에 설명하겠다.

9.10.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 오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성을 보게 된다. 이 관점은 그로 하여금 세세한 부분까지 감지해서 서술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마지막 일곱 가지 재난이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손에 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성에 관한 새로운

관점, 그것에 딸린 주변 모습들에 귀감되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누구도 없으리라 본다. 평지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이 성을 보기 위해 왜 이 선견자는 크고 높은 산꼭대기로 들리워야만 했을까? 이는 심정 상태의 변화와 그에 상응되는 어떤 행동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였다. 다시말해 요한이 영으로 본 것을 교인도 보려면 요한같이 들리워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요한이 처음에 본 새 예루살렘에 관한 모습은 일반 측면에 속하는 것, 즉 전체로서의 윤곽을 본 것이다. 이제 그가 보게 되는 도성은 세부 측면에 속한다. 일반적인 것을 보고 그 다음 세부사항을 다시 보는 절차는 교회의 교리를 보고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절차이다. 교인들이 처음 납득하는 것은 넓은 측면의 교리들이고 두 번째 납득되는 것은 세세한 측면이 된다. 보다 더 내면에 속한 광경은 마음에서 열려지는 영적 지각이 보다 더 내면의 수준에 있어야 한다. 이 선견자가 들리워진 크고 높은 산이란 보다 더 내면에 속하는 수준이다. 그런 이유가 본성 측면에서 높다는 것은 영에서는 내면에 속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이 선견자가 승강된다는 말 자체만으로도 교훈적이다.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 오너라” 라고 말했다. 이 천사는 마지막 일곱 가지 재난이 담긴 일곱 대접을 손에 든 일곱 천사 중의 하나였다. 이 천사들은 천국에서 열리워진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왔다. 이들은 가장 높은 천국, 천적 수준의 사랑인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진 천국의 천사들이다. 이런 사랑으로 구별되는 이 천국이 본문의 크고 높은 산이다. 가장 완전함 속에서 진리를 보려면 가장 높은 천국에 있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되려면 가장 높은 천국의 천사들이 원리로 삼는 가장 높은 사랑의 상태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다. 요한이 들리워진 이 천국의 천사들은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 그들이 이렇게 높은 사랑 안에 있듯 가장 순수한 빛 가운데도 있다. 그 이유는 사랑과 빛은 언제나 상응되기 때문이다. 이 천사들은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해서 거룩한 성을 처음 보게 된 이들을 거기로 초대해서 빛과 영광이 충만된 상태에서 그 성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들은 자기들이 거기로 운반되기를 기다린다. 그들은 자신 스스로의 능력이나 총명으로는 올라갈 수 없다. 그들은 천사들의 영향력에 의해 끌어당겨지고 천사들의 지혜가 안내해 주어야만 가능하다. 간단히 말해 하느님의 영향을 받아 그분의 지혜로서만 거기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 그 이유가 천사란 그분에 대한 특사 또는 그분을 대리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산에 오를 의무 그리고 거룩한 성을 잘 볼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등등 모두가 “크고 높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크다(great)란 선함을, 높다(high)란 진리를 표현한다. 선함과 진리를 획득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사랑의 상태에 도달할 자는 없다. 우리가 주님을 선함과 진리 자체로서 여겨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와 선함을 수단으로 사랑 안으로 승강되어야 한다. 이런 수단들을 사용해서 주님을 사랑함이라는 “크고 높은 산” 위에 서게 될 때 요한이 보았던 것을 볼 수 있으리라.

사랑의 이 산은 성경의 특별한 장소들을 점령하고 있다. 모세는 사랑의 법을 받기 위해 시나이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럼에도 이 계명의 첫 돌 판은 백성들의 죄로 인해 깨어졌다. 요한이 거룩한 성을 보기 위해 산에 올려졌듯이 모세는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 거룩한 땅을 관망했다. 예수께서는 세 제자를 데리고 변모하신 산에 오르셨다. 그런데 산의 의미는 반대적 측면도 있다. 그것은 자아를 사랑함(self-love)이요 이것은 하느님을 사랑함에 정반대 되는 사랑이다. 이를 잘 표현하는 대목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이다. 악마는 예수를 드높은 산에 올려놓고 세상 모든 왕국을 보여 주면서 내 앞에 절을 할 경우 이 모든 것을 가지도록 해주겠다고 유혹했다.

요한이 높은 산으로 들리우기 전 그는 신부되는 교회를 보았었다. 천사는 신부이자 아내로서의 교회,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인 교회를 요한에게 보여주었다. 교회가 주님과 결합하기 위해 단장했을 때 그 교회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 결합했을 때 그 교회는 그분의 아내가 된다. 처음에는 거룩하다고 불렸던 이 도성은 크다(great)라고도 불리고 있다. 그 이유가 거룩(holy)은 진리와 믿음 측면에서의 교회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고 크다(great)란 선함과 사랑의 측면에서 교회의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거룩함에 크다는 말이 덧붙여진 것은 마음이 더 높게 승강될 경우 더 높은 상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 개의 거룩한 예루살렘인 듯 보이면서 도성이 내려오고 있다. 그 이유는 거룩한 도성이 존재하게 해주는 원리 또는 그 원리로 되어지는 교회는 인간의 심정과 마음 안으로 하느님께로부터 천국에서 계속 하강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교회는 교리와 예배에 관한 유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모든 생물체처럼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지혜라는 생명의 원리를 받도록 의도되어 있다. 마치 자연의 유기적인 형태들에 태양의 열과 빛이 흘러가는 것과 똑같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두 개의 서술이 있다 거기에는 서로 구분되는 사항이 있다. 먼저 거룩한 성은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해진 2절(...from God out of heaven)과, 하늘에서 하느님께로부터(...out of heaven from God)라는 10절의 구분이다. 사실 두 문장은 글자대로 라면 어구의 위치(transposed)가 바뀐 것 외에는 하등 차이가 없다. 그러나 영적 의미일 경우 이는 단어(word)로 되는 게 아니라 생각(idea) 차원이므로 거기에는 확실한 전환(transposition)이 존재한다. 전자는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앞에 놓이고 후자는 뒤에 위치되어 있다. 이는 천국과 교회에 속하는 모든 것에서, 그리고 믿음 수준에서 이타에 수준으로, 지혜 수준에서 사랑 수준으로 건너가는 이들 안에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11. 교회를 구성하는 세부사항들, 탁월한 아름다움의 형체를 만들도록 조화를 이루는 배합이 어떠한지 이제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이 교회의 첫 모습,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싸여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라고 말해지고 있다. 영광과 빛(glorious and light), 이는 영상(image)이나 비유(analogy)만큼이나 잘 표현되고 친밀감이 있어 매우 비슷한 듯 여겨지기도 하지만 서로 구분되는 의미는 살피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영광은 빛 속의 광채이다. 차후 23절에서 언급되겠지만 이 도성의 영광과 빛은 태양과 달의 빛에 상당하는 말이다. 빛은 진리의 상응물이고 빛 속의 광휘(radiance of light)는 사랑의 상응물이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신성한 사랑으로 빛나는 그분의 신성한 진리이다. 열이 없는 빛은 영광이 빠져 있는 것과 같다. 달빛은 말 그대로 매우 아름답지만 광휘가 없다. 태양의 따뜻한 빛은 그 빛을 받은 모든 것에서 방광(irradiate)한다. 태양이 뜨고 저무는 광경, 정오의 뜨겁게 밝은 태양빛은 새 예루살렘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아름답한 형상(image)이다. 거룩한 성의 빛은 그 성의 영광과 구별되는바 그것은 수정만큼 맑은 벽옥같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 새 예루살렘의 기초 중의 하나인 이 벽옥에 관해서는 차후 언급될 것이다. 이 구절에서는 이 보석이 매우 귀중하다는 것, 수정만큼 맑다는 점만을 강조함으로 충분하리라 본다. 돌(stone)은 진리의 표현물이다. 주님은 진리 자체되시는 분으로서 돌(the Stone)이라 불리신다. 말씀을 진리로 이해할 때 이로부터 교회는 즉각 교회의 빛과 영광이 파생된다. 이때 돌은 진리의 글자적 수준의 의미를, 빛은 진리의 영적 수준의 의미를, 영광은 진리의 천적 수준의 의미에 대한 표현물이다. 말씀의 글자적 수준의 진리 가운데서도 어떤 진리의 경우는 보통으로 흔한 것, 그 다음 어떤 것은 귀한 것, 마지막으로 어떤 것은 다른 진리보다 더욱 귀할 경우가 있다. 귀한 돌 즉 흔히 보석이라 불리는 돌은 빛을 투과시키거나 아름다운 색깔로 빛을 되튀겨 준다. 보다 완벽하게 빛을 투과하거나 되튀겨 줄수록 더 귀한(값진) 돌이다. 말씀의 글자적 수준에 있는 진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글자적 수준의 진리가 정신적인 눈에 영적 의미를 보다 더 완전하게 투과하거나 되튀겨 준다면, 정확히 말하면 우리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정의의 태양”의 빛을 보다 완전하게 되튀겨 줄수록 말씀의 글자는 더욱 값진 보석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구분해보는 진리의 품질은 본질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관계 측면에 불과할 따름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말씀 안에 있는 똑같은 진리라 해도 마음의 수준이 다를 경우 다르게 된다. 어떤 마음속에서는 모든 진리가 한결같이 평범한 돌밖에 안되지만 어떤 마음 속에서는 한결같이 보석일 경우가 있다는 말이다. 새 예루살렘의 구조물에 들어가 있지 않은 보석은 하나도 없다. 새 교회 안에서 말씀 속의 모든 진리들은 투과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말씀의 글자는 말씀의

영광을 감추어 놓이게 하는 덮개가 더 이상 아니고 영광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어 있다. 말씀의 글자는 “지극히 귀한 돌, 수정처럼 맑은 벽옥(jasper stone)”이다. 벽옥이 영적 의미에서는 빛을 발하는 말씀의 글자적 의미가 지니는 일반적 품성을 표현한다. 이런 이유로 벽옥은 이 도성의 구조물에 다른 보석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다 (18절). 어찌됐든 기억해 둘 것 하나는, 귀중하고 영화로운 도성에 거하게 될 사람은 그 도성에 걸맞은 자격을 갖춘 이들, 그들 안에 귀중함과 영화로움을 지닌 이들이라는 것이다. 그들 마음의 성벽에서는 겸손이 발견되고 그들의 행동은 정의로 건설되어 있다.

12-14. “이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 두 대문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 두 주춧돌이 있었는데 그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열 두 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도성은 안전을 위해 성벽이 있다. 이 교회는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방어 수단인 장치가 되어 있다.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죄의 결과들 때문만이 아니다. 더구나 교회 방어의 수단이 인간의 계획이나 책략 같은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일에 속한 것일 뿐이요 오히려 하느님의 일에 그들만 남길 뿐이다. 자연을 총망라하고 인간의 육체까지 포함해서 각 본체들의 안쪽에 있는 지극히 중요한 부분들은 섬세한 덮개로 씌워 있고 바깥으로는 강한 벽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내향에 속하는 생명의 원천 되는 교회의 원리인 사랑과 이타에는 보호되어야 할 중요도가 자연물 그 이상일 것은 세삼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리라 본다. 이 법칙은 마음의 영역 모든 세계에 해당되고 더구나 하느님의 보좌까지 미치고 있는 법이다. 이를 말해주는 것이 보좌 둘레에 있는 거룩들(cherubim)이다. 하느님의 보좌인 천국도 그 보존을 위해, 뿐만 아니라 유지 존속되기 위한 섭리 측면에서 보호가 요구된다. 천국도 보호가 필요한데 교회의 경우는 더욱 요구 될 것이다. 그럼으로 시온은 성벽과 성루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시편48:13).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하늘나라를 말씀하실 때, 포도원을 세우고 거기에 술틀과 망대, 울타리까지 치놓은 사람에 비교하고 있다 (이사야5:1-2). 주님께서 시험받으실 때 그분 스스로도 적에 대한 방어 수단을 고용하셨다. 그분이 고용한 그 수단은 무엇인가? 사탄의 공격과 간계를 격파하는데 그분께서는 씌어있는 말씀 속의 진리를 사용하셨다. 이와 똑같은 진리들이 교회의 성벽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진리들은 도성 자체와 친밀하게 하나되어 적의 공격을 방어한다. 교회의 적들에는 사악한 인간과 악령뿐만 아니라 교회가 낳은 자녀들의 심정을 부패시키고 교회의 원리를 파괴함으로 교회를 황폐하게 하려는

이들 모두가 포함된다. 추상적 측면에서 볼 때 교회의 적에는 교인들 속의 자연적 수준의 마음에 있는 악에 기울려는 경향성과 거짓 암시까지 포함된다. 그 이유가 이런 경향성과 암시들은 교인 속의 영적 수준의 마음에 있는 천국적인 원리에 대항하려는 준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씀 속의 거룩한 진리들, 이를 수단으로 교회는 자신을 방어한다. 따라서 이 진리들은 새 예루살렘 성벽의 열 두 기초를 장식하는 보석들이다. 교회에 있는 내향의 생명의 원리를 보호하는 진리들이란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 있는 진리들이다. 참으로 말씀의 글자적 의미는 말씀의 영적 의미를 보호하는 방어 벽이다. 교회에 관해 말할 경우 엄밀히 보면 말씀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리라.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존재한다. 교회의 품성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사랑과 이타애, 이는 교회 속의 생명되는 원리들이고 말씀 속의 생명있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글자적 의미 속의 진리들은 교회와 말씀을 에워싸고 방어해서 보존시켜 준다. 이 도성의 벽은 크고 높다. 내향의 생명의 원리를 보호하고 방어하며 보존하는 수단들 중 새 교회(the New Church)의 수단들은 지금까지 처방되어 존재한 여타 교회의 수단보다 더 완전하다. 교회를 방어해주는 진리들은 말씀의 글자적 의미 안에 포함된 것들이다. 그 이유가 이것들이 내향에 있는 영적 진리를 방어하는 덮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성벽이 크고 높다고 말해진 바, 이는 두 개의 본질되는 요소, 선과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것, 그리고 선과 진리라는 두 요소는 말씀 어디에서나, 가장 수준 낮은 의미인 글자적 의미에서조차도 이 두 요소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크다(great)는 것은 선함 측면을, 높다(high)는 진리 측면을 표현하는 말이다. 따라서 두 원리는 악과 거짓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각 수준의 마음 안에 존재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참된 것은 세부 측면에서의 교회의 참된 것도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 속의 진리는 역사 이래 처방된 여타 교회가 안 것보다 더 밝히 알게 되었다. 말씀의 글자 속의 진정한 진리는 이제 확실하게 알려졌다. 글자 속의 모든 진리, 그것이 내면에 속하든, 외면에 속해 있든 그것들을 통해 빛을 발하는 그것들 속에 있는 영적 의미를 수단으로 이제는 수정같이 맑게 되었다. 이런 모든 진리들은 사랑과 이타애에 관계된다는 것이 이제는 밝혀져 있다. 그 이유는 영원히 변경될 수 없는 위 두 개의 단어에 모든 율법과 예언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성벽에는 “열 두 대문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다.” 도성의 문이란 출입을 위한 것이다. 동시에 방어를 위해서도 충분히 견고하다. 도성의 문은 자연계 속에서 특히 인간 구조 속에서 그 성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우리의 감각들(senses)은 육체(body)뿐만 아니라 영혼(soul)의 출입구가 된다. 이를 수단으로 영혼은 바깥 세계와, 바깥 세계는 영혼과 교통한다. 이것들은 큰 도로이자 보조역할도 한다. 이것들은 육체와 마음 모두를 위해 유용한 것과 해로운 것, 친구인 것과 적이 되는 것 사이를 구별한다. 이것은 유쾌하게 여겨지는 것은 수용하라고 감각에게 말하고 불쾌하게 여겨지는 것은 거절하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각하고 판정을 내리는 힘이 감각에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다. 사실 이 능력은 영혼에 소속되어 있다. 영혼은 감각을 통해 지각하고 판단한다. “문마다 천사들이 있듯” 영혼 속의 자질들이 감각 내에 존재한다. 감각과 사람의 관계와도 같이 감지된 지식과 교회도 마찬가지로이다. 이런 지식은 엄밀히 말해서 종교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 종교가 존재될 수 없다. 사실 지식과 신앙은 따로따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 감지 못한 것을 우리는 믿을 수도 없다. 지식은 문이다. 지식은 소개 역할을 담당한다. 지식은 우리로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식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서 우리로 이것은 선택하고 저것은 거절하게 도와준다. 천국 사항에 속한 것이라고 판단하게 해주는 지식이 성서의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다. 세속의 지식(secular knowledge)도 마음을 세련되게 해준다. 그러나 인간의 학식은 종교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말씀으로부터 파생된 지식만이 교회를 소개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 지식만이 거룩한 성의 문이다. 이 성의 문은 열 두 개이다. 숫자 열 둘은 새 예루살렘의 구조와 형체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하게 하는 숫자요, 이는 지파 열 둘과 사도 열 둘에 관계를 맺고 있는 숫자이다. 지파들과 사도들이 교회 전체 또는 교회 속의 모든 원리를 표현하듯 열 두 문은 교회의 모든 원리에 관한 완결된 지식을 표현한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완결(complete)은 총망라함(exhaustive)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납득됨과 다양함, 또는 마음의 갖가지 상태나 용량에 알맞다는 뜻에서 사용한 단어임을 첨부해둔다. 바깥쪽에서 획득되었을 경우의 종교적 지식 그 자체는 사람을 구원해줄 힘이 없다. 지식은 외부로부터 오고, 믿음과 사랑은 내부로부터 온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오르고 정의는 천국에서 내려다 본다.” 이 진리와 이 정의가 하나될 때 믿음이 생산된다. 우리는 지식으로부터 믿는 게 아니라 지식에 의거 믿는 것이다. 감각기관이 감지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많은 이들이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 능력은 실지로는 마음에 속한 능력으로 단지 감각을 통해 마음이 감지하여 판단할 뿐임을 위에서 이미 거론했다. 선하고 참된 것을 갈구하는 쪽으로 끌리는 마음(애정)은 지식을 획득해서 그 애정이 목적하는 의도가 결과되게 그 지식을 사용하도록 자극한다. 애정과 생각은 우리 속에서 있어지는 삶이요 지식의 영혼(soul)에 해당된다. 애정과 생각이 문에 있는 천사들이다. 생각과 애정은 영혼의 성직자요

안내자이고 그것들은 지식을 수단으로 선과 악, 진리와 잘못을 구분해서 그 구분된 것에 의해 허용과 금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생각과 애정은 오직 선한 애정과 선한 생각, 추상적으로 볼 때 선과 진리 자체들이다. 이것들만이 천사적이고 천국적일 뿐이다. 이것들만이 도성의 문에 서 있을 수 있고 생명의 나무로 가는 길목을 지킬 수 있다. 감지되는 지식 그 자체가 입장을 허가 받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선하고 참된 것에 관한 지식들이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의 문에는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지식이 과학보다 더 상위라고 인식될 때 선과 진리의 품질은 그 지식 위에 새겨진다. 열 두 천사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는 선함과 진리의 원리를 상징한다. 천사란 이 원리가 천국 안에 있을 경우를, 열 두 지파란 교회 안에 이런 원리가 있는 경우이다. 사실 천국에 있는 교회와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이다. 이 하나는 마치 영혼과 육체, 또는 글자와 글자 속의 의미(spirit)의 관계처럼 존재한다. 말씀의 글자와 영은 언제나 함께 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의 문에는 천사와 열 두 지파가 함께 있다. 그 이유가 새 교회를 소개하는 지식은 말씀의 글자와 영, 양 측면에 관한 지식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열 두 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다. 사방에서 도성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이 문들이란, 하느님의 교회로 가는 길을 열어 주는 지식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자 그리고 선하고 참된 것을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의 상태나 용량에 알맞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상징적 언어로 선포한 것이다. 진실로 교회가 보편적, 포괄적이기 위해서 교회는 선함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을 성벽 안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그들의 원리에 관한 지식을 수단으로만 선함과 진리를 바라는 이들을 납득시켜 성 안으로 받을 수 있다. 그 이유가 인간이 교회로 입문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교회의 원리를 소개하여 그들의 심정에 접목됨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종교가 설명도 안되는 애매한 어떤 것(mystery)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맹목적인 믿음을 부착시키는 한, 그 종교는 진짜가 아닌 명목상의 종교, 미신(superstition)일 뿐이다. 진정한 교회는 모든 측면에서 열려 있다. 이 교회는 모든 이의 마음에 잘 적응되고 모든 이의 갖가지 상태를 잘 섬겨준다. 이 교회는 지성이 요구하는 모든 것, 심정이 바라는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이 사방에 문을 가진 도성이 포함하는 뜻도 된다. 북쪽과 남쪽은 지적 측면의 모든 상태를, 동쪽과 서쪽은 품행 측면의 모든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 이해성을 수단으로 인도되는 모든 사람은 북쪽과 남쪽 문으로 간다. 의지를 수단으로 인도되는 모든 사람은 동쪽과 서쪽 문으로 간다. 문들이 위치하고 있는 네 방위에 관한 상징적 의미는 그 근원을 하느님의 형상인 태양에

두고 있다. 그래서 태양의 열은 그분의 사랑을, 태양의 빛은 그분의 지혜를 상징한다. 동쪽과 서쪽은 우리에게 아침과 저녁에 관한 생각을, 남쪽과 북쪽은 한낮과 한밤을 생각하게 한다. 동쪽과 서쪽은 낮을, 북쪽과 남쪽은 밤에 관한 생각을 준다. 동쪽과 서쪽이 지닌 의미는 사랑에 속한 모든 수준들, 심정에서 사랑이 일어나 삶에서 그 사랑이 마감짓는데까지의 모든 수준을 압축하게 한다. 남쪽과 북쪽은 지혜에 속한 모든 수준들, 이해성이 가장 명확해 있는 상태에서부터 가장 희미해 있는 상태까지를 압축하게 한다. 이런 문이 사용되는 경우 중 하나는 주위 민족들이 도성으로 입장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민족들은 사방 즉 동과 서 그리고 북과 남으로부터 모여든다는 것도 누가복음 13장 29절을 통해 배울 수도 있다. “북쪽 나라” 또는 “북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유로운 입장이 제공되고 있다. 밤은 잘못이라는 어둠, 무지라는 어둠을 상징한다. 무지한 이들이 북방 민족이고 이들은 북문을 통해 주님의 성에 들어온다. 어찌됐든 선함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녔다면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 어느 문으로도 입장할 수 있다. 북쪽도 다른 측면처럼 세 문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모든 상태는 각기 세부적인 상태들을 포함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뿐만 아니라 숫자 셋은 세 겹 즉 세 개가 하나(trine)된 것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 세 겹은 서술된 주제 또는 상태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다. 일반적인 모든 상태 안에는 세가지 세부적인 상태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는 일반적인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 계층을 뜻한다. 간략히 설명을 덧붙인다면, 종교에 관해 어떤 이는 의지 측면에서 더 접근하고, 어떤 이는 이해성 측면에서, 어떤 이는 행동 측면에서 더 접근한다. 이 세 가지 부류 모두 합당하다. 이와 같이 열 두 문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능하리라 본다. 세 지파가 한 묶음으로 해서 네 계층을 구성하고 있다. 각 세 지파는 의지와 이해성 그리고 삶을 하나되게 하는 세 원리 즉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종을 표현한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 두 주춧돌이 있었는데 그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열 두 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느님의 가족이 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시며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온 건물은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서 신령한 하느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에페소2:20-22). 이 구절은 믿음의 가족이 되는 멤버들에 관해 말해지고 있지만 이것이 교회를 실지로 구성한다. 비록 말씀에 밝혀진 그대로의 교리가 교회의 몸체라고 지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해도 생명있는 종교 단체로서의 교회라면 말씀 속의 원리들을 밝혀

아는 이들로 구성되어야 생명있는 성전 또는 성막을 지을 것이다. 교회가 원리로 이루어 졌다고 하든,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든,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는데 이를 근원적으로 본다면 그 기초는 주님의 가르침에 있다. 그래서 성벽의 기초에 열 두 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다. 어쨌든 성벽은 “건물”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은 틀림없다. 성벽 없이 도성은 안전할리 만무한바 성벽이 없으면 도성도 존재할 수 없다. 성벽과 거룩한 성의 관계처럼 말씀의 글자와 말씀의 영도 마찬가지이다. 말씀의 글자적 수준에서의 의미는 영적 수준의 의미를 에워싸서 보호해주어 보존되게 한다. 영적 의미는 글자적 의미에서 종결되고 또한 거기서 휴식을 취한다. 말씀의 글자적 의미 안에서 신성한 진리는 충만된 상태로, 거룩함 자체로, 진리의 능력 자체로 있다. 교회의 모든 교리는 말씀의 글자적 의미로부터 끌어내지고 그 의미를 수단으로 확증하고 방어도 한다. 이런 기능이 도성의 성벽에 존재하고 도성의 문에서 교회의 존재와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기능들(agency) 즉 천사와 열 두 지파, 열 두 사도를 발견한다. 이 도성 안에 전능하신 주 하느님 어린 양, 그 도성의 성전 되시는 분, 도성의 빛과 영광 되시는 분이 계신다. 위 모든 것이 교회의 참 생명을 구성한다. 교회를 방어하는 교리라는 성벽, 교회를 소개해주는 지식이라는 문을 교회가 가지고 있을 때 사랑과 지혜의 신성한 생명이 보존되게 한다. 문에는 안내하는 천사들이 있고 문 위에는 열 두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리고 열 두 주춧돌에는 열 두 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열 두 사도의 이름은 신약성서 속에 있는 교리와 진리를, 열 두 지파는 구약성서 속의 교리와 진리를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쨌든 열 두 사도와 열 두 지파가 표현하는 의미는 본질적으로는 똑 같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구약이 신약을 소개한다는 정도뿐이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져다주는 선생의 위치에 율법이 있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 문 위에 써어 있고 그 문을 통해 도성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도들은 직접적인 도구들이고, 이 도구를 수단으로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발견하고 건설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벽의 주춧돌인 것이다. 어쨌든 사도들은 자기들이 가르쳤던 그 교리의 예징(type)일뿐이다. 그들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볼 때 과거 세례자 요한이 외친 “보라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이라는 말과 같다. 그들이 세상에 있었을 때 그들은 어린 양의 사도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주님께서 영화하신 인성으로 드높게 계시듯이 옥좌 둘레에 있으면서 그분의 사도로 있다.

15.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던 그 천사는 이제 도성의 크기를 잴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대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만든 측량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성전을

재도록 명령받았던 11장에서 측량자에 관한 것은 이미 살핀바 있다. 측량함이란 평가하는 것, 어떤 규율을 적용해서 어떤 것의 품질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이 구절과 11장의 경우에 있는 측량함에는 우리가 주목해 볼만한 두 가지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앞 장의 경우 천사가 명령해서 요한이 성전을 측량했으나 본문의 경우 천사 스스로 거룩한 도성을 측량한다. 요한이 측량한 성전이란 하늘에 있는 교회를 뜻하고 천사가 측량하는 도성은 지상의 교회를 뜻한다. 그 이유가 요한이 측량했던 성전은 하늘이 열려 그가 보았을 때의 성전이었고, 천사가 측량한 도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보았을 때의 도성이었다. 이를 정리해 생각해 보면, 인간이 천국적인 것을 측량하고 천사는 지상적인 것을 측량하고 있다. 분석하고 종합하는 것, 조사하고 판가름하는 행위는 천사나 인간에게 똑같다. 따라서 분석과 종합해봄은 자연적 수준의 것 뿐만 아니라 영적 수준의 것까지 획득하게 한다. 분석함은 우리로 자연적 수준으로부터 영적 수준까지 지적 측면에서 승강하는 과정이다. 종합해봄은 우리로 영적 수준으로부터 자연적 수준으로 하강하는 과정이다. 두 과정은 천사와 인간,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에 의해 상호적으로 사용된다. 외적 인간은 그 자체 내적인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측량해 봄으로 내적 측면의 품질을 평가한다. 내적 인간은 그 자체와 외적 인간 사이에 있는 상응 내지 일치되는 정도를 보아서 외적 측면의 품질을 평가한다. 보다 낮은 수준이 보다 높은 수준을 가늠하는 권한 내지 특전에 대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천사를 가늠하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가?” 그래서 천사들같이 사도들 스스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 천국적 상태에 속한 것을 평가함에 있어 우리가 올바르게 처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요한이 표현하는 속성인 이타애의 선 안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요한처럼 천국으로부터 측량자를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만일 우리가 자연적 수준의 선으로부터 자연적 수준의 진리로 가늠한다면 영적이고 천국적인 것들에 관한 우리의 결말은 자연적일 뿐이어서 잘못투성이로 전락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전과 도성을 재는 두 측량의 차이점의 또 하나는 재는 도구가 다르다는 것이다. 요한은 성전을 지팡이, 막대기 같은 측량자로 재었고, 천사는 금측량자를 사용했다. 도구의 차이는 인간과 천사가 각기 품질을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재려는 대상물의 차이까지 표현하고 있다. 요한이 측량하도록 명령받은 성전은 천국에 있는 교회를 표현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지상의 교회에 소속되었던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교회에 포함되는 교인까지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성전이 표현한 교회는 영적 수준의 교회이고 거룩한 도성이 표현한 교회는 천적 수준의 교회이다. 전자가 후자와 구별되는 특별한 것은 그 교회의 원리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고 후자는 주님을 사랑함에 있다는 것이다. 이 차이점은 성전을 재

것은 보통의 측량자였고 도성을 잴 것은 금으로 만든 측량자였다는 측량자의 재료로도 표현되고 있다. 측량한 결과는 똑같았을는지 모른다. 그 이유는 수준은 서로 다르다해도 각 수준에서 완전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게 필수사항이기 때문이다. 각 측량자의 재료가 지닌 수준이 상응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해 주는바 전자는 이웃을 사랑함이 잣대의 표준이고 후자는 주님을 사랑함이 그 표준이라는 것이다. 천사가 거룩한 도성을 잴 금 측량자는 주님을 사랑함이다. 이러한 천적 수준의 사랑이라는 금 측량자 외에 어떤 측량자로 우리같이 맑은 순금 자체인 이 도성을 재볼수 있을까? 천사는 이제 도성뿐 아니라 문과 성벽까지 재고 있다. 교회의 필수되는원리, 교회에로 입문하게 해주는 진리, 그리고 교회를 에워싸 방어해주는 외적 진리, 각각이 도성과 문과 성벽으로 의미되고 있고 이런 사항들 역시 동일한 규칙에 따라 평가되어 진다. 그 이유가 수단의 차원에 있는 것들도 목적의 차원에 있는 것들과 동일한 속성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교회나 종교의 본질 되는 요소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함이고 진리가 이 사랑으로 인도해주고 이 사랑을 보존되게 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각종 원리들은 반드시 동일한 품성으로 나열되어야 하리라.

16. 이제 천사가 금 측량자로 도성을 잴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했고 그 길이와 넓이가 같았습니다. 그가 측량자로 그 도성을 재어 보았더니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이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습니다.” 이미 살핀바 있듯이 이 측량은 여느 지상에 있는 도성의 면적이 되어질 수 없다. 1500마일이나 되는 도성은 도성이라고 생각조차 해볼 수 없다. 게다가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은 것은 건축 공학의 차원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어떤 착상도 불가능하게 한다. 단지 한결같은, 균등함 등등의 생각만이 떠오르게 해줄 뿐이다. 지형학적인 측면에서 원과 정사각형은 통일성과 강함을 다른 도형에 비해 가장 강한 인상을 우리에게 준다. 도형에 기초한 정사각에 관한 비유적 표현은 도덕적으로 특출함, 즉 인간 본성의 여러 요소들이 완전한 인격이 되도록 서로 잘 부합된 상태를 암시해 준다. 종교적 측면에서 정사각형의 비유적 표현은 도덕적 측면과 다르지만 보다 세련되고 더 승강되어 있다는 정도에서만 다르다. 도덕은 자연적 수준의 종교이고 종교는 영적 수준의 도덕이다. 종교의 품성을 가름하는데는 두 가지 요소가 관여된다. 선함과 진리이다. 선함은 심정에, 진리는 지성에 소속되어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선함은 의지에, 진리는 이해성에 소속된다. 종교적 인격의 완전함은 이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룬 결과이다. 이해성이 찬성하는 것을 심정이 사랑할 때 그 인격은 완전하다. 이때 의지와 이해성은 균형을 이루고 하나된다. 양심이 흡족해 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활은 앞뒤가 맞는다. 인격 속의 이 두 요소가 “거룩한 도성의 길이와 넓이”이다. 모형의 각 측면이 균등할 때 길이와 넓이를 말할 수 없지만 거룩한 도성에서 길이는

동으로부터 서쪽까지, 넓이는 북에서 남쪽까지를 말한다. 이들은 각기 사랑과 지혜 또는 선함과 진리에 관계된다. 이것과 각 기독교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바 있다. 그러나 이 요소들은 교회의 요소들이고 계시된 종교의 원리들이기도 하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그에 대해 계시된 모든 것은 그 근원이 선함과 진리에 있고 그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이유가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생겨났고 많은 적든 그분의 형상을 닮고 있는데, 그분만이 선함 자체요 진리 자체되시기 때문이다. 영원한 이 두 요소의 균등함 내지 하나됨은 하느님의 완전 뿐만 아니라 천사나 인간의 완전함을 구성한다. 그 중 하느님만이 절대적으로 완전한데 그 이유는 그분은 무한한 완전이시기 때문이다. 천사나 인간의 완전함은 그분의 완전함에 대한 형상(image)밖에 더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천사나 인간의 완전함은 제 각각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천사나 인간의 완전은 측량될 수 있으나 그분의 완전은 측량할 수 없다. 천국에서조차 완전이라는 주님의 선물은 동일하지 않은바 품성과 기능 또한 다양하다. 아버지의 크나큰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이 저택은 각각으로나 집합적으로나 차이를 가지고 있다. 보다 높은 천국이 있는가 하면 보다 낮은 천국도 있다. 교회에도 이와 상응되는 차이들이 존재한다. 인간 내지 천사가 도달하는 완전함의 수준이 무엇이든 완전함에는 의지와 이해성 그리고 삶이 서로 연관되어 있게 되는 인격의 하나됨이 존재한다. 즉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 이 세계보다 영의 세계에서는 더 완벽한 균형이 있어야 할는지 모른다. 어쨌든 균등함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균형 없이 어느 누구도 참된 교인이 될 수 없고 참된 교인이기 위해 그는 가장 조그만 형체의 진정한 교회이어야 한다. 이런 세 겹의 균등성은 교회의 원리 안에도 있다. 이 원리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는 똑같다. 따라서 교인들은 그들 스스로 교인이 되도록 세 가지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다. 새 교회의 원리를 따르는 이들은 금측량자로 잴 때 새 예루살렘의 치수에 화답되어야 할 것이다. 12,000펄롱(furlong)은 완전한 치수이다. 12는 진리 측면에서의 완전한 치수이고 1000은 선함 측면에서 완전한 치수이다. 펄롱이란 선함과 진리가 삶속에서 진보해감을 표현한다. 그 이유가 자연계의 공간은 영계의 상태와 상응되기 때문인데 이미 14장 20절에서 살핀바 있다.

17. 도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에 관한 측량 외에 성벽을 특별히 재고 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 보았더니 사람의 자로 백 사십 사 척이었읍니다. 이 자는 천사의 자이기도 했습니다.” 성벽이란 교회를 방어 해주어 교회가 보존되게 하는 모든 것을 일괄해서 뜻한다. 이런 방어와 보존은 교회의 교리가 파생되는 말씀의 글자 속의 진리를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성벽의 치수는 말씀의 글자에서 주어지는 의미 그대로 신성한 십계명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12*12, 이

곱하기는 144라는 신비로운 숫자를 만드는데, 이는 도성의 길이와 넓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똑같은 품질과 균등을 표현한다. 그 이유가 선함과 진리에 관한 교리가 교회를 구성하는 원리 자체를 나열해주고 방어도 해주기 때문이다. 이 치수는 사람의 자 곧 천사의 자로 재었을 때라고 언급하고 있다. 사람과 천사는 새 예루살렘을 측량한 특사(messenger) 안에서 하나된다. 지상의 교회와 천국의 교회는 거룩한 도성 안에서 하나된다. 이 하나된 교회가 천국으로부터 내려 왔다. 이 교회는 그 본질에서 천사적이고 인간적이다. 하느님을 사랑함이라는 금측량자는 투쟁하여 승리를 끌어 안는 교회에 있어야 할 모든 품성의 표준이다. 이 교회가 땅 위 주님의 왕국이요, 이 교회는 상응을 수단으로 천국에 있는 그분의 왕국과 하나를 이루어 결합한다. “사람의 자”가 “천사의 자”이기도 할 때만이 교회는 참된 교회이다. 그 이유가 천사는 과거 사람이었고 사람은 장차 천사가 되도록 의도되어 있는바 사람의 자와 천사의 자는 똑같기 때문이다.

18. 이제 도성과 그 성벽의 구성에 관한 묘사가 있어진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온통 맑은 수정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도성과 성벽을 구성한 재료의 다른 점만을 살펴보자. 성벽은 벽옥(jasper)이고 도성은 순금이다. 도성을 에워싸서 방어하고 있는 성벽이 벽옥으로 되어있는 이유는 그 돌이 보석, 귀중한 돌이기 때문이다. 이 보석은 성벽의 재료이면서 성벽의 기초석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이 보석은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글자적 수준에서 지니고 있는 그대로의 신성한 진리를 상징한다. 말씀의 글자적 수준에 있는 진리들은 교회의 외부를 형성하는바 교인들이 말씀의 글자적 수준의 진리대로 실천할 때가 이 벽옥에 해당된다. 위에서 살펴본바같이 벽옥은 글자적 수준에서의 말씀의 의미, 또는 최말단에 놓여진 신성한 진리 자체(Divine Truth itself in ultimates)에 관한 상징물이다. 도성의 구성 재료인 금은 사랑을 상징하는 금속이다. 여러 가지 금속들이 종교의 품위들을 상징하도록 성경에 고용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교회의 영광을 예언적으로 묘사하는 이사야서의 경우, 주님께서 말하시기를, “내가 놋쇠 대신 금을 들여오고 쇠 대신 은을 들여오리라. 재목 대신 놋쇠를 들여오고 돌 대신 쇠를 들여오리라” (60:17). 이 예언은 보다 낮은 품위들이 그 보다 높은 하늘의 처방 밑에서 보다 높은 품위들로 대체되고 있음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금속들은 기독교인의 품위를 나타내고 있는바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은 기독교인의 가장 높은 품위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 도성은 금으로 온통 되어있다. 순금의 도시! 이 얼마나 특이하고 그 성읍의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순금이 표현해주는 교회란 순수한 사랑, 오류로 때문지 않은 사랑, 악과 혼합 안된 사랑 외 더 다르게는 있을 수 없다. 이런 교회는 순수하고 천국적인 교리 가운데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새 교회는 사랑밖에 없고 이 교회의 교리는 사랑밖에 가르칠 게 없다. 참된 교회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요 이 교회의 교리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가르친다. 하느님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이 되는 교회 역시 사랑이어야 마땅하다. 사랑이신 그분의 형상을 닮는 교인을 가르치는 교리 역시 사랑이어야 한다. 참으로 하느님은 사랑이실뿐 아니라 지혜이시다. 교회는 이런 점에서도 주님의 형상이 되어 있어야 한다. 사실 신성한 지혜는 또 다른 형체에서의 신성한 사랑일 뿐이다. 오히려 지혜는 사랑의 형체, 본체를 표현한 형상이다. 지혜와 사랑은 불과 빛, 빛과 불의 관계와 똑같다. 이 둘은 이론상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하나이다. 사랑은 빛으로 옷입은 생명 자체이다. 따라서 생명이 빛의 본체이고 빛은 생명을 밝히 드러내 주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말씀되시는 분으로서의 주님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 (요한1:3).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이 교회의 빛이고, 순수한 사랑이 교회의 지혜 되어야 교회는 참되어진다. 교회의 생명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지닌 만큼에서 교회는 빛으로서 지혜를 가진다. 거룩한 도성이 순금으로 되어있는데 이 순금은 투과하는 유리, 그 맑음 같았다. 순금이되 수정같이 맑다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두 성질이 결합된 위 순금은 완전한 분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새로 창조된 교회 내지 마음 안에 존재하게 되는 영적 품질의 결합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사랑이 심정 안에 존재하게 되는 영적 품질의 결합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사랑이 심정 안에 존재할 때 빛은 이해성 안에 존재한다. 애정이 순수할 때 직감(perception)은 맑다(명료하다). 그래서 이를 두고 주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심정이 순수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느님을 뵈게 될 것이다” (마태5:8).

19,20. 성벽과 도성의 구조를 기술한 요한은 이제 성벽의 열 두 주춧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사파이어로, 셋째는 옥수로, 넷째는 에머랄드로, 다섯째는 홍마노로, 여섯째는 홍옥수로, 일곱째는 감람석으로, 여덟째는 녹주석으로, 아홉째는 황옥으로, 열째는 녹옥수로, 열 한째는 풍신자석으로, 열 둘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다.” 이제 거룩한 도성의 성벽의 기초를 이루는 주춧돌에 관해 살피게 된다. 따라서 그 돌들을 구성하는 보석들이 지닌 상징성을 살펴두면 유용할 것 같다. 자연에 관한 철학은 그 보석들이 의미하는 것을 상상하는데 많은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보석은 자체가 지닌 투명도 내지 광채, 즉 빛을 굴절하고 반사하여 빛깔을 내는 능력으로 결정된다. 사실 보석이 진열해주는 아름다움은 보석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보석을 투과해 간 빛에 있다. 보석이 자신의 것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돌이라는 특질뿐이다. 보석이 지닌 다양하게 아름다운 빛깔은 태양의 흰빛이고

보석들은 무수하게 프리즘으로 광선을 분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다. 따라서 보석들의 현 외관이나 근본적인 구조관계는 태양에 의존되는 셈이다. 발광체들은 빛을 투과시키거나 무지개같이 반사시킨다. 그리하여 이것들은 보는 사람의 눈에서 장관을 이룬다. 태양을 두고 말해보는다면 태양은 간접적으로 그것을 만드신 분에 대해 말해준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도구요 형상으로서 태양을 통해 역사 하신다. 그분과 태양은 이쪽이 저쪽을 설명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분이 하시는 일과 똑같은 관계에 놓여있다. 말씀 속의 진리들, 창조리는 목적물에서와 같이 참 빛에 의해 생산되어져서 인간의 이해성을 투과해 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받아들여지고 투과되는 빛은 두 원리들, 화성(causticity)과 투명성(lucidity) 즉 태우는 능력과 밝게 하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성질은 빨강과 흰 광선에 그 근원이 있다. 두 빛깔 사이에 검정빛이 개재하여 다양한 빛깔로 변경된다. 태양의 불과 빛은 헌분 신성의 사랑과 지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이 두 본질은 인간 마음이라는 어두움의 배경에 연출하면서 수없이 다양한 인간과 천사들의 애정과 사상을 배출시킨다. 마치 무지개가 어두운 구름을 배경으로 아름다움이 표출되는 것과 같다. 동쪽 하늘에 있는 구름으로부터 떨어지는 빗방울에 저무는 태양의 광선이 투과할 때 우리의 눈에 무수하게 병합되면서 하모니를 이루는 무지개 색조를 드리운다. 이와 같이 섞여있는 말씀 속의 진리들은 마치 말씀의 글자라는 구름으로부터 하강한 다음 자연적 수준의 마음에 있는 보다 높은 애정 안으로 들리우면 영적인 태양의 빛이 되어 각 구성요소들로 나뉘어 흘러간다. 그 다음 이 빛은 따로따로 구분되면서도 하모니를 이루는 사상이라는 다양한 아름다움을 정신적 납득이라는 것으로 표현한다. 말씀의 글자적 수준의 의미는 구름이고 이 글자적 의미 속의 진리는 빗방울이다. 이 빗방울을 수단으로 영적 태양에 있는 빛이 무수한 인간 구성요소들로 분산되어 흘러든다. 천국의 태양, 이는 말씀 속의 영적 의미에 있는 빛 같아서 우리가 그 빛을 쳐다 보기에는 너무나 순수해서 그 빛에 너무 노출되면 우리의 영적 눈은 멀고 만다. 그래서 영적 진리의 빛은 말씀의 글자적 수준의 의미 안에서 우리의 자연적 수준인 납득력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 영적 진리의 빛은 보다 완화된 강도로 빛을 발하고 더욱이 각각에 특별히 구분되는 품질로도 빛을 드리운다. 이런 근거에서 거룩한 도성의 주춧돌을 이루는 보석들은 다각도로 나타내는 말씀의 글자적 수준의 진리에 대한 상징물이 된다. 이 진리들은 말씀의 영적 의미라는 빛을 투과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영적 의미란 온전해진 영, 천사에게 숙박하는(accommodate) 신성한 태양의 빛이다. 어쨌든 신성한 태양은 사랑과 지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본질은 자연계의 열과 빛이라는 형상에서 발견된다. 이 둘은 특별히 빨강과 흰색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면서 자연계의 모든 색깔의 근원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자연 속에서 빨강은 사랑, 흰색은 지혜의 표현물이다. 빨강과 흰색이 혼합되어 있는 만큼 사랑과 지혜도 하나된다. 이 원리로 모든 보석은 성경 속에 놓여 있는바 세부적이든 일반적이든 성경 속의 보석들이 지닌 의미나 그 상징성은 우리에게 많은 흥미를 주고 중요성 역시 부각되어 온다. 새 예루살렘의 열 두 주춧돌, 또는 성경에서 그것들이 놓여 있는 어느 구절에서이든 아론의 가슴받이에 박힌 열 두 보석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7장에 언급된 봉인이 찍힌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가 지니는 의미와도 동일하다. 위의 경우 열 둘은 셋 씩으로 나뉘는데 그 각각은 모두 같은 의미이다. 가슴받이와 거룩한 도성의 열 두 주춧돌에 있는 보석은 서로간에 매우 가까운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열 두 보석이란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말씀 속의 모든 진리들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그것 모두는 사랑과 이타애라는 두 보편적인 원리와 관계를 이루고 있다. 사랑과 이타애 각각으로 이룩된 두 왕국에 천국과 교회는 기대어 있다. 나열된 보석 중 첫 여섯 번째까지는 주님을 사랑함이라는 원리로 통치되는 나라, 천적 수준의 왕국에 있는 진리들을 표현한다. 그 외 여섯 개의 보석은 이타애라는 원리로 통치되는 나라, 영적 수준의 왕국에 있는 진리들을 표현한다. 각 왕국 안에는 다시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이 있고 각각 안에는 삼위일체가 존재한다. 첫 세 보석은 선함 측면에서의 천적 수준의 사랑을, 둘째 번의 세 보석은 진리 측면에서의 천적 수준의 사랑을, 셋째 번의 세 보석은 선함 측면에서 영적 수준의 사랑을, 넷째 번의 세 보석은 진리 측면에서의 영적 수준의 사랑을 각각 표현한다. 각각의 보석이 지닌 특성은 위의 원리와 부합되고 있다. 첫 부류의 보석을 이끄는 빛깔은 빨강이고, 두 번째 부류는 빨강으로부터의 청색이며, 세 번째 부류는 흰색으로부터의 청색이고, 네 번째 부류는 청색으로부터의 흰색이다. 빨강은 선함에 근거를 두는 천적 수준의 사랑과 상응되고, 빨강으로부터의 청색은 진리에 근거를 두는 천적 수준의 사랑과 상응되고, 흰색으로부터의 청색은 선함에 근거를 두는 영적 수준의 사랑과 상응되고, 청색으로부터의 흰색은 진리에 근거를 두는 영적 수준의 사랑과 상응을 이룬다. 천적 수준의 사랑이란 주님을 사랑함이고, 영적 수준의 사랑이란 이웃을 사랑함 또는 이타애이다. 이상의 간략한 설명은 아론의 가슴받이에 박힌 보석들의 의미이고, 본문의 경우도 이와 같다. 가슴받이의 보석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나 거룩한 도성의 보석에 새겨진 열 두 사도는 모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가지 첨부할 게 있다. 아론의 가슴받이에 있는 보석과 새 예루살렘의 주춧돌을 이루는 보석을 언급한 성서의 배열은 부분적으로 뒤바뀌어 있어 마치 내려가는 시리즈와 올라가는 시리즈를 연상하게 하고 있다. 처음에 언급한 보석이 맨 뒤에서 마감 짓고 있다. 에봇에서 마지막 돌인

벽옥은 거룩한 도성에서는 첫 번째 돌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 순서들은 적절하게 배치되고 있다. 그 이유가 첫째가는 주춧돌은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비록 에봇의 마지막 돌이 거룩한 도성의 성벽에서는 첫 번째의 돌이었지만 성벽의 마지막 돌이 에봇에서 첫 번째 돌인 것은 아니다. 에봇의 첫 번째 돌은 홍옥수(fire-red sardius)이고 마지막 돌은 우유빛 벽옥(milk-white jasper)인데, 이는 가장 높은 형체인 사랑으로부터 가장 낮은 형체인 진리로 내려가는 시리즈를 표현하고 이는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그분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성벽의 주춧돌에서 첫 번째 돌은 벽옥(jasper)이고 마지막 돌은 자수정(amethyst)이다. 두 시리즈는 모든 여타 관점에서 상응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쪽에서 발견되는 돌이 저쪽 시리즈에 없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양쪽 시리즈에 공통으로 발견되는 돌 역시 서로 상통하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차이점을 놓고 관찰해 볼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하강하는 시리즈와 승강하는 시리즈는 본체이든, 형체에서이든 서로서로 언제나 정밀하게 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셋씩 묶어서 네 파트로 이루어지는 각 시리즈의 첫 돌은 그 시리즈 전체에 대한 특성을 주고 있다. 똑같은 특성이라 해도 관계되는 장소가 다르면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질는지 모른다. 아래에다 새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보석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기술해 보았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서이든 각 보석이 무엇을 의미해주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다.

열심 있는 탐구자들이 이렇게 결말짓고 있다. 1. 벽옥(jasper) - 다양한 색깔, 즉 흰색, 자주색, 빨강, 젓빛색. 2. 사파이어(sapphire) - 하늘색, 투과성 3. 옥수(chalcedony) - 일반적으로 흰색 또는 푸른색, 반투과성 4. 에머랄드(emerald) - 녹색(grass-green), 투과성 5. 홍마노(sardonyx) - 빨간 줄이 있는 얼룩마노(red-veined onyx), 반투과성 6. 루비(sardius or ruby) - 적홍색(fire-red), 투과성 7. 귀감람석(chrysolite) - 옅은 푸른색(olive-green), 투과성 8. 녹주석(beryl) - 창백한 녹색(pale sea-green), 때로는 푸른 색깔이 보이기도 함, 반투과성 9. 황옥(topaz) - 다황색(wine or golden yellow), 투과성 10. 녹옥수(chrysolite) - 황녹색(golden green), 투과성 11. 풍신자석(jacinth) - 적황색(pomegranate yellow), 투과성 12. 자수정(amethyst) - 깊은 자주색(deep purple or violet), 투과성.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었습니다.” 위 보석들의 설명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설명은 벽옥이라 생각된다. 계시록에서 언급되는 벽옥이나 기타 특별히 벽옥을 취급해서 말하는 어떤 저자의 다음 글은 주목해볼만하다. “고대인들의 보석을 확인하는 것은 언제나 곤란스럽다. 그 이유가 원어상의 이름들이 일목요연하게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대 시대에서의 벽옥의 경우가 그 대표적이다.

그리스 사람들의 벽옥은 히브리 사람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동사로부터 파생되지 않았던 바 벽옥에 관한 중심 되는 생각을 근원적으로는 끌어 낼 수 없다. 벽옥이 지닌 다양한 색깔 중 한 가지 색은 계시록 4장 3절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이 구절은 신성의 품성 내지 본성에 대해 상징적인 생각을 우리로 가지도록 의도되어 있다. 그러나 벽옥은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색깔을 갖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아마 우유빛 같은 흰 벽옥이 가장 적합할는지 모른다.” 아론의 가슴받이에 박힌 돌을 취급한 스웨덴불(출애굽기 28:20)은 그 구절에서의 벽옥은 희고 투명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색깔은 벽옥에 관한 사도 요한의 묘사 즉 수정같이 맑음과 가장 흡사할 것같이 여겨진다. 벽옥의 색깔은 4절에 기록된 사실, 즉 옥좌에 앉으신 그분은 벽옥과 홍옥같이 보였다는 묘사로부터 가장 나은 암시를 얻을 수 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이 순수한 지혜와 사랑이심을 표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벽옥의 우유빛 흰색과 루비의 불꽃같은 색깔은 위 생각과 화답된다. 그 이유가 그 외 어느 보석도 위의 지혜와 사랑에 대한 상징성을 지닌다는 암시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 예루살렘 성벽의 첫 주춧돌을 이루는 벽옥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느 사도의 이름이 그 돌 위에 써어 있을까? 거룩한 도성의 열 두 주춧돌을 이루는 열 두 보석은 교회가 건설되어 기초를 두어야 하는 근본 되는 진리 또는 교리를 표현하는바, 첫 주춧돌, 여타 다른 모든 교리나 진리가 기대어 있어야 할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

교회라는 건물은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그 건물의 기초가 되어” 세워져야 한다 (에페소2:20).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값진 돌을 모퉁이에 놓아 기초를 튼튼히 잡으리니 이 돌을 의지하는 자는 마음 든든하리라. 법이 나의 척도요, 정의가 나의 저울이다...” (이사야 28:16,17, 베드로전2:6).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표현해주고 밝히 알게 한 진리,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진리 위에 건설되어야 한다. 사도와 예언자들이 밝히 알게 한 모든 진리 가운데서 교회의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루는 한 가지가 있다. 이 한 가지에 그 외 모든 구조물이 기대고 있다. 벽옥은 도성의 성벽이자 그 도성의 기초를 이루는 보석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다. 이 진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유명한 구절에 표현되어 있다.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자. “예수께서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하고 물으셨다.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시몬 바르요나, 너에게 그것을 알려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 너는 복이 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마태16:13-18).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의 아들이기도하다 라는 이 귀중한 진리는 새 예루살렘의 교리라는 성벽의 첫째가고 가장 중요한 움직임 수 없는 기초를 이룬다. 지옥의 어떤 권세도 이 진리만큼은 누르지 못한다.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성이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 이유가 예수는 두 번 태어난(twice-begotten) 하느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즉 그분은 동정녀의 태내에서 태어나셨고 죽음으로부터 서도 태어나신바 되셨기 때문이다. 부활로 완성된 그분의 영화하심 (glorification)은 그분의 두 번째 출생이요 이 출생은 우리의 두 번째 출생을 위해 원형(Archetype)이 되어 주셨다. 그 이유가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느님의 아들들(sons of God)이 되듯 그분은 영화하심으로 하느님의 아들(the Son of God)이 되셨다. 영화하심을 수단으로 그분은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신 것이다. 그분은 인성으로부터, 유한한 어머니 쪽에서 파생되었던 모든 것을 벗어나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로 일어나셨는바 그분의 참 인성까지 포함해서 일어나시어 이제는 그분 전체가 신성이 되어 계신다.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 또는 믿음 안에서 이 진리를 받는 것 모두는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교회의 첫째가는 주춧돌이다. 이런 믿음 없이 예수에 관한 진리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원리 또는 우리를 방어해 주는 원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베드로, 그는 구세주에 관한 이 장엄한 믿음을 고백했다. 그 이후 그는 일반적으로나 세부적으로나 공히 믿음의 모형이 되었다. 이러한바 그는 베드로, 즉 반석(the rock)이라고 명명되었던 것이다. 그가 고백한 이 진리는 교회의 첫 번째 되는 주춧돌이다. 마치 그가 열 두 사도 중 첫 번째로 부름 받아진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기독교회의 첫 번째 주춧돌이 그의 마음 안에 놓여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의 표징적 품성에 하늘나라의 열쇠가 주어졌고 그의 품성이 주님의 양을 돌보도록 위촉된 것이다. 인간의 마음 안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믿음의 진리로서 건설될 때 이는 성벽 자체의 재료요 첫 번째 주춧돌인 벽옥에 해당된다. 이들의 상징적 의미는 새 예루살렘을 드넓게 비추는 빛이 벽옥과 비교되는 대목에서 더 확실해진다. 그 이유가 진리는 교회의 빛이요 이 진리는 믿음을 통해 기독교인의 마음 안에서 광채를 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구속자, 창조자요, 하느님-인간이라는 측면에서의 주님에 관한 교리를 상징하는 벽옥에 새겨진 사도의 이름은 베드로임에 틀림없다. 그 외의 사도들 역시 그들이 기독교의

품성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이해할 때 각 사도는 각기 자기들이 고백한 그 진리의 모형이 되고 그 진리를 지상에 충만되게 공표한 첫 번째 사람들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벽옥의 뒤를 잇는 두 돌은 사파이어와 옥수이다. 우선 우리가 다시 주목해둘 게 있다. 새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보석들은 아론의 가슴받이에 있는 보석처럼 셋씩 짝지어 네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벽옥이 주님께 관한 교리를 표현하는바 첫 세 그룹의 보석들은 인간의 구세주와 하느님 되시는 측면에서 주님께 관한 믿음의 근본되는 원리를 표현한다고 결론을 내려 볼 수 있다. 사파이어는 첫 시리즈의 중간에 놓여 있는데 에봇의 경우 둘째 시리즈의 중간에 놓여 있는바 이 보석은 진리를 천적 수준에서 사랑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파이어는 폭넓은 의미 또한 지니고 있다. 그 이유가 말씀의 역사적, 예언적 측면 모두에서 몇 번씩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칠십 원로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뵈게 되었을 때 “그분의 발 아래는 마치 사파이어를 깔아 놓은 듯, 청명한 하늘같았다.” 이런 비슷한 광경이 에제키엘에게도 보여졌다 (출애굽24:10, 에제키엘 1:26,10:1). 이 구절들에서 사파이어는 신성과 천국적인 감각으로부터 온 반투명, 즉 말씀의 글자적 의미를 포함한다. 신성한 존재에 관한 위의 외관을 설명함에 있어 스웨덴북은 다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도성의 성벽의 주춧돌은 여러 가지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첫 주춧돌은 벽옥이었고,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였다.” 여기서 그는 질서의 최말단에 해당되는 신성 같은 듯한 진리(truth divine), 이것은 글자로 있는 말씀이 사파이어로 의미됨을 말하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한 예증으로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다. “광풍에 시달려 고생하여도 위로를 못 받는 이들아, 보라 내가 색깔로 너의 돌을 놓으며 사파이어로 너의 주춧돌을 놓으리라” (54:11). 이런 돌들이란 말씀 속의 진리들이고, 사파이어로 놓은 주춧돌이란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서 반투명된 진리들이다. 모든 보석 중에서 사파이어는 말씀의 영적 의미로 있는 진리들로부터 반투명된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 있는 진리들을 특별히 표현한다. 마치 사파이어가 주님의 발 아래서 보여졌듯, 그 이후 그분 스스로 벽옥과 청옥으로 나타나신 대목 등등을 집합해 생각해본다면, 성벽의 둘째 주춧돌로서의 사파이어는 첫째 주춧돌로 의미된 주님께 관한 교리를 지지하고 확증시켜 주는 말씀 속의 진리들을 표현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옥수(chalcedony)는 성경의 어느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웨덴북(swedenborg)의 저서에서도 설명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보석이 지닌 빛깔과 그 보석이 소속된 곳이 첫 시리즈의 마지막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그 의미를 가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각 시리즈의 첫 번째는 각 시리즈가 지닌 공통 원리중 이끌어 가는 원리들, 둘째는 중심 원리를 지지하고 전개시켜주는 진리들을, 셋째는 앞 두 가지를 사용함(use)내지

결과를 표현한다. 이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해보자면, 이 셋은 원리가 의지 안에, 이해성에, 행동 안에 존재하는 것과 같다. 이는 세 개가 한 개를 구성하는 거룩한 것에 놓여 있는 본질과 형체 그리고 선용(use)의 이치와도 같다. 각각의 보석과 각각의 사도들의 이름을 연결짓는 것은 곤란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곤란을 무릅쓰고 첫 세 보석을 연결해 말해보자면 위 둘째, 셋째 보석을 필립보와 안드레아와 연결해 볼 수 있다. 이들은 베드로와 더불어 셋이 하나를 이룬다(a trine). 이 세 사람은 주님의 첫 세 제자이었던 것처럼 등장하고 있다. 안드레아가 세례자 요한의 제자이었을 때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그분을 보러 갔다. 그는 거기서 예수와 함께 머물다가 되돌아 와서,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갔는데 예수께서 시몬을 눈여겨 보시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는 너를 게과라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게과란 바위(stone)라는 뜻이다.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래아로 떠나 가시려던 참에 필립보를 만나 ‘나를 따라 오너라’ 하고 부르셨다” (요한1:41-43). 필립보와 안드레아는 같은 지역 출신(44절)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바깥쪽으로 교리적인 연결 관계에 있을거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들의 관계가 표현하는 품성의 인척 관계에 관한 것은 그들에 관한 복음서의 기록으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그리이스 사람들이 예수를 뵈게 해달라고 필립보에게 청했을 때,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예수께 가서 그 말을 전했다” (요한12:22). 이런 역사적 사건 말고도 필립보의 마음 상태에 관한 기사가 더 있다. 이 기록은 그가 주님에 관련된 말씀 속의 진리들, 그분만이 신성하심을 증거해주는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인간적 견지에서 말해 본다면 우리는 이 사도로부터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이시다는 주님에 관한 가장 완전한 서술을 찾을 수 있다. 토마에게 대답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나의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미 보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필립보가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뵈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필립보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를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뵈게 해 달라니 무슨 말이나?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시는 일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요한14:7-11). 위 인용된 구절을 보면 필립보의 질문은 그가 그분에 관해 얼마나 불완전한 지식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던 사항에 대해 그분의 가르침이 있어지기를 바랐고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에 관해 지적인 빛을 획득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그가 진리를 받아 음미할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는 것, 더불어 이런 지식을 가진 이후 그런 품성을 잘 표현해주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안드레아를 살펴보자. 그는 베드로의 형제 되는바 선용으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믿음, 믿음의 순종을 표현한다. 이 사항은 보석 자체와 연결해도 어느 정도 확실하다. 옥수는 백색 또는 푸른색의 옅은 빛깔인바, 사랑의 표현물인 빨강에 관한 색은 함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보석은 진리를 표현하는 보석 종류에 해당된다. 이는 이 구절에서의 상징적 품성이다. 그 이유가 안드레아는 사랑의 선을 표현하는게 아니라 믿음의 순종에 따라 결과되는 선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안드레아와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상황에는 교훈적이면서도 흥미를 주는 대목이 있다. 비록 서열상 베드로가 주님의 첫 제자이지만 실제로 보면 안드레아가 첫 제자였다. 그 이유가 안드레아를 통해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드레아는 의지에 있는 믿음, 또는 행동에 있는 믿음을 표현한다. 심정으로 믿는 상태와 그 반대인 불신앙의 악한 심정에 관해서 우리는 성경 도처에서 읽어 볼 수 있다. 안드레아가 표현하는 의지 안에 있는 믿음은 지성이 진리를 받을 수 있게 호의적인 심정의 확고한 상태를 말하고, 이 상태는 이해성이 진리를 받게 하는데 마치 안드레아가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오는 것과 같다. 이는 믿음을 통해 바깥쪽 생활이라는 최말단의 믿음까지 있게 하는데 이것이 믿음의 순종이다. 그래서 이런 신앙자의 품성은 그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벽의 셋째 주춧돌에 새겨 있을 것이라고 이해되게 해준다.

그러므로 벽옥, 사파이어, 옥수는 주님에 관련된 교리, 이 교리를 증거하는 진리, 그 교리와 관련된 진리로 본보기를 보이는 생활을 표현한다.

두 번째 시리즈에 해당되는 새 예루살렘 성벽의 주춧돌에 있는 보석들은 에머랄드(emerald), 홍마노(sardonyx), 홍옥수(sardius)이다.

타 성경(the Authorized Version)에 의하면 에머랄드는 아론의 가슴받이에서 두 번째 열의 첫 보석이다. 이 보석은 이 구절 외에 히브리 성경의 세 곳에서 더 나타나고 있다 (출애굽39:11, 에제키엘26:17, 28:13). 스웨덴본은 히브리어의 이 보석을 녹옥수(chrysoprasus)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상 영어 성경이 에머랄드로 부르는 에봇에 있는 보석에 관한 스웨덴본의 설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의 여러 구절 외에 에머랄드라는 단어로 명명되는 곳은 계시록 4장 3절이다. “그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 같았으며 그 옥좌 둘레에는 에머랄드 같은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이 구절에 관해서는 이미 살핀 바 있듯이 이 구절의 에머랄드는 주님의 사랑과 지혜의 바깥쪽 영역을 의미한다. 자연계를 대표할 만한 이 색깔이 암시하는 바는 이러하다. 녹색, 무지개의 중앙에 있는 색인데, 이는 천국 아치(arch)의 양쪽에 있는 푸른색과 노랑색이 혼합되어 나타난 색으로 과거에 생각해 왔다. 그래서 이런 착상들이 우리로 갖게 해주는 것은, 녹색은 자연적 수준에서 있어지는 선함과 진리의 결합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보여주는 바 노랑과 푸른색이 혼합된 광선은 흰색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보다 더 작은 규모에서 볼 때 모든 색깔들은 서로 어우러지면 그 자체가 변형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프리즘에서의 색깔을 말하고 있다. 예술가들의 녹색은 파랑색과 노랑색을 혼합함으로써 얻어지는데 이는 그림 물감이라는 재료 때문이다.

비록 녹색이 자연계의 대표격이 되는 색깔이어서 외적 측면의 의미를 지녔지만 이 색깔은 생명이 있음을 표시한다. 연한 풀, 이 풀이 엷은 노랑 색깔이 많을 경우 이는 봄철이라는 우리 마음의 세계, 젊은 시절, 싱싱함, 희망 등등과 연결되는데 이는 자연계에도, 인간 삶에서도 동일하다. 이런 녹색식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녹색을 지닌 보석은 교리적 측면에 있는 진리들의 시리즈의 시작을 상징하고 있다. 다른 두 보석, 홍마노(sardonyx)와 홍옥수(sardius)는 풀의 더 높은 것에 대한 상징물이다. 홍마노라는 이름은 그 보석에 있는 빨간 줄무늬에서 명명되었다. 홍옥수 또는 루비(ruby)가 이글거리는 불꽃같은 빨간 색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시리즈의 색깔은 봄, 여름, 가을과 비교된다. 즉 점진적인 성장과 발달이 내향으로 있어져서 최말단의 선용으로 마감되는 상태를 표현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알리신 거듭나아가는 삶의 세 단계 즉 잎-이삭-낱알로 표현해 볼 수도 있다. 에머랄드는 봄과 잎사귀, 홍마노는 여름과 이삭, 홍옥수는 가을과 속이 가득찬 낱알과 비슷하다. 세 개가 한 개를 이루는 삼위일체에서 생명의 원리 되는 사랑의 요소에 관한 상징물, 즉 사랑의 시작, 발전, 선용이라는 결과에 관한 모습들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첫 시리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원리와 그 원리의 발전을, 둘째 시리즈는 주님을 사랑함에 대한 원리와 그 원리의 발전을 상징하고 있다. 둘째 시리즈의 마지막 두 보석중 홍마노(sardonyx)는 우림과 뚝뚝을 넣는 가슴받이에서 열거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얼룩마노(onyx)와 같은 종류이다. 가슴받이에서 얼룩마노는 마지막 줄(시리즈)의 중앙, 즉 감람석(beryl)과 벽옥 사이에서 열거되고 있다. 홍마노는 얼룩마노(흑색)에 빨간 줄의 맥이 지나간다. 마치 얼룩마노와 홍옥수가 혼합된 듯한 인상을 준다.

위 세 보석과 세 사도의 이름을 연결해 보려 시도할 경우 사도들이 표현해주는 품성을 건주어 생각해본다면 어느 정도는 감지되는데 그들은 바르톨로메오, 야고보, 요한일 것이라 생각된다.

바르톨로매오는 첫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그 이름만 언급될 뿐이다. 공관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바르톨로매오는 요한복음서의 나타나엘일 것으로 이해하는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안드레아, 베드로, 필립보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복음서의 대화는 어떻게 나타나엘이 제자가 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게 한다. 안드레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 뒤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가고 그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이와 비슷하게 필립보도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 뒤 그의 친구 나타나엘을 찾아가 “와서 보라”고 권유했다. 나타나엘은 나자렛에서 무슨 신기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고 믿으려 들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나타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 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때 나타나엘이 예수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다. “필립보가 너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이렇게 외쳤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엘에 주신 품성,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되 심정으로 느껴 직바로 인정하는 그의 대답은 그가 주님을 사랑함이라는 품위의 시작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영적 차원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란 영적 수준의 사랑이 자기의 원리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사랑에 어떤 위선 같은 게 숨어 있지 않다면 그야말로 순수함 자체 아닐까! 베드로가 주님께 드린 품성은 “그리스도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 말씀에도 아무런 거짓이 없었다” 이다 (베드로전2:22).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솔직함이라는 품성이 가능할 수 있는 최고의 증언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표현하는 품성에 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들이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는 온유함, 헌신적인 것 등등은 주님을 사랑하여 이루어 내는 선함의 모형이 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체현되고 있다.

이상 두 시리즈, 여섯 개의 보석을 일괄해서 생각해보자. 첫 보석은 벽옥이고 마지막은 홍옥수(루비)이다. 이 두 보석은 아론의 가슴받이에 박힌 보석의 마지막과 처음에 박혀 있다. 여기서의 경우 이 두 보석은 처음과 마지막, 또는 주님과 직접 관계되는 주춧돌로서 가장 낮은 수준과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아론의 가슴받이에서 마지막 보석이요, 새 예루살렘 성벽의 첫 주춧돌인 벽옥은 최말단(ultimate)에 있는 신성한 진리(Divine Truth)를 상징하고 있다. 이는 세상에 오셨을 때의 주님이다. 말씀이 육을 만드셨을 때 그분은 “마지막”이 되셨다. 그 반대인 영원으로부터 계신 경우 그분이 “처음”이 되셨던 것과 대등한 이치이다. 하느님이 육 안에서 명백해진 사실에 관계되는 그분에 관한 진리는 인간 마음에 있는 교회에서는 첫 번째 주춧돌이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함은 기독교인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주님께

관련된 진리 중 마지막 주춧돌이다. 첫 여섯 주춧돌은 주님에 관한 근본되는 원리를 표현하는데 이후 살피게 되는 나머지 여섯 주춧돌 내지 보석은 이웃에 관한 근본되는 원리를 표현하게 된다.

이제 생각해보게 되는 세 번째 시리즈의 세 보석은 귀감람석(chrysolite), 녹주석(beryl), 황옥(topaz)이다. 귀감람석은 에봇에 박힌 보석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황옥은 첫 열의 중간에서, 녹주석은 마지막 열의 첫 번째에 등장한다. 에봇의 첫 번째나 마지막 짚에 있던 두 보석이 본문에서는 한데 모여서 거룩한 도성의 성벽에서 세 번째 시리즈를 형성하고 있다. 이미 인용한 권위자에 따르면 귀감람석은 올리브 녹색이고, 녹주석은 바다 녹색(sea-green)이며 황옥은 포도주 또는 금빛 황색이다. 귀감람석은 에봇의 보석들의 이름 사이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바다 녹색으로 분류하는 녹주석은 스웨덴봄의 저서, [천국의 신비, heavenly secrets]에서는 얼룩마노(onyx)와 벽옥(jasper)과 더불어 분류하는데 그 보석은 푸른색으로부터 파생되어 흰색에 접근하는 빛깔을 지닌 보석으로 분류하고 있다. 황옥은 비록 그 이름의 근원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빛깔은 빨갭게 불이 타는 빛깔(red flaming color)이라고 위 저자는 생각하고 있다. 위 저자는 욥이 지혜에 관해 했던 말로부터 결론 내리고 있다. “에디오피아의 토파즈도 그것과 동등히 놓이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순수한 금이라해도 그것과는 가치를 비길 수 없다” (28:19). 이 구절에서 욥이 황옥에 대해 생각한 것은 그것이 보석이라는 것일 뿐 그 보석의 빛깔을 논한 것은 아니다. 위 저자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빛깔이 무엇이라고 단정하려는게 아니라 그 보석에 가장 걸맞는 빛깔을 생각해보는데 어떤 근거를 제공하려 했을 뿐이다. 그는 영감에 의해 자연적 수준의 지식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의 추측은 보석에 관한 전통적인 지식이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까지 거의 진리에 가깝게 각 보석의 색깔을 제공해 주는 것 같다. 그가 황옥에 관해 말하는바 그 보석은 에봇의 첫 번째 열, 그래서 서열이 가장 높으므로 천적 수준에 속하는 것, 즉 사랑의 선을 의미하고, 녹주석은 에봇의 마지막 열에 속하므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는 것, 즉 영적 수준에 있는 것들, 진리의 사랑을 의미한다. 위 두 보석이 등장하는 곳이 바뀐다고 해서 보석의 의미까지 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본다. 그러나 등장하는 곳에 따라 그 의미의 변화가 조금씩 있어지리라 본다. 보석의 경우가 그러하듯 열 두 사도의 이름도 그러하고 에봇의 보석에 새겨진 이스라엘 지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열 두 보석 중 첫 여섯의 보석이 주님 사랑에 관계되는 근본 원리를 표현하고 나머지 보석들이 이웃 사랑에 관계되는 근본 원리를 표현한다는 논리가 정확하다면 이제부터 살피는 보석들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가는 법을 밝히는 교리 내지 원리에 관한 상징물이 된다. 그 이유가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신성한 모든 법을 합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모든 교훈, 진리, 그것들이 믿음이나 사랑, 예배나 생활 어느 것과 관계를 갖든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실제의 사랑 외에 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하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 이웃을 향한 사랑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에 앞서 우리는 내 이웃에 신뢰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진실되게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웃사람다운 사랑의 의무, 뿐만 아니라 효력있는 신뢰를 가져야 한다. 열 두 주춧돌의 두 번째 분과로 간주되는 나머지 여섯 보석 중 첫 세 보석은 이웃 사랑에 관한 근본되는 진리들 즉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며, 우리의 이웃이란 무엇인가와 이웃을 사랑한 결과인 선용은 무엇인가에 관한 진리를 상징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새 교회의 교리에서 집중 조명되어 밝히는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은 새 예루살렘 성벽의 주춧돌을 이루는 매우 귀한 보석의 한 부분을 점철한다.

모든 사람은 내 몸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이름 안에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예외됨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친구뿐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교리는 식별력이 없는 사랑이나 무차별한 이타에 때문에 야기되는 심각한 악들을 미리 방지해준다. 비록 우리가 선한 자 뿐만 아니라 악한 자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할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선과 악을 모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어떤 인간을 통째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 안에 있는 선을 두고 한 말이다. 그들 속의 선만이 우리의 이웃이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본질적으로 보면 선 그 자체뿐이다. 이런 원리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 속의 선을 위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선만을 위해 이웃에 무엇인가를 행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정해 볼수 있다. 아무개는 이웃 사랑을 받게 해줄 어떤 선함이 하나도 없더라도 단정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선에 관련되어 주님께서 아껴두신 선함을 다소나마 가지고 있다. 이 선함이 제이무리 작다해도 그 선함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의 실천을 위한 건수(품질)에 해당된다. 어떤 개인 안에 있는 선이 본질적 측면에서 우리의 이웃이라면 그 사람 역시 둘째가는 의미에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가 우리는 사람 자체를 사랑함도 없이 그 사람 속의 선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견지로 보면 모든 각 개인은 우리의 이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개인이 소유한 선을 감별하여 그 선함을 더 복돋아 주기 위해 각 인간의 품질에 관한 식별력은 여전히 존재해야 하리라.

만일 선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면 구체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게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웃 사랑은 그 자체로만 생각하면 이타애(charity)이고 이는 상대방을 향한 호의(친절, good will)이다. “사람에게 친절함”이 목적이고, 평화의 복음이 그 열매이다. 의지 안에 선이 있는 상태인 친절(good will)은 이해성에 있는 진리와 반드시 하나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 이유가 참된 사랑은 계발된 사랑, 즉 진리로 인도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내하는 능력 없이 이웃간의 사랑은 맹목적인 선한 자극 수준일 뿐이어서 이 선한 자극을 흥분시키는 어떤 객체가 등장할 경우 닳치는 대로 흥분된다. 이럴 경우 어떤 유익한 것도 사라지고 때로는 상처만 남기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그분께서 창조물에 부여하신 모든 특전들은 나름대로 제 각각의 목적을 위해 좋은 것 또는 선용(use)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인간의 경우, 하느님께서 인간들끼리 서로 유용해지도록 인간 존재라는 것을 창조해 놓으셨다. 단어 생명으로 납득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해 서로서로 도와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어느 창조물도 인간만큼 잘 해낼 수 없다. 물질 차원의 존재들이 제 아무리 잘 유지되고 있다해도 정신 차원의 개선 내지 유지는 마음이 마음 위에 행동됨이 없이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런고로 마음이 진짜 사람이다. 자유와 이성이라는 인간의 자질은 인간으로 여타 창조물과 구별되게 하는바 이 두 특질은 잠재적으로 있는 인간성이다. 그것의 소유자가 잘 방향 잡아 이 특질을 발달시킬 때 그 소유자인 인간은 사람이 되어간다.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본성에 속하는 위 자질을 상속받는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으로 그 자질이 풍족해지게 하는 타인의 자질이라는 매체가 없었다면 아마 미발달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인간적인 매체가 세상의 형상에 제 자질을 깎아 맞추게 하는데 필요조건이었다면 더욱 그 자질에 요구되어야 하는 것은 천국의 형상에 모양을 맞추는 것일게다. 하느님이 영적 측면에서 힘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듯 계시(밝히 알게 함)는 종교적 지식의 근원이다. 인간 매체(human agency)는 한정된 삶의 일과 보다 더 절실한 곳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 측면에서 이다. 그 이유가 영적 사항에 관한 것을 획득하는데, 또는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는 것에 관한 특질은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하느님이 천국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한정된 생명을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증진되게 하는 과정에서 그분과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다. 이러면 그분처럼 일시적인 수단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게 된다. 이상 살핀바는 이타애(charity)가 이웃에 보답할 수 있는 최고의 선용(use)에 관해서이다.

위 세 보석과 짝지어 볼 수 있는 사도의 이름은 토마와 마태오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이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세 사도의 이름은 일곱, 여덟, 아홉 번째에 있고 이 순서는 거룩한 성의 주춧돌에서 귀감람석, 녹주석과 황옥이 위치한 순서와 같다. 그러나 각 사도 내지 보석에 할당해 볼 수 있는 표현적 품성들이 꼭 맞는지는 살펴보아야 하리라 생각된다.

토마는 세 번째 그룹 중에서 첫 번째에 위치하는데 그는 마태오나 야고보보다 사도로서는 더 유명한 편이다. 라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곳에 가자고 말할 때 쌍둥이라 불리는 토마가 제 동료인 딴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 하고 말했던 대목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있다. 이 대목을 보면 그는 주님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각오할 정도로 헌신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 또는 그분의 권능에 대한 믿음은 매우 적었던 것 같다. 그가 주님께 관한 지식이 적었다는 것은 다음 구절에서 더 명백하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가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요한14:2-5). 지식의 부족 뿐만 아니라 믿음도 부족했다는 것은 그를 유명하게 만든 대목에서 알아 볼 수 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동료 제자들이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그러나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자 그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외쳤다. 이는 불신앙을 지녔던 토마가 일깨워져 확실한 신앙을 지닌 토마가 되는 것에 대한 기록이다. 그외에도 토마는 티베리아 호수에서 다른 제자들과 밤새 헛수고를 하다가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분의 충고를 따름으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배의 오른쪽이란 이타애의 영, 또는 이웃간의 사랑을 뜻한다. 위와 같은 사건의 세부사항을 통해 그가 표현한 품성을 알아 볼 수 있는 것 외에도 그의 이름 자체도 표현적 품성을 지니고 있다. 그의 이름은 그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거의 동일한 시간에 둘이 출생하는 성경의 예로서 예사오와 야곱 (창세기25:25,26), 그리고 베레스와 제라 (창세기38:30)가 있다. 이들은 모두 이타애와 믿음의 연결과 관계가 있다. 위 두 사건 각각에서 아우가 실제의 첫 출생자가 되고 있다. 우리의 신앙은 비록 믿음이 먼저 태어난다 해도 이타애가 실지로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신성하게 섭리된 역사가 위 쌍둥이들의 사건이다. 다시 말해서 이타애(charity)가 실제적 측면에서 형이고, 믿음은 가상적 측면에서만 형이다. 믿음이 있는 후에 있어지는게 이타애지만 실지로는 믿음에 앞서 존재한다. 비록 행동으로 이타애가 존재하지 않았다 해도 동기 측면에서 믿음에 앞서 있다는 말이다. 과감한 결론을 토마에

관해 내려본다면 그가 이타애라는 품성을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 그는 쌍둥이 중에서 형이었을 것 같다. 그러나 그는 두 요소, 이타애와 믿음, 주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라는 요소를 각각 얼마 정도까지는 하나되게 했을 듯 보인다. 진짜에 속하는 모든 믿음이 이타애로부터 오듯, 생명있는 모든 이타애는 사랑으로부터 온다. 기독인에게 있게 되는 품성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각자가 지닌 품성의 발달단계가 차이가 있는데서 비롯된다. 완전히 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은 이타애보다 더 앞선 듯, 더 우월한 듯 보인다. 그리고 이타애가 사랑보다 더 우월한 듯 나타난다. 마치 야곱이 에사오보다 더 우월한 듯 보이는 것과 같다.

마태오에 관한 복음서의 언급은 많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 물론 그가 복음서의 기자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다루기 위해 살피는 마태오는 사도라는 측면에서이다. 마태오에 관해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그의 동료 제자들과의 관계 측면보다는 주님과와의 관계에서가 더 많다. 그럼에도 복음서라는 거룩한 역사는 그가 죄인들에게도 제 동료에서와 같은 이타애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가 부름 받고 나서 큰 잔치를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 차렸는데 그 자리에 그는 세리와 죄인들까지 초대했다(누가5:29). 새로운 사도가 된 그가 감사와 기쁨의 표시로 스승을 위해 준비한 축제가 이전에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자기 같이 변화된 세리가 되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을 위 누가복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의 이름 자체에서도 그가 표현하는 품성에 관해 찾아볼 수 있다. 이름 마태오는 “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부터 파생되고 있다. “주는 것, to give”는 이타애가 지니는 애정을 충분히 표현하는 서술 동사이다. 이타애란 나누어주기를 기뻐함인데 이는 일시적인 이 세상의 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선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 사도 마태오는 두 복음서(마가2:14, 누가5:27,29)에서 레위리는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다. 레위란 결합함(joined)이라는 뜻이다. 이 이름은 레아가 그의 셋째 아들에게 붙였는데 붙인 이유가, “...이제는 남편이 별수 없이 나에게 매이겠지...”(창세기 29:34) 라는 그녀의 바람 때문이다. 이 이름의 취지는 레위 지파가 사제직을 신성하게 위촉받는데서 더욱 돌아나 보인다. 가장 높은 의미에서 레위는 주님과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매체로서의 사랑을 표현한다. 둘째 의미에서, 레위는 각 지파 사이에 섞여 살았듯이 교회에 있는 멤버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체로서의 이타애를 표현한다. “이타애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한다”(골로사이 3:14). 이타애를 수단으로 진정한 교인 뿐만 아니라 각종 교회에 있는 멤버들, 그 외 모든 교회 멤버들을 하나되게 하여 일종의 보편적인 교회를 형성한다. 새로운 하늘의 처방에서도 이타애를 수단으로 모든 나라들은 하나의 공통된 형제애를 갖는다. 이상 살핀 바가 보석이 의미하는 이타애

또는 이웃 사랑이다.

세 번째 사도의 경우는 더욱 결정 내리기 힘든 대목이 있다. 그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언급된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동일 인물인지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만일 동일 인물이 아니라면 누가 야고보서의 저자인가 이다. 이 서간문은 이웃 사랑의 실질적 부분 또는 실용적 교리를 표현하는 품성을 지닌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서간문은 믿음만으로 구원받음이라는 논리에 반대되는 부분, 즉 선한 일들이 구원에 효험있는 행위라는 것을 완벽하게 논증하고 있다. 이 서간문의 저자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임을 적극적 자세로 주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서간문에 등장하게 되는 주변 상황으로부터 그가 표현하는 품성을 추측해보아야 할 것 같다.

이상 위에서 우리는 세 보석, 이와 연결되는 세 사도를 살폈는데, 이 셋은 이웃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각기 다른 요소들, 좀더 자세히 구분한다면 내적 인간 안에 존재하는 이웃 사랑에 관한 요소들을 표현한다. 이에 비해 아래에서 살피는 마지막 세 보석은 외적 인간 안에 존재하는 이웃 사랑의 요소들이다. 그 이유가 거듭남의 첫 번째는 내적 인간의 거듭남이고 이 거듭남으로부터, 이 거듭남이 있는 뒤 외적 인간의 거듭남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거룩한 도성의 성벽 주춧돌을 형성하는 마지막 세 보석은 녹옥수(chrysoprasus), 풍신자석(jacinth), 자수정(ameethyst)이다. 녹옥수는 황녹색(golden green), 풍신자석은 보라색(hyacinth), 자수정은 자줏빛(purple)이다. 이 색깔들은 통상적으로 할당된 색들이다. The Authorized Versions에 의하면, 아론의 가슴받이에 박힌 보석에는 녹옥수나 풍신자석이 없다. 거룩한 도성의 마지막 주춧돌인 자수정만이 우림과 들판에서 아홉 번째에 놓여 있다. 스웨덴본의 저서에서 녹옥수는 네 번째 돌로 에머랄드대신에 언급되고 있다. 이 보석의 색깔은 빨강 색으로부터 근원된 파랑 색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래서 둘째 시리즈를 구성하는 보석으로서의 녹옥수는 선을 천적 수준으로 사랑함을 의미하고, 자수정은 흰색으로부터 근원된 파랑색이라고 말해지고, 이 보석은 영적 수준의 선, 또는 선을 영적 수준에서 사랑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이 사랑은 이웃을 향한 이타애라고 더 설명되고 있다. 풍신자석은 이 책의 앞부분(9:17)에서 이미 설명된바 있다. 즉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모습이 내 눈에 비치었는데 그들은 불빛 같은 붉은 색이나 보라색이나 유황색의 가슴방패를 붙였다...” 이 구절에서 살핀바와 같이 풍신자석은 좋은 측면의 의미에서 불 때 영적 수준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총명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쁜 측면일 경우 자아에서 파생된 총명, 지옥적인 사랑으로부터 오는 총명을 뜻한다. 거룩한 도성의 성벽에 있는 풍신자석은 이웃을

향한 사랑인 영적 수준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총명에 해당된다. 마지막 시리즈의 첫 번째 보석은 영적 수준의 사랑, 두 번째 보석은 영적 수준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총명, 마지막 세의 보석은 영적 수준의 선이 영적 수준의 총명을 수단으로 생산한 선용, 또는 실지의 선을 말한다.

마지막 시리즈의 보석들과 연결되는 세 사도는 타대오, 가나안 사람 시몬, 가리옷 사람 유다이다. 타대오는 유다서라 불리우는 서간문의 저자이다. 이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동생인 나 유다가 하느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켜 주십니다” (유다1:1).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만이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위를 이제와 또 영원토록 누리실 분”으로 편지를 끝맺고 있다 (1:25). 유다라는 이름 자체 역시 사랑을 표현하는 품성인바 이웃 사랑까지 암시하고 있다. 그 이유가 유다와 유다 지파가 주님 사랑을 표현하는데, 천적 수준인 주님 사랑이 영적 수준에서는 이웃 사랑이 되기 때문이다. 시몬은 그가 열심당원 시몬(Simon Zelotes)이라 불리운 것 외에는 더 기록된 게 없다. 이 기록은 그가 유대 민족주의의 단체 멤버였든가, 아니면 그가 열심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불리웠던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어쨌든 그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지니는 원리와 비슷한 원리, 그러나 보다 덜 분명한 원리를 뜻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가리옷 유다의 이름이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벽 주춧돌에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보는 것은 선뜻 응낙하기 힘든 부분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 이유가 열 두 주춧돌에 있는 열 두 사도의 이름은 각 사도의 이름이 표현하는 여러 가지 원리를 뜻하기 때문이다. 열 두 사도는 사랑과 진리, 그리고 선함에 관한 모든 원리, 또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품위와 미덕(grace and virtue)들을 표현했다. 주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으로서의 유다는 교회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원리들 중 어느 하나를 표현한다. 그러나 주님을 배반한 사람으로서의 유다는 거꾸로된 원리를 표현한다. 표현적 품성의 두 면을 생각해보면 사도로 신성하게 임명되었던 유다가 지니는 의미는 배반자로서의 유다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일 수 밖에 없다. 사도라는 단순한 측면에서 그를 생각해볼 때 유다가 지닌 표현적 품성은 교회나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실지 지니고 있다. 어떤 한가지 것을 완성하는 부분 중에서 처음의 것과 마지막의 것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처음과 마지막은 그 중간에 놓이는 부분들을 한데 모이게 하고 결속시키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사도들이 언급되는 구절의 마지막에서 유다가 언제나 등장하고 있는바 그의 이름은 교회의 원리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원리를 표현한다. 사실 마지막 번째에서 보다 내적이고 보다 높은 수준의 원리들이 발견되는바 각각의 원리 중 가장 완전하게 어떤 실체를 명백히 나타낸다.

우리의 의식상태, 오감, 본래의 정신(the very senses)이 매우 순수해져 변질된 교리나 지옥의 영향력이 부추킬 때 동요조차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영혼의 거듭남은 최고도로 완성되고 그의 종교생활은 가장 완전하다. 따라서 그것들은 새로이 건립된 심정과 올바른 영에 고분고분 순종하고 그 순종을 기뻐하는 도구가 되어 있다. 내적 측면에서의 역사적 의미로 볼 때 배반자로서의 유다는 유대교회를 표현하고, 그가 맡았던 돈 자루는 유대인들이 보관했던 말씀을 표현했다. 유다가 돈 자루를 지키되 진짜 주인의 선용을 위하지 않고 자기 것인 듯 꺼내 썼는바 이런 측면의 유다는 도둑이요 영적 측면의 강도를 표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어 사도로 임명해서 파견한 열 두 사도의 이름을 살펴왔다. 그런데 혹 어떤 사람의 경우 가롯 유다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성의 주춧돌에 새겨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 과거 사도였을 때의 유다가 맡은 직능이 표현하는 원리 또는 품성으로 대체해서 마음에 그려보길 바란다.

열 두 보석과 열 두 사도의 긴 설명을 마감했다. 이제 전체를 되살려 보자. 열 두 보석으로 나열된 두 큰 시리즈, 즉 아론의 가슴받이에 있는 보석과 새 예루살렘 성벽 주춧돌의 것과는 이런 점에서 크게 다르다. 전자는 교회 내지 종교의 품위들이 하느님을 사랑함으로 시작되나, 후자에서는 신성한 인성으로 계신 하느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수준으로 승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주님을 사랑함이 이웃을 사랑함을 수단으로 그 사랑 자체가 명백해지는 것이다. 거룩한 성의 주춧돌을 살펴 본 우리는 이제 그 도성의 문들을 살피게 된다.

21. “또 열 두 대문은 열 두 진주로 되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예수는 양의 문인바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각 문들을 형성한 단 한 개의 진주란 예수에 관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값이 대단한(great) 진주이다. 이 지식은 모든 진리에 관한 지식 중에서 가장 귀중한 지식이다. 여타 모든 진리를 납득 가능하게 하는 딱 한 개의 보편적 진리는 예수 그분 자신이 무한하고 영원한 진리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진리는 파생되어 결국 그분께로 되돌아 간다는 것이다. 교회를 소개해주면서 동시에 교회에의 입장을 허가 해주게 되는 예수에 관한 지식, 이 지식은 지성에 정보를 더 제공하는 지적 측면만의 지식 뿐만 아니라 기억 속의 지식을 개혁하는 지식이다. 이를 입구, 문이라는 측면을 더 강조해서 생각해보면 이 문은 거룩한 도성에의 입장을 허가하는 지식인바 우리가 문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도성을 소개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예수에 관한 지식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로 걸어감으로 우리는 거룩한 도성에 입장되어 구원된다. 문에서 문 안쪽으로 들어감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거룩한 성을 소개받게 된다. 그 다음 우리에게 그 성의 거리가 소개되어 그 길을 걷게 된다. 도성의 문들은 거리의 입구에 있다. 마치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의 입구인 것과 같다. 이리하여 도성의 문과 연계해서 언급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거리가 발견된다. 진주로 된 이 문들은 금으로 된 거리로 열려 있다. 도성의 문들과 거리를 차별해 생각해본다면 이는 마치 지식과 진리의 차이와 같을 것이다. 그 이유가 얇은 진리 측면에만 진입하게 하는 출입구(gateway)일뿐이기 때문이다. 지식은 기억에 속하고 진리는 이해성에 소속된다. 그렇다고 본문의 거리가 이해성 속에 있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금으로 된 거리는 심정 또는 의지에 소속된 진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는 지혜 속의 진리를 표현한다. 지혜는 머리에 소속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심정에 소속되었다고 판단해야 한다. 지혜는 선함과 하나된 진리, 사랑과 하나된 믿음이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이해했다고 슬기로운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를 실천함으로 그 진리가 선함으로 바뀔 때 “슬기로운 자”가 된다. 이런 수준의 진리들이 “금으로 된 거리”이다. 거리는 진리의 상징물이고 금은 사랑과 선함의 상징물이다. 주님의 진리는 그분의 사랑에 이르게 하는 길을 열어준다. 지식은 선함에 이르는 길, 믿음은 이타애에 이르는 길을 열게 한다. 도성 자체의 경우 같이 거리를 만든 금은 마치 투명한 유리 같았다. 그 이유가 순수한 사랑은 순수한 빛과 같기 때문이다. 모든 진정한 사랑은 진리 또는 지혜와 하나되어 있다. 그 이유가 이럴 때 만이 슬기로운 사랑인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2. 하느님의 도성의 거리는 하느님의 성전으로 인도한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한 가지 모양새이다. 따라서 성전이 없다는 말을 거기서는 예배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지상의 교회에 예배가 반드시 있듯 천국의 교회에도 예배는 존재한다. 거룩한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없었음에도 성전이 있다. 주님 자신이 그 곳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모든 참된 예배는 예배되어지는 한 분 존재에서 종결된다. 주님은 예배의 저자 되시고 그 대상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우리의 참된 자질은 그분이 주신 귀한 선물이다. 우리가 아는 진리들은 그분께서 밝히 알게 하신(계시)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참된 바램은 그분께서 불어넣으신 영감이다. 빛되시는 아버지로부터 천국을 통해 내려오지 않은

것은 천국에서조차 하나도 없다. 참된 예배는 주님으로부터 왔을뿐 아니라 그 예배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시다. 아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외적 환경, 수단들을 완전히 벗긴다면 우리는 예배 대상과 정면으로 마주보게 되어 신성한 인성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주님만을 뵈오리라. 이런 사실을 우리의 바깥쪽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상상해선 안된다. 그 이유가 거룩조차도 그분 앞에 없드릴 때 그들 눈에 베일이 씌워지기 때문이다. 어쨌든 위 요한의 환상이 말하는바, 모든 진정한 예배자는 주님만이 예배의 전부 되심을 내향적으로 보고 실감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분 홀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거기에 거주하는 이들이 알고 인정하는 바는 어떤 사람도, 천사도, 어떤 단체도, 개개인도 주님의 예배에 관한 어떤 것 하나도 그분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눈이 외관(가상)이라는 베일을 관통할 때 그들의 눈에는 주 하느님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영원한 신성과 신성한 인성, 신성한 사랑과 지혜만이 진정한 예배의 모든 것의 근원이요 그 예배의 본질이 되어 있음이 보여진다. 세 이름, 주, 하느님, 전능하신 분이란 사랑, 지혜, 권능이라는 신성의 세 본질을 표현하는 호칭이다. 그 반면 어린 양은 인류와 관련되는 그분에 관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류에게 그분을 명백히 보여주셨음을 표현하는 명칭이다.

23. 거룩한 도성에 성전이 없었듯이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 주며 그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표현하는 생각은 앞 절이 표현한 것과 유사하다. 새 교회(The New Church)는 한 개의 참 빛만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고 알고 인정한다. 그분은 정의의 태양이시오 그 태양은 떠올라 그분의 날개 안에서 치료하신다. 떠오른 이 태양은 지는 일이 결코 없고 오로지 더 완전한 날이 되고 더욱 더 비추인다. 여타 교회들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들이 계발되도록 요구하는 매개적인 빛 없이 새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 자연, 도덕, 영적인 것의 빛, 이성과 계시의 빛이 지금까지 존재해온 교회에 비추인 것보다 더욱 많은 빛을 받아 새 예루살렘에서 빛을 발하리라. 위 각각의 빛은 어떤 분리된 존재, 계발하는 능력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이 빛은 계시의 빛이라는 독립된 빛이라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이 빛은 한 분 최고의 것, 유일한 참 빛으로부터서만 근원된다고 보아야 하고 인정해야 하리라. 그 이유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씌어진 책은 계시의 책 뿐만 아니라 자연이라는 책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계시의 빛이나 자연의 빛이나 똑같은 근원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모든 빛, 모든 지식, 모든 진리는 한 가지 근원만을 가지고 있다. 자연의 빛과 계시의 빛을 분리시킨 게 사람이요 두 빛을 서로 반대되게 놓은 것도 인간이다. 종교를 축출하려는 게

과학이요 과학을 제명 처분하려 드는 것이 종교이다. 이 둘이 제 각각이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다. 참된 교회는 이 둘을 조화시켜 하나되게 한다. 더불어 참 교회는 이 둘이 조화와 통일을 위해 서로 필요함을 인식한다.

24. 자연의 빛과 계시의 빛이 하모니를 이룰 때 종교는 과학을 계발시켜 주고 과학은 종교를 풍요롭게 해준다. “만국 백성들이 그 빛 속에서 걸어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은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구원되는 백성들(nations)이란 생명나무의 잎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이다 (22:2). 치료받음이란 구원받음이다. 단어 구원(salvation)은 건강함(health)을 뜻한다. 우리의 심정 상태가 자연적 수준일 때 병이 들지만 영적 수준일 경우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영혼이 자연적 수준일 경우 무지 또한 잘못들이라는 어둠가운데서 걸어다니지만 영적 수준일 경우 진리의 빛 가운데서 걸어 다니게 된다. 자신의 지적 측면의 부유함과 권능들을 그것을 수여하신 분께 돌릴 때 땅의 왕들은 그들이 지닌 영예와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도성에 들어오게 된다. 이를 추상적 측면에서 관조할 때 “백성”이란 자연적 수준의 애정들이고, “왕들”이란 자연적 수준의 생각, 또는 자연적 수준의 의지와 이해성을 뜻한다. 자연적 수준의 의지와 애정들이 그것을 인도하고 방향을 잡아 주는 진리로 순수해져 구원될 때 이것은 마치 빛가운데 걸어다니는 모습과 같다. 자연적 수준의 이해성과 생각들이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될 때 그 속의 모든 것이 성결해져 종교적 봉사에 헌신된다. 애정과 생각들이 종교를 드높이기 위해 그것들의 영예와 영광을 종교 아래로 가져 올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그것의 저자 되시는 그분께 그 모든 것을 되돌린다.

25. 만국 백성과 땅의 왕들이 들어오게 된 “그 도성의 문들은 종일토록 문을 닫는 일이 없습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함과 진리에 신실한 애정을 지닌 이들에게 교회 또는 종교를 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있는 하느님에 관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만국 백성, 땅의 왕들을 들어오게 해준 진주의 문이기도 하다. 새 예루살렘에서 이 문은 계속적으로 열려 있다. 고대 시대 때의 성의 문들은 밤에는 항상 닫히지만 낮에도 닫아 거는 일이 흔했다. 거룩한 도성에는 밤이 없고 그 문은 낮동안 결코 닫혀 있지 않음을 알았다. 새 교회에서 이 문들은 활짝 열려져 있다. 주님의 신성에 관한 위대한 진리들, 그분께로부터만 오는 구원의 권능은 너무나 확실하다. 신성한 계시의 충만된 영광으로 빛이 발해지는 이 도성에 들어오고져 문을 통과하는 신실하고 열심 있는 진리의 추구자들을 초대하기 위해 그분에 관한 모습은 이름답고 단순한 마음 앞에 언제나 놓여져 있다. 불가사의하게 여기는 신비들, 변태적인 교회의 범규들, 불가능하게 보이는 각종 조건들에 의해서도 이 문들은 더 이상 닫혀지지 않는다. 하느님에 관한 모든 것, 인물, 품성 등등 모든 것은 순수한 진리의

빛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놓여져 있어 더 이상 반박되지 않고 오히려 호의적이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환대 받는다. 거룩한 도성의 문이 열려 있음은 구원의 모든 통로가 열려 있음을 포함하는 함축된 말이다. 교회와 천국의 모든 진리를 내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열려 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내면의 빛과 영광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 속에 들어 가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말씀이 열려 있다는 말과 연결되어야 할 것은 열린 말씀 속에 빛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빛을 직감하는 인간 마음의 열림이다. 마음을 도성에 견준다면 도성의 문은 마음의 합리적 자질을 상징하게 된다. 이 자질(능력)을 통해 인간 마음은 그 마음 안에 내재하는 천국과 그 마음 밖에 있는 세상과 교통을 이루면서 결합한다. 주님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폭넓은 위 두 도로가 열림은 신성한 사랑에 근원하면서 신성한 지혜의 지휘감독을 받은 포괄적 진보의 결과 외에 더 다른 게 없다. 말씀, 교회, 인간의 마음은 다 같이 동시에 발전해야만 한다. 이 셋은 전체라는 하나에 상응되는 부품에 불과한바, 각각은 서로서로 의존해야 하고 상호간의 행동으로 꾸려져야 한다. 이것의 열림은 저것의 열림 없이는 불가능하다. 말씀, 천국, 교회, 인간의 마음, 그리고 악이 닫히는 것, 모두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인 열림으로 통일된 하나를 이룬다. 이제 그분의 두 번째 강림 아래 모든 사람은 영적 발달의 더 높은 단계에 진입해 있다. 이 발달은 세상에 여명을 드리운 한 개의 끝이 없는 대낮을 통해 점진적이고 동시적으로 계속되리라.

26.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영예와 영광을 그 도성으로 가지고 들어 올 것입니다.” 구원된 만국 백성이 도성에서 빛 가운데 걸어 다닌다는 것, 왕들이 도성에 그들의 영예와 영광을 가져온다는 것은 앞에서 살핀바 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백성들이 영예와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다. 이 백성이란 곧바른 이방인들, 단순한 선 가운데 있는 이들을 표현한다. 24절에서 언급된 백성 또는 이방인들이란 자연적 수준의 선량한 마음씨를 지닌 사람들이다. 지금 언급되는 이들은 선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종교는 이런 경로를 거쳐 발전한다. 먼저 선한 마음씨가 진리를 획득하게 한다. 그 다음 그 마음은 진리로 순수해지고 계발된다. 이렇게 계발된 선한 마음씨는 선을 행하는 쪽으로 인도된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백성”을, “왕들”을, 그 뒤 다시 백성들을 읽게 하는 것이다. 의지 안에 있는 선이 이해성 안에 있는 진리를 통과하여 생활에 있는 선으로 건너갈 때,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진리에 관한 영광과 그분의 선함에 관한 영예를 교회 안으로 가져와 교회를 풍요롭게, 더 드높이게 한다. 그 이유가 거듭나는 기독교인의 삶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이웃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더 특별한 것은 그가 행하는 선함의 저자가 주님이시요 그분이 선을 행하게 한 주체이신바 선행의 주인이 그분임을 감지해서 그분께

공적을 돌리는 이웃을 위한 삶이다.

27. 이렇게 해서 기독교자들은 선을 행하여 기쁨을 누리지만 한편 악행을 금하느라 분투한다. “그러나 더러운 것은 아무 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흠직한 것들과 거짓을 일삼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교회 안으로 악이 들어온다고 말하든, 기독교인의 마음에 악이 들어온다고 하든 그 둘은 결국 똑같은 결과가 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악 또는 잘못들은 인간의 마음을 통해 들어온 것들이다. 교회에 반대되는 요소들의 축출이 이 구절에서 약속되고 있다. 불순한 것이든, 흠직한 것이든, 거짓된 것이든 어느 것이든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를 넓은 측면에서의 교회로서 생각해 보면, 하늘의 새로운 처방은 이전에 처방된 교회가 처해진 것같이 부패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개인이 악 또는 오류에 빠져들는지 모른다. 그러나 전체로서의 새로운 교회는 건전해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악 또는 잘못들은 거룩한 영역 안에서는 너무 명백해서 그 곳에서는 숨을 곳을 영영 찾지 못한다. 개인적 멤버라는 점에서 볼 때 위 약속은 자연적이고 유전적인 결함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을 제외해 놓고 하는 약속은 아니다. 이것들은 타락된 인류가 지닌 공통된 상속분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인류에게 공통으로 있는 본성에서 떠나 영영 죽어질 것이라고 기대해 볼 이유도 없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이런 자발적인 악들이 죄가 되도록 결코 허용되는 일이 없게 된다. 그 이유가 악이 제 컴퓨터로 발견할 수 있는 잘못의 형체가 없기 때문이다. 진리의 빛이 분명하고 계속적으로 비추일 때 어둠의 행위가 감추여 놓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교회는 교리를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은 상태로 보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실체는 불법이나 숨김과는 무관하다. 그 중에서도 이 교회에 가장 큰 장점은 각 멤버들이 자신을 판단 하는 게 가능한바 심정 안에 잘 모르는 더러운 어떤 것이 잠행할 수 없어 흠축하게 만들거나 거짓된 어떤 것도 생명의 나라에 입장하지 않게 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적히지 않은 자는 누구도 그 도성에 들어 갈 자 없다. 주님과 이웃을 사랑함은 영적인 삶의 원리들이다. 복음서 역시 예언과 율법과 마찬가지로 이 두 원리에 매달려 있다. 세상에서 주님이 하신 일의 목적은 인간으로 무엇보다 먼저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서로가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 외에 더 다른 게 없다. 따라서 사랑과 이타애만이 거듭나는 마음 안에 들어가는 원리이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지상의 새 예루살렘의 진정한 멤버들이다. 그 외 누구도 천국에 있는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 새 시대의 교회에 침입하는 악과 거짓에 맞설 수 있는 한 가지 위대한 안전장치는 “대단히 맑은 수정” 처럼 맑고 예리한 진리뿐이다.

이 진리는 죄를 변명해대는 고집스런 악의 흉칙함, 거짓말을 일삼는 입들, 위장된 선함이 얼마나 불손한지 금방 보게 하고 그런 본성은 죽은 자나 다름없다는 것, 신성한 권능과 자비가 마음과 삶에 역사해서 진실된 회개를 수단으로 그런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고 삶의 상태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지 않는 한, 거기에는 어떤 구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감하게 한다. 교인들이 교회의 빛이신 그분의 밝은 빛에서 볼 때,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구속의 역사를 펴지 않는다면 모든 불법에서 구속될 자 없고, 새 심정과 올바른 영의 창조가 우리 속에서 있어질리 만무하다는 것, 자기 기만의 끝장이 불가하다는 것을 직감한다. 따라서 전적으로 새로워진 본성으로 애정과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신성한 자비와 신성한 선함밖에 의존할 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런 지당한 진리를 받는 이들은 그 진리에 격려를 받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른다. 이 진리를 마음에 담고 있다면 그 진리는 심정을 부패시키고 이해성을 뒤집는 악과 거짓에 대해 안전장치가 되어준다. 심정에 이 진리를 새긴 사람들만이 새 예루살렘에 입장할 수 있다. 그 이유가 그들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써어있기 때문이다. 그 외의 사람들은 신실한 영과 교통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교회 자체로서의 교회의 범주에는 있을 수 없다. 자신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지님으로 거룩한 도성의 신성한 성벽 안쪽에 실지 거주하는 사람들만이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사기나 썩어짐 같은 요소들의 휘방에서 안전하리라.

22

1. 요한에게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던 천사는 이제 도성으로부터 또 다른 광경을 보도록 그의 시선을 돌리고 있다. “그 천사는 또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도성이 하느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내려 온 것과 똑같이 그 도성을 받쳐주는 수단도 되어 주고 있다. 지상의 교회는 천국에 있는 교회로부터 내려 올 뿐만 아니라 천국의 교회와 연결되어야 살아 있다. 다시 말해 인간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과 함께 살아간다. 끝없는 창조로 자연계가 버티듯 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말씀이 창조한 것에 주님의 영은 생명으로 채우신다. 하느님의 영을

쏟아부으심은 신성한 모든 일 중 월계관에 해당되는 행동이다. “하느님께서 천국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그분의 영이 물 위에 휘돌고 있었다” (창세기 1:1-2).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느님께서 그의 코에 숨을 넣으시어 그는 살아있는 영(soul)이 되었다. 마른 뼈가 살로 채워져 군사가 되자 영들이 그들 안으로 와서 살아났다. 이와 같이 주님이 육 안에서 그분의 일을 완성하시어 지상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신 다음 드높게 승강하셨을 때 그분은 성령강림의 날에 제자들에게 그분의 영을 쏟아부어 주셨다. 주님의 두 번째 강림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진리의 영이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되어 그 영 안으로 흘러들어 그 물이 어디로 흐르던 그 곳에는 생명이 있어지고 열매가 풍성하다. 이 강물은 신비로운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고 (에제키엘47:1),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가는 물 (즈가리아14:8)이다. 이런 강물의 줄기들이 하느님의 도성, 지존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한다 (시편46:4). 진리의 하느님의 영은 진리의 하느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행동한다. 이 영의 영향으로 말씀 속의 가르침은 생기를 갖는다. 하느님의 영이 없는 말씀은 마치 영이 없는 육체나 다름없다. 하느님의 영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와진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하느님의 영은 사랑인 생명과 지혜인 빛을 우리에게 준다. 물을 생명있게 해주는 게 사랑이요 물을 수정처럼 맑게 해주는 게 지혜이다. 하느님의 옥좌와 어린 양의 옥좌로부터, 다시 말해 주님의 신성과 인성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는 그 진리 깊은 속에 그분의 사랑과 지혜를 담고 있다. 천국은 하느님의 옥좌이다. 그 이유가 그분이 천국을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지혜는 천국을 통해 교회에 내려오되 각 교회가 받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내려온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이루어 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주님으로부터 인간 마음대로 유입(influx)되는 경로는 두 가지,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가 있다. 거룩한 영(The Holy Spirit)은 마음의 영역 중 가장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고 심정의 순수한 의도와 참다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천사들의 영향력은 위보다 수준 낮은 애정과 생각에 영향을 주어 성령의 하강이 있을 때를 위해 마음을 준비시킨다. 인간의 영향력은 보다 외면에 속하는 생각과 느낌들이 영향을 받게 한다. 인간과 천사가 끼치는 영향력은 생명과 빛이 주님의 영으로부터 인간 안쪽으로 흘러드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하느님의 영은 인간 내면으로부터 언제나 행동되지만 인간과 천사는 인간 외면으로부터 그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행동이 있을 뿐이다. 진리가 인간과 천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데 어쨌든 그것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런 진리의 영향력이 주님의 섭리 중 간접 경로에 해당된다. 천사나 인간이 소유하는 선하고 참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서만 존재한다. 올바른 행동은 그 행동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있어진 것이고 그런 행동을 수단으로 그분께서

영향력을 행사하실 뿐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것의 저자이시오, 따라서 선하고 참되어진 모든 공적은 그분에게만 있다.

2. 생명수의 강이 옥좌로부터 흐를 뿐아니라 “그 도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다. 강 양쪽에는 열 두 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손으로 에덴에 있는 동산의 한가운데에 처음 심어졌다. 이제 이 나무는 새 예루살렘의 거리 한가운데에 있다. 마지막째의 교회도 최초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로 주님은 사랑으로 계셔서 주님을 사랑함이라는 원리가 모든 원리들의 생명되고 그 중심되고 있다. 사랑은 생명이다. 주님은 사랑 자체이신바 그분은 생명 자체이시다. 그분은 지혜 자체이신바 주님은 빛 자체이시다. 그분을 사랑함, 이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사랑함이고 이 사랑은 영적 측면에서의 생명이요 천국의 생명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머무신다” (요한1서4:16). 사랑은 종교의 품위(grace) 중 최고 높은 품위인바 인간 모든 심정의 가장 깊은 안쪽에 있어야만 한다. 그곳에 존재해야 그 사랑은 마음의 모든 영역으로 골고루 흠어들 수 있어 기타 다른 모든 품위에 달콤한 향기가 나는 생명으로 채워진 인간 마음 전체를 아름다운 사랑의 형상으로 탈바꿈되게 한다. 생명나무의 열매대신 지식의 나무 열매로 지성을 살찌우려 한 것이 인간을 타락시킨 원인이요 에덴으로부터 추방되고 파라다이스의 문이 닫히게 한 원인이고, 방랑자,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게 하는 원인이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 뱀의 머리를 짓부숨으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 생명을 되찾아 되돌아가는 힘을 주신 역사, 이 위대한 역사가 구속의 역사이다. 그러나 완전한 삶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이들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고 오로지 점진적으로만 가능하다. 수많은 하늘의 처방들이 잃었던 인간의 특전을 되찾기 위해 첫 강림의 교회를 통해 있어져 왔다. 이에 뒤이어 두 번째 강림의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상속분을 되찾기 위해 섭리되고 있다. 그 문들은 열려 있고 결코 닫혀지는 일도 없다. 생명나무가 다시 서 있되 결코 시드는 일도 없다. 그러나 이 나무와 이 나무가 선 위치는 인간의 조건에 부응되도록 바뀌어 있다. 지금 이 나무는 동산에 있는 게 아니라 도로에 있다. 이제 그 나무는 양식을 위한 열매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위한 잎까지 생산하고 있다. 이는 바뀐 인류의 조건과 상태를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인간 문명이 자연의 자리를 대신 점유하고 인간의 죄가 순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명이 자연에 정면 대결하는 것만이 아니듯 죄와 순진의 관계도 그러하다. 생명나무는 작은 숲들이 연대를 이루듯 봄비는 거리에 심어져 번창할는지 모른다.

이 나무가 심어진 곳은 어디든지 그 곳의 한가운데에 위치해야 한다. 사업이나 쾌락 같은 것이 종교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생명 있도록, 순수함이 있기 위해, 그것 자체대로 덕목을 갖기 위해 종교가 그런 것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은 생명있는 원리를 그것 속에 지녀야 한다. 생명이 없다면 이는 죽은 형체일 뿐이다. 교회들은 교회 생명의 형체에 어울리지도 않는 중요성을 놓는 잘못을 저질러와서 교회의 필수되는 본성을 소홀히 해왔다. 마치 이브와도 같이 교회들은 뱀에 귀기울임으로 생명나무가 있어 왔던 에덴의 한가운데에 지식의 나무를 놓아두었다. 생명에 관한 왜곡된 과학은 참된 실제적 지혜의 자리를 찬탈해버렸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참된 질서가 이제 회복되어 있다. 생명의 나무는 이제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사랑은 종교의 중심되는 품위이다. 그 외의 모든 품위는 사랑의 품위 주위에 놓여 있어 사랑으로부터 생명을 갖게 된다. 인간 삶의 형태가 태고시대와 아주 다르다해서 사랑의 생명을 덜 받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사랑에 의해 성결되어 드높여지는 것 역시 덜 되어도 괜찮은 것도 아니다. 종교가 있어야 할 제 위치인 심정 중앙에 종교가 있게 될 때 심정의 모든 주변은 거룩하게 된다. 그러나 생명에 관한 모든 의무들을 정결되게 해서 고상하게 해주는 종교는 반드시 순수해 있어야 한다. 종교의 모든 품위에 생명을 주는 사랑은 반드시 슬기로우야 한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는 거룩한 도성의 거리 가운데에 있을 뿐 아니라 생명수의 강 양쪽에도 있었다. 태고적 파라다이스,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동산을 적시웠듯 거룩한 도성에서도 옥좌로부터 발원한 이 강이 생명의 나무에 물을 대주고 있다. 사랑은 진리를 수단으로 순수해지고 자양분을 공급받는다. 바깥 측면에서는 씩어진 말씀 속의 진리를 수단으로, 안쪽 측면에서는 영원한 신성과 신성한 인성,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분으로부터 직접 발출되어 나오는 진리의 영(the Spirit of truth)을 수단으로 역사된다. 이 강의 물은 주님께서 말하신 것,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리라” (요한7:38)와 똑같다.

생명의 나무, 생명수의 강물로 적시어지는 생명나무는 열 두 가지 열매를 생산하고, 또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 나무의 잎은 백성을 치료해준다. 열매는 나무에게 있어 제일가는 선용(use)에 해당되고 사실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식별되어 진다. 정의(righteousness)가 생명나무의 열매이다. 선함(goodness)이 사랑의 열매이다. 우리는 사랑을 생각하되 사랑의 활동성 즉 유용하고 유익하게 하는 활동을 사랑함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 사랑은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이지만 사랑은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이기도 하다. 사랑은 율법을 충만되게, 완성되게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요한1서5:3). “만일 누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내 말을 준행하리라” (요한 14:23). “내 계명을 지니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요한14“21). 실용적인 사랑은 마음에 양식을 공급해서 영적 생명을 유지 보존되게 한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양식을 위해 존재하고 그 잎은 치료를 위해 존재한다. 주 예수, 이분은 스스로 생명나무이셨을 뿐만 아니라 참 포도나무되시고 제자들은 그 나무의 가지가 되는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여 그분의 일을 끝내는 것이다” (요한4:34). 자연적 양식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노동의 열매이다. 진리의 노동, 시련의 땀흘림은 사랑의 노동에 앞서 있다. 이는 인류차원에서 개인차원에서도 참된 질서이다. 생명의 나무로부터 내쫓긴 아담은 그가 취해진 흙으로 되돌아 갈 때까지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땀으로 얻어지는 빵을 먹게 되었다. 생명의 나무가 회복된 지금이라도 인간들은 그 나무에 이르는 자기 길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아를 부정하는 생활을 통하여 사랑의 삶, 사랑이라는 생명, 최고의 행복을 쟁취해야 한다. 생명나무에 풍요로움과 다채로움을 주는 것들은 생명나무에 이르기 위해 진보해간 상태들이다. 앞에서 행동되어온 모든 상태들이 지닌 덕목들은 마지막 상태와 병합되어 있다. 종교에 있게 되는 모든 품위들은 사랑 안에서 만났다. 그 이유가 기독교인이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상태, 마지막 상태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추측해 볼 때 마지막 교회의 사랑과 생명은 처음의 교회보다 더 다양하고 더 탁월해 있을 것 같다. 처음의 에덴에 있는 나무는 한가지 종류의 열매만을 생산한 듯 우리에게 비쳐지고 있다. 두 번째 에덴에 있는 나무는 열 두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되어 있다. 처음의 나무는 한가지 상태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지만 두 번째의 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다. 이는 심정상태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참으로 우리가 처음의 교회(the first church) 내지 태고 교인(primeval man)을 놓고 상상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그들은 사랑 내지 사랑의 생명에 이르되 단번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그들을 가장 높은 품위에 도달하게 한 상태들의 연속은 타락한 인간의 후손이 사랑이라는 최고점을 향해 위쪽으로 투쟁해 간 상태들의 연속과는 다른 종류의 연속이었을 것은 재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사랑의 상태와 더불어 믿음의 상태도 지녔다. 즉 그들의 해가 낮을 주관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밤은 달이 주관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의 상태들은 현 우리의 것과는 다르다. 그들의 경우, 믿음은 사랑의 수행원 수준밖에 안되었다. 단지 낮이라는 밝은 상태, 적극적인 사랑의 노동에 이어 저녁이라는 그들이 드리울 때 사랑의 빛을 되반사하는 수준에서 그들의 믿음은 머물렀다. 우리 세대의 경우, 믿음은 더 나은 어떤 것이 되어있다. 어떤 이들은 태고적 질서, 참된 질서를 거꾸로 해서 사랑을 믿음의

수행원, 보조자로 간주해버리고 있다. 사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진정한 관계를 잘 인식하고 있다해도 믿음은 사랑의 등불에 언제나 머물고 있지를 않는다. 때로 믿음이 거듭나려는 자신에게 사랑에서 독립된 믿음 자체인 듯 여겨질 때가 허다하다. 어느 진짜 믿음도 사랑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종교적 삶의 초보단계에서 믿음이 형이 되고 사랑은 동생 되는 듯 여겨진다. 믿음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 듯 여겨지는 동안 이라 해도 진짜로는 사랑이 믿음을 수단으로 사랑 자체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모든 진짜 삶에서 사랑은 적극적인 힘이 되어 있으나 믿음은 반응적인(reactive) 힘만을 발휘한다. 이런 논리가 우리 자신과 거리가 멀고 알아채릴 수 없다해도 어찌됐든 사랑은 거기에 있다. 어찌됐든 사랑 없이는 생명도, 생명의 진보도 아무 것도 있을 수 없다. 믿음의 빛은 사랑의 빛이 반사된 수준 그 이상이 결코 될 수 없다. 거듭나는 삶의 진보에서 어느 때가 온다. 그 때란 달의 빛이 태양의 빛같이 될 때이다. 그리고 태양 빛이 칠 일 동안의 햇빛같이 일곱 겹이 될 때이다. 그 때란 믿음의 차가운 빛이 사랑의 따뜻한 빛으로 변할 때, 그래서 사랑이 거룩함으로 완전해질 때이다. 이런 변화를 있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점차적으로 발전되게 해서 그 믿음을 통해 정의로운 행동이 있게 인도해주는 것, 그것은 은밀하게 역사하는 사랑이다. 외관상으로 보고 인간들이 믿음의 열매라고 부른 것도 자세히 음미해 본체를 파악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열매이다. 단지 열매를 생산하는데 수단이 된 믿음 때문에 사랑의 품질에 차이가 있는 것 뿐이다. 사랑은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나 그 결실의 성과는 믿음에 따라 차이가 난다. 생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달마다” 산출했다. 이 구절의 달(month)이란 음력으로 된 달이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달(moon)은 믿음을 상징한다. 어쨌건 계절이 매 달마다 한바퀴 돌면서 수확이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기묘한가! 그러나 이 구절은 이런 유익한 교훈을 주고 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상태는 사랑의 상태인바 정의라는 평화로운 열매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일이 없는 믿음은 실상 죽어있다.”

생명의 나무는 열매 외에도 우리의 현재 상태에 필수되는 어떤 것까지 생산하고 있다. 우리는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지만 치료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를 죽게 하는 질병이 도사리고 있는 이상 우리 영혼이 자양분을 제대로 흡수할리 만무하다. 미워함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사랑함에 힘이 있을리 만무하다. 악의 권세가 득세하는데 선함이 어떻게 세력을 넓힐 수 있을까? 악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선함이 발전하는 도중에서이든 그 본질 측면에서 이든 그 둘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어쨌든 생명나무가 심정에 이식되면 그 나무는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잎과 양분을 공급하는

열매를 생산해준다. 열매에 앞서 잎이 먼저 출현해야 하듯 우리가 열매를 즐기는 선용이 있기에 앞서 잎이 가진 치료하는 효능을 먼저 체험해야 한다. 그 이유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실생활에 관계해서 하는 말이지 명목상의 기독교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는 삶의 바깥쪽에서 획득한 종교적 지식이 아니라 내면의 생명에서 솟아나는 영적 진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기억 안으로 수집된 종교가 아닌 심정에서 자라 오르는 종교 체험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심정의 옥토에서만 생명나무는 뿌리를 확장할 수 있어 치료하는 잎과 열매의 풍성함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에서 생겨나는 잎사귀란 의지에서 썩어 터 지성에서 자란 진리들, 또는 애정으로부터 생각 속에 있는 진리들을 말한다. 따라서 이런 진리들은 사실(fact)들이 아닌 직감(perception)들이다. 이 진리들은 합리적으로 납득되어 있는 영적 진리들이다. 물론 합리적 진리들이 언제나 영적 수준의 진리인 것만은 아니나 영적 진리만은 언제나 합리적이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진리도 이성(reason)에 상반되는 것을 참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어쨌든 진리를 테스트할 때의 기준은 합리적임에 있다기보다는 유용함(utility)에 있다. 진리는 실수(error)라는 것보다 악에 더욱 반대되어 있다. 우리가 진리를 지녔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큰 징표는 진리가 자신에게 자기의 죄를 확신시켜 주는 정도에 의존된다. 이것이 만국 백성을 치료해주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형상화되어 있다. 주님 자신이 생명 나무되신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으로부터 영적 양식을 공급받듯 그분은 유일한 의사도 되어 주시어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료해주신다. 둘째가는 수준에서 생명나무는 그분이 밝히 알게 하신 말씀(His revealed Word)이시다. 말씀이 가르치는 사랑과 선함은 영의 양식을 위한 열매이고 말씀이 가르치는 믿음 속의 진리는 영의 치료를 위한 잎사귀이다. 약이 진리와 상응되는바 의사는 진리를 섬기는 사람들과 상응된다. 하늘의 처방으로 내려오는 지상의 새 교회에서 치료를 위한 진리들은 합리적으로 설명된 영적 진리들이다. 제 아무리 영적 진리가 영혼을 치료할 수 있다 해도 우리가 그 진리를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치료되지 않는다. 말씀의 합리적 이해는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켜주고 마음에 확신이 서게 한다. 만족과 확신을 주는 진리가 삶에 응용될 때 악이 제거된다. 따라서 진리를 제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해도 그것들 모두가 제 영혼의 치료약이 되어주지 못한다. 진리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악행을 중단하게 하는 기능과 선행을 증진시키는 기능이다. 악을 금하게 하고 행실을 고쳐주는 진리는 생명나무의 치료하는 잎사귀이고, 가르쳐 삶을 인도하는 진리는 완전한 영혼(perfect soul)과 선함이라는 열매이다.

3.4. 죽음과 슬픔과 이쁨이 제거된 상태에 “이제 그 도성에는 저주받을 일이 하나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신성한 약속이 이 구절에서 첨가되고 있다. 22장 14절에서 “그분의 계명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 반대가 계명을 행하지 않을 경우이고 이때 저주가 있다. 이 대목은 모세가 이스라엘 후손들을 향한 엄한 훈계에서 발견된다. “보아라. 오늘 내가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 놓는다. 주 너희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고 순종치 않을 경우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11:26). 위 주제를 두고 신약과 구약의 가르침에는 차이가 전혀 없다. 그러나 축복과 저주라는 단어의 근원과 본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이해에는 다른 점이 있다. 유대인들은 이 두 단어를 일시적, 바깥 측면, 재판이라는 측면을 중시해서 이해했다. 기독교인들 역시 유대인의 생각 쪽에 어느 정도 기울어 있지만 다른 점은 일시적인 축복과 저주가 영원히 있을 축복과 저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기독교인은 축복과 저주라는 단어를 보상과 벌로 이해해 왔다. 새 예루살렘의 빛은 위 두 부류의 생각에 더 밝은 조명을 드리워 중요한 문제를 규명되게 한다. 하느님은 단지 바깥쪽 측면의 보상을 내리신다 거나 바깥쪽 측면만으로 처벌하시는 일도 결코 없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축복과 저주란 내면상태의 바깥쪽 결과일 뿐이다. 축복은 내향의 선함의 결과요 저주는 내향의 악의 결과이다. 우리는 선함 때문에 보상받게 아니라 선함을 통하여 보상을 받는다. 우리는 악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악을 수단으로 벌을 받는다. 하느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선함의 저자(the Author of goodness)이시다. 그분은 저주를 처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기에 그분은 악의 저자(the Author of evil)가 아니시다. 선한 자에게 무보상이란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선함은 선함 자체가 그 보상이기 때문이다. 악한 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악은 악 자체가 처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는 이 세상에서는 위의 설명처럼 분명하지 않다. 그 이유가 이 세상은 수습기간(probation)에 해당되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 세상은 축복있는 현실과 끔찍한 현실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그 곳은 결실(fruition)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저 세상에서는 축복과 저주의 근원과 본성이 이 세상에서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지고 느껴진다. 그 이유가 선과 악이 확실하게 직감되기 때문이다. 이런 어정쩡한 생각도 있을는지 모른다. 선이나 악이나 또는 정의나 죄이나는 그 자체의 본성으로 언제나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금하거나 명령하는 법에 의해서라고 생각할 때이다. 만일 이런 견해가 우세해지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영원히 반대되는 위 두 품성, 선과 악에 관해 충분히 살펴 알려 들지 않을는지 모른다. 그리하여 선과 악이란 것은 우리로는 어쩔 수 없는 상속분으로 이해를 굳히면 하느님의 어떤 명령도 소용에 닿지 않게 된다. 그분의 뜻에 일치한다면 그것은 선이고 그 반대는 악이다. 다시 말해 그분의 속성에 일치한다면 그것은

선이고 그 반대는 악이다. 그 이유가 그분의 속성과 뜻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저주를 피하고 축복을 확고히 하기 위해 선과 악에 따라 오는 그 결과와 그 본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악을 금하고 선행을 도모하리라.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가 그 도성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뵈을 것이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느님이 새겨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옥좌는 저주받은 자 또는 저주받을 것과는 정반대 된다. 천국은 하느님의 옥좌이고 이 옥좌는 공정과 정위 위에 건설되어진다. 공정과 정의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이 교회이든, 각 개인의 심정과 지성이든 그곳에는 하느님의 옥좌가 펼쳐진다(시편89:44). 주님께서 심정과 지성에 있는 공정과 정의 위에 옥좌를 펴실 때 악이나 거짓된 것들의 통치는 막을 내리고 선함과 진리의 통치가 드디어 시작된다. 전자는 저주이고 후자는 축복이다. 불순종이라는 저주가 제거될 때 주님의 옥좌가 건설되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긴다. 한 개의 옥좌에 두 분이 앉은듯, 또는 옥좌가 둘이 있는 듯 그럼에도 하나인 듯 생각되게 위 구절이 말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 구절 역시 중요한 가르침, 즉 주 하느님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은 신성과 인성으로 구성된 한분 신성한 인물(one Divine Person), 마치 영혼과 육체가 둘이지만 언제나 하나이듯 한분 그리스도밖에 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또 다른 성경의 예에 해당된다. 이 구절에서 다시 언급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중성(duality)과 하나됨(eness)이 부각되도록 표현된 이유는 교리적 측면에서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실제 응용에서도 주목해야 할게 있기 때문이다. 교인이라면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다.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 관한 올바른 관점(a just view)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로 된 삼위일체(Trinity in unity)에 관해 혼돈하지 않고 미혹당함 없이 분명하고 만족하는 가운데 예배의 대상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위대한 진리는 교인의 마음 안에서 등불로서 빛을 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리적 진리(dogmatic truth)는 똑같은 것을 다른 면모로, 또는 납득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같은 것을 함유할 때도 있다. 그러기에 신성과 인성이라 말한 것을 사랑과 지혜로 표현하기도 한다. 마치 한 인간이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지만 또 다른 면모로 볼 때 한 인간이 의지와 이해성으로 구성되는 것과 같다. 주님 안에서 사랑과 지혜는 따로 따로 구분되는 둘임에도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런 이유로 위 구절에서 한 옥좌에 둘이 언급되면서도 하나로서 말해지고 있다. 사랑과 지혜가 주님 안에서 하나이듯 우리 안에서도 하나이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으로부터 파생된 사랑 외에 진실된 사랑은 없다. 동시에 하느님으로부터 파생된

진리 외에 참된 지혜는 없다. 우리의 사랑과 지혜, 이타애와 믿음이 선한 일 안에서 하나되어질 때 하느님의 형상이 된다. 이럴 때만이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을 뵈 수 있고 우리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씌어진다. 우리의 의지가 그분의 계명을 행할 때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의 이해성이 그분의 지혜를 직감할 때 그분의 얼굴을 뵈게 된다. 우리의 심정이 그분의 사랑의 힘을 느낄 때 우리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씌어 있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생각해본 뒤 그 뜻에 일치할 수 있게 행동할 때 그분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진다.

5. 주의 종들이 그분을 뵈은 높은 산,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그 곳, “그 도성에는 밤이 없어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 장(21:23-25)에도 위 구절과 비슷한 서술이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순서와 형태와 연결이 서로 사이에 있다. 어떤 독자의 경우 왜 두 서술이 불과 몇 절을 띄워놓고 금새 반복되어야 했을까? 라고 자문해볼는지 모른다. 거기에는 확실한 이유 하나가 있는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리라 본다. 앞 장은 도성 안으로 영광과 영예를 지닌 백성과 왕들이 거룩한 성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거나 최소한 들어오는 도중과 관계되고 있다. 이 구절은 도성 안에 실지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분을 섬기는 주의 종들과 관계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과 이미 들어와 있는 교인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과도 비슷하다. 영적 사항과 영적 상태의 서로 관계되는 중요성과 질서는 거듭나는 삶의 진보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 우리가 첫째간다고 생각했던 것이 꼴찌가 되고, 꼴찌라고 우습게 여긴 영적 사항의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첫째 자리에 앉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것이 앞 장과 본 장의 관계 측면에서 부각되도록 표현되어 있다. 앞 장의 경우 “밤이 없음”은 하느님의 빛이 영원히 비친다는 서술 뒤를 잇고 있다. 본 장의 경우 이 서술은 거꾸로 되어 있다. 앞 장은 도성의 문과 연결된 서술이지만 본 장은 도성 자체와 연결되어 언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문은 개종자(proselyte)와, 도성은 거주민과 연결되고 있다. 두 군데에서의 표현과 형상 역시 다양하다. 앞 장의 경우 도성을 비칠 해나 달이 필요 없는 반면 주의 종들에게 햇빛과 등불이 필요 없다고 말함으로써 양쪽의 형상과 순서가 바뀌어 있다. 앞 장의 경우 하느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고 있는 반면 어린 양이 등불이고 주 하느님이 빛을 주시고 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달이라는 자연계 수준의 빛도, 등불이라는 인공적인 빛도 없다는 말이다. 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자연적인 수준의 빛으로도, 자기가 창작한 총명으로부터 서도 파생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소유인 빛으로부터, 그분의 영을 수단으로 말씀 안에서 주시는 빛에 의해서만 믿음을 지닌다는 말이다. 자연의 빛은 새 교회인을 거룩한 도성의 문으로 들어가게

할 수 없다. 자기 총명의 빛은 도성 안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 태양이 떠오르면 달빛이든 등불 빛이든 우리 시야에서 힘을 쓸 수 없듯 인간에 속하든 자연에 속하든 모든 빛은 정의의 태양(the Sun of Righteousness) 광선의 한줄기만 비쳐와도 사라져 흔적도 없게 된다. 주님이 빛의 근원 되고 빛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되어질 때만이, 그분의 권세의 옥좌가 그분의 종들의 심정에 설치될 때만이 “그들은 영원히 다스리게 되리라.” 3장 31절에서 “승리하는 자는 마치 내가 승리한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옥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옥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되어져 있다. 그리고 구속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을 하느님에게 왕과 사제로 만드신 구속자를 찬양한다. 어쨌든 위 본문 같이 사도들의 영원한 통치란 무엇일까? 승리를 거두고 천국에 있는 교회 멤버가 그들일까? 새 예루살렘의 빛은 이 문제에 더 깊은 곳을 관찰할 수 있게 조명을 드리우고 있다. 천국에서 다스리는 이들이란 천국이 다스리는 이들이다. 승리한 사람들은 예수와 더불어 그분의 옥좌에 앉아 있다. 그들의 정복이 그들 자신을 넘어 있었듯이 그들의 다스림도 그러하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왕국이다. 그들의 생각과 애정, 열정, 욕구 등등이 그들의 신하들이다. 그들이 이런 자기 속의 모든 것을 정의로 통치할 때 그들은 자기를 모두 다스리는 셈이다. 그들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함이라는 원리로 꾸준히 다스림을 계속한다면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다.”

6-9. “그 천사가 또 나에게 ‘이 말씀은 참되니 믿어도 되는 말씀이다.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곧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보여 주시려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자, 내가 곧 가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나서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러지 말아라. 나도 너나 네 형제인 예언자들이나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중에 지나지 않는다. 경배는 하느님께 드려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절에서 나타나는 세부항목들은 앞 장에서 이미 등장했던 말씀들이다. 물론 우리는 앞 부분의 설명과는 별도로 본 장에 특이한 사항을 중점으로 살피고자 한다. 반복된 말들이라 해서 불필요한 언급이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리라 본다. 똑같은 의미를 기억에서 새롭게 강조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게 의도된 것이라고도 생각해선 안된다. 짧은 지면인데도 “이 말씀은 확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라는 사항을 여러 번 확인하여 주고 있다. 더불어 “내가 곧 가겠다”는 선포도 그러하다. 요한이 경이로운 광경을 보여준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했던 것도 두 번이다.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책이 말씀이다 고 생각한다면 말씀의 어느 한 구절도 헛되거나 무용지물하다거나 의미 없이 반복했다거나 하는 등등의 결론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반복이 있다면 거기에는 다른 조건에 똑같은 진리의 선언, 다른 인간 상태에 같은 진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말씀이 신성하지만 같은 태양 광선이라 해도 통과하는 매체에 따라 그 빛의 굴절 내지 빛깔이 달라지듯 말씀도 그러하다. 6절의 말씀은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 19장 9절에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들이다.” 21장 5절의 경우, “이 말은 참되니 믿어도 된다. True and faithful.” 22장 6절은 “이 말씀은 믿을 수 있고 참되다. Faithful and true.” 이 세 가지 형태의 표현은 인간 상태의 진보를 표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 참되니 믿을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믿어보니 정말 참됨을 입증하는 신앙의 발전 단계를 생각나게 한다. 세 표현 중 중간과 마지막의 경우는 같은 단어가 위치만 서로 바뀌고 있다. 이런 표현은 심정 상태의 바뀔을 말해준다. 즉 진리가 선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 선은 진리를 수단으로 행동하는 신앙 생활의 상태이다.

이런 확증을 요한에게 준 천사가 말을 계속하고 있다. “거룩한 예언자의 주 하나님께서는 속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사항들을 그분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루어져야만 하는 사항들”은 계시록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납득 가능한 관점에서 이런 사항들은 세 가지, 즉 교회의 상태가 까별려지고, 일반적 심판에 의해 그 교회가 끝을 보도록 놓여지고, 그 교회 대신 새로운 교회가 구성되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조건들과 분리할 수 없는 연결이 되는 사항은 주님의 오심이다. 그분은 방문-심판-회복이라는 세 수단으로 오신다. 구약성서의 예언에서 이런 사항들은 끊임없는 계속과 연결 가운데서 발견되는데 마치 신약성서의 예언에 있는 사항이 사도 요한의 예언에서 대부분 충만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의 주 하나님은 이런 사항들을 요한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신 것이다. 기독교회가 거쳐 온 각종 상태들은 기독교회 이전의 하늘이 내린 처방에서 이어져온 단계와 비슷하다. 기독교에 앞서 존재한 교회같이 기독교도 기울고 끝을 본다. 본래의 순수함이나 단순함이 간직되어 오지 않는 것, 교파끼리 책임을 묻는 질책 말고는 자기 교회의 부패를 솔직히 고백하는 자가 매우 적다는 것, 이런 것 외 모든 것도 그대로 허용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는 적 그리스도, 냉소하는 것 등등들이 교인의 욕망을 타고 득실거림이 등장한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인정한다. 게다가 교리나 생활의 부패로 예고되는 끝이 이 세상의 끝인 듯 상상한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세상의 끝, 종말”이라는 말을 그것에 상응되는 영적인 것 또는 종교적 측면의 의미로 생각해보면 그 말은 교회의 종말이

된다. 이성과 과학, 이것이 뜻하는 그대로와 같이 이성이 건전하고 과학이 참되면 성경의 진짜 의미를 입증하는 수단이 되어준다. 신약의 예언과 구약의 예언을 비교해보고 같은 언어라면 같은 영적 수준의 해석을 똑같이 주어보라. 그러면 과거 주님의 제자들이 같은 예언 구절을 가지고 생각해도 유대인들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머물렀듯이, 성경의 글자에 있는 자연적 수준의 형상들은 그것이 영적 수준의 진리로 바뀌면 제 아무리 세상에서 세력을 떨치는 해설이 있다해도 그 해설을 훨씬 넘어서게 되리라. 영적 수준의 해석은 “보라 내가 곧 가겠다” 라는 간단한 선포문에서도 얼마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 금새 판가름된다. 수많은 교회가 이 천 년이 넘도록 위 구절의 말씀을 기다려 왔다. 그런데도 아직 주님이 오실 징조는 없다. 어쨌든 우리에게 상기되는 말은,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고 조롱하는 사람에 대한 베드로의 응답, “주님에겐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 년 같다”, “그분은 누군가가 꾸물거림을 세어보듯 그분의 약속에 대해 꾸물거리시지 않는다. 그분은 누군가가 멸망을 초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더구나 모든 이가 회개하도록 우리 쪽을 향해 오래오래 참으시고 있으신 분이다...” 일는지 모른다. “...속히 오겠다”는데 대한 반복된 보증은 그분이 시간 넘어 계신 분, 가장 긴 시간이나 가장 짧은 시간이나 똑같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동시에 시간의 제한이 있는 위 보증하는 말의 표현에는 시간의 제한이 없는 생각이 담겨 지도록 의도되어 있다는 것까지 암시 받게 된다. 엄격히 잘라 말하면 시간은 물질계의 생각이다. 영계 또는 영적 사항에서는 물질계에 속하는 시간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시간이 존재하듯 교회나 천국에는 상태(state)가 존재한다. 자연계에서의 발전(progress)은 시간의 전진(progress)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그 이유가 지상에서의 상태는 시간 안에서 형성되고 발달되기 때문이다. 상태가 시간 안에 들어 있다해서 시간이 상태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상태는 시간 내에 있음에도 시간을 넘어서도 있는데 이는 마치 마음과 육체의 관계와도 같다. 시간의 상태와 상응되는바 본문이 “속히 오심” 또는 짧은 시간과 상응되는 것은 무엇일까? 시간 개념에 속하는 “빠름, quickness”은 상태 개념에서는 확실함(certainty)이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은 그분께서는 확실히 오신다는 약속을 뜻한다. 더구나 그분은 저주하는 분이 아니고 복의 근원되시는바 그분이 확실히 오신다는 이 보증은 그분의 오심을 소개받는 인간 상태에 대한 영화로움과 복을 내리심에 대한 약속도 된다. 그러므로 “곧 가겠다” 는 말씀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는 선포가 이어진다. 이 사람들만이 그분의 오심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들만이 주님의 오심을 지켜보면서 주님의 집안식구를 먹여 살리는 믿을 수 있는 슬기로운 청지기들이다. 이들만이 주님의 부재 시에도 그분의 숨씨로 고용하는 선하고 충직한

종들이다. 이들만이 등을 들고 신앙을 맞되 기름 채우기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종들에게서만이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 같은 행함이 발견된다. 결론적으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행복하다.” 예언들은 그 예언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는 좀처럼 이해되기 힘들어서 사전에 예언의 내용을 준비한다거나 그 예언에 참가하는 것 등등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서의 의미들을 가르침으로 간주하면서도 계시록을 읽을 경우 이 책으로부터 서는 실생활에 직접 응용되는 가르침의 거의 없는 듯 여긴다. 그러나 계시록의 선포 내용들이 의미심장하게 여겨 “예수의 증언이 예언의 영”이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책의 예언이 말하는 것”에 대해 글자대로그가 아닌 영의 차원에서 지키고, 반드시 지켜진다면 새 예루살렘 시민이라는 복된 인간 조건을 확고히 하리라. 예수의 증언은 모든 예언의 예수를 인간의 주님이시오 구세주 되심에 귀결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뿐 아니라 예수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되는 새 심정과 올바른 영을 주시는 바로 그분 되심에 대해서도 내향의 증인이 된다. 예수는 우리에게 새 의지와 이해성을 창조하심으로 우리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내향의 증거를 주신다. 이 내향의 증거는 주님께서 계시록의 정점에 해당되는 새 예루살렘을 소개해 줄 수 있도록 신앙자들로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한다. 이 책이 말하는 것은 결국 새 교회(the New Church)에 관한 것, 그 교회의 교리와 원리들이다. 이 원리란 이미 진행해온 긴긴 해설에서 살핀바 같고 간략히 말해 주님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 이 사랑은 죽은 믿음과 죽은 행함과 전혀 다르다. 이 책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전부에서 이르는 말들을 내향적으로 관조한다면 사랑과 이타에 외에 아무 것도 없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런 사실을 보여준 천사를 너무 거룩하게 여겼던 바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했고 요한 스스로 이 책은 이 책이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랑과 이타애(love and charity)는 천국의 원리이자 교회의 원리이다. 요한은 예언자의 한 명이 되어왔다. 주님의 첫 오심과 그 왕국에 관한 예언을 말한 사람이 이사야나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요한의 경우는 주님의 재림과 그 왕국을 예언한 것이고 지금 그는 자신에 의해 선포된 예언을 새롭고 더 눈부신 빛 가운데 보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는 예언이라는 낱말로 말했던 것을 지금 그는 천사의 지혜라는 빛으로 보았다.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사항들, 그리고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고 들은 사항들은 천사의 경우 환히 이는 사항들이고 천사의 시야가 도달 가능한 만큼에서 사람들에게도 열려져 있다. 요한은 이미 천국적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지상의 예루살렘에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천적 수준의 방법을 따라 그 예루살렘의 실체와 형상도 알고 있었다.

비록 요한의 지혜나 직감이 천사의 수준이었다해도 그의 능력은 아직 신성한 존재로부터서는 거리가 아주 먼 상태에 불과하다. 사실 천사들의 지혜만 가지고도 인간과 비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여서 본문에서 요한이 천사에게 했듯이 천사 앞에 꿇어 경배할는지 모르지만 천사들은 하느님으로부터서 무한히 먼 위치에 있음을 아느바 주님 앞에서 자기들은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천사들이 아느바, 무한과 유한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 가장 높은 천사의 지혜도 마치 자기들이 무한한 분의 유한한 형상이듯 무한한 지혜를 유한하게 납득한 그 이상의 지혜는 없다는 것 등등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천사들은 지혜 자체, 선함 자체로부터 무한히 먼 거리에 위치한다는 것을 더 명백히 직감하느바,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더 깊이 느끼고 있다. 천사들이 인간보다 더 진실되게 보고 느끼는 것은 자기들의 지혜나 선함은 주님으로부터 있어졌다는 것, 자기들의 모든 선물, 즐거움은 그분께만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요한이 제 영혼을 채운 경이로움보다 더 눈부시게 아름다운 천적 수준의 존재가 자기 앞에 있는지라 꿇어 경배하려 했던 것은 새삼 이상한 행동이 아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 요한이 신성한 존경을 받으라고 천사에게 제의하자 그는 거룩한 두려움에 오그라져 “이러지 말아라” 하고 선포한다. 그 이유가 인간과 비교해서 제 아무리 높은 천사라 해도 과거 인간이었다는 점에서 모두 같다. 천사나 인간 공히 동료 수준의 종들에 불과하다. 두 부류는 형제이다. 모두 생명의 동일한 법칙에 종속되어 있다. 모두 순종을 요구하는 한분 신성한 스승, 하늘에 계신 한분 아버지를 모신다. 이 스승이자 아버지란 천사가 요한에게 경배할 대상을 말했듯, 모든 천사가 경배해야 할 하느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10.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음을 요한에게 보여 준 천사가 더 말한다. “그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다니엘이 주님의 첫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환상으로 받아 보았을 때 그에게 “이것은 장차 정해진 날에 틀림없이 이루어지겠지만 오래 있다가 될 일이니 비밀에 붙여 두어라” (다니엘8:26) 라고 당부하였다. 이 구절에서 말한 “오랜 날”은 시간으로 계산해볼 때 계시록의 위 구절에서 말하는 “그 때”까지 만큼의 오랜 날이 걸린 것도 아니다. 더구나 시간은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단어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젠 밝혀진 상태여서 오랜 날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그러나 왜 다니엘의 환상은 비밀에 붙이라고 했고 요한의 환상은 봉하지 말라고 명령되었을까? 두 환상에 연결된 주변 환경과 그 상태들은 매우 다르다. 유대교회는 교회를 죽이는 글자라는 총체적 어둠 속을 기어 들어가 결국 그들에게 말씀 자체는 봉인된 책이 되어버렸다. 기독교회, 역시 근본적인 순수함, 또는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함으로부터 멀어지기는 했지만 유대교회와 똑같은 정도로 말씀이 닫힌 것은 아니다. 유대교회는 메시아의 강림을 부정하고 거절함으로 말씀, 특히 예언적 말씀을 통째로 닫히게 했고 아마도 영영 닫혀 있을는지 모른다. 기독교회는 주님만이 신성함, 그리고 그분의 인성이 신성함(the Divine of His Humanity)을 거절하는 만큼에서 말씀을 닫히게 했다. 그러나 그분만이 신성한 한분 존재라고 인정 못했다 해도 신성한 분은 한분이심을 어렵듯하게나마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말씀은 열린 채 놓여 있다. “봉하지 말라”는 천사의 명령은 계시록에만 국한되어 명령한 듯 여겨질지 모른다. 직접적으로는 그러하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볼 때 이 명령은 말씀 전체에 관계된다. 그 이유는 성경의 증거는 오로지 하나에만 초점이 모아지기 때문이다. 계시록에 관해서만 생각해본다면 요한에게 내려진 위 명령은 얼른 이해되기는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떤 의미 측면에서 요한은 말씀을 봉하고 또는 열어 두어야 한다는 말일까? 요한의 역할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밝히 알게 함(계시, reveal)에 있다. 그가 예언을 남겼을 때 그가 말씀을 담은 것도 아니고 열어 둔 것도 아니다. 또한 그것을 봉한 것도 아니고 봉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일 뿐만 아니라 약속, 즉 때가 가까웠다는 약속, 예언이 언급한 교회의 상태는 확실히 있어진다는 약속, 이런 상태가 극에 달할 때 책의 열림이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하다. 참으로 책의 열림은 때가 가까웠든, 때가 아직 확실하든 것은 아니었던 마지막이라는 최극점 이전에 거행된다. 이런 때가 계시록이 집중적으로 관계를 갖는 때이다. 계시록의 예언은 누누이 설명했듯이 역사적 측면이 아니라 영적 측면이다. 계시록은 때를 다루는 게 아니라 상태를 다루고 있다. 계시록은 교회가 일어설 때의 상태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자기들을 결정짓는 날(타작마당)을 위해 스스로 만들어 온 단계가 무르익었을 때 까뻐려 놓인 교회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계시록의 언어들에 예언의 언어임을 고려해본다면 우리는 계시록이 주어졌었던 때 그 뒤로 생각을 되돌려 가선 안된다. 오히려 계시록이 묘사한 상태가 시간 안에 명백해지는 때가 언제일는지 몰라도 앞 쪽으로 생각을 가져다 놓는 게 더 낫다. “속히 오리라”,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은 그 말이 관계되는 사건 자체의 저녁 때 즈음에 발표된 예언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른다.

11. 천사가 선포한 때가 가까웠다는 그 때란 주님이 오시는 때, 마지막 심판의 때이다. 교회가 기울고 기울어 더 이상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더 이상 영적 측면에서 만날 수 없게 될 때 심판은 거행된다. 각 개인의 경우처럼 교회들도 질병이 만연되거나 쇠퇴라는 자연스런 과정에 의해 사그러 없어지거나 이런저런 매개체가 복합적으로 발생해 끝장을 볼는지 모른다. 죽은 뒤의 심판이라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정해진 운명이다. 그러나 모두에게는 죽은 자로부터서 부활한다는 것도 약속되어 있다. 계시록에서 약속된 새로운 하늘의 처방은 그 전의 모든 하늘의 처방들이 새롭고 더 높은 생명의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약속, 즉 더 영적 차원에서, 더 젊은 싱싱함에서, 더 활기 있게 된다는 약속이다. 이것이 생명으로의 부활이다. 그러나 죽음으로의 부활도 있다. 부활이 이러하듯 심판에도 죽음과 생명이 있다. 마지막 때에 하늘의 처방 아래 살아왔던 모든 이들은 심판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어떤 이는 영원한 파멸로 가도록 판정되고 그 뒤 각자에 따른 모든 그의 상태는 고정되고 만다. 이러면 아래의 진리들을 실감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두어라. 올바른 사람은 그대로 올바른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라.” 영혼의 상태, 그 영혼이 지상에서 어떠한 저 세계에서는 그대로 바뀌지 않는채 영원히 있게 된다는 엄숙한 경고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신성의 어떤 칙령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 세계의 법적 처리 같이 보상이나 처벌 또는 유죄의 유무를 가리는 틀에 짜인 판결이 아니다. 신성한 심판은 인간 껍질을 마지막으로 벗기는 것, 그와 동시에 인간을 변장시킨 것들을 완전히 벗겨 영혼 그대로가 나타나도록, 불의하든, 욕심 가득하든, 올바르든, 거룩하든 모든 영혼이 적나라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악과 거짓을 억누를수 없어 그 쪽으로 기울기를 좋아하는 경향성을 지녔다면 그는 이를 수단으로 지옥으로 내려가 태어나는 셈이 되고 만일 선과 진리 쪽으로 기울려는 경향성을 지녔다면 천국으로 들리워 진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단련을 받아 깨끗해져서 빛날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끝내 눈이 열리지 않아 악한 짓을 계속하겠지만 슬기로운 지도자들은 눈이 열려 환하게 알 것이다...슬기로운 지도자들은 밝은 하늘처럼 빛날 것이다. 대중을 바로 이끈 지도자들은 별처럼 길이길이 빛날 것이다”(12:10,3). 저 세계에서 지나는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의 식별 그리고 그것들의 분리하는 자연계에서의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의 식별 내지 분리시킴으로 야기된 결과에 해당된다. 그런 결과 불의와 불순, 정의와 거룩함 등등 모든 것은 그것 자체의 진짜 품성으로 보여진다. 사실 지상에서도 본성은 바뀔 수 없고 제 품성에 전혀 반대되는 쪽을 계속 견지할 수 없지만 대체로 선과 악 그리고 진리와 거짓은 너무 불완전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악이나 잘못들이 우세할 경우에는 아예 혼합되어 있기까지 한다. 그러나 심판은 이런 판결에 있는 허점을 제거해준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상에 있게 될 때 세상 주민들은 정의를 배운다 (이사야26:9).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였는데 이 심판은 볼 수 있는 자를 볼 수 없게, 볼 수 없던 자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었다 (요한9:39). 모든 신성한 심판의 최말단 목적은 도덕적 수준의 것을 순수해지게, 정신적인 시야를 맑아지게 해서 선과 악 사이의 영원한 구분이 더 분명하고 절대로 실수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심판의 범주에 위 구절이 포함되고 있다.

12. 심판은 꼭 있다는 약속은 악을 억제시키고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자,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 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간다.” “곧, quickly”이란 확실함이다. “...그런 자가 하느님의 심판을 면할 것 같습니까?...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 주시리라” (로마2:3,6). 본문이 주는 보장은 위협받으라는게 아니라 약속일 뿐이다. 따라서 위 말씀은 두려움을 야기시키는데 의도를 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불어넣어 주려는데 있다. 즉 “내가 상을 가지고 간다”는 말에 힘이 실려 있다. 주님의 첫 강림에 관한 장엄한 약속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주 하느님께서 저기 권능을 떨치시며 오신다. 팔을 휘둘러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보람으로 찾은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수고하신 값으로 얻은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 목자처럼 당신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시며 새끼 양들을 두 팔로 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어미 양을 곱게 물고 오신다” (이사야 40:1,10,11). 이사야 62장 11,12절에도 위와 비슷한 기록이 있다. “수도 시온에게 일러라. 너를 구원하실 이가 오신다. 승리하신 보람으로 찾은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수고하신 값으로 얻은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 이라 ‘야훼께서 구해내신 자들’ 이라 부르겠고 너를 ‘그리워 찾는 도시’, ‘버릴 수 없는 도시’라 부르리라.” “자기행적에 따라 갚아 주기 위해서”는 선한 자와 악한 자에 내리지는 심판을 표현한다는 것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없다. 그러나 “...상을 가지고 간다”는 말은 의로운 사람에 한정된 약속이다. 그러나 죽음 또는 심판에 의해 주님께서 오시어 각자 행적대로 갚아 주기 위해 상을 가지고 오실 때 의로운 사람을 위한 위로나 용기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자연계에서 있어지는 보상을 생각하는데는 익숙한 편이다. 그러나 보상의 진짜 가치 또는 진정한 보상을 실감하는데는 상당히 덜 익숙해 있다. 기독교인의 보상은 내향으로 받게 된다는 확신을 깊이 느껴보는 것조차 쉽지는 않다. 게다가 주님 스스로 보상을 내리신다면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보상 중 가장 드높은 보상만을 주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힘든 게 우리 인간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셨다.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 주며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 (창세기15:1). 이 구절은 그분께서 가장 위대한 보상자되셨음을 뜻한다고 이해해 볼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 더 명료하고 더 엄격한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주님은 거룩한 인생을 꾸리면서 그분을 꾸준히 찾고 있는 이들에게 보상자가 되실뿐 아니라 그분은 아예

보상 차체이다.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행복의 바깥쪽 수단과 표시들이 있다. 그러나 천국의 행복은 내향의 거룩함을 통해 지상에서 보다 더 직감적으로 와진다. 설사 우리가 각자에게 수여된 행복을 영적 차원, 영원한 보상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때일지라도 주님만이 그분의 행복의 척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행복되게 만드실 수 있다고 확신할 수도 있을는지 모른다. 그분의 행복은 그분의 선함의 결과인바 그분은 그분의 선함에서, 그 선함을 통해서만 그분의 행복을 우리에게 수여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그분은 각자의 행적에 의거 그분의 행복을 주신다. 일, 행적(work)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경우 이는 실지의 선함(practical goodness)을 뜻한다. 심정의 선함은 생활의 선함으로 이어진다. 이 선함이 주님으로부터이듯 행적의 보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work)은 보상을 담는 그릇(capacity), 행복을 재는 잣대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각자의 일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보상되는게 아니라 일을 한 실적에 따라 보상된다. 주님이 주시는 상은 그분과 함께 있다. 따라서 그분을 영접하는 이들이 그분의 상을 받는다.

13. 주님이 선함을 심정에 받아들이고 생활에서 그 선함을 명백히 보여주는 이들에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그분을 인물(person) 차원에 국한시켜 생각하면 예수는 영원한 신성 측면에서 처음되고, 신성한 인성은 마지막이 된다. 마치 창조자와 구속자의 차이와 같다. 그러나 천국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인간 마음 안에서 그분은 각 개인의 믿음의 저자요 끝마무리 지으시는 처음과 마지막 분이 되신다. 그분은 동기를 불러일으키시고 판결을 계발시켜 주시어 우리 삶의 방향타가 되신다. 그분은 심장 안에 있는 사랑의 근원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는 점에서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그분은 지성에 있는 지혜의 근원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는 점에서 시작과 끝이 되신다. 사랑, 지혜 그리고 선용(use) 또는 이타애, 믿음 그리고 일(work)은 종교를 구성하는 세 요소이고 동시에 천국과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14. 위 세 요소가 종교를 구성하지만 그 중 특별히 따로 떼어 강조된 것이 일(work)이다.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리를 얻고 성문을 통하여 들어가려고 그분의 계명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복음서를 대표하는 가르침이다.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하고 대답하셨다 (마태 19:16-17). 이 구절과 일치하여 늘 선포되는 것은 사람은 자기 일에 따라 판결된다는 것이다. 계명을 준수할 때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리가 주어진다. 그 이유가 모든 종교는 삶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모든 종교의 생활(생명)은 선을 행하는 것(All religion has relation to life, and the life of religion is to do good)이기 때문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은 선용(use)이라는 어떤 것을 위해 존재한다. 창조물의 본성 내지 특성은 창조물의 선용이 무엇이나에 의거 결정된다. 다시 말해 각 창조물은 각각의 용도에서 그 품질 내지 품성이 체현되고 있다는 말이다. 어떤 나무의 성질이나 구조적 특성 등등 모두는 씨 안에 함유되어 있다. 이 씨를 위해 생산된 게 열매인바 열매 안에 그 나무의 모든 것이 함유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인간은 각자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다. 한가지 진리 되는 말은, 사랑과 믿음 없이 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함도 없이 사랑과 믿음 역시 존재될 수 없다. 행동함은 사랑함과 믿고 있음이라는 두 가지를 함유하고 있다. 행동하고 있음은 행위 안에 사랑하고 있음과 믿고 있음이다. 사랑함과 믿고 있음이 행위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둘은 실지로 존재하는게 아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계명을 행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셀 수 없이 많이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랑하고 있음과 행동하고 있음은 분리될 수 없기에 사랑함은 행동함이고 행동하고 있음은 사랑하고 있음이라는 공식이 세워진다. “만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내 말을 지키리라” (요한14:23). “내 계명을 지니고 그것을 준행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요한14:21).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와 똑같은 진리가 계시록에서 요한에 의해 또 다시 선포되고 있다. 그분의 계명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생명의 나무란 사랑이라는 품위(grace of love)이다. 사랑은 생명이다. 계명들은 생명의 법칙들이어서 과거 유대인들이 믿은 방식인 바깥쪽 생명만을 말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주님이 설명하신 그대로 안쪽 생명까지 포함하고 있다.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는 때는 혼란한 사회질서에 혐오를 느껴 정의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될 경우, 또는 죽어야만 한다고 심각해질 때이다. 이런 경우 역시 사랑의 표현, 약속된 생명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편이 나올는지 모른다. 인간이 부딪치는 극한 상황은 과연 죽음을 피하려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생명을 획득하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가르친다. 어쨌든 무엇이 생명일까?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자체에 천국을 함유하고 있다. 사랑 없이 천국도 없다. 사랑을 획득하는 이들은 생명을 획득한다. 계명을 지키므로 사랑이 획득되고 보존된다. 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자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가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요 증거이기도 하다. 행동함 없는 사랑은 무익한 정서여서 당사자나 타인에게나 유익함이 없다. 이런 상태는 흡사 푸르름없는 봄, 끝없는 여름, 열매 없는 가을 같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네 형제 중 가장 보잘 것 없는 이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나에게 베푸는 것이다” (마태25:40).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동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행해진다. 우리 주위에 이 사랑이 널리 퍼지게 되어 우리 심정에서도 이 사랑은 강세를 얻고 더욱 확증을 갖게 된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동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은 그 낚시조차 있을 수 없다. 계명을 지키는 이들만이 생명의 나무를 차지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이를 달리 번역하면 생명의 나무를 획득하는 힘(권능)을 가진다는 말이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들은 성문을 통해 성 안에 들어 갈 수 없다고 했다. “나더러 ‘주님, 주님’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마태7:21). 계명을 지키는 때만이 우리는 복음서의 일반적 교리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로 교회에 입문하게 하는 주님에 관한 교리도 얻게 되어 거룩한 도성의 진주 문을 통과할 수 있다.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슬기를 깨친 사람이다” (시편111:10).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인지 또는 내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인지를 알 것이다” (요한7:17). 계명대로 사는 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분의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들은 행복하게 지내는 곳, 거룩함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서 거닌다. 인간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잃고, 파라다이스의 문이 자신에게서 닫히게 한 것, 그리하여 자기 머리에 저주만 남아 있게 한 것, 모두의 원인은 불순종이었다. 따라서 생명의 나무를 되찾는 권리를 회복하고 파라다이스 도성의 문이 자신에게 활짝 열리게 해서 영원한 복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꼭 한 가지, 그분의 계명대로 사는 것뿐이다.

15. 위의 상태와 대조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개들과 미술쟁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그것을 만드는 자들은 누구든지 문 밖에 있게 되리라.” 도성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과 똑같다. 위 구절의 사람들은 십계명에서 금하는 악들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 21장 8절에서 언급된 사람들,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만이 그들의 몫이라고 열거된 악행자들과 위 구절은 거의 비슷하지만 한 가지만이 다르다. “개”에 관한 것이다. 더구나 이 구절 맨 앞에서 언급되고 있다. 사실 성경에서 개는 대체로 나쁜 의미를 표현하도록 등장하는 경우가 더 많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마태7:6). 그럼에도 긍정적 측면도 있다. “개는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마태15:27). 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라는 불결함 (베드로후2:22, 잠언26:11)이라자로의 종기를 활게 해서 깨끗하게 한다 (누가 16:21). 개는 수준 낮은 바램 또는 동물적 본성 수준의 갈망을 상징한다. 감각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사람이 도성 밖에 있는 개들에 해당된다. 영적 측면에 정반대 되는 것이 감각 측면이다. “성령이 없는 감각적 인간이

육을 쫓아 사는 이들이다” (유다1:19). 교회 내에 있는 감각적 인간은 교회 밖의 감각적 인간보다 영적 인간에 더욱 반대되어 있다. 마치 진리의 빛에 거슬러 저질러진 죄가 자연의 빛에 거슬러 빚어진 죄보다 그 심각도가 더한 것과 같다. 개가 성경에서 그런 대로 좋은 측면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신약에서 두 군데 있는데 그 경우 모두 이방인들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자녀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면 개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예수께 반문함으로 딸을 낮게 한 여인은 이방인이었다. 이사야가 교회의 목사(pastor)에 관해서 이렇게 말한다. “보초라는 것들은 모두 앞 못보는 소경이요, 집지킨다는 개들은 짓지도 못하는 병어리, 드러누워 공상이나 하다가 놀기가 일쑤구나. 먹어도 먹어도 게걸스런 저 개들, 저 무지막지한 목자들, 모두 제 멋대로 놀아나, 저만 잘되겠다고 욕심부리는구나” (56:10,11). 이 구절은 개가 상징하는 것을 잘 그려놓고 있다. 우리의 감각들은 개처럼 보초를 서거나 주인을 잘 섬기는데 사용되도록 고안되어진 기관들이다. 따라서 이 기관들은 생명에 속하는 수단을 우리에게 공급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보내준다. 그런데 종이 주인이 되는 경우, 감각 본성이 영적 본성을 지배할 경우가 “병어리 개, 게걸스런 개” 라고 위의 이사야는 언급하고 있다. 이런 개는 참 생명, 내적 생명에 유해한 것이 접근할 때는 병어리여서 침묵뿐이다. 주인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 방어해야 하는데 제 욕심에만 급급해 있다. 이런 품성의 감각적 인간이 “문 밖에 남아 있는 개들”이다. 악행의 선두격이 감각 본성으로 저질러진 악행이기에 본문의 각종 악행자 중에서도 첫째 자리에서 언급되고 있다. 다시 말해 감각 측면의 사용여하에 따라 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악, 가장 기본적인 악을 결정짓게 된다는 말이다. 그 외의 악행자에 대해서는 이미 앞 장에서 살핀바 있다. 그러나 앞 장과 본 장의 언급에서 나타나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 “거짓을 일삼는 자” 대신 본문은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 라고 표현한 것이다. 어떤 이들은 거짓을 수단으로 삼는바 거짓말을 도입한다. 어떤 이들은 거짓말을 목적으로 삼는바 그것을 사랑한다. 악마는 거짓의 아버지라 불린다.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버지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쪽에서 본적이 없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정녕 거짓말쟁이며 거짓말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요한8:44). 악마는 악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다. 악은 거짓말의 부모격이 된다. 따라서 거짓말을 사랑하던 거짓을 만들든 그것은 악이다.

16. 이제 장엄한 구절, 가장 깊은 신비를 밝히 보여주시는 구절을 살피게 된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이다.” 예수는 이 예언의 시작이시며 끝이 되신다. 계시록의 모든 사항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시어 그로 하여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증언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이시다. 예수께서 천사를 수단으로 증언한 사항 중 가장 위대하고 가장 장엄한 사항은 그분에 관련된 사항들이다. 그분은 파노라믹 환상(panoramic vision)의 한 증앙을 점유하신다. 그분 주위는 어둡고 두통거리로 꽉 차있어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그분만은 영광의 빛남 속에 있으신다. 그분은 흔들림 없는 평정으로 계시면서 사라지고 있는 세상을 새로운 창조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대체해 주시고 있다. 이런 창조, 이런 사라짐을 자연계의 창조, 변화 등등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이것은 교회에 관련된 사항들이다. 그분이 누구라고 밝히신 위 구절은 세상에 관련된 게 아니라 교회와 그분과의 관계에 관련된 말씀이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분이 창조자이셨다는 측면에서가 다윗의 뿌리이고, 그분이 구속자이셨다는 측면에서는 다윗의 자손 되신다.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은 그분 안에서 하나되어져 있다. 이것은 위 주제의 명백한 의미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의미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예수라는 한 인물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은 창조자와 창조물이 그분의 인격 안에서의 하나됨을 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자연적 수준의 하강을 수단으로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 되셨을 뿐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도 되셨다.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심으로 그분의 인성은 여느 사람의 인성과 같아졌다. 그러나 그분이 영화하셨을 때 그분의 인성은 더 이상 연약한 인성도 아니고 물질적인 한계에 부딪치는 인성도 아니요, 유한하지도 않은 인성이 되셨다. 인간적 부모로 파생된 모든 것은 고통받으시고 죽으심과 더불어 사라지고 결코 고통이 있거나 죽지도 않는 인성으로 다시 일어나셨다. 그분의 인성은 불멸할 뿐만 아니라 그 인성만이 불멸이다 (디모데 전6:16). 그분의 인성은 살아 계실 뿐 아니라 그 인성만이 참 생명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것 처럼 아들도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요한5:26). 주님의 인성이 이와 같을 진대 어떤 측면이나 의미에서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란 말일까? 통상의 자연적 차원의 의미에서 말하는 것, 자식은 그 아버지의 후손된다는 차원이 아니다. 예수는 한분 아버지 즉 하느님만을 가지고 있다. 그분이 육을 지녔을 때 조차에서도 그분은 마리아의 아들임을 결코 인정 않으셨듯이 다윗의 후손인 것도 결코 인정 않으셨다.” 예수께서 바리사이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떻게 된 일이나? 주 하느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신 말씀,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고 다윗이 읊지 않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감히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태22:42-46). 위 질문에 기독교인이 대답한다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답할 것이다. 다시 말해 다윗의 주님은 신성 측면의 주님이요 다윗의 후손은 인성 측면에서의 주님이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하느님이시자 인간이셨다는 말은 가장 참된 진리이다. 그분은 다윗 이전에 계시다가 다윗의 계보로부터 하강하셨다. 그러나 이 하강은 인간적 어머니 쪽만을 통하는 다윗의 후손에 해당되는 말이다. 따라서 그분에게는 인간적 아버지는 없다는 말이다. 이 부분이 여느 인간과 한분 인간으로서의 예수에 큰 차이가 있게 한다. 우리의 인간 본성은 한쪽 부모로부터 파생된 속성으로는 구성되지 않는다. 어머니 쪽은 우리의 바깥쪽, 보다 낮은 측면의 본성을 공급한다. 아버지 쪽은 우리의 내면에 속한 것, 더 강한 쪽의 인간 본성, 더 바뀌기 힘든 쪽의 본성을 공급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머니 쪽보다는 아버지의 자녀 되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말이다. 같은 이유에서 예수께서도 어머니 쪽보다 아버지의 아들 쪽에 탄생 때부터 더 기울어 계셨다. 인간의 경우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는데 따른 차이점이 있을진대 그분의 경우 더 더욱 심할 것이다. 인간의 부모는 유한하고 죄가 있으나 그분의 경우는 무한하고 완전하시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영원으로부터 탄생, be gotten from eternity”이라는 신성한 본성 측면만으로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시간 안에 탄생된 그분의 인성 측면도 하느님의 독생자이라는 것까지는 굳이 강조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가르치고 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된 측면에서도 예수는 하느님의 독생자 되셨다. 신성한 아버지로부터 수태됨으로 파생된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예수 안에 내재한 신성은 이런 점에서 구분되고 사실 아버지 자신이셨다. 예수 안의 순수한 신성은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이셨다. 아버지로부터 수태되는 게 인간의 내적 본성이요 그 안에 아버지가 내재한다. 어머니로부터 취해지는 인간의 외적 본성은 그분이 인간 사이에서 거하실 수 있게 한 육이요 이 육신을 통해, 이 육신이 그분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했다. 이분에게 은총과 진리가 충만했다 (요한1:14).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양 측면에서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바래시고 행동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구분해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그분이 생각하고 바래신 것은 내적 인성으로부터(from His inner Humanity)가 아니라 외적 인성 안에서(in His outer Humanity)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예수의 생각이나 바램의 모든 뿌리는 예수의 내적 인간 안에 있었지만 그 자체가 드러나 명백해진 것은 외적 인간을 수단으로 이루어졌다.

사실 인간 존재 모두에게도 위의 절차는 있다. 생각과 언어는 서로 구분된다. 생각은 내적 인간에 속하고 언어는 외적 인간에 소속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는 말을 가지고 생각한다. 생각을 실어 나르는 수송수단이라는 점에서 보면 생각의 근원이 언어에 있다고 우겨도 될지 모른다. 주님의 인간 본성 역시 우리의 것과 똑같은 법칙에 따르고 있다해도 그분의 생각과 행동은 우리의 것과 다르다. 마치 부모의 근원이 우리와 아주 다르다는 것과 비슷하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와 견주어 볼 때 이런 말을 해야 적당할 것 같다. “천국이 지상보다 더 높듯이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더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다.” 한마디로 예수는 신성한 인간(a Divine man)차원에서 생각하셨다. 그분의 생각들은 사랑과 지혜에 관한 생각들, 전 인간 종족을 위한 사랑, 인간 구속과 구원을 위한 사랑의 힘이 표현되는 지혜에 관한 생각들이었다.

예수께서는 본인을 신성한 인간으로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인정하거나 말하신 적이 없다. 마리아로부터, 다윗의 씨로부터 받은 예수의 인간 측면은 일시적인 거주지, 내려오는 데 필요했던 성막, 파괴되어져야 할 성전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예수가 무덤에서 일어나신 이후의 인간 측면은 더 이상 물질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영적인 것, 정녕 신성이었다. 이런 인성으로 계신 예수께서 일곱 황금촛대 사이에 계신 것을 요한은 보게 된 것이다 (계시록1:12-16). 위에 열거한 내용 중 어느 것이 “마리아의 아들” 또는 “다윗의 후손”된다고 우길 수 있을까?

어쨌든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시고 있다. 요한이 그분을 영가운데 (in the Spirit)에서 비옵듯 위 본문 글자는 자연계의 글자가 아닌 영계의 글자로서 생각해야 마땅하다. 물론 계시록의 글자 모두가 그러하다. 다윗은 주님의 한가지 예징(type)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 그는 왕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했다. 주님은 천국과 교회, 인간의 심정에 있는 그분의 왕국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런 왕국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주님께서서는 이 본문에서 그분이 다윗의 뿌리요 그 후손이라고 말하시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다윗의 뿌리요 그분의 진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주님의 사랑이 심정을 통치하고 주님의 진리가 이해성을 통치할 때 예수는 그 사람에게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후손 되신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타애는 믿음의 뿌리이고 믿음은 이타애의 후손이기도 하다.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신 예수는 빛나는 샛별이시다. 야곱의 별과 베들레헴의 별 모두 총명과 지혜의 빛에 앞서 있게 되는 지식의 빛으로 예수를 향해 있다. 밝아오는 하루를 알리고 태양이 떠오를 것을 시사하는 빛나는 샛별은 계시록의 끝 부분, 새 교회의 시작이라는 하늘의 새 처방을

주제로 삼은 계시록 끝 부분을 장식하는데 매우 적절하다. 베드로의 말, “이것으로 예언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동이 트고 샨별이 떠오를 때까지는 어둠 속을 밝혀주는 등불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베드로후1:19). 그의 말 역시 새 처방이라는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신앙자에게 있게되는 새 삶의 시작은 빛과 사랑의 새 처방이 그에게 있다는 말이다. 새 날이 세상에 여명을 주고 샨별은 일반적 계발이라는 시대를 약속해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지성에 동이 트고 우리 심정에서 샨별이 떠야만 가능하다.

17. 천사를 통해 예수의 메시지는 이런 화답으로 이어진다.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소서’ 하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 성령과 신부란 천국과 교회를 뜻한다. 성령은 그분이 거하시신 이들을 통해, 그들 안에서 말하신다. “성령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다...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로마서8:16,26). 기도에서 거룩한 바램을 성취하려면 천사이든 인간이든 모두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자기 안에 내재하는 성령이 사랑할 수 있는 바램을 주지 않으면 신랑이 오시라고 기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구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동시에 거론된 이유는 천국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하나되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 교인의 경우 그의 심정과 지성이 하나되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성령은 지성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고 신부는 심정에 있는 사랑의 애정이다. 이런 상태가 조성된 곳에서 주님의 증언은 충실한 증거를 발견한다. 따라서 그분이 오신다는 약속 역시 진지하고 열렬한 응답이 있다.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는 본문 같이 동시에 기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심정에 가득차 넘친 것이 말로 표현된다. 또 하나 꼭 응답하도록 타일러지고 있는 우리의 자질, 또 다른 계층이 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소서’ 하고 말하라”이다. 듣는다는 것은 경청해서 순종한다는 뜻이다. 타인이 말한 것을 듣고 되풀이한다는 것은 타인의 권위에서 받아들여 행동한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제 자신의 확신이 있어 받아들여 행동한다고 해석하는 게 더 나올 것이다. 이를 한 개인에 국한해서 응용해보면 외적 인간 또는 자연적 수준의 마음이 영적 수준의 마음에 경청하여 응답하는 모습에 해당된다. 그 이유가 내적 측면의 인간에 소속되는 것이 의지와 이해성 또는 생각과 애정인 반면, 외적 측면의 인간에 소속되는 것은 말과 행동이기 때문이다.

위와같이 되는데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더 있다. 우리에게 오서 달라고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야만 한다.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한 밤 중에 이런 큰

소리가 있었다. “보라, 신랑이 온다. 그분을 맞으러 나가라.” 본문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라고 말하는 한편,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오소서 라고 말하도록 권면되고 있다. 목마른 사람도 오도록 초대되고 그가 원하면 생명의 물을 거저 마시도록 보증되고 있다. 상호성(reciprocation)은 구원의 필수적 조건이다. 그 이유가 이것은 거듭남의 필수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해야 하고 그분을 뵈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까지 해야 한다. 이 진리가 옳을 것이라고 대다수가 인정하지만 그 이해는 불완전해 있는 듯 하다. 성경의 이런 서술은 한가지 총명한 결론으로 맺어지도록 조심스럽게 비교되고 병합되지 않으면 마음에 혼동된 인상만을 남길는지 모른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로서, 인간의 일로서, 그리고 양쪽 모두의 일로서 말해진다. 이 모두는 진실이다. 그러나 이 세가지의 일이 동등하게 진리인지는 명백하게 보여지지 않고 있다. 널리 유행해진 생각은 이렇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간은 무력한바 구원은 인간의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리인즉, 개개인의 일로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디도서2:11).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라신다” (데모테오전서2:4). 그리고 “...누구라도 멸망하는 것을 바라시지 않는다” (베드로후서3:9). 이상 살핀 바 같이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뜻에만 의존한다면 모든 사람은 구원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러한 예들을 가지고 생각해본다 해도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목적 측면 뿐만이 아니라 수단 측면에서도 구원이 있기를 바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비신앙적인 욕망을 지닌 자신을 부정하고, 진리의 지식으로 오고, 회개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되기를 바라신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 역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필립보서2:12). 또 하나 참된 것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다 (필립보서2:13). 여기에 곤란한 점이 있다. 만일 우리의 의지와 행동들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 우리의 선택과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의 자연적인 삶은 이런 수수께끼 같은 질문의 답을 얻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 (사도행전17:28). 그럼에도 우리는 자연적인 삶을 규율해가고 자연적인 움직임을 통제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는 우리의 영적 활동이나 영적 상태를 우리 스스로 조절하거나 선택하지 못한다고 믿는 이들에 의해서까지도 용인된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방법, 모든 일 처럼 신비롭다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우리가 이를 더욱 탐사한다해도 알게 되는 것은 결국 일부에 불과하다. 경이로움은 이해의 범주를 넘어 놓여 있다. 이런 사항은 우리를 겸양있게 만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회의적인 시각으로 치단을 필요는 없다. 그 이유가 우리는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믿음을 지휘 감독하는데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는바, 하느님께서서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있는 창조물로서, 그리고 우리가 만든 선택에 책임이 있는 창조물로서 대우하신다. 인간이 자유를 지녔다고 해서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충족시키는데 이겨낼 수 없는 곤란은 하나도 없다. 창조자 자신이 우리에게 자유의 선물을 주신게 아니어서 일까? 게다가 그분이 근원적으로 수여하신 것을 꾸준히 보존할 필요가 없어서 일까? 하느님의 완전한 충족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상반된 생각이 아니고 둘 다 공히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진리이다. 생명의 근원이 한분 하느님이듯 선의 근원도 한분인 하느님이다. 그분 없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다.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을 때 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있고 번성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 반대로 포도나무로부터 잘라 낸 채 있는 것, 어느 것이든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 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린다.” (요한15:5-6). 여기에 가장 깊은 우리의 책무와 높은 특전이 있다. 우리가 전능하신 구세주 안에서 살고 있다 해서 우리의 그 삶이 소극적인 차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나,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일해야 한다. 그분의 일도 우리의 협동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협동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신 자질을 심분 발휘하는 것, 그분이 설비하신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타인에게 분배함으로 그분께로 그분의 선물을 되돌리는 것이다. 이런 노력 안에 자아 정의나 자아 공격 같은 것을 위한 어떤 바탕이 있을까? 거기에는 심정의 겸손함과 은유함, 성실과 순종, 은택과 사랑의 큰 움직임(cause)만이 있을 뿐 자만이나 허용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예수께로 끌어 당겨주는 바램에 영감을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목마름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해결시켜주는 물도 공급하신다. 그럼에도 이 바램은 마치 그것의 첫 근원이 우리의 의식세계 깊은 곳에 있는 듯 거의 우리 자신의 것인 양 되어있다. 이렇게 독립된 채로 있다는 것은 그 얼마나 경이로우면서도 은택의 일인가! 의식세계가 자아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계시에 의해 개발된 이성은 그것을 하느님의 것으로 돌린다. 이리하여 자연적인 지각은 영적인 믿음을 수단으로

균형을 갖게 된다. 모든 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 아마 우리의 행복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생활은 결말짓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고 있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 이 구절이 가르치는바, 선물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구매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선물은 돈 없이, 가격 없이 제공되어진다. 이 선물은 자유로운 선물, 자유롭게 받아야만 한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자유롭게 제공되었다. 대단히 귀중한데도 값을 치르지 않는다. 이런 견해도 세상에 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구입되어 왔었다. 따라서 비록 주는 자(the Giver)로부터는 공짜(free)가 아니라 해도 받는 자에게는 공짜로 받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은 어두운 시대였던 타 때문이겠지만 새 예루살렘을 비추는 하느님의 빛 앞에서는 즉각 시들고 만다. 선물을 제공하는 예수는 그 선물을 근원적으로 소유하신 그분 자신이었다. 그분께서 행동하시기 위해 육 안에 오셨던 것,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 영(the Spirit)으로 오시는 것은 하느님으로 하여금 생명의 물을 값없이 주실 수 없던 것이 가능해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으로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한 개의 방법이 있었다. 창조자께서는 인간과 관련하여 그분의 권능을 배가 시키셨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인간 본성을 입으시고 그것을 영화하셔서 그분의 창조물과 새롭고 더 가까운 관계에 그분 자신을 가져다 놓으셨다. “자녀들이 피와 살의 분담자이듯 그분께서도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한 평생 죽음의 공포에 싸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다”(히브리서2:14,15). “그분은 친히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모든 사람을 도와 주실 수 있으시다”(2:18). “그래서 온전함을 만드셨은즉 그분은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저자가 되셨다”(히브리서5:9).

18,19. 생명의 물을 거저 가져가는 이들에게 이런 주의사항이 뒤따르고 있다.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드립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서 주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버리면 하느님께서 생명의 책과 기록한 도성으로부터, 그리고 이 책에 씌어 있는 것들로부터 떼어버리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의 완성된 정경(canon)으로부터 떼어 내거나 첨부하는데 대한 엄한 경고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고는 모세에 의해서도 주어지고 있다(신명기4:2,12:32). 그러므로 묵시록에 있는 증언은 묵시록 자체를 두고 한 말이다. 이해관계적인 동기로부터 인간은 거룩한 성경에 어구를 삽입하거나 일부 삭제하거나 해서 그 책을 부패시킬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 어떤 경우 그렇게 하였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런 범죄에 가담된 이들은 무거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하느님의 말씀은 순수하다...거짓말쟁이라고 꾸지람을 듣지 않도록 그분의 말씀에 아무 것도 더 보태지 말라” (잠언30:5,6). 비평문들은 판단의 잘못으로부터 성경의 원문에 상해를 입힐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무지의 죄이고 어떤 위법이라 말할 수는 없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경고는 거룩한 원문의 보존이라기 보다는 그 원문 속의 가르침의 권위, 그 진리들의 순수함의 유지 보전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 말씀은 많은 고통을 받아 왔는데 그 중 어느 책도 아마 계시록의 부분만큼 자연적 수준의 해설자들의 수고로 고통받은 책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해설자들의 직능은 거룩한 원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어느 해설자도 충만한 수준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영감 받은 오직 한 사람만이 의미파악을 흠없이 할 수 있다. 모든 사람 각각은 어느 정도나마 보태거나 떼어내야만 했다. 각자는 자기 것의 어떤 것은 보태고 주님의 어떤 것을 떼어내야만 했다. 이런 결과는 가장 낮고 가장 현명하다는 주석자로 하여금 도덕적이고 지적인 미완성과 떨어질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 지적 자만, 또는 부분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해서, 신학적 열정이 들끓어 자신을 자극시킨 이들은 사악한 방법을 따르거나 재간을 부려서 자신이 당초 의도하고 싶었던 목적으로 성서 해설이 되도록 유도해간다. 이런 인물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려 해서라기 보다는 제 의견을 확증하기 위해서 일 뿐이다.

위와 같은 해설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구절의 경우에서도 위와 같은 수법을 동원한다. 따라서 이 구절은 제한된 어떤 사람들 내지 어떤 부류의 계층에 해당된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하시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경고는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순박함(simplicity)과 고결함(integrity) 안에서 보존되어야 하는 이 책의 내용물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과 실제에 관계되는 원리와 위대한 진리들이다. 두 개의 큰 진리는 이 예언이라는 옷감 전체를 꿰매고 있는 금실(threads of gold) 같다. 주님과 그분의 법, 또는 하느님으로서, 인간의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른 삶은 수없이 다양해지는 형체로 나타난다. 이것은 기독교의 필수되는 두 원리들이다. 이 원리들은 과거 유대종교에서는 덜 발달된 상태로 있었고, 더구나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다른 종교에서도 대단히 미숙된 상태에 있었다. 그런 이유가 이 두 원리는 천국과 교회의 기둥들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 유대인의 경우 같이 한분 주님 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그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율법과 예언을 충만 되게 한다. 주님에 관한 지식과 이웃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는 이 두개의 명령은 모든 종교의 총계(sum)이다. 그 이유가 이 두 가지 명령은 영적 삶에 관련되는 모든 법칙의 총계이기 때문에서이다.

어떻게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큰 주제의 가르침에 관련해서 이 책의 예언의 말에 더하거나 빼어 냈을까? 이 똑같은 경고를 두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유대 율법학자들은 그들 성경의 원문을 감시하는데 얼마나 꼼꼼했는지 그들은 모든 책의 단어와 글자를 세었다. 그들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명령에 이렇게도 조심을 해온 반면 글자의 영은 소홀히 취급했는데, 자기들의 전통을 수단으로 명령이 아무 효과 없게 만들고 말았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법의 영향력을 빼어내고 쓸모 없는 예식조항이라는 짐을 그 법 위에 놓아 무게를 더 했다. 거룩한 원문을 기특하리만큼 존경하고 또한 세심한 주의까지 기울인 기독인들인데 원문의 신성한 진리의 순수성을 보존하는데 있어서는 세심한 배려가 충분치 않았다. 이 진리에 그들은 보였고, 이 진리로부터 그들은 떼어났다. 말씀의 가르침에 의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창조자요 구속자이시다.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하고 장엄한 진리에 세 분 하느님에 관한 교리를 가르침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느님의 완전한 신성이 거주하시는” (골로사이2:9) 그분에게 두 개의 다른 인물(Person)을 보태놓았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육을 입은 천사 또는 단순히 한 인간으로 간주해 그분의 신성을 부정함으로 위 진리를 원문에서 떼어냈다. 게다가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인정하는 이들까지도 그분의 인성의 신성함을 부정함으로 주님께 관한 진리로부터 그것을 떼어냈다. 계명과 계명에의 순종이란 점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다른 방법에서 그 것들에 더해 왔는데, 이것은 얼핏보기에는 반대되는 듯 하나 그 양 끝은 서로 만난다. 어떤 이들은 명령을 충족시키는 것이 있다고 간주한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계명의 충족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고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교회의 권위로 세워졌을 때 사람들은 그런 의견을 “보태거나 떼어내는” 죄를 유발한다고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신학적 견해로서 받아들여지는지 모른다. 견해 자체만 가지고는 정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모든 잘못, 비록 그 자체로는 흉악하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것은 죄가 되는 쪽으로 간접적으로 인도한다. 그것이 악을 좋아하는 만큼 우리의 잘못은 우리로 죄의 재앙을 받게 한다. 그것이 선을 저평가하는 만큼, 그것은 생명의 책으로부터, 거룩한 성으로부터, 이 책 안에 씌어진 것들로부터 우리의 몫을 떼어낸다. 진리는 우리가 바라는 대상이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진리는 순수해서 우리를 순수함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분이 너희를 꾸짖지 않도록 그분의 말씀에 보태지 말라” (잠언30:5).

이 책의 말씀 또는 성경의 말씀에 어떻게 더하고 빼어 내지는가를 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해도 이 책이 밝히 알리는 본질적 진리를 믿음과 실제에서 고집스럽게 떼어 낸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치명적인 악인가는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주어지는 경고는 과거 시대 만큼이나 현시대의 교인들에게 발표되고 있다. 듣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해하는 이들까지, 심지어 듣고 이해한 것에 동의하는 이들에게까지 이 경고는 주어지고 있다. 이 책의 말씀에 보태는 이들에게 재앙이 보태질 것이고, 이 책의 말씀으로부터 떼어내는 이들에게 생명의 책으로부터 그들의 몫이 떼어지게 된다. 이 책에 씌어진 재앙들이란 이미 살핀바 같이 바깥쪽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향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다. 생명의 책으로부터 제거됨은 심정과 지성으로부터 생명의 책의 원리가 제거된다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생명의 책으로부터 그 목차를 삭제할 때까지 생명의 책에서 삭제당한 자는 아무도 없다. 생명의 책의 전체 항목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함이라는 두 계명 안에서 납득되어 진다. 이 계명들을 심정으로부터 떼어낼 때 우리의 몫도 생명의 책에서 떼어진다. 어떤 비평가들이 번역하듯, 하느님께서 “생명나무”로부터 그의 몫을 떼어 내실 것이라고 성경을 읽는다면 덜 놀라웁게 우리를 가르치는 셈이다. 만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들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글자적 의미에서 두 개의 악한 행동과 그들을 위협하는 결과는 다른 인물들에 관계되는 듯 보인다. 영적 의미에서 그것들은 같은 인물에 있는 두 개의 연결된 상태와 관계되고 있다. 우리가 악을 사랑하고 행하는 만큼 우리는 선을 사랑하고 행동하는 것을 중단하게 된다. 우리가 더하는 만큼 우리는 떼어낸다. 우리가 죄의 재난을 자신에게 초래되게 하는 만큼 우리는 생명나무에서, 또는 생명의 책에서 우리의 몫을 잃는다.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뭔가를 떼어내는 이들에게 닥치는 두 가지 다른 재난이 있다. 하느님께서 거룩한 도성으로부터, 그리고 이 책에 씌어진 것들로부터 그들의 몫을 떼어내신다. 거룩한 도성이란 교회이고, 이 책에 씌어진 것들이란 교회의 진리들이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교회의 원리를 뜻하게 된다. 우리가 교회의 진리들을 말할 때 교회 조직의 신앙(belief)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원천을 이루는 믿음과 실체를 뜻한다. 우리 안의 진리가 살아 계신 하느님의 거처를 짓는 만큼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소유물은 잃어질는지 모른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이타애의 생명을 떼어내는 행동들로 해서 이런 모든 소유물은 상실될는지 모른다. 두 개의 위험이 새 교회(the New Church) 속에 있는 이들을 따라 다닌다. 믿음의 진리에 합리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한 이들은 지적 자만에 희생되는 위험이 따라붙게 된다. 이해성을 믿음에 복종시킴으로 해서 정도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듯이 위의 사람들은

그 반대인 믿음이 이해성에 복종하는 과오를 범하기 쉽다. 다시 말해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라고 말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는 구절을 정식으로 숙고하지 않는다. 이러므로 해서 그들은 하느님의 순수하고 완전한 진리에 뭔가를 더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구원의 조건으로서보다는 수단으로서 간주하는 그들은 계명을 지킨데 따른 보상이 품위(grace)속에 있지 않고 일 속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의는 칭찬 받아 마땅한 정의가 된다. 공적주의(merit)는 주님께게서 그분의 영광을 강탈하는 도둑이고, 인간이 향유할 구원을 그 사람에게게서 찬탈하는 도둑이다. 이런 큰 악에서 우리를 지켜야 하리라는 것은 그 얼마나 마땅한 일인가!

20. 다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을 증거 하시는 그분께서 ‘확실히 나는 곧 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이 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이렇게 되는 이유가 예수는 그분의 신부 되는 교회에 오시는 신랑으로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분의 뜻을, 교회는 그분의 바램을 표현하고 있다. 어린 양의 결혼이 도래했다. 그분의 아내는 자신을 준비해 놓았다. 그들이 하나되는데 놓인 장애물은 점진적으로 제거되어 왔다. 결혼식을 위한 준비는 진척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분의 오심은 개인적이든 일반적이든 오심을 바래면서 그 오심을 준비한 한도 내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강림을 만드실 수 있다. 주님의 첫 강림이 있기 전의 경우, 그 당시 존재했던 체계의 어느 것도 공급할 수 없는 결핍된 것, 그 체계의 어느 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함이 있었다. 구세주는 모든 나라의 바램이 되어 갔었다. 인간의 마음은 그 마음을 개선하는 수단보다도 더 빨리 성장하고 말았다. 이런 상태가 큰 도덕적 타락과 일치 않는 것도 아니다. 병든 영혼이 건강을 바랜다. 그리고 건강의 법칙을 위반하면서 살고 있는 때에서조차도 그 영혼은 회복의 수단을 얻으려 갈망한다. 똑같은 상황이 주님의 두 번째 강림에서도 선행되고 있다. 교회는 순수성을, 종교는 그 능력을, 성경은 그 권위를 잃었다. 그들은 학식의 회복과 더불어 재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어두운 시대에서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교회가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다. 설사 교리가 그것을 할 수 있었다 해도 변경된 인간 마음의 조건에 부적당해질 것이다. 마음은 어떤 것을 더 요구하고 갈망하고 있다. 진보하는 수단은 그 정도를 벗어 성장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그 필요성이 요구하는 것을 위해 어떤 설비가 마련되었다. 옛 것은 가버리고 모든 것은 새 것으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옛 것은 새 것의 싹틈을 마련한다. 그 이유가 옛 것이 새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씨 안에 식물의 배아(germ)를 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옛 것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까지 새 것의 생명은 튀어 오르지 않는다. 생명력은

되돌아오는 봄의 햇볕과 비의 도움을 받아 새 형체를 생산하고, 때가 되면 잎으로 옷입고 꽃으로 장식한다. 마치 신부가 단장하는 것 같다. 그 이유가 이것들은 처녀라는 식물의 결혼 예복 같기 때문이다. 인간이 관심을 두는 것들은 마음의 새로운 상태나 조건 없이 새로이 만들어지지 않는바, 새로운 조건으로서만 인간은 새로운 영향과 새로운 선물을 받을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다. 바람이 없는 곳에 수용함이 있을 리 만무이다. 수용함이 없는 곳에 되돌림이 있을 수 없다. 되돌림이 없는 곳에 결합이 있을 수 없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바 교회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받은 그분의 사랑을 다시 그분께 되돌려 드려야 한다. 주님은 교회에 언제나 오시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그분의 오심을 받을 때까지 그분은 실지로 오실 수 없다. 이 오심이 이 구절에서 마치 때가 더욱 더 가까워진 것처럼 전진되어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이전에도 이 응답은 있었지만 지금의 경우는 더 즉각적이고 진지하다. “오소서 주 예수여”는 약속된 신랑의 오심에 신부의 감격적인 바람이 표현되어 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선함이 더욱 표현되는 칭호와 이름으로 인사 받으시고 있다. 이는 응답하는 신부의 상응되는 품위들을 암시하고 있다. 그 이유가 교회는 자신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과 선함으로부터 사랑과 선함이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 측면에서 이는 거듭나는 사람에게 있게 되는 주님의 오심을 말하고도 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심정과 지성으로 하강하신다. 신랑과 신부란 사랑과 믿음이라는 품위(Grace)이다. 이 둘의 하나됨(union)이 천국적 결혼을 구성한다. 안쪽에 있는 사랑과 바깥쪽의 믿음은 서로 간에 관련을 맺는 첫 번째 조건이다. 사랑은 마음의 가장 깊은 데를 통해 직접적으로 오고, 믿음은 들음을 수단으로, 들음은 하느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한다. 심정 안에 있는 사랑이 이해성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상호 주고 받을 때 그들은 하나될 때까지 서로 간에 점진적으로 접근한다. 기독교인의 마음 안에서의 이 둘의 하나됨은 가장 참된 언약이고, 이것은 기독교인이 주님과 하나됨, 주님이 교회와 하나됨의 시작과 바탕이다. 전체는 부분들이 모여 구성된다. 교회는 사랑과 지혜, 선함과 진리로 구성되는데, 이는 추상적 원리로서가 아니라 심정과 지성의 품위들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의 생활이라는 덕행을 구성한다. 마음이 이 품위로 풍부해진 이들, 그들의 생활을 이 덕행으로 단장한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속에 있고 종합적인 몸으로서의 교회를 구성한다. 이는 비록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외관이 어떠한든 하느님 앞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은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취급된 모든 것의 무대 장면이요 주제된다. 여기서 “확실히 나는 곧 간다” 라고 그분이 증언하신다. 그리고 여기서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하는 응답이 있다.

이는 사랑이 심정 안에서 말하고 사랑의 믿음이 이해성으로부터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21. 상호적인 사랑(reciprocated love)은 복된 상태와 함께 천국적인 결혼을 준비하게 하고 그 결혼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여기에 천국이 존재하고, 여기로부터 가장 드높여진 유용함(uses)과 형용할 수 없는 더 없는 행복(beatitude)이 솟아오르느바, 목시적인 환상이 마감되고 있다. 첨가된 축복기도(benediction)이다. “주 예수의 품위(grace)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는 결론일 뿐아니라 그 결과이고, 증결일 뿐아니라 뺌(deduction)이기도 하다. 우리 주님의 품위(grace)는 그분의 은혜(favor)만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이다. 신성한 그분의 사랑은 신성한 그분의 인성 안에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가져와 진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육을 입으신 주님이 교회와 결혼하시는 것을 예언적으로 취급할 때 이렇게 노래한다. “당신은 인간의 자녀보다 더 아리따웁고, 은총이 당신의 입술 안으로 부어졌느바, 하느님께서서는 영원히 당신을 복주신다”(시편45:2).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은 사람들의 자녀보다 더 아름다우시고, 신성한 품위를 받는 그릇이다. 더구나 그것은 참 근원이다. 언제나 복되나 언제나 복주시고 있다. 예수는 완전함의 모형, 선을 주시는 분, 행복의 분배자이시다. 그분 안에 신성이 완전하게 거주한다. 그 이유는 그분 안에 모든 신성이 거주하여 완전함으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성한 인성(Divine Humanity) 안에서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시다. 예수의 품위는 하느님의 품위, 그러나 하느님-인간(God-Man)의 품위,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의 품위이다. 그분의 품위가 우리와 더불어 있고, 우리 안에 있기를 그분은 바래시고 있다. 그분의 이 바램에 우리는 경건한 심정으로 “아멘”이라고 말해야 되리라.